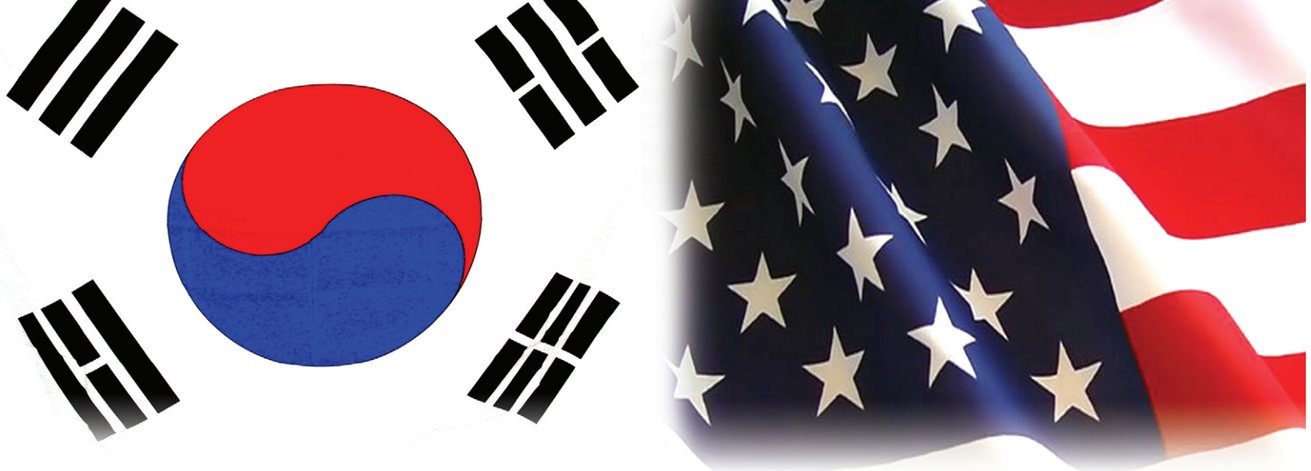


# THE 35 YEAR HISTORY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 교협 35년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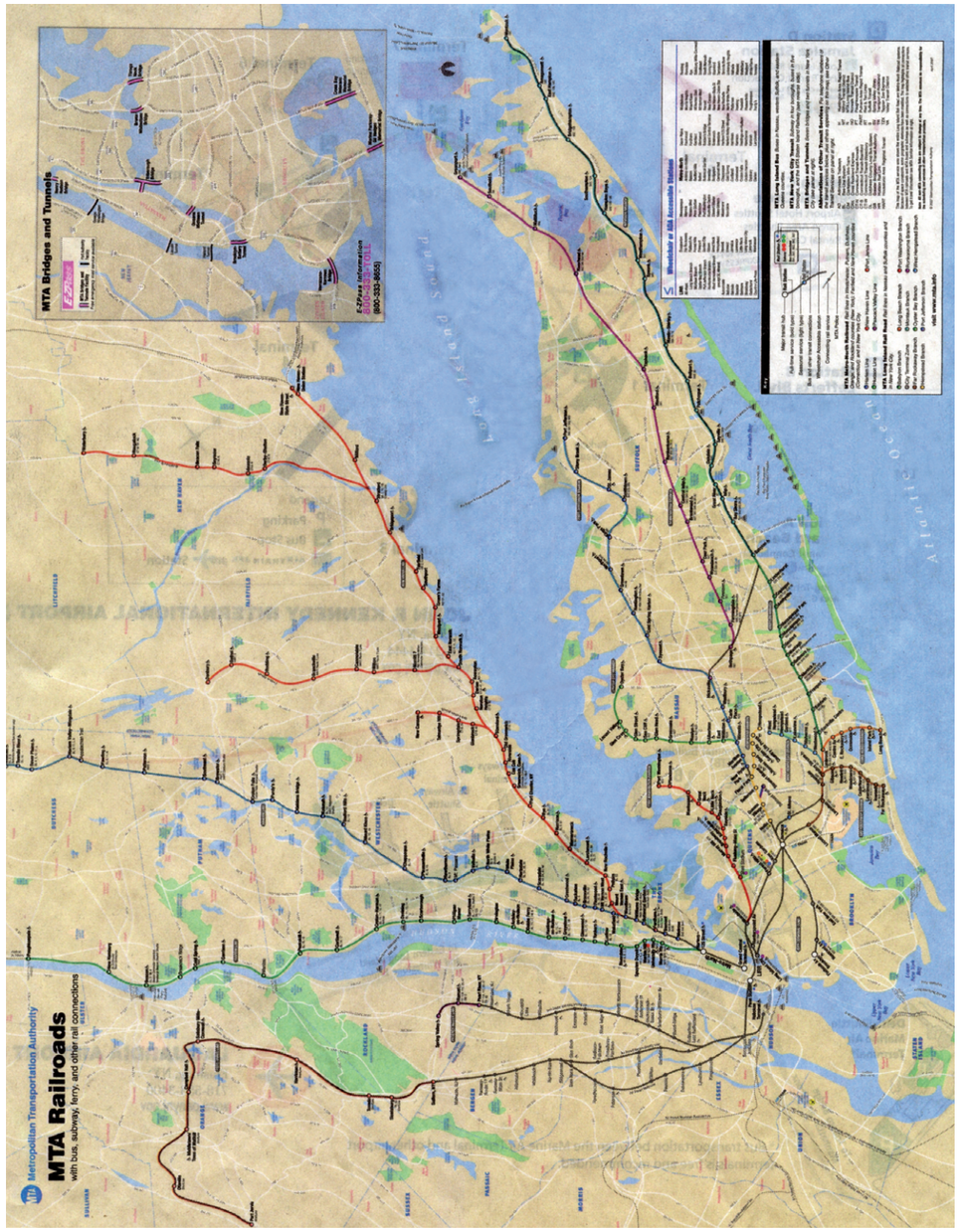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 교협 로고 설명

Logo의 배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며, 구원의 십자가를 한 가운데 두고, 뒤에는 태극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한인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고, 세 줄기의 물결은 당시 본 협회가 관할한 '대뉴욕지구' 즉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를 상징한다.



# 발간사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를 만들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1907년도에 우리 조국 평양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올해 102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여 4~5만 교회와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의 700만 해외동포를 통해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 뉴욕 시에만도 교회가 500개가 넘으며, 우리 동포 50만 중에서 10만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주의 몸을 세워 오늘도 주신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불철주야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교협 회장으로서 자랑스럽고 우리 민족과 동포사회의 앞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밝아 보임을 인하여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기에 특별히 교협 35년사를 발간하게 된 데는 다름아닌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성령 강림 102주년을 기념함이요,

둘째는 35년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하나님의 복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부흥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과, 크고 작은 행사와 뉴욕 지구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형제자매인 성도들의 변한 모습을 연도별로 수록하여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아봄이요,

셋째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이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정성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일들을 글과 사진으로 전수하여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 가운데 수고하신 편찬위원장이신 교협 증경회장 김상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와 그 외 35년사 편집위원들과 교협 35회기 임원들,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교협 증경회장님들과 각 회원 교회들과, 특히 35회기 교협 이사회 이사장과 임원과 회원들과 제작에 힘써 주셔서 계획한 기간 동안에 출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협 35년사를 통하여 역사를 알고 미래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계속 지향해 나가는 교협과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일

최창섭 목사
(제35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현 회장)

# 발간사 From the Publisher's Desk(Publisher's Note)



Praise the Lord!

To the almighty and gracious God who lives and is worthy of our praise! We sincerely lift up your glory for it is your grace that has made the printing of The Thirty-five Years of History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possible.

Since the 1907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Pyongyang, Korea, the churches in Korea have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boasting over ten million believers worshipping God in over fifty thousand churches nationwid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re over seven million Korean immigrants who are actively pursuing the expansion of God' s kingdom. In New York City, there are over a hundred thousand believers in over five hundred churches working together with all their hearts, minds and strengths to fulfill the great mission. Such endeavor for God' s kingdom makes me proud as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and joyful as the future of Korean churches and community look brighter in Christ Jesus.

The publication of the thirty-five years of history of the Korean churches by the council has noteworthy significance.

First is to commemorate the 102nd anniversary of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Jangdaehyun church in Pyongyang.

Second is to compile into an accurate, historical accoun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for readers to observe and appreciate God' s blessings and Christ' s abundant grace.

Third is to pass unto the next generation a vivid, pictorial account of sacrificial faith of their forefathers who served God with diligence and unyielding faith.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a special gratitude to Rev. Sangmo Kim, ex-president of the council who served as the chief compiler, Rev. Israel Park who served as the editor in chief, all the editors, all the officials of the thirty fifth council, all ex-presidents of the council,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uncil, all member churches, and finally to Qumran Publishing House and their president, Mr. Hyungkyu Lee, who made the publication possible within a given time restraint.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e publication of The Thirty-five Years of History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teaches an accurate history and helps thrust churches and the council into a better future with a greater vision. Thank you Lord!

Rev. Joseph Choi

35th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 축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뉴욕 한인 이민사에 엄청난 발족을 남겼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한인 이민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교회들은 교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생하는 교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언어의 장벽이 크고 손에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게 성공하여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어 왔습니다.

뉴욕의 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35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계와 정계 그리고 문화와 예술, 과학과 의학 등 전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뉴욕교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35년 전에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교회협의회를 결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교협 단체로 성장한 것도 세계 교회사에 빛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교협은 하늘나라 복음 확장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전하며 교민을 섬겨왔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바른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집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쉘터(shelter)를 운영하여 한인 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뉴욕교협은 그 동안 화합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연합이 잘되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다른 많은 민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회원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협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교협은 뉴욕과 뉴저지를 뛰어넘어 세계를 섬기는 교협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역사의식과 신학이 분명한 뉴욕교협이 이번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욕교협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큰 일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교민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1일

김삼환 목사
(NCCK 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 축사



망각으로 사라지기 쉬운 의미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의 행적을 보전하는 역사의 기록은 후대의 문화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점도 바로 기록을 통해 역사를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를 함축한 사료를 남기는 것은 인류 발전의 발판이며 그 역동성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교훈과 역사의 가르침을 간과하는 공동체는 결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어리석음의 고리를 끊고 무지의 굴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의 사건과 그 기록으로부터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민족 수난기 이후 핍박과 가난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동포들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족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세계 2위의 선교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교회 복음 선교의 전략 거점과 천국 확장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 일에 미주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 고난은 퇴보와 몰락이 아닌 자기 갱신과 발전의 동인(動因)으로 승화된다는 성경과 역사의 증언을 생각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과 국토의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으로 이어졌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질곡의 역사를 신앙 안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난의 민족사를 통해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및 과학을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다지만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의 발간은 서구 기독교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한국교회사에 있어 단지 뉴욕지역의 한인교회 역사 기록이라는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굴곡의 근현대사에 있어 한반도를 넘어 미주지역에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와 민족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는 귀한 사료를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 한반도에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이주한인들을 통해 미주 교포사회와 미국 본토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교회가 불과 120년 만에 미국과 함께 세계 선교를 거의 전담하는 선교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의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상실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과거 뉴욕지역의 한인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도록 애쓰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35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

엄신형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축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설립 35주년을 맞아 기념집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본인이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해에 출범하였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저의 뉴욕 목회 생활에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기에 교협이 단합되고 발전됨을 함께 기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 몇 안 되는 교회가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섬긴 뉴욕교협이 35년의 긴 세월을 지내 오는 동안 성장하여, 전 교회들이 합심하여 개 교회로서는 하기 어려운 뉴욕교포 복음화를 위한 대형 집회인 '할렐루야 전도대회' 를 매년 치르고 있음은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이는 타 주의 어느 교회협의회도 할 수 없는, 오직 단합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처럼 신학이 복잡하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단들의 퇴치를 위하여 교회협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으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헌신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치하할 일로서, 마음 깊이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세계 중심부인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 정진하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귀한 역사 기념집이 발간됨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당회장, 제4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번에 교협 35년사가 출간된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야말로 그 족적을 후세에 남겨야 할 이민사에 빛나는 교회 연합기관이요, 미국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100주년을 맞아서 교협 역사책을 발간하고자 시작하여 2009년 금년에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된 점, 더욱더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뉴욕교협은 35년이란 세월이 말해 주듯이 이제 인생으로 말하자면 가장 왕성한 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들께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교협은 1970년대 중반기에 설립되어 처음에는 사무실 하나 없이 전전하였으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건물도 가지고 상주 유급 직원을 두고 상당한 예산으로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흐뭇하기도 하고 내심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하여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충동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3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옛말대로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연륜입니다. 35년간 하나님의 보양 속에서 큰 시험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 귀한 교협 35년사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을 여러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출판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당회장, 제7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축사

# 교협 35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창립 이후 35년간 뉴욕 일원의 동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 이민사회를 섬겨왔습니다. 특히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초교파적으로 30회에 걸쳐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하여 동포사회의 영혼을 열정적으로 구원함은 물론 영적 성장을 이룩해왔고, 이단 사이비 등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영성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서 정통 보수 신앙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사회의 동반자로서 오늘날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미국이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되도록 앞장서며 후세들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뉴욕교협 35년사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뉴욕 일원의 한인 동포교회의 설립과 부흥 과정이 정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고자 뉴욕교협의 35년사를 출간한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헌신하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년사》가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뜻깊은 역사서의 발간을 계기로 뉴욕교협이 한층 성장된 모습으로 지역 교회와 이민사회에 바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회와 사회와 동포들을 변함없이 섬기며 동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뉴욕 일원의 한인교회들이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35년간 헌신적으로 섬겨온 뉴욕교협에 속한 모든 분들과 35년사 발간에 수고하신 한분 한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1일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당회장, 제19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편찬사

#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본서를 출판하면서 편찬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본서의 내용이 단순한 역대 회장들의 할렐루야 대회 위주의 사진 앨범과 기사로 끝나지 않고 보다 알차고 후대에 기념비적 역사서가 될 연혁적 편찬에는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적어도 한 세대 30년 이상이면 그 평가와 교훈을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당초의 기획 의도는 뉴욕 초기 이민사와 더불어 교회의 역할, 이민 동포사회에 있어서의 기독교 문화의 허와 실, 이민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한국 이민의 사회학적 분석과 이민신학, 이민자의 정치의식과 참여, 언론, 교육, 예술, 역사와 전통, 청소년 신앙문화의 과제, 조국과 이민자의 애국심, 신학교 난립과 목회자 자질 문제, 이민사회에 준 교회의 공과 실 등, 다양한 신학적 학술 논단을 골격화하여 편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수집이 부진했고 3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 교계의 한계임을 자인합니다.

교협 35년사 초기 자료 수집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초기 목회자들이 타계한 이유도 있지만 개척기 목회자들이 자세한 자료나 문서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이민의 힘든 정착 생활로 초교파 연합운동에 관심 가질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교협 33대 정수명 회장 때 출간 목표를 두고 시작한 것이 34대 황동익 회장을 거쳐 35대 최창섭 회장 대에 이르러서야 출간되니 교계의 쾌거가 아닌가 합니다. 원고와 자료를 제공해 준 역대 회장과 교역자, 후원해 준 교회와 교협 이사회, 감수위원 안창의 목사, 이병홍 목사,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 교협 임원 및 간사, 특별히 쿰란출판사 이형규 사장의 출판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본서가 미래의 반세기 역사 편찬을 위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

김상모 목사
(UMC 원로목사, 제13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 30대 푸른 植木日頌

(시 1:1~6; 전 1:1~2)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5돌날에 –



할렐루야 비전 聖地 개발,
8복 꽃 피우려
장막도 치며 밭 갈기도 암소로
더러는 잿더미에
맨 손발로도 35개 성상
씨 뿌린 선구자여 크도다 상급

성령 평양 강림 한 세기
주 늦은 비 주 이른 비여

갤릭 호 白衣 청교도 후예들 연합
지구촌 중심 뉴욕에 선포하네 주 영광

휠체어, 세족기, 각색 가게에
9·11 유품 성경, 이라크 전사장에
좌판대 11조에 적신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미싱 기침 소리에 꿈에도 애태우고
오해 두건 쓰고도 성자 연습하니

허드슨 강변 나무같이 생수에 키 자라
5백여 교회 말씀 의지 그물 내리고
옥합 깨니 예수 향기 가득해
브리스가 부부, 과학, 언론, 정재계, 법조인,
선교사, West Point, 백부장도 다산했다

우리 교협 30대 2청교도 추수꾼이여
보라 主 연배 35회기 저 흰 밭을

09, 그 聖火 전통 제단에 강림
예수 누룩으로 채우소서 열두 광주리

할렐루야! 8복 상록수 식목일송
합창하며 첫 무지개처럼
제2 퓨리탄 白衣 디아스포라 탑 세우세
제1 퓨리탄 102층 기념탑 마주해
밀레 만종 소리에 부부 기도하듯…….

2009년 9월 1일

조의호 목사
(뉴욕성화교회 담임, 전 목사회 회장, 시인)

축시

# 신앙과 사랑 헌신의 그대여, 뜨거워라!

– 35년 기념 축시 –



그때쯤이었지
우리 사랑 그가 광야를 달려와
피 흘린 몸으로
복음의 종소리 울리고

언약의 무지개
부름 받아 온
세계의 수도 뉴욕,
이민 광야 꿈과 사랑의 씨앗들이 아우러져
독수리보다 힘찬 소망의 깃발 꽂았던
아름의 새벽

지금 그대 사슴의 눈동자
헌신의 사슴 다리
힘차고 고운 꿈이어라

그때, 창세 전 하나님 가슴의
사랑받은 우리는 한 형제
그리스도 꿈의 나라 이루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꿈꾸고 사랑하는 자여 아름답구나

사랑하여 흔드는 손 참 신묘하구나

주님 웃으시며 오라 하신다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가자 하신다

주님 곁이면 참 사랑할 수 있으리
그가 함께하시면 우리
진리의 복음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세상 끝으로
기쁨의 가슴 벅차게 갈 수 있으리

사랑과 믿음의 한울
뉴욕교회협의회여
그의 나라 위하여 뜨거워라 고와라
영광이어라!

2009년 9월 1일

곽상희 권사
(〈현대문학〉 등단 국제계관시인, UPLI)

# 차례


발간사_ 최창섭 목사 • 04

축 사_ 김삼환 목사 • 08

엄신형 목사 • 10

장영춘 목사 • 12

박희소 목사 • 13

김남수 목사 • 14

편찬사_ 김상모 목사 • 15

축 시_ 조의호 목사 • 16

곽상희 권사 • 18

## 제1부 한국 기독교회사

1. 한국 기독교 약사 • 26
2. 한국 교회의 첫출발 • 33
   1) 한국 최초의 순교자요 선교사 • 34
   2)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 • 36
   3) 역사상 최초의 한국 교회 • 39
3. 한국 오순절의 역사 • 41
   1) 널다리교회의 태동 • 42
   2)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운동 • 43
   3) 장대현교회에 임한 성령의 소나기 • 44
   4) 부흥운동과 백만인구령운동 • 47
4.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과 사역들 • 51
   1) 알렌 박사 • 53
   2)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 53
   3) 다른 여러 선교사들 • 54
5. 한국 교회의 격동기 • 57
   1) 일제 36년과 교회 • 58
   2) 8·15 광복과 교회 • 59
   3) 6·25 한국전쟁과 교회 • 60
6. 한국 교회의 도약기 • 63

## 제2부 미주 한인교회사

1. 여명의 아침 • 68
2. 개척기 • 71
   1) 최초의 이민선 • 71
   2) 최초의 이민교회 • 72
3. 미주 이민과 한인교회 • 74
4. 미주 한인교회의 기능과 역할 • 76

## 제3부 뉴욕교회협의회와 신학적 고찰

1. 교협의 정체성과 신학적 비전_ 김해종 목사 • 80

# 차례


2. 뉴욕교협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_ 장영춘 목사 • 83
3.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가_ 박희소 목사 • 86
4. 이민교회와 교협의 역할_ 장석진 목사 • 88
5.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 신학의 정립_ 김상모 목사 • 97
6. 이민교회와 신학 교육의 과제_ 김정국 목사 • 113
7. 할렐루야 대회 역사 회고_ 양희철 목사 • 117
8. 할렐루야 대회의 선교적 의의_ 방지각 목사 • 120
9. 뉴욕 한인교회의 선교적 사명_ 김남수 목사 • 123
10. 할렐루야 대회 소고_ 한재홍 목사 • 126
11. 교협의 공헌과 실상_ 황경일 목사 • 129
12. 한인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_ 신현택 목사 • 135

제4부 뉴욕 한인교회사

1. 개척기 • 142
   1) 최초의 뉴욕 정착 이민 • 142
   2) 최초의 뉴욕 한인교회 • 143
2. 뉴욕 교민과 교회 • 147
3. 뉴욕 한인교회의 기능과 역할 • 149

제5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역사

1. 교협의 태동 • 154
   1) 교회협의회 조직의 의의와 필요성 • 155
2.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창립 총회 • 159
3.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연혁 • 161
4. 할렐루야 전도대회 30년 역사 • 163
5. 2009년 현재 뉴욕교협에 등록된 교회들 • 165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 186

제6부 뉴욕 2009년 동포사회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주 동포 현황 • 660

- 동포 현황 • 660
- 한인회 • 661
- 경제단체 • 663
- 봉사단체 • 664
- 언론(라디오 · TV) • 666
- 재향군인단체 • 667
- 체육단체 • 668
- 동창회(중 · 고교) • 669
- 종교단체 • 670
- 기도원 · 수양관 • 672
- 언론사 • 674
- 공공기관 • 661
- 사회단체 • 661
- 문화예술단체 • 663
- 언론(일간지 · 통신) • 666
- 언론(주간지 · 월간지) • 667
- 직능단체 • 668
- 향우회 · 종친회 • 668
- 동창회(대학교) • 670
- 친목단체 • 672
- 학교 · 학원(한글학교) • 672
- 교계언론 •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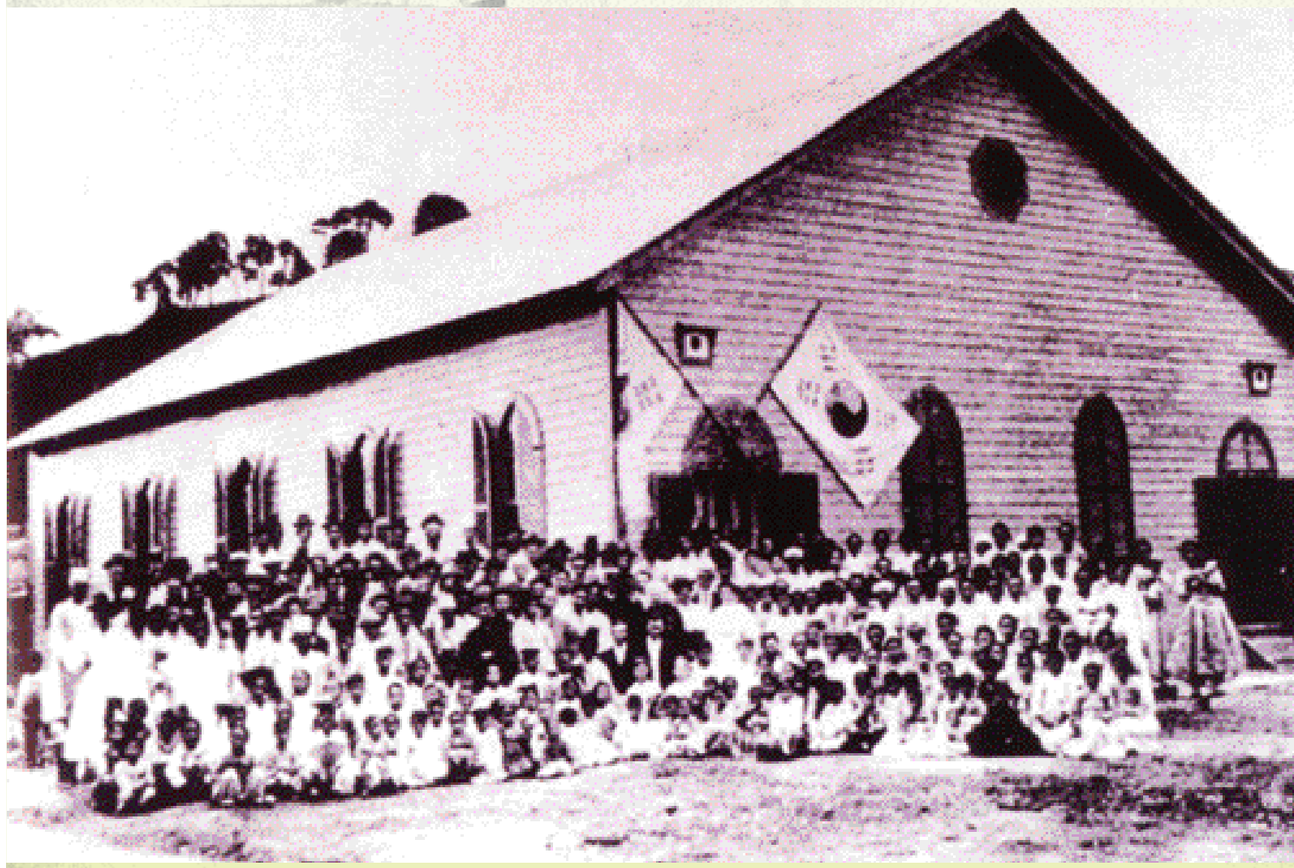
편집후기_ 박이스라엘 목사 • 675

35 YEARS HISTORY



제1부

# 한국 기독교회사



▲ 원산교회: 서구식 두 개의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는 원산감리교회당 앞에 모인 교인들



# 1. 한국 기독교 약사

1627. 네덜란드 벨테브레(Jan T. Weltevree), 일본으로 교역차 항해 중 제주 앞바다에 표류.

1653. 하멜(Handrik Hamel),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에 표류, 36명 제주감영에 압송.

1816. 맥스웰과 홀, 군함을 이끌고 군산 부근(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 갈곶) 정박, 조대복에게 영문 성경을 전함.

1832. 7. 귀츨라프(네덜란드 선교회), 충청도 고대에서 전도 문서와 성경을 전함.

1866. 9. 2.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조선 병사에게 주고 순교함.

1874. 10. 로스 선교사, 첫 번째 고려문 여행에서 상인 백홍준 부친에게 한문 신약전서를 전함.

1882. 10. 6. 서상륜, 영국성서공회의 한국 최초의 권서로 한국으로 파송됨.

1883. 5. 16. 황해도 장연군 솔래 마을에 한국인에 의해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가 설립됨.

1883. 10. 로스 선교사, 요한복음 · 누가복음 · 사도행전 출간.

1884. 9. 20. 의료 선교사 알렌(H.N. Allen), 미국 공사관의 공의로 한국에 입국함.

1884. 11. 룻, 윕스터와 서간도 한인촌을 방문해 12월에 한국인 75명에게 세례를 줌.

1885. 1. 21. 스크랜턴(Dr. W.B. Scranton) 선교사(의사), 한국을 향해 뉴욕 출발.

1885. 4. 5.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인천항을 통해 입국함.

1885. 4. 10. 알렌에 의해 광혜원 설립(국립병원으로 설립, 후에 제중원으로 개칭).

1885. 6. 8. 배재학교 개교함.

1885. 10. 11. 알렌 선교사의 집에서 외국인 12명이 한국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

1886. 5. 31. 이화학당 설립(서울 정동에서 미감리회 여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 설립).

1886. 7. 노춘경, 국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음.

1887. 1. 서경조 · 최명오 · 정공빈,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받음.

1887. 9. 27. 새문안교회, 로스와 한국인 신자 14명이 참석하여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

1888. 4. 28. 금교령 법령(천주교 전교를 금지한다는 법령).

1889. 토론토 대학 YMCA에서 파송한 게일, 독립 선교사 펜윅(Malcom. C. Fenwick) 내한.

1889. 10.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데이비스(J.H. Davies) 목사 부부와 메리(Mary) 파송.

1890. 4. 데이비스, 전도하며 부산으로 가던 중 과로와 천연두, 폐렴으로 순교함.

1897. 5. 예수병원 설립. 남장로회 여선교사인 의사 잉골드에 의해 설립, 개원됨.

1897. 5. 2. 미국 남감리회 초대 선교사 리드 박사가 고양읍교회 설립.

1898. 9.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리어슨(R.G. Grierson), 푸트, 맥레 선교사 파송.

1900. 9. 9. 정동제일교회에서 《신약전서》 출판 기념 예배 드림.

1901. 5. 14.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김창식, 김기범).

1902. 6. 아펜젤러, 목포의 번역자 회의 참석차 여행 중 선박 충돌사고로 순교함.

1903. 10. 28. 기독교청년회 창설(상류 지식층 지도자들과 청년 전도 목적).

1906. 현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 창립 총회(대화회), 교단명을 대한기독교회로 정함.

1907. 5. 30. 김상준, 정빈 양씨가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함.

1907. 6. 감리교 협성신학교 개교.

1907. 9. 17.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 창설, 선교사 33명 모임(한국 최초의 목사 7명을 안수).

1908. 3. 1. 한국인 목사 길선주 주례로 최초의 세례식 거행.

1908. 10. 8. 구세군 한국 본영 창설.

1909. 7. 1. 〈구세공보〉 창간(처음에는 〈구세신문〉이라는 제호로 발간되었다).

1910. 2. 15. 구세군사관학교 개교(한국에 개전된 지 17개월 만에 사관학교 개교).

1911. 3. 13. 경성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교 전신) 설립함.

1911. 9. 대구남문교회에서 열린 제5회 조선노회에서 7개 노회 조직 결의.

1911. 12. 4. 경기충청노회 설립(경성부 새문안교회에서 설립되었음).

1912. 2. 1. 한국 교회 주일학교 위원회 설립.

1912. 9. 1.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

1914. 1. 19. 한국 최초의 유치원인 이화유치원 개원.

1915. 12. 7. 〈기독신보〉 발행(일제 치하 교회 신문으로 1937년까지 속간됨).

1916. 9. 2. 경북노회 분립(제12회 경상노회에서 경북, 경남노회를 분립할 것을 허락받음).

1919. 2. 26. 한국 기독교 연합공의회 조직.

1919. 3. 1. 3·1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전개됨.

1919. 3. 1. 금주동맹회 절제운동(1930년 YMCA를 중심으로 절제운동이 일어남).

1919. 4. 15. 수원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발생.

1922. 11. 20. 기독교 양재여숙 창립(경성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가 설립한 사회교육기관).

1922. 11. 25. 기성 교단 기관지 〈활천〉 창간호 발행.

1923. 8. 18. 한국 YWCA연합회 결성.

1924. 9. 13. 경기노회, 충청노회와 분립.

1925. 10. 1. 한국 최초의 신학박사 남궁혁, 평양신학교 부임.

1926. 2. 18. 기독교연구회(한국 YMCA) 창립(서울 교회 중진들이 민족운동을 목적으로).

1926. 11. 14. 서울에서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영국성서공회 한국 지부 설립.

1928. 7. 24. 청년 면려회 제3회 하계대회 및 정기 총회(연세대학교).

1929. 2. 27. 성결교회 제1회 연회가 소집되고 교회법을 제정.

1931. 5. 29. 《기독교 증험론》 발행(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발행).

1931. 6. 14. 한국에서 최초의 여자 목사 안수(기감 여선교사들).

1931. 9. 11.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봉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추진).

1933. 1. 20. 〈기독교세계〉 창간(기독교감리회의 교회 기관지).

1934. 6. 14. 한국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식(배재학교).

1935. 12. 22.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창립(최태용 목사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교단).

1936. 5. 25. 천주교에서 신사참배 금지 성명서 발표.

1936. 7. 19. 〈기독교보〉 발행(주간으로 1936년 1월 14일 창간된 〈종교시보〉를 개제하여 발행).

1937. 4. 1. 그리스도교 한국선교회 설립(내한한 존 체이스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

1938. 2. 8. 주기철 목사, 평양 감옥에 구금됨.



1938. 2. 12. 장로교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

1938. 9. 10. 일제 총독부가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강요함.

1938. 10. YMCA, YWCA를 해산시키고 일본기독교청년회에 종속시킴.

1938. 8. 16. 〈기독신문〉 발행(1942년 4월 23일까지 발행된 개신교 각 교파의 연합신문).

1939. 11. 15. 《기독교 문답》 발행(이동욱 지음,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발행).

1941. 12. 3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연합회 창립.

1942. 4. 29. 〈기독교신문〉 발행(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합동 기관지).

1943. 9. 일제, 주일 밤예배, 삼일기도회 금지령.

1944. 4. 2. 주기철 목사 순교.

1945. 8. 15. 한국이 일제하에서 해방됨.

1945. 9. 1. 출옥 성도들, 교회 재건 운동 시작, 북한장로교회 재건.

1946. 1. 17. 〈기독공보〉 발행(〈기독교공보〉의 후신으로 1951년 부산 피난 시절 복간됨).

1946. 4. 기독교조선성결교회 제1회 총회.

1947. 5. 1. 〈기독교신문〉 발행(초교파 주간신문, 순복음을 주장).

1948. 4. 20. 기독교박물관 설립(한국기독교박물관은 김양선 목사가 교회사 자료 수집 개관).

1948. 5. 31. 대한민국 국회 첫 개회를 기도로 시작함.

1948. 6. 서울에서 장로회신학교 개교.

1951. 1. 9. 기독교연합전시비상대책위원회 창립(6·25 한국전쟁 중에 조직된 국내 기독교 연합기관).

1952. 12. 15.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부산과 서울에서 전도 집회.

1953. 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창립 총회.

1953. 5. 한국선명회 창립과 함께 구호사업 개시.

1953. 7. 28. 기독교문화사 설립(기독교 출판기관, 김성준 목사).

1953. 11. 13. 기독교어린이문화관 창립(초교파 어린이 문화사업 및 출판사업기관).

1954. 12. 15. 기독교방송(CBS),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방송 개시.

1956. 9. 15.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발행).

1956. 12. 23. 극동방송 개국(복음주의 연맹선교회에 의해 개국).

1957. 3. 15. 〈기독교문화〉 발행(기독교 계간잡지).

1957. 11. 1.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창립.

1958. 5. 10. 한국예수교오순절교회 창립.

1958. 9. 1. 국방부 군종과 발족.

1959. 4. 19.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설립(그리스도교회 무악기 선교사 체서를 중심).

1959. 9. 24. 제44회 장로회 총회에서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분리됨.

1960. 5. 20. 〈기도〉 발행(세계문서선교회의 한국 지부인 한국가정문서선교회의 기관지).

1961. 9. 1.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설립(광주시 대신동 이사무엘 선교사와 Sarah Barry 선교사 설립).

1962. 8. 31. 기독교근로전도회, 한국 설립(불우한 근로자와 불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함).

1963. 4. 23. 기독교구국연합전도회 창립(기독교 연합기구).

1963. 4. 28. 〈금주의 설교〉 발행(기독교 명설교집편찬회에서 편집, 발행).

1963. 6. 3. 기독교오순절협동교회연합회 창립(국내 오순절 교단으로 박덕종 목사에 의해 창립됨).

1964. 1. 21. 기독교인권옹호상담소 창립.

1965. 1. 4. 〈기독신보〉 발행(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 기관지).

1966. 3. 1. 기독교사회윤리위원회 창립(부산 기독복음병원 원장 장기려 박사를 중심으로 설립).

1967. 개편찬송가 간행.

1968. 2. 24. 예수교한국독립교회연합회총회 창립.

1969. 1. 10.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창립(기독교 단체, 기독 의료인, 기독 실업인, 교역자 주축).

1972. 5. 29. 군복음화후원회 설립(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영락교회에서 설립).

1975. 8. 31.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 선언 창립.

1978. 2. 16. 기독교서점협의회, 전국 창립(한국 기독교서점 연합기구).

1979. 9. 15. 기성교단 창립 70주년 기념회관인 '성결회관' 준공.

1981. 1. 29. 100주년 기념사업회 규약 확정(20개 교단과 연합기관 참가).

1981. 4. 9. 한국찬송가공회 창립(한국 개신교 통일찬송가 사업을 위한 교파 연합기관).

1983. 10. 한국찬송가공회에서 개신교가 함께 사용하는 558곡의 찬송가 발행.

1984. 8. 15. 한국개신교 100주년 선교대회 개최(여의도광장에서 예배 드림).

1984. 8. 31.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개관.

1986. 12. 10. 한국컴퓨터선교회(KCM) 창립.

1987. 9. 28. 제77차 침례교 연차 총회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발족.

1988. 9. 9. 제2회 한국 디아스포라 세계대회 개최(서울영락교회).



1988. 12. 10. 〈국민일보〉 창간(1일 16면 발행).

1989. 4. 2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설립(원로목사 10여 명의 제창으로 창설됨).

1989. 10. 8. 제1차 의료선교대회(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개최.

1991. 11. 5~8. 2000년대를 향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개최.

1992. 2. 4.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창립.

1992. 8. 15. '92 세계성령화대성회 여의도광장에서 개최.

1995. 5. 15~17. 제2차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개최.

1995. 5. 17~25.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림.

1996. 8. 5~10. 선교한국 '96(한양대학교), 선교한국 '98(1998. 8. 3~8, 부천 실내체육관).

1997. 5. 30. 기성교단 창립 90주년 기념대회 중앙교회에서 개최.

1997. 8. 10~13. 제1회 기독교사대회 개최(기독교사단체 연합, 강원대에서).

1998. 12. 15. 기독교방송 표준 FM 개국(주파수 98.1MHz, 출력 10KW), 21일 대전방송 개국.

1999. 5. 5. 침례교 선교 110주년 축하집회(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1999. 10. 12. 기독교대책위원회, 단군상 건립 중단 요구.

1999. 11. 30. 대한성서공회, 무역의날 '수출의 탑' 수상(105개 언어로 전 세계 성경의 20% 공급).

1999. 12. 23~25. 영적 각성과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 비전 큰잔치' (성탄절 기념행사로 열림).

2000. 8. 14~18. 2000년 세계선교대회(KWMA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

2001. 6. 8. 재단법인 아가페(기독교도소) 법인 창립 이사회를 개최.

2001. 9. 24. 미국 테러 참사(9·11) 희생자 애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여전도회관에서 개최.

2002. 10. 4. '신의주 특구' 북한 교회 재건 박차.

2003. 10. 20. 한국 교회 연합 7대 원칙 채택 합의.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 문 발표(한기총).

2004. 12. 13. 한국 선교 120주년·한기총 15주년 기념 '한국 교회의 밤' .

2005. 4. 5.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행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인천 내리교회에서 열림.

2005. 5.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북한)이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성가제를 가짐.

2005. 6. 13~23. 고신 선교 50주년 기념 선교대회 개최.

2005. 6. 21. 예장 합동, 개혁 교단과 '합동' (1979년 64회 총회에서 분열하여 26년 만에 합동에 합의함).

| | |
|---|---|
| 2005. 8. 11. | MT 2030 Project 발표(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 10만 명 파송 운동 전개 시동). |
| 2005. 11. 16~18. | '제5회 한국 지도자 국제 포럼', 강화 성산예수마을에서 KVMA 주최로 열림. |
| 2005. 12. | 한국 선교사 14,086명 파송(미국에 이어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로 부상). |
| 2006.5.28~6.30. | '2006년 세계선교대회 및 NCOWE IV' KVMA 주최로 전국 23개 교회에서 열림. |
| 2006. 7. 24~28. | '2006년 세계감리교 대회(KMC)' 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림. |
| 2007. 5. 27. | 성결교 1백주년 '개인 구원 넘어 민족과 세계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
| 2007. 7. 9. | 2007 한국 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 |
| 2008. 1. | 대한민국 168개국에 17,697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음. |

참고 : 한국기독교약사 / KCM

연결고리 : 세계기독교약사, 한국선교사 연표, 오늘의 약사





# 2. 한국 교회의 첫출발



▲ 한국 최초로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송천)리에 설립된 '소래교회'

## 1) 한국 최초의 순교자요 선교사

###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한국 개신교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으며, 또한 순교적 삶을 살아온 선교사들의 피땀 위에 세워졌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1840년 9월 7일 라야드(Rhayader)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59년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New College)를 졸업하고, 1863년 6월 4일 모 교회이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정든 하노버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캐롤라인 고드페리(Caroline Godfery) 자매와 결혼한 뒤 곧바로 런던 선교회 선교사로 1863년 7월 21일에 떠나, 같은 해 12월 초에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중국 선교는 순탄치 않았다. 그의 아내는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고, 그도 중국 선교 책임자 무어헤드 선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선교사직을 사직했다. 그는 언어에 천재적 자질을 갖고 있어서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하였다.

이런 그에게 조선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다. 당시 산동성 즈푸에서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윌리엄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1865년 9월 4일에 윌리엄슨이 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즈푸에서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조선을 향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9월 13일 조선 서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2개월 반 동안 황해도 창린도에 머물렀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한문 성경을 배포하였고 그해 12월 초에 조선을 떠났다.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온 토마스의 마음은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마침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 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동승하여 24명이 출발하였다.

1866년 8월 9일 즈푸를 떠난 제너럴셔먼 호는 백령도를 거쳐 장사곶을 지나 진남포 쪽으로 올라갔다. 가는 도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먼저 백령도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성경 여러 권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8월 20일에는 대동강 하류 보산에 도착하였다.

서먼 호는 계속 대동강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이 소식이 평양감사 박규수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서먼 호는 통상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평양감사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외교 통상이 불가능하다고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먼 호는 대동강을 따라 계속 평양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강서군 초리면 포리에 도착하여 하루 머무는데, 구경 나온 19세 홍신길과 그의 친구들이 배를 구경하고 성경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평양감사는 그때 조사 차관헌을 보냈는데 서먼 호는 이들을 가둬버렸다.

8월 25일, 배는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 봉황진에 이르렀는데 서먼 호의 선원이 당시 경계 임무를 띤 중군 이익현을 납치하고는 계속 평양을 향해 올라갔다. 분노한 관군은 서먼 호가 황강정을 지날 때 일제히 공격했고, 서먼 호에서도 대포를 쏘며 응수하여 마침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2일, 물이 빠져 수위가 낮아져 마침내 배는 한사정 모래톱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다.

관군은 불붙은 나룻배를 떠내려 보내 서먼 호를 불태웠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헤엄쳐 나온 사람들은 칼과 창 그리고 곤봉에 맞아 죽었다. 그때 토마스는 "예수"를 외치며 성경과 전도지를 강둑을 향해 계속 던졌다. 급기야 한 권의 성경을 품에 갈무리한 채 강 언덕 위로 끌어올려져 병사의 칼에 죽게 되었다. 그때 토마스는 성경을 품에서 꺼내 자기를 치려는 병사에게 주면서 전도했다. 병사가 주춤하는 사이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올렸고, 마침내 그 병사의 칼에 하나님의 사자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는 피를 흘리며 순교했다(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는 널다리교회 최초의 교인 중 하나가 된 박춘근이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뿌림과 그가 외치며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에 이 한국 땅에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를 얻고 하늘나라로 갔다.

발췌: 《한국 기독교사, 선교 개척자들의 한국인 접근》, p.2.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4》, pp.1~2.
나광수,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 하노버 교회의 전경

## 2)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5-16).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0-21).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816년 9월이었다. 영국의 두 함선(알세스트 호, 리라 호)이 서해안에 도착하여 2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 배에 문정을 갔던 조대복과 이승열 두 사람이 두 권의 성경(The Holy Bible)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1832년 네덜란드 선교회(Netherlands Missionary Society) 소속 독일인 귀츨라프(Karl. F.A. Gutzlaff)에 의해서도 성경이 반입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1882년부터의 일이다.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로스(John Ross)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스 목사는 1872년 중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중에 한 · 중 국경지역인 고려문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중국과 문화가 다른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어 또 다른 소명을 갖고 4명의 한국인 청년들을 한국어 교사로 초빙하였다. 그들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이다. 그리고 이후 서상륜을 만나 맥킨타이어(John Mcintyre) 선교사의 열정으로 1882년 3월 24일《누가복음》3천 부가 발간되었고, 그해 5월 12일《요한복음》3천 부가 발간되었다. 1883년에는《사도행전》, 1884년에는《마가복음》이 출판되고, 1887년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완역《신약전서》가 출판되었고, 1910년에는 신 · 구약 성경이 완간되었다.

또한 1884년 일본에서는 국비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에 의해 한문으로 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한글 이두로 토를 단《현토한한신약성서》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수정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파송될 때 최초의 선교사가 선교지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 번역에 기여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권서인'(권서인이란 책을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책이나 전도 책자를 파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성경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 교사,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초기 기독교회를 창건한 주역이 되었다)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만든 성경을 배달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에 의한 복음 전파가 놀랍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한국에 들어온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사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발췌: 〈순복음가족신문〉(www.fgnews.co.kr) 성경 번역의 역사 3(우리말 번역 성경의 역사 pp.1~2, 아름다운 소식. 성경의 역사. pp.1~2.
야후! 블로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저 높은 곳……한국 성경의 역사와 실제', pp.1~2.
모퉁이 돌 생각, 1. 북한어 성경, p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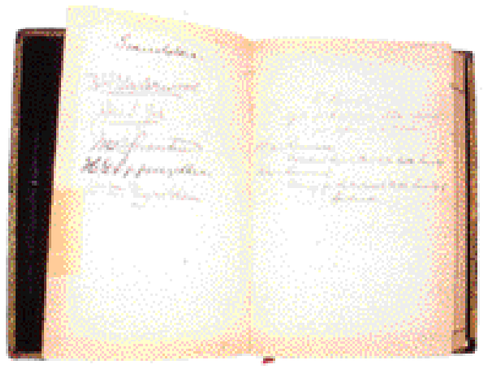
▲ 성서 번역: 초기 성서번역위원들(앞줄 언더우드, 뒷줄 왼쪽부터 이창식, 김명준, 김정심, 19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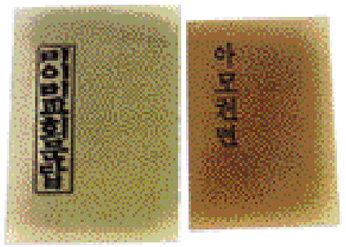
▲ 일본 방문: 한국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 신학생연맹에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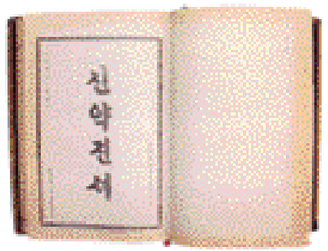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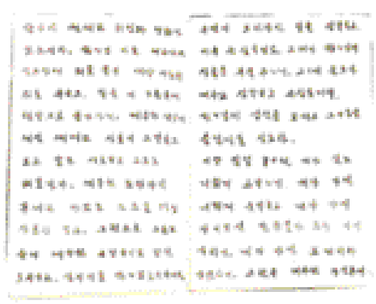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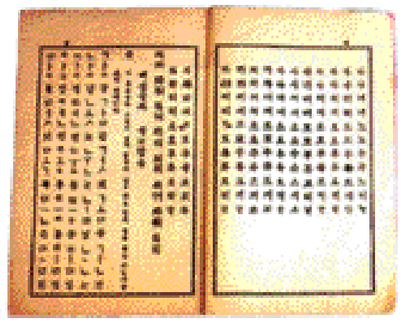

❸




❹



❺



❻

1. 신구약성경: 초기 이민교회의 예배 때 썼던, 한국에서 발행한 구신약성경의 표지(1910년대)/ 국민회관 소장
2. 《신약전서》 뒤표지 안쪽에 번역자인 언더우드, 게일, 스크랜턴, 아펜젤러, 레이놀즈 5명 선교사가 쓴 친필 서명/ 아펜젤러 · 노블 기념박물관 소장
3. 교회 교재: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용한 《미이미(감리)교회문답》과 노블 부인이 저술한 한국 최초의 육아법 책 표지
4. 1900년 대한황성미이미교회 인쇄소에서 간행한 《신약전서》
5. 설교문: 초기 노블 선교사가 한글로 준비한 첫 설교문
6. 한글 교재: 배재학당에서 교과서로 사용한 한글 교과서 《초학언문》



### 3) 역사상 최초의 한국 교회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일이다. 한국 교회에 일어난 기적은 선교사가 오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선교사가 내한하기 이전이며,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1872년,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는 만주에 도착하여, 1년간의 어학연수를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시도하였다. 이때 그는 한 · 중 국경지역인 고려문을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해에 다시 고려문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의주 출신 한국인 청년 4명을 한국어 교사로 초빙하였는데, 그를 따라간 청년들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이다. 이들은 1976년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즉시 성경 번역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한문 실력이 충분치 못하여 번역 사업이 지지부진하였다. 이런 때 혜성처럼 나타난 또 한 명의 의주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서상륜이다. 그는 본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행상을 하는 인삼 장수였다. 순조롭게 행상을 하던 그는 30세 되던 해인 1878년 갑작스런 열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이다. 그는 맥킨타이어(John Mcintyre) 선교사의 끈질긴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1879년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다. 그의 한문 실력이 특출하여 1882년 3월 24일에 드디어 《누가복음》 3천 부가 발간되고, 그해 5월 12일에 《요한복음》 3천 부가 발간되었다.

서상륜은 성경 출판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기 위해 1883년 이른 봄, 자신의 손으로 번역 출판한 성경 100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송천)리에서 전도하여 그해 5월 16일에 소래교회를 설립했다. 한국 교회는 첫 출발부터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번역 출판한 성경을 자신들이 갖고 돌아와 직접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한 것이 한국 교회의 시초이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를 교회사가들은 '민족교회' 혹은 '자생교회'라고 부른다.

#### 초기 서울 전도와 부흥

소래교회를 설립한 서상륜은 두메산골의 자그마한 교회로 만족하지 않고 수도 서울을 복음으로 함락

시키겠다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향하였다. 그러나 전도의 수단인 성경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만주에 있는 로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로스 선교사는 1884년 약 6천 권의 성경을 중국 상인 편으로 상해를 경유하여 보내 주었다.

당시 한국은 쇄국정책으로 기독교뿐 아니라 성경의 반입도 금지되어 있었으나 서상륜은 독일인 묄렌도르프(P.G. Von Mollendorf)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성경을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성경을 입수한 서상륜은 서울에서, 그의 동생 서경조는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역에서, 그리고 성경 번역에 동참하였던 이성하는 의주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 약 300명의 세례 지망자가 있었다고 한다.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 열심 있는 전도인들에 의하여 결신자가 생겼고, 이로 인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내한한 그해부터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한국 교회는 외국에서 복음을 들고 돌아온 토박이 신자들에 의하여 개간되었고,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으며,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된 것이다.

**발췌:** 류영훈,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 〈종교신문〉(2004. 1. 8), pp.1~3.
김대인, 《한국 교회의 첫 출발, 목동제일교회에서》 (1996. 12. 3).





# 3. 한국 오순절의 역사



▲ 평양교회: 새뮤얼 마펫(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가 세운 첫 평양장로교회당/ 한국일보 제공

### 1) 널다리교회의 태동

마포삼열 박사(Samuel A. Moffet)는 1890년 1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개척 등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1893년 평양 선교지부를 개척하고 평양 선교를 시작했고, 1903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세웠으며, 1907년 7명의 목회자를 안수 배출했고, 1919년 8대 회장을 역임했다.

마포삼열은 의주에서 한석진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마포삼열 선교사를 따르게 되었다. 또한 마포삼열 선교사는 1891년 8월 2일 평양에 입성하여 여관집 주인 최치량을 전도하여 구원시켰는데, 1893년 11월 오직 교회를 설립한다는 기쁨으로 평양을 찾아가서 최치량 집 근처에 방 하나를 마련하고 4~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얼마 후에 최치량과 한석진과 의논하여 평양 중심지인 널다리골에 큰 기와집 한 채를 구입하여 '널다리교회' 평양 선교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마포삼열, 이길함 선교사는 열정과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평양 시민을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 전도하여 날마다 수가 더하였다(나중에 장대현교회로 명명함).

놀라운 사실은 장대현교회 초기 성도들이 다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든 병사에게 품에서 성경을 꺼내 건네주고 죽었다. 토마스를 죽인 병사는 그 성경을 집으로 가지고 갔고, 그 후 그 성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널다리교회 최초의 교인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가 바로 박춘권이다. 제너럴셔먼 호 사건 때 11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서양 상선을 구경 갔다가 세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왔고, 박영신이라는 사람은 버려진 성경을 모아다 자기 집 벽에 발랐다. 나중에 최치량이 그 집을 사서 여관을 경영하였는데, 마포삼열 선교사가 투숙하면서 전도하여 널다리교회를 세우는 장본인이 되었다. 장대현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 초대 장대현교회



▲ 개축된 장대현교회

### 2)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운동

한국의 오순절 역사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주재 선교사들이 모여 가진 기도회 동안에 발흥한 원산 부흥운동은 영적 각성의 모체였다. 초기 부흥운동의 모든 자료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산 부흥운동으로 귀결된다는 일치된 견해를 피력한다. 원산 부흥운동이 발흥했던 기도회는 두 명의 무명 여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중국 의화단사건으로 원산으로 피신해 온 여선교사 화이트(Mary Culler White)와 캐나다 장로교 출신 여선교사 맥컬리(Louise Hoard McCully)는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회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 둘씩 기도회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서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캐나다 기독교청년회의 후원으로 1890년 한국 땅을 밟은 의료 선교사인 하디(Robert A. Hardie)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세 번의 강의를 부탁했다.

강의를 부탁받은 하디가 강의를 준비하던 중 말씀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명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한 하디는 그 내면에 학식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미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하디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공개적으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통회했다. 하

디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다. 그 다음 주일 창전감리교회 예배 때 하디는 청중들 앞에서 또다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과 한국인에 대한 인종 편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디의 고백은 한국인들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졌고,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1903년 8월 이후 계속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받기 전 하디와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성품과 인격이 180도로 완전히 변하고 달라졌다는 것이다. 병이 들었음에도 하디에게 치료받기를 주저하며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던 환자들이 하디가 은혜를 받은 후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증언하였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디는 자신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자, 자신을 부흥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에게 그토록 실패감을 안겨 주었던 강원도 지경터로 향하였다. 지경터 새술막에 도착한 하디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가 2주간 인도한 지경터 집회에서 1903년 8월에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디는 이어 개성에서 서울로 향했다. 주님은 이곳 집회에서도 예외 없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와 같은 부흥의 열기에 힘입어 1904년 6월에 들어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1905년에 접어들어 개성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이 계속되었다. 1906년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린 신년 부흥회를 통해 영적 각성의 움직임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강사도 하디였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 3) 장대현교회에 임한 성령의 소나기

1903년 8월 원산에서 시작된 사경회를 통한 회개운동은 한국인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졌고, 회개를 동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는 이후에 계속되어 전국 주요 도시에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성령의 강한 임재와 뜨거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 대부흥 사경회가 열렸다.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저녁에 열리는 집회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도 허용되었다. 이 사경회 기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실 12일 블레어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했으나 13일 저녁에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선교사들과 길선주는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14일 월요일 정오 기도회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이 얼마나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했는지, 그들의 심정은 마치 얍복 강 나루에서 축복하지 않고는 그냥 가실 수 없다며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던 야곱의 심정과 같았다. 전날과는 달리 그날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바로 그날 저녁 집회 때에 부흥의 기운이 터져나왔다. 윌리엄 헌트(William Hunt)의 설교가 있은 후 그레이엄 리(Graham Lee)가 모인 회중들에게 통성기도를 요청하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레이엄 리가 모두 힘을 다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제의하자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울부짖었다. 그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호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고 올라가는 듯했다. 바로 이 시간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처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것이다.

이날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였다. 길선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사 견딜 수 없게 하셨다. 이날 길선주는 일어서서 "나는 은총의 역사를 막는,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그 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듯하여 그곳에 모인 온 회중은 약속이나 한 듯 울음을 터뜨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곳에 참석한 이들은 주변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강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 굴복하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울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칠 줄 몰랐고, 성도들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새벽 2시까지 6백여 명이 모여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날의 성령의 역사에서는 모종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에 모인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공중 앞에서 숨김없이 털어놓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린 통성기도였다. 그것은 회개를 동반하는 기도였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갈구하는 간절한 신앙의 염원이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시며 선교사들에게 이 민족의 복음화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15일(화요일) 집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밤이었다. 이날 집회는 길선주가 맡았고 전날의 전도집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설교를 맡은 길선주의 얼굴은 대단한 위엄과 능력,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불타는 길선주의 외침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능력과 권능의 메시지였다. 길선주가 회개와 고백을 촉구하자 '시내산의 성광' 이 그들 위에 임했으며, 그곳에 모인 이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 목사를 미워했다고 말한 장대현교회 김 장로의 회개였다. 월요일 저녁 강유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김 장로는, 고개를 숙인 채 강단 뒤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는 강단을 붙잡고 "교회의 장로인 나는 강유문뿐만 아니라 방 목사를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김 장로는 블레어 선교사에게 돌아서면서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블레어 선교사는 "아버지, 아버지……"만 계속할 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회 일을 같이하는 김 장로의 그와 같은 고백이 블레어 선교사에게는 "그보다 놀란 적이 내 생전에는 없었다"고 술회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당시 블레어 선교사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동료 선교사 그레이엄 리의 지적대로, 블레어 선교사가 겪은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그날 김 장로의 고백은 마치 기름에 불을 던지듯이 그곳의 집회를 회개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고꾸라지자 갑자기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어 너 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인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이 한데 어울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흐느껴 울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통회하는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고, 한국 교회와 한국을 축복하셨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한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스월른 교사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이 돌아왔다. 도둑맞은 돈도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잡혔다"고 증언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다. 제임스 게일이 표현한 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한국인 공동체를 움직인" 이 같은 영적 변화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장대현교회에 임한 한국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국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변화시켰다. 할렐루야!



▲ 장대현교회 초대 성도들

### 4) 부흥운동과 백만인구령운동

대부흥운동이 한국 교회 신학과 교회 형성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광순은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 초기 한국 교회의 형성과 성장에 미친 중대한 영향력의 특징을 회심운동, 화해운동, 사경회를 통한 시작과 발전으로 보았다. 실제적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한국인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선교사와 한국인의 이질감을 제거하고, 1905년 이후 지속된 민족적 억압과 절망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했으며, 한국 교회가 독립교회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김인수는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진정한 기독교 진리의 터득, 교회의 급성장, 토착적이고 한국적인 특징 확립, 에큐메니컬 정신의 구현' 으로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모습(행 2:41~4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 성장 개념의 차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어 한국 교회에 발흥한 세 번째 부흥운동의 파장은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발흥했던 백만인구령운동이었다.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어 '부흥운동의 두 번째 기간' 으로 알려진 백만인구령운동은, 한국 민족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민족 복음화라는 거대한 공동 목표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가 힘을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한 민족 복음화운동이었다. 로이 스위러(Roy E. Shearer)가 백만인구령운동을 가리켜 '전도운동' (an Evangelistic Campaign)이라고 불렀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구령운동은 1909년 7월 12일 송도(개성) 주재 3명의 남감리교 선교사가, 1907년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위하여 따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 일 후에 그 선교부 소속 10명의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수련회를 갖기 위하여 며칠 동안 산으로 갔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형언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음 한 해 동안 한국 전역에서 100만 명의 새신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을에 열린 총회에 이것을 건의하였으며, 총회는 그 목표를 채택했다.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회는 1909년 10월 9일 금, 토요일에 장 · 감연합공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의장에 무어(J.Z. Moore)가, 그리고 서기에 커(Kerr)가 선출되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 · 감연합공의회는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후 1910년 3월 20일 주일날을 백만인 구령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전국적으로 지키기로 하는 한편, 백만인구령운동을 전국적으로 저변확대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백만인구령운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대중전도집회, 둘째, 연보, 셋째, 복음서 배부로서, 이 일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었다. 이렇게 전국적인 전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백만인구령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3개월간 전국을 다니며 현장을 목도한 조지 데이비스(George T.B. Davis)는 1910년 3월호 〈코리아 미션필드〉에 직접 느낀 "백만인구령운동의 진척" 기사를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백만인구령운동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겸험했다. 선교사들은 이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고 인도하고 있었고, 반면 한국인들은 여러 날을 연보를 드리며 무한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복음서를 구입했다. '금년 백만 명' 의 외침은 번갯불처럼 한국 전역을 휩쓸었고, 한국인은 영혼 구령자로서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증명해 주었으며, 수백 명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심야기도회와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회였다. 1907년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된 새벽기도가 1909년 이후 정착되더니, 이제는 심야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요일 집회도 열고 있었다. 토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두 명씩 마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 날 주일에 사람을 초청했다. 길선주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입을 열고 무엇이든지 말하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외쳤고, 모든 교인들은 그대로 실천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3주 동안의 집회에서 700명이 결신했고, 평양의 남산현감리교회에서는 한 주 만에 100명이 결신했다. 백만인구령운동 전도집회에서 많은 이들이 결신했다.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방식으로 한국 교회에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

**발췌:** 평양 대부흥 [백만인구령운동], 백만인구령운동의 확산, 한국교회사연구소, pp.1~5.
송윤탁, 대부흥운동과 교회 성장: 대부흥운동과 교회 성장, pp.5~7.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민족 복음화, 선교운동으로' ", 〈크리스찬 투데이〉, pp.1~3.



▲ 서울 정동감리교회 초창기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 4.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과 사역들



▲ 초기 선교사들: 한국에서 활동한 초기 미국 선교사들(1890년대, 서울)/ 서동성 제공



▲ 전도자들: 선교사들과 한국인 초기 기독교인들. 모두 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



▲ 초기의 한국인 기독교인들(1890년대)



한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특별했다. 먼저 본국 토박이들에게 외국에 나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경까지 번역하여 그 손으로 가지고 들어와 한국 땅을 옥토로 개간하게 하시며, 때가 이르매 외국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던 것이다.

### 1) 알렌 박사

알렌 박사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 1884년 9월 20일에 의료 선교사로 자청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런데 1884년 10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체국(우정국)을 세워 놓고 낙성식을 하는 날 내로라하는 당시의 인물들이 참석했는데, 옛것을 지키려는 수구파인 명성황후의 오라버니 된 민영익과 새롭게 개혁하려는 개화당의 박영효, 김옥균도 있었다. 그때 개화당 사람이 민영익을 칼로 찌르면서 정변을 일으켜 3일 동안 개화당이 천하를 이루다가 다시 흩어진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이때 한 의사 14명이 민영익을 고치려 했으나 실패했는데 알렌이 민영익을 고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알렌은 궁중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알렌은 궁중 시의가 되어 모든 왕족과 고관들의 가족을 치료하게 되었다. 민영익은 알렌에게 10만 량을 사례하였고, 알렌은 이 돈으로 왕립 광혜원을 설립하였다. 이 병원이 설립되고 2주 후 고종 황제가 '제중원' 이란 이름을 하사했다. 제중원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명되었다. 이와 같은 알렌의 의료 사역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문을 열어 주는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교육면으로는, 묄렌도르프가 우리나라 조정에서 외교관,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영어 강습소를 열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게 현대 교육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884년에는 영재를 교육하는 공적인 학원으로 헐버트 육영공원이 세워졌는데, 이는 최초의 미국식 학교로서 주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다녔다(후에 나라에서 이런 학원을 폐쇄시키자 그 뒤로는 선교사들이 직접 뛰었다).

### 2)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 두 명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항구에 도착했다. 그때는 당장 전도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1887년에 소래교회에 가서 7명에게 최초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1887년 9월 27일에 사랑방에서 14명과 함께 공식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가 새문안교회의 전신이다. 1886년 언더우드는 사랑방에서 고아원 스타일의 학교를 시작했는데, 1891년에 와서 예수교 학교로 바뀌었고, 1905년에 경신중·고등학교로 바뀌었으며, 나중에는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되었다.

북한에는 숭실전문학교, 숭의전문학교, 광성중·고등학교가 세워졌다.

### 아펜젤러

아펜젤러도 1887년 10월 9일에 언더우드처럼 사랑방에서 공식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의 전신이다. 1887년 아펜젤러는 정동 자택에서 교회뿐 아니라 학생 2명으로 학교를 세웠다. 1주년이 되는 때에 고종 황제가 '배재학당' (인재를 배출하는)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 3) 다른 여러 선교사들

### 감리교 의료선교사 스크랜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후 선교사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1885년 자기 사랑방에서 정부 고관 부인 두 사람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다. 1886년 고종 황제의 아내 명성황후가 '이화학당' 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 학교가 이화여대 전신이다.

### 레이놀즈와 6명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 6명이 입국해서 전라도 쪽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때 '전주예수병원' 을 설립했다.

1893년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와서 함경도에 선교했고, 1893년 동양선교교회가 들어와 성결교회를 시작했으며, 영국 구세군도 들어와 선교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며 눈물을 뿌렸다. 그 위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나라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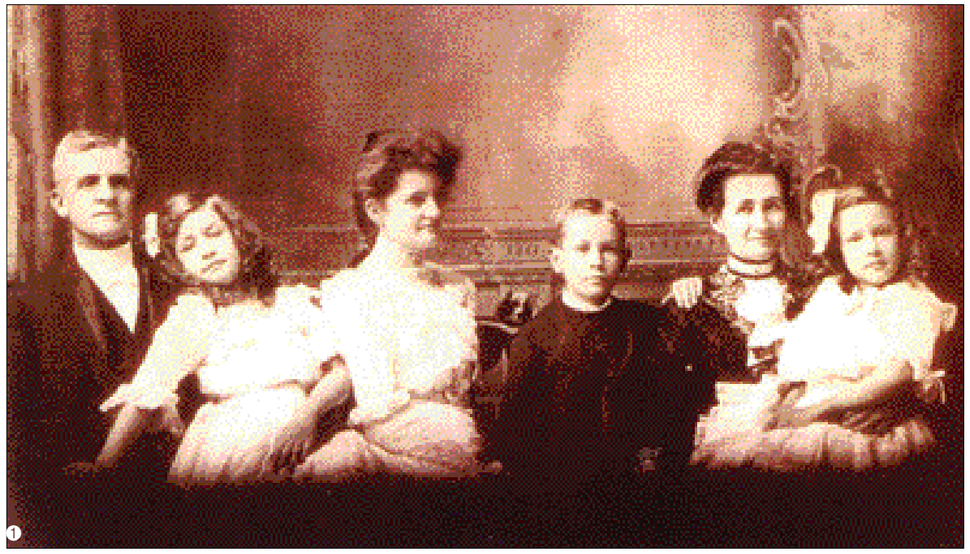
발췌: 《한국기독교회사》 (*Korean Church History*), 개국과 선교사들의 내한, p.5:1~5



▲ 언더우드 선교사



▲초기 선교사들: 알렌 선교사 부부(가운데와 왼쪽)










1. 아펜젤러 가족: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목사의 가족. 펜실베이니아 주 서더튼 근처에서 출생. 갓 결혼한 아내 엘라 다지와 함께 1885년 한국에 와서 한국선교회를 창설하고, 배재학당을 설립하였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로 소천하였다./ 아펜젤러-노블 기념박물관 소장
2. 미국 감리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 로버트 매클레이 선교사(1824~1907년)의 묘비
3. 노블 가족: 아펜젤러 가족과 더불어 한국의 선교에 앞장선 노블 감리사 가족, 아펜젤러와 사돈간이다.
4. 마펫 선교사: 1890년대 평양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한 뒤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세운 새뮤얼 마펫(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 한국일보 제공





# 5. 한국 교회의 격동기




1. 조만식 장로
2. 김동원 장로
3. 박정익 장로
4. 주기철 목사
5. 유기준 장로
6. 김봉순 장로
7. 오윤선 장로
8. 김찬두 장로
9. 오정모 집사(주기철 목사 사모)
10. 편하설 선교사 사모
11. 김경진 집사
12. 유기원 집사
13. 전재윤 장로
14. 한원준 집사
15. 김정익 집사
16. 임이걸 집사
17. 노동팔 집사
18. 김기선 집사
19. 황병칠 집사, 김헌식 장로, 장기려 집사, 이윤태 집사 등/ 박이스라엘 목사 제공

우리 한국 교회의 100년사 속에 눈부신 교회 부흥이 있었으나, 일제 식민통치와 동족상잔 등을 겪으며 아울러 한국 교회도 뼈아픈 격변기를 겪게 되었다. 그 부산물로 신앙관의 다툼으로 교회 분열이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 교회는 부흥의 물결을 타고 교회들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 1) 일제 36년과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과 동시에 한국을 침략,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을 아시고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 주시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1903~1907년 장대현교회에 임한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예수의 사람들로 만드셨다. 일본은 1904년 한일협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1월 서울에 통감부 설치,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경술국치, 조선왕조 27대 519년 멸망)을 체결함으로 완전 그 야욕을 성취했다. 그러나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 구원뿐 아니라 민족 구원과 사회 구원의 빛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절대군주제와 봉건사회의 개혁에 앞장섰으며, 일본 침략에 맞서 최전선에 서서 구국운동을 하였으며, 선교사들의 절대적 지원으로 해외로 퍼져 나가 해외동포 사회와 연대하여 독립운동의 뇌관을 만들었다.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국의 적은 크리스천이요 교회였다. 이것을 안 일제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시작했다.

1910년 12월 27일 105인 사건, 기미년 3·1 독립운동 때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때 5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다. 일제는 독립운동 배후에 선교사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탄압, 추방하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잔악무도함을 본국의 선교부에 알렸다.

일제는 1935년에 신사참배 합법화를 선포했다. 이때 신사참배 불복종으로 관서 지방에서만도 주기철 목사 등 50여 성직자들이 순교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으며, 손양원 목사 등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투옥되었다. 교회 종탑에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목사에게 일본 군복을 입게 하였으며, 예배 중에 천왕에게 묵례하게 하고, 일장기에 맹세하게 하고, 모세 5경과 계시록은 읽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 데다 사도신경과 찬송도 일제 사상에 어긋난 것들은 다 빼도록 했다. 1942년엔 모든 침례교회를 폐쇄시켰고, 1943년엔 모든 성결교도 문을 닫게 했다. 그뿐 아니라 성씨 개명을 강요했다.

그러나 여러 핍박에도 굴할 수 없었다. 이런 마귀들의 궤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라를 지키며 승리의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우리의 승리와 해방은 오직 예수!”

발췌: 《한국 기독교회사》, 제7장 한국 교회의 수난사, pp.1~4.
《학습백과사전》, 한국의 역사, 일제의 침략, 계몽사, pp.164~165.

### 2) 8·15 광복과 교회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간의 학정에서 해방, 곧 광복을 맞이하였다. 삼천만 온 겨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목메어 부르던 날, 70만 기독교인에게는 그날이 민족의 해방과 동시에 신앙과 자유를 얻은 날이기도 했다. 조국은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압박이 변하여 영광이 된 이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뜻밖에도 38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남북분단의 비극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에는 제헌 국회가 소집되고,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어 행정부가 조직되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어 오랜 숙원인 독립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정권 아래였기에 한국은 사실상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했고, 한국 교회는 공휴일 제정, 적산 불하, 군종제도, 포로수용소 선교, 기독교식 의례 등 큰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북한에서는 뜻하지 않은 소련 군정의 감시와 탄압으로 교회 탄압이 노골화되었고, 기독교인과 교회는 참변을 면치 못했다. 1945년 11월 16일 윤하영, 한경직 목사가 주도한 기독교사회민주당 결성, 파괴와 장로 타살과 신의주 학생 사건, 1947년 11월 18일 평양기독교자유당 결단식 주도 인물 40여 명의 시베리아 유배 등의 사건이 이어졌으며, 1946년 11월 3일 공산당은 주일을 기하여 괴뢰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일로 정하였다. 북한5도연합노회는 그에 대하여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대부분의 교회는 총선거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공산당은 얼마 후 교회의 주요 인물들을 다 체포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남침 계획을 세운 공산 정권은 기독교인의 철저한 소탕을 단행하여 그때까지 잔존하고 있던 기독교 지도 인물들을 총검거하였고 교회는 모두 폐쇄하였다.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진주하였기에 미 군정 3년 동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교회를 전국 도처에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에도 공산당은 갖은 음모, 술책, 선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애써 방해하였고, 게릴라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음모했다. 그중에 여수 · 순천 반란사건이 일어났는데, 1948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지역에서 공산도배들이 무력으로 일어나 특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살해했다. 이때 손양원 목사의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총살되는 비참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아픔과 고통과 격동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북한과 남한 민족을 가슴에 안고 예레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그 난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발췌: 《한국 민족 기독교 백년사》, 제5편 한국 교회의 재건과 분열, 제1장 8 · 15해방과 재건, pp.1~5.
《신사참배와 사탄의 탄생》, 표지 이야기: 한겨레21, 신사 참배와 사탄의 탄생, p.3.

### 3) 6 · 25 한국전쟁과 교회

해방 후 남한, 즉 대한민국은 순조롭게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북한은 온갖 수단으로 남한을 방해했다. 대구 폭동, 제주도 폭동, 여수 · 순천 사건을 일으켜 동족을 죽이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다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에 불법 남침을 감행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다.

너무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우리 국군은 작전상 후퇴하여 낙동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6 · 25가 터지자 미국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한국을 돕기로 결정하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군대가 국군과 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총반격을 개시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어 9월 30일엔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계속하여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조국 통일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갑자기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인해전술로 물밀듯 몰려와 1951년 1월 4일 후퇴하였고, 진격과 반격을 거듭하다가 우리 민족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아, 어찌 우리 잊으랴! 6 · 25의 그날을…….

**6 · 25 한국전쟁의 피해 상황**

**• 국군**

전사: 84만 4천 명 부상: 178,632명 실종 및 포로: 82,310명

약 319만 명(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름.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 연합군**

미국군: 전사-54,229명, 부상, 103,228명, 포로-3,746명 등 약 16만 4,173명

영국군: 6,000명. 유엔군: 8,800명

**• 민간인**

사망, 학살: 370,500명 부상: 229,625명 실종: 303,212명 납치: 84,532명

피란민: 240만 명 미망인: 2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발췌: 조인스 블로그 — '6 · 25동란, 후유증과 형제 나라', pp.3~4.)

1951년 1 · 4후퇴를 계기로 하여 한국 교회는 수십만의 북한 피란 교인을 포함하여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마지막 지점인 부산에 집결하였다. 이곳에서는 기독교인의 구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독교연합 전시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회장엔 한경직 목사, 총무로서 김양선 목사가 눈부시게 활약했다. 위원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과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각각 메시지를 발송하여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철수하지 말고 한국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하였고, 이러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한경직, 류형기 두 목사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편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피란 교역자들은 하나로 뭉쳐 밤을 새워가면서 죄를 뉘우치고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얼마 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교회는 자유와 독립 수호의 생명력이 된다"라는 회답이 내도했고, 미 국무장관은 "미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창조의 기쁨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다"라는 희망이 넘치는 서신을 보내왔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무지한 공산당의 폭탄과 총칼과 죽음 앞에서 무너져 가는 조국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학개와 선지자들의 외침에 따라 힘을 얻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

하였듯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예수 이름으로 재건하리라 외치며 복음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발췌: 《학습백과사전》, 한국의 역사, 해방과 대한민국, 6 · 25동란과 휴전, 계몽사, p.172.
조인스 블로그 – '6 · 25동란, 후유증과 형제 나라' , pp.3~4.
《한국민족기독교백년사》, 제5편 한국 교회의 재건과 분열, 제1장 8 · 15 해방과 교회 재건, pp.3~5.



▲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은 총 122,799명( '다연감' , 1952년 발간)에 이른다. 위 사진은 퇴각하는 김일성의 지시로 함흥에서 자행한 학살 모습으로, 사진에 보이는 동굴에서만 30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美 기록보관청 제공)



▲ 김일성과 밀담 중인 중국 군사령관 팽덕회



▲ 남침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 6. 한국 교회의 도약기

6 · 25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유엔에서도 '한국재건위원단' 을 설치하고 전후 복구사업을 도왔다. 그러나 파괴가 너무 심하였으므로 재건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6 · 25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전쟁 수행과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핑계로 차차 독재정권화했다. 1960년 3월 15일의 정 ·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을 앞세워 공공연한 부정 선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4 · 19의거가 일어나 결국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4 · 19의거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1960년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으로(박정희 장군) 군정이 탄생했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제3공화국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새마을화, 산업화, 도시화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와 교회의 재건과 복음 전도에 전력했다. 복음의 용사들은 새마을운동 때는 마을과 가정으로, 산업화의 열기 속에서는 공장과 사업장과 공단으로, 도시화의 변화의 물결 가운데에서는 도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전도함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고 불안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소망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함으로써

한국 교회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70년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에 빼놓아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그것은 Assemblies of God, 일명 '순복음교회'라 불리는 오순절 교파 교회의 성령운동과 일명 '제3의 성령의 바람'(피터 와그너)의 성령운동이다. 이 성령운동의 특징은, 첫째는 기도운동이다(합심, 통성, 철야, 새벽). 둘째는 성령 체험적 신앙이고(성령 세례, 체험 강조), 셋째는 메시지이다(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재화). 넷째는 목회자의 지도력이고(탁월한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력), 다섯째는 신유운동이며(신비주의가 아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여섯째는 조직과 평신도 지도자를 통한 전도 활동으로(구역 조직, 셀 그룹 조직, 평신도 사역 전도), 이는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70년 이후 한국 교회의 새로운 각성은, 그때까지 민족 앞에 보였던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파 간의 연합운동을 가능케 하였고, 대규모 복음전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성령운동은 초교파 연합 대성회의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73 빌리 그레이엄 대전도대회와 '74 엑스플로, '77 민족복음화성회 등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대전도대회와 '74 엑스플로 대회를 통해 결신한 수가 35만 명이었으며, '77 민족복음화성회에는 연인원 150만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80 세계복음화대회, '84 선교 100주년 대성회, '88 복음화성회, '92 세계성령화대회 등 굵직한 대회를 치르면서 한국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분열을 거듭해 오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대성회를 개최하면서 교파의 담을 헐고 서로 협조하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인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도 2006년 말 현재 168개국에서 14,90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마다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선교연구원은 '한국은 국내외 타 문화권 선교사 파송 기준으로 보면 미국(64,084명)과 인도(46,381명)에 이어 3위'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발췌: 《학습백과사전》, 한국의 역사, 해방과 대한민국, pp.172~174.
《한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 성장》, 한국 교회의 성장과 연관하여, pp.4~8.
《제3의 바람》, 피터 와그너 저, 정운교 역, (주)임마누엘.


기독교100주년 熱氣

서울汝矣島광장에서 5일동안 계속된 韓國기독교100주년대회.19일밤 마지막 모임에는 1백만명이 운집, 韓基鵬목사와 유일한 외국인 초청강사인 「빌리·그레이엄」목사가 설교했다. (관련記事6面) <사진=金鳳晩기자>

신도 100萬명 모여

▲ 빌리 그레이엄 대전도대회 기사

35 YEARS HISTORY



제2부

# 미주 한인교회사








1. 하와이 감리교회: 1903년 11월에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 감리교 하와이 선교구가 연례회로 모였다(1909년)/ 서동성 제공
2. 포와유람기: 1909년 서울에서 출판된 《포와유람기》(현순 저) 표지
3. 하나교회: 하와이 마우이 섬 하나한인감리교회 교인들(1915년)



# 1. 여명의 아침

1873년에 쇄국정책을 실시했던 대원군이 물러난 후 1876년 일본과 통상조약인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맺었다. 그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1876년 4월에 김기수 등 75명이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 천황과 일본 지도자들을 만나고 서양식의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그 후 1880년에 수신사로 김홍집 등 58명, 그 이듬해 신사유람단으로 10여 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그해 김유식 등 69명이 청나라를 다녀와 개화를 서두를 것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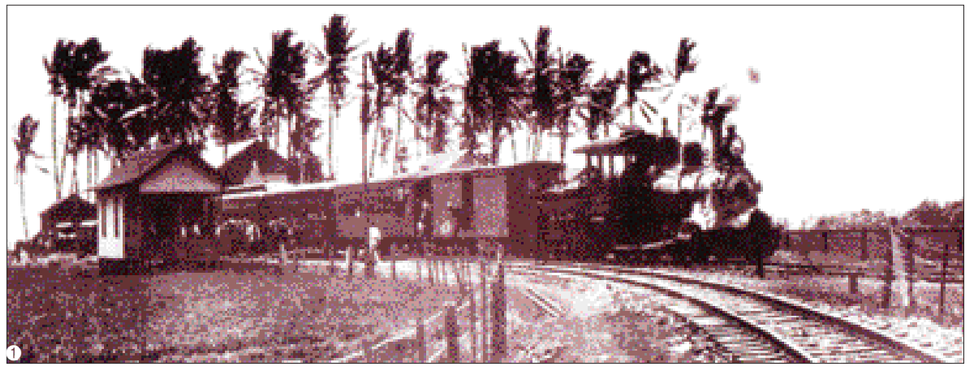
그래서 조정에서는 정부 기구를 개편하여 청국을 본떠 정부 조직을 통리기무아문으로 고치고, 영의정을 총리대신, 판서를 장관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군사 부문에서는 '별기군' 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여 일본군 장교의 지도를 받게 하였는데, '왜별기' 라고도 불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거듭 통상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완고하고 국외 정세에 어두운 편이던 명성황후 세력은 하는 수 없이 1882년 3월 22일에 우선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쇄국정책을 써오던 대원군을 물리친 명성황후 세력이 중국의 외교 및 경제분야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한국 문호 개방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1883년 서울에는 미국 공사가 들어왔고, 그 해 민영익 등의 사절단이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리고 1884년 9월 20일에 의료 선교사 알렌 박사가 들어왔고, 12월 4일 독립당(우정국)이 세워졌다. 그날 독립당 사건에서 민영익이 상처를 입었으나 첫 미국 의료 선교사 알렌의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정부는 미국 개신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 결과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 장로교의 호레이스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다. 선교사들은 한국 정부 요인들의 호혜를 받아 의료, 교육, 사회사업, 선교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의 기독교 개신교 선교의 성공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과의 외교, 통상, 선교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게다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김규식 등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의 빛으로 받아들여 절대 군주제와 봉건사회의 개혁을 통한 국권 회복의 길을 민중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지식인들에게 보여 주면서 선도한 결과, 무능과 부패 속에 빠져 있던 전근대적 한국 사회에 여명이 비취기 시작했다.

참고: 《학습백과사전》, 한국 역사(쇄국과 개국의 시련), pp.141~142.
〈크리스천 헤럴드〉, '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 3' , p.29.







1. 이민자 철도역: 초기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한 하와이 와이파후 철도 역사 전경. 이곳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여러 농장으로 분산되었다(1900년대 초).
2. 미국 공사관: 수민원 업무를 협조한 서울 정동의 미국 공사관
3. 수민원 총재: 하와이 이민을 총괄하는 수민원의 총재 민영환
   그는 일본이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항의해 자결하였다(1905년).





# 2. 개척기

## 1) 최초의 이민선

당시 이민운동은 1902년 가을에 하와이 설탕회사에서 한국 정부에 이민 노무자 고용을 제의해 옴으로써 시작되었다. 원래 하와이에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포르투갈인, 일본인 등이 일찍부터 사탕수수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늘어나서 노임 분쟁이라든지 동맹 파업들이 빈번해지자 온순하고 근면하다는 한국인 노무자를 희망하게 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한국 정부는 하와이 설탕회사 측과 이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일을 전담하는 수민원을 설립했다. 이민 모집은 동아개발회사가 맡고 에슬러라는 미국인이 실무자로 뛰었으나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자 존스 목사에게 이민 모집의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존스 목사(George Heber Jones)는 누구인가? 그는 1867년 미국 뉴욕 출생으로 1888년 약관 20세 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다. 1885년 4월 5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부활절에 찾아온 선교사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갑신정변의 혼란으로 인해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고 8일간 인천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6월 20일에 다시 인천에 와 약 한 달간 체류하였는데, 그 전후 40여 일 동안 인천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 그리하여 아펜젤러 선교사가 7월 19일 서울에 가기까지 눈물의 제단을 쌓으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인천의 내리교회이다. 내리교회는 선교사들이 최초로 한국에 세운 교회이기도 하다. 아펜젤러가 터를 닦았다면 내리교회 제2대 목사로 온

존스 목사는 그 터 위에 전도와 교육 전반에 걸쳐 집을 짓는 놀라운 업적을 쌓은 내리교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최초로 1892년 초등 교육기관인 영화학교를 개설하였고 강화, 영안, 해주, 남양 지방에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민 모집 협조를 요청받는 존스 목사는 기꺼이 승낙하고 교인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유하여 당장에 교인 50명과 항만 노무자 20여 명이 이민 노동자로 응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모집된 하와이 이민 노무자 일행 121명은 1902년 12월 22일 정든 조국 산천과 일가 친척을 작별하고 눈물로 인천항을 떠났다. 일본 고베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된 자 102명(통역 2, 장정 54, 부인 21, 아동 13, 유아 12명)만이 미국 상선 갤릭 호(S.S. Gaelic) 편으로 낯선 나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니 1903년 1월 13일이었다. 이들 제1차 이민의 대다수는 내리교회 교인들이었고, 이들을 인솔한 지도자들 역시 내리교회 중진들인 장경화 전도사(총무), 안정수 권사(통역)였고, 홍승하 전도사가 선교사로 동행했다. 이 첫 번 이민 집단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유학 희망자, 야심 있는 선비, 군인, 머슴,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이민 동기는 그 구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생존을 위한 노동취업이라는 내적인 동기와 국내적인 불안과 혼란에서 탈출해 보려는 외적인 동기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최초의 이민자 102명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여 내림으로 미국 이민이 시작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참고: 〈선교타임즈〉 LIST, [기획] 탐방 – 미주 한인 이민과 선교의 근원지 인천내리교회(정유정 기자).

### 2) 최초의 이민교회

하와이에 도착한 이들은 14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도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다. 이것은 이민자 절반 이상이 인천 내리교회 성도였을 뿐 아니라 홍승하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3년 8월에 구국정신 고취와 일본 침략에 항거한다는 목적하에 홍승하 전도사를 회장으로 한 시민회를 조직했다. 또 하와이 도착 10개월 만인 1903년 11월 10일에 교회를 설립하고 고국을 떠난 외로운 나그네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었다. 교회 설립을 위하여 호놀룰루에 있던 내리 교인들은 안정수 권사, 우병길 등이 중심이 되어 1903년 11월 3일에 그 지역의 미국 감리교 감리사인 피어선 목사를 방문하고 한인교회의 설립을 협의했다. 이리하여 감리교 선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집을 세내어 홍승하 전도사의 집례로 하와이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날이 바로 하와이한인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이 교회가 바로 오늘의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리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과 선교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참고: 〈선교타임즈〉 LIST, [기획] 기고 1 – 미국 한인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박천일 목사).
〈선교타임즈〉 LIST, [기획 ]탐방 – 미주 한인 이민 선교의 근원지 인천내리교회(정유정 기자).








1. 내리교회 교우들: 첫 이민선 갤릭 호에는 인천 내리교회 신자 50여 명도 승선하였다. 당시 이 교회 존스 선교사가 하와이 이민을 권유했기 때문이다(1902년).
2. 이민선 갤릭 호: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단을 싣고 하와이에 도착한 미국 상선 갤릭 호
3. 하와이 이민 고시 광고: 하와이 이민감독의 하와이 이민 모집 광고/ 로버타 장 제공



# 3. 미주 이민과 한인교회

1890년 미국연방정부 인구조사에 의하면 98명의 한인이 미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때까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에 건너온 한인 수가 최소한 10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수민원을 통해서 집조(여권)를 발급해 주어 미국에 노동 계약을 맺고 집단적으로 이주한 하와이 농장 노동자들을 첫 이민으로 본다. 이 초창기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성도들이었으며, 그들은 14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도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1903년 11월 10일 교회를 설립했다(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교회). 하와이와는 별도로 미 본토 대륙에서는 1904년 3월 11일 나성한인감리교회가 최초 한인교회로 세워졌다(한국 선교사였던 서먼 여사가 한국 유학생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 그리고 1906년 5월 10일에 마포삼열 선교사에 의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미주에 최초의 한인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

우리의 이민사는 낯선 생활환경에다 미국 사회의 유별난 인종차별과 구조적 빈곤 속에서 변두리 타국인으로 살아가야만 하였던 소수집단의 아픔, 떠나온 조국마저 군국주의 일본에 한낱 식민지로 전락한 망국민이 되어버린 아픔과 절망과 고독과 좌절로 인해 노예 이상의 혹독하고 침울한 것이었다. 오직 이때에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길, 그것은 모이는 것이었고, 모임은 곧 교회로 발전했다. 이렇게 한인이 정착한 곳에는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회는 한인들의 공동체요 센터였다. 교회는 한인 공동체의 지렛대라는 막중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미주 이민사는 교회와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참고: 〈선교타임즈〉 LIST, [기획] 기고 1-미국 한인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p.1.
〈크리스천 헤럴드〉, '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 3', p.46.
《고난과 영광의 100년》(상), pp.7~9.



▲ 신흥학교: 1911년 3월 카우아이 섬 골로아 지방에 설립되어 어린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 이민 가족: 초기 하와이 이민자 민위경. 1913년 한국에 나가 양복동을 맞이해 하와이로 들어와 가정을 꾸렸다(1921년경). / 프랭크민 제공



# 4. 미주 한인교회의 기능과 역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그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지상명령과 사명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이 모이는 곳마다 설립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한인들의 이런 교회 개척열에 대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은 상사를 세우고, 중국계 미국인들은 식당을 세우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또 한편 "중국계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종친회를 중심 삼아 활동하면서 절을 많이 세우고, 일본계는 고향 사람끼리 어울리며 신사를 세우고 종교생활을 하는 반면,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펼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한인 이민자들에게 한인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민 오기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이민자에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한인교회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민자들은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교회에서 풀었다. 비기독교인들도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를 두고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한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집합소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즉 한인교회는 이민자들의 꿈을 나누는 공간이자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공동체이며 고향이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들의 귀와 입이 되고,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인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지 않고 한인공동체의 중심이 된 교회의 교인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한인 공동체의 중심인 교회는 우리나라 독립과 건국, 재건과 평화 정착,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실현, 그리고 민족 화해와 통일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건국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해방 이후와 6·25 때는 재건과 평화 정착에 나섰다. 피란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모아서 보내 주는 한편, 산업의 재건을 돕기 위한 재정을 모아 보내 주었다. 또 조국의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민족 화해와 남북 통일운동에도 미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가 앞장서 왔다.

이처럼 교회가 한인사회에서 중심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교회를 매개로 규합된 종교적 심성과 함께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1.5세와 2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인들을 지금까지 하나로 묶어낸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 바탕에는 목회자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밑거름이 있었다. 이러한 미주 한인교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여,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처럼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미국을 새롭게 복음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참고: 〈선교타임즈〉 LIST, [기획] 기고 1-미국 한인교회와 한민족 디아스포라(박천일 목사), pp.1~2.

35 YEARS HISTORY



제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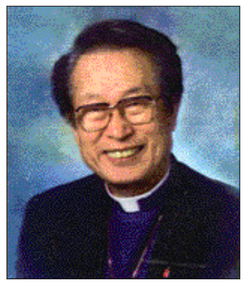
# 뉴욕교회협의회와 신학적 고찰





# 1. 교협의 정체성과 신학적 비전

김해종 목사_제3대 교협 회장 (UMC 전 감독)



우선 우리 협의회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대표해 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관의 제한성을 가진 정체성이다. 즉 '대뉴욕지구' 라는 지리적인 제한성을 가진 범위를 말해 준다. 교회협의회 창립 회원들은 그 당시 한인 이민의 인구가 많지 않아 뉴욕과 뉴저지와 코네디컷을 통틀어 '대뉴욕지구' 라고 규정했고, 그 세 지역에 산재해 있던 한인교회들의 협의체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교회는 모두 합해서 30여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교회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적인 교회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생겨났고, 우리 협의회는 그럴 때마다 그러한 협의회 조직을 인준하고 축복하였다. 그래서 뉴저지에서도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가 생겨 독립을 하게 되었으나, 우리 협의회는 원래대로 대뉴욕지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정신으로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제한적 정체성은 '한인교회' 라는 부분이다. 즉 우리 교회협의회는 이민 한인교회의 'NY City Council of Churches' 가 이미 있다. 한인교회들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협의회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가 따로 '한인교회협의회' 를 갖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로 인하여 세워진 한인교회들의 특수한 요청과 이민 한인교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생긴 것이요, 거기에 제한적 정체성이 있다.

교회의 근본인 뿌리에서 우리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찾고, 한편 주님의 지상 명령과 말씀에 의하여 생긴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준 날개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기로 하자.

## 우리 뿌리가 주는 정체성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이다. 즉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교협의 정체성도 그 뿌리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설립하신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있듯이 교회협의회의 정체성도 분명히 그 뿌리에 있다. 주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과 그 말씀의 기록인 성경에서 찾아보자.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곧 '기독교' 를 세우셨고(마 16:17~19),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 주님은 기도하셨다. 곧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나이다" 하신(요 17:21~22) 기도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위하여 이룩한 교협의 뿌리이다. 우리의 뿌리에 대하여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 항상 '하나', '연합', '통일' 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Oneness and Unity' (엡 4:4~6)라는 이러한 신학적 정의가 곧 우리 협의회의 정체성이다.

## 사명과 비전이 주는 정체성

한편 우리 교회, 특히 '이민교회' 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역사적인 교회의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을 피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안디옥에 모여 처음으로 여러 문화와 종족을 초월한 이민교회를 이룩하였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한 역사를 사도행전 11장에서 읽을 수 있다(행 11:19~26). 그 말씀에서 우리 이민교회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게 된다. '그리스도인' 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사실에서 '크리스천' (christian)의 정체성을 찾으며, 이후에 그 교회를 기점으로 사도들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 후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을 연결하고 하나로 묶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피땀 흘린 사역의 기록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고 있다. 이 성경적 뿌리에서 우리 협의회의 유형과 사명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사명(할 일)을 규정하여 준다.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날개' 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날개는 또한 교협의 정체성이다. 우리 교협의 비전과 사명이 전도와 선교, 연합과 협력, 친교와 봉사라면 이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날개이다. 한 예를 들어 '할렐루야 전도대회' 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대뉴욕지역을 복음화한다는 거대한 비전을 실천시켜 주는 우리의 날개이다. 이 날개는 우리 교협의 가장 두드러진 자랑스러운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를 알리는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한인교회협의회가 '한인교회' 라는 한계성을 우리의 뿌리와 날개에서 오는 진취적이고 포용적인 넓고 광대한 정체성으로 극복하고, 앞으로 '주류사회' 에 합류하고 한인 이민교회를 주도하는 미래 지향적인 주님의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뉴욕교협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장영춘 목사_제4대 교협 회장 (퀸즈장로교회)



## 1. 뉴욕교협의 태동(설리)

1972년 가을.

"앞으로 뉴욕에서 목회를 하려면 동역자들과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터이니, 뉴욕 교역자 월례 모임이 있는 뉴욕 42가의 뉴욕중앙교회로 오라"는 선배 목사님의 요청으로 대뉴욕지구 교역자회라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 뉴욕 일원에 9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미리 와서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하다가 회장 목사님이 "이리로 와서 회의를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면 기도도 없이 회의를 시작하였다. 뒷자리에 앉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던 초년생인 내가 "회장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십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집중되었다. 난처한 듯 쳐다보던 회장 목사님께서 "장 목사, 당신이 기도하시오"라고 하였다. 나는 "아버지, 저희들을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목회자로 보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들이 되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운 말씀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는 목사들이 되어 뉴욕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미력이나마 뉴욕 교역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1975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플러싱 모 교회에서 있다는 신문 광고와 편지를 받고 몇몇 교인과 함께 기대를 갖고 뉴욕에서 처음 맞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강사는 토론토에서 초청된 한국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 격인 K목사였다. 부활절 설교를 위하여 초청된 강사는 성경 본문도, 예수 부활에 대하여도 한마디 언급을 않고, 박정희 정권이 애국자들을 남산에 끌고 가 짓밟고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더니 돌연 김일성을 위대한 인민의 태양 수령님으로 예찬하고 있었다.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있던 교인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하나 둘 일어나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도 더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이런 곳에 자기들을 데리고 온 것에 불만을 토하는 교인들에게 그 당시의 교역자회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런 것인 줄 전혀 몰랐다고 미안해하며 사과하였다.

그 후에 뉴욕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였다. 순수한 이민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욕에 보내진 목사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책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교역자회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뜻이 같은 몇몇 목사들이 1975년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신학과 덕망이 있고 경륜을 겸비한 한영교 목사님을 추대하였다. 나는 예배분과 위원장직을 맡았다. 무엇보다도 연합집회 때에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목사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였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35여 년 동안 뉴욕교협 연합집회의 강사는 정치적 강사가 아닌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분으로 세우는 일관된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 2. 은총

뉴욕 교포사회가 커짐에 따라 많은 목회자가 영입되고 교회의 수도 날로 증가하여 수백 교회가 되었으나, 뉴욕교협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체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해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은혜롭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역대 교협 회장들과 임원들이 교협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 함께 일한 것은 다른 어느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모범적인 일이며, 뉴욕교협이 다른 도시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이민교계인 것은 우리 뉴욕의 자랑이며 축복임을 감사드린다. 뉴욕교협이 중심이 되어 독버섯처럼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을 함께 기도하며 신속히 대처해 물리칠 수 있었고, 청소년센터, Rise up 청년집회, 2007년 성령 강림 100주년 기념대회 등을 온 뉴욕교협 산하에서 한가지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었음을 감사드린다.

뉴욕교협의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뉴욕 복음화를 위하여 순수한 말씀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기도운동과 이단 퇴치운동 등을 통하여 힘써 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를 위하여 역대 교협 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여 왔음으로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3. 비전

35년의 역사를 거울 삼아 앞으로 오고 가는 이민자들과 이곳에서 태어나는 2세들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협의회의 구상과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대해지는 한인 교민사회와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리하고 틈만 나면 뛰어들어 순수한 교회와 교인들을 해치려는 이단들과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의 침투 공격에 대한 지혜롭고 단결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뉴욕교협 앞날의 큰 과제로 여겨진다. 현대판 로마 문화의 금자탑이라 일컬어지며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최첨단을 자랑하는 뉴욕에서 교협의 사명은 막중하다. 이를 위하여 뉴욕교협은 지금까지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며 어두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회원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선된 회원 영입에 신중을 기하여, 교협 회원들이 바른 신학 훈련과 철저한 목회자적 자질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살펴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우리 2세 자녀들을 현대판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처럼 신앙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지성을 쌓고 헬라어를 자유로 구사하면서 대로마 판도를 종횡무진 누비며 복음의 역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계인으로 주님 재림 전에 선교 주인공으로서 키워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 이 일을 위하여 대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큰 비전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너끈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3.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가

박희소 목사_제7대 교협 회장 (뉴욕동부교회)



뉴욕교협의 할렐루야 복음화 전도집회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이재은(제5대 교협 회장) 목사님이 그 당시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내놓고 그 당시 부회장(필자)이 향후 10년간 이 복음화 전도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하여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해 봄(1980년 4월로 추정)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이임하시게 됨으로 그 당시 신성국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잔여 임기(6개월)를 회장으로 이임받아 차질 없이 진행, 박재영 목사를 준비위원장을 하고, 김준곤, 김계용 두 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퀸즈칼리지 강당에서 제1회 할렐루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던 것이다.

제1회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자 여기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제2회 대회는 필자가 교협 회장이 되어 준비위원장으로 장석진 목사를 내세워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박조준 목사님(영락교회)을 강사로 하여 그야말로 대성황리에 전도집회를 치렀다. 이것이 할렐루야 대회의 시작의 대충 경과이다.

어떤 교부는 "오늘 교회는 선교의 불에 의해 존재한다"고 했다. 교회의 본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복음 전도', 이것이 교회 본래의 의무요 사명이요 목적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파송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읽고 보지 않는가.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막중한 과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교회협의회의 연례 행사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복음화전도대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교협의 연중 행사에 많은 것이 있지만 교협의 최대의 행사는 '할렐루야 복음화 전도대회' 란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대회를 향후 10년간 실시한다고 결의하고 시행한 것이 어언 30년이 되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교협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 믿는다. 이런 뜻에서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역사적 평가는 자명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교협의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주의 종들은 결국 언젠가는 떠나간다. 그러나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전도의 역사는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가는 고무적이요 긍정적이요 생산적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계획하며 시작된 이 대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할렐루야 대회의 역사적 평가의 답을 얻었다.



# 4. 이민교회와 교협의 역할

장석진 목사_16대 교협 회장 (뉴욕성결교회)



## 들어가는 말

이민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민교회를 위한 교회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먼저 이민교회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해, 정착한 이민자들과 이민사회를 위해, 이민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회협의회는 이민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협력하고,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도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1. 이민교회의 역할

### 1) 민족을 위한 역할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에서 이민교회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다. 초기 미주 이민 역사에서 교회는 이민 정착을 돕는 봉사처가 되었으며, 모국을 떠난 이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모국의 독립운동의 발상지와 본거지가 되기도 했다. 이민교회는 이민 역사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자주 모이고,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이민 단체였다. 이민교회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방향과 역할을 담당했고, 민족 교육을 주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큰 공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도 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역할과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인 이민교회는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이민 초기의 독립운동이 중기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이제는 통일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민교회가 한국 정치의 구심점이 될 필요는 없지만 민족을 위한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 2) 이민자들과 이민사회를 위한 역할

이민 초기의 교회들이 담당했던 이민 정착을 돕는 봉사처로서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도 많은 소형 교회들은 이런 사회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제는 각종 한인단체들이 새로운 이민자들의 이민 정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민교회는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민교회가 각종 한인단체들의 업무와 중복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사역이나 연합사역, 중재사역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역할 문제도 이제는 이민교회가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 3) 이민자녀들(1세, 1.5세, 2~3세)을 위한 역할

뉴욕 한인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 갓 이민 온 1세 자녀들, 또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1.5세들,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미국 문화화된 2~3세 자녀들의 구심점을 이민교회가 담당해야 한다. 이민 1세 자녀들에게는 이민 정착을 위한 역할로서 정착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고, 1.5세와 2세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 2. 교협의 역할

이민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회협의회 조직도 커져가고 있다. 이 말은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들을 위한 교회협의회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협의 역할도 이민교회의 역할처럼 목회자들을 위한 역할과 교회를 위한 역할과 이민사회를 위한 역할로 구분해 본다.

### 1) 목회자를 위한 역할

초기 교협의 역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친목 단체 역할이었다. 이제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역사가 35년이 넘어서는 금년부터는 교협의 초기의 역할들, 교역자 간의 친목과 소형 교회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단별로 상당히 많은 교역자들이 자체 교역자회를 통해서 수련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기에 이제는 교단별 교역자 행사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 교단에서만 실시하기 아쉽거나 또 전체 교역자가 동참하는 행사는 교단 교역자회가 아니라 교협이 담당해 주어야 한다.

### 2) 이민교회를 위한 역할

(1) 뉴욕교협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할렐루야 전도집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뉴욕의 한인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할렐루야 전도집회에 대형 교회뿐 아니라 더 많은 소형 교회들까지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집회 후에도 계속해서 결과를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역할이야말로 이민교회들이 부흥되도록 영적인 힘을 모아 주는 것이다.

(2) 이단으로부터 울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의 교회 침투, 교인 가정 침투를 방어해 주는 울타리 역할과 교육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단들이 이민교회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고 뉴욕, 특히 뉴저지 일대에 많이 침투하여 이단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 교협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긴급하게 이단에 대한 경고와 예방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대처하여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민사회, 특히 이민교회를 위한 각성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민교회들 중에는 소명감이 없거나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저질 목회자들이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회사형의 교회들까지도 있다. 교단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이비성의 교회들을 점검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 교회 구성원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교회 간의 과열 경쟁 등에 대해서는 교협이 경각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3) 특정 정치단체와의 중립적 역할

한인사회의 각종 단체가 늘어나고 또 많은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연결되면서, 특히 해외거주자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시점에서 교회들까지도 정치적인 색깔을 띨 수 있는 유혹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협은 본국의 특정 정치단체들을 지원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나가는 말

교협은 대교회 중심의 조직체가 되어서도 안 되며, 또는 목회자들의 친교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이민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사령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협은 교회들을 위해 존재하는 열린 성령의 조직체로서,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고 산하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힘껏 돕는 '성령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창설 35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협이라는 거대한 영적 구심체의 역할을 담당해 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종 된 사명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CKCUSA)

What is the role of Korean-American Churches? What is the role of CKCUSA in relation to the Korean-American Church? The church' s first obligation is toward ethnic Koreans, then toward immigrants, to settled immigrants and the immigrant society, then towards second generation Koreans. Therefore, CKCUSA must cooperate with the churches,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individual churches are incapable of resolving.

## I. The Role of the Immigrant Church

### 1) For Korean Nationals

The Korean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beginning stages of immigration, the Korean church volunteered its service the needs of new immigrant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urthermore, dur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church played a major role both birthing and serving as the headquarters for the movement. The Korean-immigrant church gained most of her members during the immigration influx. The church allowed people to meet often, and offered more liberal financial support than any other immigrant-organization.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steering the movement and educating the people, the church also contributed greatly to advancing the movement. Even now, many churches continue to foster a sense of ethnic pride by running Korean school in which children can learn th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The church has also turned out people who hold important roles in society. When immigration to America was in its early stages, the Independence Movement, when it reached its climax, the People' s Movement, and now, the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ush towards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ough the church need strive to become the focal point of Korean politics, she must continue to strive on behalf of her people.

### 2) Responsibility to Immigrants and Role in Immigrant Society

The church shows no sign of discontinuing her function as a resettlement station for new immigrants. Still many small churches sacrifice a great deal of time in this capacity. Though many other organizations also serve immigrants in this way, the church will still have to continue serving new immigrants in her congregation. Thus said, the church should avoid duplicating the work of other Korean organizations. Rather, she should search out creative niche or intermediary ministries. The church has to prepare to deal with issues such as the pending problem of care for South Korea' s elderly population.

### 3) Children of Immigrants(First, 1.5 and Second to Third Generation)

Presently, over 500 thousand Korean Americans live in New York. Of these, the church plays must play a central role in the care of brand new immigrant, bi-lingual and bi-cultural 1.5 generation immigrants, mono-lingual, culturally Americanized second and third generation immigrant children. For brand new immigrants, the church can conduct re-settle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bilingual and bicultural children, and youth in particular, the church should offer program specially designed for teens.

## II. The Role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CKC)

As the number of immigrant churches grow, so to the structure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Likewise, the role of CKC must expand. The Council' s role must, just as the church has, distinguish between responsibilities to offering pastoral care, church care and service to the immigrant population.

### 1) For the Pastors to Fellowship

Initially CKC provided a place for pastors to fellowship. Now in its 35th year, in 2009, Greater New York CKC must leave behind its limited role as provider of pastoral fellowship provider and organizer of joint sports events for small churches. Within many religious organizations pastoral staff organizes retreats and seminars with the assistance of internal church committees. Instead individual organization, church committees or pastors organizing these seminars exclusively for their congregations or staff, CKC should.

### 2) For the Immigrant Church

(1) Council of Korean Church of Greater New York by hosting the Hallelujah Korean Crusade ? its pride and joy ? has carried out the great commission among the Korean immigrant population. A prized tradition, this event should not just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arge churches, but more small churches in order to maximize the event' s effectiveness. Furthermore, after such large scale outreach events finish, CKC should support follow-up of new believers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Indeed, efforts like these provide the spiritual momentum to assure revival within the Korean church.

(2) CKC can protect the church from cults. CKC must protect the church from cults sprout up like weed, infiltrating the church and church member' s homes by educating them to spot and avoid cults. Cults once active in Korea has infiltrated American immigrant soil target immigrant churches with New York in general and New Jersey in particular acting as a major breeding ground. CKC can no longer continue to sit dully by. They must urge and warn churches of the dangers, taking the necessary steps toward providing both preventative and preemptive training.

(3) CKC must act as a stimulant for the Korean-immigrant population in general and the church in particular. Some pastors lack vision or proper training, or operate their churches like profit bearing corporations. CKC must ferret out unclear religious organizations engaging in suspect practices. CKC should awaken the consciousness of churches that are morally depraved, or engaging in overly competitive behaviors.

(4) Political Organization Involvement

The number of organizations within the Korean-immigrant society is growing. And as such, many political figures and organizations align with them. In light of the fact that Korea have not been granted the right to vote in South Korean elections, the church runs the risk of giving into the temptation of taking on a particular political color. Therefore, CKC should refrain from giving contribution to any South Korean political org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it from becoming just another political organization. In fact, CKC must take the lead in mediating heated campaign rallies.

In conclusion, CKC must not serve as a middleman for churches of the Greater New York area, or a place for pastoral fellowship or some headquarters from which they reign over all the churches. CKC was intended to be a spirit led institution created to serve the church and facilitate revival in the role of 'Holy Spirit Helper' .

As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enters its 35th year, it must

revisit to its initial purposes to act as a spiritual center. When it fulfills its purpose, the church will be freed to perform the mission to which God called her, that of being His obedient servant humbly carry out her mission until the day the Lord returns.

Rev. Dr. Samuel Jang, Senior Pastor
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
16th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논단–

# 5.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 신학의 정립

김상모 목사_35주년 편찬위원장, 13대 교협 회장(UMC 원로목사)



이 글은 평신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평신도 신학적인 차원에서 쓰여졌다.

이민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개척의 광야에서 모세와 같은 쓰라림을 안 당한 목회자가 거의 없다. 그것은 이민신학의 부재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책임져야 할 목회자의 문제다. 필자는 선진국들의 이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민교회의 가혹한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받아야 할 당위성이라고 본다.

이 글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글은 필자가 한국목회 15년을 포함하여 지난 51년간의 목회에서 얻은 목회 경험에 기초한다. 이론신학이 아니라 특히 이민교회 36년간의 목회현장에서 경험한 수학이라고 본다.

초기 이민 목회자들은 조직신학만이 신학의 군주로 군림하던 시대에 이민을 왔다. 초기 이민 목회자 대부분은 '이민신학' 같은 실천신학에는 무지했다. 이제 이민신학의 기초학문이 요청되며, 이민신학의 정립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본다. 그것은 교협의 35년사가 말하고 있다.

## 1. 서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서 우주화 시대로 돌입하는 21세기에서 산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우주 시대에서 전산기공화는 기독교의 존폐가 달린 강한 이슈로 도전장을 던졌다. 광속보다 빠른 빛을 창출하는 인간의 능력이 창조자를 앞지를 수 있는 경탄의 시대다. 이제 교회가 변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변화는 우주문명으로 화를 겪은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신학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주신학의 한 과제요, 이민신학의 험준한 현장이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목회자는 평생을 광야의 개척자의 모습으로 산다.

이민자,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 이민의 특성은 무엇인가? 한국 이민의 사회심리학적 분석은 있는가? 한국 이민의 사회학적 데이터는 있는가? 이민교회와 한국 교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국 이민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민의 개척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 2세들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타민족의 이민사와 이민신학을 아는가? 한마디로 이민신학이 있는가? 이 같은 질문들은 이민 목회자의 궁극적 과제이며, 이민신학의 과제여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상의 질문과 지식 없이 이민을 왔고 교회를 개척했다. 토양의 질과 이방의 기후를 모르고 땅이 있으니 개간하고 무조건 씨앗을 파종한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많은 농부가 고통과 실패를 당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나 수확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탓인가? 우리는 이런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그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이룩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민의 황무지에서도 택하신 백성의 새싹을 모아 오늘날의 교협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평범한 유랑자, 곧 이민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창 12:1~4)으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의 목적이 있는 이민자였다. 그런고로 이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고전 3:16)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 이러한 성서적 맥락을 토대로 본 이민신학의 논단의 주제를 '디아스포라로서의 에클레시아', 즉 평범한 '이민자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로 이름하였다. 그것은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개인이며, 동시에 우리 개개인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고전 3:16)이라는 성서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반드시 목적이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민 보내신 목적을 가리킨다. 본 논단의 주제가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민자들의 교회라는 뜻)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정독하기를 바란다. '에클레시아로서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연합하여 교회협의회를 이루었다. 35년 동안 교협의 줄기가 그런대로 굵어가고 있다. 이제 이민신학의 정립이 여물 때가 온 것이다. 이 글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민자들의 교회'가 목표하여 지향하는 이민신학 정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 초기 이민교회의 현장과 목회자의 역할

이민의 나라 미국과 세계 정세의 조류에 따른 한인 이민사의 변화와 교회의 정체성을 감안하여 이민교회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 제1기 1903~1945년 : 이민교회 정착기(정착과 생존, 교회의 애국 독립운동과 해방)
- 제2기 1946~1964년 : 이민교회 쇠퇴기(후세들의 신앙 쇠퇴와 교회 소진)
- 제3기 1965~2000년 : 이민교회 중흥기(문화 종교적 신앙과 교회 정체성의 갈등)
- 제4기 2001~현재 : 이민교회의 활성기(선교 활성과 우주 시대의 신학적 도전)

본 논술에서는 제3기와 제4기를 중심으로 하여 다룬다. 그 이유는 이민교회에 대해 무지했던 필자가 부득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디아스포라의 신학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03년 이민 초기 하와이 한국 이민교회는 모두가 감리교였다. 그리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인교회 가운데 7개가 감리교회다. 그 이유는 최초 이민자 102명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인천 내리감리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은 '한국 이민 100주년 100인 설교'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집 가운데 필자가 쓴 한영 에세이 "우리는 역사의 새 장에 서 있다"(What is the new hope for the next centennial?, 쿰란출판사, 2003, p.776)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민 제3기에 접어들면서 당시 미국 본토에 한인교회가 20여 개 있었다. 1965년 동양인의 이민이 개

방되면서 한인 이민은 급속도로 늘어나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 초창기에는 초교파 교회들이 대부분이다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교단 교회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독립교회로 남아 있는 교회도 있었다. 현재 한인 장로교 교단은 미국 안에 약 20여 개가 되며, 감리교단, 오순절교단, 침례교단 등 대개 교단이 2개 이상이 된다.

이민 초기의 목회자의 역할은 사회복지 서비스맨으로 헌신해야 했다. 이민 오는 자의 공항 수송관계, 아파트 구입, 취업 알선, 영주권 수속, 자녀 입학 · 전학 · 취업 문제, 결혼 상담, 이삿짐 운반, 청소년 비행 문제, 베이비시터, 쇼핑 안내, 병원 안내, 장례식, 약혼식, 결혼식, 중매 역할, 통역 봉사 등등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다. 사회사업가 혹은 복덕방이 할 일을 대신해야 했다. 한편 잠을 못 자고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 심방, 병문안, 주간 집회 인도, 교회 운영과 관리, 교회교육, 주보 준비, 심지어 교회 청소와 베이비시터, 교인들의 잔심부름, 기타 행정 업무, 절기 특별행사, 각종 부흥회 등 다양한 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해냈나 싶은 엄청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자질과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때를 따라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 매달려 부르짖었다. 지금 안정된 목회를 하는 젊은 후임 목사들은 선배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 교회의 초기 이민사도 비슷했다. 초기 미국 목사들은 필요에 따라 도시의 행정 책임자, 교육 책임자를 맡았으며, 때로는 권총을 차고 설교했던 서부 개척시대의 일화를 들을 수 있다.

제3기 이민자들의 모습은 100여 년 전 이민자의 이민정신과는 아주 달랐다. 초기 이민자들은 나라가 망하자 절망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미국에 와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삶을 개척해나갔다. 하지만 제3기 이민자들은 가난한 조국을 떠나 보다 잘살아 보려고 이민 온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를 비롯하여 모든 크리스천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교역자들은 가발상에서부터 식품점, 청소부 등 노동을 했다. 그리고 합법적인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했다. 70년도 초 요행히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장학금으로 유학을 온 필자는 공부만 해도 되었다. 하지만 교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학업과 목회가 힘들 때에는 교회를 떠나려 하기도 했지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예정된 것임을 깨달으며 계속한 것이 70세 정년까지 이민목회를 하게 되었다.



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초신자들이었다. 한국에서 교인이었다는 교인들도 훈련된 믿음이 아니었다. 대부분 날탕 신자들이었다. 해방 후 70년대 초까지의 교포사회는 국제결혼, 유학, 혹은 전문직 교민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유학파 출신 및 전문직 교민들은 엘리트 의식이 강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혈연, 학연, 지연, 교연(동일 교회 출신)파 등으로 얽혀져 보이지 않는 여러 벽이 가려져 있었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형성될 수가 없었다. 문화 교인들과 엘리트 종교인들이 주인 노릇 하는 교회 중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가 사교 클럽 정도의 모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결국 해체되는 교회도 있었다.

소위 3만(교만, 자만, 충만)과 4연(혈연, 학연, 지연, 교연)은 성경적 교회로서의 부흥 성장에 악재이다. 친교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채점 발표하는 것이 담소적 농담으로 봐 주기에는 설교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목사의 위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신앙적 에티켓을 알 리가 없었다.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사상 교회로 굳어지는 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앙으로 고착하는 교회도 생겨났다. 목회자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인내에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 부흥 성장하다가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하는 교회들이 있다. 파란만장한 것이 이민교회 현실임을 절실히 느낀다. 무슨 이유이든 한 번 이상 교회를 바꾼 경험자가 아마도 교인 중에 60퍼센트가 넘을 것이다.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인내하며 목회를 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적 불안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민 온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취업 이민과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민한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반면 불법 체류자도 있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더 많은 심려를 해야 했다.

한편, 이민교회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영주권 문제 등 심한 갈등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모국에서 파산을 하고 온 자들, 윤리적 범죄로 도피해 온 자들, 빚에 쫓기어 온 자들, 이혼의 상처 등을 안고 온 자들이 간혹 있어 안정된 생활로 정착하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이것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요 교역자가 맡아야 했던 짐이기도 했다. 새벽기도와 금요 철야기도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열거해 부르짖었다. 이민 초기 교회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생활로 교회마다 뜨거웠다. 그리고 부흥의 열기는 대단했다.

이민교회 중흥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들이 성장해 갔다. 반면에 쌓인 불만과 파당으로 교회 분쟁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교회 분쟁으로 분립되든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그것은 성장기에 필연적으로 오는 사회학적 현상이기도 했다. 정립되지 않은 이민신학의 결핍으로 교역자들은 많은 역경과 고통을 당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목회가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신병으로 타계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화자들은 기도운동과 금식기도회 및 산상 영성집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이겨나갔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교회가 합심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등 자체 교회당을 소유하는 교회들이 늘어갔다.

## 3. 이민신학 형성의 3대 요소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 이유는 그 교단의 교리와 신앙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목회자 양성을 위함이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신학사상과 신앙이 중심을 이룬다.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와 신앙을 토대로 한다. 루터교는 루터의 신앙사상의 전통 위에 선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 침례교, 구세군 등 그 교단의 교리와 신학사상은 교단신학의 특성상 결코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단은 여럿이나 성경은 하나이다. '진리와 자유' (요 8:32)라고 하는 신학의 본질 위에 모든 교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교회가 연합하여 같은 복음의 노선을 갈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민신학의 근간을 셋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신학은 하나님의 로고스(Logos) 위에 두어야 한다. '진리와 자유'는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민신학의 기반인 로고스 위에 모든 주류 교단은 연합 사업을 할 수 있다.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은 교회들로 하여금 케리그마(kerygma) 선포를 통해 연합의 힘을 발휘케 한다. 이 힘이 교회협의회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 힘으로 개체 교회들은, 오직 로고스 케리그마의 역동적인 복음의 토착화를 위해서 조화된 복음의식으로 이민교회가 꾸준히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혁신적인 이민신학의 사명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회의 의지이다. 자연 케리그마의 다양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는 너그러운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미래를 새롭게 여는 선구자적 역할과 현대신학의 민감한 역사의식을 개발하고 시대에 도전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이민사회는 희망한다. 이 힘은 무한히 열려 있는 '진리와 자유'의 당위성에서 온다. '진리와 자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오직 주님만이 케리그마(복음의 선포)의 사령관이시다.

둘째, 이민신학은 로고스의 끊임없는 Correlation에 근거한다. 이것은 중세 교회가 부귀영화와 권력의 비만으로 부패 타락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Correlation은 신학자와 목회자의 공존원리이다. 신학자와 목회자의 꾸준한 연구와 반성은 그만큼 이민신학의 생명이 된다. 이민사회는 신학의 자료이며 교회는 신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Correlation의 역동적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역사가 신학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신학의 장으로 성립한다. 목회자는 '말씀'의 노동자이다. 공장인으로서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를 이루는 종의 모습이며, 나아가 '신학'의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며 대답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신학은 신토불이의 관계(Correlation)이다. Correlation의 지속은 현장의 신학이어야 한다. 전 세계 이민교회들이 Correlation의 교류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할 때 허와 실을 터득하는 지경이 넓혀진다. 이것이 상호관계성의 생명이요 힘이다.

셋째, 이민신학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Universal의 선교 위에 근거한다. 교회는 선교로 그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 특징은 교단신학을 초월한 로고스의 보편성(Universal)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이며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된다. 보편성은 곧 복음의 우주적이라는 선교의 무한한 열림을 말한다. 개신교의 수많은 교단이 바로 로고스의 보편성, 곧 선포되어야 할 선교의 당위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파의 특성은 하나님의 조화의 창조적 질서에 합한 무한한 Universal의 위력을 내포한다. 이제 이민교회는 교단의 벽을 넘어서서 우주의 이민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의 교회가 Universal하다는 것은 상호 통상 공급 기능에 Organic Ekklesia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순전한 복음, 즉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Universal의 특성은 글로벌 시대의 교회들을 에큐메니컬 비전(ecumenical vision)으로 초점화시키는 데 있다. 나아가 Universal Organic Church(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 의의를 갖는다. 이것이 Universal의 유익함이다.

이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케리그마에 원초적으로 부합하는 신학적 다양한 선교의 자원이요 교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각처에서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의 봉사의 본질로 존재해야 한다. 보편성은 곧 코이노니아(koinonia)의 세계적 보편성(universal) 선교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런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신학사상은 초대 교회 시대의 신앙고백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의 이민교회는 보편성에 근거할 때 더욱 선교의 생동성으로 활기를 띠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전초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 4. 이민신학의 정립과 비전

### 1) 신학교와 목회자 난립의 문제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된 신학생 수가 해마다 세계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의 수보다 많으므로 오늘날 한국 교계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학교와 목회자의 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일원에도 20여 개의 신학교(2005년도 뉴욕교협 발행 주소록에 등록된 신학교만 22개)가 있으며, 미국 안에 약 100여 개의 신학교가 있고, 미국을 제외한 해외이민 16개국에 약 150여 개의 한국 신학교(2005년도 세계 한인교회 주소록.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에는 137개 신학교)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소록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신학교를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학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의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매년 졸업생의 수는 엄청나다. 신학의 난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과적으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설립하므로 교회가 난립된다는 것이다.

목회가 하나의 세속 영업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교역자들의 자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일원 한인 경영 신학대학원 상당수는 무허가다. 가짜 졸업장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뉴스메이커, 2004년 12월 8일, 뉴욕 발행) 등의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한 활자로 났으니 교민사회의 불신의 축이 되고 있다. 공인할 수 없는 신학교에서 받은 신학박사들, 혹은 가짜 박사들이 너도 나도 신학교 교수가 되어 박사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아모스처럼 우리는 바르지 않은 신학교부터 축출해야 하며, 목사의 자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변화기(2000년도부터)에 접어든 이민교회는 새 시대에 걸맞은 과감한 변화의 모습이 요청된다. 뉴욕교회협의회는 신학교의 난립과 자격 없는 목회자의 배출 문제 등을 과감히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 안일한 목회를 벗어나 과감한 변화의 역동성을 발휘해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교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 변화기라고 해서 과거를 무조건 부인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뿌리의 전통을 무시한 변화는 쉽게 시들고 만다. 이기적으로 독주하는 교역자가 없어야 한다. 대형 교회의 성공에 만취되어 유아독존적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독선이 행여나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독교의 모토는 변화를 위한 세계화로 나아가라는 교훈이다. 청빈과 나눔에서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베풀고 나누며 품어 안는 복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다. 이러한 결단과 비전이 이민신학의 정체성에 기저가 되어야 한다.

### 2) 교회의 정체성과 목회자의 소명

중세 교회의 타락의 모습은 역사의 교훈이다. 시대나 환경이나 사정이 변해도 교회의 본질과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의 한인교회의 정체성은 건전한가?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민교회는 건전하지가 않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지으며, 분쟁하고 분리하며, 음란과 비행 등 교회의 문제가 사회 법정으로 비약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기복신앙의 변칙 목회는 사이비 기독교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앙의 분파주의, 이단 집단의 부식은 교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심각한 암적 존재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역사가 깊은 교회든 초기 개척 교회든 모두 건강하지가 않다. 교회의 대형 기업화,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세습화의 문제는 현재의 것만은 아니고 기독교 역사의 묵은 논쟁 중의 이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의 산물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마약과 같다.

이러한 현실에 이민 목회자들은 심각한 내면적 충격에 빠진다. 교회의 난립과 목회자의 자질 문제 등을 위해서 이민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이민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의 분쟁, 심신이 망가진 목회자들, 교회의 갈등과 충돌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에 의한 성령의 능력뿐이지만, 우선 교협을 중심으로 바른 이민신학의 정립이 요청된다.

디아스포라의 이민신앙은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소명에서 시작했

다. "소명은 사명보다 앞선다"는 것이 필자의 목회철학이다. 소신은 신념이다. 목사는 사명이기 이전에 소명의식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다(롬 1:1~2).

디아스포라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소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따르는 체험을 하게 된다. 목회는 이 힘으로 견디고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소명의식은 목회의 기본이다. 때로 늦게 목회를 시작한 이들이 목회에 활기를 띠는 것은 확실한 소명(calling)의식이 있기 때문이다(롬 1:1~2). 소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 목회를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 자신의 문제이다. 사명만 가진 목회자를 만나면 교인도 고생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목회는 사명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사명의식이 따르는 법이다. 사명은 군인에게도 정치인에게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명은 없다. 그런고로 정치를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하지만 소명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불러 세우심'으로, 일반적 사명의식과는 다르다. 실존이 존재보다 앞서는 것과 같이 소명은 사명보다 앞선다. 명심할 성경적 정의이다.

초기 한국 교회는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회정의와 인권운동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복음주의운동과 영성부흥운동을 통하여 헌신한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음운동(social gospel movement)과 영성운동(spiritual movement)을 조화 있게 이루어 나간 한국 교회의 참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이었다. 이를 오늘 이민 교역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이민교회를 개척하고 육성시키고 부흥발전시켜 성숙한 교회로 이끌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음운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소명은 목회신학의 핵이며 이민신학의 획이다. 이 획은 인간이 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본 논단의 제목을 '디아스포라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라고 명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이민교회는 이민자가 세웠으나 이민 오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전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고로 이민자가 이민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서의 디아스포라'가 모여 이민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뜻이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연 이들이 교회를 세우니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뿐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된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이민 100여 년이니 제3세대가 지나갔고, 이민교회는 제4의 한 Quadrennium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동성연애, 우주세계, 복제인간, 핵의 공포, 조국의 통일과 애국사상, 무신론 사회주의 운동 배격 등 위기의식적인 문제 앞에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공포의 균형이 결코 핵시대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민의 현장은 무엇이며 이민교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예시적 신앙의 조명을 가지고 이민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이민신학의 3대 동력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칫하면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기 쉬운데,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로고스가 바르게 선포되는 케리그마의 교회를 이룩해야 한다. 케리그마의 강력한 동력화가 되는 로고스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 안에서 '성도 교제하는 일'로 이끌어가는 코이노니아(고후 8:4)로 결속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결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한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날로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의미한다. 사실상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diakonia)가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케리그마가 넓게 깊게 심어진다. 이 케리그마가 복음의 세속적인 타당성(secular relevance of the Gospel)으로 세상 안에서 동력화(선교와 복음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예배(liturgy, 예전)는 다 헛것이 되고, 무의미하게 된다.

셋째, 복음이 세속 속으로의 동력화로 이민사회에 공헌하는 디아코니아의 정신, 곧 섬김의 믿음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 섬김은 이웃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존 웨슬리의 구호처럼 세계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인 선교운동을 이민교회로 이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로 그 존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교회협의회는 초교파적 '교제와 섬김' 곧 '협력과 공화의 선교정신'으로 복음화의 선교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개 교회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성령의 역사로 동력화할 때 비로소 케리그마가 살아 역사하여 세속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가 되는 교제와 섬김의 융합은 곧 말씀이 육신을 입은 성육신(incarnation)의 폭음으로 진동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음의 기폭이요 말씀의 세계화이다.

이민신학은 실천신학으로서, 이론과 사상에 멈추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다이내믹한 행동하는 신학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신학은 말씀의 동력화의 신학이다. 로고스-케리그마, 로고스-코이노니아, 로고스-디아코니아, 이 셋은 동맥화의 3대 핵연료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우리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섬김'의 길로 인도한다. 어떤 신학이든지 현장에서 시험된 것이어야 교회의 영양이 될 수 있다. 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신학은 한갓 이론으로 끝난다. 교회의 성장은 살아 있는 신학의 지원에서 온다. 그러므로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로고스의 동력화로 시동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동시에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만일에 세 가지 동력의 핵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며 교회는 무기력하게 된다. 사명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도 세상 조직에 불과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 조직도 제각기 사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 소명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유한자의 것이 아니고 무한자 곧 하나님만의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목회자는 명심해야 한다.

### 4) 이민신학의 역할과 비전

한국의 기독교의 분포는 거의 20~25퍼센트이며, 해외 기독교의 분포는 50~60퍼센트이다. 지금도 한국인의 60퍼센트 이상이 한 번쯤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80퍼센트 이상이 자녀의 해외유학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 세계화시대의 문명인의 사고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해마다 이민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800만에 가까운 해외 이민교포가 있다.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21세기 세계화의 초기 현상은 조국의 개념을 넘어 해외 이민의 폭이 넓어지는 변화이다. 상대적으로 이민교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는 이민신학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신학교에는 이민신학 정규 과목도 없다.



지금도 많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이민의 꿈을 꾸며 이민의 대열에 속속 끼어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신학교나 교회는 해외 이민신학에 대해서 준비되지도 않았고 전혀 아는 바도 없다. 신학교에 이민교회에 대한 교역자 특별 세미나와 같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다. 이것은 한국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서구 신학에만 몰두하고 변증신학만을 신학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념시대를 넘어 실용주의 시대, 곧 개방 경제 산업화의 시대이다. 21세기는 예측 불허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당장 코앞에 닥쳐온 민족의 엑소더스를 교회와 신학교는 전근대적인 태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군도에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의 엄청난 피해와 맞먹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지도자의 예언자적 지도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적 신학의 부재이다. 해외여행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민 가는 목회자나 교인들을 위한 특수 교육 및 이민신학 세미나를 마련해 주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민은 왜 가야 하는가? 이민 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의 성경적 의의는 무엇인가?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 사회문화적 충격에 대비할 신앙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해외 이민 800만을 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이민 신앙생활과 이민교회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해외 교역자들의 책임이 중대하다. 이민신학의 정립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내외에서는 이민 역사와 이민신학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혹은 특별 집회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적어도 성경신학에 기초한 이민신학의 정립이 요청된다. 이민 가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담임목사가 심방하여 축복기도 정도로 끝내는 무책임한 목회는 이제부터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이민 가는 교역자는 반드시 이민신학을 배워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뉴욕교회협의회 혹은 목사회는 연중행사로 이민신학 심포지엄 혹은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수강과목을 정하고 리더십 훈련 지속 교육 프로그램(leadership trai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을 만들어 매년 정규적인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담임목사는 앞서 가는 신학사상을 갖는데 평신도 지도자는 낡은 사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민 개척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정규적인 이민신학의 특강을 계속해야 한다. 강사는 수십 년간의 이민목회 현장에서의 체험담이 살아 있는 교과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귀중한 자산을 묻어 두지 않기를 바란다.

## 5. 결론

사도 바울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빌 3:12)는 고백과 같이 목회자는 끊임없이 이민의 현장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보다 나은 사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목사는 현장의 신학자"라는 말과 같이 이민목회자는 현장의 신학인이다. 이를 위하여 신학은 꾸준히 목회현장과 밀접한 상호관계(correlative role)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외 교회협의회는 이민신학의 심포지엄 혹은 이민 현장 신학을 학습해야 한다. 목회자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평가하며 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신학자의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신학만큼은 이민목회자의 몫이다. 이를 위하여 타 민족의 이민 역사와 이민교회와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필자가 70년대 초 유학 당시 드루 신학대학에서 특히 '미국 이민사와 이민교회' 에 대한 강의와 심포지엄 및 포럼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익했다. 목회자로서 회고하건대 목회자에게는 다른 변증신학보다도 실천신학이 자산으로 남는다.

일찍이 토마스 윌리엄 아이작(Thomas William Issac, 1863~1947)은 자국민 폴란드 농민들의 이민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에서 네 가지의 원망설(願望說)을 주장하였다. 첫째, 생활환경 개선(better shelter), 둘째, 사회적 인정(recognition), 셋째, 소유(belonging), 넷째, 공헌(contribution) 등이 이민자의 꿈이라는 것이다. 이민목회 심리학에 참고가 된다. 아브라함의 이민신앙과 특히 청교도들의 이민신학을 비롯하여, 각 인종과 국가와 종교의 다양한 이민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한민족의 새로운 이민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이민신학의 사명과 비전은 크다.

신학이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장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요 가르침이다.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혁신해 나가는 논리적 작업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진리와 자유' 로 훈련받은 교인은 누구나 작은 신학인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변화는 성경진리 안에서의 변화여야 한다. 교리와 전통은 변화될 수 있지만 말씀의 케리그마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의 과제가 이민신학의 몫이다.



해외 이민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장과 문화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민신학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민신학의 근간은 성경 위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 교회와 세상, 나와 너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Universal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둘이 융화상관을 이루기 위하여 로고스는 하나이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가 둘일 수는 없다. 이것은 초교파적 세계복음화의 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세계선교회의(Korean World Mission Council)는 자랑스러운 이민신학의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교단들이 건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선교사, 선교 동반자는 이민신학의 구심력이며, 교인들은 이민신학의 자원이다. 이민신학은 목회만이 아니라 학원, 선교, 군대, 자선, 예능, 문학, 생태의학, 생명공학, 환경학, 나아가 우주공학 등등 많은 분야로 연구되어야 한다. 신학 없는 목회는 3C(challenge, charge, change)의 공허로 자칫 이단으로 흐르기 쉽다. 신비주의 및 독선적인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민교회 목회자는 꾸준히 자기를 반성하고 연마하며 교회와 사회를 관찰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회는 자고 나면 어제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민신학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적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 교회와 세상은 신학의 현장으로 공존해야 한다. 많은 신학이 신학자의 소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민신학은 이민교회 목회자의 가슴에서 나온다. 이론이 아니라 산실의 고통을 체험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공리공상하는 이념적 신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민신학은 글자 그대로 실천신학이다.

목회자는 이민교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내로써 목회를 해야 한다. 기도와 사랑만이 목회자를 견디게 한다. 기도로 말씀을 얻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사랑과 인내는 목회의 덕목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목회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충언은 금언이다(벧후 1:5). 목회자의 인격은 믿음의 덕으로 말하게 된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아무리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도 목회에 덕이 없으면 맛 잃은 소금이다. 덕은 관계요, 믿음의 내용이다. 이민신학은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 덕은 세운다고 표현한다. 참으로 의미있는 말이다. 주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의 덕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 대목이다. 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는 말씀대로 이민교회는 오직 믿음의 덕으로 복음을 확장해 가야 한다. 실천신학인 이민신학은 덕을 선전(전도)해야 한다. 이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존재한다. 덕을 세

우는 믿음만이 성령의 열매가 되며, 이민신학의 씨와 얼이 됨을 강조한다.

이제 필자의 세대(제3기 초기의)는 맡겨진 한 세대를 접는다. 선배가 그러했듯이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세계 교회 봉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 지금도 '진리와 자유' 의 본체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화와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계 이민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믿는다.

"Vergest uns nicht." (우리를 잊지 마시오.)

독일 퓌르트(Furth) 시의 무명용사의 비문에서 감명을 받았다. 120여 년 전 암흑의 나라 한국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 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의 사랑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민을 적극 지원한 인천 내리교회의 존스 선교사와 초기 이민선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후에 이민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들(주로 감리교회의 남자 권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이민교회가 있기까지 피땀과 물질을 바쳐 헌신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 집사, 성도들의 복음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늘 순복하며 만물의 총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사랑에 은총에 보답하는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이민교회' 가 되기를 바란다.





# 6. 이민교회와 신학 교육의 과제

김정국 목사 _ 제14대 교협 회장 (뉴욕한민교회)



이 논고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다루려고 한다. 바로 이민교회라는 것과 신학 교육이라는 것이다.

## 1. 이민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3)고 했다. 교회의 기초와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다(요 1:14).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교회가 아니다.

첫째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고, 둘째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존재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 개신교회의 신학 전통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영광(sola gloria)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하고, 주 안에

서 성도의 교제를 넓히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의(one), 거룩한(holy), 보편적(ecumenical), 사도적(apostolic) 특성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로 성도가 하나 되고 세계 인류를 하나 되게 해야 하며, 둘째로 거룩해야 한다. 세속적인 불의와 죄악에서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가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성도들의 상호 친교이다. 넷째로 사도적이 되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의 머릿돌로 한 그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것이다(엡 2:20~22). 교회로 하여금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불은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회의 원리적이며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다. 이민교회 역시 전체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특성도 존재한다. 모국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는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없으나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그것들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우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회의 사역과 역할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 초기에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항에서부터 거처할 처소와 직장 알선, 학교 편·입학 등 이민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교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점에서는 모국 교회의 역할과는 다르게 그 비중이 크다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과 동시에 시작한 교회생활인 만큼(물론 모국에서 교회생활을 한 성도도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나의 사교단체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배 후에 맥주 한잔씩 하면서 "목사 선생도 한잔 합시다"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목사는 고용인이고 교인은 고용주처럼 생각하여 '교역자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을 당연한 것' 으로 여기는 때에 사역한 목회자들이 있었다. 동시에 초기 이민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내 교회라는 의식이 부족해서 자주 옮기며 교회를 쇼핑하는 자들이 많다. 반면에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여겨 자신을 설립 멤버라고 강조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사람도 있어 목회자들의 고충은 더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교회를 위한 지도자 양성은 그 사명과 역할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 2. 신학 교육의 과제

이민의 역사가 더해 감에 따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동시에 교회도 많아졌다. 이에 부응하여 신학교도 그 수를 더해 가고 있다. 모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교회와 교인 수에 비해서 신학교 수가 많다고들 한다. 이민자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신학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미 세워진 신학교에서 시대와 교회가 요청하는 지도자가 양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신학은 '이해를 찾는 신앙'(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개혁신학의 전통이 되고 있다. 신학은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학은 신학, 즉 신을 배우는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신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생겨난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신학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전통을 연구하는 역사신학, 신학을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신학, 기독교의 윤리생활을 다루는 윤리학, 교회의 질서를 다루는 실천신학, 그리고 교회의 교육을 연구하는 교육신학 등이 있다.

이 모든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이다. 그 사역은 예언자(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이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 각각 따로 그 직책을 담당해 왔다. 그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제사장은 사람들의 온갖 문제(특히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여(제사) 용서받는 일 및 각종 제사 집례 등을, 왕은 하나님께 위임 받은 권세로 사람들의 질서와 인권을 위하고 평안히 살게 하는 일을 하는 사역이다.

이 일이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늘에도 이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회가 이 일을 맡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역, 성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적 사역,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적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것들을 간추려 보면 예언자는 대언자로, 제사장은 대도자로, 왕은 대행자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교회가 이 세 직능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지거나 그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미 교회 구실은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 교육 역시 이 직책을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신학 교

육이 부실하여 가끔 검증이 잘 안 된 목회자가 사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 신학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끔 변칙적으로 목회하다가 많은 문제점을 낳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이런 점이 불신 사회에까지 알려질 때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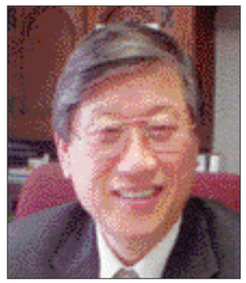
기독교 윤리는 그 어느 종교의 윤리보다 가장 숭고하다. 특히 산상설교(마 5~7장)에서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차원이 높아서 따라갈 윤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역자 양성기관인 신학교들이 책임 있는 교육에 힘써 주었으면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교육이 곧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생명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성장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 7. 할렐루야 대회 역사 회고

양희철 목사 _ 제15대 교협 회장 (포레스트 믿음장로교회)



1980년부터 시작이 된 뉴욕의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2009년까지의 행사로 30년이 되었다. 이것은 뉴욕 교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금자탑을 이루는, 잊을 수 없는 매년마다의 교회 연합 행사이다.

이민 초기에 미국에 익숙하지 않던 초기 이민자들은 의지하는 것이 교회였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았다. 교회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었고,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교회 목사님들이 새 이민자들의 인도자가 되었다. 아이들의 학교 입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취직이나 가게를 얻어서 자영사업을 하는 일까지 목사들이 도왔던 것이 이민 초기의 삶이었다.

이민을 와서 정신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 교회의 부흥회는 활력소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에 오기 힘든 때 교회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교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흥회 하는 교회들을 찾아서 열심히 참석을 하였다.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 신문에 광고를 크게 내어서 자기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봉사를 하였다. 부흥회를 한다는 광고는 한국 신문에 끊임없이 나왔고, 교회의 광고가 신문사 운영에 큰 도

움을 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교회협의회가 생기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목회자들의 뜨거운 열정은 뉴욕교협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자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1980년 6대 회장이던 신성국 목사님 회기 때 만들어진 산물이다. 준비위원장은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던 박재영 목사님이었고, 처음 강사는 LA동양선교교회 담임 임동선 목사님이었다. 처음 이 전도대회를 만드는 데 수고를 특별히 많이 한 젊은 목사들이 있었다. 준비 과정이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며 여론도 듣고 같이 기도하며 몸으로 수고를 한 목사들이다. 지금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젊은 목사들이었다. 앞에서 모든 것을 한 분은 중년의 노련한 목사님들이고, 젊은 목사들은 보이지 않게 일하였던 기회를 가진 덕에 할렐루야를 사랑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감리교 남학희 목사이고, 침례교회 노순구 목사이고, 끝으로 장로교 양희철 목사였다.

미래를 내다보는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와 크리스천들의 힘을 과시하며 외국 땅에서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 보자는 회장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 봉사한 용사들이었다. 크게 참여하든 적게 참여하든, 한 새로운 역사의 태동을 바라는 봉사는 오래오래 남는 기억이 됨을 새삼 느낀다.

여러 시도를 통하여 처음 장소로 정한 퀸즈 칼리지 골든 센터는 큰 규모였다. 경비도 많이 들지만 경험 없는 연합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걱정이 되었다. 2,500석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이기에 큰 수가 아니지만,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오후 예배를 보던 때라 모험치고도 꽤 큰 것이었다. 목사들의 마음이 작기는 하지만 기도가 무기이므로 임원들과 관심을 갖는 목사들이 매주 주중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대성공을 하게 되었다. 성공한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매년 계속해서 교회협의회의 제일 큰 사업이 되었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전도대회를 알게 되고 여기에서 설교한 강사는 유명해졌다. 물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만 모셔오기도 하였지만 대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뉴욕의 할렐루야 전도대회에 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마치 뉴욕의 할렐루야 전도대회가 유명 목사의 이름을 선전하거나 인정하는 것같이 되었다.

초창기 10여 년은 할렐루야 전도대회가 흩어진 교인들을 만나는 재회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민 삶의 안정기가 아니었으므로 이사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옮기는 때라, 할렐루야 전도대회에 오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가워하였다. 서로들을 보고 즐거워하던 때라 마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흥분도 있었다. 크리스천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2008년 10월 12일 은퇴하신 뉴저지 한소망교회 김용주 목사님이 1982년 8대 회장으로 3회째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마친 후에 뉴저지교회협의회가 탄생을 하여 뉴욕교회협의회와 나누어진 것이 섭섭했지만, 집안이 커지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뉴저지를 포함하여 대뉴욕지구라고 하다가 분리되었으나 이름은 그대로 뉴저지교협은 작은집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뉴저지교회협의회 교회주소록이 그대로 뉴욕교협 주소록에 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기록이 유지되고 있고, 뉴욕 전역을 위해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해오고 있다. 한국 공동체의 존재를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믿지 않는 교포사회에 알리고, 정치단체 못지않게 뉴욕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협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협의회 건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청소년센터가 생기게 되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은 단체나 가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히 있어야 하고, 있을 때에 그 조직이 잘 유지된다.

할렐루야 대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해 첫째로 교회가 하나 되고, 둘째로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셋째로 성도가 하나 되고, 넷째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능력 받아 새롭게 도전하는 비전의 대회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리라.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우리 뉴욕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처음 할렐루야 집회를 위하여 사랑을 쏟았기에 30년을 이어오는 할렐루야 전도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이 큰 역사에 처음부터 동참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나 혼자 "너는 할렐루야 전도대회의 산 역사"라고 중얼거리면서 할렐루야 전도대회와 나의 목회가 함께하였다. 증언의 역사와 함께 내 목회도 내 삶도 사라지지만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 8. 할렐루야 대회의 선교적 의의

방지각 목사 _ 제17대 교협 회장 (뉴욕효신장로교회)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중에서 뉴욕에 거주하는 성도에게 해마다 열리고 있는 '할렐루야 대회' 는 행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청소년 집회와 어린아이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대뉴욕지구 교회가 힘을 모아 함께하는 '할렐루야 대회' 는 때로는 온 교민들의 신앙을 결집함으로써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때로는 이민자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신선한 청량제가 되어 참으로 위안과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집회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뛰며 헌신한 교계의 지도자들의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고백하며, 교파와 교회를 초월하여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한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 대회가 벌써 35주년을 맞이하는 뉴욕교회협의회의 커다란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음을 회고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할렐루야 대회' 가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이 대회의 본래적인 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적 대사명' 을 감당하고자 하는 커다란 의미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 대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대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복음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때를 따라 믿는 자들의 응집된 힘을 모아 서로를 일으키며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그 모임 자체만으로도 할렐루야 대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응집된 모임의 힘이 오늘 우리 교민들이 살아가는 선교적 장(場)으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민들이 단지 타향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복음 전파의 장으로 뉴욕 지역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민족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변 상황을 선교의 터전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일깨우는 '각성의 기회' 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을 바라보면 100여 개가 넘는 인종이 나그네로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장에서 할렐루야 대회는, 보다 많은 교포 신자들로 하여금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야말로 선교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는 적극적이고 선교적인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종족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뉴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회는, 교포 신앙인들로 하여금 선교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유도하면서 선교의 결실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교민들을 교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선교의 장으로서의 뉴욕을 복음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회와 교민들의 자세가 이웃들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이며 보다 열린 자세여야만 한다. 비록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이 서로 간에 놓여 있다 해도 분명히 뉴욕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더불어 영어와 스패니쉬를 비롯한 몇몇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뉴욕 교민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언어의 장벽을 상당히 깨뜨리게 되는 유리한 점을 이미 제공받고 있는 것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욕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변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요청되며, 그러한 삶의 자세는 신자의 사명감과 더불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주변성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영역을 상당히 제공해 주고 있고, 이것은 선교를 지향하는 뉴욕의 이민교회들에게 사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오래 전 LA 폭동 당시에 우리 교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바와 같이, 이민교회는 지역사회에 무언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아 주는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대회가 단지 '우리들만의 잔치' 에서 벗어나 다른 많은 종족들과 다른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대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좁은 시선이 극복되고, 그 사랑과 이해의 시선이 널리 확산되어야만 한다. 추수할 드넓은 들판을 내다보는 종말적인 시선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교회들이 지금까지 행한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통해 인생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의미로도 퇴색시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희생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눌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오히려 오늘의 기독교적 부흥을 가져온 여러 요인들 중 중요한 한 요인임을 잊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어렵고 슬픈 역사를 지닌 이웃의 소수민족들에게와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내의 또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될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놓은 이민교회의 주역들이 하나 둘씩 퇴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한 선교적 대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미래의 주역들인 젊은 1.5세대와 2세대의 이민자들이 선조들의 신앙적 유산을 잘 이어받음과 동시에 모든 문화들이 상존하는 이 메가시티 (mega city) 뉴욕에서 모든 문화를 통괄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를 미국이라는 주변성과 성경이라는 진리성을 축으로 하여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민사회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선교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얻을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던 할렐루야 대회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서 갖는 이러한 몇 가지 생각들이 앞으로의 할렐루야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교적 과제나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 9. 뉴욕 한인교회의 선교적 사명

김남수 목사 _ 제19대 교협 회장 (순복음뉴욕교회)



1607년 이후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여러 나라 민족들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서구 혼합 종족 사회로서, 지난 400년 동안 세계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기 종족의 뿌리, 자기 조국에 대한 소속의식, 자기 문화와 언어,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정통을 지키면서 복합문화, 복합언어 속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있는 세계 문화와 인종의 복합 전시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배경에서 한인 이민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본래 단일문화, 단일종족, 단일언어에만 익숙해져 있어 타 문화권에 쉽게 용해되거나 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폐단이 있다. 우리는 피부 색깔이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의 기념비적인 상징으로서 사양길에 들어선 서구 교회의 선교를 계승할 선교의 특공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장중한 '하나님의 큰 일' 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국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 특수 대상에

대한 선교, 한국 교회에 대한 지원과 미국 교파 내에서의 기여 등이다. 이렇게 많은 잠재력을 보유한 뉴욕 한인교회는 21세기에 큰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백년대계를 가지고 시야를 더욱 넓혀야 하겠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내적인 문제들을 조기 진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한인사회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지역사회를 영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선도하여 나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두고 온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도 나눔과 공헌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안에서 미국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까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포부와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영적 무장이 필요하며, 상호 협력하여 단합하는 기풍이 더욱 진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복음적 개신교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온 후 거의 30년 만에 민족 해방운동, 즉 3·1운동이 일어났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과 한숨을 안고 민족의 수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다. 초대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때에 개신 교인이 전체 인구의 1퍼센트, 2퍼센트가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그리고 나라의 고통을 가슴에 걸머지고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신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맨 먼저 관심을 가진 것도 어린이 교육 분야였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고·대학을 세우고, 의료기관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각종 문화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요람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냈을 때 교회는 사회의 주목을 받고 부흥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지금 뉴욕 한인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세계 선교의 사명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지난 시간 가운데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며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전략적으로 고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 된 것은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과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온 것이



기에 만약 문제가 생긴 당시에 그 문제만 본다면 우리는 한 단면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배경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본다면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오늘을 정확히 분석하면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뉴욕 한인교회는 동포교회 울타리 안의 돌봄 목회에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특히 최근에 세계 각 지역을 향한 선교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이민교회들이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모습이 옛 서구 문화의 제국주의적·물량주의적 선교 양상을 닮은 점이 있으며, 개 교회 중심의 선교라는 점이 다소 걱정스럽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거점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미국 내 이민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뉴욕 한인교회는 웅비의 큰 꿈을 가질 때가 되었다. 특히 21세기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계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한다. 생각과 꿈이 있는 개인과 사회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한인 이민교회의 존재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민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할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한인교회가 많다고 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 교포 복음화 운동에 힘써야 한다. 또한 1.5세나 2세 목회는 중차대한 것이다.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 목회에 무관심하고 실패하면 한인 이민교회의 장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개개 이민교회는 물론 이민교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영어권을 위한, 즉 2세 및 1.5세를 위한 예배와 전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뉴욕 한인교회는 동포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인 동시에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항공모함이다. 사도 바울을 실은 배가 유럽에 부흥과 발전을 가져다주고,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을 싣고 온 메이플라워 호가 오늘날 미국을 강대함과 풍성함으로 축복하고, 1885년 4월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싣고 온 배가 1907년 평양 대부흥과 오늘 한국의 번영을 약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뉴욕에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선교 함대를 출항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먹이고,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생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 10. 할렐루야 대회 소고

한재홍 목사 _ 제22대 교협 회장 (뉴욕신광교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대회가 수십 번 개최되는 동안 많은 크리스천이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믿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조하신 각 교회들과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계속될 이 대회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우리의 자랑으로 치부하고 나쁜 점은 숨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더 좋은 할렐루야 대회를 위하여,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아닌가 싶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말을 격려로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학적으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선을 넘어선 일들을 바로잡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특히 평신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잘못하면 목사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주관하는 목사들이 모든 면에서 기도와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먼저 할렐루야 대회의 성격을 바르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전도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모두들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던 대회가 전도보다 연합 부흥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대회를 시작한 동기가 변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고한다.

## 1. 할렐루야 대회는 전도대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대회를 시작한 동기가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민의 물결을 좇아 수많은 교포들이 뉴욕에 정착했다. 교회들이 전도의 선교적 사명을 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지만, 손이 미치지 못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여 뉴욕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와 전체적 교회의 연합을 이루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전도 훈련을 강행하여 대회에서 결신시켜서 각 교회에 보내어 양육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80년에는 계속적으로 말씀 선포 후 결신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결신 등록을 받아 각 교회에서 심방·양육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대회는 전도대회이어야 한다.

## 2. 할렐루야 대회는 말씀대회이어야 한다

30년간 대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설교자를 선정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년에 뉴욕 동포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나님이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선정해야 할 것이다. 큰 교회나 영향력 있는 이들의 요청으로 강사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된다. 예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신실한 설교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 3. 할렐루야 대회는 연합대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대회의 목적은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뉴욕 한인동포들을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참여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뉴욕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얼마인가? 아마 교역자(목사, 전도사)만 모여도 약 1천여 명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협에 등록된 교회만도 얼마인가? 순서 맡은 목사들만 아니라 뉴욕 전체 목회자들이 다 협조하고 모여야 하며,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

그리고 대회 순서도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작은 교회나 큰 교회 목회자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대회를 통하여 전도와 화합, 그리고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 11. 교협의 공헌과 실상

황경일 목사 _ 제28대 교협 회장 (계명장로교회)



1890년부터 시작된 한인 이민은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어 미국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뉴욕 일대에 40여 한인교회가 설립되자 교회와 목회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뉴욕 교포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화 전도에 깊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임과 회의를 거듭하여 1975년 6월 27일(금)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탄생하여, 오늘 35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협의회로서 당당히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뉴욕과 한민족 교회를 사랑하심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뉴욕교협의 교협으로서의 공헌과 성과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뉴욕교협이 교협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각 교회와 교포사회와 뉴욕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공헌하는 실상적 교협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그리되리라 믿는다.

초기 교협은 목회자들의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이민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협이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교량 역할을 비롯, 교협으로서 여러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며 공헌했다. 그러므로 이제 뉴욕교협의 공헌과 실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1. 연합, 즉 하나 됨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심이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기도하셨고(요 17:11),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한 성령으로 한몸이 되었으니(고전 12:13), 한 성령을 마신 뉴욕 교포 교회들이 모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엡 4:3~6) 35년 동안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뉴욕엔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수십 개의 교단이 있어서, 토양이 다르고 각 교단의 교리와 신앙, 신학의 특색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들이기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교회들이 하나 되고,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협이 되어 35년을 지켜왔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또한 뉴욕교협은 35년간 한 번도 다툼이 없이 사랑의 공동체로 사역했으며, 작은 교회와 큰 교회 간에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움을 이루었고, 타 지역 교협과 교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음으로 연합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며, 교포들의 각종 단체들과도 연합과 중재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고 지역과 세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교협은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다.

## 2. 사랑의 사역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사랑에 기초한다. 그리고 교협은 더욱더 예수의 사랑에 기초하여 실천하여 왔다.

### 1) 교포사회에 대한 사역

이민교회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집이요 교민들의 공동체요 센터이며, 이민생활의 시작의 기초였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으로 이민의 정착을 이루어 왔다. 뉴욕한인회도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교포사회의 기관들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태반이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교협은 이러한 일들을 감안하여 교회들의 모체로서, 전반적 리더로서 협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LA 폭동 사건과 각 주 교포들의 사건들 앞에, 또한 교포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교회들의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며 도움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왔다.

### 2) 고국을 위한 사역

조국은 우리의 고향이고 모국이다. 어찌 조국을 한시라도 잊으리오. 우리는 조국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며 소망한다. 그러므로 조국의 일을 우리의 일과 같이 여겨 왔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1980년 5월 광주 사건, 경제 위기의 IMF 사건 등 조국의 위기 앞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며 조국과 같이했다. 1987년 수해 시, 1998년 수해 시, 2002년 수해 시 기도하며 수재의연금을 모아 전달하는 일이며, 고국 군장병 위문과 교회 지원과 군 장병 침례 등과 1983년 뉴욕을 출발하여 서울로 가던 KAL기가 소련 미사일에 피격당해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을 때, 교협은 한인사회와 함께 맨해튼 궐기대회, 합동추모예배, 촛불예배, 소련 외교관 관저 데모 등등 다 논할 수 없는 일들로 아픔을 함께했다. 일마다 때마다 정성을 쏟으며 기도하며 조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같이할 것을 믿는다.

### 3) 북한 동포를 위한 사역

제일 가깝고도 또한 먼 나라 북한은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대상이다.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사랑하고 도우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협과 교포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식수 개량 기구 지원 운동(펌프), 염소 보내기 운동과 2004년 룡천역 폭파사고 시 기도와 의연금 보내기 등등 사랑의 사역을 감당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 4) 세계를 위한 사역

우리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선교적 사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이 뉴욕과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폭파 테러, 쓰나미, 중국 지진

사건, 총기 사건 등등에 기도와 의연금을 보내며 지구촌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같이하였다. 우리 교협은 이 지구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 3. 교육 사역

이민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이민 왔다고 하나 부모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협을 중심으로 1.5세와 2세들을 위해 열정을 쏟게 되었고, 특히 양희철 목사, 김정국 목사 등은 더욱더 앞장서서 교포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였다. 학원 선교, 감옥 선교, 탈선 문제, 가정문제 등등을 다루었고, 청소년들과 가정에 소망을 주었다. 오늘의 청소년센터가 그 산실이다. 또한 1994년에는 감옥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하여 쉘터 건물을 구입하고, 국가 펀드를 받는 학생 쉘터가 되어, 현재는 이것이 뉴욕아시안센터가 되었다. 지금도 이 사역들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놓은 이민교회의 주역들이 하나 둘씩 퇴장하는 시점에서 1.5세와 2세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고, 교협회원으로 들어와 같이 일을 하므로 교협은 큰 소망을 갖는다. 교협은 교육만이 살길임을 각성하고 교육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 4. 지상명령인 선교 사역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뉴욕에 우리를 보내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협력하여 왔다.



### 1) 교역자 세미나

우리가 사역을 담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로 사역을 감당한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때를 따라 좋은 강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재충전하여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

### 2) 할렐루야 전도대회

우리 교협은 1975년 창립되어 섬기다가, 1980년에 대뉴욕지구 복음화를 꿈꾸며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는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퀸즈 칼리지 대강당에서 주최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가까운 교회들이 돌보고 심방하고 양육하게 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 1980년에 시작한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해마다 거듭되어 30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 이 사역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고 성역이기 때문이다.

### 3) 직장 예배 권장

이민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까지 맡아 뛰는 교포들과 신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마음을 고려해 직장 예배를 권장하여 직장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두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앞으로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뉴욕의 여건을 따라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 다민족이 모이는 할렐루야 대회, 지금도 타 민족 교협들과 교류하지만 앞으로 다민족이 모이는 대뉴욕교협이 되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교협이 되리라 믿는다.

### 5. 교회 보호 사역

초대 사도 시대 때도 그랬듯 오늘날에도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과 마귀의 궤계가 난무한다. 특히 조국 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침투해 들어와 이민 사회와 교계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유혹하고 삼키려 한다. 우리 교회와 교계가 더욱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협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경고 교육과 예방 교육을 위해 서신 전달, 이메일 발송, 책자 소개와 판매, 집회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시행했다. ② 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여서 구원파 박옥수, 만민교회 이재록의 맨해튼 메든스퀘어가든 집회 저지 등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사역을 했다. 그리고 ③ 동부 지역 각 교협 중 워싱턴교협, 뉴저지교협, 필라교협, 보스턴교협 등과 협력하기로 하고, 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보 교환,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역들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 감당해야 하리라.

우리 뉴욕교협은 참으로 타 교협과 모범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헌신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뉴욕 지역 복음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였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리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으며 이것이 뉴욕교협의 실상이라 하겠다. "주여! 수년 내 뉴욕을 부흥케 하옵소서."





# 12. 한인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

신현택 목사 _ 현 제35대 교협 부회장, 35년사 출판위원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선민으로 삼으시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대한민국을 택하시어 곳곳마다 붉은 십자가와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였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백의민족이라 자랑해 왔다. 그러나 어쩌면 타 민족의 침입과 강탈의 연속 속에 수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도전해 보지 못하고 타 민족을 침범해 보지 못한 한 많은 민족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지형적 위치나 민족적 성향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듯' (갈 4:4) 그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때가 되매, 1866년 8월 25일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평양에 보내어 첫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1883년 5월 16일 서상륜을 불러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소래(송천)에 소래교회를 세우시고, 1884년 9월 20일 의료 선교사 알렌을 보내 주시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인천 항구로 들어오게 하사 복음이 한국(조선) 땅에 심어지고 울려 퍼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지한 한국(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땅 속에 묻힌 씨앗에서 새싹이 돋듯 새 생명의 역사와 새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우리 민족은 그때에야 시야가 열려서 '보냄' 곧 흩어짐의 역사 '디아스포라' 의 삶과 사명이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리오?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시 '한인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 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 1. 하와이 한인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그 씨로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운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민족에게 "큰 강을 건너라"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접한 지 20여 년 만인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 갤릭 호 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102명이 도착함으로 한인 디아스포라가 태동한 것이다. 북미 대륙의 보스턴에 청교도 102명이 도착했다면, 최남단의 섬 하와이에 우리 민족 102명이 도착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하나님은 청교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미개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깨치시고 장대한 나라로 세우셨고, 또한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셨다면, 우리 코리안에게는 회복과 결실의 영광스런 사명을 감당케 하심이라 믿는다.

나는 1969년에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그리스도한인감리교회를 비롯하여 한인교회가 15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민 1세, 2세, 3세가 함께 살았다. 그 당시 '사진 결혼' 으로 이민선을 타고 왔던 88세인 김메리 할머니는 그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말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한다고 했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고 하며, "당시에 미국인과 동양인은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법이 있어 현지인과 결혼할 수 없어서 중매쟁이를 통해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사진 결혼' 이 행해졌다" 고 한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포사회와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침략으로 그들은 현지의 고통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음' 이라는 목적 아래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여 인재 양성의 기틀을 잡았고, 1915년엔 도산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등이 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여, 박용만 장군은 소년병 학교를 만들고 강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국 전도 번영과 독립을 염원했던 이들 중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어려운 격동기에 기독인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기에 한국 전역에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확산될 수 있었고, 조국이 속히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처음엔 '하와이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로 시작된 주님의 해외 첫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좇아 성령의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신앙의 공동체요, 민족 독립과 민주화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민족사 창조의 모체요,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여는 세계 선교의 횃불이 되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놀라울 뿐이다.

## 2.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미국의 수도는 아니다. 그러나 뉴욕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또한 뉴욕이라는 곳은 120여 개가 넘는 종족들이 모여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다민족들 중에서 유독 한인 디아스포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 왔고, 오늘날 이 뉴욕에 약 4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뉴욕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과 한국 교회에 대한 지원, 미국 교파 속에서의 사역 등에 대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민족 이웃들과 같은 문화권에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현지에 있는, 현지에서 자란 디아스포라들을 전략적인 선교 자원으로 사용하셨다. 초대 교회 바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등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 한인교회의 사명이 크다고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 특수한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뉴욕 교민들에게는 이 문화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미국인은 영어로, 스패니쉬는 남미 이민의 경험들로, 중국인은 조선족들로, 러시아인은 고려족들로 접촉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문화권 선교와 복음 전도에 사용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뉴욕 교회들과 교협은 이러한 현실과 사실에 입각하여 뉴욕의 다민족 복음화 전도에 전력하며, 이들을 그들 종족 복음화에 백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뉴욕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 믿는다.

### 3.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섭리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출발한 첫 이민의 역사는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인이 있는 곳에는 상사가 세워졌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는 식당이 세워져 있는데,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펼쳐 나갈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키워 나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 믿는다. 히브리 민족을 사용하시듯, 청교도들을 사용하시듯 이제 한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라고 믿는다.

21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9·11 이후 서구인의 얼굴을 가지고는 세계 선교의 과업을 마칠 수 없게 됐다. 또한 선진국에서 후진국, 북반구에서 남반구, 서양에서 동양으로 복음이 일방통행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없는 모든 곳으로 나가는 '동시다발적 선교 시대'라 한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서방 시대에서 아시아 시대가 된다 한다.

하나님은 아시아 중에서 한국을 택하사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1884년 이후 선교사들을 보내사 순교적 피 뿌림으로 복음을 심어 성장하게 하시고, 경제대국으로 세우시고, 이로 인하여 세계 각처에 한민족을 보내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속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09년 1월 발표를 통해 168개 국에 19,413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발표했다(사무총장: 강승삼 목사 – 이범진c 뉴스파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가?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열강들에 의해 아픔과 고통과 눌림을 수없이 받아 왔고, 이러한 배경이 오히려 오늘의 기독교적 부흥과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하다면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백번 활용하여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더욱더 세계 선교에 매진할 때, 주님은 한민족을 더 크게 들어 쓰실 줄 믿는다.

끝으로 한인교회들과 교협은 뉴욕의 특수성과 한민족의 특수성을 이용해 한인 교포사회의 구원과 뉴욕 다민족 사회 구원의 사명과 한국 교회에 대한 지원과 교류,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고 교육하며,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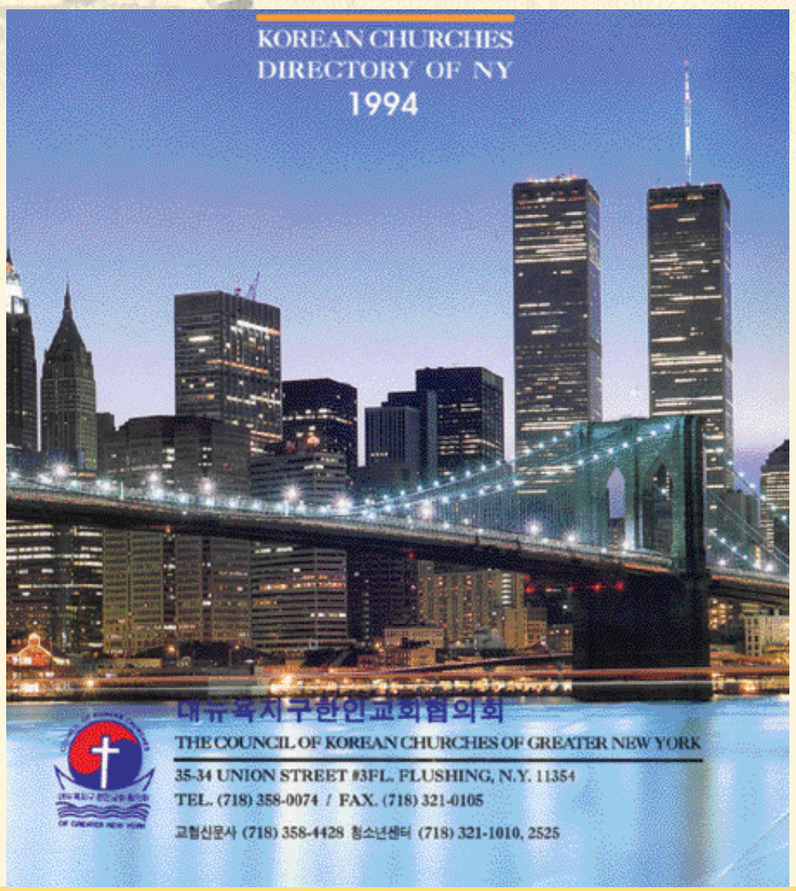
▲ 대한민국유공자협회 초청으로 방문한 김 할머니와 함께(가운데 서신 분이 김 할머니)

35 YEARS HISTORY



제4부

# 뉴욕
# 한인교회사





# 1. 개척기

미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유엔 본부가 있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이민이 이루어졌을까? 우리나라는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1883년 서울에 미국 공사가 들어왔고, 곧바로 고종 황제는 전권대사 민영익, 부대사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그 외에 유길준, 고영철, 변수, 현흥택, 최경석 등 모두 11명으로 외교사절단을 구성하였다. 그때 마침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Chester A. Arthur)와 국무장관 프렐링휴젠(Frederick T. Frelinghuysen)이 뉴욕에 체류 중이었다. 민영익 사절단 일행은 9월 19일 뉴욕에 도착하여 애비뉴 호텔에 체류하고 있던 아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고종 황제의 외교 각서를 제출하였다. 민영익 사절단 일행인 유길준은 한국 정부의 관비 유학생 제1호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기로 했다. 유길준의 미국유학 시작은 뉴욕 한인 역사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유길준 이후 유학과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 1) 최초의 뉴욕 정착 이민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들이 미국 상선인 갤릭 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이들이 미국 이민 역사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제2차 이민선이 1903년 3월 2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 그 후 한 해 동안 10여 차례에 이르는 이민선이 도착했고, 이민은 계속되어 1905년까지 총 65척의 배편으로 7,226명의 한인들이 이민했다. 이들이 다 하와이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있다가 미국 본토로 이주했다.

우리 이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인천 내리감리교회와 담임 존스 목사이다. 처음에 존스 목사의 광고와 권고로 첫 이민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60여 명이 내리교회 성도였고, 총무로 장경화 전도사, 통역에 안정수 권사, 선교사로 홍승하 전도사를 파송했다. 존스 목사님의 파송은 곧 하와이 한인감리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한인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모체가 되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통역으로 온 안정수 권사와 유병길 등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설립했고, 홍승하 선교사가 담임으로 사역했다는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1883년 유길준 이후 미국에 공부하는 유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수가 적은 탓인지 유학생회는 생기지 않았다. 1907년에 뉴욕 한인들의 단체가 있었는데, 안정수 권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공제회란 모임이다(《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pp.72~73, 77). 또 1922년 뉴욕 한인교회에 5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학생이 아니라 모두 일반 교인이고 대부분이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이들 중 안정수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이진일은 차이나타운에서 상점을 경영했고, 이봉수, 이원준, 정인수 등은 생활형편이나 모습이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볼 때 뉴욕의 최초의 정착 이민도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이민들과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발췌: 《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깊은샘, pp.57, 72~73, 77.
《대뉴욕 한인 100년사》, 제1장 한인들의 미국 이민 초기의 역사, pp.22~24.

### 2) 최초의 뉴욕 한인교회

20세기 초의 한국 역사는 계속 위기와 수난의 연속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때로부터 불과 30년이 채 못 된 1905년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고 외교권마저 박탈하게 되었다. 그 후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한국인은 그날부터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 일본 총독부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서 공유지든 사유지든 법적으로 소유 사실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몰수하고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토지를 흡수했다. 이렇게 일제의 만행은 날로 극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잔악무도한 일제 앞에 온 국민은 분노했고, 온 기독교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뜨거운 분노와 열정이 독립운동으로 동시 전개되었다. 당시 깨어 있는 사람, 지식인들은 선교사들의 권유와 안내로 유학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독립을 위해 고국을 떠나 해외로 해외로 나갔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은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또한 독립에 대한 더 뜨거운 열망과 꿈과 소망과 큰 도전을 일깨워 주었다.

1920년 당시 뉴욕에는 한인회, 한인학생회, 신한회, 동지회, 흥사단, 대한민국 민지회 지부 등 많은 한인 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애국심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애국심은 단순히 이념이나 이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체험과 수난 속에서 일어난 생리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적인 수탈로 인해 조국에서의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뉴욕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미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온 이후에 겪은 고생은 눈물과 피땀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애국심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보다도 더욱 강렬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이질적인 배경을 한데로 묶는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울타리가 되었다. 애국심은 초창기 뉴욕 한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못지않은 일종의 영적인 경험이었다.

1922년 3월 1일(3·1절) 기념식이 뉴욕타운 홀에서 열린 후 같은 날 저녁에,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던 킴버랜드 여사(Mrs. Angie Graham Kimberland)의 사무실 코모도어 호텔(Commodore Hotel)에서 기념식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킴버랜드 여사는 교회 설립을 제안했고, 교회 설립 제안에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때 함께 참석하였던 삭크만 목사(Rev. Dr. Ralph W. Sockman)가 자신이 목회자로 있는 매디슨 애비뉴 감리교회(Madison Avenue Episcopal Methodist Church: Madison Ave. & 23rd ST. NY)에서 예배하도록 제안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3월에 임종순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림으로 뉴욕에 최초로 한인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 이후 뉴욕한인교회는 5명의 교회 건물 구입 위원회(안정수, 이봉수, 이진일, 이원준, 정인수)의 노력과 미 감리교 재단의 협조와 도움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459 West 21St. NY에 있는 건물을 구입했다. 그리고 1923년 4월 15일 최초의 주일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졌고, 담임 임종순 목사는 교회와 기구를 관장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같이, 힛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던 다니엘같이, 뜨거운 부담을 안고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기도와 흘린 눈물이 있었다. 두고 온 조국과 뉴욕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안고, 뉴욕 땅을 안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다. 60년대 한인 이민이 증가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한인교회가 다음과 같이 설립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뉴욕중앙교회** 백예원 목사
   일시 : 1963년 5월 첫 주일
   주소 : 85 South St. Brooklyn. NY
2.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목사
   일시 : 1969년 7월 27일
   주소 : Flushing, NY
3. **뉴욕장로교회** 김이호 목사
   일시 : 1970년 9월 20일
   주소 : 68-03 Roosevelt Ave. Woodside. NY
4. **뉴욕제일장로교회** 정영규 목사
   일시 : 1970년 11월 8일
   주소 : 37-60 61ST. Woodside. NY
5. **브롱스한인교회** 유태영 목사
   일시 : 1970년 12월 3일
   주소 : 2943 Bain bridege Ave. Bronx. NY
6. **브르클린한인교회** 안중식 목사
   일시 : 1971년 3월 11일
   주소 : 124 Henry ST. Brooklyn. NY
7. **뉴저지제일교회** 박재영 목사
   일시 : 1971년 4월 11일
   주소 : 2681 Kennedy Blvd. Jersey City. NJ
8. **롱아일랜드교회** 박희소 목사
   일시 : 1972년 11월

주소 : Kew Gardens. NY (리폰드처치)

9. **기독교대한감리교회뉴욕교회** 이재은 목사

일시 : 1972년 11월 19일

주소 : 85-15 Broadway. Elmhurst. NY

10.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

일시 : 1973년 9월 18일

주소 : 7 Franklin ST. Brooklyn. NY

발췌: 《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깊은샘, pp.57~80.

김홍기, 《웨슬리 신학의 조명에서 본 미주 한인 이민》(제3부), 청암논단, p.4.





# 2. 뉴욕 교민과 교회

뉴욕 이민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을 보더라도 뉴욕 한인들은 교회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고, 위로하셨고, 우리 한민족을 일으켜 세우셨다. 나라의 멸망으로 일제의 탄압과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국의 한을 안고 조국을 떠나온 망한의 가슴들. 뉴욕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막중한 노동과 가정부, 접시닦이, 요리사, 낯선 거리를 전전하며 향이나 중국차, 만년필 팔기, 온갖 눈치와 굴욕과 하인과 같은 밑바닥 삶을 살아가며,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다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조국의 독립이라는 애국적 이념은 더욱더 불타오르기에 모여야 하고 기도해야 했기에, 또 마음을 치유받아야 했기에, 쉼을 얻어야 했기에, 소망과 용기와 새 힘을 얻어야 했기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원해서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민들의 집이다. 교회는 교민들의 공동체요 센터이다.

유대인들의 흩어짐은 구약의 성취이다(렘 9:12~16).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조국을 떠나 적국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비참했다. 생활의 억압과 부자유와 혹독한 고난 속에서의 방랑이었다. 그 암담한 암흑 속에서 유대인이 유대인 된 것은 회당 때문이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조국의 재건을 기도하며 민족의 의지처로서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당

(시나고그)을 중심으로 종교 예배를 올리며 새롭게 민족 종교를 형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듯이 뉴욕 교민이 있는 각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뉴욕의 교민과 교회는 서로를 원하고 있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 설립될 것이다.

교회는 빛이다. 빛은 생명이 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포사회를 살리고 있고, 뉴욕과 미국과 지구촌을 살린다.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시나고그(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뉴욕 교민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오늘의 발전과 번성이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당당히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고 있다.

참고: 이영희, 《탈무드 황금률 방법》, 유대 5000년 불굴의 방패, 동서문화사, p.33.



# 3. 뉴욕 한인교회의 기능과 역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인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교회는(마 16:18, 18:17) '에클레시아'(ekklesia),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된 유기체로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한다. 칼빈(John Calvin)은 교회를 "선택된 무리"라고 하였고, 루터(Martin Luther)는 "성도의 교제"라고 했다. 에클레시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온 성도로 구성되고(고전 1: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엡 1:22~23)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다. 뉴욕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좇아 사역했고, 앞으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뉴욕의 한인교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을 좇아 한인 교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이 뉴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승리의 삶을 얻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하며 사역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60년 뉴욕한인회가 결성될 때 5월 1일에 뉴욕한인교회 예배실에서 발족하고, 5월 22일 주일 오후 회칙을 작성, 심의에 22명이 참석하고(전원이 한인교회 교인), 6월 12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3시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에 서상복 씨(한인교회 교인)가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한인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한인교회와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이 막중했다. 교회와 목회자와 교민은 한가족으로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뉴욕에 오는 사람이면 여행객이 되었든 유학생이든 이민자이든 모든 삶의 살림살이를 교회가 도와주었다. 공항과 정류장에서의 픽업부터 집 구하는 일, 직장 구하는 일, 자동차 구하는 일, 모든 등록하는 일, 보험 드는 일, 자녀 취학시키는 일, 비자 연장, 공공요금 납부, 은행 업무, 관광 안내, 유학생 상담, 유학생 부모 대역, 전화 놓는 일, 생활 관리, 병원 데려가기 등, 친부모도 못 해준 것을 다해 주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쓴소리 듣고 모든 책임은 교회와 목사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뉴욕한인교회 초대 목회자인 임종순 목사와 같이 성도들 몰래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 사모들은 일하는 것이 천직인 줄 알고 일하면서, 밤이면 기도와 말씀 준비로 씨름하며 교회와 교포사회는 성장해 왔다.

여기서 교회가 담당했던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자.

(1) 교회의 교민들에 대한 심리적 기능과 역할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 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했다.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주간의 이민생활 속에 시달리고 지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 치유이다. 교회에 출석함으로 언어에서 해방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좇아 위로함 받고, 치유받고, 문제에서 해방 받았다. 교회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

(2) 삶의 보람을 준다.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동족과의 만남을 통해 풀어 준다. 친교와 교제를 통하여 삶에 보람을 갖게 되고 교민 소식, 한국 소식, 사업 정보, 삶의 정보를 얻는다. 부서별, 연령별 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삶의 보람을 누리게 한다.

(3) 상담 사역과 역기능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와 사업문제, 자녀문제, 직장문제를 상담하고, 영적·정신적·육체적인 문제들을 상담하여 건강한 삶과 보람찬 삶을 이루어가게 한다.



(4) 교육의 역할도 있다. 성경공부, 한글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한국 문화인 설, 추석 등 고유 명절과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를 가져서 고유문화와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다.

(5) 교포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가 한인들의 이민사회 속에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동포사회가 당면한 일들을 같이 해결하며 토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꿈을 나누는 공동체 역할이다. 꿈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 주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삶의 고향이며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역할, 일상생활의 공동체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다.

(7) 넓은 세계관의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는 교민들에게 교민사회에서만 아니라 제2, 제3의 세계를 경험케 한다. 모두 삶에 억눌리고, 언어에 억눌리고, 활개 한 번 못 펴고 살아왔지만 이제 한인들이 그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을 선교로 돌려서 미국과 제3세계를 향해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교사요, 작은 예수로 살게 한다.

발췌: 《뉴욕 한인교회 70년사》, 강변에서 울었노라, 깊은샘, pp.87, 272~275.
〈선교타임즈〉 [특집] 기고 3. 선교 현장에서의 해외 한인교회의 사명과 역할(신윤호 목사), 2006-/0119, pp.1~2.

35 YEARS HISTORY



제5부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역사





# 1. 교협의 태동

일본인이 가는 곳에 사업장이 세워지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 식당이 세워지고, 한국인이 두세 명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축복된 민족인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구별 없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설립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정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특별한 은총이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미국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한인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새로 이주한 교포들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가발업과 야채, 수산업, 의류산업, 무역사업 등을 운영했고 사업이 점차 번창했다. 이로 인하여 70년대 들어서면서 뉴욕 일원에 40여 교회가 설립되자 교회와 목회자들 간에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또한 뉴욕 교포 복음화와 전도에 깊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여러 번의 모임과 회의를 거쳐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주후 1975년 6월 27일(금) 오후 8시 퀸즈 엘머스트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욕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한영교 목사님이 교협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1) 교회협의회 조직의 의의와 필요성

(본란은 제6대 회장 신성국 목사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로 대신한다.)

1965년부터 뉴욕 시내에 한인교회가 5~6개처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미국 내에서도 특수 지역의 하나인 대뉴욕지구 교회의 확고한 기초 확립과 한인 교포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적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한인교회연합회나 혹은 한인교회협의회 같은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담당한 교역자 간에 의견 교환은 종종 있었으나 구체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6일 뉴욕지구 교역자회 총회(참석한 교역자 약 20명)에서 만장일치로 '한인교회협의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오늘은 그 출발 단계로 제1차 준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협의회 조직 의의와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신 대뉴역지구라는 특수지역 내에서의 한인 연합운동을 시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질적인 문화와 풍토와 환경 속에서 해외한인교포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사회의 구성 단위로 볼 때에 한 사회 또는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각 가정은 형편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여 나가지만 이웃 가정과의 유대관계,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대화와 협조와 봉사라는 상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교회는 남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일 때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본회퍼의 말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도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특히 산 설고 물 선 역사적 배경과 민족의 풍속과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른 해외 각 곳에 산재해 있는 '디아스포라'의 교회로서 그 부여된 사명을 다하려면, 같은 겨레의 교회들이 서로서로 한데 뭉쳐서 힘을 모아 이해와 협조의 정신에서 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의 민족별 인구 분포 통계를 보면 일본, 중국, 필리핀 다음에 한국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적은 숫자로 나타났으나 과거 10년간 매년 증가율로 보아 5년 후 1980년도에 가서는 다른 세 나라 이민자 수와 거의 비슷한 선까지 육박하다가, 1985년부터 1995년에 가서는 단연 다른 세 나라 이민자 수보다도 더 많은, 동양인 이민으로는 최대의 숫자를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 1980, 1985, 1995년 미국 내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한국인의 인구 분포

PROJECTIONS FOR 1980, 1985, AND 1995 FOR CHINESE, JAPANESE, FILIPINO AND KOREAN POPULATION

| | 1974년 | 1980년 | 1985년 | 1995년 |
|---|---|---|---|---|
| **중국인** | 541,457 | 661,000 | 843,000 | 1,368,000 |
| **일본인** | 646,645 | 724,000 | 821,000 | 1,094,000 |
| **필리핀인** | 494,169 | 563,000 | 709,000 | 1,121,000 |
| **한국인** | 182,392 | 407,000 | 840,000 | 1,496,000 |

나. 미국 내 한국인 교회 ····· 총계 293교회

1. 연합장로교회 소속 22교회
2. 남장로교회 소속 1교회
3. 연합감리교회 소속 14교회
4. 기타 33교회
5. 무소속(미국 교파와 무관계) 223교회

다. 미국 내 한국인 목사 ····· 총계 523명

1. 연합장로교회 회원 44명
2. 남장로교회 회원 2명
3. 연합감리교회 회원 20명
4. 기타 53명
5. 무소속(미국 교파와 무관계) 404명

라. 교회 담당 목회 목사 ····· 총계 317명

1. 미국인 교회 담당 목사 24명
2. 한국인 교회 담당 목사 293명

마. 대뉴욕지방 한국인 ····· 약 28,000명

| | 1940년 | 1960년 | 1970년 | 1974년 |
|---|---|---|---|---|
| **뉴욕 주** | 114 | 1,136 | 5,777 | 18,087 |
| **뉴저지 주** | 12 | 485 | 2,790 | 9,712 |
| **합 계** | 126 | 1,621 | 8,567 | 27,799 |

바. 뉴욕 시와 뉴저지 주 내 한국인 교회 목사 수

| | 뉴욕 시 | 뉴저지 주 | 합 계 |
|---|---|---|---|
| **교회 수** | 18 - 장로교회 - 2<br>감리교회 - 4<br>기타 - 2<br>무소속 - 10 | 8 - 장로교회 - 1<br>감리교회 - 1<br>---<br>무소속 - 6 | 26 - 장로교회 - 3<br>감리교회 - 5<br>기타 - 2<br>무소속 - 16 |
| **목사 수** | 26- 장로교회 - 5<br>감리교회 - 5<br>기타 - 4<br>무소속 - 12 | 10 - 장로교회 - 1<br>감리교회 -<br>---<br>무소속 - 8 | 36 - 장로교회 - 6<br>감리교회 - 6<br>기타 - 4<br>무소속 - 20 |
| **목회 목사** | 20 - 미국 교회 - 2<br>한국 교회 - 18 | 10 - 미국 교회 - 2<br>한국 교회 - 8 | 30 - 미국 교회 - 4<br>한국 교회 - 26 |

이상 통계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뉴욕지구(뉴욕과 뉴저지) 내(한국인 2만 8천 명)에 한국인 교회 수가 26개 이상이나 된다는 점인데, 그중에 200~400명의 교인을 보유한 교회가 약 5~6개처이고, 약 4,000명의 장년 세례교인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주 교회의 참석 수는 최소한 2,80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한인교포 수의 약 10분의 1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또한 한인교포의 2분의 1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외에 나와서는 신도의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상당 숫자의 신도가 해외에 나와서는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있는 사실도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계 숫자로는 표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은, 미국에 이주한 기독교 신자들이 가진 교회 배경(신학적 또는 신앙적)의 다양성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역자 자신들의 신학적 배경과 신학 교육의 다양성은 교회 연합운동에 가장 큰 암이요 난관이며, 또한 신앙적인 훈련과 생활의 다양성은 상호 이해와 공동생활 프로그램, 새로운 선교 정책 토의, 수립, 진행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해력이 소모되어야 할는지 예측이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및 교역자 자체의 '스페이스 티오'를 보더라도 ① 미국 교회에 소속하여 회원이 된 교회와 목사 ② 미국 교회와 관계없이 독립된 교회와 무소속 교파 목사 ③ 한국 내의 모교회와 관련된 노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소속된 교회와 목사 ④ 미국인 교회를 담임한 목사 ⑤ 미국 교회 기관, 교파 분포들의

기관목사 ⑥ 기타 세속 기관에서 봉사하는 목사들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과 복잡 다양한 현실 속에서 더욱이 미천한 역사를 가진 나약한 한인교회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 나가려는 것은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협의회 조직의 목표

1. 교회 간의 공동생활의 폭을 넓히고 초교파적 유대를 굳게 한다.
2. 해외에서의 한인 교포사회의 특수성을 바로 이해하고 건전한 한국인 교회로서의 터전을 굳게 한다.
3. 내 민족과 세계 인류를 위한 교회 본래의 선교 사명을 성취한다.
4. 한인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영구한 기초 확립을 위하여 필요와 소명에 따른 교회 설립을 협조 · 육성하는 데 공동노력을 경주한다.





# 2.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창립 총회

▷ 준비위원장: 신성국 목사

▷ 준비위원회: 박재영(서기), 김해종, 김용주, 유태영, 이재은, 한진관(이상 목사)
김재만, 임병규, 이동필(이상 평신도)

▷ 창립 총회

1. 창립일: 1975년 6월 27일(금) 오후 8시
2. 장소: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욕교회(퀸즈 엘머스트 소재, 85-15 Broadway)
3. 참석 교회 및 참석자
   1) 당시 뉴욕 소재 36개 한인교회 전체에 소집 통보
   2) 참석 교회: 22교회, 14교회가 불참
   3) 참석 인원: 목사 대표 27명, 평신도 대표 22명으로 총 49명 참석
   4) 창립 총회 참가 교회 및 대표
      뉴욕한인교회(최효섭, 김재만)
      뉴욕한인중앙교회(신성국, 오종배)
      퀸즈한인교회(한진관, 서화숙)
      뉴저지제일한인교회(박재영, 이동필)

기독교대한감리회 뉴욕교회(이재은, 표창복)

뉴욕한인그리스도교회(기준서, 김세복)

뉴욕한인제일장로교회(정영규, 배성호)

뉴욕한인연합교회(한영교, 임병규)

뉴욕침례교회(김홍묵)

뉴저지한인연합교회(장승칠, 차종철)

뉴저지한인중앙교회(박성은, 유종근)

라더포드한인장로교회(김용주, 김규환)

토렌스한인교회(김성남, 양강용)

브롱스한인교회(유태영, 김종율)

브르클린한인교회(안중식, 강지원)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달빈)

아스토리아한인교회(김성남, 옥시정)

에리자베스한인교회(유제선, 임형재)

뉴욕한민교회(김권석)

퀸즈장로교회(장영춘, 임수식)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양희철, 라희정)

한국선원교회(오철호, 임상아)

후러싱한인교회(임은영)

뉴저지유니온교회(박성모)

브롱스동산교회(이은수, 임구현)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남학희, 이귀주) 이상 49명



# 3.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연혁(1975~2009)

| 회기년도 | 회 장 | 이사장 |
|---|---|---|
| 제1대(1975년) | 한영교 목사 | |
| 제2대(1976년) | 유태영 목사 | |
| 제3대(1977년) | 김해종 목사 | |
| 제4대(1978년) | 장영춘 목사 | |
| 제5대(1979년) | 이재은 목사 | |
| 제6대(1980년) | 신성국 목사 | |
| 제7대(1981년) | 박희소 목사 | |
| 제8대(1982년) | 김용주 목사 | |
| 제9대(1983년) | 홍효균 목사 | |
| 제10대(1984년) | 남학희 목사 | |
| 제11대(1985년) | 이문구 목사 | |
| 제12대(1986년) | 김용걸 신부 | |
| 제13대(1987년) | 김상모 목사 | 초대 방지각 목사 |
| 제14대(1988년) | 김정국 목사 | 김우선 목사 |

| | | |
|---|---|---|
| 제15대(1989년) | 양희철 목사 | 염정남 장로 |
| 제16대(1990년) | 장석진 목사 | 서광해 장로 |
| 제17대(1991년) | 방지각 목사 | 심홍섭 장로 |
| 제18대(1992년) | 정태진 목사 | 김종대 장로 |
| 제19대(1993년) | 김남수 목사 | 김영찬 목사 |
| 제20대(1994년) | 조덕현 목사 | 최원호 장로 |
| 제21대(1995년) | 박순종 목사 | 이광모 장로 |
| 제22대(1996년) | 한재홍 목사 | 황일영 장로 |
| 제23대(1997년) | 한세원 목사 | 김창훈 장로 |
| 제24대(1998년) | 박수복 목사 | 이병무 장로 |
| 제25대(1999년) | 최웅렬 목사 | 박해용 장로 |
| 제26대(2000년) | 안창의 목사 | 임무송 장로 |
| 제27대(2001년) | 송병기 목사 | 유시수 장로 |
| 제28대(2002년) | 황경일 목사 | 황일봉 장로 |
| 제29대(2003년) | 김영식 목사 | 최진욱 장로 |
| 제30대(2004년) | 허 걸 목사 | 박용기 장로 |
| 제31대(2005년) | 김종덕 목사 | 박용기 장로 |
| 제32대(2006년) | 이병홍 목사 | 송정훈 장로 |
| 제33대(2007년) | 정수명 목사 | 강현석 장로 |
| 제34대(2008년) | 황동익 목사 | 한영숙 장로 |
| 제35대(2009년) | 최창섭 목사 | 유일용 안수집사 |





# 4. 할렐루야 전도대회 30년 역사



**할렐루야 전도대회 30년 역사**

● 제1회(1980)
대 회 장 : 신상국 목사
준비위원장 : 박재영 목사
일 시 : 7월 11일-13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임동선 목사

● 제2회(1981)
대 회 장 : 박희소 목사
준비위원장 : 장석진 목사
일 시 : 5월 15일-17일
장 소 : 메다슨스퀘어 가든
강 사 : 박조준 목사

● 제3회(1982)
대 회 장 : 김용주 목사
준비위원장 : 이은수 목사
일 시 : 7월 1일 - 4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김계유, 김준곤 목사
청소년강사 : 장영춘 목사

● 제4회(1983)
대 회 장 : 홍효금 목사
준비위원장 : 어성의 목사
일 시 : 6월 30일-7월 3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김선도 목사
청소년강사 : 김홍수 목사

● 제5회(1984)
대 회 장 : 남학희 목사
준비위원장 : 신의철 목사
일 시 : 7월 5일-8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신현균 목사
청소년강사 : 박종기 목사

● 제6회(1985)
대 회 장 : 이문구 목사
준비위원장 : 윤명호 목사
일 시 : 7월 4일-7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한경직 목사
청소년강사 : 장영춘 목사

● 제7회(1986)
대 회 장 : 김용길 신부
준비위원장 : 김형룡 목사
일 시 : 7월 3일-6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김장환 목사
청소년강사 : 김요셉 전도사

● 제8회(1987)
대 회 장 : 김상모 목사
준비위원장 : 손영구 목사
일 시 : 7월 2일-5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장진정 목사
청소년강사 : Charles Ferrara

● 제9회(1988)
대 회 장 : 김정국 목사
준비위원장 : 권유순 목사
일 시 : 7월 7일-10일
장 소 : 퀸즈한인교회
강 사 : 이호분 목사
청소년강사 : 오대원 목사

● 제10회(1989)
대 회 장 : 양희철 목사
준비위원장 : 정영환 목사
일 시 : 6월 29일-7월 2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이동원 목사
청소년강사 : 김준곤 장로

● 제11회(1990)
대 회 장 : 장석진 목사
준비위원장 : 고석희 목사
일 시 : 7월 5 -8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곽선희 목사
청소년강사 : Gerald Kaufman

● 제12회(1991)
대 회 장 : 방지각 목사
준비위원장 : 송병기 목사
일 시 : 7월 4일-7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김삼환 목사
청소년강사 : 김신발라 목사
어린이강사 : 장춘석 목사

● 제13회(1992)
대 회 장 : 정태진 목사
준비위원장 : 박순종 목사
일 시 : 7월 2일-5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김홍도 목사
청소년강사 : 안재호 목사
어린이강사 : 윤장숙 전도사

● 제14회(1993)
대 회 장 : 김남수 목사
준비위원장 : 김승희 목사
일 시 : 7월 1일-4일
장 소 : 퀸즈칼리지 대강당
강 사 : 신성종 목사
청소년강사 : 임의승 목사
어린이강사 : 이명희 선생

● 제15회(1994)
대 회 장 : 조덕현 목사
준비위원장 : 한세원 목사
일 시 : 6월 30일 - 7월 2일
장 소 : 퀸즈한인교회
강 사 : 이종묵 목사
청소년강사 : 김영철 목사
어린이강사 : 조유경 전도사

● 제16회(1995)
대 회 장 : 박순종 목사
준비위원장 : 김택규 목사
일 시 : 8월 3일-6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최성규 목사
청소년강사 : 김상환 목사
어린이강사 : 임세빈 목사

● 제17회(1996)
대 회 장 : 한재홍 목사
준비위원장 : 박수복 목사
일 시 : 7월 11일-14일
장 소 : 퀸즈한인교회
강 사 : 이만신 목사
대학청년강사 : 김상환 목사
청소년강사 : 서정인 목사
어린이강사 : 신관홍 목사

● 제18회(1997)
대 회 장 : 한세원 목사
준비위원장 : 최용열 목사
일 시 : 7월 10일-13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김충기 목사
청소년강사 : 노진산 목사,
성동환, 최미경 전도사
어린이강사 : Elsie Violet Ezzo

● 제19회(1998)
대 회 장 : 박수복 목사
준비위원장 : 이호선 목사
일 시 : 7월 9일-12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나경일 목사
청소년강사 : 스티브 황,
랜디 갈레온 목사
어린이강사 : Melissa Falk 전도사

● 제20회(1999)
대 회 장 : 최용열 목사
준비위원장 : 아승재 목사
일 시 : 7월 8일-10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김시철 목사
청소년강사 : Joshua Harris,
Rev. Paul Kim, Gary A. Parrett
어린이강사 : 아종석 목사

● 제21회(2000)
대 회 장 : 안창의 목사
준비위원장 : 김석형 목사
일 시 : 7월 14일-16일
장 소 : 뉴욕장로교회
강 사 : 김삼환 목사
청소년강사 : Rev. Tim Mercaldo,
Rev. Jim Bob Park
어린이강사 : 이드보라 전도사

● 제22회(2001)
대 회 장 : 송병기 목사
준비위원장 : 김영식 목사
일 시 : 6월 28일-7월 1일
장 소 : 퀸즈한인교회
강 사 : 최이식 목사
청소년강사 : Jay J. Oh 목사
어린이강사 : 이드보라 전도사

● 제23회(2002)
대 회 장 : 황정일 목사
준비위원장 : 이금본 목사
일 시 : 7월 5일-7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김자연 목사
청소년강사 : Che Ahn 목사
어린이강사 : 이계자 전도사

● 제24회(2003)
대 회 장 : 김영식 목사
준비위원장 : 김종덕 목사
일 시 : 6월 26일-29일
장 소 : 뉴욕장로교회
강 사 : 백문현 목사
어린이강사 : 신혜경 목사

● 제25회(2004)
대 회 장 : 허 길 목사
준비위원장 : 최창섭 목사
일 시 : 7월 2일-4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김창훈 목사
어린이강사 : 조유경 전도사

● 제26회(2005)
대 회 장 : 김종덕 목사
준비위원장 : 김종훈 목사
일 시 : 6월 10일-12일
장 소 : 순복음뉴욕교회
강 사 : 하용조 목사
청소년강사 : 최질규 목사
어린이강사 : 신혜경 목사

● 제27회(2006)
대 회 장 : 이병홍 목사
준비위원장 : 여기천 목사
일 시 : 6월 30일-7월 2일
장 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 사 : 소강석 목사
청소년강사 : Shane Claiborne 전도사
어린이강사 : 김윤숙 전도사

● 제28회(2007)
대 회 장 : 정수영 목사
준비위원장 : 김식형 목사
일 시 : 7월 20-7월 22일
장 소 : 퀸즈한인교회
강 사 : 오정현 목사
청소년강사 : 오석환 목사
어린이강사 : 김은예 전도사

● 제29회(2008)
대 회 장 : 황동익 목사
준비위원장 : 아승재 목사
일 시 : 7월 11-7월 13일
장 소 : 순복음뉴욕교회
강 사 : 김문훈 목사
청소년강사 : 권대니 목사
어린이강사 : 김희영 전도사

● 제30회(2009)
대 회 장 : 최창섭 목사
준비위원장 : 이만호 목사
일 시 : 7월 10일-7월 12일
장 소 : 순복음뉴욕교회
강 사 : 이동원 목사
청소년강사 : 제이 박 목사
어린이강사 : 헬렌 김 목사





# 5. 2009년 현재 뉴욕교협에 등록된 교회들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 358-0074/4428. Fax. (718) 321-0105
www.nyckcg.org / E-mail:nyckcg@gmail.com

가스펠장로교회



목 사 신우철

Korea Gospel Presby. Church
35-50 Union St., RM.
Flushing, NY 11354
(718) 463-0706
koreagpc.org

Rev. Woo Chul Shin
144-69 32 Rd. Apt. 3B.
Whitestone, NY 11357
(718) 463-0796 (917) 683-5045(CP)
jjc25moon@hanmail.net

구세군뉴욕캠프교회



사 관 김홍우
사 관 한미숙
봉 고 홍철식

The Salvation Army Flushing Corps.
142-50 32Avenue
Flushing, NY 11354
(718)762-9811 / (718)762-2975(Fax)
nyc.flushing@usa.salvationarmy.org

Capt. Jong Woo Kim
325 Halsey Ave.
W. Hempstead, NY 11552
(516) 485-5634 (917)626-2499(CP)

그로발비전장로교회



목 사 이태설
전도사 이홍은

Global Vision Presby. Church
42-70 Murray St. Flushing, NY 11355
(718) 461-1763 (TFP)
www.missionglobal.org

Rev. Woo Chul Shin
45-70 Murray St. 2F Flushing, NY 11355
(718) 461-1763 (T/F)
(718) 502-1616 (CP)
peterlee@missionglobal.org

*Associate Reformed Presby. Church

기쁨과영광교회



목 사 전희수
교육사 Catherine Kwon
교목대사 Peter K. Cho

Joy And Glory Church
41-01 149 Pl. Flushing, NY 11355
(718)359-7883
(718)359-7883(Fax)

Rev. Hee Soo Chon
41-44 149 Pl.
Flushing, NY 11355
(718) 359-7883(Fax)(646) 270-9773(CP)
joynglorych@yahoo.com

*목회요람

뉴욕갓세마네교회



목 사 이지영
원로목사 최승은
전 도 사 양희자
박윤정
황윤진

The Gethsemane Church of NY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718) 358-6225
(718) 762-4695(Fax)
www.ngethsemane.org

Rev. Ji Young Lee
224-52 77 Ave.
Oakland Gardens., NY 11364
(718) 464-2295 (917) 695-2763(CP)
hopelee81@yahoo.co.kr

*스태프

뉴욕만나교회



목 사 정라호
전 도 사 이홍인
이영희
David 정

Manna Presby. Church of N.Y.
170-09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718)539-9888
lovanbochung@hotmail.com

Rev. Kwang Ho Chung
170-09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718) 539-9888(T/F)
(917) 750-8174(CP)

*NFC

뉴욕메신저교회



목 사 이창남

The NY Messenger Church
40-41 166 St. Flushing, NY 11358
(718) 631-1016
nychang526@hotmail.com

Rev. Chang Nam Lee
40-45 216 St. Bayside, NY 11361
(718) 631-1016(T/F)
(646) 772-9945(Cell)

*선교사 파송교회

뉴욕복민장로교회



목 사 강경락
(원로)

The Korean Mok Min Presby. Church of NY
P.O.Box 36-2101
New York, NY 10129
(718) 359-3407(T/F)(646) 359-9232(CP)
pwhang34@hotmail.net

*선교사 파송교회



뉴욕제광장로교회



목 사 황경일
선교목사 오원근

The Gae Myung Presby. Church of NY
142-34 #204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718) 463-2901

Rev. Kyung Il Hwang
36-20 168 St. #2D
Flushing, NY 11358
(718) 445-2901 (T/F)
(917) 535-9325 (CP)

*선교사 파송교회

뉴욕광명장로교회



목 사 황이환
집 도 사 민승우

New York Kwangmyung Presby. Church
156-58 Union St. Flushing, NY 11354
(718) 353-3596
hahwanglyahoo.co.kr/hwhwan@gmail.com

Rev. Eui Hwan Hwang
149-10 38 Ave.
Flushing, NY 11358
(646)515-8590(CP)
hellhwan@hanmail.net

*NFCH 장로

뉴욕나눔장로교회



목 사 고재창

Sharing Presby. Church of NY
35-34 Union St. #1-C, Flushing, NY 11354
(718) 466-1010

Rev. Jae Chang Ko
139-55 35 Ave. #5A,
Flushing, NY 11354
(718) 762-6340
spcko@hanmail.net

*CPC

뉴욕대한장로교회



목 사 김 천

Korean Presby. Church of Greater NY
35-01 150 St. Flushing, NY 11354
(718) 886-0909 (216) 922-7339
dhanjohn@yahoo.com

Rev. John Kim
212 Sunset Rd. Laurel Hollow, NY 1171
(516) 238-6071
(516) 922-7339(Fax)
(516) 984-8688(CP)

*대한나사렛교단

뉴욕루터교회



원로목사 장시명
교목목사 윤디모데

Immanuel Lutheran Church & Academy
155-14 35 Ave. Flushing, NY 11354
(718) 460-5736(T/F)
immanuelluthran@yahoo.com

Rev. Simon Sung Chil Johann
155-14 35 Ave. Flushing, NY 11354
(718) 460-5736(T/F)

*스웨덴

뉴욕침례신학교회



목 사 최은홍
부 목 사 허정민
전 도 사 백명훈

Faith Mission Church of NY
149-09 41 Ave. #2FL
Flushing, NY 11355
(718) 359-88 (S/T/F)

Rev. Peter E. Chai
218 Julian Rd. College Point, NY 11356
(718) 359-88 (S/T/F)
(917) 655-7749(CP)
joyfaithny@gmail.com

*NAFC

뉴욕복된교회



목 사 송해수
전 도 사 최구자

Good News Presby. Church of NY
40-25 162 St.
Flushing, NY 11358
(718) 463-0360 (T/F)
nygoodnewschurch@hotmail.com

Rev. Ye Shik Choi
65-68 159 St.
Flushing, NY 11355
(718) 463-3184 (T/F) 463-0360(Fax)
(718) 908-9975(CP)

*NYCA

뉴욕새하늘교회



목 사 조병성
부 목 사 장윤건
전 도 사 김종환

New Heaven Church of NY
32-18 137 St. Flushing, NY 11354
(718) 772-3245
(718) 463-0887

Rev. Byong Kwang Cho
25-71 146 St. 2nd Fl. Flushing, NY 11354
(718) 463-0887 (T/F)(CP)
newheaven99@hotmail.com

*NYCA





뉴욕복음선교교회



목 사 이병수
고목목사 변지수
전도사 한신영
이다정 Chaeni Kim
봉 고 사 Esther Lee

The Gospel Mission Church of N.Y.
80-32 Springfield Blvd.
Hollis Hills, NY 11427
(718) 217-6327(T/F)
(917) 660-0759(CP)
nanyoo38@yahoo.com/hanbokang@hotmail.com

Rev. Paul B. Lee
80-32 Springfield Blvd.
Hollis Hills, NY 11427
(718) 217-6327 (917) 660-0759(CP)

*Christ

뉴욕은혜교회



목 사 황성구

Grace Community Church of N.Y.
157-16 65 Ave. Flushing, NY 11367
(718) 961-1191

Rev. Seong Kyu Hwang
64-17A 224 St. Bayside, NY 11364
(718) 423-1942

*NAFC

뉴욕비전교회



목 사 김연규
전 도 사 김효정

The Vision Church of New York
40-22 158 St. Flushing, NY 11358
(718) 353-9675 (718) 321-7339(Fax)
vizsy@korea.com

Rev. Youn Kyu Kim
40-22 158 St. Flushing, NY 11358
(718) 321-7339(T/F)
(917) 558-7405(CP)
theyounchurch@gmail.com

*목요

뉴욕사랑선교교회



목 사 정홍신
전 도 사 이영한

*선교사 파송교회

The Love Mission Church of NY
156-20 41 Ave. #2FL Flushing, NY 11354
(718) 539-1161
(718) 832-5081
missionlovechurch@gmail.com

Rev. Jong Sun Yun
154-20 41 Ave. #2FL Flushing, NY 11354
(718) 539-1161

뉴욕산돌교회



목 사 박문근

The N.Y. Living Stone Church
48-28 159 St.
Flushing, NY 11358
(718) 359-6161
(718)321-2932

Rev. Moon Geun Park
41-28 159 St. Flushing, NY 11358
(718) 359-6161
(718) 321-2932

*목요

뉴욕세목양장로교회



목 사 황진철

The New Mouk Yang Presby. Church of N.Y.
142-41 41 Ave. #4A, Flushing, NY 11355
(718) 799-6456

Rev. Jin Chul Hwang
142-41 41 Ave. #4A,
Flushing, NY 11355
(718) 799-6456

*NAFC

뉴욕새삶교회



목 사 나윤수

New York Psalm Church
161-20 46 Ave. Flushing, NY 11358
(917) 755-5882
cafe.godpeople.com/nypc

Rev. Kwang Su Na
2346 E. 11 St. F-18 Brooklyn, NY 11235
(718) 648-1184(T/F)
(917) 733-5882(CP)
pastorna@hotmail.com

*NAFC

뉴욕새순교회



목 사 서종호
전 도 사 정윤진

New Sprout Presby. Church of NY
40-13 149 St. Flushing, NY 11358
(718)661-4802

Rev. David Suk
61-40 230 St. #2 Bayside, NY 11364
(718) 898-4175(CP)
sukdavidus@hotmail.com

*PCUSA



뉴욕벧엘교회



목 사 노기평

*NBC

The Welling Up Church of NY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718)631-4249

Rev. Peter Kay Rho
202-02 46 Rd. #2FL Bayside, NY 11361
(718) 651-4245

뉴욕서울장로교회



목 사 한문수
집 도 사 박대근
전 도 사 신정수
이미경/김윤주

*예배시간

Seoul Presby. Church of New York
136-27 35 Ave. Flushing, NY 11354
(718)423-0560
(917)363-6203

Rev. MoonSoo Han
146-09 150 St. #2FL Flushing, NY 11354
(718) 460-2504 (T/F)
(718) 423-0343(CP)

뉴욕선민교회



목 사 현인준
은퇴목사 임성빈
전 도 사 채은비
박성수

*선택사양(선택항목)

New York Sunmin Presby. Church
149-60 48 Ave. Flushing, NY 11355
(718) 961-5248(T/F)
prchinkr@gmail.com

Rev. Sung Eun Ham
7-20 127 St. 2nd Fl.
College Point, NY 11356
(718) 352-4077(CP/F)

뉴욕소망교회



목 사 타이드
전 도 사 바울웅
문윤영

*사역

Church of Hope in New York
75-70 162 St. Flushing, NY 11366
(718)380-7802
(718)380-7805(Fax)
owner@cohny.com

Rev. Titus Choi
215-32 Corbett Rd. Bayside, NY 11361
(718) 279-4796
(917) 589-4000(CP)

뉴욕은혜갈보리교회



목 사 정명호
교목목사 조영신

*NA

Full Gospel Calvary Korean Assembly of God
134-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 886-3993

Rev. Young Hyo Chung
934 Rockland Ave. S.I. NY 10314
(718) 698-8388
(917) 776-2312(CP)
chungyounghyo@hotmail.com

뉴욕실로암장로교회



목 사 김윤아
교육 목사 김성
전 도 사 이명

*NCA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137-7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63-9011
(718)463-2256(Fax)
www.synknow.com

Rev. Jong Duk Kim
168-12 72 Ave.
Fresh Meadows, NY 11365
(718) 969-2849
(917) 909-5999(CP)

뉴욕한인교회



목 사 송수경
전 도 사 박권은

*NAFC

New York United Korean Church
135-10 35 Ave. Flushing, NY 11354

Rev. Soo Ho Song
62-16 Woodside Ave. #1B08
Woodside, NY 11377

뉴욕연합장로교회



목 사 정희철
원로목사 송인현

*PCUSA

The Korean United Presby. Church of NY
150-20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646) 421-0360 (T/F)
nyrose1004@hotmail.net

Rev. Hi Chul Yang
112-06 70 Rd.
Forest Hills, NY 11375
(917) 337-0130(CP)

뉴욕순복음선교교회



목 사 장승호
부 목 사 서승범
전 도 사 이종욱
박아숙
김성계

교회 Full Gospel United Church of NY
3104-09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 359-0166, 886-2323
(718) 359-5999(Fax)
shyang01@yahoo.co.kr

담임목회자 Rev. Seung Ho Yang
22 Rosedal Ave. Yellyneum, NY 11360
(516) 295-1150
(646) 335-6209(CP)

뉴욕순복음제일교회



목 사 한영길목
전도 목사 장
대 학 교 Lee/Jeonne
교육전도사 Im/Jin
Lee/Jeonne

교회 The Full Gospel First Church of NY
41-15 156St. Flushing, NY 11355
(718) 461-9154

담임목회자 Rev. Young Kag Han
144-31 41 Ave. #2F1 Flushing, NY 11355
(718) 461-9154
(718) 461-5846(Fax)
(718) 490-1050(CP)

뉴욕승리교회



목 사 백인스라엘

교회 Victory Church of NY
171-07 Northern Blvd.Flushing, NY 11358
(917) 667-8553(CP)
Israelpack@gmail.com

담임목회자 Rev. Israel Pack
147-25 Northern Blvd. #5B
Flushing, NY 11354
(718) 353-5829

뉴욕시민장로교회



목 사 장진호

교회 New York Citizen Presbyterian Church
161-20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718) 321-2001
nyhighschool@hotmail.net

담임목회자 Rev. Jin Ho Chang
161-20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718) 321-2001
(917) 757-0010(CP)

뉴욕신성교회



목 사
전 도 사

교회 Shin Sung Presby. Church of NY
147-46 Sanford Ave. Flushing, NY 11354
(718)762-3303

담임목회자 Rev.

뉴욕예일장로교회



목 사 임재홍

교회 Yae Dam Presbyterian Church of N.Y.
34-51 Leavitt St. #3FL Flushing, NY 11354
(718) 961-1084

담임목회자 Rev. Jae Hong Lim
48-27 155 St. #3FL Flushing, NY 11354
(718) 961-1084

뉴욕에은교회



목 사 김명옥
교육 목사 유광호
전 도 사 김은지

교회 A/G New York Jesus Grace Church
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718)460-9556(718)-428-2340(Fax)
(718)679-9726(CP)
eden@ahamail.net

담임목회자 Rev. Myung Ok Kim
52 Cedar Rd.
E. Northport, NY 11732
(718) 679-7724(HP)

뉴욕세광장로교회



목 사 박태구
협동목사 최윤익
전 도 사 나혜옥
이인봉

교회 New Power Presby. Church of NY
39-09 162 St. 1. Flushing, NY 11358
(718) 961-7567
jabet1203@yahoo.com
www.nypaphunh.org

담임목회자 Rev. Tae Gyu Park
28-15 203 Pl. #2Fl. Bayside, NY 11360
(718) 840-9311
(718) 352-0960





뉴욕은광장로교회



목 사 지교진

교회 Grace & Peace Presby. Church
35-10 Union St. Flushing, NY 11354
(718) 463-5934
kcher12@yahoo.com

담임목회자 Rev. Kyo Chan Chee
142-05 Roosevelt Ave. #4J2
Flushing, NY 11354
(718) 463-3134
(917) 514-5428(CP)

뉴욕은혜장로교회



목 사 신현국
부 목 사 윤 관

교회 NY Grace Presby. Church Inc.
156-03 45 Ave. Flushing, NY 11358
(718) 229-6334

담임목회자 Rev. Hyun Kuk Shin
156-03 45 Ave. Flushing, NY 11358
(718) 229-6114 (T/F)
(646) 243-9981 (CP)
gracechurch@hotmail.com

뉴욕복지교회



목 사 정병업
전 도 사 김용상
양미

교회 Disciples Church of New York
136-03 35 Ave. Flushing, NY 11354
(718) 939-7044
(718) 888-4260(Fax)
peacemdm@verizon.com

담임목회자 Rev. Bang Young Chung
141-25 Northern Blvd. #F23
Flushing, NY 11354
(718) 358-4177
(718) 510-4577(CP)

뉴욕주신장로교회



목 사 김용익
부 목 사 김인실
임동목사 조문자

교회 New York Joo-Shin Church of the Presby.
46-15 160 St. Flushing, NY 11358
(718) 460-4298(T/F)

담임목회자 Rev. Yong Ik Kim
45-41 161 St. 2Fl. Flushing, NY 11358
(718) 766-9590
(718) 510-7062(CP)

뉴욕주십교회



목 사 윤용근
전 도 사 이일주

교회 NY Jusim Church
40-20 159 St. Flushing, NY 11358
(718)762-9330(T/F)
jusim91@hanmail.net

담임목회자 Rev. Yong Kun Yun
45-24 220 Place Bayside, NY 11361
(718) 224-2602 (T/F)

뉴욕참사랑교회



목 사 최주삼
전 도 사 나혜옥
정문기

교회 True Love Church
69E Williams Ave. E. Williston Park, NY
(718) 539-2122(T/F)
joelchoi@hotmail.net
www.mylovechurch.org

담임목회자 Rev. Joseph Choi
178-08 39 Ave. Flushing, NY 11358
(718) 213-0955(CP)
josephwchoi@hotmail.net

뉴욕용산장로교회



목 사 김태욱
정동 목사 한은
전 도 사 김은

교회 Choong Sun Reformed Church in NY
155-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718)359-8060(718)359-1044(Fax)
www.choongsungchurchnyny@yahoo.com
Kbmmoon@hotmail.com

담임목회자 Rev. Hae Taik Kim
196-26 42 Rd. Flushing, NY 11358-3018
(347) 368-4357(718) 684-8222 (CP)
khmoon@hotmail.com

뉴욕송산장로교회



목 사 소고석

교회 NY Choong Hyun Presby. Church
33-17 143 St. Flushing, NY 11354
(718)875-5253

담임목회자 Rev. Geum Seok Cho
52-09 99 St. #2f. Corona, NY 11368
(646) 262-1011(CP)





뉴욕풍성한교회



목 사 박성진
전 도 사 박신

교회 The Abundant Presby. Church of NY
160-07 74 Ave Flushing, NY 11366
(718) 683-8004
pungsunghan@hotmail.com

담임목회자 Rev. Sung Won Park
248-07 Jamaica Ave.
Little Neck, NY 11362
(718) 225-2243(T/F)(718) 463-8804(CP)
pungsung@aol.hotmail.com

뉴욕은국인동산교회



목 사 박종진
전 도 사 박수지

교회 Dong San Sung Kyul Church of NY
41-60 Union Blvd. Flushing, NY 11355
(718)961-0650

담임목회자 Rev. Jong Jin Park
137-45 Kalmia Ave. Flushing, NY 11355
(718) 539-4642
(646) 744-5357(CP)

뉴욕은빈등대교회



목 사 이동진
원로목사 김정경

교회 Korean Lighthouse Church of NY
40-04 169 St. Flushing, NY 11358
(718)460-8807(347) 234-0738
www.nyseethou.org

담임목회자 Rev. Dong Jin Lee
144-16 35 Ave. #3B Flushing, NY 11354
(718) 460-8807
(347) 234-0738 (Cell)

뉴욕은빈오순절성결교회



목 사 최성용
부 목 사 박미경
나혜경
전 도 사 김동진

교회 NY Korean Pentecostal Holiness Church
40-18 162 St.
Flushing, NY 11358

담임목회자 Rev. Kil Jong Choi
45-22 216 St.
Bayside, NY 11361

뉴욕은신장로교회



목 사 김영남
전도목사 민도영

교회 NY Korean Presby. Church
46-10 192 St. Flushing, NY 11358
(917) 208-6972

담임목회자 Rev. Young Nam Ahn
9 Delaware Ave.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767-2455
(917) 208-6972(CP)

뉴욕한길교회



목 사 김남균

교회 New York Hallelujah Korean Metho. Church
36-23 168 St. #2B Flushing, NY 11358
(347) 463-5057
namgeuk@hotmail.com

담임목회자 Rev. Nam Geun Kim
36-23 168 St. #2B
Flushing, NY 11358
(917) 902-7979(CP)

뉴욕행복한교회



목 사 이상현
부 목 사 태일권
전임 목사 태기
전 도 사 정희선
이혜경

교회 The New York Happy Church
160-03 Hawkaway Ave. Flushing, NY 11355
(718)321-6581
(718)358-8060(Fax)
nyfaith@hotmail.net

담임목회자 Rev. Sung Heon Lee
36-23 168 St. #2B Flushing, NY 11358
(718)321-6581
(718)321-8365(Fax)
(347) 224-9995(CP)

뉴욕헤브론장로교회



목 사 배광기
원로 목사 김근수
부 목 사 송용은

교회 The Hebron Presby. Church of NY
59-24,2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718)463-8080(Fax)

담임목회자 Rev. Young Ki Chae
42-58 159 St. Flushing, NY 11358
(718) 353-8565(T/F)



뉴욕온누리교회



목 사 이강일

교회 The Whitestone Korean Presby. Church of NY
152-20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718) 886-0826
kmalbu@yahoo.com

담임목회자 Rev. Kang Il Lee
152-20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718) 886-0826
(347) 208-9120(CP)

은혜침례교회



목 사 이승건
교육 목사 이정
찬양 목사 박광희(Michael)
전 도 사 박주호

교회 Evergreen Presby. Church of NY
141-31 33rd Ave. Flushing, NY 11354
(718)463-8181(718) 939-0300(Fax)
www.ABeN.org
ABeN@verizon.net

담임목회자 Rev. Stephen Sung Kim
209-31 46 Ave. Bayside, NY 11361
(516) 423-8234(347) 886-7349(CP)
eternykorea@hotmail.com

영광선교교회



목 사 김용중

교회 The Ends of The Earth Mission Church
162-10 Southern Ave. #2Fl.
Flushing, NY 11358
(212)795-6488(Fax)

담임목회자 Rev. Simon W. Kim
4260 Broadway #303
New York, NY 10033
(212) 795-6488
(347) 749-3986(CP)

리빙스톤교회



목 사 유수일
교육전도사 최미아

교회 Living Stone Church
35-57 104 St. Flushing, NY 11368
(718)981-3631
Livingstonechurch@gmail.com
kys2000@hotmail.com

담임목회자 Rev. Koany S. Yu
148-32 Holly Ave.
Flushing, NY 11355
(718) 961-2171
(917) 862-8826(CP)

베다니장로교회



목 사 최광인

교회 Messiah Presbyterian Church
147-24 34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996(T/F)

담임목회자 Rev. Kwang Jin Choi
147-24 34 Ave.
Flushing, NY 11354
(718) 321-7996(T/F)

뉴욕침례교회



목 사 전세영
선교 목사 안진
찬양 목사 이상희
전 도 사 이인석

교회 The Korean Baptist Church of New York
157-17 Reier Ave. Flushing, NY 11351
(718)321-6048(T/F)
nybaptist@hotmail.com/www.kbcny.com

담임목회자 Rev. Sae Young Chung
15-56 209 Pl. Bayside, NY 11360
(646) 235-4851
(347) 804-2769(CP)
nychung517@hotmail.com

뉴욕평안장로교회



목 사 박용수

교회 New York Pyong An Presby. Church
160 Roslyn Rd. Mineola, NY 11501
(516) 734-2320

담임목회자 Rev. Chong Soo Park
160 Roslyn Rd. Mineola, NY 11501
(516) 729-2320
jpark68992@hotmail.com

뉴욕쇼신장로교회



목 사 문덕홍
부 목 사 [illegible]
[illegible]
전 도 사 [illegible]
[illegible]

교회 Ilyo Shin Bible Presbyterian Church of NY
42-15 160 St. Flushing, NY 11358
(718) 762-5756, 2525
(718) 961-5111(Fax) / www.ilyoshin.org

담임목회자 Rev. Suk Ho Moon
166-07 42 Ave.
Flushing, NY 11358
(718) 961-2738(347) 748-8212(CP)
mysolfish9527@hanmail.net

*ARP

## FLUSHING / NEW YORK



이주그은교회

목 시 장하기

교회 Mijoo Ku Eun Church
41-60 Bowne St. Flushing, NY 11355
(718)355-9910

담임목사 Rev. Grace Suk Ki Jung
41-60 Bowne St. #5F
Flushing, NY 11355
(718) 353-3910



이주사랑의교회

목 시 백일천
교육 목사 김정대
교역협조 이사무엘

교회 A/G Korean American Church of Love
156-03 Sanford Ave. Flushing, NY 11355
(718)961-4632
(718)961-3502(Fax)
mombeck@verizon.net

담임목사 Rev. Moon Hyun Beck
162-12 65 Ave. #2FI
Fresh Meadows, NY 11365
(718) 321-1634(TF)
(718) 679-7934(CP)

*사진



벧엘성결교회

목 시 한기섭

교회 Bethel Evangelical Church of NY
136-11 32 Ave. Flushing, NY 11354
(718)463-0554

담임목사 Rev. Ki Seob Joung
45935 243 St.
Little Neck, NY 11362
(917)698-3197(CP)

*기도와마음을교회



빛과소금교회

목 시 전승원
협동 목사 박미진
전 도 사 이희학
선 교 사 김정
리더십사 녹원농

교회 The Light and Salt Church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847)533-2350
slkwood@yahoo.com

담임목사 Rev. Soon Won Cheong
145-50 23 Ave.2nd Fl.
Whitestone, NY 11357
(347) 513-1310(CP)

*뉴서부교회



순복음안디옥교회

목 시 이반장
협동 목사 김영
장년전도사 설우석장
교육전도사 김혜수이장
사무행정보좌 이

교회 The Antioch Missionary Church
40-05 162 St. Flushing, NY 11358
(718) 461-7835
(718) 924-6806(Fax)

담임목사 Rev. Man Ho Lee
240-17 61th Ave.
Douglaston, NY 11362
(718)-279-3101
(718)-938-1777(CP)

*사진



성림교회

목 시 김성시

교회 The Christ Mission Church
29-10 162 St. Flushing, NY 11358
(718)939-8275
pbkim@aol.com

담임목사 Rev. Phil Sik Kim
29-05 162 St. Flushing, NY 11358
(718) 939-8278



예수마선교교회

목 시 맨해드포
협동 목사 서경석
선교 목사 문희준

교회 Yeshua Mission Church
36-40 Bowne St. #2fl Flushing, NY 11354
(718)886-3040
(718)886-3458(Fax)
nyyeshua@yahoo.com

담임목사 Rev. Peter B. Hyun
36-40 Bowne St. #2fl Flushing, NY 11354
(718) 886-8249
(718) 886-3458(Fax)
(646)559-1280(Cell)



온누리교회

목 시 장은성

교회 On Nuree Church
160-02 46 Ave. Flushing, NY 11358
(718)460-7095

담임목사 Rev. Soon S. Jang
196-18 48 Ave. Fresh Meadows, NY 11365
(718) 344-2792(CP)
onnuree@gmail.com

*대문사진



세스일장로교회

목 시 한도진
장 로 김광우
한 도 사 조성자
박학용

교회 New Hope Korean Church of NY
144-50 Roosevelt Ave. #402
Flushing, NY 11354
(718)886-9987

담임목사 Rev. Do In Joung
144-50 Roosevelt Ave. #402
Flushing, NY 11354
(718)886-9987(CP)
doinpoong@gmail.com

*박다니



새성령으교회

목 시 윤종은

교회 New Spirit Church
1748 Francis Lewis Blvd.
Whitestone, NY 11357
(917) 519-6388

담임목사 Rev. Jong Eun Moon
1748 Francis Lewis Blvd.
Whitestone, NY 11357
(347) 732-4928(917) 383-6208(CP)
jmoon@kcmusa.com

*노아이



선교하는교회

목 시 윤요신
교육 목사 우현용
선교 목사 남기용
한 도 사 윤정숙

교회 The Church of Sinzins
37-13 Union St. #B
Flushing, NY 11354
(718)412-0184
(718)445-0216(Fax)

담임목사 Rev. Steven Oh Seung Yun
37-24 Parsons Blvd. #9FL
Flushing, NY 11354
(718) 445-0216(TF)
stevenyy@gmail.com

*노아



성공하는목한인교회

신 부 김동규
한목협대표 김한구
회 장 최기성
사역 협동 송숙자
목 장 안석철

교회 Church of The Holy Spirit Episcopal Korean Church
140-49 Sanford Ave.
Flushing, NY 11355
(718)278-2343(718)279-4408(Fax)

담임목사 Rev. Yong Gui Kim
32-33 30 St.
L.I.C., NY 10103
(718) 278-2847
(917)690-1490(CP)

*대문사진



침금침은교회

목 시 정금선

교회 Church of Golden Faith
39-07 Bell Blvd. Bayside, NY 11361
(917) 683-6992
(718) 752-8918(Fax)

담임목사 Rev. Keum Soo Chung
42-60 65 Pl. #1B Woodside, NY 11377
(917) 415-6099(CP)

*노아



성은선교감리교회

목 사 하은석

교회 Sung Eun Mission Methodist Church
144-90 41 Ave. #304 Flushing, NY 11355
(718)463-6369
shother@hotmail.com

담임목사 Rev. Han Suk Choi
144-90 41 Ave. #304
Flushing, NY 11355
(718)463-6369

*대문사진



은혜열매농목교회

목 사 김순수
부 목 사 김선기
협동 목사 김선기
장로 목사 김선기
선교 목사 김선기

교회 Promise Ministries
130-90 31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000
(718)321-8994(Fax)
www.fgnyc.org (agency Scott)

담임목사 Rev. Nam Soo Kim
426 Grandview Pl.
Fort Lee, NJ 07024
(201) 947-1096(201) 947-1827(Fax)
(917) 737-9473(CP)



뉴욕루하임순복음교회

목 사 유동주
부 목 사 박한
전 도 사 김아영
단원

교회 Assembly of God NY
39-22 Linden Pl. Flushing, NY 11354
(718)358-1160

담임목사 Rev. Dong Joo Mok
214-16 10 Ave. #FL
Bayside, NY 11360
mpd456@hotmail.net
(917) 952-1152(CP)



## FLUSHING / NEW YORK



주는을입어순교회

목 시 김정철

교회 The Church of Lifting Jesus Be Knew
861-20 46 Ave. Flushing, NY 11358
(718)939-5332
changchul@aol.com

담임목사 Rev. Chang Chul Kim
147-34 45 Ave. Flushing, NY 11355
(718) 461-1371

*사진없어서 김장철목사님



지구촌선교교회

목 시 고석희
부 목 사 우현일
전 도 사 김남대
캠퍼스목

교회 The Global Mission Church
155-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762-6565
(718)762-1706(Fax)

담임목사 Rev. John Suk Hee Ko
16 Elliots Alley
Valley Cottage, NY 10989
(845) 267-4179
(845) 267-4159 (Home)

*John



퀸즈동부교회

목 시 김대영
청소목사 김미수
선교목사 김현오
교육 전도사 이수종

교회 The Eastern Korean Presby. Church of Queens
36-28 164 St. Flushing, NY 11358
(718)445-0565(718)463-0680
dckang3927@yahoo.com

담임목사 Rev. Dae Young Chang
1 Haven Lane Smithtown, NY 11787
(631) 366-2233(TF)
(718) 757-2170(CP)

*단체사진없어서 없



퀸즈순복음교회

목 시 박한범
장로목사 임은진

교회 New Hope Church
193-02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718) 279-0200(TF)
(917) 710-0260(CP)
hope4218@hanmail.net

담임목사 Rev. Hunyoung Park
144-24 Willetsponts Blvd. 2Fl.
Whitestone, NY 11357
(917) 370-9984(CP)

*상록교회목사



퀸즈장로교회

목 시 김영호
부 목 사 이동일 이인철 이신
전 도 사 김

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718) 358-7704(Fax)

담임목사 Rev. Young Choon Chang
143- 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718) 360-1300(CP)

*다음에 오실 목사



온즈장로감리교회

목 시 이 강
부 목 사 정요한
전 도 사 이 현

교회 The United Methodist Korean Church of Central Queens
150-20 15 Ave. Flushing, NY 11354
(718) 359-0304(TF)
chungpowr@aol.com

담임목사 Rev. Kenny Kang Yi
150-20 15 Ave. Flushing, NY 11354
(718) 359-0304(TF)
umkcuc@gmail.com

*UMC



퀸즈동레교회

목 시 박진석
협동목사 정현

교회 Queens Baptist Church
36-06 Prince St. Flushing, NY 11354
(718) 445-8877
(718) 353-0216(Fax)
bcfq@bpt@yahoo.com

담임목사 Rev. Billy Park
227-09 37 Rd. #2FL Bayside, NY 11364
(718) 352-6064
(718) 352-6216(Fax)
(917) 520-8964(CP)

*UBC



플러싱한인교회

목 시 변창규
청소목사 조정우
전 도 사 박수자

교회 Flushing Korean Church
35-09 168 St. Flushing, NY 11358
(917) 710-0260(CP)
changguk@yahoo.com

담임목사 Rev. Changguk Byun
149-37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11357
(718) 460-4941

*Korean Method Church



푸아성장로교회

목 시 조성희
부 목 사 이한
전 도 사 김현

교회 Flushing Presbyterian Church of NY
147-54 Ash Ave. Flushing, NY 11355
(917)685-6192

담임목사 Rev. Sung Hee Cho
36-07 149 St.
Flushing, NY 11354
(917)-685-6192(CP)
newdaycs@hotmail.com

*노아이



푸라성제일교회

목 시 김광민
교육 목사 김희진
영 전도사 박소영
교육 전도사 김민정(유아)
김민정(청소년)
한 도 사 이상

교회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38-24 149 St. Flushing, NY 11354
(718)939-8289(718)321-1005(Fax)
www.fumc.net/fumc@hotmail.com

담임목사 Rev. Joong Urn Kim
147-06 38 Ave. Flushing, NY 11354
(718) 961-5481
joongukim@hotmail.com

*노아



한누리교회

목 시 조재윤

교회 One-World Presby. Church
151-26 34 Ave. Rm#
Flushing, NY 11354
(718)353-4347(646)229-8183
Cho8619@gmail.com

담임목사 Rev. Bu Ho Cho
149-08 24 Ave.
Whitestone, NY 11357
(718) 670-5881(646)229-8183(CP)
cho8619@gmail.com

*노아



푸라장나사렛교회

목 시 최종범

교회 Flushing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718) 887-4724

담임목사 Rev. Richard Choi
174-33 Pidgeon Meadow Rd.
Flushing, NY 11365
(718) 357-5724
(646) 709-7965(CP)

*노아한인교회



갈릴리평화교회

목 시 한영주

교회 Galilee Peace Church of New York
42-50 200 St. Bayside, NY 11361
(718)-224-2220

담임목사 Rev. Young Joo Jeun
219-16 39 Ave. Bayside, NY 11361
(718) 225-3497
(646) 479-6875(CP)



그루터기선교교회

목 시 윤길복

교회 The Remnant Mission Church
48-17 69 St. Woodside, NY 11377
(718)898-9223
rmcny@hotmail.com

담임목사 Rev. Kap Bae Hwang
14-23 131 St. #2FL
College Point, NY 11356

*노아



그리스도왕교회

목 시 우연태
전 도 사 이동욱
유은심

교회 Christ the King Church
47-14 Glenwood St. Little Neck, NY 11362
(718) 224-5518(TF)
urgospellaney@yahoo.co.kr
christking@nate.com

담임목사 Rev. Sang Yul Ju
254-04 91 End Dr. Little Neck, NY 11362
(917) 282-6556(CP)

*CKM



나원장로교회

목 시 황영진
학생 목사 정수식
협동 목사 양일호
교육 목사 전수
한 도 사 이재현(한)
김재희(한)
원로목사 우 길

교회 Nakwon Reformed Church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718)445-7766
(718)326-3105(Fax)
nakwonchurch@gmail.com

담임목사 Rev. Young Jin Hwang
98-03 67th Ave. #FLV
Rego Park, NY 11374
(718) 275-1259
(917) 349-5631(CP)

*박노아

뉴비전교회



목 사 홍동식

New Vision Church
64-01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
(718) 505-8200(718) 565-7556
dongikwang@gmail.com
dongikwang@yahoo.com

Rev. Dong Ik Hwang
62-10 Woodside Ave. #4B9
Woodside, NY 11377
(718) 565-7556 (주중)
(917) 734-1826 (CP)

뉴욕갈릴리교회



목 사 정진영

New York Galilee Presby. Church
199-05 34 Ave. 2Fl Bayside, NY 11358
(718)662-6655
galileenyork@gmail.com

Rev. Do Young Jung
213-52 46 Rd. 1Fl. Bayside, NY 11361
(718)-662-6655(CP)

뉴욕강성아가페장로교회



목 사 이승명
교육 목사 김자
선교 목사 강원
건 도 사 정지상(이

Gang Sung Agape Presby. Church of NY
Fort Totten Chapel 638 Bayside, NY 11359
(718) 354-6699/(718)-638-2762(Fax)
lleejin1953@hotmail.net

Rev. Joung Myung Lee
87-22 226 St.
Oakland Gardens, NY 11364
(718)-631-2762
(718)-354-6600(CP)

뉴욕교회



목 사 최상선

New York Church
39-60 61 St. Woodside, NY 11377
Tel. (201) 867-4404
Fax. (201) 867-0367
hpyun@msn.com

Rev. Yang Sun Choi
363 Stuart Pl, New Milford, NJ 0746

뉴욕그리스도의교회



목 사 정준석
부 목 사 최요셉
청년 목사 수연정

New York Church of Christ
37-06 111 St Corona, NY 11368
(718)-429-6647
www.nyclrist.org
yoosvoa@hotmail.com

Rev. Choon Suk Chung
37-06 111 St. Corona, NY 11368
(718) 429-6647

뉴욕그리심장로교회



목 사 김종완

The Gerbim Korean Presy. Church of New York
36-15 201 St. Bayside, NY 11361
(347) 224-9291
kimbbaoke777@yahoo.com

Rev. Jong Wan Kim
36-15 201 St. Bayside, NY 11361
(347) 224-9291

뉴욕나사렛교회



목 사 이승학
장 로 오바울
재교역

NY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69-05 48 Ave. Woodside, NY 11377
(718) 361-0848
(718) 551-0448(Fax)

Rev. Victor H. Lee
69-05 48 Ave. Woodside, NY 11377
Wintevene, NY 11357
(917) 597-2322(CP)

뉴욕남교회



목 사 박승일
찬양 목사 김은
부 목 사 김은
교 도 사 장인
교육목사 박용

Korean Presby. Church of Southern NY
51-05 Queens Blvd, Woodside, NY 11377
(718)(794)8383(718)505-8300
(718)459-8338(Fax)

Rev. Sung Il Park
43-12 54 St. Woodside, NY 11377
(718) 639-8300
(347) 229-7840(CP)
nampocu@aol.com



뉴욕동우교회



목 사 정봉기
찬양 목사 박은
청년 목사 이영
선교 목사 원주혁(원

The Korean Presby. Church of East NY
21-70 Hazen St. East Elmhurst, NY 11370
(718) 756-3938
eastchurch@gmail.com

Rev. Bongki Chung
21-70 Hazen St. E. Elmhurst, NY 11370
(718) 726-1570(T/F)
bkjung2119@hanmail.net
(718) 506-5081(CP)

뉴욕동양제일교회



목 사 김일광
장로 목사 Jose
이선자 김동
교역자 장유진(Ju 이동성

The NY Dong Yang First Church
30-03 97 Pl, Corona, NY 11368
(718) 760-5586
(718) 592-6592(Fax)

Rev. Il Kwang Kim
47-23 Golden St.
Flushing, NY 11355
(718) 961-4464

뉴욕동원장로교회



목 사 박희근
찬양 목사 박정철
건 도 사 정윤재

NY Dong Won Presby. Church
21-01 124 St. College Point, NY 11356
(718) 321-9199
banpark99@yahoo.com

Rev. Heegeun Park
68-08 43 Ave. #2Fl.
Woodside, NY 11377
(718)-446-8467
(917)-751-0887(CP)

뉴욕동인교회



목 사 진명성

The Eastern People Church of NY
196-30 69 Ave. #2Fl.
Fresh Meadows, NY 11365
(718) 454-8024

Rev. Young Sung Jun
196-30 69 Ave. #2Fl.
Fresh Meadows, NY 11365
(718)-454-5958
energyjet365@gmail.com

뉴욕만민세계교회



목 사 이홍재
음악 목사 김선복
전 도 사 김민지

All Nation Disciple Church of NY
31-18 37 St, LIC., NY 11106

Rev. Heung Chae Rah
218-07 04 Ave.
Bayside, NY 11364
(718)-224-1993

뉴욕능기감교회



목 사 김옥자
부 목 사 김미
전 도 사 원미자(Wo

The Joyful Church of NY
61-51 Fresh meadow Lane
Fresh Meadows, NY 11365
(718) 359-1669(T)a(718) 359-1028(F)
www.nyjoy.org

Rev. Hong Suk Kim
64-17 B 219 St. Bayside, NY 11364
(718) 279-4416(T/F)
(646) 287-7049(CP)
hongskim1625@yahoo.com

뉴욕동방교회



목 사 조성일

The East Gate Presby. Church of NY
37-15 89 St. Jackson Hts., NY 11372
(718)779-7371

Rev. Philip Sung Cho
37-15 89 St. 1Fl.
Jackson Hts., NY 11372
(718) 779-7371

뉴저교회



목 사 김수웅
기도 협동 이정자
선 교 사 이혜스마
전 도 사 김선자
음 순
찬송책

St. Lukes Presby. Church of NY
103-10 Northern Blvd
Corona, NY 11368
(718) 639-6190

Rev. Amos Suung Kim
149-20 Hawthorn Ave.
Flushing, NY 11355
(718) 321- 1982(cell) 744-7686(CP)
moogil125@yahoo.com



뉴욕생성감리교회



목 사 안병일
찬 도 사 조은성
김선정
한선일

The Myung Seong Methodist Church of NY.
30-12 73rd Ave. Fresh Meadows, NY 11366
(718)757-6399(T/F)

Rev. Byung Ryul Min
149-10 23 Ave., 1Fl.
Whitestone, NY 11357
(718) 359-3400(cell)(718) 353-1398(CP)
mysmin@msn.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목 사 송병기
장기 목사 김은
교육 목사 박은다정
찬 도 사 이승현(Ste
안숙정(Ju

The Mook Yang Presby. Church of NY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718) 361-0199
(718) 361-9438(Fax)
www.mookyang.org

Rev. Peter Byung Ki Song
40-04 164 St. Flushing, NY 11358
(718) 762-6788
(718) 762-6842(Fax)(917) 559-8875(CP)
mookyang@hanmail.net

뉴욕방주교회



목 사 김기수

The Kanyan Ark Church
262-09 42 Ave. Bayside, NY 11364
(718)428-8000/(718) 352-6670(Fax)
kcw026@yahoo.co.kr
http://www.nyark.org

Rev. Cheon Soo Kim
40-29 204 St. Bayside, NY 11361
(718)428-8199(CP)

뉴욕베다스다교회



목 사 김현기
부 목 사 없다

The NY Bethzatha Church of God
85-20 57 Ave. Elmhurst, NY 11373
(718) 478-8988/(718)-478-5529(Fax)

Rev. David Wonki Kim
85-20 57 Ave. Elmhurst, NY 11373
(718) 533-4543
(347) 721-2386(CP)

뉴욕벧엘침례교회



목 사 김병삼

Bethel Baptist Church of New York
80-22 164 St. Jamaica, NY 11432
(718) 264-0654

Rev. Pioung Khun Kim
190-01 B 67 Ave., 1FC
Fresh Meadows, NY 11365
(718) 264-0654/(347) 528-7168(CP)
davidwonki@yahoo.com

뉴욕복음감리교회



목 사 최한태

Korean Methodist NY Evangelical Church
58-1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718) 359-5009

Rev. Won Taek Choi
160-08 Laburnum Ave,
Flushing, NY 11359
(718) 359-5009
(718) 661-6009(Fax)

뉴욕푸른등대교회



목 사 노한수

The Pillars of Fire Presby. Church
61-47 210 St. Bayside, NY 11364
(718) 864-7678

Rev. Peter Roh
61-47 210 St. Bayside, NY 11364
(718)-864-7678
(718)-315-8146(CP)

뉴욕필립보감로교회



목 사 신정호
담 목사 이수정
찬 목 사 김은
전 도 사 김미경(전

Korean Philippo Presby. Church of NY
40-11 29 St. LIC., NY 11101
(718)786-9721(T/F)
nampingo007@yahoo.co.kr

Rev. Sung Nung Shin
40-09 29 St. LIC., NY 11101
(718) 786-9721
(718) 784-2330(Fax)
(718) 240-5459(CP)



뉴욕새생장로교회



목 사 이윤호
찬 도 사 박명화
김은

The New Life Presby. Church of NY
216-16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1
(718)-357-8470(718) 225-1668(Fax)
jamesbaeh@hotmail.com/Www.newlifechurchny.org

Rev. Yun Joon Hur
165-15 72 Ave. 2Fl.
Fresh Meadows, NY 11365
(718) 487-3095
(718) 637-1470(CP)

뉴욕새천년교회



목 사 이상설
부 목 사 김대성
교육 목사 김홍식
교역전도사 박인용

New Millennium United Methodist Church
211-04 48 Ave. Bayside, NY 11364
(718) 631-9191
(718) 631-3979(Fax)
(917) 415-6788(CP)

뉴욕생명장로교회



목 사 전재열

The Saeng Myung Presby. Church NY
227-06 37 Rd. #1Fl. Bayside, NY 11364
(718)461-3049
jhanp@aol.com

Rev. Jae Yeol Han
164-23 26 Ave. #2Fl. Flushing, NY 11358
(718) 461-3049

뉴욕서광교회



목 사 서광연

The Seokwang Korean Presby. Church of NY
45-09 Gaun Point Ave. Sunnyside, NY 11104
(718) 786-6763(718) 392-5986(Fax)
www.sdkv.org

Rev. Byung Yeup Choi
45-09 Gaun Point Ave.
Sunnyside, NY 11104
(718) 786-6763
(714) 317-5868(Fax)

뉴욕서부교회



목 사 이희석
전 도 사 전홍업
소세정

The West Korean Presby. Church of NY
254-16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720) 221-0649

Rev. Hee Tae Lee
35-26 193 St. Flushing, NY 11358
(718) 321-1649

뉴욕사랑비교회



목 사 이희석
협동목사 이상로

The Love Presbyterian Church of NY
214-13 39 Ave. Bayside, NY 11361
(718) 503-4914
lpcnewyork@gmail.com

Rev. Jae Deok Lee
80-20 Broadway #6M
Elmhurst, NY 11373
(718) 565-6954
(917) 683-4700(CP)

뉴욕서빛교회



목 사 신석환

New Light Korean Baptist Church
82-04 Bell Blvd. Queens Village, NY 11427
(718) 464-5733
shin4681@gmail.com

Rev. Suk Hwan Shin
162-20A 64 Cres'e
Fresh Meadows, NY 11365
(718) 464-5733

뉴욕순복음중앙교회



목 사 한재수
찬송 목사 배근수
전 도 사 규리(한

New York Full Gospel Central Church
82-31 220 Pl, Bayside, NY 11361
(718) 358-2020
(718) 229-2664(Fax)

Rev. Kae Joo Lim
82-31 220 Pl, Bayside, NY 11361
(718) 323-2820
(718) 225-2669(Fax)
(917) 757-4696(CP)

뉴욕선교교회



*CAMA

N.Y. Mission Church of The C&MA
12240 18 Ave. College Point, NY 11356
(718)461-8464(T)(866)-932(Fax)
www.durchsync.org

Rev. Myung Kuk Kim
7-20 127 St., 2Fl
College Point, NY 11356
(718) 344-6469(CP)
mykim42@gmail.com

뉴욕성산루터교회



*Lutheran Church in NY

Holy Mountain Korean Lutheran Church
34-15 43 Ave. Elmhurst, NY 11373
(718) 205-4711
Rev.joshua_y.kim@gmail.com

Rev. Joshua Y. Kim
34-15 43 Ave. Elmhurst, NY 11373
(716) 205-4711

뉴욕성수장로교회



*USA

Holy Water Presby. Church of NY
54-02 217 St. Bayside, NY 11364
(716) 352-4955

Rev. Tae Hoon Kim
220-70 64 Ave. Bayside, NY 11364
(718) 357-4955
nytikmin@hanmail.net

뉴욕성신교회



*나사렛 성결회

Sung Shin Church of Nazarene
87-37 Whitney Ave
Elmhurst, NY 11373
(718)-445-7555

Rev. Benjamin Shin
889-11 33 Ave. 2nd Fl.
Flushing, NY 11358
(718) 460-8684(718) 445-7355 (Fax)
(718) 514-4625(CP)

뉴욕성원장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Sung Won Presby. Church of NY
213-23 48 Ave.
Bayside, NY 11364
(917) 566-5882

Rev. Jun Hee Han
61-44 232 St. Bayside, NY 11364
(718) 428-5572
(917) 566-5882(CP)
junhee5324@hotmail.com

뉴욕성화교회



*NAPC

The Korean Faithful Presby. Church of NY
20-15 203 Pl. Bayside, NY 11360
(718)279-5842

Rev. Ri Ho Cho
20-15 203 Pl.
Bayside, NY 11360
(718) 279-5842

뉴욕소망평강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Korean Hope Evangelical Church of NY
90-10 217 St. Queens Village, NY 11428
(718)624-7133

Rev. Ha Kyun Whang
44-22 159 St. Bayside, NY 11364
(718) 228-7133
khyunhwang@yahoo.com

뉴욕소망교회



*CAMA

The So Myung Church of New York
265-12 Union Turnpike Floral Park, NY 11004
(718) 347-4023 (347) 881-4860

Rev. Jung Doo Kim
240-21 69 Ave. #2Fl
Douglaston, NY 11362
(718) 423-5846(T/F)(718) 483-1097(CP)
kimjdoo-kim@yahoo.com



뉴욕시온반월로교회



*미주예장

Mount of Zion Presby. Church of N.Y.
32-21 210 St. Bayside, NY 11361
(718) 281-3156

Rev. Jae Ho Kim
32-21 210 St. Bayside, NY 11361
(718) 281-3156

뉴욕시온성교회



*기독한국침례회

The Shinseong Korean Presby. Church of NY
183-16 Horace Harding Hwy.
Fresh Meadows, NY 11366
(718)445-9542/samchon7@hotmail.com

Rev. Sam Chon Kim
87-14 226 St. #1Fl
Oakland Gardens, NY 11364
samchon7@hotmail.com

뉴욕신광교회



*CCA

The Shin Kwang Church of NY
55-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357-3355, 10(EN/718)357-1810(Fax)
shinkwn@yahoo.co.kr
http://www.sknyc.org

Rev. Jae Hong Han
213-34 33rd Rd. Bayside, NY 11361
(718) 425-4411
(718) 423-3733(T/718) 341-0779(CP)
drnyhan@yahoo.co.kr

뉴욕신생교회



*기독한국침례회 미주

The Shinil Presby. Church of NY
206-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58
(347) 703-2171
nangamgudoi@hotmail.com

Rev. Mang Joon Park
144-46 26 Ave. 1Fl.
Flushing, NY 11354
(718) 445-7441
(347) 762-2171(CP)

뉴욕신풍교회



*ABC

The Shin Poong Church of NY
21-65 48 St. Astoria, NY 11103
(718) 204-8123
isojongbum@hotmail.com

Rev. Jongbum Lee
35-24 Corporate Stone St.
Bayside, NY 11361
(718) 316-8123(CP)

뉴욕안디옥침례교회



*USC

New York Antioch Baptist Church
41-51 69 St. Woodside, NY 11377
(718) 395-1775

Rev. Sun Il Lee
76-13 251 St. Bellerose, NY 11426
(718) 343-1970
sun@yahoo.com

뉴욕양성교회



*인천시 고산지역

Yang Sung Presby. Church of NY
40-14 72 St.
Woodside, NY 11377
(718) 639-8667

Rev. Son Jin Kim
41-40 Union St. Apt. 5N
Flushing, NY 11355
(718) 559-5945
drkimjin@hotmail.net

뉴욕여천양교회



*CBN

Little Flock Church of New York
69-38 47 Ave. Woodside, NY 11377
(718) 899-8309(718) 899-8488(Fax)
www.nylfc.org
rev.kim@nylfc.org

Rev. Soo Tae Kim
58-17 256 St. #2Fl
Little Neck, NY 11363
(718) 428-5806
(646) 675-4911(CP)





뉴욕성광장로교회



*USC

The Korean Glory Presby. Church of NY
38-20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225-3021
(718)279-4000(Fax)

Rev. Tae Sung Park
36-44 212 St. Bayside, NY 11361
(718) 225-3021
hyjamoo@hanmail.net

뉴욕영락교회



*기독한국침례회 미주

Young Nak Presby. Church of NY
35-26 107 St. Corona, NY 11368
(718) 533-1255
(718) 335-3605(Fax)

Rev. Ho Sup Choi
35-26 107 St. Corona, NY 11368
(718) 518-1255
(718) 335-3605(Fax)
hjscorona@gmail.com

뉴욕열방교회



*미주

Korean Church of Eternal Life in NY
57-05 94 St. Woodside, NY 11377
(718) 980-0800 (201) 240-8142
(718) 606-8923(T/F)

Rev. Seung Jin Lee
57-05 94 St. Woodside, NY 11377
(201) 240-8142

뉴욕은혜산교회



*ABC

The Humble Baptist Church of NY
53-25 48th Ave. Bayside, NY 11364
(718) 229-4047
www.myhumble.org

Rev. Seung Baeg An
36-38 214th Pl. Bayside, NY 11361
(646) 217-8784(CP)
Bsalm@hotmail.com

뉴욕황성교회



*미주

Wang Sung Presbyterian Church of NY
47-24 Bell Blvd. Bayside, NY 11361
(516) 279-9233(718) 279-9236(Fax)
hwangsan2@hotmail.com

Rev. Sug San Hwang
47-24 Bell Blvd. Bayside, NY 11361
(516) 796-1571 (T/F)
(718) 207-0326

뉴욕제일장로교회



*NAPC

The Korean Garden of Eden Presby. Church of New York
41-37 58 St.
Woodside, NY 11377
(718)472-9828(T/F)

Rev. Young Ho KimPark
41-37 58 St. Woodside, NY 11377
(718) 466-5355
(718) 672-5925(Fax)

뉴욕열린문교회



*기독한국침례회

The Open Door Church of NY
PO Box 570189, Whitestone, NY 11357
(718)359-3346
(718)359-8452(Fax)
kimyn@aol.com

Rev. Daniel Kim
240-04 Horace St. #4E
Flushing, NY 11354
(718) 353-1022

뉴욕수정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The Crystal Evangelical Church of NY
23-4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6
(718) 461-9908 3662(Fax)
www.crystalchurch.org

Rev. Soo Bok Park
33-40 191 St.
Fresh Meadows, NY 11365
(718) 357-3142(718) 461-3662(Fax)



뉴욕우리들교회



*기독한국침례회

Our Presby. Church of New York
203-06 Rocky Hill Rd. Bayside, NY 11361
(718)631-2034 (T/F)
pastorlee@hotmail.com

Rev. Sun Keun Ho
224-03 57th Ave. 2nd Fl.
Oakland Gardens, NY 11364
(718) 281-2516
(718) 915-6333(CP)

뉴욕은총장로교회



*PCA

Eun Chong Bible Presbyterian Church
46-16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718) 631-0625(T/F)
eunchong@church@yahoo.com

Rev. Tae Hwan Oh
209-21 46 Ave. 2Fl. Bayside, NY 11361
(718) 225-1007(T/F)
jesuslove27@yahoo.com
(pstr) 334-9999(CP)

뉴욕임마누엘선교교회



*CCA

Emmanuel Mission of NY
35-60 127 St.
College Point, NY 11356
(718) 353-8711(T/F)

Rev. Soun Ouc Gurn
18-20 124 St.
College Point, NY 11356

뉴욕장로교회



*NAPC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40-23 37 Ave. LIC, NY 11101
(718) 706-0300
(718) 706-0322 (Fax)
www.nypc.net/Nypc11000@yahoo.com

Rev. Min Song Ahn
21-61 197St. Whitestone, NY 11357
(716) 766-0100
pkjd0949@yahoo.co.kr

뉴욕베델감리교회



*ABC

The First Korean Methodist Church of New York
63-78 Dry Harbor Rd.
Middle Village, NY 11379
(718) 599-7966

Rev. En Sik Jee
69-16 223 St.
Oakland Gdns, NY 11364
(718) 440-2432 (718) 389-7960(CP)
jeeinsik@hotmail.net

뉴욕베임장로교회



*NAPC

The Korean First Presby. Church of NY
37-80 61 St. Woodside, NY 11377
(718) 899-1130(718) 899-3173(Fax)
kfpcny@hotmail.com

Rev. Sunghoon Cho
365-12 60 Rd.
Little Neck, NY 11362
(718) 356-4668x(718) 899-3173(CP)
kfpcny@hotmail.com

뉴욕주안장로교회



*NCA

The Chu Yang Church of New York
1034 Decatur St.
Ridgewood, NY 11385

Rev. Ki-Ho Kim
64-23 229 St. Bayside, NY 11364
(646) 763-4213(CP)

뉴욕주은혜장로교회



*기독한국침례회

The Grac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30-07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 423-9919

Rev. Bong Soon Yim
43-65 156 St. Flushing, NY 11355
(718) 359-8489

뉴욕중앙교회

The Joong Ang Presby. Church of NY
32-30 64 St. Woodside, NY 11377
(718)274-0809

Rev. Joseph Yang
138-28 Willets Point Blvd. #1FL
Whitestone, NY 11357
(718) 746-4522

뉴욕찬양교회

New York Praise Church
39-80 80 St. #B1
Woodside, NY 11377
(718) 426-7671

Rev. Young Cheol Kim
39-09 58 St. #B1
Woodside, NY 11377
(718) 426-7671

뉴욕참교회

The Cham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109-01 32 Ave. Bayside, NY 11209
(718) 352-0257,(C)(516)780-8039(Fax)
www.churchnet.org

Rev. Joseph Oh
109-01 32 Ave. Bayside, NY 11358
(718) 352-0227,8039
(718) 352-0227(F)ax)
Youseokkim1@hotmail.com

뉴욕참빛교회

True Light Alliance Church of NY
13-60 (27 St. College Point, NY 11356
(516) 263-8987
Nyclumbit@hotmail.com

Rev. Cho Il Ma
73 Highland Ave.
Port Washington, NY 11050
(914)063-8587(CP)

뉴욕천성장로교회

Han Ghil Presby. Church of NY
42-15 108 St.
Corona, NY 11368
(718) 397-0156, 0155

Rev. Myong Ha Kim
208-27 Bell Blvd.
Bayside, NY 11360
(C)(718) 746-0903 (T/F)

뉴욕은혜교회

The Grace Korean Presby. Church
216-50 26th Ave. Bayside, NY 11360
(C)(646)258-0491,0099
(C)(646)-0523(Fax)
www.kanmicchurch.org

Rev. Chung Kuk Kim, Pastor
216-50 26th Ave. Bayside, NY 11360
(T/F) 428-8758
(T/F)-637-3355(CP)
pastorckkim@hotmail.com

뉴욕한빛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NY
88-22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T)(H)708-2262(718)760-2238(Fax)
www.kechh.org/pastors@kcrya.com

Rev. John Jong Hoon Yun
88-22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718) 229-6186

뉴욕한성교회

Hansung Presby. Church in NY
60-28 Broadway Woodside, NY 11377
(718)458-4029
(718)639-2400(Fax)
nykhhanlee@hotmail.com

Rev. Ki Chun Lee
23-56 126 St. #2FL
College Point, NY 11356
(718) 461-2978(T)(718) 428-6917 (Fax)
(718) 309-2686(CP)

뉴욕한소망교회

Heavenly Valor Presby. Church of NY
56-86 193 St. Fresh Meadows, NY 11365
(T)(H)917-804(H)
www.heavenlyvoice.org
Pastorlee55@hotmail.net

Rev. Sung Won Lee
240-18 48 Ave.
Douglaston, NY 11362
(718) 229-0658
(646) 806-5116(CP)

뉴욕호재교회

New York Cho Dae Church
73-17 Roosevelt Ave.
Jackson Hts., NY 11372
(T)(H)639-5021(T)(H)507-4396(Fax)
www.nycd.org/cydaechurch@yahoo.com

Rev. Seung H. Kim
34-48 69 St.
Woodside, NY 11377

뉴욕평강교회

NY Pyung Khang Korean Church
50 Austin Ave. Forest Hill, NY 11375
khsh23@hotmail.com

Rev. Kwan Hyung Ahn
54-40 Little Neck Pkwy #6B
Little Neck, NY 11362
(718) 279-9436

뉴욕푸른초장교회

The Pastures Korean Methodist Church of New York
87-01 31 Ave. Jackson Hts., NY 11369
(718)424-6074

Rev. Paul M. Shin
29-04 214 St. #2FL
Bayside, NY 11360
(T) Fr 032-7086

뉴욕한인중앙교회

The Korean Central Church of NY
32-75 45 St. LIC, NY 11101
(T)(H)836-3716, 402
(T)(H)836-1790(Fax)
www.kcny.net

Rev. Weonjae Kim
1999 Lakeville Rd.
New Hyde Park, NY 11040
(T)(H) 437-1374
pastkim@hotmail.com

뉴욕푸른빛교회

Talitha Koum Mission Church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T)(H)-657-8371
(T)(H)-429-3370 (Fax)
kimbaebok7@gmail.com

Rev. Bae Bok Kim
72-33 45 Ave. Woodside, NY 11377
(T)(H) 429-3371 (T/F)
(Mobile) 250-9007 (CelP)
kimbaebok@hotmail.net

뉴욕침례교회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252-08 Hanse Harding Bay Little Neck, NY 11362
(T)(H)279-2753, 2756(T)(H) 279-2823(Fax)
mjoo@hotmail.com

Rev. Jae Yeol Kim
134 Old Weatbury Rd.
Old Weatbury, NY 11568
(T)(H)-626-3311(T)(H) 297-4328(Fax)
jyk1ms47@gmail.com

뉴욕하나님교회

The Kehnnala Presby. Church of NY
251-30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hanchun@aol.com

Rev. Yun Jae Huh
34-20 Brookside St.
Little Neck, NY 11363





뉴욕할렐루야교회

New York Hallelujah Korean Methodist Church
202-20 48 Ave. Bayside, NY 11365
(T)(H)-225-0993
pastorjameschanblok.co@www.hkcm.com

Rev. James K. Hun
136-04 Cherry Ave.
Flushing, NY 11355
(T)(H)-861-3792(T)(H) 491-1338
(Mobile) 491-1595(CP)

뉴욕효성교회

New York Hye Sung Baptist Church
20-44 130 St. College Point, NY 11356
(T)(H) 321-3128 (T/F)
younglee-1000@hotmail.net
www.nyhbc.org

Rev. Young Hwan Kim
20-44 130 St. College Point, NY 11356
(W)(H) 988-1430(CP)
(T)(H) 321-1124 (T/F)

열림형편교회

The Word in Action Church
39-07 Bell Blvd. Bayside, NY 1361
(T)(H)-423-9991

Rev. Myong Chol Cho
188-04 64 Ave. #1N1
Fresh Meadows, NY 11365
(646) 247-5009

베이사이드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 Church of Bayside
48-62 211 St. Bayside NY 11361
(T)(H)229-6858(T)(H)229-6801(Fax)
Jhw42@aol.com

Rev. Chong Shik Lee
243-12 72 Ave. 1FL
Little Neck, NY 11362
(T)(H) 229-8200

밸리스트림한인교회

Valley Stream Korean Community Church
53-11 99 St. #3FL Corona, NY 11368
(T)(H) 760-3272

Rev. Jong Wha Kim
53-11 99 St. #3FL Corona, NY 11368
(T)(H) 760-3272
(T)(H) 840-7984(CP)

베다니선교회

NY Centra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61-11 230 St. Bayside, NY 11364
(T)(H)229-8099(T)(H)270-2722(Fax)
kbaldwin@hotmail.com

Rev. Byung Heog Lee
14 Bamboo Lane
Hicksville, NY 11801
(H)(W) 822-9861(T)(H)(W) 822-9251 (Fax)
(W) 224-3000(CP)

세븐침례교회

Seh Moun Korean Baptist Church
47-04 Bamesch Ave.
Woodside, NY 11377
(T)(H) 592-4068 (T/F)

Rev. Chang Kun Bahk
108-18 49 Ave. Corona, NY 11368
(T)(H) 592-4068
(T)(H) 760-7478(Fax)

영광장로교회

Great Commission Church of NY
243-01 Northern Blvd. Douglaston, NY 11363
(T)(H)423-0809(T/F)
abdanel2@yahoo.com

Rev. Young In Kim
94-18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T)(H) 749-0293(CP)

아스토리아연합교회

The United Methodist Korean Church of Astoria
30-44 Crescent St. Astoria, NY 11102
(T)(H)626-8758
(C)(917) 224-9402(Fax)

Rev. Yong Bo Lee
53-12 Cloverdale Blvd.
Bayside, NY 11364
(T)(H) 224-3644
yongbo0505@hotmail.com

새롬장로교회

Aarim Presbyterian Church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H)963-6232
(T)(H) 357-4733(Fax)
aerumkang@hotmail.com

Rev. Shin Yong Kang
49-21 210 St. 2nd
Bayside, NY 11361
(646)-862-6282

한무리장로교회

The Flock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32-40 130 St. Whitestone, NY 11357
(T)(H)747 5666

Rev. Jin Kwan Kim
61-37 159 St. Flushing, NY 11367
(T)(H) 939-0033 (T/F)(CP)
flockdk@hotmail.com

에버그린장로교회

Evergreen Presby. Fellowship
208-37 32nd Ave. Bayside, NY 11361
(T)(H)463-8965
(T)(H) 423-0550(Fax)

Rev. Kum Ork Kim
208-37 32nd Ave. Bayside, NY 11361
(T)(H) 423-0550 (T/F)
(T)(H) 8-409458(CP)
kumokkim@aol.com

에벤에셀선교교회

Ebenezer Mission Church
220-10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H) 762-0378(T)(H) 785-9108(Fax)
ecumenicchoi2@gmail.com

Rev. Joseph Choi
220-21 67th Ave. #C
Oakland Gardens, NY 11364
(T)(H) 229-3027
(917) 355-6372(CP)

세계영신교회

The World of Christian Gospel Church
31-33 Dongan Ave. Elmhurst, NY 11373
(T)(H) 446-9644

Rev. Ki Hun Nam
31-33 Dongan Ave.
Elmhurst, NY 11373
(T)(H) 446-9644

퍼시픽이스장로교회

International Prayer Mountain Church
61-08 48 St. #1 Sunnyside, NY 11104
(T)(H)729-0824
thejpc92@yahoo.com

Rev. Han Geun Shon
61-08 48 St. 1/3
Sunnyside, NY 11104
(T)(H) 729-0854
(347) 253-8151(CP)

뉴욕평그림교회

Pilgrim Korean Presby. Church in NY
42-06 75 St. Elmhurst, NY 11373
(T)(H) 565-7172 (T/F)
4 7yeah@hotmail.net

Rev. Paul Suk Chang Kim
76-29 45 Ave. Elmhurst, NY 11373
(T)(H) 791-4710(CP)
(T)(H) 565-7172 (Fax)

에벤에셀선교교회



Ebenezer Mission Church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718) 762-6373(Tel) 765-9898(Fax)
missionebenezer@gmail.com

Rev. Jae H. Lee
36-05 165 St. Flushing, NY 11358
(646) 431-1356(CP)
(718) 445-0809

엘림장로교회



Elim Presby. Church
35-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279-8133,8423
(718)279-8357(Fax)
ekbc718@aol.com

Rev. Jong Kil Lee
28-56 210 St. Bayside, NY 11361
(718) 279-0236

예수사랑의교회



Jesus Love Mission Church
41-28 76 St. Elmhurst, NY 11373
(917) 316-7405
(718) 424-9104(TF)

Rev. Myoung Kil Moon
41-24 76 St. (3F)
Elmhurst, NY 11373
(917) 339-7405(CP)
jesuslmc75@yahoo.co.kr

예수사랑장로교회



Jesus Love Presbyterian Church
149-61 24 Rd. Whitestone, NY 11357
(718) 939-5606
lkfoun@yahoo.com

Rev. Han Soo Yoo
149-61 24 Rd.
Whitestone, NY 11357
(718) 939-5606
(917) 584-7570(CP)

예수증인교회



Jesus' Witness Church
90-50 210 St.
Queens Village, NY 11428
(718) 464-1922
(718) 464-1906(Fax)

Rev. David Dong Sik Kim
38-32 210 St.
Oakland Gardens, NY 11364
(347) 235-0013(CP)
dlwdkgh@yahoo.com

온즈갈리교회



Korean Methodist Church of Queens
90-01 32 Ave. East Elmhurst, NY 11369
(718) 899-6800
(718) 899-4599(Fax)

Rev. Hwa Keun Lee
47-28 108 St. Flushing, NY 11358
(718) 651-1508 (3 F)
(917) 747-2913(CP)
umcka@gmail.com

온즈선셈장로교회



Sun Sung Presby. Church of NY
40-01 75 St.
Elmhurst, NY 11373
(718) 565-1929

Rev. Subo Lim
37-33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
(718) 886-0999

온즈선결교회



Korean Peace Evangelical Church of Queens
79-11 Caldwell Ave. Elmhurst, NY 11373
(718)899-6400(TF)
nathan.cho@yahoo.com

Rev. Syung Soo Cho
89-43 174 St. 6 (F)
Fresh Meadows, NY 11365
(718) 651-8158
(347) 675-4499



오메가선교교회



Omeg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47-58 Ash Ave. Flushing, NY 11355
(718) 753-3369
(718) 779-3192 (Fax)
gbessang0911@yahoo.com
(646) 598-5398(CP)

Rev. Choon Sik Hong
41-56 72 St. Woodside, NY 11377
(718) 779-5192 (3 F)
gbessang0911@yahoo.com
(646) 598-5398(CP)

은혜교회



The Eun Hae Presby. Church
45-57 208 St. Little Neck, NY 11362
(718)428-0447, 428-1274
(718)428-0483(Fax)
eunhaechurch@yahoo.com/www.eunhae.org

Rev. Seung Joo Ree
48-27 56th St.
Little Neck, NY 11362
(516) 423-6978
(718) 576-1200(CP)

주님의교회



Lord's Community Church
215-16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917) 519-9555

Rev. Moon Chan Cho
65-06 161 St.
Fresh Meadows, NY 11365
(718) 460-9774
smoooooon@hanmail.net

주사랑장로교회



The Love of Christ Presby. Church
209-08 48 Ave. Bayside, NY 11364
(718)229-0055
(718)224-6630(Fax)

Rev. Kil Ho Lee
15-71 208 Pl. 6(2F), Bayside, NY 11364
(718) 224-6630(Fax)
(718) 309-3176(CP)
kilhlee2005@yahoo.com



The Zion Presby. Church
40-16 78 St. Elmhurst, NY 11372
(718)400-9201 (TF)
michellyim@msn.com
zionchoir.com

Rev. Hui Sun Yim
73-08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
(718) 440-9301
(718) 593-7616(CP)

온즈한결교회



United Presby. Church of Queens
50-06 108 St.
Fresh Meadows, NY 11365
(718) 357-1036 (TF)

Rev. Hyung Kyoo Kim
67-09 192 St. 4(1)
Fresh Meadows, NY 11365
(718) 577-9900(718) 644-5939(CP)
hyoo3@hotmail.com

온즈영광교회



The Glorious Church of Queens
41-32 69 St.
Woodside, NY 11377
(718) 426-7285

Rev. Weol Bong Kim
41-32 69 St.
Woodside, NY 11377
(718) 426-7355

하나님의성회뉴욕열매교회



New York Fruit Church Assembly of God
23-03 98 St.
E. Elmhurst, NY 11369
(718)779-4678

Rev. Jae Kwon Kim
7 Cowbane Ave.
Port Washington, NY 11050





퀸즈은혜교회



Queens Grace Holy Bible Church
20-44 130 St. College Point, NY 11356
(917) 385-5021
queenhbc.com/gunmgrace

Rev. Il Kwon Sung
41-44 223 Pl. Bayside, NY 11364
(917) 383-5021(CP)
sungilkwon@msn.com

퀸즈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33-40 149 St. Whitestone, NY 11357
(718) 554-6495
(718) 224-6875(Fax)

Rev. Sang Ha Hwang
147-01 12 Ave. College Point, NY 11356
(718) 224-6473
(718) 334-8477(Cell)
joseph1952@naver.com

퀸즈중앙장로교회



Korean Central Presby. Church of Queens
70-06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4
(718) 229-9592(718) 229-5190(Fax)
kpcc@hotmail.com/www.kpcc.org

Rev. Chang Eui Ahn
226-04 59Ave. 2nd Fl.
Bayside, NY 11364
(718)631-3665(718) 765-7695(CP)
koreacentralpcc@gmail.com

퀸즈평화교회



Queens Peace Church of the Nazarene
9947 Gate Ave.
Ridgewood, NY 11385
(718)628-5959

Rev. Kye Sun Lee
2030 Grouse Ave.
Ridgewood, NY 11385
(718) 628-5959(646) 804-1615(CP)
628599@hanmail.net

퀸즈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Queens
89-00 23 Ave. Jackson Heights, NY 11369
(718) 672-1150(718) 446-2887 (Fax)
www.queenschurch.com
office.ukc@gmail.com

Rev. Kyu Sub Lee
89-00 23 Ave. Jackson Heights, NY 11369
(718) 672-1150(718) 446-2887 (Fax)
www.queenschurch.com
office.ukc@gmail.com

퀸즈한인선교회



Kew Gardens Sung Shin Reformed Church of NY
80-30 Lefferts Blvd. Kew Gardens, NY 11415
(718)441-9650(TF)www.sungshinchurch.org
Parkinsonsjoe@yahoo.com

Rev. Benjamin K. Jung
82-50 Kew Gardens Rd.
Kew Gardens, NY 11415
(718) 441-3800(646) 512-1175(CP)
Bkjung7@yahoo.com

온힐교회



Great Light Church
50-06 232 St. Bayside, NY 11364
(718)225-9911
Yim2@juno.com

Rev. Shin Rae Park
50-16 203 St.
Bayside, NY 11364
(718) 225-9913

포레스트힐침례교회



Faith Presbyterian Church
53-71 72 Pl. Maspeth, NY 11378
(718) 565-6555(718) 565-0368(Fax)
www.tcpkpc.com
hyung881@juno.com

Rev. Hi Chul Yang
112-06 70 Rd. Forest Hills, NY 11375
(718) 268-3633(O)
(718) 268-3634
(917) 337-9314(CP)



하은교회



Haun Presby. Church
20-03 29 Ave. Bayside, NY 11360
(718) 352-1616(TF)

Rev. Hoon S. Gho
28-27 Bell Blvd.
Bayside, NY 11360
(347)-622-9707(CP)
gohoon@hanmail.com

참빛선교교회



One Way Mission Church
82-24 Winchester Blvd.
Queens Village, NY 11427
(718) 464-1024 (TF)

Rev. Suk Jin Han
26-27 Bell Blvd. Bayside, NY 11360
(718) 986-7716(CP)
sukhan56@hotmail.com

한우리장로교회



Hanuri Presbyterian Church
38-44 57 St.
LIC, NY 11103
(718) 779-5004 (TF)

Rev. Dae Jun Kwon
68-69 Elmhurst Ave. #401
Elmhurst, NY 11373
(516) 779-3864 (TF)

할렐루야성도교회



Hallelujah Christian Church
43-23 50 St.
Woodside, NY 11377
(718) 865-5931

Rev. Yoon Mo Sung
40-25 44 St. L.I.C., NY 11104
(718) 392-3869

새론는교회



Sunrise Baptist Church
57-0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718) 406-1240
sunrisebaptistchurch@gmail.com

Rev. Sang C. Song
43-27 213 Pl. 2nd Fl.
Bayside, NY 11361
(718) 631-7280(718) 406-1240(CP)
mcsongnet@gmail.com

퀸즈평화교회



Queens Peace Church of the Nazarene
9947 Gate Ave.
Ridgewood, NY 11385
(718)628-5959

Rev. Kye Sun Lee
2030 Grouse Ave.
Ridgewood, NY 11385
(718) 628-5959(646) 804-1615(CP)
628599@hanmail.net



고려연합감리교회



Metropolitan Koryo United Methodist Church
150 E. 62 St. New York, NY 10021
(212)832-7766, 838-6084(간)(212)644-7774(Fax)
www.koreahealthcare.com/yhchoi@yahoo.com

Rev. Young Sook Han
200 Claremont Ave. #3
New York, NY 10027
(212) 932-7746(212) 750-1040
(212) 866-7276(Fax)

그루터기장로교회



The Remnant Presby. Church/ Hunter Brookale Campus Auditorium
306 E. 28 St. New York, NY 10016
(212)378-0008(mail@aol.com

Rev. Victor S. Kim
60-60 21 Ave.
Whitestone, NY 11357
(718) 426-8748

## MANHATTAN / NEW YORK



**The Manhattan West Park Presby. Church**
165 W 86 St, New York, NY 10024
(212) 362-4690
(212) 362-5563(Fax)

**Rev. Dong Soo Yi**
3625 Orchard Ave. #3B
Riverdale, NY 10463
(347) 306-1038(CP)



**Manhattan Korean Baptist Church**
265 St. 79 St, New York, NY 10024
(718) 976-8739(T/F)

**Rev. Byung Jae An**
69-44 55 St. #B
Kew Garden Hills, NY 11367
(718) 575-8739(9 P) 207-5895(CP)
bmjan9999@hotmail.com



**The Korean Sohnyung Presby. Church**
160 Madison Ave. New York, NY 10016
(212) 679-5266(212) 779-1076(Fax)
www.sohnyung.org

**Rev. Chin Hang Chang**
217 B 11 St. Palisades Park, NJ 07650
(201) 674-8851(201) 461-6265(Fax)
(917) 304-0191(CP)sonyung@hotmail.com
sohnyung@hotmail.com



**Peaniac Ministries**
40 W 68 St. New York, NY 10023
(718) 321-7000
(718) 321-9398(Fax)
www.fpnc.org/coming soon)

**Rev. Nam Soo Kim**
436 Dunckview Pl.
Fort Lee, NJ 07024
(201) 947-1096(201) 767-1027(F)
(917) 757-9478(CP)



**The Garden Church of NY Gospel Cafe**
701 5 Ave. 5 Fl. New York, NY 10001
(212) 629-7227 (646) 275-9899
pastor@gospelcenterchurch.com

**Rev. Hyo Sik Ju**
364 Edwards Terrace
Ridgefield, NJ 07657
(201) 629-7227
(646) 379-8858(CP)



**The Korean Church & Institute**
633 W 115 St. New York, NY 10025-7722
(212) 662-1420
(212) 662-9046(Fax)
chang.kori@gmail.com

**Rev. Paul C. Chang**
200 Winston Dr. #207
Cliffside Park, NJ 07010
(201) 313-2320(CP)



**New York Jesus Church**
112 East 85 St.
New York, NY 10028
(914) 674-9549

**Rev. Seuk Hyun Yoon**
65 Maple St.
Dobbys Ferry, NY 10522
(914) 674-9549(914) 403-1100(CP)
ahn852754@yahoo.com

## BRONX / NEW YORK



**The Neung Lyuk Korean Methodist Church of NY**
40 Crescent Pl. Yonkers, NY 10704
(914) 469-4151(T/F)

**Rev. Peter Sung Keuk An**
44 Crescent Pl.
Yonkers, NY 10704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 of NY**
3404 Bailey Ave. Bronx, NY 10463
(718) 796-5600(T/F)

**Rev. Oon Don Choi**
1503 Field Stone Rd. #2F
Bronx, NY 10471
(718) 543-4747(646)(276-0550(CP)
hanwha1oa@hotmail.com



**Hope Presby. Church of New York**
3677 Newbold Ave. Bronx, NY 10462
(917) 621-5204 (718) 931-4594(Fax)
hope4718@hotmail.com

**Rev. Evelyn K. Chang**
1039 Lydig Ave.
Bronx, NY 10461
(718) 931-4594
(917) 825-5204(CP)



**The Lighthouse Church**
3040 200 St. Bronx, NY 10458
(718) 939-8782
(718) 939-8783(Fax)
1130chaemu@.net

**Rev. Suyoung Lee**
41-04 217 St.
Flushing, NY 11355
(718) 939-8782
1130@hotmail.net



**The Bedford Park Presbyterian Church**
2965 Bainbridge Ave.
Bronx, NY 10458
(718) 365-0230(T/F)

**Rev. Earn. Soon Hee**

## BROOKLYN / NEW YORK



**Kwang Hyun Church**
3526 Ave. S
Brooklyn, NY 11234
(718) 645-4828

**Rev. Hwang Woo Park**
3526 Ave. S.
Brooklyn, NY 11234
(347) 754-8934(CP)



**N.Y. Nam San Korean Community Church**
7002 4 Ave. Brooklyn, NY 11209
(718) 748-0402
(718) 748-0403(Fax)

**Rev. Byung Chul Choi**
178 72 St. #5G
Brooklyn, NY 11209
(718) 491-2479



**The Pyong Ahn Presby. Church of NY**
2607 Mcdonald Ave.
Brooklyn, NY 11223
(917) 593-5454

**Rev. Soo Hwan Woo**
2766 Brown St. #2FL Brooklyn, NY 11235
(917) 293-5454(CP)
pastorwoo@hotmail.com

## BROOKLYN / NEW YORK



**First Korean Church of Brooklyn**
140 Greenwood Nish Rd.
Brooklyn, NY 11225
(718) 285-2984(718) 266-4142(Fax)
www.fkch.org

**Rev. Jin Kyu Kim**
373 Van Sicklen St.
Brooklyn, NY 11223
(347) 312-3377(646)451-9085(CP)
jinkyu.on@hotmail.com



**The Korean United Metho. Church of Sheep Head Bay**
3087 Ocean Ave.
Brooklyn, NY 11235
(718) 891-6678(T/F)

**Rev. Jay Kyung Kim**
3087 Ocean Ave. Brooklyn, NY 11235
(646) 637-7974(CP)
parkkimbrooks@yahoo.com



**Eternal Life Presby. Church of Brooklyn**
1501 Ave. P
Brooklyn, NY 11229
(718) 209-7299

**Rev. O Hyun Kwon**
1308 E. 101 St.
Brooklyn, NY 11236
(718) 209-2209



**Full Gospel Korean Church**
1434-47 St. Brooklyn, NY 11219
(718) 236-4213
(718) 236-6998(Fax)
choigrace@hotmail.com/ssBang99@msn.com

**Rev. Su Myong Chong**
2642 Harway Ave. 1FL
Brooklyn, NY 11234
(718) 837-9247
(917) 861-4566(CP)



**Poalowon Presbyterian Church of NY**
480-67 St.
Brooklyn, NY 11220

**Rev. Son Sun Im**
246 62 St.
Brooklyn, NY 11220



**The United Korean Church of NY**
151 55 St. Brooklyn, NY 11220
(718) 630-9992(718) 491-0073(Fax)
www.ukcny.com/ukcny@gc.com
bbk11209@aol.com

**Rev. Young Kwan Oh**
360 73 St. Brooklyn, NY 11209
(718) 745-5282
(718) 745-5282(Fax)

## STATEN ISLAND / NEW YORK



**Calvary Korean Church**
1700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718) 698-5002
bbbc28@aol.com

**Rev. Young Deok Choi**
127 Gary Place #101.
Staten Island, NY 10314
(718) 490-3062
paul1958@hotmail.net



**Chri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1890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4
(718) 448-7273(T/F)

**Rev. Chi Ha Kim**
225 Crofton Ave.
Staten Island, NY 10314
(718) 698-0264(T/F)

## STATEN ISLAND / NEW YORK



**Full Grace Staten Island Assemblies of God**
4950 Arthur Kill Staten Island, NY 10312
(718) 317-7500
(718) 983-0980(Fax)

**Rev. Keon Han Shin**
74 Rosedale St.
Staten Island, NY 10314
(718) 983-0980(T/F)
(917) 326-0665(CP)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I.**
291 Main St.
Staten Island, NY 10303
(718) 984-3333

**Rev. Kwang Won Jung**
291 Main St.
Staten Island, NY 10307
(718) 984-3333



**The World Glorious Presby. Church**
257 Western Blvd.
Staten Island, NY 10314
(718) 370-3985

**Rev. Hea Gun Kim**
436 Woodlawn Loop
Staten Island, NY 10314
(718) 524-8218
drokim@yahoo.com



**Mars Back Sung U.M.C. of NY**
1250 Rockla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718) 761-4993
(718) 761-4826(Fax)
www.cnbc-usa-ny.org/e-mail: mbsumc@nt.com

**Rev. Sung Chan Kim**
1278 Rockla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718) 576-2673
(718) 215-3130(Fax)



**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
320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718) 948-0258, 8202(T/F) 948-8203(Fax)
(718) 859-8095(전화통화)(718)989-2599(전화통화)

**Rev. Samuel Jang**
321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718)984-6747
(917)697-2488(CP)



**The United Presby. Church of S.I.**
312 South Ave. Staten Island, NY 10303
(718) 983-5500 (T/F)
unitedpcsi@yahoo.com

**Rev. Myung Ki Kim**
312 South Ave. Staten Island, NY 10303
(718) 477-0665
(347) 583-7899(CP)
myungkikim@yahoo.com



**New York Plainview United Methodist Church**
992 Old Country Rd.
Plainview, NY 11803
(516) 681-1713, 8164(516)-668-1710(Fax)

**Rev. Kenny Kang Yi**
992 Old Country Rd.
Plainview, NY 11803



**Dunamis Evangelical Church of NY**
315 Advent St.
Westbury, NY 11590-1309
(516) 338-0748

**Rev. Abraham C. Kim**
193 Jericho Turn Pike
Old Bethbury, NY 11568
(917) 763-6993(CP)
ahnangyokim@hotmail.com

뉴욕필라델피아장로교회



N.Y. Philadelphia Presby. Church
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
(516)883-1075(516) 883-1063(Fax)
www.nyppc.org
nyc4rev@kimc.com

Rev. David Hiechan Kim
19 Cambridge St.
Valley Stream, NY 11581
(516) 295-7187(516) 295-7188 (Fax)
(516) 782-4564(CP)

뉴욕산정현교회



San Jeong Hyon Church
243 Stewart Ave.
Garden City, NY 11530
(516) 280-2188
(516) 333-1350(Fax)

Rev. Nehemiah Y. San
P.O. Box 564079
College Point, NY 11356
(347) 679-0980(Cell)
yjhshan@hotmail.com

뉴욕새교회



The New Church of Greater New York
1 Willow St. Roslyn Hts., NY 11577
(516) 484-8080 (516) 484-9080 (Fax)
tncy1@gmail.com

Rev. Seung Ku Yang
15 Lipton Lane
Williston Park, NY 11596
(516) 883-7398
pastor.skyang@gmail.com

뉴욕제사랑교회



New People's Church of New York
161-20 46 Ave. Flushing, NY 11358
(516)-677-9496 (TIFV)(917) 375-3481
zhongshin2003@yahoo.com

Rev. Chong Won Lee
191 Southwood Circle Syosset, NY 11791
(516) 677-9496 (TIF)
(516) 225-8970
(917) 375-3411(CP)

뉴욕주사랑교회



The Holy Light Methodist Church of New York
1341 U. Willets Rd.
Albertson, NY 11507
(516)-625-5909

Rev. Young Chul Sung
37-83 228 St. #2B1
Bayside, NY 11364
(718)225-9951
wooriner5@hotmail.com

뉴욕중앙산정현교회



Korean Presby. Church of N.Y.
Chung Ang San Jung Hyun
302 Hillside Dr. S. New Hyde Park, NY 11040
(516) 294-3507 sang78us@yahoo.com
www.hanmaumchurch.net

Rev. Young Sang Lee
248-118 cohasset Ave.
Little Neck, NY 11362
(718) 775-5753

뉴욕평화교회



Peace Presbyterian Church of NY
182 First St. P.O.Box 790
Mineola, NY 11501
(718)962-5131
(516)833-7180(TT)

Rev. Byungnam Rhim
40 Fenwell Rd.
Albertson, NY 11501
(718)962-5131(CP)

뉴욕한국연합그리스도교회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NY
703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516)-466-8063
Lilyone@hotmail.com

Rev. Min Seok Yang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516) 570-6371 (TIF)
Rlyoyc@hotmail.com

뉴욕한국연합감리교회



Korean Methodist Sung Moon Church of NY
14 Jericho turnpike
New Hyde Park, NY 11040

Rev. Sung Kun Lee
226-11 59 Ave. #2FL
Bayside, NY 11364
(718) 224-2562

뉴욕풀타운신교회



Abundant Life Church
568 Old Bethpage Rd. Plainview, NY 11803
(516) 365-9040(TIF)
nglowkim@gmail.com

Rev. Dong Yeol Kim
41 Dunwood Rd.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883-0076
nglowkim@gmail.com

뉴욕반석교회



The Ban Suk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11 Penrith Lane. Old Westbury, NY 11568
(516)997-9620
(516)997-9143(Fax)

Rev. Dae Hee Kim
5 Bonnie Lynn Court
North Hill, NY 11576
(516) 627-8558
banseokumc@yahoo.com

뉴욕베다니장로교회



New York Bethany Presbyterian Church
11 Smith St. Inwood, NY 11096
(516) 236-1707(CP)
(516) 371-2467(Fax)

Rev. Eny Sub Suh
11 Smith St.
Inwood, NY 11096
(516) 371-2467(TIF)(516)626-1707(CP)
sobaeyoh@gmail.com

롱아일랜드설교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L.I.
190 Elison Ave.
Westbury, NY 11501
(516)-333-1737
(516)-333-6996(Fax)

Rev. Suk Hyoung Kim
35 Crandall Dr.
Mineola, NY 11501
(516) 746-4064
(516) 333-6996(Fax)

뉴욕성서교회



Bib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New York
2201 Cuff's Straight Path Dix Hills, NY 11746
(631) 243-9083(631) 243-2378(Fax)
www.bkumcny.org/kmchospital@hotmail.com

Rev. Jong Il Kim
226 Seneca Ave.
Dix Hills, NY 11746
(631) 274-7662

뉴욕순신장로교회



Soon Shin Bible Presbyterian Church
1000 Washington Ave. Plainview, NY 11803
(516) 767-7179 (TIF)
drkwon@msn.com

Rev. Chong Ku Rhee
17 Bayside Ave.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767-7179
(917) 847-6991(CP)

뉴욕할렉교회



New York Grain Church of God
1065 N. Central Ave.
Valley Stream, NY 11580-1034

Rev. In Sup Ahn
43-08 46 St. 6fl.
Sunnyside, NY 11104
(917) 841-4044





새언약교회



The New Covenant Baptist Church
215 Hillside Ave. Valley Stream, NY 11580
(516)887-1700(516) 887-3707(Fax)
www.tncbchurch.com/www.tncbc.org

Rev. Ill Seon Lee
180-04 64Ave. 1Fl.
Flushing, NY
(917) 432-4579

뉴하이드팍장로교회



St. Mark's Korean U.M.C. Holy Grace Presby. Church of L.I.
200 Hospital Ave.
Rockville. Centre, NY 11570
(516)678-6625(516)536-3490(Fax)

Rev. Young Chul Cho
171 E. New York Ave.
Valley Stream, NY 11580
(516) 873-9424

시민교회



Citizen Presby. Church
70 Ford Parkway
Floral Park, NY 11001
(516)775-3359

Rev. Chan Soo Ahn
82-21 Country Pl CIR
Queens Village, NY 11427
(718) 465-5190(718) 662-8984(CP)
ahn9929@hanmail.net

서록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 Church of Suffolk County
163 Hallock Rd.
Lake Grove, NY 11755
(516)-334-2050(TIF)

Rev. Joseph Yoon
26 Misty Lane
Westbury, NY 11590
(516) 334-2352

아름다운교회



Arumdaun Church
1 Arurinan St. Bellpage, NY 11714
(516)349-3099(516)-349-3829(Fax)
www.arumdaun.org
hwang@arumdaun.org

Rev. Michael Hwang
993 State Ave
Bellpage, NY 11714
(516) 349-3559

롱아일랜드성문교회



Holy Gate Evangelical Church of L.I.
109 Main St.
Kings Park, NY 11754
(631)804-1299

Rev. Jae Chul Kim
35 Mayfair Gardens, #1Q
Commack, NY 11725
(631) 670-2346 (TIF)
kimrw@holygatechurch.org

롱아일랜드성문장로교회



Holy Grace Presby. Church of L.I.
300 Hillside Dr.
New Hyde Park, NY 11040
(516)354-9400

Rev. Ryung Chun
100 Lincoln Ave. #14B
Mineola, NY 11501
(516) 741-1345
ryung1541@yahoo.com

롱아일랜드장로교회



The Long Island Presby. Church
95 Old Country Rd.
Melville, NY 11747
(631) 673-2400

Rev. Ro Moon Park
95 Old Country Rd.
Melville, NY 11747
(631) 673-2400



코이노스교회



Koinos Church
1 Shore Rd. Box 132
Glenwood Landing, NY 11547
koinosny@aol.com

Rev. James Lim
Rev. Bruce Lim
8870 E. Garden View Dr.
Anaheim, CA 92808
(646) 707-4654

한나선교교회



Hannah Mission Presby. Church
70 Kate Circle
Middle Island, NY 11953
(631)345-0650(TIF)
(631) 921-4029

Rev. Won Seop Sung
70 Kate Circle Middle Island, NY 11953
(631)345-0650 / 921-4329
songwon@yahoo.co.kr

한마음침례교회



Han Ma Um Baptist Church
70 School St. Glenoove, NY 11542
(718)445-2804
(718)445-2854(Fax)

Rev. Michael K. Pak
16-20 Parsons Blvd. #2T
Flushing, NY 11354
(718) 353-3139
(718) 886-6879 (917)922-6599(CP)

할렐루야하늘교회



Hallelujah NY Church
10 Carlton Ave.
Port Washington, NY 11050
(516)944-6052
(516)944-5990(Fax)

Rev. Paul Kwanghee Ree
10 Carlton Ave.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944-6052(516) 944-5990(Fax)
(917) 519-0459(CP)
kwchurch@gmail.com

혁신교회



Hwak Shin Church
10 Southern Parkway
Plainview, NY 11803
(516) 908-2975
www.hwakshin.cyworld.com

Rev. Tae Youn Hwang
69 Roosevelt Ave.
Syosset, NY 11791
(516) 802-2673

뉴욕에덴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 Church in New York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516)938-0583(516) 938-3824(Fax)
www.yalechurch.org

Rev. Jung Hoon Kim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516) 921-6012(347) 231-0009(CP)
jonggood4@yahoo.com

뉴욕은혜교회



The Korean Grace Presby. Church of NY
9301 Northern Blvd.
Marhasset, NY 11030
(516) 365-0130 (TIF)

Rev. Sung Seog Bin
91 Fenwe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319-5855(Cell)
9052mn@hanmail.net

롱아일랜드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Long Island
33 Middle Neck Rd.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883-2088(516) 883-2788(Fax)
www.kcli.org/koreanchurchli@hanmail.net

Rev.
33 Middle Neck Rd.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883-2088(516) 883-2788(Fax)
www.kcli.org/koreanchurchli@hanmail.net

## LONG ISLAND / NEW YORK

### 열린교회



목 사 임명진
전 도 사 권수현

교회 Open Church
261 Cedar Rd. E. Northport, NY 11731
(631) 327-8046(CP)
youngjlim@msn.com
www.open-church.org

목사 Rev. Christopher Lim
27 Yeoman Dr.
E. Northport, NY 11731
(631) 368-1369

### 영원한교회



목 사 김재환

교회 Eternal Baptist Church of NY
600 New Hyde Pkwy Rd.
New Hyde Park, NY 11040
(718) 225-3343(T/F)
jesus1343@yahoo.com

목사 Rev. Jae Yong Kim
67-79A Cloverdale Ln.
Bayside, NY 11364
(718) 225-3343(T/F)

### 주비전교회



목 사 이규봉
전 도 사 김 은

교회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718) 767-8999
lordsvc@hotmail.com

목사 Rev. David Bon Rhee
40-34 248 St. Little Neck, NY 11363
(718) 767-8999
lordsvc@hotmail.com

### 참사랑교회



목 사 문영급
교육 목사 고상우
음악 목사 이승희
전 도 사 박재희(영어)

교회 Cham Sarang Korean Methodist Church
90 Fulton Ave, Hempstead, NY 11550
(516) 483-2102(O) (516) 483-2106(Fax)
www.chamsarang.us (lee0706@hotmail.com

목사 Rev. Young Kil Moon
90 Fulton Ave.
Hempstead, NY 11550
(516) 538-3887

### 코액감리교회



목 사 박성종
전 도 사 양기명

교회 L.I.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481 Sunrise Rd. Commack, NY 11725
(631)499-1280
(631)499-2934(Fax)

목사 Rev. Austin Park
6 Old Rd. Kings Park, NY 11754
(631) 544-1175
realjesus@yahoo.com

### 롱아일랜드한인성령교회



목 사 김태근

교회 The Holy Spirit Church of NY
36 Church St.
Stewart, NY 11791
(718) 663-1224

목사 Rev. Tae Keun Kim
45-34 Utopia Pl.
Flushing, NY 11358
(718) 961-6121

## NORTH AREA / NEW YORK

### 뉴욕화평감리교회



목 사 이한식
전 도 사 최성수

교회 The NY Hwa Kwang Methodist Church
86-54 168 St. Bellerose, NY 11426
(718) 961-7393(T/F)
www.hwakwang.org

목사 Rev. Han Sik Lee
42-73 Murray St. #1FL
Flushing, NY 11355
(718) 316-7892(CP)
hanslee0709@yahoo.com

###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목 사 진성민

교회 Mid Hudson Korean U.M.C.
38 Jackson Rd. Poughkeepsie, NY 12603
(845) 463-0827(O) 463-1348(Fax)
www.mhkumc.org
seongin@optonline.net

목사 Rev. Seong In Jin
4 Tay Place
Poughkeepsie, NY 12603
(845) 485-3806

## NORTH AREA / NEW YORK

### 뉴저이프할로교회



목 사 황병갈

교회 Newlife Korean Presby. Church
270 Ardsley Rd.
Scarsdale, NY 10583
(914) 433-8091

목사 Rev. Hyung Gul Hwang
86 Shoreview Dr. #4
Yonkers, NY 10710
(914) 995-3151
newlifeorg@yahoo.com

###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목 사 노기승
Dall전도사
Kevin Lee

교회 New Jerusalem Church of New York
2[illegible] New Mill River Rd.
White Plains, NY 10607
(917) 699-6606
thekmorgan@yahoo.com

목사 Rev. Ki Sung Rho
25-605 Barker St.
Mt. Kisco, NY 10549
(914) 242-4620(T/F)
(917) 699-6606(CP)

### 뉴욕은혜침례교회



목 사 이경한

교회 Korean Great Grace Baptist Church of NY
60 Morrow Ave. #6B
Scarsdale, NY 10583
(201) 679-6978

목사 Rev. Kyeong Han Lee
60 Morrow Ave. #6B
Scarsdale, NY 10583
(201) 679-6978

### 뉴욕한신교회



목 사 정길준
온라인사역 김
힘을 주시 박덕성

교회 Han Shin Baptist Church of NY
180 Rinters Highway
W. Nyack, NY 10994
(845) 348-9191
(845) 348-0980(Fax)

목사 Rev. Calvin Chang
7 Normandy Village #7
Nanuet, NY 10954
(845) 213-5760(845) 270-2506(Cell)
calvinjchang@yahoo.co.kr

### 뉴욕한인제일교회



목 사 박효성
부 목 사 박경식
전 도 사 이승구
[illegible] 전도사 David Park

교회 First Korean Methodist Church of NY
3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914) 332-7640(914) 332-7639(Fax)
www.fkmc.com/koreanpark@hotmail.net

목사 Rev. Hyo S. Park
18 Walter St.
Tarrytown, NY 10591
(914) 332-4933

### 뉴저이주한인장로회베스이채일교회



목 사 김 영
교육 목사 신현철
영성 훈련 Sue Kim
전 도 사 김민구

교회 The Korean Church of Westchester
282 North Broadway, Sleepy Hollow, NY 10591
(914) 332-0067(914) 332-0379 (Fax)
(914) 282-8860

목사 Rev. Young Kim
37 Ames St., Sleepy Hollow, NY 10591
(914) 345-6755
(914) 262-9060(CP)
kimyhcc@gmail.com

### 맨우리장로교회



목 사

교회 The Presby. Church of Yang Mu Ri
525 Ashford Ave. Ardsley, NY 10502
(914) 674-4688 (T/F)
paulchek@yahoo.com

목사 Rev.
525 Ashford Ave.
Ardsley, NY 10502
(914) 674-4688 (T/F)
paulchek@yahoo.com

### 온누리장로교회



목 사 조인화
부 목 사 정경훈
전 도 사 진정화

교회 Onnuree Presbyterian Church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845) 359-1450(845) 359-0096 (Fax)
moonchet@hotmail.com
www.onnureechurch.org

목사 Rev. Moon Hwee Cho
90 Chaffee Circle
Norwood, NJ 07648
(201) 768-1601
(845) 598-6757

## NORTH AREA / NEW YORK

### 올바니한인교회



목 사 김승백
*이주남침례회

교회 Korean Community Church of Albany
454 Hoosick St. Troy, NY 12180
(518) 272-9191
(518) 453-1004 (Fax)
amoskim1@yahoo.com

목사 Rev. Amos Kim
12 Pine Ave.
Cohoes, NY 12047
(518) 785-9191

### 올바니한인장로교회



목 사 강충욱

교회 Korean Presby. Church of Albany
7 Knox Dr. Schenectady, NY 12303
(518)355-1564
www.kpcalbany.org

목사 Rev. Choong Wook Kang
101 Long Pond Dr. #2
Rotterdam, NY 12306
(518) 280-3131/(541) 760-7378(CP)
credopark@gmail.com

### 웨체스터연합교회



목 사 이태준
전 도 사 배아람
최유영
*PCUSA

교회 The Korean Presby. Church of Westchester
50 Pisgard Ave. New Rochelle, NY 10801
(914) 738-3076
www.kpcoe.com

목사 Rev. Tae Joon Lee
40 2 Ave.
Pelham, NY 10803
(914) 738-0306
rev@lee@hotemail.com

### 웨체스터중앙교회



목 사 김철식
*UMC

교회 Central Korean U.M.C.
250 Bryant Ave. White Plains, NY 10605
(914) 948-8835
(914) 949-0539(Fax)
kunsuncho@optonline.net

목사 Rev. Churl Sik Kim
45 Greenvale Circle White Plains, NY 10607
(914) 948-1304
churlkim@hotmail.com

## NORTH AREA / NEW YORK

### 한인동산장로교회



목 사 이풍삼
찬양 목사 이은수
장애우목사 이무범
EM 전도사 차인경정정훈
Senior담임 김현식 목사
David Kim

*PCA

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 Pl. Yonkers, NY 10710
(914) 961-9250, 0540
(914) 961-9251 (Fax)
www.newhopeministry.net

목사 Rev. Poongsam Lee
149-27 22 Ave. Whitestone, NY 11357
(718) 746-2529(T/F)
(917) 270-2952(CP)
plee15@nyc.rr.com

### 호산나선교교회



목 사 김영숙
*감리교 교단과 협력

교회 Hosanna Mission Church
23 Borghild Ave. Yonkers, NY 10704
(914) 963-2711
(914) 969-8154

목사 Rev. Nancy K. Lee
25 Fram Ave. Yonkers, NY 10704
(914) 912-2269
(914) 969-8144(Fax)

### 은혜와사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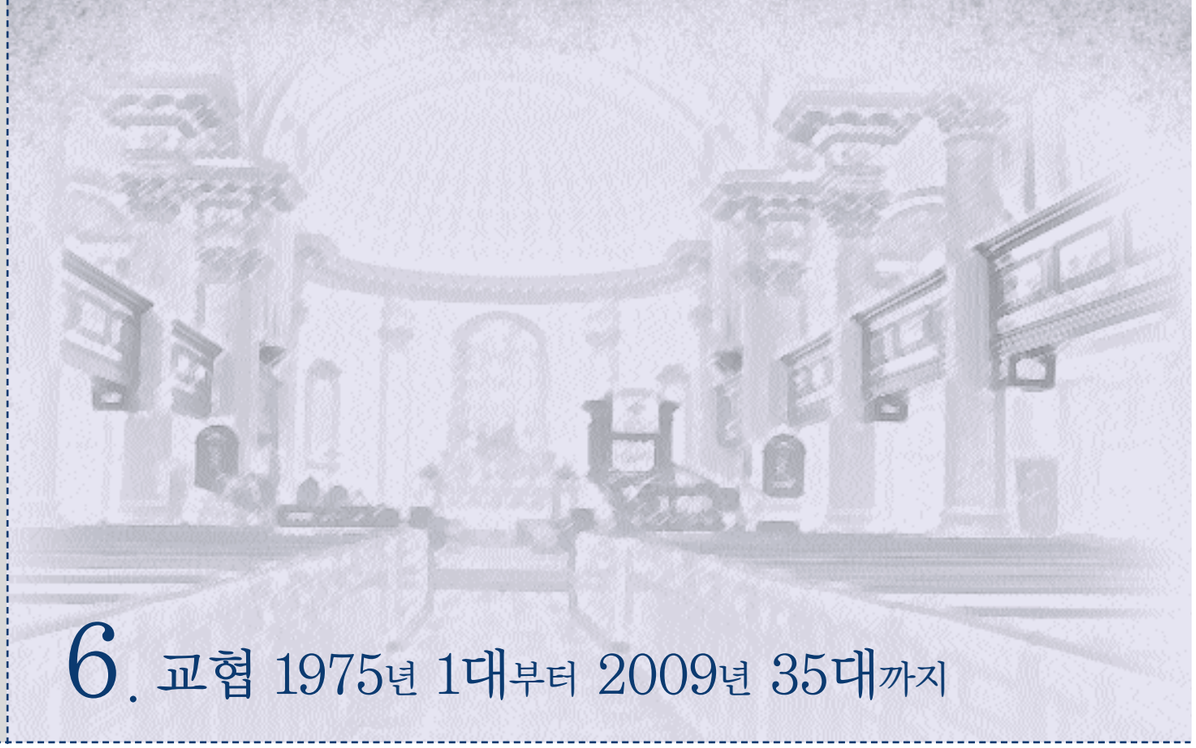
목 사 최기성
전 도 사 Jon Han한경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협동

교회 Grace and Love Church
181 Harrison Ave. P.O.BOX 739
Harrison, NY 10528
(914) 772-4036(914) 946-1755(Fax)
gracelovechurch@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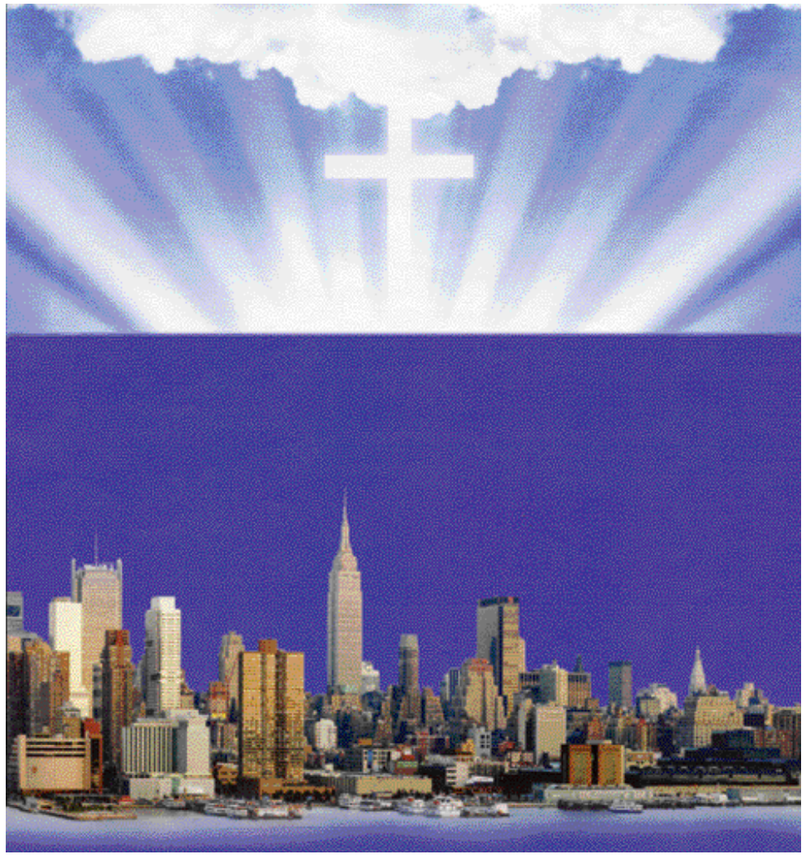
목사 Rev. Gi Sung Choi
973 N. Broadway 2nd Fl.
N. White Plains, NY 10603
(914) 946-1755(T/F)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 358-0074/4428. Fax. (718) 321-0105
www.nyckcg.org / E-mail:nyckcg@gmail.com



# 6. 교협 1975년 1대부터 2009년 35대까지





## 제 1 년사

주후 1975년



| 1대 교협 회장 |
|---|
| 뉴욕한인연합교회 |
| The United Korean Church of NY |
| 한영교 목사, Rev. Young Koy Han |
| 371 77 St, Brooklyn. NY 11209 |

### 1대 교협 임원

회　　장　한영교 목사 (뉴욕한인연합교회)

부 회 장　유태영 목사 (브롱스한인교회), 이동필 장로

총　　무　안중식 목사 (브르클린한인교회)

서　　기　김해종 목사 (연합감리교회)

회　　계　장승철 목사 (뉴저지한인연합교회)

### 분과위원

선교분과　신성국 목사 (뉴욕한인중앙교회)

교육분과　김흥묵 목사 (뉴욕침례교회)

사회분과　한진관 목사 (퀸즈한인교회)

재정분과　김규환 장로 (라더포드한인장로교회)

목회분과　길웅남 목사

재정감사　정영규 목사 (뉴욕한인제일교회), 김국현 집사

C-4 종교

뉴욕 한인 이민교회 80년 (34)

# 초대회장 한영교 목사 선출

## 뉴욕교회협 창립총회…대표 49명 참석



고 한영교 목사



뉴욕교회협 창립총회에서 한영교 목사가 브롱스를 주제하고 있다.

### 부회장 유태영 목사·이동필 장로

### 신성국 목사는 선교분과 위원장

다음은 뉴욕교회협 창립총회 참가교회와 대표

| | |
|---|---|
| 뉴욕한인교회(목사-김치인) | 브롱스한인교회(유태영-김종필) |
| 뉴욕한마음장로교회(신하국-오순택) | 브루클린한인교회(안준자-김치용) |
| 은혜한인교회(이선자-서용석) |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권영인) |
| 뉴저지복음한인교회(이병세-이필세) | 아스토리아한인교회(고정남-목사명) |
| 기독교한인연합교회 뉴욕교회(이제인-김준혁) | 에지미어스한인교회(차재신-김동석) |
| 뉴욕중앙그리스도교회(기병서-김시용) | 뉴욕한인교회(김영희) |
| 뉴욕한인장로교회(이병구-배선호) | 롱아일랜드한인장로교회(김동환-김시용) |
| 뉴욕한인연합감리교회(김정근-임명구) | 퀸즈한인교회(이정훈-정수석) |
| 뉴욕침례교회(김용복) | 포레스트한인공동교회 (김인용-손태순) |
| 뉴저지한인연합교회(이하준-김대환) | 한국선교교회(오철호-이상신) |
| 뉴저지한인침례교회(서기철-서준원) | 푸른십한인교회(김은성) |
| 뉴저지한인장로교회(박상희-이종근) | 뉴욕리더십교회(박상진) |
| 센트럴한인장로교회(김용주-김태환) | 브롱스톤한인교회(이인수-김구원) |
| 포레스트한인교회(김동남-이종철) | 스태튼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손태희-이관주) |

바로잡습니다 자난 5월28일자 종교에선 같은 시간대에 열 뉴욕지방교회 는 개척교회라고 했으나 뉴욕교회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제 2 년사

주후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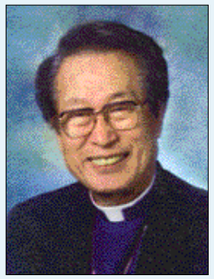


| 2대 교협 회장 |
|---|
| 브롱스한인교회 |
| Korean Church of Bronx |
| 유태영 목사, Rev. Tai Young Yoo |
| 2943 Bainbridge Ave. Bronx, NY 10458 |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 358-0074/4428. Fax. (718) 321-0105
www.nyckcg.org / E-mail:nyckcg@gmail.com

# 제 3 년사

주후 1977년



## 3대 교협 회장

연합감리교회

The United Methodist Church

김해종 목사, Rev. Hae Jong Kim

344 Tenasly Rd. Englewood, NJ 07631

## 3대 교협 임원

회 장 김해종 목사 (연합감리교회)

부회장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서화숙 장로

총 무 안중식 목사 (브르클린한인교회)

서 기 남학희 목사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

부서기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회 계 장승철 목사 (뉴저지한인연합교회)

부회계 배성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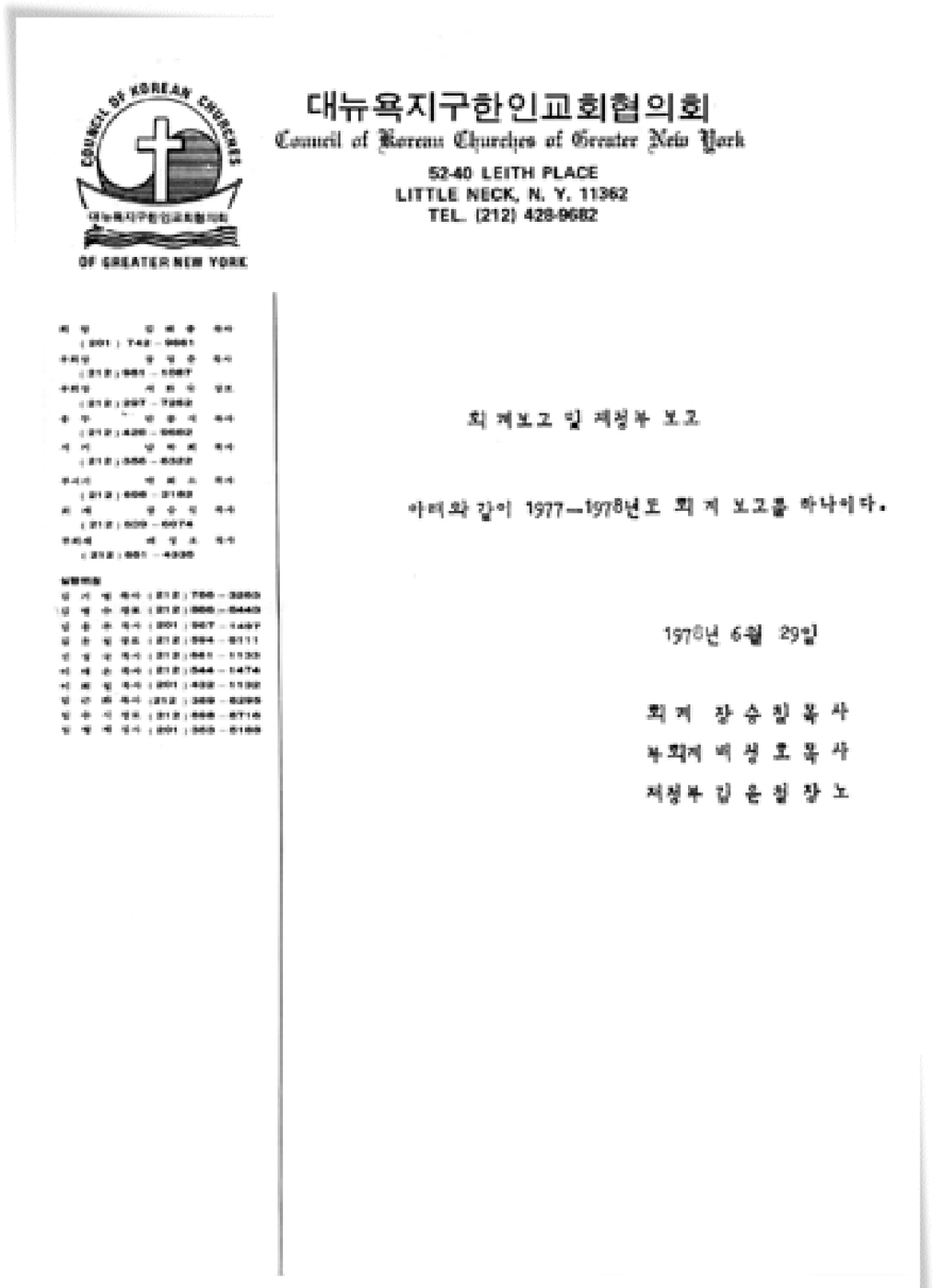
## 실행위원

김기엽 목사 김병수 장로 김용주 목사 김윤철 장로

신성국 목사 이재은 목사 이희철 목사 임근화 목사

임수식 장로 임형재 집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52-40 LEITH PLACE
LITTLE NECK, N. Y. 11362
TEL. (212) 428-9682

회계보고 및 재정부 보고

아래와 같이 1977—1978년도 회계 보고를 하나이다.

1978년 6월 29일

회계 장승철 목사
부회계 배성호 목사
재정부 김윤철 장노

##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 회계보고

1978. 6. 27

| | 적 요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고 |
|---|---|---|---|---|---|
| 77/ | 전 수 종 | 5,266.70 | | 5,266 70 | |
| 9-14 | (성서침공연주회) | | | | |
| 9-27 | 회보요금회 (수여금) | 83.00 | | 5,349 70 | |
| 10-4 | 7.-12-5 기독교서예전람 | | 125.00 | 5,224 70 | |
| 10-5 | 8.15 예배 장소대 | | 120.00 | 5,104 70 | |
| | 성서 침공연 1회 | | 378 30 | 4,726 40 | |
| | 2회 | | 438.00 | 4,348 40 | |
| | 3회 | | 215 87 | 4,132 53 | |
| | 7.4 성연 장보대 | | 62.00 | 4,070 53 | |
| | 한국홍보 전보비용 | | 75.00 | 3,995 53 | |
| 12/6 | 주일학교 연합회 장소 | | 35.00 | 3,920 53 | |
| 78/ | 뉴욕관련교회 (회원성) | 100. | | 4,020 53 | |
| 1-5 | 신년예배비 헌금 | 116 25 | | 4,136 78 | |
| | 헌고교회 청소부 | | 30.00 | 4,106 78 | |
| | 신년 예배 다과 | | 45 00 | 4,061 78 | |
| 1-15 | 선교교회 라환 | | 20.00 | 4,041 78 | |
| 1-30 | 한장비2 경비료 (이재호) | | 1,250.00 | 2,791 78 | |
| | 감리교 본부에 헌금 | | | | |
| 2-15 | 수재민을 장로회 (장수원) | | 1,250.00 | 1,541 78 | |
| | 교육부 (임순화목사) | | 40.00 | 1,501 78 | |
| | 김리집 5주 充 | | 20.00 | 1,481 78 | |
| | 성서 침공 대 (임순화) | | 100.00 | 1,381 78 | |
| | 레터헤드 | | 47.00 | 1,334 78 | |
| | 한국문보 10주 | | 25.00 | 1,309 78 | |
| | 결 사 대 | | 87 15 | 1,222. 63 | |
| 11/16 | 부활절강조 (연합) | | 25.00 | 1,197 63 | |

| | 적 요 | 수 입 | 지출 | Balance 1,197 63 | |
|---|---|---|---|---|---|
| 2-15 | 선교교회 (장수원) | 100 | | 1,297 63 | |
| 3-6 | 중앙교회 (소성옥) | 100 | | 1,397 63 | |
| | 헌고한인 (권정순) | 150 | | 1,547 63 | |
| | 헌고장로 (장명호) | 100 | | 1,647 63 | |
| | 뉴욕침례 (이재호) | 100 | | 1,747 63 | |
| 3-26 | 부활절예배 (N.Y) | 311.01 | | 2,058 64 | |
| | N.J 부활연주 | 88.50 | | 2,147 14 | |
| | 부활절상징주 (주고 33.50 감수 110.00 대체고 36.00 개회등 3.00 장보대 18.00 장로대접비용 70.00 청동원보 110.00) | | | | |
| | | | 계 388.64 | 1,758 50 | |
| | 총 | 6,515.06 | 4,758 56 | Balance 1,758 50 | |

### 교회협의회 찬양교회 (1977-1978)

뉴욕 관련 교회 (회원성) $100.00
선교교회 (장수원) 100.00
중앙교회 (소성옥) 100.00
헌고한인 (권정순) 150.00
헌고장로 (장명호) 100.00
뉴욕침례 (이재호) 100.00
계 $650.00

### 수재민돕기 모금

| | |
|---|---|
| 전주한인 | $380.35 |
| 뉴헤이븐 (한재덕) | 115.00 |
| 뉴헤이븐 (김재홍) | 256.00 |
| 시분교회 (배성옥) | 85.00 |
| 헌고 종부 | 51.00 |
| 스테이튼섬 (남부지) | 416.75 |
| 뉴욕 침례 (이재호) | 300.00 |
| 모리스타운 (서기홍) | 167.00 |
| 보스톤내 (한장성) | 367.00 |
| 롱아일랜드 (임순화) | 35.00 |
| 계 | 2,373.10 |

### 성서침공연주회

77-9-27 1회 헌고장로교회 318.30
2회 한국홍보 장로대 438.00
3회 뉴욕관련교회 215.87
계 972.17

## 뉴욕교협 3대 회장 김해종 목사의 회고

1970년 후반은 뉴욕 지구 한인교회들의 태동기라고나 할까? 지금처럼 왕성하고 많은 교회들이 서기 전이었다. 당시 한인교회는 모두 30여 교회에 불과했다.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창설 멤버로 첫 임원단의 서기를 맡아 보던 본인은 교회협의회를 위한 로고(logo)를 도안하여 제안한 결과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로고의 배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며, 구원의 십자가를 한가운데 두고 뒤에는 태극이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한인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고 있고, 세 줄기의 물결은 당시 본 협의회가 관할한 '대뉴욕지구' 즉 뉴욕, 뉴저지, 코네티켓 3개 주를 상징한다.

그때부터 교협 회장은 각 교파에서 돌려가며 선출한다는 연합 원칙에서 당시 뉴저지한인연합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로 있던 필자가 1978년도에 제3대 회장의 일을 맡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뉴저지교협이 발족되기 전이라 지역적으로 뉴저지를 대표하는 의미도 있었다. 덕망 높으신 원로 목사님 이었던 한영교 목사님께서 초대 회장이었고, 장로교회를 대표한 브롱스한인교회(Korean Church of Bronx) 유태영 목사를 뒤이어 3대 회장이 된 것이다.

당시 한인교계는 이제 자라나는 이민사회에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바빴으나 연합사업의 필요를 일찍 감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는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요청을 따라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제3대 임원진도 그 정신을 받들어 연합예배, 한인사회와의 다리 역할,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협력 등 협력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고, 안중식 목사가 총무로서 사업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제3대 회장단이 남겨 놓은 중요 사업의 하나는 '교회연감'을 발행한 일이었다. 연감에는 각 교회의 정보를 실었는데 교회의 창립목사 및 담임목사에 대한 정보, 개체 교회의 조직과 교단 배경, 교회의 현황 및 중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내용으로, 그 당시 협의회의 회원 교회 37교회를 소개하고 담임목사의 사진을 수록하여 발행하였다. 매년 발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연감' 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임 풀타임 스탭이 없는 조직체로서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워 계속되지 못하였고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비록 애석한 일이나 이 '교회연감' 이 그 당시의 교회들의 형편을 말하여 주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이다.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던 시대에 그러한 연합체 기록 문서를 편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런 문서를 출판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요, 우리 교회협의회 역사에 하나의 공헌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때 벌써 이재은 목사, 신성국 목사, 장영춘 목사, 박희소 목사 등 차기에 회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임원과 회원들이 '할렐루야 전도대회' 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대뉴욕지구에 연합 전도의 열풍을 일으킬 기반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뉴욕 복음화의 비전과 교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 이민교회의 정체성—다리 놓는 교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 (diaspora)이 모여 세운 교회였다. 즉 그 교회는 첫 이민교회였다. 그 헬라 원문은 '흩어진 씨' 라는 뜻이다. 한국인의 후손들이 미국에 와 세운 이민교회 역시 흩어진 씨앗의 교회리라.

우리는 흔히 '교포교회'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민은 '다리 놓는 백성' 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한다는 본질적인 사명과 정체성을 찾는다. 그것은 비단 '한국과 미국을 다리 놓는다' 는 뜻만이 아니요 여러 각도에서 '다리 신학' 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서 비롯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다리가 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이민교회의 정체성은 다리 놓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다리들로 둘러싸여 있는 대뉴욕지구의 한인 이민교회는 그 어느 다리보다 이름답고 중요한 복음의 다리이다.

민족과 문화를 잇는 다리,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이다. 구원의 방주로 희망의 무지개를 보여 주는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이민 100주년을 맞아 찬송시로 표현해 본다.

## 신앙의 이민

김해종 작사/ 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은혜의 주님 크신 뜻 있어 / 우리를 불러내신 땅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 가는 곳마다 제단 쌓네
복음에 빛에 해방 얻은 / 슬픔에 살던 한민족아
쉬지 않고 기도하며 / 믿음으로 살아가네

2. 사랑의 주님 베풀어 주신 / 축복의 대륙 새 땅에서
이삭의 신앙 본을 받아 / 가는 곳마다 우물 파네
주님의 약속 주신 땅에서 / 이웃과 후세 위해 땀 흘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 사랑의 역사 이어가세

3. 빛 되신 주님 이끌어 주는 / 내일을 위해 씨 뿌리고
야곱의 신앙 본을 받아 / 민족의 뿌리 잊지 마세
황무지 같은 이민 길에 / 무궁화 꽃을 심어가며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 소망의 미래 개척하세

4.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서 / 피 흘려 사신 크신 구원
새 생명 얻어 기쁨에 뛰며 / 성령 충만해 전도하세
예수님 멍에 함께 메니 / 무거운 짐도 가벼워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 하나님 나라 건설하리

김해종 목사

제3대 교협 회장



# 제 4 년사

주후 1978년



### 4대 교협 회장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 Church of Queens

장영춘 목사, Rev. Young Choon Chan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4대 교협 임원

회 장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부회장 이재은 목사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뉴욕교회)

김병수 장로

총 무 안중식 목사 (브르클린한인교회)

서 기 박재영 목사 (뉴저지제일장로교회)

부서기 신성국 목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장승철 목사 (뉴저지한인연합교회)

## 실행위원

박희소 목사 한진관 목사 정영규 목사 장석진 목사

김용주 목사 이희철 목사 남학희 목사 임수식 장로

# 청소년 신앙 수련회

주 제 : 청소년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 강사 변한규목사

때 : 1979년 2월15일 (목) 저녁 7시30분부터
2월18일 (주일) 밤까지

곳 : 퀸즈 장로 교회
147-46 SANFORD AVE.
FLUSHING, N. Y.
(149ST. & SANFORD AVE. 코너)
장영춘 목사 서무
TEL. 961-1087

주최 :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 주일학교연합회

# 수 련 회 순 서

첫째날밤 수요 7시30분, 2-15

강 사: 변 한 규 목사 사 회: 박 희 스 목사

입장찬송 ..... 624장 ..... 다 같 이
예배의부름 ..... 사 회 자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614장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13장 ..... 다 같 이
기 도 ..... 이명제감로
인 사 ..... 장영춘목사
성 경 .....누가복음 12:16-21 .. 퀸즈중앙감로교회
찬 양 ..... 퀸즈감로교회
설 교 .....''어리석은 한 농부''..... 변한규목사
기 도 ..... 변한규목사
찬 송 ..... 214장 ..... 다 같 이
헌 금 .....(헌금 독송)..... 뉴저지제일교회
놀헌기도 ..... 황희철목사
광 고 ..... 총무 이춘범
찬 송 ..... 460장 ..... 다 같 이
축 도 ..... 간진광목사

모든 일에서서. 인도: 김 경 자

# 알려 드립니다.

## 둘째날 저녁

설교제목: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종들"
본문말씀: 히브리서 11:4-6, 24-30
사회: 이 병 수 (주고 연합회 부회장)
기도: 뉴욕 감리교회 주교부장
성경봉독: FLUSHING 제일교회 학생회장
찬양: 순복음교회
봉헌특송: 뉴욕제일 장로교회(정영규목사님시무)
봉헌기도: 뉴욕 성결교회
헌금담빈: 뉴욕 성결교회
축도: 김 남 수 목사님

## 은혜 받는 비결

1. 일찍와서 앉아야만 합니다.
2. 마음 문을 열고.
3.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말씀 듣을 때는 겸손히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4. 시간 마다 출석하며.
5. 사람으로 친구를 인도하여 함께하면 서.

## 이동로 부장

김미여 오실 때에는 꼭 같아 봅시다.



대 회 장 : 박 희 소 목사
영예 대회장 : 장경춘목사·한 무
영예부대회장 : 이재은목사·이병수
총 무 : 이 윤 범
전 령 : 정영규 목사·김홍환
서 무 : 도진수목사·조인기
재 정 : 임형재장로·차철웅
찬 양 : 심 상 선
동 원 : 양 희 철 목사
집 대 : 이 은 수 목사

…‖ 찬 양 순 ‖…

첫째날 15일(목)…… 센츄장로교회
둘째날 16일(금)…… 순복음 교회
세째날 17일(토)…… 센츄한인교회
넷째날 18일(주일)… 뉴제지 제일교회

…‖ 목 멘 순 (헌 금 시) ‖…

첫째날 15일(목)…… 동부교회
둘째날 16일(금)…… 뉴욕제일장로교회
세째날 17일(토)……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넷째날 18일(주일)… 포레스트 한인교회

# 제 5 년사

주후 1979년



| 5대 교협 회장 |
|---|
|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뉴욕교회 |
| 이재은 목사, Rev. Jae Eun Lee |
| 85-15 Broadway Elmhurst, NY 11373 |

이재은 목사는 1972년 뉴욕에 들어와 퀸즈 엘머스트에 '기독교감리교 뉴욕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 그리고 1979년 6월 13일 대뉴욕교협 제5대 회장에 취임했고, 그 해 8월 29일 서울정동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가면서 대뉴욕교협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 358-0074/4428. Fax. (718) 321-0105
www.nyckcg.org / E-mail:nyckcg@gmail.com



# 제 6 년사

주후 1980년



| 6대 교협 회장 |
|---|
| 한미목회 회장 |
| 신성국 목사, Rev. Sung Kook Shin |
| 100 Old York Rd. #310 Jenkintown, PA 19046 |

## 6대 교협 임원

회 장 신성국 목사 (한미목회 회장)

부회장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임형재 장로

총 무 박재영 목사 (뉴저지제일장로교회)

서 기 양희철 목사

부서기 김정수

회 계 김진곤 목사

부회계 표창복 장로

## 분과위원

노순구 목사 안창의 목사 장석진 목사

한진관 목사 길웅남 목사 심연수

EXECUTIVE COMM.
President
Rev. Sung Kook, Shin
(212) 580-4995
Vice President
Rev. Hee So, Park
(212) 448-1207
Vice President
Mr. Hyong C. In
(201) 568-7373
General Secretary
Rev. Chai Y. Park
(201) 963-0077
Clerk (1)
Rev. Hee Chul, Yang
(212) 353-3633
Clerk (2)
Mr. Chang Soo, Kim
(201) 945-5258
Treasurer (1)
Rev. Jin Kon, Kim
(212) 651-6125
Treasurer (2)
Mr. Chang Bok, Pyo
(212) 541-1274
SUB-COMM.
Mission Comm.
Rev. Hak Hee, Nam
Education Comm.
Rev. Yong Ju, Kim
Pastoral Comm.
Rev. Kee Y. Kim
Social Comm.
Rev. Eun Soo, Lee
Financial Comm.
Dr. Chong Y. Kim
ACTING COMM.
Rev. Soon Koo, Ro
Rev. Chang Eui, Ahn
Rev. Suk Jin, Chang
Rev. Hyo Sup, Choi
Rev. Jin Kwan, Han
Rev. Ung Nam, Kiel
Mr. Yun S. Shin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130 W. 79th St. New York, N.Y. 10024

## 고 희 제 성 관 이 세 미 나

강 사: 조 떠 환 장노　　사 회: 김 종 율 장노
장 소: 한성고회　　일 시: 1980, 2, 18.(월)

### 세 미 나 순 서

예배초청 ——— 사회자
묵　　도 ——— 다같이
찬　　송 ——— 합 303 ——— 다같이
기　　도 ——— 남학희 목사
인사말씀 ——— 신성국 목사
찬　　송 ——— 합 3 ——— 다같이
축　　도 ——— 박희소 목사

———
사 회: 도 창 복 장노

조 떠 환 장노 특강:
1, 제정관이 실락
2, 제정관이에 관계된 서신
3, 제정관이 와 세계
4, 자유토론

찬　　송 ——— 합314 ——— 다같이
광　　고 ——— 박재형 목사
　　임원회 장노
기　　도 ——— 한권준 목사

———

——— 할렐루야 80 ——— 할렐루야80 ——— 할렐루야80 ———



EXECUTIVE COMM.
President
Rev. Sung Kook, Shin
(212) 580-4995
Vice President
Rev. Hee So, Park
(212) 448-1207
Vice President
Mr. Hyong C. In
(201) 568-7373
General Secretary
Rev. Chai Y. Park
(201) 963-0077
Clerk (1)
Rev. Hee Chul, Yang
(212) 353-3633
Clerk (2)
Mr. Chang Soo, Kim
(201) 945-5258
Treasurer (1)
Rev. Jin Kon, Kim
(212) 651-6125
Treasurer (2)
Mr. Chang Bok, Pyo
(212) 541-1274
SUB-COMM.
Mission Comm.
Rev. Hak Hee, Nam
Education Comm.
Rev. Yong Ju, Kim
Pastoral Comm.
Rev. Kee Y. Kim
Social Comm.
Rev. Eun Soo, Lee
Financial Comm.
Dr. Chong Y. Kim
ACTING COMM.
Rev. Soon Koo, Ro
Rev. Chang Eui, Ahn
Rev. Suk Jin, Chang
Rev. Hyo Sup, Choi
Rev. Jin Kwan, Han
Rev. Ung Nam, Kiel
Mr. Yun S. Shin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수 신 : 대 뉴욕지구 전 한인교회
제 목 : 부활절 연합예배의 건

할렐루야! 1980년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교회협의회에서는 1980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기로 하였읍니다.

무덤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른 새벽 세 여인의 발걸음으로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할렐루야! 영광 돌리십시다.

교회의 주보와 또 부활절 예배시에 알려시어 모든 교우가 참석하도록 하여주십시요.

아　　래

뉴욕지역 : 일 시-1980년 4월 6일 부활주일 새벽5시
　　장 소-Flushing Meadow Park
뉴저지지역 : 일 시-같음
　　장 소-저지 시티 Lincoln Park
스태튼아일랜드지역 : 일 시-같음
　　장 소-South Beach

1980년 3월 15일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신 성 국 올림

EXECUTIVE COMM.
President
Rev. Sung Kook, Shin
(212) 580-4395
Vice President
Rev. Hee Su, Park
(212) 489-1257
Vice President
Mr. Hyong C. In
(201) 568-7523
General Secretary
Rev. Chai Y. Park
(201) 963-0287
Clerk (1)
Rev. Hee Chul, Yang
(212) 283-3603
Clerk (2)
Mr. Chong Soo, Kim
(201) 745-5218
Treasurer (1)
Rev. Jin Kon, Kim
(212) 651-4035
Treasurer (2)
Mr. Chang Bok, Pyo
(212) 541-3174
SUB-COMM.
Mission Comm.
Rev. Hak Hee, Nam
Education Comm.
Rev. Yong Jo, Kim
Pastoral Comm.
Rev. Kee Y. Kim
Social Comm.
Rev. Eun Soo, Lee
Financial Comm.
Dr. Chong Y. Kim
ACTING COMM.
Rev. Soon Koo, Ro
Rev. Chang Eui, Ahn
Rev. Suk Jin, Chang
Rev. Hyo Sup, Choi
Rev. Jin Kwan, Hun
Rev. Ung Nam, Kwi
Mr. Yun S. Shim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130 W. 79th St. New York, N.Y. 10024

1980년 5월 27일

뉴욕지구 한인교회
목 사 님 께서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과 귀교회 위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는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에 뉴욕 한인 교회에서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주최로 신년 조찬기도회가 있사오니 목사님과 교회 대표 장로님 한 분씩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일 : 1980년 5월 31일(토) 8시(상)
장 소 : 뉴욕 한인 교회
633 W. 115 Street New York City

뉴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회 장 신 성 국

뉴뉴욕지구 한인 교회자회
부회장 방 학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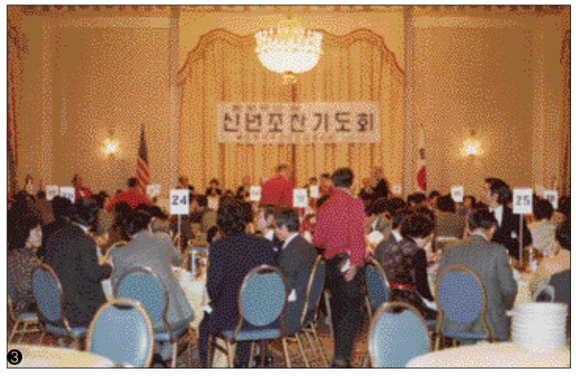
## 1980년 신년 조찬기도회



❶



❷



❸

1. 1980년 1월 26일 6대 회장 신성국 목사가 신년을 축복하며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2. 신년하례 강사로 온 임동선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하객들이 신년과 교협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두를 축복하며 만찬을 나누고 있다.

## 할렐루야 80 대뉴욕전도대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의 모든 회원 목사들은 '한인 교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한인교회에 부여된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라 믿고, 할렐루야 대뉴욕전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 7월 3일(목)부터 5일까지 퀸즈 대학 대강당(콜든 센터)에서, 당시 한인 이민교회 목회에서 성공한 임동선 목사(L.A. 동양선교교회)를 강사로 초청하고, 연예인 곽규석 장로, 고은아 집사, 방은미 집사, 허림 집사를 초청하여 신앙 고백과 신앙 체험담을 들었다.











1. 할렐루야 '80 대회장 신성국 목사가 대회사를 선포하고 있다.
2. 강사 임동선 목사가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말씀을 듣기 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4.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높이 들고 설교하는 임동선 목사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1.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2. 초청된 연예인, 오른편부터 곽규석 장로, 방은미 집사, 허림 집사, 고은아 집사



▲간증하는 고은아 집사



▲간증하는 방은미 집사



▲간증하며 찬양하는 허림 집사



▲성회를 마친 후 강사와 간증 연예인들의 기념촬영



할렐루야'86 축 대뉴욕전도대회

Hallelu,jah 할렐루야 86

86년 7월3일 (목) - 6일 (주일) 매일오후8시 퀸즈대학 대강당 (콜든센타)

## 할렐루야'80
## 전도대회의 시작과 그전망

첫대회장 신 성 국 목사

1980년대의 3대회 한인교회 역이 밝힌 뉴욕시 달라의 1990년의 당기의 비최는 10년 동안에 100배고회로 급증하게 되기 이를 비당하게 당연지라도 생각하는 경당도 인인으나 교회 관원에서 멀리와 바난회소리에서 달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인교회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당성지스도를 영적인 지도의 역할을 당당해야할 한인교회가 필요해 상조로 라더하게 준개되었을 것두, 비무나 교회가 효과준비의 사명인 비나님의 말씀의 선고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을 실천하려는 목적보다도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 세워지고 존재해 나갔때, 물기피하게 불두를 이 피는 문일제, 교인명일만 등의 물이스러운 현상를 교회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연합운동의 증형화추을 위명적 목적해야 할것이나?하는것이 1980년대를 눈앞에 는 당시의 한인교회 지도층의 가장 깊은 멀러됨 점이 있습니다.

지한 제도와 같이 일비되지는 한인교포인구의 급증추세의 초기 이인자를 낳은 비주대륙에서의 성의 체적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시체인 노력의 본상들이 교로 교회의 선교확장과 사회봉사와 교도을 위한 구를 운동에 비속 박차를 가하게 되었읍으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유일보다도 한인교회에 주어진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명적 사명이라고 일깨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고, 교회지상교제명을 실천에 옮기므로써, 교회부흥 운동, 새로운 교회성도간의 적대관계 등을 해소 시키며, 박수회 원칙으로는, 한인 교포교회가 단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에베소 4장 1 - 6절) 임을 재인식하고 영합의 일을 피나가라는 강력한 자세감에서 당시 대동속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임원들에 의하여 "할렐루야 80 전도대회" 가회의 구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979년 여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추체 장식로 당시 한인이민교회 목회에 앙공하신 만동선생님 (L.A. 동양선교교회) 을 초청한 것과, 좋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 전도대회인 만큼 한국에 특종한 펜테코스트회의 라큰적장로 (분한 마을 교회 목사) , 고손아일사, 앙손아일사, 허달일사의 4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성장고백과 신앙적변증을 듣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80년전도대회" 는 3일간의 짧은 집회였으나 그 준비기간을 무려 10개월간 당시 100여고회중 60교회의 교역자와 제직단 여러분의 희생적노력과 협력으로 1980년 정초 첫 준비기도회인 "성년초장 기도회" (고 부대정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만리장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450여명 참석) 로 부터 시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뉴욕시내의 한인교회도회는 처음 개최되었던 초판 기도회아말로 조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비롯한 사도들과 같이 "한인교포를 그리스도 에게로!" 인도하려는 불붙같은 성령의 체험을 체험한 기도회 였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선교의 불길은 그후 매주 월요일 마다 계속 모여서 대회준비기도와 모든 실천계획을 비나가며 7월 전도대회가 끝날때까지 계속 하 주일단것 입니다. 그후 7년의 세월이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이월 초일 비마 타조되는 기도의 불길은 실아 일으며 할렐루야 80 전도대회 장이 기리기리 타오를 것을 기비 합니다.

1980년 7월3 - 5일까지 프라이 "할렐루야 80 전도대회" 는런스데일 대강당에서 대회장 (당시의교회협의회 회장) 신성국목사의 개회사로 역사적인 막을 올렸고 2천5백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는 대성황리에 첫 3일간, 세계기도회 일회수준 입해여 첫 1만명의 교포들이 참석, 146명의 결신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계주어 피었으며, 일회 총정비를 지불하고 약 1만불의 현금을 "할렐루야 80전도대회기금" 으로 하기 입원들에게 인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그 첫 시작으로 부터 대회의 구상과 조직과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 까지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당시 (1979 - 80) 의 교회 협의회 임원진들과 각 교회 제직원들과 성가대원들과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때를 비비 조능에 어드키까지 7회에 걸쳐 배려와 격속 말씀된, 비속 생피있는 대회를 계속 선행하신 박대 일된 제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80 전도대회" 는 그 첫대회에서 참석한 1만명의 교포교회 선도의 열렬과 소망을 한데품어서 대회장의 폐회사를 통하여 밝힌 선언한 바와 같이 이 넓 북미주 대륙에 있는 한국교회 인도등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충일은 뉴욕달래의 전한인교포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것이어니 일으도 1980년대의 10년간은 물론 박아오는 1990년대도, 2천년대에도, 하나 님위해 이 대륙에서 비지 일은 결실의 인도집회가 피도록 우리 다같이 힘나님 앞에서 일속히 시작합시다./" 할렐루야/아멘.



# 제 7 년사

주후 1981년



## 7대 교협 회장

뉴욕동부교회

The Korean Presby Church of East NY

박희소 목사, Rev. Hee So Park

21-70 Hazen St. East Elmhurst, NY 11370

## 7대 교협 임원

회 장 박희소 목사 (뉴욕동부교회)

부회장 한진관 목사 (퀸즈한인교회)

오종백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총 무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서 기 김진건 목사 (뉴욕그리스도교회)

김창길 목사 (뉴저지장로교회)

회 계 도진수 목사 (화이트프레인즈한인교회)

백도영 (후러싱한인교회)

## 교회협의회 임원 및 실행위원(1980—1981년도)

| | | |
|---|---|---|
| 회 장 | 박 희 소 (212—446—5257) | 뉴욕동부교회목사 |
| 부 회 장 | 한 진 관 (212—886—4068) | 빈스한인교회목사 |
| | 오 종 백 (212—548—3348) | 뉴욕한인중앙교회장로 |
| 총 무 | 장 석 진 (212—727—4112) | 뉴욕성정교회목사 |
| 서 기 | 김 진 전 (212—651—6125) | 뉴욕그리스도교회목사 |
| | 김 항 집 (201—592—6811) | 뉴저지장로교회목사 |
| 회 계 | 도 진 수 (914—997—9306) | 화이트프레인즈한인교회목사 |
| | 백 도 영 (212—357—8424) | 루터성한인교회 |

| | | |
|---|---|---|
| 신교위원회장 | 양 희 정 (212—263—3633) | 프레스트한인장로교회목사 |
| 교육연구위원회장 | 김 상 오 (516—368—6545) | 롱아일랜드중앙교회목사 |
| 목회연구위원회장 | 홍 효 근 (516—883—1627) | 롱아일랜드한인교회목사 |
| 사회봉사위원장 | 백 예 원 (212—939—0239) | 뉴욕연합장로교회목사 |
| 재정위원장 | 김 영 일 (201—567—5167) | 뉴욕한인교회장로 |
| 실행위원 | 노 순 구 (212—476—2926) | 뉴욕정례교회목사 |
| | 남 학 희 (212—948—8080) |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목사 |
| | 김 용 주 (201—967—1497) | 라디포드한인장로교회목사 |
| | 김 남 수 (212—781—0765) | 뉴욕순복음교회목사 |
| | 강 세 대 (201—256—3808) | 뉴저지중앙교회목사 |
| | 이 규 상 (212—939—5025) | 빈스장로교회장로 |
| | 임 수 식 (212—698—6716) | 뉴욕한인교회장로 |

## 할렐루야 1981 대뉴욕전도대회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정당인 박지순 김기열 정승일 박상은 유해영 김정남 백예원
손명걸 이승만 지관순 안형주 안두성 최화정 최호섭 김태종
장영춘 박재형 임형래 김규환

영예대회장: 신성국 (미연합장로교 본부 동부지역 총무)
대 회 장: 박희소 (뉴욕동부교회목사)
부대회장: 한진관 (빈스한인교회목사)
오종백 (뉴욕한인중앙교회장로)
준비위원장: 장석진 (뉴욕성정교회목사)
총 무: 양희정 (프레스트한인장로교회목사)
서 기: 김진전 (뉴욕그리스도교회목사)
회 계: 백도영 (루터성한인교회집사)
예배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상오 (롱아일랜드중앙교회목사)
본당분과위원회: 위원장 남학희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목사)
안내분과위원회: 위원장 도진수 (화이트프레인즈한인교회목사)
영접분과위원회: 위원장 조남은 (기독교대한감리회뉴욕교회목사)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뉴욕순복음교회목사)
전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준수 (미주개혁교부통스동산장로교회목사)
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 백예원 (아가페한인교회집교목사)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뉴욕한인교회목사)
예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뉴욕한인교회장로)
교역자분과위원회: 위원장 홍효근 (롱아일랜드한인교회목사)
정신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종율 (부롱스한인교회장로)

Halleluiyah
할렐루야
81
대뉴욕전도대회

할렐루야 '81 대뉴욕전도대회

# 1981년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1981년 1 월17일(토) 오후 6 시—10시
곳 : SHERATION HOTEL AT LaGUARDIA

주최 : 대뉴욕지구한인교회 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51 Claradon Lane, Staten Island, N.Y. 10305
P.O. Box 54, Staten Island, N.Y. 10314
[212] 448-5257, 727-4112, 263-3633

# 1981년도 신년하례만찬기도회순서

## 제 1 부 : 기도회 ( 저녁 6 : 30~8 : 00)

사회 : (대회장) 박희소목사

전　　주 ..... 반 주 자
개 회 사 ..... 사 회 자
*찬　　송 ..... (203) 시온의 빛나는 아침 ..... 다 같 이

1. 시온에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년 어망이 걷아 오네 승천과 예루이 기쁨이 되어 시온의 영광이 비치도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언된 종들이 돌아 오네 오래된 신비와 잃어진 복음 안에이 아멘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경아에 외쳐 부르는 소리 안팎년 지내동 돌아 오네 이집과 지신이 아무석 돌아 주께수 손을을 받들어라
4. 땅들아 아아와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 어라 복음과 희락의 참으로 땅에 있음이 되었네 사무석대
아 멘

*성 시 교 독 ..... (75) 새　해 ..... (부대회장) 한진관목사

주께서 새 해에 당의 기쁘은 무엇사도이며
　특별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나이다
주는 성조하시고도 보지는 없어지며 다 옷같이 낡아질것이요
　주의 불변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이다(시 102 : 25—27)
나의는 이집 일을 기억하지 않아 새적 일을 생각하지 않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리(사43 : 18—19)
나의는 동투의 욕심을 따라 걱어지는 구습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 : 22—24)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인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 : 17)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 : 34)
(다같이)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
　게 하소서(시51 : 10)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기　　도 ..... (예배분과위원장) 김상모목사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28 : 16~20 ..... (부대회장) 오종배장로
특　　송 ..... 십팔루아 ..... 진기화교수
설　　교 ..... "제자를 삼으라" ..... (라성한인교회) 김희환박사
기　　도 ..... 설 교 자



시 낭 독 ..... (뉴저지한인연합교회) 김해풍목사

특 별 기 도
(1)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에리자베스한인교회) 유제선목사
(2) 조국과 교포사회를 위하여..... (루터싱한인제일교회) 김병서목사
(3) 할렐루야 81 능욕집도대회를 위하여(능저지연합장로교회) 김용남목사

특　　송 ..... 생명의창식 ..... 유충열선생
헌 금 기 도 ..... (홍보분과위원장) 김한식목사
헌　　금 ..... 위원 : 김영철, 강지훈, 표창복, 임형재, 이춘범장로

감사패증정 ..... (대회장) 박희소목사
(1) 직전협의회　회　장　신성국목사님께
(2) 직전협의회　부회장　임형재장로님께
(3) 직전협의회　총　무　박재영목사님께
인사와광고 ..... (준비위원장) 장석진목사
찬　　송 ..... (217) 저목탕업졸산 ..... 다 같 이

1. 시 작업 업준부터 또 예업 신호신 의 난업 모든나라 수 없은 백성들
　그 피의 사슬에서 다 놀아 주시어 날 업을 업준주의 은 로라 부준아
2. 주 은혜 반준주의 은 택업 입고서 주 에수 업인구원 신 터서 업으라
　온 세상 모든백성 업 구원 반도록 온 몸과 재산드려 이 목숨 업라서
3. 단 업의 업위해주 의 세상 오셔서 단 택업 구속하니 업 준주 시로다
　이 무는 이업해서 이 소식 가지고 저 아라 동업분아 이 목숨 업라서 아 멘

축　　도 ..... 신성국목사
후　　주 ..... 반 주 자

(순서중 *표는 일어섬)

- 찬송인도 : 김 중 휘 집사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지휘자)
- 피아노반주 : 문 인 숙 선생 (능욕십경교회 반주자)

## 제 2 부 : 만　찬 (저녁 8 : 00~10 : 00)

만 찬 기 도 ..... (린스장로교회) 장영춘목사

Halleluiyah
할렐루야
81

# 대뉴욕전도대회



강사
박조준 목사

##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


구봉서


윤복희


서수남


김희자

특별간증

**1981. 5. 15 ~ 17** (매일 오후8시)

**Madison Square Garden**

주최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12) 448-5257, 727-4112.

METRO CHARLES CO. INC.
1220 Broadway, N.Y. N.Y. 10001.
(212) 564-1952.





교계소식

Halleluiyah
할렐루야
81

# 대뉴욕전도대회

-할렐루야'81대전도대회 예산통과-

## 총 9만 7천 5백 50달러

## 작년의 3배 규모


박 희소 목사

이 기도회에는 임원 명단도참석 할지도 확정하고 있으나 기도회 후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다.

대뉴 주사회신장인 장시성목사(뉴욕 성결교회)는 "이번 대회기간중도 주권영욕이 성장적 부흥성을 세계인앞에 널리 선포할 좋은 시간이고 앞래에 「80년도 교회협의회 전임 명등이 임에 뿌리들은 느낌이 지닌이 들에 주어는 영예를 받는 것 같다」고 희망에 찬 소감을 서였다.

한편 5주 주이기도회에 앞으로 앞은 초상은 목사(이목교 대한감리회 뉴욕교회)는"인을 앞에서의 모든 일은 인간이 노력 한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본적고 "성령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힘하면서 「뉴욕의 모든 교우들이 힘껏해서 주의 선한 일꾼이 되자」고 촉절해 말씀했다.



(할렐루야의 대전도대회가 개최될 메디슨 스퀘어가든 전경)









1. 할렐루야 대회를 선포하고 있는 대회장 박희소 목사
2. 대회장 박희소 목사와 강사 박조준 목사
3. 강사 박조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첫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무리들











1. 말씀 전하기 전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2.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3. 받은 은혜 감사하여 특송과 성도들의 봉헌하는 시간
4. 봉헌 기도 시간



# 교회협의회 7 차총회

## 새회장에 김충주 목사 선출

### 부회장에 김상모 목사, 김형철 장로 피선



△새회장 김충주 목사



△김상모 목사



△김형철 장로

▲윤정란 필도자가 곧은 담을 감아올 준비를 하고있다.

**화이트플레인 한인교회 가족수양회**



▲플러싱교회 기공식에서의 참으고 있다



▲윤정란 필도자가 곧은 담을 감아올 준비를 하고있다.

**플러싱에 퀸즈장로교회가 선다**

# 우리손으로 짓는 첫교회

### 대지1 에이커, 건평2층4천 스케어피트



▲퀸즈장로교회 기공식에서의 참으고 있다

## 아스토리아에 새악국 개업





# 롱아일랜드에 첫 한인교회 설립

## 박희소 목사 간호사 이민가정 대상 목회 시작



박희소 목사



1972년 롱아일랜드장로교회가 설립된 후 처음 가진 야외예배 모습. 맨왼쪽 두번째가 박희소 목사.

## 이주 최대 나성영락교회 박희민목사 뉴욕서 친형 박희소목사와 공동목회

# 제 8 년사

주후 1982년



## 8대 교협 회장

한소망교회

Hope Presbyterian Church

김용주 목사, Rev. Yong Ju Kim

1190 Rive Rd. Teaneck, NJ 07666

## 8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용주 목사 (포트리한일장로교회)

부회장 김상모 목사 (롱아일랜드제일연합감리교회)
김영철 장로 (뉴욕영락교회)

총 무 이은수 목사 (미주개혁교 부롱스동산교회)

서 기 정성만 목사 (저지시티감리교회)
정도인 목사 (새소망한인교회)

회 계 이춘범 장로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현삼열 집사 (후러싱한인교회)



## 교회협의회 임원 및 실행위원 (1981~1982년도)

| | | |
|---|---|---|
| 회 장 : | 김 용 주 (포트리 한일장로교회 목사) | 201-967-1497 |
| 부 회 장 : | 김 상 모 (롱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목사) | 516-368-8545 |
| | 김 영 철 (뉴욕 영락교회 장로) | 201-567-5167 |
| 총 무 : | 이 은 수 (미주개혁교 부롱스동산교회 목사) | 212-652-5659 |
| 서 기 : | 정 성 만 (저지시티 감리교회 목사) | 201-963-3315 |
| | 정 도 인 (새소망 한인교회 목사) | 212-961-2155 |
| 회 계 : | 이 춘 범 (포레스트 한인장로교회 장로) | 212-446-8200 |
| | 현 삼 열 (후러싱 한인교회 집사) | 516-661-8151 |
| 신교위원회장 : | 김 현 석 (뉴욕 한성교회 목사) | 212-651-5714 |
| 교육연구위원회장 : | 강 세 대 (엠마누엘 장로교회 목사) | 212-539-7354 |
| 목회연구위원회장 : | 김 영 철 (스태튼아일랜드 한인교회 목사) | 212-967-4720 |
| 사회봉사위원장 : | 양 희 철 (포레스트 한인장로교회 목사) | 212-263-3633 |
| 재정위원장 : | 추 재 욱 (뉴욕 중앙교회 장로) | 201-569-3520 |
| 실 행 위 원 : | 정 승 일 (뉴욕한빛교회 목사) | 212-961-3271 |
| | 김 셀 남 (아스토리아 감리교회 목사) | 212-274-5554 |
| | 권 오 현 (루르딘 제일교회 목사) | 212-449-0083 |
| | 김 남 수 (순복음 뉴욕교회 목사) | 212-947-7955 |
| | 도 진 수 (화이트플레인즈 한인교회 목사) | 914-997-9306 |
| | 노 순 구 (뉴욕 실레교회 목사) | 212-476-2926 |
| | 김 진 건 (뉴욕 그리스도의교회 목사) | 212-651-6125 |







HALLELUJAH' 82 THE GREATER NEW YORK KOREAN-AMERICAN CRUSADE

# 할렐루야 '82
# 대뉴욕전도대회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 !

강사 : 김준곤, 김계용목사외 7명

Hallelujah 할렐루야 82

교역자세미나, 제자화훈련(매일 오전 9시~12시)

일시 : 1982년 7월 1일 (목) — 4일 (주일)
매일 오후 8시

장소 : 퀸즈대학 대강당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주최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후원 : 뉴욕기독실업인회

강사



장 영 출 목사
• 전 국군군종감
• 텍스넨드도 협회회장

세미나, 간증 및 찬송지도



Claudia Eastedt
• 뉴욕 및 뉴저지지구 CCC스태



Aida Laureta
• 뉴욕지구 CCC스태



Michael Leary
• 뉴욕 웨스트체스터지구 CCC 스태



Carrie Machiela
• 뉴저지지구 CCC스태



Chet Machiela
• 뉴저지지구 CCC스태



Gail Reinsmith
• 뉴욕 및 뉴저지지구 CCC스태



김 용 준 간사
• 한국CCC 총무감사 역임
• 현 미주CCC 한국간사



• 가수

이 종 용
• 인터내셔널 바이블 칼리지에서 종교음악 전공

(ABC 및 가나다 순)

할렐루야 '82 전도대회

# 학생 신앙 합숙 수련회

STUDENTS REVIVAL & RETREAT

"한사람 전도하여 가르쳐 키우자"

나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태신자(加信者) 위해 기도합니다.

강 사 : 장 영 출 목사 외 CCC 스탭
간증 및 찬송지도 : 이 종 용 가수

나도찾았네

제 1 차 학생합숙수련회

1982년 6 월27일 (주일) ⇨30일 (수)
포레스트 수양관 (불빌기도원)

제 2 차 학생수련회

1982년 7 월 2 일⇨ 3 일
(매일 오전9시-12시)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주최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후원 : 뉴욕기독실업인회




❶




❷




❸

1. 김용주 목사가 할렐루야 '82 대뉴욕 전도대회 개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 첫날 강사 김준곤 목사와 특별간증 연예인들과 미국 NY교협회장 대회장 김용주 목사, 순서 맡은 분들, 모인 무리들이 가수 이종용 집사 찬송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3.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습













1. 간증하는 곽규석 장로
2. 설교를 마치고 결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강사
3. 목사님들이 결신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시간
4.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5. 할렐루야 대회를 마치고 강사들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 제 9 년사

주후 1983년



## 9대 교협 회장

롱아일랜드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Long Island

홍효균 목사, Rev. Hyou Kyun Hong

91 Chester Ave. Garden City. NY 11530

## 9대 교협 임원

회 장 홍효균 목사 (롱아일랜드한인교회)

부회장 남학희 목사 (스태튼아일랜드한인연합교회)

표창복 장로 (기독교대한감리회뉴욕교회)

총 무 이문구 목사 (뉴욕한인교포교회)

서 기 신의철 목사 (에디슨한인장로교회)

부서기 정도인 목사 (새소망한인교회)

회 계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부회계 이병홍 목사 (퀸즈성결교회)

## ◎할렐루야 1983, 대 뉴욕전도대회 준비위원회

대 회 장 : 홍 효 균 (롱아일랜드 한인교회)
부대회장 : 로 창 복 (거룩교 대한감리회 뉴욕교회)
부대회장 : 남 락 희 (스태튼아일랜드 한인연합교회)
부대회장 : 이 문 구 (뉴욕한인교포교회)
준비위원장 : 허 성 희 (뉴욕영광교회)
총 무 : 안 창 희 (퀸즈중앙장로교회)
서 기 : 정 도 인 (세소망한인교회)
회 계 : 김 원 기 (뉴욕베데스다 교회)
부 회 계 : 김 길 곤 (뉴욕열성교회)
간 사 : 허 병 홍 (퀸즈 성결교회)

예배분과 위원장 : 김 경 식 (뉴욕한성교회)
교통분과 위원장 : 김 남 주 (순복음뉴욕교회)
재정분과 위원장 : 윤 문 영 (뉴욕한인중앙교회)
영접분과 위원장 : 양 희 봉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홍보분과 위원장 : 김 영 길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해외분과 위원장 : 심 의 철 (에디슨한인교회)
청소년분과위원장 : 손 일 구 (뉴욕샘물메노교회)
사회분과 위원장 : 김 용 래 (푸라싱중앙교회)
안내분과 위원장 : 도 진 수 (화이트 플레인 한인교회)
시설분과 위원장 : 백 일 건 (새문침례교회)
찬양분과 위원장 : 임 실 삼 (뉴욕영락교회)
전도분과 위원장 : 전 유 순 (해피스티중앙교회)
교역자분과위원장 : 정 영 균 (뉴욕서일장로교회)
헬산도분과위원장 : 권 수 일 (뉴저지 목우교회)
부녀분과 위원장 : 홍 인 숙 (Y W C A)
청년분과 위원장 : 최 용 일 (맨리스트빌침례교회)

## ◎교회 협의회 임원 및 실행위원 (1982—1983년도)

회 장 : 홍 효 균 목사 롱아일랜드 한인교회
부회장 : 남 락 희 목사 스태튼 아이랜드 한인연합교회
로 창 복 장로 거룩교 대한 감리회 뉴욕교회
총 무 : 이 문 구 목사 뉴욕 한인교포교회
서 기 : 신 의 철 목사 에디슨 한인장로교회
부서기 : 정 도 인 목사 세소망 한인교회
회 계 : 김 원 기 목사 뉴욕 베데스다교회
부회계 : 이 병 홍 목사 퀸즈 성경교회

친교분과위원장 : 이 성 희 목사 뉴욕열성교회
교육연구위원장 : 도 진 수 목사 화이트플레인 한인교회
사회봉사위원장 : 김 용 래 목사 푸라싱 중앙교회
목회연구위원장 : 류 홍 상 목사 오렌스 한인교회
재정분과위원장 : 윤 문 영 장로 뉴욕 한인중앙교회

실행위원 : 장 영 춘 목사 퀸즈 장로교회
정 영 균 목사 뉴욕 서일장로교회
조 덕 현 목사 뉴욕 한인중앙교회
김 남 주 목사 순복음 뉴욕교회
허 은 주 목사 브롱스 동산장로교회
김 종 만 목사 리빙스톤 한인감리교회
전 무 준 장로 포레스트 한인장로교회

| 할렐루야 83 전도대회 준비 성회 | 교역자를 위한 교회성장쎄미나 | 할렐루야 83 대 뉴욕전도대회 |
|---|---|---|
| 강사 : 김중기 박사 (연세대교수)<br>때 : 1983. 2. 24. - 27. 저녁 8시 (목.금.토.일)<br>곳 : 뉴욕한성교회 (김권석목사시무) | 강사 : 김중기 박사 (연세대교수)<br>때 : 1983. 2. 24—25 (목—금) 낮11—5<br>곳 : 뉴욕한성교회 (김권석목사시무) | 강사 : 김선도 목사 (서울광림교회)<br>간증 : 고은아. 김희자 (연예인교회집사)<br>때 : 1983. 6 월30일-7 월 3 일<br>곳 : 퀸즈대학대강당 |



## 1983년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1983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가 1월 29일(토) 오후 7시 스테틀러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설교는 시카고 시온장로교회 이선영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2~14절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큰 은혜를 끼쳤다.



1


2


3

1. 9대 회장 홍효균 목사가 강사 목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2. 예배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습
3. 만찬을 대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며 퀸즈중앙장로교회 안창의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 KAL기 사건

뉴욕을 출발, 서울로 가던 KAL기가 소련 미사일에 피격당해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한인 사회는 궐기대회, 합동 추모예배, 촛불 예배, 소련 외교관 관저 데모 등을 가지며 한인사회의 결속된 응집력을 발휘, 3천여 한인들이 시위행진에 참여했다.

또한 이 해 KAL기 사건 이후 버마 랭군을 공식 방문 중이던 한국의 정부 요인들이 북한이 저지른 만행으로 폭사, 동족 간의 비극을 느끼게 했다.




1. 2. 범 교포들이 맨해튼에서 모여 KAL기 사망자 추모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다.
3. KAL기 피격에 격분한 교포들이 모여서 소련에 항의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4. KAL기 피격에 격분한 온 교회와 교포들이 소련 외교관 관저에서 데모하고 3천여 교민들이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 아프리카 선교



1. 교협 임원들의 아프리카 선교 시 현지인들과 함께
2. 아프리카 현지인들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로!"

Hallelujah 할렐루야 83

# 대뉴욕전도대회

HALLELUJAH '83 THE GREATER NEW YORK KOREAN-AMERICAN CRUSADE

강사 : 김신도 목사
간증및특송: 이용복 김희자 이종윤

일시 : 1983년6월30일(목)-7월3일(주일)매일 오후8시

장소 : 퀸즈대학 대강당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주최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 대 회 사

할렐루야!

먼저, 성령,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주최 "할렐루야'83 대전도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게 생각합니다.

금번 집회의 주제는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입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생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에 지치고 심령에 메마 그리스도 없이 인생의 방황을 일삼 분들이 금번 기회에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큰 기쁨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협력하는 교우여러분, 은 교회가 하나로 물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의 도운동의 역사를 이룩시다. 대뉴욕에 산재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나 복음전파의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영적인 혁신의 기회를 만들지다. 그리하여 교회마다 부흥이 되고 한사람 한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참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번 전도대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1983년 6월30일

할렐루야'83 대뉴욕전도대회 대회장 홍 요 섭 목사



◀첫째날▶

## 대전도대회 순서

6.30(목) 저녁8시 사회: 류홍장 목사

| | | |
|---|---|---|
| 묵 도 | 연합성가대 | 다 함 께 |
| 기 원 | | 사 회 자 |
| 찬 송 | 새 목장 빌송댄과 | 다 일어서서 |
| 기 도 | | 김성실목사 |
| 대 회 사 | 대회장 | 홍요섭목사 |
| 강사 소개 | 부대회장 | 남학희목사 |
| 간증및특송 | | 김희자집사 |
| 성경 봉독 | 딤전1:5-16 | 김동섭선무 |
| 대 표 기 도 | 지역 김의철 선생 | 연합성가대 |
| | 지역 김혜원 선생 | |
| | 김영숙 선생 | |
| 설 교 | 「정상에 도전하는 신앙」 | 김신도목사 |
| 기 도 | | 설 교 자 |
| 결신의시간 | | 설 교 자 |
| 찬 송 | 올리가 올라가 | 다 일어서서 |
| 헌금 기도 | | 김용태목사 |
| 찬 송 | | 헌금 위원 |
| 헌금 특송 | | 김영이신성 |
| 인사및광고 | 부대회장 | 조성복장로 |
| 찬 송 | 주은혜 놀라와 | 다 일어서서 |
| 축 도 | | 박해명목사 |
| 폐 회 | | 연합성가대 |

◀둘째날▶

## 대전도대회 순서

7.1 (금) 저녁8시 사회: 도진수목사

| | | |
|---|---|---|
| 묵 도 | 연합성가대 | 다 함 께 |
| 기 원 | | 사 회 자 |
| 찬 송 | 십자가 보혈 | 다 일어서서 |
| 기 도 | | 김남수목사 |
| 간증및특송 | | 이용복집사 |
| 성경 봉독 | 행13:22-32 | 박기대목사 |
| 대 표 영 | 지회 윤원주 선생 | 연합성가대 |
| | 지회 정영희 선생 | |
| | 김대욱 선생 | |
| 설 교 | 「돌아는 소망을 이루는 지회」 | 김신도목사 |
| 기 도 | | 설 교 자 |
| 결신의시간 | | 설 교 자 |
| 찬 송 |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다 일어서서 |
| 헌금 기도 | | 권이성목사 |
| 헌 금 | | 헌금 위원 |
| 헌금 특송 | | 김영이신성 |
| 인사및광고 | | 총무 안상희목사 |
| 찬 송 | 확실한 나의 신주 | 다 일어서서 |
| 축 도 | | 고남근목사 |
| 폐 회 | | 연합성가대 |

준비 및 진행안도: 성장신신성
헌금위원: 순복음 뉴욕교회






1. 할렐루야 대회장 홍효균 목사의 대회 선언 이후 기도하는 모습
2. 말씀을 전하기 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지휘자와 성가대원들






3. 1983년 할렐루야 대회 강사 김선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4.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은혜 받기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






5. 설교 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연합성가대
6. 강사 김선도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



# 제 10 년사

## 주후 1984년



### 10대 교협 회장

뉴욕만백성교회(구, 스태튼아일랜드한인연합교회)

Marn Back Sung U.M.C. of NY

남학희 목사, Rev. Hyak Hee Nam

1250 Rockla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 10대 교협 임원

회 장 남학희 목사 선교분과위원장 김정국 목사

부회장 정승일 목사 교육연구위원장 강세대 목사

장 열 장로 목회연구위원장 방지각 목사

총 무 신의철 목사 사회봉사위원장 박재철 목사

서 기 이성철 목사 재정분과위원장 장제성 장로

부서기 안유광 목사

회 계 주선후 장로

부회계 한창수 집사

### 실행위원

김성남 목사 유제선 목사 장영춘 목사 박순종 목사

김용해 목사 김남수 목사 안창의 목사

## 교회협의회 임원 및 실행위원

회 장 : 남 학 희
부회장 : 정 승 의
부회장 : 신 영 철
총 무 : 신 의 철
서 기 : 박 기 대
부서기 : 주 선 우
회 계 : 한 창 수
부회계 : 한 창 우

선교분과위원장 : 김 정 국
교육연구위원장 : 강 세 대
목회연구위원장 : 남 학 희
사회봉사위원장 : 박 재 철
재정분과위원장 : 김 영 철

실행위원 : 남선순 송해수 이 김영철 박순종 남 창 안 김

##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 대뉴욕 전도대회 조직표 (1983—1984년도

고 문 : 김태업 김생한 김성남 류도일
박무길 박치순 윤계풍 안두선
류제신 류태연 윤희중 이경재
이낙주 정달인 정인우 조병철
서화정

지도위원 : 김용남 권오현 김병서 김영철
김이호 김형숙 박선도 박순종
엄예원 손영경 안홍선 이홍단
이수웅 이희철 임인화 장경림
정인영 조남은 조인현 차풍노
서도섭 한기덕 한진광

김영철 오종예 홍문영 도창복
류재욱 박규서 박승두 김정근
정재욱 김기창 심기도 김홍철
윤선오 강지욱 이승엽 이창학
지우전 심홍신 서영진 안홍섭
박대성 류학룡 임경남 한순영
곽근상 홍대룡 조 상 이규섭
김 산 이희룡 심윤섭 김제도
황희언 박시관 윤현국 최홍철
강우철 김홍룡 최광혁 고덕규
이홍우 장태순 주선영 백명일

명예대회장 : 김용주 김희중 민희소 신성국
류대영 장영춘 홍호균

대 회 장 : 남학희
부 대 회 장 : 정승일 (수석교헙)
장 영 (교협) 신의철(전도대회주관)
박재영 (미합중국장로회)
장석진 (미주한인성결교회)
이은수 (미국개혁교회)
이성희 (미주한인장로회)
정영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백용전 (침례회)
소경원 (대한예수교장로회미주대회)
김상모 (미연합감리회)
김남수 (하나님의성회)
김용철 (성공회)
임문영 (미주한인감리회)
이문구 (나사렛성결회)
장홍철 (루터교회)
김원기 (하나님의교회)
김진건 (그리스도의교회)
윤영오 (기독교연합선교회)

총 무 : 신의철
부 총 무 : 은영구 경도인 안유광
윤명기 양희철 차이철
서 기 : 박기대
회 계 : 주선우
부 회 계 : 한창수
감 사 : 김정국 이홍코
사무국장 : 이명룡

분과위원회

예배분과위원장 : 김용해
전도분과위원장 : 당지자
재정분과위원장 : 장해성
찬양분과위원장 : 김영철 심경용
섭외분과위원장 : 이성철
진행분과위원장 : 윤명호
홍보분과위원장 : 류홍장
원집분과위원장 : 박재철
안내분과위원장 : 백성호
통역분과위원장 : 김일광
시설분과위원장 : 김길홍
교육분과위원장 : 이후근
통역분과위원장 : 장세대 나우용
상담분과위원장 : 정용우
기록분과위원장 : 전태신
사회분과위원장 : 김대희
해외분과위원장 : 도진수
청소년분과위원장 : 고석희
교역자분과위원장 : 안창희



할렐루야' 84대뉴욕전도대회

# 1984년도 신년하레 만찬기도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1984년 1월 9일 (월) 오후 7 : 30~10 : 00
곳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NUK, FLUSHING, N.Y.)

주최 :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1260 ROCKLAND AVENUE, STATEN ISLAND, N.Y.
(212) 494-2737, 948-8080

# 1984년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순서

## 제 1 부 기도회 (오후 7 : 30 — 9 : 00)

사회 : 사회분과위원장 : 박재철 목사

전 주 ..... 음견 : 조정숙 선생
개 회 사 ..... 사 회 자
찬 송 .....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일어서서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만 어둠이 밀려오네
   슬픔과 재앙이 기쁨이 되나 시온의 영광이 비치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언된 종말이 돌아오네
   오래된 신자가 문무일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희소가 피고 갈라진 시냇물 흘리오네
   이상과 지상이 하루의 통리 주예수 온몸을 통솔하네
4. 할렐아 하나아 입은 겸당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이동과 과연과 동족들 예배 통장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 멘

*성시교독 ..... 67번 신년예배 ..... 사 회 자

주께서 세계에 빛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변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리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시102 : 25-27)
너희는 이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43 : 18-19)
너희는 주후의 복상을 버리 떡이며 가는 구습을 좇는 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4 : 22-24)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 : 17)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3 : 34)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대표기도 .....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김성남 목사
간증인사 ..... 회 장 남학희 목사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21 : 1 — 7 ..... 롱아일랜드 중앙교회 이성철 목사
헌 앙 ..... 퀸즈장로교회 성가대
설 교 ..... 내가 세상에 있노라 .....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특 송 ..... 퀸즈장로교회 김영애 선생
특별기도 ... (1) 한국선교 100주년과
할렐루야 84와 교회를 위하여 ... 우드사이드장로교회 방지각 목사
(2)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목사
(3) 미주한인교포와 교회를 위하여 ..... 뉴욕동부교회 박희소 목사




▲ 맨해튼에서 이단 종파 규탄대회를 가지고, 탁명환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퀸즈한인교회(한진관 목사 시무)에서 이단 종파 비판 집회를 개최했다.




▲ 이단 종파 비판 집회 예배 중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1360 ROCKLAND AVE. STATEN ISLAND, N. Y. 10314


EXECUTIVE COMMITTEE
President
Rev. Hae Soo Nam
212 948-4080
Vice President
Rev. Sung Il Chang
212 343-3324
Mr. Tai Chang
212 445-4704
General Secretary
Rev. Hui Chul Shin
201 549-5998
Clerk
(1) Rev. Sung Chul Lee
516 269-4159
(2) Rev. Tae Kwang Ahn
212 961-4852
Treasurer
(1) Mr. Sim Soo Joo
212 239-4367
(2) Mr. Kwang Soo Han
516 883-5647


수신 :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산 하 각 교 회 담 임 목 사 님
제목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대뉴욕 전도대회를 위한 전문인 소정 간담회 개최의 건

귀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에서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이라는 의미 깊은 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는 특별히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대뉴욕전도대회"를 개최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한 전문인제와 협력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심을 아오나 꼭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 다 음 —

일시 : 1984년 6월 5일(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교회 협의회 사무실
51 - 11 퀸스블루버드, 우드사이드
( 장미가구 2층 안쪽 사무실 )
전화 212 - 457 - 2733

1984년 5월 31일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남 희석 목사
총무 신 현균 목사


ACTING COMMITTEE
Rev. Dong Sun Kim
212 274-1554
Rev. Je Gun Yoo
201 354-2408
Rev. Young Choon Chang
212 966-1087
Rev. Soon Jong Park
212 567-4430
Rev. Yong Gae Kim
212 762-1241
Rev. Hae Soo Kim
212 749-6705
Rev. Chang Kui Ahn
212 899-7992

Mission Committee
Rev. Chang Kook Kim
203 439-2534
Education Committee
Rev. David S. Kang
212 539-7354
Pastoral Committee
Rev. Ji Kak Pang
212 439-5454
Social Committee
Rev. Jae Chul Park
212 567-4474
Financial Committee
Mr. Je Dong Jang
212 369-7050





##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 대 뉴욕 전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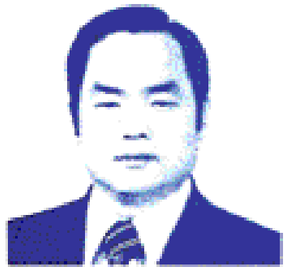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사43:19)
*"BEHOLD, I'LL DO A NEW THING" (Is.43:19a)*

**우리의 희망은 이제 어디에 있읍니까 ?**

인류의 구주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였으며, 억눌린 자 있으며, 버림받은 자 였으며, 배신을 당한 자 였으며, 불우한 자 였으며, 악질한 재판을 받은 자 였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실때 새 희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강 사
신 현 균 목사


청소년강사
박 종 기 목사


간 증
임 희 숙 집사

**1984. 7. 5. ~ 8 (매일오후8시)**

## 퀸즈칼리지 대강당 콜든센터

##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12) 457-2733

## 불같은 성령의 세례로 새 세기를 열자

한국 기독교 100주년기념 및 뉴욕 할렐루야 복음화 전도대회를 1964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개막하기로 하였다. 그때 한국 100주년 전도대회 축에서 뉴욕을 방문한 박목사님을 통해 100주년 전도대회를 같이 하자고 제의이 들어 왔으나, 뉴욕에서는 이미 전도대회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뉴욕에서는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할렐루야 복음화 전도대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롭게 거행했다.

다음

1. 뉴욕에 계신 모든 설도님들이 편하고 쉽게 올 수 있는 퀸즈 칼리지 강당 같은 센터를 교섭하여 개최 하기로 했다.

2. 이번 전도대회에는 100년전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헌신 수고하신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초청된 분들 *** 제임스 언더우드 4세.
   *** 사무엘 H. 마펫.
   *** 루르스 F. 헴트.

3. 강사 신현균 목사의 설교 후 질의의 시간을 갖고, 예수 복음을 믿아 드린 분들을 기도해 주고 결신카드를 받고 결신 신자들을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신앙 지도를 부탁 하기로 했다.

4. 뉴욕대회가 끝난 후 목회자들과 설도님들이 한국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합아서 비행기 2대를 Charter하여 뉴욕에서 떠날다. 그리고 비행기가 떠날 때 마다 목회자 들이 기도해 주었다.

5. 대한 항공에서는 목사님들을 위해여 한국 비행기 표 15매를 제공해 주어서 교협회장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전 하였다.

6. 한국 100주년 기념 대회에 뉴욕 교회협의회에 임원들이 참석했고, 뉴욕교협대표로 총무 신희철 목사가 기념 대회에서 축사 하였다.

이와 같이 은혜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및 뉴욕 할렐루야 전도대회장 남학희 목사
총 무 신희철 목사



## 대 회 사

### "땅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884년 9 월 2 일에 Horace N. Allen의료 선교사가 입국하였고 1885년 4 월 5 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부부가 제물포항에 입국한지 100년을 맞이하는 금년은 실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위대한 실천을 마라보는 감격과 흔흥의 해이다.

복음의 빛이 없었던 한국 강토에 기독교가 들어 오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전통과 재래종교의 여러 상통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복음이 전파 되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많은 희생이 치러졌으며 여러분 일거름으로 기독교는 아침의 광명이 생솟듯 더저 나오게 되었다.

이제 선교 100주년을 맞이 하면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자세로서 한국기독교의 모습이 부립되어야 하겠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이제 모든 교회가 하나이 되어서 과거 선진 구·미 각국이 담당하던 선교의 시역이 동양의 한국인주을 통하여 온세계에 전파되리라는 큰 비전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할것이다.

복과 및 시랑의 손길을 통하여 전래된 복음이 100 년 후 9 백만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민족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복음화 되지않은 이러국가에 100년 후 오늘의 기적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역사속에 부딩히 계속되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1964년 7 월 5 일

한국 기독교 100주년기념 대뉴욕 전도대회
대회장 남 학 희

# 성령의 세례로 새세기 열자

## 한국기독교 선교 1백주년기념 전도대회 개막

한국 기독교 1백주년 기념 대뉴욕 전도대회장 8층 할렐루야 전도대회가 5일 저녁 8시 퀸즈 칼리지 대강당 플러싱캠퍼스에서 성대히 개회됐다.

김홍혜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김성남목사의 기도에 이어 대회장인 남학희 목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것에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복음이란 하나의 사실인데 교회도시의 사명을 감당하자"면서 "이프 선교사 일행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뿌리는 옳는 신자가 한국내에 9백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제 제3세계로 선교해야 한다는 교회의 자세를 강조하는데 의미가 크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했다.

이어 순현주미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이 있은후 이종포목사의 성경 봉독이 있었다.

한국 1백주년 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인 강사 신현균목사 (성민교회 당회장)는 "성령의 세례를 받자는 주제로 설교했다.

뉴욕에서 마음껏 외쳐 보고 선교사 일행에 의해 1884년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기리기 위한 대축제로 막을린 전도 대회는 1백50 명으로 편성된 선발 성가대의 대합창을 곁들여 오는 8일까지 4일동안 저녁 8시에 개최된다. 3천명 이상의 교포들이 참석한 이날 전도대회는 인파된 복음을 1백년동안 지켜 오면서 이룩된 온갖 역경을 헤친 기독교도의 자축연으로 할렐, 미국내 17개 교단의한인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회와 신자들의 결속을 다지고 신자의 저변 확대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 5회째를 맞는 84할렐루야 전도대회를 경한 이번 집회는 뉴욕지구의 한인교회 모임인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남학희)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도한 같은 기간인 5일부터 7일까지 뉴욕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한국 기독교 1백주년 기념 성소년 전도대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뉴욕지구 교회 협의회 주최 대뉴욕지구 청소년 지도 위원회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

한편 이번 전도대회의 대회장 남학희목사와 총무 신의철목사, 대회본과 위원장 도진수목사, 사무국장 이영종목사는 지난 3일 오후 1시 맨해튼 강원 식당에서 기자 회견을갖고 전도대회에 관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표창을 받은 공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임스 언더우드 4세 ▲사무엘 H. 마펫 ▲브루스 F. 헌트 ▲김형숙목사 ▲김창덕목사.

### 교회 협의회 40페이지 선교지 배부

한국 기독교 1백주년 기념 행사 대회 주관회인 대뉴욕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 (회장·남학희)는 40페이지의 기념 특호 선교지를 발행, 퀸즈 칼리지 행사장에서 5일부터 무료로 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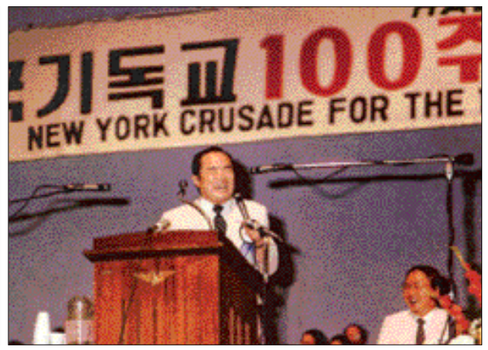
미국 한인교회의 80년 약사와한국 자유 선교사업 1백주년및 할렐루야 첫 초기 교회가 문을 연 99년전의 사진을 곁들인 기념 특호 선교지엔 대회장인 남학희목사의 "한국 선교 1백주년의 역사적인 의의"란 말씀사가 실려있다.

교역자 협의회장 이성희목사의 축사와 김정강사의 축시, 찬성도의 수필과 1백주년 행사의 준비경에 뉴스가 수록된 특호엔 각 교단의 약사와 최요섭목사의 논문이 눈길을 모으게 한다.

배달사고문의 679: 5454




▲ 대회장 남학희 목사와 강사 신현균 목사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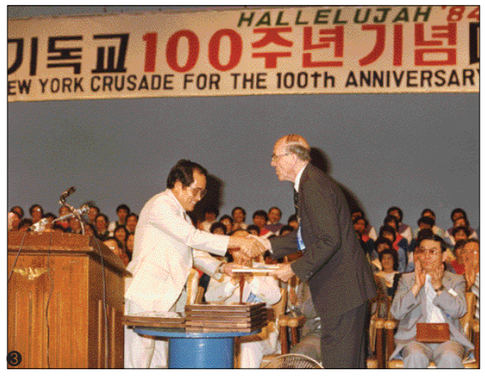

▲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신현균 목사



▲ 연합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성가대














1. 대회장 남학희 목사가 대회사를 선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
2. 말씀을 전하는 강사 신현균 목사와 은혜 받는 성도들
3. 대회장 남학희 목사가 브루스 F. 헌트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4. 대회장 남학희 목사가 새뮤얼 H. 마펫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5. 곽규석 장로가 감사패를 받은 분들과 담소하고 있다.
6. 예배 후 강사와 함께 기념 촬영



◇「한국기독교 1백주년 대뉴욕전도대회」 마지막날인 8일 퀸즈칼리지 대강당 클린센터에서 4천여 신도가 모인 가운데 한부선 선교사가 남학리대리점으로부터 한국신교 공로패를 받고 있다. <사진=권오철기자>

# "은혜·기쁨 한아름 안았다"

## 대뉴욕 전도회 폐막… 교포 4천명 참석

### 한부선씨·김형숙 목사등 표창받아

한국기독교 1백주년을 기념하는 대뉴욕전도대회 마지막날 집회가 8일 8시30분 엔즈칼리지 대강당 클린센터에서 성대한 부흥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일이며 전도대회 마지막날을 기념하려는듯 4천여명의 신도들이 강당안의 자리를 가득 메운가운데 김남수목사의 『한민족이 전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대한 사명감을 갖자』는 기도로 부흥회는 시작되었다.

이어 한국선교에 공이 큰 은퇴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선교유공자 표창장, 그리고 한인교회에 협력한 미국인에 대한 표창의 순서가 있었다.

표창을 받은 사무엘H 마펫 선교사(68·프린스톤 신학교 예술 메너슨신학교수)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라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지 1백년이 흘렀다』면서 『이자리에 서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한위렴(Willin B. Hant) 선교사 2세인 한부선선교사(81 Orthodox Presbyterian 교회)는 평양, 선주, 만주 등지에서의 선교활동을 회고하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지 1백년이 지난 오늘의 한민족은 민족에 있어서나 전도능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다』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대회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한부선선교사는 당시도중 간단한 워드와 제스처로 전도대회 분위기를 무드업게 유도하기도 했다.

탈천 언더우드 4세는 선친들의 위대한 선교활동을 계속 계승할 생각이라면서 『오늘의 성대한 집회에 참석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기쁨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선친들의 기쁨이 될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당사가 끝난뒤 4대째 5명째 목사가정인 김형숙(뉴욕 제장교회 담임)목사등이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신현균목사 (한국기독교 1백주년전도대회 준비위원장)는 『선교1백주년과 한민족의 사명』에 대한 설교에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한글에 비유해 격찬하면서 『한국인의 신앙을 전세계에 전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마지막날 대회가 폐회되자 참석했던 모든 신자들은 『은혜와 기쁨을 얻어 만족한다』면서 늦은시간에 귀가를 서둘렀다.

한편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남학희목사)는 9일 오전10시 엔즈에 있는 플랫모델에서 「전도대회 성공 감사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회협의회 관계 목사들은 연인원 1만2천여명이 모인 전도대회가 심령의 힘으로 무사히 끝나게 된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모국의 기독 1백주년 기념행사에 뉴욕지구 한인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 제 11 년사

주후 1985년



| 11대 교협 회장 |
|---|
| 뉴욕한인교포교회 |
| 이문구 목사, Rev. James K. Lee |
| 45-05 48 Ave. Woodside, NY 11377 |

## 11대 교협 임원

회 장 이문구 목사 (뉴욕한인교포교회)

부회장 김용걸 신부 (뉴욕한인성공회)

주선후 장로 (한길장로교회)

총 무 윤명호 목사 (뉴저지성은교회)

서 기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부서기 송병기 목사 (목양장로교회)

회 계 최원호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회계 한창연 집사 (뉴욕한인교포교회)

## 할렐루야' 85 대뉴욕 전도대회
## 대회조직표 및 분과업무 분담표

명 예 대 회 장 : 김용주목사, 김해종목사, 박희소목사
신성국목사, 윤태영목사, 장영춘목사,
홍호굴목사, 남학희목사
대 회 장 : 이문구목사
부 대 회 장 : 김용걸신부, 주선후장로
준 비 위 원 장 : 윤명호목사
총 무 : 최웅열목사
서 기 : 김천기목사 회 장 : 이문구목사(뉴욕한인나사렛성결교회)
부 서 기 : 송병기목사 부 회 장 : 김용걸신부(뉴욕한인성공회)
회 계 : 최천호집사 부 회 장 : 주선후장로(한길장로교회)
부 회 계 : 한창연집사 총 무 : 윤명호목사(뉴저지성은교회)
사 무 총 장 : 이병홍목사 서 기 : 김천기목사(뉴욕베데스다교회)
교 역 자 분 과 : 김용해목사 부 서 기 : 송병기목사(목양장로교회)
예 배 분 과 : 방지각목사 회 계 : 최천호집사(순복음뉴욕교회)
전 도 분 과 : 김정국목사 부 회 계 : 한창연집사(뉴욕한인나사렛성결교회)
재 정 분 과 : 박시관장로, 장제성장로
김동민전사, 민경한집사
성홍섭집사, 신수민집사
최광선장로
천 양 분 과 : 김호춘목사, 이병헌집사
섭 외 분 과 : 최웅택목사
진 행 분 과 : 양희철목사 선교분과위원장 : 최웅열목사(발리스트림나사렛교회)
홍 보 분 과 : 곽규식목사 교육연구위원장 : 손영구목사(뉴욕산정현교회)
영 접 분 과 : 한세원목사 목회연구위원장 : 안유광목사(가나안장로교회)
안 내 분 과 : 안유광목사 사회봉사위원장 : 백창건목사(새문침례교회)
동 원 분 과 : 임수식목사 재정분과위원장 : 박시관장로(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시 설 분 과 : 김길홍목사
통 역 분 과 : 이승운목사 실 행 위 원 : 김용남목사(뉴저지연합장로교회)
상 담 분 과 : 김철현목사 이성희목사(뉴욕열광교회)
기 록 분 과 : 백창건목사 이승운목사(루터신학대학원한인감리교회)
사 회 분 과 : 조정철목사 김남수목사(순복음뉴욕교회
헤 외 분 과 : 도진수목사 이은수목사(푸른스톤산교회)
청 소 년 분 과 : 손영구목사 방지각목사(효신장로교회) 표
김용해목사(뉴욕제일감리교회)

감 사 : 배성호목사(새한나사렛성결교회)
심홍섭집사(퀸즈한인교회)



할렐루야'85대뉴욕전도대회

# 1985년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1985년 1월11일(금) 오후 7시-10시
곳 : The Riverside Church
490 Riverside Drive at 122nd St.
New York, N.Y. 10027

## 주최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45-05 48th AVENUE, WOODSIDE, N. Y.

##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1985년 11대 회장 이문구 목사는 1월 11일(금) 오후 7시 리버사이드 교회(The Riverside Church)에서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가졌다. 사회는 사회분과 백창건 목사가, 기도는 퀸즈한인교회 한진관 목사가, 설교는 북부보스톤한인교회 최홍석 목사가 맡았고, 증경회장 홍효균 목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만찬 시간을 가졌다.




1985 년도

**부활주일새벽연합예배순서**

1985.4.7,6:00 A.M.
South Beech

사회 : 장석진목사
(뉴욕성결교회)

묵　　도……다 같 이
개 회 기 도……사 회 자
찬　　송…… 제159장 ……다 같 이
교　　독…… 제62번 ……사회와회중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기　　도……남학회목사
(스태튼아일랜드연합교회)
성 경 봉 독……고전15 : 29 - 34 ……사 회 자
특 별 찬 양 …… 연합성가대
설　　교…… 김영걸목사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기　　도……설 교 자
찬　　송…… 제150장 ……다 같 이
광　　고……사 회 자
찬　　송……제 6 장 ……다 같 이
축　　도……정달빈목사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1985년 4월 7일 부활절 새벽예배는 각 지역별로 모여서 드렸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Hallelujah 할렐루야 85

# 할렐루야'85 대 뉴욕 전도대회

##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라! 빛을발하라!" (사60: 1)

"Arise! Shine! for your light" (Is. 60:1a)









강사: 한경직 목사 간증: 김종기 목사 찬양: 김부라더스

1985. 7. 4. ~ 7 (매일오후8:30PM)

퀸즈칼리지 대강당 콜든센터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51-11 Queens Blvd. (2nd Floor) Woodside, N.Y. 11377 (718)457-1414





# 복음 모르는 교포에 하나님 말씀을…

## 「할렐루야 '85 대 뉴욕 전도대회」 4일 개막…한경직목사 뉴욕에 도착

4일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85 대뉴욕전도대회」를 앞두고 이번 대회의 주강사인 한경직목사가 2일 오후 5시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 전도대회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으로 뉴욕에 온 한경직 목사는 출타를 초월하여 뉴욕지역의 온 교회가 연합하여 전도대회를 갖는 이 한 회가 있다며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 복음을 모르는 교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말했다.

한목사는 8일간의 설교중 처음 이틀간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거나 신앙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교포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게 되며, 마지막 이틀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의 한인교회가 2백여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목사는 교회가 많으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친근해질 수 있으며 교우간에도 형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도운동, 사회와 국가를 위한 봉사운동 등은 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결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목사는 모교인 프린스톤 신학교의 초청으로 지난 6월 1일 도미, 동 신학교에서 한국기독교 발전의 공로로 훈장을 받고 마이아미, 시카고, 덴버 등지의 친지와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2일 할렘투아 전도대회에 참석키 위해 뉴욕에 온 것이다.

특히 뉴욕지구 교회협의회는 기독교 선교 1백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의 산증인이며 한국기독교 선교 1백주년 기념 사업협의회의 총재인 한경직 목사를 주강사로 초빙하여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갖게된 것이다.

6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할렐루야 '85전도대회는 퀸즈칼리지의 콜든센터에서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열리게 되는데 교회협의회는 교포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7번 서브웨이 메인스트리트 종점부터 콜든센터까지 수시로 버스를 운행한다.

또 교회협의회는 이번 한목사의 8일간 설교를 카셋트와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영구 보존하여 필요한 교포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뉴욕교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교포사회의 종교행사가 될 전망이다.



▲「할렐루야 '85 대뉴욕전도대회」가 4일부터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주강사인 한경직목사(현재)를 중심으로 개막된다. 사진은 지난해 「할렐루야 '84 대뉴욕전도대회」의 모습.

〈한국일보〉



유니포트
전찬혁 치과
DENTIST
42-22 UNION ST. FLUSHING
中央日
The Korea Centra
제6195 호
SATURDAY, JULY 6, 1985

# 막오른 「할렐루야'85」 뉴욕대회

## 2천여 신도 퀸즈칼레지 콜든센터 메워

### 한경직목사설교 「복음통해 주안에서 하나되자」

###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주최로 7일까지 계속













1. 할렐루야 '85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장 이문구 목사
2.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경직 목사
3. 금번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뉴욕에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성도들
4.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1. 김종기 목사의 간증하는 모습
2.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
3. 대회장 이문구 목사와 강사 한경직 목사와 나사렛성결교회 뉴욕연회 감독(Dr. Dallas D. Mucci) 등 순서 맡은 분들이 입장하고 있다.
4. 5. 김브라더스의 특송 시간





中央日報

THE KOREA CENTRAL DAILY
(USPS 682-890)
IS PUBLISHED DAILY EXCEPT KOREAN & U.S. LEGAL HOLIDAYS FOR $15 PER MONTH BY THE KOREA CENTRAL DAILY NEWS, INC., 25 W. 32 ST. NEW YORK N.Y. 10001.
발행인 : 김 석 성




# 할렐루야' 85전도대회 폐막

## 연인원 1만5천여명 참석해 대회사상 가장 큰 규모

THIS DAILY NEWSPAPER

# 제 12 년사

주후 1986년



## 12대 교협 회장

성공회뉴욕한인교회

Church of the Holy spirit Episcopal Korean

김용걸 신부, Rev. Yong Gul Kim

149-49 Sanford Ave. Flushing, NY 11355

## 12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용걸 신부 (성공회뉴욕한인교회)

부회장 김상모 목사 (뉴욕성서교회)

김정옥 장로 (새소망장로교회)

총 무 김형훈 목사 (뉴욕세광교회)

서 기 정태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부서기 손영구 목사 (뉴욕산정현교회)

회 계 최원호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회계 안범준 집사 (뉴욕염광교회)

감 사 김석형 목사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이한성 집사 (뉴욕세광교회)

회 장 : 김 용 걸 신부 (성공회 뉴욕한인교회)
부회장 : 김 상 모 목사 (뉴욕성서교회)
김 정 옥 장로 (새소망 장로교회)
총 무 : 김 형 훈 목사 (뉴욕세광교회)
서 기 : 정 태 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부서기 : 손 영 구 목사 (뉴욕산정현교회)
회 계 : 최 원 호 집사 (순복음 뉴욕교회)
부회계 : 안 범 준 집사 (뉴욕염광교회)
감 사 : 김 석 형 목사 (롱아일랜드 성결교회)
이 한 성 집사 (뉴욕세광교회)

## 분과위원장

선교분과 : 방 지 각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
교육분과 : 안 유 광 목사 (가나안장로교회)
목회분과 : 박 재 철 목사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사회봉사 : 최 원 택 목사 (뉴욕 한인감리교회)
홍보분과 : 황 경 락 목사 (뉴욕 목민교회)
재정분과 : 김 정 석 장로 (뉴욕 한인중앙교회)

## 실 행 위 원

권 유 순 목사 (웨체스터 중앙교회)
김 길 홍 목사 (낫소 한인교회)
김 남 수 목사 (순복음 뉴욕교회
김 정 국 목사 (뉴욕 한인교회)
신 의 철 목사 (에디슨 한인교회)
유 제 선 목사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이 은 수 목사 (부룽스 동산장로교회)
이 후 근 목사 (퀸즈 감리교회)
장 석 진 목사 (뉴욕 성결교회)
정 영 규 목사 (뉴욕 제일장로교회)
최 웅 렬 목사 (빌리스드림 나사렛성결교회)

할렐루야'86대뉴욕전도대회

# 1986년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1986년 1월 6일 (월) 오후 6시-10시

곳 : 퀸즈장로교회당

143-17 Franklin Avenu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주최 :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35-13 23rd Ave., L.I.C., NY. 11105

(718) 278-2187



# 삼일절기념예배및 단군전건립반대



대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3·1절기념 및 단군전 건립반대 기도회가 지난2일 7백여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군전 건립을 반대하는 그 기도회가 지난 3월2일 삼일절 제67주년기념 주일을 기하여 개최되었다.

2일 오후8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70여명의 목사와 7백여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3백여 교회, 8만성도를 대표해 단군전 건립발상에 극각 항거하는입장을 천명했다. 장장 2시간40분간 진행된 기도회는 초교파도로는 유일한 생존자인 이인재목사의 격앙높은 설교에 이어 「조국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조국교회와 모로교회를 위하여」「단군전 건립반대를 위하여」단 제목으로 3명의 목사가 특별기도후에 조국의 장래와 그리스도인들의 참회를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이날 채택된 「단군전 건립반대 결의문」에서 "단군전 신립은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로서 국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국토분열의 불씨"가 된다고 전제 "단군전을 민족의 신전으로 삼으려는 이 망국적인 발상에 대해 대뉴욕지역의 8만 기독교인들은 과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순교로써 거부한 것처럼 총립기하여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한편 본 교협에서는 뉴욕일원의 3백여 한인교회에 「단군전 건립반대서명서」를 배부 8만 기독교인들의 서명을 받는 대규모적인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최대구모의 부활절연합예배가 30일 오전6시 뉴욕 퀸즈장로교회의 대형 십자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5천여명의 교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지난 30일 뉴욕일대의 10개 지역 에서 일제히열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에 총 5천여명의 한인기독교인들이 참석, 기독교의 대축일인 부활절을 조용히 맞이했다.

이번 부활절 행사는 대뉴욕교회협의회 주최하에 열린 10개지역의 연합예배, 부활절 예배 참가교인수에 있어서는 최대규모이다.

플러싱지역 퀸즈장로교회에 7백여명, 우드사이드 지역 한성교회에 5백여명등 총 5천여명이 참석했다.

# 찬양과 간증의 밤

## 변화된 연예인들의 모습을 듣고 본다

본 교협주최, 한국일보 뉴욕지사 후원으로 뉴욕 퀸즈 지난 14일(금) 퀸스칼리지에서 개최된 「기독연예인 간증과 찬양의 밤」은 우중에도 불구, 약1천5백여명의 교포가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과거 화려했던 추억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주와 자녀로 변화된 연예인 12명의 신앙간증과 찬양의 밤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장장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출연진은 전 KBS아나운서 이광재씨를 비롯한 장년의 인기연예인 12명이었다. 이들 연예인들은 LA에 거주하면서 프리랜서 신앙생활을 하고있는 집사들로 15일(토) 밤은 뉴저지와 맨하탄으로 나누어 공연, 14, 15일 양일간 연인원 2천5백여명을 동원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일행들은 16일(주일) 각 교회 예배에 참석, 간증과 찬양을 하고 귀로에 올랐다.

"할렐루야 86" 대뉴욕 전도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던 기독연예인 간증과 찬양의 밤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행사였다. 한편 본 교협에서는 행사를 위해 후원해준 영호택 한국일보 뉴욕지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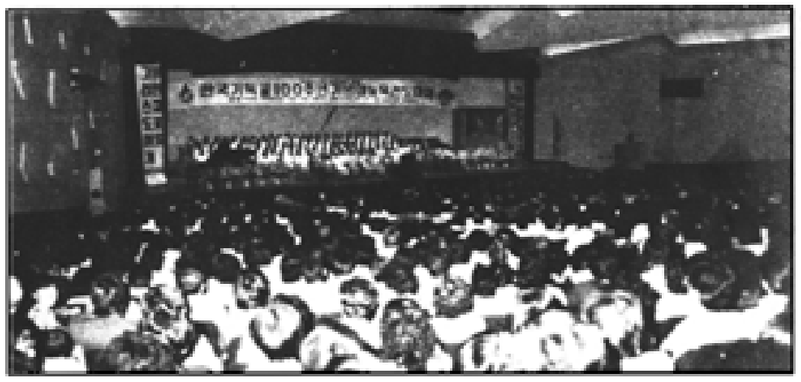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주최, 한국일보뉴욕지사 후원으로 14일 저녁 8시 퀸즈대학 에서 「기독연예인 간증과 찬양의 밤」에 1천5백여명의 교포기독교 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 막을 열었다.








# 김장환목사, 그는 누구인가



30세기의 위대한 선도자 「빌리그래함」 박사의 한국 전도대회는 교계 역사뿐 아니라 본국의 정치사업 그 등에를 몰아올 수 있는 엄청난 크게30만의 청중이 함께 했었다. 1973년5월의 어 놀라운 감회는 분에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독명의 빌리그래함 박사의 집도를 역지한 김장환 목사가 최계의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 다이다무의 세계적인 집중 시인 빌리그래함박사의 집도 일지라도 우리말로 전하는 통역이 없이는 상한 영혼 들 속에 감동과 변화을 일으킬수 없는 센터인기에 김 장환 목사에 대한 존경은 당연한 것이였다.

"김목사의 통역은 그래함박사의 초등하다 할리지할 제 어조어 제스처를 완벽하게 살려주었기 때문에 설 명과 특별하는 제스처는 예의도광장을 환원케 했었 다.

당시 나이 33세로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회하였 던 그는 한국기독교회 촉망한 인사가 되었다.

그후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놀독에서 그의 활약 이 넘치는 전도집회를 감출수 없게 되었다.

오는 7월3일 부터 7월6일까지 퀸스대학의 운동장은 센터는 성령의 역사를 역사가 함께 함성을 우리는 전 문의

김장환 목사. 그는 누구인가?

25년간 목회 해온 중앙교회의 기도의 터전과 함께 김장환목사는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과 아 세아 그곳 침례국립학교의 능력중화를 다지기위한 그 외 5개의 16개에 G.C동량에 힘써왔다. 무엇을 전생 했었다. 피난길을 분전하다 자리를 잡은 굳이에 굳 2사간별래 하루스 보이였다. 남당리 생리하고 무 하면 됐던 그는 그곳에 있는 미군중사 한 과외스에의 제에들을 한했다. 김씨의 도움으로 인생이 삶나기전 한 일년2월 그는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다.

김목사가 지금도 입지 못하는 것은 메사키선 신여 사 그에게 무디난 불은인당이다. 「네 조국에는아가능 로에게 복음과 영주주의를 위해 힘써라」 는것 김목사 는 지금도그은혜의 당층 가슴에 간직하고 실천하기위 해 힘실히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 센너간 그는 알존스대학 무속공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시알존스대학에서 정치를 전공했다.

1957년 그는 남테래일침례교회에서 빌리갠그래함 과의 만 명의이름 으로 여러분 목사 안수을 받았다.

그해 5월 알존스대학원에서 신학석사 (신약 전공) 학위를 받은 그는 같은해 11월 지독동사회 인교사로 임명되어 고국으로 파송되었다.

그는 한국사람이다. 미국국적도 아다하고 30년만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다. 전쟁과 오랜 외지생활에서 체하한 상한 심골과 무지한탓으로 목회와 질조신경 로, 말을 전과 사역에 최선의 헌신을 몰아넣고 있다. 오늘의 성도, 내일 등에 주시는 사역에 등 사역의 에 사의 심비관이 넘친다. 한국 국내의 수많은 지역 전 도대회를 인도했고 수십차례 국제전도대회에서 주강 사로 초청되어 설교했다.

김장환 목사의 멘터십교에는 작은집이 상한 미국인 들 조차 놀라워 한다. 동작같이 확정시킬 뿐더 처어 난 올변올바를 보여준 김목사는 주 올변대회는 물론 비국 전역을 상대한 어이센터위원을 수상하는 등 현재 적인 일꾼이을 지녔다.

**할렐루야 86전도대회를** 마친뒤 그는 최대 전도대 회에 이어 140여개국에서는 모이는 암호한의 전도지 들이 모이는 AMSTERDAM '86 전도대회를 네델란 드에서 주강사로 초대받아 설교할 예정으로 있다.

김장환목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최다넘의 별명을 관리는 도구로 쓰일 만는 축 출 전도자이다.





할렐루야'86 축 대뉴욕전도대회

1986년 7월3일 (목) - 6일 (주) 매일오후8시 퀸즈대학대강당 (콜든센타)

## "뉴욕을 그리스도 에게"할렐루야86









❶

1.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용걸 신부
2.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메운 신도들
3. 취재를 하는 보도진들

### 12대 교협 특별 사역

1. 교협 역사상 최초로 교협체육대회 시작
2. 교협 역사상 최초로 교협신문 발간



❷



❸

# 제 13 년사

주후 1987년



## 13대 교협 회장

뉴욕성서교회

Bib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NY

김상모 목사, Rev. Sang Mo Kim

1201 Call's Straight Path Dix Hills, NY 11746

## 13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상모 목사 (뉴욕성서교회)

부회장 김정국 목사 (한민교회)

황희언 장로 (뉴욕성결교회)

총 무 손영구 목사 (뉴욕산정현교회)

부총무 송병기 목사 (목양장로교회)

서 기 김석형 목사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서기 송석홍 목사 (임마누엘세계선교교회)

회 계 안범준 집사 (염광교회)

부회계 한대영 집사 (뉴욕산정현교회)



### 역사적 4대 이벤트

– 이사회 창설, 뉴저지교협 분립, 이단 규탄 성명, 선교 발레 무용단 공연 –

#### 이사회 창설

당시 교협은 200여 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었고 예산은 불과 10만여 불 정도였다. 수년 전부터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 조직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거품으로 돌아갔다. 반대 의견에도 일리가 있었다. 교회협의회는 사회단체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조직되면 간섭이 심하여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반복된 이견으로 수년이 흘렀다. 필자를 비롯하여 이사회 조직 찬성 교역자는 많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운다. 민주정치 의회제도, 시장경제, 자유평화사상이다. 미국 국회의 상·하 양 의회 제도는 민주 의회정치의 표상이다. 한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장이 되자 골치 아프다는 이사회 발족부터 서둘렀다. 반대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사회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랬더니 점차 찬성하는 교역자들이 많아졌다. 양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초대 이사회 회장은 교역자가 맡아 상호 염려를 잘 꾸려 나가기로 하고 이사회를 조직했다. 교협 창설 11년 만에, 회장 13대 만에 이사회가 발족되었다. 단순한 재정 후원 정도의 이사회를 지양하고 각 교단의 평신도 대표들을 포함한 상임이사회와 회기 이사단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더 발전적인 이사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 뉴저지교회협의회 분립

당시 뉴저지에는 교회가 40여 개 있었다. 해마다 뉴저지교회협의회 분립 안건이 불거져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뉴욕 교역자들 대부분이 반대했고 의외로 뉴저지 출신 증경회장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이유는 둘 다 약체로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멀어 뉴욕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고, 한인교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성장한 교회들과 경쟁하는 교역자들이 많았다.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필자는 분리가 빠를수록 발전이 빠를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뉴저지교협 분립을 찬성하고 있었다. 회장 피선이 되면서 총회에서 사회봉을 인계받아 뉴저지 분립 안건을 장시간의 토의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성교회에서의 총회는 자정이 넘어 새벽 1시에 폐회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뉴저지교회협의회가 탄생되었다.

### 최초로 이단, 사이비 기독교 규탄 성명 발표

1980년대 초반부터 이단 및 사이비 교회들이 뉴욕 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단대책특별신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협 역사상 최초로 이단 교회와 사이비 기독교의 명단을 들어 규탄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세계적 기존 이단 교파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한국산 이단 교파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이다. 다음 해 1987년 메모리얼 데이 청소년 배구시합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이다. 소위 한국의 구세주 '말씀의 아버지' 파의 사람들이 운동장의 본부석으로 쳐들어왔다. 조폭 냄새가 나는 그들과 당당히 맞섰다. 당시 플러싱 유니온 상가에 위치한 교협 총무 손영구 목사의 선교관을 빌려 교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협 사무실에도 나타나 위협하였다. 한국 입국 수속 불가 공갈 협박도 받았다. 이단들로부터 항의가 왔다.

이로 인해 이단들이 뉴욕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뉴저지 변두리로 잠적했다고 했다. 뉴저지의 모 교회는 그 후 수년간 이단성 문제로 교협과 끈질기게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최근 교협이 이단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행이다.

### 할렐루야 대회에 선교 발레단 초청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벤트가 있다. 1987년 할렐루야 대회 때 한양대학교 무용과 조승미 교수가 이끄는 선교 발레단을 초청한 것이다. 경비는 숙소만 제공했다. 성가합창단 혹은 성극 등은 익숙하지만 남녀 30여 명의 현대 발레단의 공연은 교협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사건이었다. 퀸즈 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된 본 대회 한 시간 전부터 선교 발레의 공연이 화려하게 열렸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술을 통해서 표현되며 선포된다"는 신학자 폴 틸리히의 말과 같이 고금으로부터 기독교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였다. 각종 악기, 노래, 시, 그림, 조각, 건축, 공예, 문학, 무용, 모든 예술을 통하여 신앙이 표현되고 있다.

찬송가와 성가대의 찬양만이 익숙한 한국 신자들에게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발레단의 무용을 통해서 살로메와 세례 요한,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수난 등을 발레로 관람하며 은혜 받기는 처음이었다. 박수 치며 복음 성가를 부르면 이단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하던 60년대, 70년대를 지나 겨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집회나 부흥회 때 박수 치며 찬양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던 1987년도였지만, 전도집회 때 발레단이 강단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보수 경향의 한국 교인들에게는 찬반의 여론이 되기도 했다. 임원들을 설득하여 초청하고 단행했다. 선풍적인 선교의 장르로 반응이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

무슨 뒷거래가 있어 발레단을 초청한 줄로 오해하기 쉽다. 전혀 알지 못하는 조승미 교수다. 선교 발레단이 미국 공연 알선에서 사기를 당하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전 단원이 허탈감에 빠졌을 때 지도교수인 조승미 교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난 조승미 교수는 뉴욕교협 회장 아무에게 전화를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장거리 전화를 했던 것이다. 나는 자초지종을 듣는 순간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폴 틸리히의 말이 떠올랐고 발레 선교의 전위적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모 목사

제13대 교협 회장 (1986~1987)

## 87년도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 임원및분과위원장

### 임원진

| | | |
|---|---|---|
| 회 장 | 김상모 목사(뉴욕성서교회) | (516)864-1310 |
| 부 회 장 | 김정국 목사(한민교회) | (718)639-2536 |
| 부 회 장 | 황희헌 장로(뉴욕성결교회) | (718)967-2914 |
| 총 무 | 손영구 목사(뉴욕산정현교회) | (718)939-0182 |
| 부 총 무 | 송병기 목사(목양장로교회) | (718)651-6603 |
| 서 기 | 김석철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 | (516)746-4084 |
| 부 서 기 | 송석홍 목사(임마누엘세계선교교회) | (718)961-6178 |
| 회 계 | 안법준 집사(엠광교회) | (718)225-4810 |
| 부 회 계 | 한대형 집사(뉴욕산정현교회) | (718)428-5677 |

### 분과위원장

| | | |
|---|---|---|
| 선교분과 | 권유순 목사(웨체스타중앙교회) | (914)235-9785 |
| 교육분과 | 이종형 목사(뉴욕동광교회) | (718)423-5199 |
| 목회분과 | 윤명호 목사(뉴저지성은장로교회) | (201)239-7482 |
| 역사자료분과 | 정태진 목사(뉴욕침례교회) | (718)271-6598 |
| 여성분과 | 홍인숙 집사(YWCA총무) | (718)353-4553 |
| 체육분과 | 정도인 목사(세소망장로교회) | (718)961-2155 |
| 음악분과 | 김바울 목사(우드사이드장로교회) | (718)476-0133 |
| 홍보분과 | 김희기 목사(뉴욕베데스다교회) | (718)386-6432 |
| 재정분과 | 강지원 장로(순복음뉴욕교회) | (212)532-5067 |
| 청소년분과 | 안유광 목사(뉴욕가나안장로교회) | (718)961-4852 |
| 사회분과 | 정영환 목사(뉴욕한성교회) | (718)426-8836 |
| 국제분과 | 이승운 목사(후러싱제일감리교회) | (718)939-8599 |
| 청년분과 | 김영걸 목사(스테이튼아일랜드연합교회) | (718)967-4720 |
| 노인분과 | 김종원 참령(구세군뉴욕한인영문) | (718)461-4282 |



## 87년도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 이사및임원

| | | |
|---|---|---|
| 이 사 장 | 방지각 목사 | (718)429-3654 |
| 부이사장 | 허 걸 목사 | (718)803-6378 |
| | 이은수 목사 | (212)652-5659 |
| | 박시권 장로 | (718)745-0775 |
| | 김철진 장로 | (718)470-1022 |
| 서 기 | 박수철 목사 | (718)358-1255 |
| 부 서 기 | 정용두 목사 | (718)352-6843 |
| 감 사 | 장승철 목사 | (718)939-7573 |
| | 신진식 장로 | (201)494-0477 |
| 이 사 | 장바울 권사 | (718)229-6066 |
| | 윤성호 신부 | (201)488-8470 |
| | 김중환 | (201)488-8470 |
| | 홍대순 장로 | (718)224-5003 |
| | 김홍해 목사 | (718)762-1241 |
| | 임형무 장로 | (212)364-7641 |
| | 정승일 목사 | (718)343-3374 |
| | 서원식 장로 | (516)692-2716 |
| | 송동수 장로 | (718)639-5194 |
| | 오승한 장로 | (718)961-0786 |
| | 김성남 목사 | (718)461-8095 |
| | 박석린 목사 | (201)967-1873 |
| | 김우선 장로 | (718)803-0223 |
| | 이희창 장로 | (718)456-2866 |
| | 윤용호 목사 | (914)365-1965 |
| | 장영춘 목사 | (718)428-4434 |
| | 현진관 목사 | (718)961-7516 |
| | 김남수 목사 | (212)840-3444-6 |
| | 장 열 장로 | (212)714-9830 |
| | 성기표 부교 | (212)532-8262 |
| | 오다니엘 권사 | (201)461-7771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 새회장에 김상모목사 선출

### 이사회 신설·이단종파와 사이비교역자 규제책 통과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9월29일 오후8시에 뉴욕한성 교회에서 139개 회원교회 중 103개 교회의 교역자 101명, 평신도 대표 82명과 교계 인사들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영춘목사 (중경회장) 의 "파수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성경본문 이사야 21장1-12) 라는 제목의 설교를 경건회가 있은 후,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29일 한성교회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김상모목사를 선출했다. 크리스천신문 335호 1986. 9. 29

동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뉴욕 성서교회 김상모목사, 부회장에 한인교회 김정국목사와 뉴욕 성경교회 황사손장로를 각각 선출하고 기타 임원선출은 관례에 따라 회장단에 위임하였다. 동총회에서는 이사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이단 종파와 사이비 교역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새회칙을 확정 통과 시켰으며 뉴저지 교회협의회 분립문제가 상정 되었으나 의견이 일치 될때까지 보류키로 하고 신임 위원과 실행위원회의에서 조정 결정토록 하였다.

토요일 종교 조선일보 1986년11월29일

# 정신문화결집에 교회가 나서야

### 13대 교협회장 김상모 목사



○제13대 교회협의회회장 김상모 목사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13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모목사(뉴욕성서교회시무)로 부터 그의 교회관과 13대 교협의 사업계획을 들어 보았다.

서울출신인 김목사는 연세대 신학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바로군복무, 이화여고교목을 지냈고 72년 뉴욕주 롱제이스 보헤스터 신학대학원 장학생으로 도미, 이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뉴저지 드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협회장을 맡게된 소감은.

▲교협회장이라는 자존은 영예적이 아니며 권력을 갖는 직책도 아니다. 다만 대뉴욕지구의 240여 교회를 생기는 자세로 봉사할 결심이다.

-13대를 맞은 교협이 역사적 가장 중요한 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포는 타민족이 갖지는 근면, 정직성으로 놀라운 성장과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변하주의 사고방식도 생겨 온도로 타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적이이 결여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장전할을 잃어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경제적인 부가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교협은 부의 축적을 위한 성장속에서 소홀했던 정신적인 부를 위해 교포사회에 봉사를 전개하려 한다. 또 각교회의 정신적 연합운동으로 이어져온 힘찬 부흥선도대회를 계승하고 민족문화를 보전, 발전시켜 미국은 물론 한국 차세대 2세에게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모금사업도 힘찬 해정이다.

교협 자체를 위해 13대회장으로서 하실 일은?

▲여러명 교협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뉴욕지역의 본 교회가 참석하지 않고 옆서중인 이 옆서 교회가 참석하고 있다. 13대 교협부터는 16대교단 345여 교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협을 만들기 위해 힘써 회장중심제에서 명실공히 협의회라는 기능을 살려 구회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임원회, 실행운과위원회등 3부의 특징과 기능을 살려 운영해 나갈 것이다. 13대는 공회의 실험단계라고 할수 있다.

-한때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느니고 논란이 된적도 있다. 이민사회 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미국에 「정신」을 갖고 오지 않은 민족은 살아 남지 못했다. 한인들은 교회를 기지로서 살았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탄압과 전란을 치르면서도 한민족 정신문화를 결집하고 사회문화를 존속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다. 이런 한국교회는 미국 이민사회에서도 정신적 중심이 되어 공헌하고 있다. 도인비기 지저렵인데로 국가가 없이 오늘날까지 생존해온 유태민족은 아모 그들의 종교가 낳은 기적이다. 우리 이민사회의 빠른 성장과 성공도 교회를 중심으로 결집된 한민족의 신앙에 힘입은 것이다. 힐튼 할 모이스는 이민사를 연구하면서 이민속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 그 이후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로 소속감이라고 말했다. 이 소속감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교회의 수를 놀라운 특징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회는 사회적 필요에른 늘수 밖에 없다. 더이 분열하고 마찰하더라도 늘고 발달해 나가면서 미주사회에 공헌할 것이다. 지지와 여부를 떠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교협에서 하는데에 어떤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되신 동기는?

▲우리 집안은 김씨고 3대목사였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6·25때 공산군에게 총기명서 세포은 소명을 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공산군의 손에 달아 돌아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사실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교회에서 장례예배중을 지도 나가지 않고 산속에 숨어 있었다. 여집을 걸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교회 목소리를 듣고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누가 여기를 보나」하고 기도를 하다가 「네가 하든 일다」 음성을 들었다. 그때 부터 날라면서 받은 소명이 내가 목사가 된데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승우 기자〉

## 회장 중심제 탈피 협의체로 운영할터
## 분열하고 마찰하더라도 늘고 발달해야

### ◇교계 동정

▲베수 기도신교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7시 부흥기도회(135-12A Roosevelt Ave Flushing)서 송광일 목회장 공산권선교고교회를 갖는다.(718-353-3438)

▲C & MA 고단은 연합추수 감사사예배를 29일 오후4시30분 갈보리교회(123w 57st NYC)서 갖는다.(718-539-9472)

▲뉴저지한인성공회(신부 천요나단)는 30일 오전11시 추수감사절 미사를 갖는다.(160 Palisade Ave Bogota 201-342-7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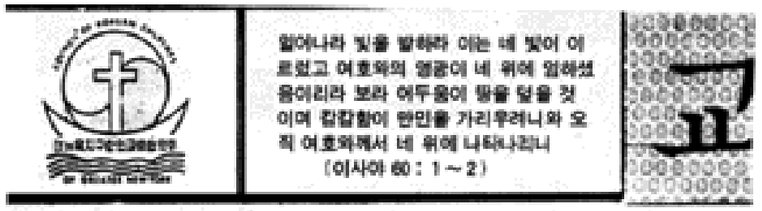
▲오예가선교교회(목사 최종석)는 30일 오후5시 교회창립예배를 갖는다.(45-02 Gillman Ave sunnyside 718-939-5720)

▲뉴욕한인 YWCA신임생활부주관 12일 정기 T세콜비 오는 1일 오후8시에 열린다.(718-353-4553)

▲만하탄 제일교회(목사 김원배)는 창립 4주기념 예배목사 소청 심방부흥회를 12월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후8시에 갖는다.(135-25 45Rd Flushing 718-359-7128)

▲손장장도교회(목사 이정석)는 창립1주 기념 부흥집회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갖는다. 장소는 손집송목사이며 시간은 오후8시30분(98-54 Horace Harding Expo Park 718-271-8505)






신 년 사

# 교회와 사회

김 상 모 목사(본협의회 회장)



새해에도 대뉴욕지구 350여 교회와 15만 교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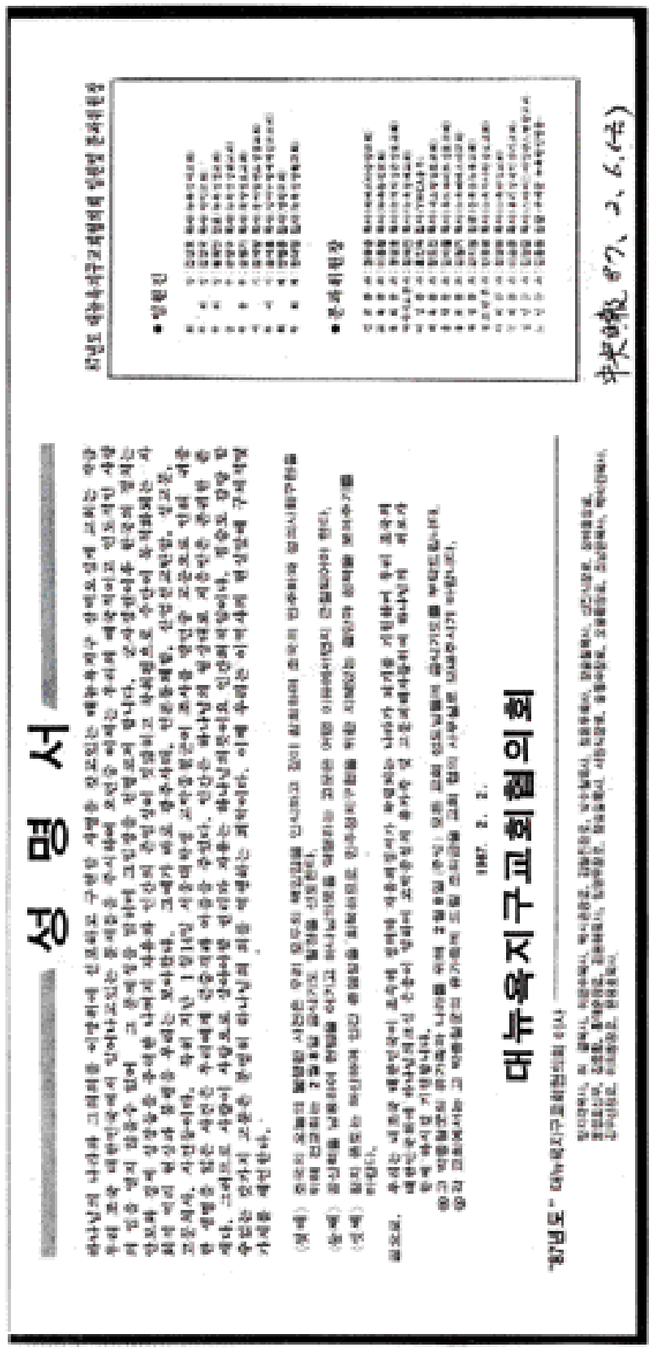
새해를 맞이하면서 크리스챤으로서의 시대적 사명과 성도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다음 세가지를 늘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겠읍니다.

첫째, 성도으로서의 인격과 자질 함양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피인의 입에 서지 말아야 하며 악인의 뜻에 따르지 말아야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늘 성령충만 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 사회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힘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부정과 인종차별과 폐해등로 말미 거룩교림회 당실적 정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우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수민족 및 특히 흑인사회의 최대 다수의 



# 조국현실을 위한 금식기도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1987년 6월 14일 오후 8시

곳 : 우라성 한인 제일감리교회

147-46 38Ave.
Flushing, N. Y. 11354
(718) 939-8599

## 주최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6-16 UNION ST. # 3R FLUSHING, NY. 11354
718 539-9472

# 조국현실을 위한 금식기도회 순서

1987년 6월14일(주일) 오후 8시 — 사회 : 뉴욕 한성교회 정영원 목사

| | | |
|---|---|---|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
| *애 국 가 봉 창 | | 다 같 이 |
| 대 표 기 도 | 뉴욕 동양제일교회 | 김 일 광 목 사 |
| 인 사 말 씀 | | 회장 김 상 모 목 사 |
| 성 경 봉 독 | 벧전 2 : 20~25 | 손 명 걸 목 사 |
| 특 송 | | 진 기 화 |
| 설 교 | '외'에 사는 능력 | 손 명 걸 목 사 |
| 특 별 기 도 | 1. 조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 순복음뉴욕교회 김 남 수 목 사 |
| | 2.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 뉴욕동광교회 이 종 형 목 사 |
| | 3. 민주화와 양심수와 그 가족을 위하여 | 목양장로교회 송 병 기 목 사 |
| 선 언 문 낭 독 | | 총무 손 영 구 목 사 |
| 광 고 | | 사 회 자 |
| *폐 회 찬 송 | 261장 어둔밤 마음에 잠겨 | 다 같 이 |

1. 어둔밤 마음에 잠겨 역사여 어둠 짙었을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밝아에 새롭다 이날 삼각에 읽혀 이땅에 생명탑 높아간다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도 즐기기기 손을에 가지일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입문을 부른다 하늘 비맛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 닦은샘 즐기 용솟아 기치른 땅을 흘러 적실에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박 드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김이 머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축 도 — 성공회 뉴욕한인교회 김 용 걸 신 부

후 주 — 반 주 자



# 할렐루야 '87 대뉴욕전도대회 조직

**명예대회장 :** 류태영 김해중 장영춘 신성국 김용주 류효균 남택희 이문구 김용설

**명예부대회장 :** 김형제 오주여 김영철 장 일 주신부 조장옥 김성욱

**지 도 위 원 :** 김성남 정승일 유제신 최효섭 한진관 박재영 조익현 박성룡 백제원 조남손 박순종 안중식
김병도 이희철 윤용오 김용래 이성철 정달인 장덕진 차룡로 최용렬 이성희 신희철 조병철

**준 비 위 원 :** 김길후 신희철 이춘수 이두근 장동찬 정영규 최용덕 김상한 박덕인 임순영 권오현 조정철
이승일 한기범 전상한 박정오 김이호 윤태인 안도명 한윤택 임인환 정인영 류도일 안장희
나영윤 김대희 강제대 김형룡 나구용 이춘섭 김주만 황현호 최당인 황경덕 이 철 백창권
이영희 배성호 김윤남 김철광 임철빈 원성호 이난주 윤성태 박제철 최원택 도진수 김수철
최일호 김인일 장상혁 허 건 박수철 장승일 고석희 이학로 심천철 임기태 류홍광 홍대윤
양승욱 최병우 김시환 박근억 오만수 김장환 조영철 주성영 정용우 김리관 정규식 유근현
한영수 김선량 김인환 정정만 민병렬 고석헌 김수헌 김명석

**대 회 임 원 :**
대 회 장 : 김상모 — 부 대 회 장 : 김정국 류희인 방의각
준비위원장 : 손영구 — 총 무 : 송병기
준비부위원장 : 민윤승 김남수 양희철 — 서 기 : 김석형
회 계 : 임영준 — 부 서 기 : 송석홍
부 회 계 : 한태형

**분과위원장 :**
예 배 분과위원장 : 정영환 — 동 원 분과위원장 : 이명룡 — 통 역 분과위원장 : 이승운
교역자 분과위원장 : 조정철 — 친 교 분과위원장 : 김원기 — 시 설 분과위원장 : 우수환
홍 보 분과위원장 : 곽규석 — 봉 사 분과위원장 : 김준한 — 섭 외 분과위원장 : 정도인
안 내 분과위원장 : 김승희 — 의 료 분과위원장 : 정낙진 — 영 접 분과위원장 : 윤형호
해 외 분과위원장 : 한세현 — 전 도 분과위원장 : 이종형 — 상 담 분과위원장 : 김영경
음 악 분과위원장 : 김하늘 — 진 행 분과위원장 : 한재홍 — 여 전 도 분과위원장 : 류인숙
기 록 분과위원장 : 정대진 — 청소년 분과위원장 : 안유광 — 재 정 분과위원장 : 강지현
결산도 분과위원장 : 박시관

**이 사 및 임 원 :**
이 사 장 : 장덕각 목사 — 이 사 : 장마을 권사, 홍성호, 신부 김종환
부 이 사 장 : 허 건 목사 — 류태순 장로, 김용래 목사, 임영무 장로
이춘수 목사 — 정승일 목사, 서현석 장로, 송동수 장로
박시관 장로 — 오용환 장로, 김성남 목사, 박덕인 목사
김철진 장로 — 김부선 장로, 이희창 장로, 윤용호 목사
서 기 : 박수철 목사 — 장영춘 목사, 한진관 목사, 김남수 목사
부 서 기 : 정용우 목사 — 장 일 장로, 성기표 부교, 스테니엘 권사
감 사 : 장승철 목사
신권식 장로

◆광고◆ 1. 본대회 일정과 강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청소년대회 B. 선교무용단 발표회 C. 본대회

## A. 청소년 집회

일시 : 7월2일(목)~4일(토) 오전10시
강사 :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강사 : Charles Ferrara
한하한 검찰관 근무 15년(검찰)
청소년집회 강사
드류신학대학원 재학중

강사 : 정진경 목사
서울신학대학교수 및 대학원장 역임
서울신학대학 이사장 역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역임
한국성서공회 이사장 (현)
신촌교회 담임목사(현)

## B. 선교무용단 발표회

일시 : 7월3일(금)~4일(토) 오후6시
장소 : 퀸즈대학강당
발표팀 : 한양대학교 선교무용단장 조승미

## C. 본 대 회

일시 : 7월 2 일(목)~5일(일) 오후8시
장소 : 퀸즈대학 강당 교수 회 37명


20만 교포를 그리스도에게!
위의 표어를 주제로 개최되는 할렐루야 87 뉴욕전도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A. 청소년집회
일시 1월2일(목)~3일(토) 2:30P.M. 8P.M.
장소 Charles Terrace
강사 정진경 목사
B. 신교구봉헌 합동집회
일시 1월3일 4월 오전 9시
장소 본대회장
강사 김상도 목사
할렐루야 87 뉴욕전도대회 준비위원장 손영구 목사
Hallelujah 87
718 939 9472 / 718 762 4644





교협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NEWSPAPER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

이스라엘 땅을 밟아라 이는 내 힘이 미
르침과 이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심
줄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
이며 캄캄함이 민족을 가리우리니와 오
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나타나시고
(이사야 60 : 1 ~ 2)

## -제 8 차 할렐루야87전도대회-

#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

교협회장 김 상 도 목사



주는 전도대회이 앞도 한인교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교회성의 복음수업으로서 그 의미는 자못 큰 것입니다.

또에도 본 전도대회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주님의 종부에선 입술에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인출한다는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대회란 말로서 배가부교인한을 목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는 우리를 지은 이 다이 한낱 전도의사명을 외치하고 그 힘을 받아 모으는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로 구약시대의 텍스버랑함에 모인 이스라엘의 집회의 같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기독교인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를 구심점에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는지 못한는지 죽음을 문제해 합니다.

성제로 함께 모이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소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인은 모두가 한데 모여 열심히 기도한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초순을 다가에 다짝당에 모임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대뉴욕지구의 350여 교회가 한데 모이는데에 우린 큰 의미가

## 「할렐루야'87」 준비기도회

### 7월2일~5일 주강사 정진경 목사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회장 정성조목사)는 「할렐루야 '87」 전도대회를 위한 제2차 준비기도회를 뉴욕신정통교회(담임목사 손영구)에서 4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하에 지난 11일 오전11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담임강목사(뉴욕성령교회)의 사회로 시작,김인환목사(뉴욕벤할렐교회)의 기도,최광진목사(남서울장로교회)의 「지도자가 갖는 3대 특혼」이란 설교가 있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할렐루야 '87」 전도대회,350여 뉴욕 일원의 교회와 신자,전 뉴욕으로,정진경강사님께 순이하시는 모든 은집 위에 주님의 손길에 깊이 의지함을 기원하는 한편기도에 이어 이낙주목사(뉴욕조대교회)에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뉴욕교포를 그리스도에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할렐루야 '87」 전도대회는 7월2일(목)-4일(토)까지 퀸즈테라 샬롯센터에서 김시택의 주강사로는 정진경목사(신촌 성결교회)를 초청하게 된다.

청소년 집회는 7월2일(목)-4일(토) 오전 10시 퀸즈 장로교회(장진목사 담임)에서 실시되며 강사로는 Charles Ferrara씨(그룹 선택에 따른 세특강)를 초청하게 된다.

교회협의회에서는 금 전도대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박행순집도사(뉴욕순장협교회)를 간사로 임명했다.

전도대회를 위한 문의결과 헌금을 알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718)762-4644 교회협의회 전용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놀라 성령장로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 '87 전도대회 지난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The Korea Times

SECTION (A1) Issue No. 5550 1987년7월4일 (토요일) (일간) 40-02




"스스로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 할렐루야 '87대뉴욕전도대회 개막

대표기도순서에서 안유광 목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며 "조국이 민주주의와 인격의 존중이 지켜지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회장 김상모 목사는 대회사에서 "복음화와 정의 사회 구현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키 위해 우리는 주안에서 믿음의 결속과 87 전도의 기치를 들고 복음의 대행진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지각 · 김영걸 목사의 강사 소개 · 성경봉독 후 연합 성가대의 합창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약 1백명이 등원된 연합성가대는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참석자들의 통성기도 후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결신자 60~70명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했다.

이문자씨의 특송 후 손영구 목사는 할렐루야 전도의 성공적 개최와 코프들의 복음화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으며 장영춘 목사의 축도로 첫날 전도대회는 막을 내렸다.

한편 청소년 전도대회도 퀸즈장로교회에서 7백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으며 페라라 전도사의 설교로 몇몇 청소년들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할렐루야 전도대회는 5일, 청소년 전도대회는 4일까지 각각 저녁 7시,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3일부터 5일까지 조승미 선교발레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명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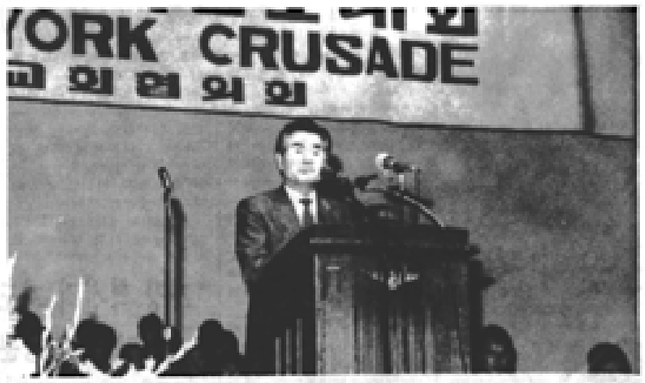


할렐루야 87뉴욕전도대회 스케치

뉴 욕 한

# 참신앙으로 "뉴욕을 그리스도에게"

## 할렐루야 '87대뉴욕전도대회 성료…선교발레단 공연도




▲할렐루야 '87 뉴욕전도대회가 5일 성황리에 폐회됐다. 사진은 설교하는 강사 정진경목사.

# 할렐루야 '87 전도대회 성황



◀마음과 정성을 바쳐 기도를 하는 교인들의 신앙은 참열하고 뜨겁기만 하다.







▲전도대회에 첫선을 보인 「초승미 선교무용단」은 환상적인 무대조명과 예술을 통한 신앙의 표현으로 고인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도대회의 마지막 밤을 수놓은 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모습

〈사진=이승환기자〉







▲5일 대강당을 가득 메운 2천5백여명의 교포들이 강사 정진경목사의 설교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뒷모습의 사람들은 고형 임원목사들과 연합 성가대원들.





(A 6) 1987年7月7日 (火曜日) The Korea Times New York

# 할렐루야 '87 청소년집회 성황

## 목사 10여명 인솔하에 청소년들 신앙증진과 친목 다져

청소년들의 신앙증진과 친목을 위한 할렐루야 '87 청소년집회가 3일부터 4일까지 퀸즈장로교회에서 성황을 이룬 가운데 폐회됐다.

연 인원 1천2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청소년 집회는 총3년 목표성가 및 찬양을 노바선교단의 인솔, 찬양 복음 메시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뉴욕성정교회의 한마음 노바선교단은 3일 주간 1부 「십이를 시간에 복음성가와 찬양을 인도, 복음 메시지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뉴욕성정교회의 한마음 노바선교단은 3일 주간 1부 「십이를 시간에 복음성가와 찬양을 인도, 복음 메시지 등으로 진행됐다.

## "전도의 열정 끝없이 품어야 한다"

### 정진경 목사, 기독교인·교회의 복음사명감 강조

이날 순복음 사회로 진행된 3일째 집회에선 이목사의 「세계복음화의 초역인 주의를 위한 기도」 찬양과 조용기 목사, 양희철목사의 메시지도, 연합성가대의 대합창이 대강당에 가득히 울려퍼졌다. 집회인원 조승이 전교장에 다음 공연이 나 시간동안 진행됐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란 제하로 한만한 증성의 정진경목사는 "교회는 세상속에 있다"고 강조한 뒤 "기독교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보는 종교"임을 일깨웠다. 정목사는 조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항문을 열어야 하고 교회의 시상의 힘들이 집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명으로 구성된 「조승이 선교무용단」은 전도대회에 참석을 보여, 매일 저녁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할렐루야 '87 청소년전도대회」가 3일부터 4일까지 퀸즈장로교회에서 청소년·주보들의 많은 관심속에 폐회됐다.

목사는 메시지에서 "앞로 오래 믿은 교인보다 초신자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전도의 열정을 잃없이 품어야한다"고 말했다.

교협부회장 김정목사는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전도대회의 행물과 함께 신교회 새로운 부흥을 한다"는 메시지를 남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과 죄 예수가 인류의 산당임을 증언하여 ▲교회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교제하를 목숨하하고 ▲자유·정의·정의사회를 이루할 크리스천으로서의 역할을 가져 신교적 신앙운동을 이할 것이라고 언언했다.

교협회장 김상로목사의 메시지에 이어 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 합창후 지난해 교협회장 김종철신부의 축도와 함께 5일간의 전도대회는 조주 폐회됐다.

(이명석·고재욱 기자)

편집문의 (718) 462-1111

# 제 14 년사

주후 1988년



## 14대 교협 회장

뉴욕한민교회

The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김정국 목사, Rev. Chung Kuk Kim

216-50 28th Ave. Bayside, NY 11360

## 14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정국 목사 (뉴욕한민교회)

부회장 양희철 목사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박식환

총 무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서 기 김종원 목사

부서기 박수철 목사 (뉴욕후러싱순복음교회)

회 계 Phum Z. Eam

부회계 김동인

## 제14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임 원**

| | | | |
|---|---|---|---|
| 회 장 | 김성국 | 목사 | 뉴욕한인교회 |
| 부 회 장 | 양희철 | 목사 | 포레스트 한인장로교회 |
| | 박석환 | | |
| 총 무 | 정도인 | 목사 | 새소망장로교회 |
| 서 기 | 김종원 | 목사 | |
| | 박수철 | 목사 | 뉴욕후러싱순복음교회 |
| 회 계 | Phum Z. Eam | | |
| 부 회 계 | 김동인 | | |

**분과위원장**

| | | | |
|---|---|---|---|
| 선교분과 | 권윤순 | 목사 | 뉴욕예수원교회 |
| 교육분과 | 안윤광 | 목사 | 뉴욕가나안장로교회 |
| 사회분과 | 한세원 | 목사 | 뉴욕영락교회 |
| 재정분과 | 황희연 | | |
| 목회분과 | 김남수 | 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
| 홍보분과 | 곽규석 |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 음악분과 | 김 룹 | 목사 | |
| 체육분과 | 김원기 | 목사 | 뉴욕메데스다교회 |
| 여성분과 | 홍인숙 | | |
| 청소년분과 | 이학모 | 목사 | 순복음중앙교회 |
| 역사자료 | 김페드릭 | 목사 | |
| 해외국제 | 이아모스 | 목사 | |
| 노인분과 | 정영환 | 목사 | 뉴욕한성교회 |
| 청소년분과 | 한계홍 | 목사 | 뉴욕신광교회 |



### 할렐루야 전도대회와 교육대회

뉴욕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계를 대표하여 대변하는 교회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소속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유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분열이 없을 뿐 아니라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것과, 매년 할렐루야 대전도(복음화)대회를 통해 교협의 일체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시작된 이후 한 해도 유보한 일 없이 꾸준히 이어왔다. 초창기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회가 이 대회에 총동원하여 참석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인도하여 결신하게 하는, 말 그대로 '전도대회'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80년대 초에는 대회를 앞두고 전도훈련을 하여 대회 때 결신케 하려 했다. 그 후 오늘에 와서는 성도 중에서도 말씀과 은혜의 맛을 이미 알고 열심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모이는 부흥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교단을 초월하여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파를 떠나 협력하여 대형 집회를 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교협이 존재하는 한 이 대회는 계속될 것이다. 이 대회의 성격과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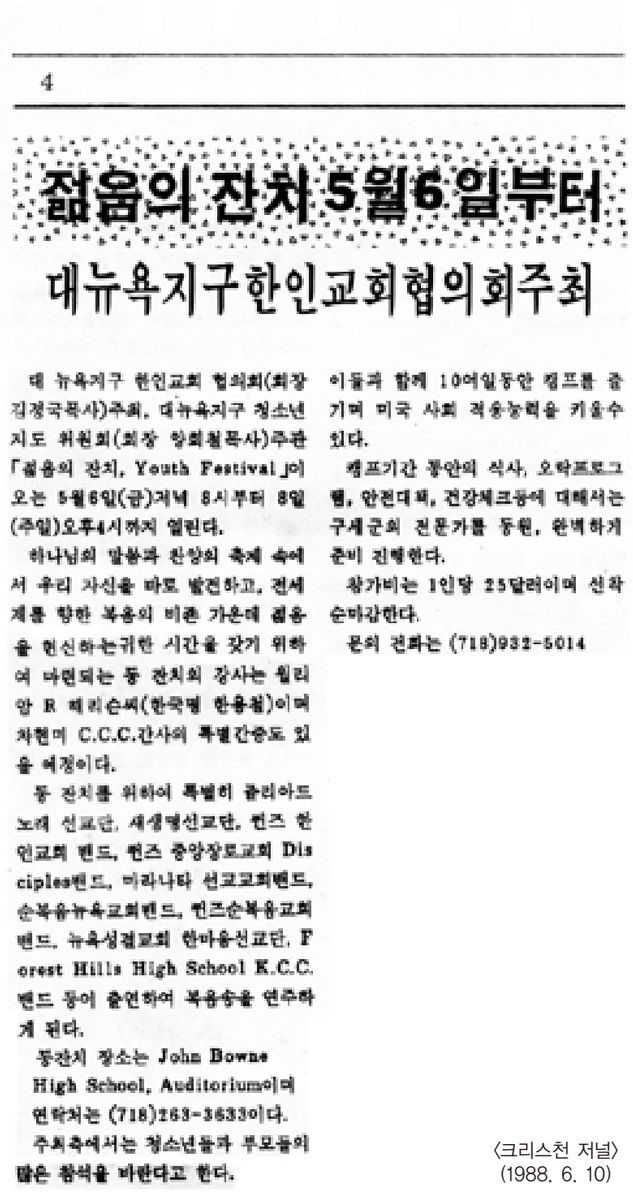
전도대회 못지않게 계속되어야 할 것은 교육대회이다. 88년 말에 교협 회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한인교회와 동포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겠는가?' 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해 온 전도대회는 계속 이어가면서 청소년센터와 교육대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5월 가정의 달에 교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후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3일간 가정교육, 교회교육, 사회(학교)교육을 다루기로 하고 진행하다가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해마다 하나씩 추진하여 3년의 사이클로 돌려 교육대회를 해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겨졌다. 그래서 첫 번 대회는 가정 교육대회를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해엔 교회교육, 또 그 다음 해엔 사회(학교)교육, 이렇게 하게 되면 깊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대회인 만큼 대회의 성격을 살려 7개 분과로 나누어 가정교육에다 집중 조명키로 했다.

총 발제는 '성서와 가정교육'으로, 참석자들 전체가 함께 청취한 후 ① 교회교육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② 학교교육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③ 사회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④ 세대차와 가정교육, ⑤ 방과후 생활을 통해서 본 가정교육, ⑥ 이민 2세가 본 가정교육, ⑦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을 다루었다. 분과 발제 강사들이 20분간 강의를 한 후 토의하도록 하였다.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라 익숙지 못했으나 그 성과는 컸다. 그 후 교육대회가 매년 이어오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5년이 지난 93년도에 제2회 교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본래 계획한 대로 '성서와 교육대회' 란 주제로 7개 분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다행으로 여긴다. 제2회 준비위원장이셨던 박문근 목사님의 수고로 자료집이 발간되었음을 감사한다. 바라건대 제1회 가정교육, 제2회 교회교육에 대해 행해졌으니 곧 이어서 사회(학교)교육이 다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로 매년 주기(사이클)적으로 다루어짐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이 땅에 이민 온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교협이 되기를 바란다.

김정국 목사

제14대 교협 회장 (뉴욕한민교회)



4

# 젊음의 잔치 5월6일부터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주최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정국목사)주최, 대뉴욕지구 청소년 지도 위원회(회장 양희철목사)주관 「젊음의 잔치, Youth Festival」이 오는 5월5일(금)저녁 8시부터 8일(주일)오후4시까지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축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전세계를 향한 복음의 비젼 가운데 젊음을 헌신하는귀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마련되는 동 잔치의 강사는 윌리암 R 헤리슨씨(한국명 한용철)이며 차현미 C.C.C.간사의 특별간증도 있을 예정이다.

동 잔치를 위하여 특별히 골리아드 노래 선교단, 새생명선교단, 퀸즈 한인교회 밴드, 퀸즈 중앙장로교회 Disciples밴드, 미라나타 선교교회밴드, 순복음뉴욕교회밴드, 퀸즈순복음교회 밴드, 뉴욕성결교회 한마음선교단, Forest Hills High School K.C.C. 밴드 등이 출연하여 복음송을 연주하게 된다.

동잔치 장소는 John Bowne High School, Auditorium이며 연락처는 (718)263-3633이다.

주최측에서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10여일동안 캠프를 즐기며 미국 사회 적응능력을 키울수 있다.

캠프기간 동안의 식사, 오락프로그램, 안전대책, 건강체크등에 대해서는 구세군의 전문가를 동원, 완벽하게 준비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25달러이며 선착순마감한다.

문의 전화는 (718)933-5014

〈크리스천 저널〉
(1988. 6. 10)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70-35 112ST. FOREST HILLS, N.Y. 11375
(718) 575-3212

President
Rev. Chung Kuk Kim
(718) 639 - 2536

General Secretary
Rev. Won Chol Shin
(718) 539 - 4058



EXECUTIVE COMMITTEE
Vice President
Rev. Ho Chul Yang
(718) 263 - 3634
Mr. Sikwan Park
(718) 743 - 4713
Ass't General Secretary
Rev. Do In Jeong
(718) 964 - 2155
Clerk
Rev. Chang Won Kim
(718) 229 - 8673
Rev. Soo Chul Park
(718) 461 - 1255
Treasurer
Mr. Pham Z. Eae
(516) 365 - 5797
Mr. Dong In Kim
(718) 383 - 4313
SUM COMMITTEE
Mission
Rev. Yoo Soon Kwon
(718) 356 - 5293
Educational
Rev. Yon Kwang Ahn
(718) 961 - 4852
Social
Rev. Se Won Hee
(718) 423 - 3607
Financial
Mr. Ill Youn Hwang
(718) 966 - 0841
Pastoral
Rev. Nam Soo Kim
(201) 767 - 7633
Publicity
Rev. Kya Suk Kwak
(718) 886 - 4009
Musical
Rev. Paul Kim
(718) 476 - 0133
Physical
Rev. David Won Ki Kim
(718) 386 - 6432
Women's
Ms. In Sook Hong
(718) 353 - 4553
Teenage
Rev. David Hak Mo Lee
(718) 229 - 3412
Historical Data
Rev. Patrick Kim
(718) 762 - 6270
International Affairs
Rev. Amos S. Rhee
(718) 939 - 8358
The Elder
Rev. Young Hwan Chung
(718) 279 - 1697
Youth
Rev. Jea Hong Han
(718) 461 - 4928


고협 '88 고대 제6호

수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담임목회자 귀하

발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제목: 기독교 교육대회 및 분과토의 참가자 협조 의뢰

**존경하옵는 주의의 귀하께**

진목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교회와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금번 본 교회협의회 에서는 이는 2세의 신앙교육및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라는 표어아래 "가정교육" 을 중점으로 아래와 같이 기독교 교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특별히 본대회 에서는 서너대집회 뿐만아니라 5월 27 일 첫날은 오후 7:30 분 부터 "성서와 가정교육" 이라는 총발제 강의와 28-29일 양일간은 8개 분과로 나누어 여럿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후 5시 30 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발제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 하였읍니다.

이 좋은의 기회에 귀교회에서 교육에 관심있는 성도들을 10분 이상 속주선하시고 권면해 주시서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 아 래 ----------

**주 제 : 가정교육**
**표 어 :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 : 4)**
**일시 : 1988.5.27(오후7시)총발제 : 성서와 가정교육**
**5.28~29(오후5시30분): 분과토의**
**장 소 : 린즈한인교회당**
**주강사 : 김계용 목사(LA영락교회 시무)**
**5.27~29.(오후8시)**

* 목회자학에 대한의 바르신을 이호니 동봉하는 "분과토의 참가신청서" 에 목 귀교우님을 수천하여 교육대회 마무친까지 진회편호( 직장및 집) 만이라도 보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김정국 목사
기독교 교육대회 준비 위원장 안용광 목사
기독교 교육대회 프로그램담당 총무 이명홍 목사

평안에 대는 줄도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4장3절)



▲ 알리폰드 파크에서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



▲ 세미나를 마친 뒤




# 88년 대뉴욕 할렐루야대회

## 강사에 이호문 목사
## 교육대회강사에 김계용목사



감사 이 호 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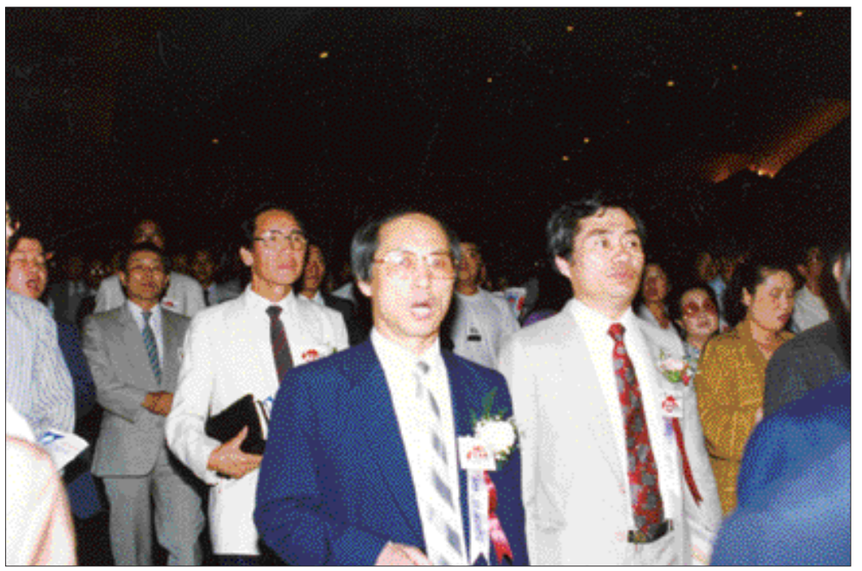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정국목사)에게는임원실행위원 학대회의에서 88년 할렐루야 대뉴욕전도대회를 오는 6월 30일부터7월 3일까지 퀸즈칼레지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예년과 달러 기독교교육대회도 퀸즈한인교회(한진관목사시무)에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기로 하였다.

할렐루야 본대회 강사인 이호문목사는 인천중앙갈리교회 담임목사로서 10,000 여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다.

88년 세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의도민족광장에서 열리는 세계복음화 대성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한국은 물론 세계를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부흥사협의회 회장을 역임, 10여년간 미주지역 복음화에 헌신한 목사이므로 이번 할렐루야대회도 말씀과 찬송인도로 하나님께 크고 영광스러운 집회가 될것으로 본다.

김계용목사(라성영락교회당회장)는 미주교계의 원로목사로서 영락교회를 미국한인교회중 굴지의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이다.



▲ 대회장 김정국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청소년 전도와 선교에 보람"

## 할렐루야 '88청소년대회 강사 오대원 목사



인터뷰

이번 할렐루야 88청소년전도대회 주강사로 다년간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에서 청소년선교단체인 안디옥커넥션 활동을 시작한 오대원목사(미국명 David Ross목사)를 만났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읍니까?

저는 미국장로교파송으로 1961-86년까지 25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예수전도단 운동을 전개해 왔읍니다. 목적은 한국청년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등 복음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던중 지난 86년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 해외의 한인교포들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깨닫고 LA에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읍니다.

-안디옥커넥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안디옥커넥션이란 한마디로 한국밖에 있는 해외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잠재력과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안디옥커넥션이란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안디옥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이와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난 현시대에 신약의 안디옥교회와 같이 큰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미주에서는 LA에서 최초로 안디옥커넥션이 조직되었으며 그 다음이 캐나다 토론토. 뉴욕이 3번째입니다.

앞으론 안디옥커넥션운동이 미주전역과 유럽, 아세아, 남아메리카등지의 한인교포사회에 뻗쳐나가기 바랍니다.

-교포사회의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청소년문제는 당연히 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교포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할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흔히 Identity Crisis와 함께 마약, 술, 섹스, 갱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2세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안디옥커넥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먼저 뉴욕의 한인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뉴욕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청소년집회, 청소년그룹지도, 캠프, 카운셀링등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인도, 훈련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읍니다.





# 제9회 할렐루야 88대뉴욕전도대회 개막

# "깨어나 복음 사명 앞장서자"

'뉴욕을 복음화 하자'는 주제로 대망의 제9회 할렐루야 88대뉴욕전도대회가 7일 저녁 퀸즈한인교회(한진관목사)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뉴욕지구 각 교회에서 1천 3백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날대회에서 교회협의회 회장 김정국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마지막 때를 위해 감추어 놓은 한민족을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국에 있는 성도는 물론 해외의 한인교회들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목사는 또한 "교육과 선교의 더상으로서 시급한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회관이 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일) 저녁까지 계속되는 이번대회의 주강사로 초청받은 이호문목사(인천중앙감리교회, 88세계복음성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설교를 통해 "혼탁 세파에 시달림으로 인해 삶의 기쁨이 메마른 때에 함께 어우러져 나와 간구함으로 응답과 문제해결을 얻는 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1907년전에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한국교회를 통해 전세계에 볼볼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할렐루야 88대뉴욕전도대회는 뉴욕한인교계의 최대



▲제 9회 할렐루야 '88대뉴욕전도대회가 7일 저녁 퀸즈한인교회(한진관목사)에서 열렸다.

행사로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뉴욕한인교계의 연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더뉴욕교회협의회는 이번 할렐루야대회의 목표를 뉴욕복음화와 동시에 청소년회관건립기금모금에 두고 이번대회를 통해 정한 헌금을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했다.

1988年7月13日(水曜日) (A 5)

한국일보 뉴욕



▲뉴욕교계의 최대연례행사인 제9회 할렐루야 88대뉴욕전도대회가 지난 7일~10일까지 나흘간 퀸즈한인교회(한진환목사)에서 연인원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대회 마지막 날의 예배모습. [사진=교회성가자]

## 할렐루야 88대뉴욕전도대회 폐막

### 연 8천여명 참석 성황이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7일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된 제9회 「할렐루야 88대뉴욕지구전도대회(대회장 김장환목사)」가 연8천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고 10일 폐막됐다.

예년 "뉴욕을 복음화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강사 이호문목사(한인장로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라는 제목의 마지막날 설교를 통해 "한난과 핍박등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는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또 복된의 감일 성찬식에서도 업계가는 어려한 전도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회는 이날 새벽의 "대뉴욕전도대회 선언문"을 통해 "교도사회 자에들의 문제해결은 교회의 20만 뉴욕교포의 과제임을 통감한다"고 천명하고 ▲청록한 가정의 건설 ▲청소년지도 ▲교도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협은 특히 이번 대회의 헌금중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키로 했는데 교협은 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 교협임원, 이사회원, 뉴욕지구교회 어신도연합회, 남신도연합회, 청소년연합회 임원중에서 상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회관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하도록 했다.

## 이호문목사 초청 목회세미나

### 대뉴욕지구 교역자회…40여교역자 참석

대뉴욕지구교역자회(회장 조정철목사)는 지난 9일 오전 퀸즈한인교회(한진환목사)에서 40여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할렐루야'88대뉴욕전도대회 강사인 이호문목사를 초청, 목회세미나를 가졌다.

조정철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목회세미나에서 이목사는 목회는 교회 지역인 목회와 세계적인 목회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은 세계적인 목회를 감조한다고 밝혔다.

이목사는 자신이 최근 결핵으로 인해 고통중에 지도자들을 국적으로 초청한 성령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확신있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목사가 73년부터 인천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한 이래 동교회는 현재 60여명의 교역자를 갖고 매주일 1만2천여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대교회로 성장했다.

이목사는 교회성장을 위한 비결로서 자신은 세계기도, 속회제도 실시기도회 3가지, 사람에 역점을 두어 목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목사는 한국의 대표적 부흥사의 한사람으로 1년 52주중만 한주도 빠짐없이 전국방방곡곡을 순방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퀸즈한인교회 지하교실에서 열린 목회세미나에서 이호문목사(할렐루야'88대뉴욕



▲지난 5일 저녁 뉴욕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 '88청소년전도대회에서 안디옥커넥션(지도·오대원목사) 밴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서라"

## 「할렐루야 '88청소년전도대회」… 1천 2백여명 참석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 교협청소년지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할렐루야 '88청소년전도대회」가 연1천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5일, 6일 양일간 뉴욕제일장로교회(정영금목사)에서 열렸다.

"믿음에 굳게서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강사인 데이빗 토스목사(한국명 오대원)는 설교에서 이번 대회에서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어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몸과 삶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할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 교회 찬양인도팀의 '활기찬 음악은 참석한 청소년들의 마음에 믿음과 함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내적 욕구를 발산케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이번 대회중 1부 집회를 순서에서 퀸즈한인교회, 브라질계열한인교회, 퀸즈중앙장로교회, 한마음선교회, 한사랑선교단, 임마누엘성서교회의 노래선교단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2부 예배중에는 안디옥커넥션팀이 찬양을 인도했다.

이번 대회기간중 청소년들이 그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설교를 청청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지함과 갱건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예배 마지막 순서인 초청의 시간에는 참석한 청소년들의 절대다수가 헌신과 결단에의 초청에 응하여 강단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기다리는 적극적이며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날 참석한 목사·전도사및 청소년교역자들도 나아가 이들을 부둥켜 잡고 함께 기도했다.

이번 대회는 뉴욕지구교회의 청소년지도 교역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간 두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상호협력하는 중에 성사시킨 점에서 앞으로 이러가지 청소년 관련행사에 보다 희망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다.

한편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포사회의 청소년문제를 안고 뉴욕교협은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청소년회관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전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교협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앞으로도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선도활동및 전도운동에 큰 힘을 주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정열 기자)

# 올림픽을 세계선교기회 삼아

## '88서울올림픽 전도협의회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88서울올림픽을 3주인 앞두고 한국의 기독교계는 동올림픽을 세계선교의 좋은 기회로 삼고 국내 25교단을 비롯 250여개 선교단체와 함께 '88서울올림픽전도협의회"를 구성, 실무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 15~18일까지는 '88세계복음화대성회를 인천원 15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광장에서 개최 '88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기도했다. 특히 올림픽 기간동안 효율적 선교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짜고 있는 '88서울올림픽전도협의회는 실천방안으로써 세계 각국 언어로 된 전도지및 비디오제작배포를 비롯 성경봉송대회및 "영(Soul)의 올림픽"행사의 개최, 각 교회의 참가선수단응원및 합동예배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동협의회는 외국인 5천여명을 포함한 2만여명의 전도단반대식을 갖고 국내외 선수및 임원단, 관광객, 시민등을 대상으로한 노상전도활동을 펼친다. 또한 동협의회는 전국기독청년들이 성화대신 성경을 봉송하는 9월5일(월) 부산에서 출발, 전국주요도시를 거쳐 10일(토)서울에 도착하는 성경봉송대회때 각 봉송도시에서 교회연합대집회를 개최하고, 성경봉송의 마지막 기착지인 서울에서는 초교파 교회연합행사인 "영의 올림픽(Soulympic)"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기간도중 충현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광림교회등 대형교회들은 외국인들의 예배를 돕기위해 영어, 불어, 서반아어, 일본어, 중국어등의 통역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교계는 올림픽을 선교의 좋은 기회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독교남북문제대책협의회—

## 민족화합위해 기도요청

### 남·북 관계정립위해 노력키로

한국기독교 남북문제대책협의회(회장 지원상)는 지난 12일 개신교 20개교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88서울올림픽이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전 만성도가 민족과 국가,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등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를 통해 "오는 9월 서울서 개최되는 제24회 올림픽은 세육을 통한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대축제로 주최국으로서의 면모와 문화민족의 뗏뗏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민의 각별한 노력과 전세를 호소하는 바"라고 전제하고 끝에, 올림픽 행사종료시까지의 논쟁, 분쟁의 중지, 남북, 남북문제 논의의 유보, 세계 정부·사회단체의 행사에 지해되는 정책·행동중지등을 요구했다.

동 간담회는 이어 광복43주년을 맞은 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동 결의문은 자구수정되어 지난 15~18일 여의도광장에서 낭독되었는데 동협의회는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결의했다.

〈기독공보〉
(1988. 8. 27)



# 제 15 년사

주후 1989년



## 15대 교협 회장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Church of Forest Hills

양희철 목사, Rev. Hi Chul Yang

53-71 72 Pl. Maspeth, NY 11378

## 15대 교협 임원

| | |
|---|---|
| 회 장 | 양희철 목사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
| 부 회 장 |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김우선 장로 (뉴욕효신장로교회) |
| 총 무 |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
| 협동총무 |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
| 서 기 | 김수천 목사 (뉴욕남산교회) |
| 부 서 기 | 변상혁 목사 (순복음브니엘교회) |
| 회 계 | 이규현 장로 (뉴욕시온성교회) |
| 부 회 계 | 이승구 집사 (마라나타선교교회) |

## 3대 이사회 임원

| | |
|---|---|
| 이 사 장 | 염정남 (아스토리아한인교회) |
| 부이사장 | 임주선 (순복음뉴욕교회), 심홍섭 (낫소한인교회)<br>서광해 (한길장로교회), 김영락 (퀸즈한인교회) |
| 서 기 | 박용근 (한성교회) |
| 부 서 기 | 조영상 (한빛교회) |
| 회 계 | 황일영 (순복음뉴욕교회) |
| 부 회 계 | 김영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
| 감 사 | 백도영 (포레스트한인교회), 김종대 (시온성장로교회) |

## 뉴욕교협의 청소년 사역 회고록

### 1) 1989년의 한인 청소년 상황

1989년도는 이민 사상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해였다. 20년이 지난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시기였다.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도 어수선하고 절망적이었다. 거리엔 갱들의 싸움과 학생들의 집단적 행동과 강도 행각과 절도가 횡행하던 때였다. 갱들이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위협하고 구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얌전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 한가한 길에서 갱들에게 위협을 당해 돈을 빼앗기는 일들이 잦아지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갱단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고, 서로 패싸움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도질, 도둑질, 무슨 일이든 자행하여 법이 없는 야인시대와 같았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탈선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많아서 부모들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심지어 교회에도, 연합집회에도, 가정에도 찾아와 위협하여 멤버를 확보하기도 하고, 여자, 남자 친구를 포섭해 데리고 나갔다.

이런 이민생활 속에 고민하는 부모들은 교회 목사님들을 찾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교회협의회를 찾았다. 교회협의회는 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면서, 보호라는 깃발 아래 각 학교에 목사님들을 보내는 일을 시작하였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예배를 보고 성경을 가르쳤다. 놀랍게도 목사들이 학생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에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협조를 하였고, 이민사회에 큰 이슈로 등장하여 교포사회가 교협 청소년 문제 해결에 가세를 하였다. 영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각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청소년센터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여서 교협에 보내 주었다.

### 2) 청소년센터의 설립

처음에는 교회협의회 산하에 청소년 선도 부서를 따로 두었다가 후에 청소년센터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여러 면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학원 선교를 시작하여 각 학교에 목사님들을 파견하여 학생들을 돌보거나 모임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클럽을 형성하였다. 학생들이 다른 민족 학생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한 갱 조직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였다. 동시에 가정문제와 성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될 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고 자원적인 도움을 주도록 호소하였다. 그때만 해도 부모들이 미국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협을 의지하여 상담이 상상 외로 많았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과 같이 경찰서나 재판정에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감옥에 수감된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면회를 가서 같이 대화하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었다.

신문이나 잡지에 매일 청소년 문제, 범죄와 사건 재판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자식들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애간장이 녹는 듯했다.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야 당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배후 조종으로, 또는 도움 받은 대가로 범죄에 연루돼 들어온 학생은 그야말로 희생양이었다. 그 당시 "실제 죄지은 놈은 밖에 있고 죄를 짓지 않은 놈이 감옥에 있다"라는 말이 유행어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사건도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다 돕고 싶었으나 많이 돕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이 학생들의 격동기에 교회협의회가 두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다. 첫째는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대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여 청소년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 청소년센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14대 교협 회장 김정국 목사, 15대 회장 양희철 목사, 16대 회장 장석진 목사 때까지 모금하였다. 이렇게 모인 기금이 현재의 교협 건물을 사는 데 기초가 되었다.

### 3) 그 후의 청소년 사역

그 이후 학원 선교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고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이문희 박사와 고 최광선 장로를 중심으로 한 '뉴욕 청소년센터' 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사역을 했다. 그러던 중 제20대 교협 회장 조덕현 목사의 적극적 주선으로 교협 청소년센터와 뉴욕 청소년센터가 하나로 힘을 모아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김정국 목사, 양희철 목사를 공동 대표로 하여 청소년센터 조직을 더 강화하는 한편, 유급 총무 1명을 두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고 김창훈 장로의 모금 운동을 통해서 집을 나온, 또는 감옥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엘머스트에 있는 쉘터 건물이다. 국가에서 펀드를 받는 학생 쉘터가 되었고, 뉴욕아세안청소년센터가 되었다.

이제는 차세대 지도자를 키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탁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실력을 키우고, 주일학교 선생이 될 수 있게 기독교교육을 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학원 선교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고, 계속 이민을 오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협조자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 89년에 시작된 학원 선교의 어려웠던 과정과 그때의 꿈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일은 교회협의회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지속적인 일이라 믿는다. 학원 선교는 언제나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라고 믿는다.

양희철 목사

제15대 교협 회장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 1989년도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제15회기)
## 임원 및 분과위원장

■ 임원

| 직 임 | 성 명 | 교 회 명 | 전화번호 |
|---|---|---|---|
| 회 장 | 양 희 철 목사 | 포레스트 한인장로교회 | (718)263-3633 |
| 부 회 장 | 장 석 진 목사 | 뉴욕 성결교회 | (718)948-0339 |
| 부 회 장 | 김 우 선 장로 | 뉴욕 효신장로교회 | (718)397-1406 |
| 총 무 | 정 도 인 목사 | 새소망장로교회 | (718)961-2155 |
| 임 동 총 무 | 장 창 혁 목사 | 뉴욕 명성장로교회 | (718)424-4649 |
| 서 기 | 김 수 천 목사 | 뉴욕 남산교회 | (718)507-5124 |
| 부 서 기 | 변 상 혁 목사 | 순복음브니엘교회 | (718)932-7398 |
| 회 계 | 이 규 현 장로 | 뉴욕 시온성교회 | (212)967-6120 |
| 부 회 계 | 이 승 구 집사 | 마라나타선교교회 | (516)829-5028 |

■ 분과위원장

| 직 임 | 성 명 | 교 회 명 | 전화번호 |
|---|---|---|---|
| 선 교 분 과 | 정 영 환 목사 | 뉴욕 한성교회 | (718)279-1077 |
| 교 육 분 과 | 고 석 희 목사 | 마라나타선교교회 | (718)461-5263 |
| 목 회 분 과 | 한 세 원 목사 | 뉴욕 영락교회 | (718)423-3607 |
| 역사자료분과 | 김 원 기 목사 | 뉴욕 베데스다교회 | (718)386-6432 |
| 여 성 분 과 | 한 영 숙 목사 | 고려교회 | (212)865-8789 |
| 체 육 분 과 | 송 병 기 목사 | 목양장로교회 | (718)424-1012 |
| 음 악 분 과 | 김 바 울 목사 | 우드하이드장로교회 | (718)476-0133 |
| 홍 보 분 과 | 김 병 서 목사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718)762-6270 |
| 재 정 분 과 | 최 예 식 장로 | 뉴욕 명성장로교회 | (914)292-3271 |
| 청소년분과 | 방 지 각 목사 | 뉴욕 효신장로교회 | (718)429-3654 |
| 사 회 분 과 | 김 종 원 목사 | 구세군 뉴욕한인영문 | (718)721-9046 |
| 국 제 분 과 | 백 예 원 목사 | 화이트플레인즈 한인교회 | (718)939-0239 |
| 청 년 분 과 | 박 수 철 목사 | 후러싱순복음교회 | (718)358-1165 |
| 노 인 분 과 | 박 수 복 목사 | 뉴욕 동양선교교회 | (718)997-6373 |

## 현회장단



무회장 / 잠 석 진 목사



15대 / 양 희 철 목사
(현 회장)



부회장 / 겸 우 선 장로



엄 정 남 장로

## 1989년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15회기)

## 이사회 임원명단

| | | |
|---|---|---|
| 이 사 장 : | 엄 정 남 (아스토리아한인교회) | (718)527-0135<br>(718)463-2340 |
| 부이사장 : | 임 주 선 (순복음뉴욕교회) | (516)773-3271 |
| 부이사장 : | 심 홍 섭 (낫소한인교회) | (718)359-4200 |
| 부이사장 : | 서 광 해 (한길장로교회) | (212)410-5813 |
| 부이사장 : | 김 영 락 (퀸스한인교회) | (718)358-9108 |
| 서 기 : | 박 용 근 (한성교회) | (201)768-1827 |
| 부 서 기 : | 조 영 삼 (한빛교회) | (718)631-3548 |
| 회 계 : | 황 일 영 (순복음뉴욕교회) | (718)424-9832 |
| 부 회 계 : | 김 영 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 (516)678-5016<br>(718)282-3109 |
| 감 사 : | 백 도 영 (포레스트한인교회) | (718)357-8434 |
| 감 사 : | 김 종 대 (시온성장로교회) | (718)507-1448 |



JANUARY 28, 1989. NO. 22 33-70 PRINCE ST. #707 FLUSHING, N.Y. 11354

# 청소년「핫라인」설치

718-445-5960

## 각학교에 교역자파견및 핫.라인 가동등 종합대책마련

청소년문제에 대한 한인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회장 양희철)가 청소년 핫라인설치,각학교 교역자파견등 종합대책을 마련,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뉴욕한인회와 연합하여 한인사회와 교회가 연대해 청소년을 위해 힘써줄 기울인다는 취지로 2월2일 핫라인운영기금모금 만찬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으로 앞서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청소년 핫라인 설치와 이에 따른 보호시업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교협 양희철회장은 8일 오후 "어이 핫라인 전수를 위한 전화(718-445-5960)가 개통되어 있으며,신학상을 중심으로 임직원으로 자문해 핫라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협은 특히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소셜워커목사 및 청소년 전문가 파견과 법적인 문제가 연루될 경우 변호사 파견등 사후처리가 더욱 힘들어 빚지례에 걸친 한인사회의 시도가 실패했던 점을 감안해 한인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대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문생 한인회장은 "교협측이 사무실에서 핫라인을 설치해 접수된 케이스 해결을 위한 교역자파견등에서 주무를 맡고 경찰서.법원충입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인회 연락총호문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 줄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협은 또 89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회관건립과 목회자 학교과정이 교회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관은 금년중 장소마련까지마도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내에서의 한인청소년 피해의 범최존적화를 막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하기 위한 교역자 파견사업에 순복음뉴욕교회(지남수목사)가 연 1만2천달러를 교회예산에 통과시켜 약정하는 등 6개교회에서 89년중 4만2천달러의 청소년선도헌금을 교협측에 약정해졌다.

교협은 운동기구,악기구입,성경공부교재,간식제공등을 위해 한학교당 6천달러씩을 이신으로 주었으며 순복음교회와 ▲뉴욕한인교회(목사 진상국) ▲뉴욕한성교회(경영환) ▲뉴욕효신장로교회(방지자) ▲뉴욕은혜중부라성교회(박수길)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양희철)가 각각 1개교 파견비용으로 연6천달러씩을 약정지원으며 그외에도 한마음장로교회(목사 곽광석)가 1천2백달러를 약정하는등 교회들의 참여가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퀸즈중앙장로교회(목사 안장희)등 4개교회에서는 금요일 하루 올라잉으로 교역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협측은 금년내에 추가교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12개 학교에 과각 교역자를 파견키로 했다.

교협은 한인학생들의 건전한 교내생활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포리스트힐고교와 브라이턴노고교에 조정환,오동석목사를 각각 파견해 성공을 거두자 지난해 가을부터는 뉴욕운고교에 이변자인전도사를 추가파견키로 했으며, 이전도사는 뉴욕운고교에서 정식 운영장의를 맡아 한인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협이 20일부터 학생교회의 선도를 위해 교역자를 파견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파견되는 교역자)

▲베이사이드고교(속일현) ▲카토즌(황하준) ▲플러싱(송순희) ▲브란시스부이스(남목수) ▲존 마샬(전종일) ▲포레스트(이변우) ▲뉴다운(이변자인, 이광석) ▲브라이언트(오동석) ▲존 F.케네디(이사무엘) ▲브루스사이언스(조정환) ▲브루클린텍(김연경) ▲스타브센트(김동선)



교협이 주관한 신년하례만찬기도회가 로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엔 청소년회관 건립의 해

## 교협신년하례만찬회 4백여목회자및 신도참석

본 협의회가 주최한 신년하례 만찬기도회가 지난 7일 오후7시 라파디아공항에 있는 로이스호텔에서 약4백여명의 목회자및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89년 교협행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을 어느때 보다도 활발히 펼쳐나갈 89년 교협집행부측은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기점으로 뉴욕일원의 4백여 한인교회가 일치단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만찬기도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하고,교회의 대사회적 각성운동을 통해 사회정화에 교회가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주강사로 나온 조천일목사(LA 빌라델피아교회)는 그의 설교를 통해 「크리스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현주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역사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본협의회장인 양희철목사는 그의 신년인사에서 교회의 연합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목회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89년에는 교포청소년회관건립을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기도순서엔 한진준,장영춘,안장희목사가 차례로 등단,교포사회와 조국을 위해 교회연합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진행된 만찬순서엔 카치시장과 스티븐 솔라즈 하원의원의 내빈축사가 있었다.

이날 만찬기도회는 오후11시 뉴저지교회협의회장인 이승제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 1989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15대 회장 양희철 목사는 라콰디아 공항 앞에 있는 로이즈 호텔에서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거행했다.














1. 신년사를 전하고 있는 회장 양희철 목사
2. 서로 축복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만찬
3. 신년하례 만찬에 참석한 뉴욕 카치 시장과 회장 양희철 목사
4. 뉴욕에서 최초로 세워진 수양관(기도원). 예배 후 함께 기념 촬영
5. 수양관 예배당 앞에서
6. 눈 덮인 수양관 전경

포레스트 수양관(불빛기도원)
Forest Retreat Center
1337-Route 302, Bullville, NY 10915
(845) 361-3383 (718) 263-3633



뉴욕한인청소년센타 건립기금을 위한 뮤지컬 연극공연

"이름없는 꽃아이들"

작, 작곡, 연 출 : 장 두 이

기 획 : 이 정
조 명 : Whitney Quesenbery
음 악 : David Sawyer, Tony Scheitinger
의 상 : 백 윤 주
찬조출연 : 오동석 목사, 아이리스 박

출연자들
뉴욕지구 한인 고등학생 및 청소년

일 시 : 1989년 6월 9일(금), 10일(토) 오후8시30분
장 소 : Flushing High School 강당
(35-01 Union St. Flushing N.Y.)
입 장 료 : 5불
문 의 처 : (718)321-1010
주 최 : 뉴욕한인청소년센타
후 원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1


2


3


4


5


6


7

1. 대회장 양희철 목사, 강사 이동원 목사와 임원진이 입장하고 있다.
2. 할렐루야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장
3.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주며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4. 말씀을 전하는 강사 이동원 목사
5. 모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참석자들
6. 모두 다 함께 찬양합시다.
7. 양희철 목사가 뉴욕 시 교협에서 주는 목회자상을 수상하여 뉴욕 시 교협 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

1998년 12월17일 (목요일) 한국일보 워싱턴

Religion 종 교

# "청소년 탈선예방에 교회역할 중요"

## 양희철 목사 청소년센터 건립, 효과적 지도해야

「방황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15일 워싱톤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 학부모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양희철 목사(뉴욕고신협의회 청소년센터 공동의장)의 청소년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한국복음선교협의회(장진우 장로) 주최로 뮹양장로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양목사는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생경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호소연할 곳이 없어 방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다」고 말했다.

양목사는 「자녀들이 갱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비틀어진 마음 때문이 아니라 소속감을 찾고 다른 폭력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목사나 장로등 교회에서 존경 받는 그들의 자녀들 중에 폭력 조직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자녀들이 많아 주위를 놀라게 한다」고 밝혔다.

양목사는 한인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 「각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협력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한인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탈선하기 쉬운 한인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올바로 지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있는 어른들이 현장에 나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양목사는 「각 교회가 해외 선교에 사용하는 선교비의 1/10만 사용해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각지역에 한인 청소년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친근으로 상담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욕한인청소년센터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숙 전도사는 뉴욕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선과 범죄 사례들을 소개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전도사는 「12-3세부터 청소년기의 반항적인 특징을 나타내던 아이들이 17-8세가 되면서 부터 폭력과 범죄에 관련해 수감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하고 「한인 청소년들은 거의가 조직 폭력에 가담해 있어 최소 4-5년에서 10년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엄한 처벌을 받기가 일쑤」라고 사례를 한했다.

또 이 전도사는 「빗나가버린 아이들을 다시 부모와 사회의 품으로 돌아키는 일은 복음과 무조건적인 사랑, 목적있는 지도와 훈련, 포기하지 마음이 없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별환기자〉



양희철 목사와 이상숙 전도사가 청소년 범죄예방 세미나에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제 16 년사

주후 1990년



| 16대 교협 회장 |
|---|
| 뉴욕성결교회 |
| New York Korean Evangelical Church |
| 장석진 목사, Rev. Samuel Jang |
| 333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

## 16대 교협 임원

회 장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부 회 장 방지각 목사 (효신장로교회), 염정남 장로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총 무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서 기 김종원 참령 (구세군한인영문)
부 서 기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회 계 황의숙 장로 (포레스트장로교회)
부 회 계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 4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염정남 장로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이사장 임주선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심홍섭 장로 (낫소한인교회)
서광해 장로 (한길장로교회), 김영락 장로 (퀸즈한인교회)
서 기 박용근 집사 (한성교회)
부 서 기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회 계 황일영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김영찬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감 사 백도영 장로 (포레스트장로교회), 김종대 장로 (시온성장로교회)

## 1990년도 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16회기)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명단

### 임 원

| | | Home | Church |
|---|---|---|---|
| 회 장 | 장석진 목사 (뉴욕성결교회) | (718)948-0345 | (718)948-0339 |
| 부 회 장 | 방지각 목사 (효신장로교회) | (718)429-3654 | (718)429-5154 |
| 부 회 장 | 엄정남 장로 (아스토리아한인교회) | (718)225-8668 | (718)527-0135 (O) |
| 서 기 | 김종원 장령 (구세군 한인영문) | (516)485-5634 | (718)721-9045 |
| 부 서 기 |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 (718)639-4236 | (718)424-8154 |
| 회 계 | 황의숙 장로 (포레스트장로교회) | (718)253-5404 | |
| 부 회 계 |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 (718)544-4337 | (718)685-0909 |

### 총무단

| | | | |
|---|---|---|---|
| 총 무 | 장창혁 목사 (뉴욕영성장로교회) | (718)424-4649 | (718)639-6243 |
| 부 총 무 | 안용광 목사 (뉴욕가나안장로교회) | (718)961-4852 | (718)353-0641 |

### 분과위원장

| | | | |
|---|---|---|---|
| 선교분과 | 고석희 목사 (마라나타세계선교교회) | (718)461-5263 | (718)762-6370 |
| 교육분과 | 권유순 목사 (S.I.한인교회) | (718)948-1354 | (718)448-0442 |
| 사회분과 | 이승운 목사 (루터신학교회) | (718)321-0094 | (718)939-8599 |
| 재정분과 | 김종대 장로 (뉴욕시온성교회) | (718)507-1448 | (212)860-3030 (O) |
| 목회분과 | 조정철 목사 (서울장로교회) | (718)939-9427 | (718)672-7755 |
| 홍보분과 | 송대식 목사 (뉴욕동광성결교회) | (718)343-6047 | (718)898-0318 |
| 음악분과 | 이학모 목사 (퀸즈순복음교회) | (516)488-8691 | (718)271-4171 |
| 체육분과 |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386-6432 | (718)456-8914 |
| 부녀분과 | 박동희 집사 (퀸즈한인교회) | (516)433-3377 | (718)463-0187 (O) |
| 청소년분과 | 최원택 목사 (뉴욕한인감리교회) | (718)445-1525 | (718)776-6101 |
| 역사자료분과 | 강성진 목사 (뉴욕벨아오장로교회) | (718)463-1743 | (718)463-1743 |
| 국제분과 | 백예원 목사 (하이프플레인즈한인교회) | (718)939-0239 | (914)428-7812 |
| 노인분과 | 최윤렬 목사 (루터신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592-3789 |
| 청년분과 | 이호선 목사 (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279-9460 | (718)359-0166 |



## 1990년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16회기)

# 임원 및 분과위원장



## 1990년도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16회기) 이사회 임원명단


이사장 : 엘정남장로

| | | | |
|---|---|---|---|
| 이 사 장 | 엘정남 장로(아스토리아한인교회) | (718)527-0135 | (718)225-8668 |
| 부이사장 | 임주셀 장로(순복음뉴욕교회) | (516)773-3271 | (718)786-3535 |
| 부이사장 | 심홍셀 장로(낙소한인교회) | (718)359-4200 | |
| 부이사장 | 서광배 장로(한길장로교회) | (212)996-2519 | (212)239-4945 |
| 부이사장 | 김영학 장로(퀸스한인교회) | (718)359-9108 | |
| 서 기 | 박용근 집사(한성교회) | (201)768-1169 | |
| 부 서 기 | 조영상 집사(한빛교회) | (718)461-0449 | (718)224-1859 |
| 회 계 | 황일형 집사(순복음뉴욕교회) | (718)424-9832 | (212)532-5232 |
| 부 회 계 | 김영찬 권사(아스토리아한인교회) | (516)678-5016 | (718)282-3109 |
| 감 사 | 백도형 장로(조세스트한인교회) | (718)357-8434 | |
| 감 사 | 김종태 장로(시온성장로교회) | (718)507-1448 | |

## 1990년도 뉴욕한인청소년센타 이사회 임원명단


이사장 : 장영춘목사

| | | | |
|---|---|---|---|
| 이 사 장 |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 (718)428-4434 | (718)886-4040 |
| 부이사장 | 김남수 목사(순복음뉴욕교회) | (201)767-1952 | (212)268-9454 |
| 부이사장 | 김우셀 장로(호산장로교회) | | (516)261-5355 |
| 서 기 | 김용걸 신부(성공회 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04-8207 |
| 부 서 기 | 김종원 참령(구세군 뉴욕한인영문) | (516)485-5634 | (718)721-9046 |
| 회 계 | 변종덕 집사(파라데이드장로교회) | (201)894-0878 | (212)818-0070 |
| 부 회 계 | 김영찬 권사(아스토리아한인교회) | (516)578-5016 | (718)282-3109 |

## 실행위원회 명단

위 원 장 : 황석진 목사

위 원 : 장영춘 목사 엘정남 장로 김남수 목사 김우셀 장로
김용걸 신부 김종원 참령 변종덕 집사 김영찬 권사




1



2



3


4



5


6


7

1. 1990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에서 강사를 영접하는 회장단
2. 신년하례 예배드리는 모습
3. 만찬 후 기념 촬영
4. 알리폰드 파크에서 체육대회 시작 전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
5. 열심히 준비하는 본부석
6. 승리자만이 상급을 얻는다.
7. 승리한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주는 회장 장석진 목사

### 16대 교협 활동 내역

1. 교협 서류 및 행정체계 완비
2. 청소년회관 건립비 6만 불 적립
3. 교협신문 8면 12개월 발행
4. 한인사회 직능단체장 조찬기도회 개최














1. 교협 사무실을 찾아와 격려하는 강사 곽선희 목사와 함께
2.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원들
3. 말씀을 전하는 강사 곽선희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
4.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열심히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 뉴욕지구 원로성직자회 탄생

1990년 8월 19일 뉴욕한민교회 곽근상 장로께서 뉴욕 일원에 계신 은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창안하여 정관 회칙을 제시하므로, 여러 목사와 장로들이 호응하여 15인의 발기인이 모여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관을 심의 출범하였다. 이것이 원로성직자회의 시작이다.

발기인: 김상환 목사, 주관준 목사, 장운영 정령, 박무길 목사, 손계웅 목사, 유태연 목사, 김승삼 목사, 김성남 목사, 고준식 장로, 김해생 장로, 이춘학 장로, 연시중 장로, 장윤철 장로, 허태형 장로, 김명신 장로 등

창립 총회는 1990년 10월 21일 뉴욕시온성교회에서 김정국 목사 설교로 개최되었다.

임원 명단: 회장 김상환 목사, 제1부회장 허태형 장로(행정), 제2부회장 박무길 목사(조직), 제3부회장 고준식 장로(선교), 제4부회장 강영환 장로(홍보)

1991년 4월 3일 주정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었다.

활동: 각 기관과 교회 초청 예배를 드림. 1991년 11월부터 회보 제1호를 발간하여 매회 발간.

선교: 러시아 구, 레닌그라드 김재광 선교사를 매월 후원. 나준영 선교사 후원. 한미자선선교회의 정규석 목사 후원.

역대 회장: 김상한 목사, 주관준 목사, 권영진 목사, 정규석 목사, 양동석 목사, 한맹연 목사, 박문근 목사, 방지각 목사(현재)






# 제 17 년사

주후 1991년



### 17대 교협 회장

뉴욕효신장로교회

Hyo Shin Bible Presbyterian Church

방지각 목사, Rev. Ji Kag Pang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 17대 교협 임원

회 장 방지각 목사 (효신장로교회)
부 회 장 정태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서광해 장로 (한길장로교회)
총 무 송병기 목사 (목양장로교회)
서 기 강성진 목사 (뉴욕엠마오장로교회)
부 서 기 김승희 목사 (뉴욕초대교회)
회 계 김영찬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 회 계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 5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심홍섭 장로 (낫소한인교회)
부이사장 김종대 장로 (시온성장로교회), 임주선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김영락 장로 (퀸즈한인교회), 오응환 장로 (뉴욕한성교회)
총 무 박용근 집사 (뉴욕한성교회)
부 총 무 박희정 집사 (온누리영광교회)
서 기 최형용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 서 기 김정일 집사 (목양장로교회)
회 계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부 회 계 최창래 집사 (효신장로교회)
감 사 홍대윤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이병구 집사 (퀸즈한인교회)

## 1991년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17기)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명단

### 임 원

| | | Home | Church |
|---|---|---|---|
| 회 장 | 방지각목사(효신장로교회) | 718)429-3654 | 718)429-5151 |
| 부 회 장 | 정태진목사(뉴욕한인침례교회) | 718)271-6598 | 718)321-8040 |
| 부 회 장 | 서광해장로(은혜장로교회) | 212)996-2519 | 718)397-0155 |
| 서 기 | 장성진목사(뉴욕엠마오장로교회) | 718)321-7018 | 718)321-7018 |
| 부 서 기 | 김승희목사(뉴욕초대교회) | 718)639-4236 | 718)424-4685 |
| 회 계 | 김영환권사(아스토리아한인교회) | 516)678-5016 | 516)432-501009 |
| 부 회 계 | 김승도집사(뉴욕효신장로교회) | 718)544-4337 | 212)695-090909 |

### 총무단

| | | | |
|---|---|---|---|
| 총 무 | 송명기목사(목양장로교회) | 718)424-1012 | 718)507-7749 |
| 협동총무 | 조용덕목사(뉴욕엠마누엘장로교회) | 718)507-6448 | 718)507-6448 |

### 분과위원장

| | | | |
|---|---|---|---|
| 선교분과 | 고석희목사(갈보리세계선교교회) | 718)461-5263 | 718)762-6370 |
| 교육분과 | 안용광목사(뉴욕기나안장로교회) | 718)961-4852 | 718)353-0641 |
| 사회분과 | 김종원집사(구세군한인영문교회) | 516)485-5634 | 718)721-9046 |
| 재정분과 | 최원호장로(순복음뉴욕교회) | 718)728-1731 | 516)333-0942 |
| 목회분과 | 장성덕목사(뉴욕영성장로교회) | 718)424-4649 | 718)639-6243 |
| 홍보분과 | 손석구목사(갈보리교회) | 718)983-8364 | 718)983-8347 |
| 음악분과 | 이학모목사(퀸즈순복음교회) | 516)358-7676 | 718)271-4171 |
| 체육분과 | 김원기목사(베다니장로교회) | 718)386-6432 | 718)456-8914 |
| 여성분과 | 구춘희장로(아스토리아장로교회) | 718)961-1163 | 212)870-3693(8) |
| 청소년분과 | 이호선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279-9460 | 718)359-0166 |
| 역사자료분과 | 박수복목사(뉴욕수정교회) | 718)848-0766 | 718)868-0766 |
| 국제분과 | 백예원목사(뉴욕초대교회) | 718)939-0239 | 718)424-4685 |
| 노인분과 | 최용열목사(루터링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592-3789 |
| 청년분과 | 김수원목사(뉴욕남산교회) | 718)836-2350 | 718)836-2350 |



## 1991년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17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사회 역대 이사장


초대 / 방지각목사


2대 / 김우선장로


3대 / 염정남장로


4대 / 서광해장로


이사장 : 심홍섭장로

### 1991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17회기) 이사회 임원명단

| | | |
|---|---|---|
| 이 사 장 | 심홍섭장로(낫소한인교회) | (718)359-4200 |
| 부이사장 | 김종대장로(시온성장로교회) | (212)860-3030 |
| 부이사장 | 임주선장로(순복음뉴욕교회) | (718)786-3535 |
| 부이사장 | 김영락장로(퀸즈한인교회) | (718)446-5656 |
| 부이사장 | 오응환장로(뉴욕한성교회) | (718)539-5711 |
| 총 무 | 박용근집사(뉴욕한성교회) | (201)768-1169 |
| 부 총 무 | 박희정집사(온누리영광교회) | (718)351-5493 |
| 서 기 | 최형용권사(아스토리아 한인교회) | (718)463-7676 |
| 부 서 기 | 김정일집사(목양장로교회) | (718)575-8748 |
| 회 계 | 조영상집사(한빛교회) | (718)461-0449 |
| 부 회 계 | 최창래집사(효신장로교회) | (718)443-9508 |
| 감 사 | 홍대윤목사(뉴욕중앙산정현교회) | (718,461-0389 |
| 감 사 | 이병구집사(퀸즈한인교회) | (718)229-1280 |



## 1991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17대 회장 방지각 목사가 1월 14일(월) 오후 7시에 라콰디아 공항 앞 로이스 호텔에서 신년하례 만찬 기도회를 거행하였다. 김창인 목사를 초청해서 누가복음 3장 7~17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예배 후 신년의 은혜를 기원하며 만찬을 나누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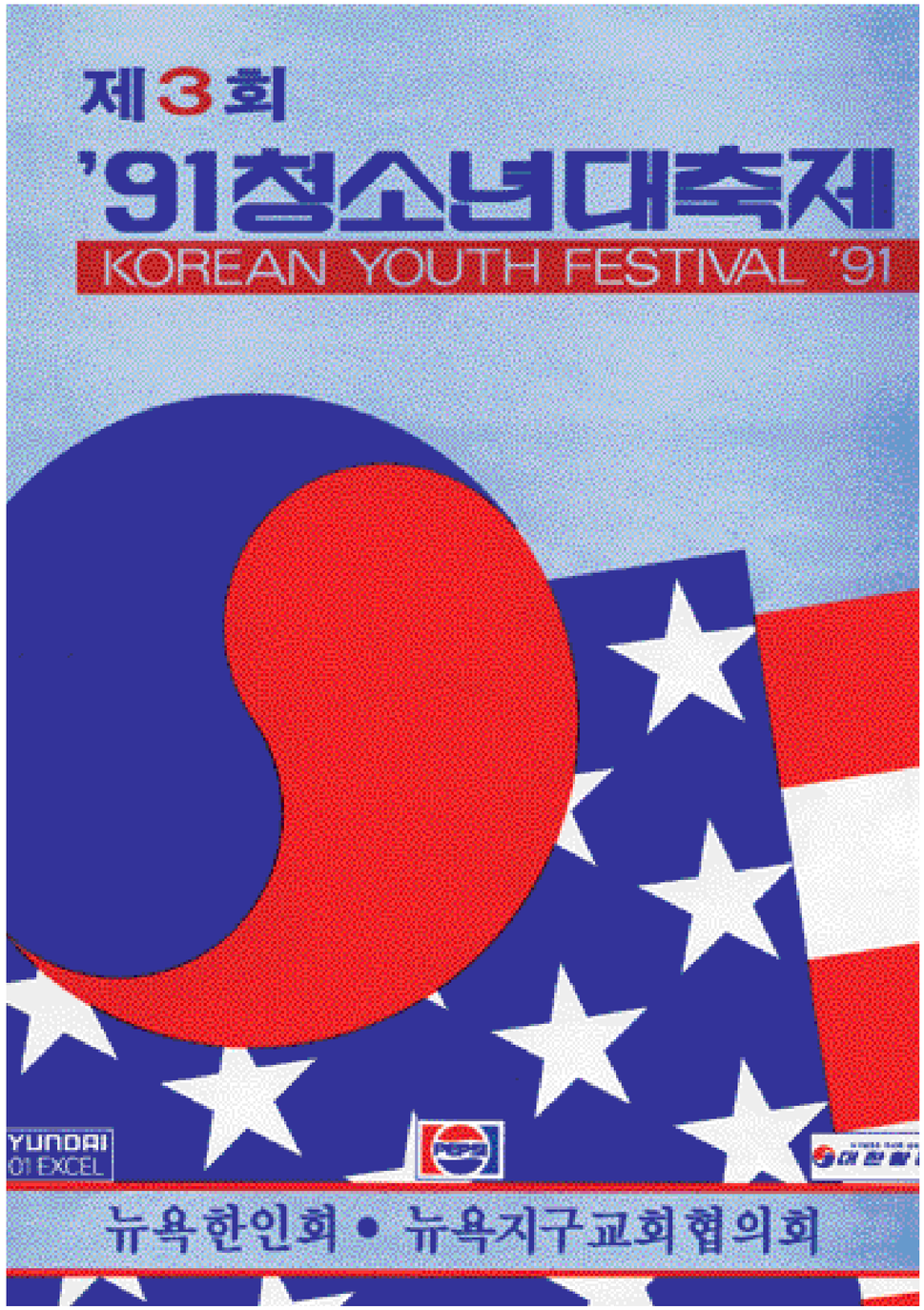

2


3



4

1.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방지각 목사
2. 예배 중 찬양하는 이름다운 모습
3. 신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성도들
4. 만찬 후 기념 촬영




##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룬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힌다.

▲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지역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모든 청소년은 적성과 능력을 갈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다.

▲ 가정은 청소년이 정서를 가꾸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어버이는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몸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

▲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문화의식과 시민정신을 높인다.

▲ 사회는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이다. 성장과 발달을 도와 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어가선용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든다.

▲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

제1회 청소년대축제
ONE KOREAN YOUTH FESTIVAL '91

Office of the Mayor
CITY OF NEW YORK

# Proclamation

WHEREAS: THE THIRD ANNUAL KOREAN YOUTH FESTIVAL, SPONSORED BY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YORK AND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YORK, IS BEING HELD AT CUNNINGHAM PARK IN QUEENS FROM THE TWENTY-FIFTH THROUGH THE TWENTY-SEVENTH OF MAY; AND

WHEREAS: THE FESTIVAL CELEBRATES THE RICH CULTURAL HERITAGE OF THE GROWING NUMBER OF KOREAN AMERICANS WHO CALL NEW YORK CITY HOME; DURING THIS FESTIVAL THEY SHARE THEIR HERITAGE WITH THEIR FELLOW NEW YORKERS; AND

WHEREAS: A VARIETY OF CULTURAL, SPORTS, SOCIAL AND THEATRICAL EVENTS AS WELL AS AN ART EXHIBIT, BAZAAR, MARTIAL ARTS DEMONSTRATION AND MUSIC FESTIVALS ADD TO THE JOY OF THE OCCASION; AND

WHEREAS: NEW YORKERS OF KOREAN DESCENT CONTRIBUTE TO THE CIVIC,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LIFE OF OUR CITY,

NOW THEREFORE, I, DAVID N. DINKINS,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COGNITION OF THE CONTRIBUTION OF KOREAN AMERICANS TO THE CULTURAL DIVERSITY OF OUR CITY, DO HEREBY PROCLAIM MAY 25-27, 1991 IN THE CITY OF NEW YORK AS

"KOREAN YOUTH FESTIVAL DAYS"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CAUSED THE SEAL OF THE CITY OF NEW YORK TO BE AFFIXED.

DAVID N. DINKINS
MAYOR



체육대회








명예대회장

목대영 김희종 김영춘 신성국 박희소 김용주 홍호균 남학희 이문구
김용걸 김상모 김정국 양희철 강석진

명예부대회장

조창복 김정옥 황희언 박시관 김우선 엄경남

지문위원

김란선 김리란 김상환 김성남 류도일 박희순 배상호 손계홍 안도명
양승목 윤원중 이낙주 이모세 장운용 정승일 조덕현 주환준 한진란

지도위원

권오현 권유순 김남수 김대희 김바울 김병서 김석행 김순일 김영집 김영호 김용옥
김이호 김용희 김형훈 김종원 노진수 박기태 박성모 박순종 박재철 손영구 신성능
신원철 안종석 안창희 이명홍 이성희 이승근 이승춘 이승익 이영희 이은수 이종생
이종행 이 철 이호선 이후근 임인환 정승칠 장정순 정홍권 장철우 전덕영 전상환
정도인 정영규 조남은 조정철 주승욱 차원태 최영선 최린태 한상현 허 검 황경락
김태규 박아프라함 김일광 이승태

실행위원

김성수 김건치 김두세 김대옥 김대우 김보일 김병서 김상희 김성국 김승규 김성남
김수천 김시환 김영식 김영호 김학조 김정식 김종일 김종하 김종화 김종헌 김성수
김재권 김진산 김춘택 김현준 김희자 강기봉 권영래 국남주 문경환 문영준 박기일
박병석 박병수 박상일 박성만 박순호 박장하 박재권 박종진 박준희 박지원 박찬우
박호상 방동섭 백창진 변상혁 성윤모 손철용 손석구 소희섭 송대식 송인채 신근한
신석산 심우형 심우남 안병호 안영남 안종철 양조정 예운기 여 훈 우수환 우세근
윤봉원 윤상태 윤태헌 오동석 오영환 윤세홍 윤요셉 이학성 이귀자 이제신 이기호
이명종 이명환 이상분 이원산 이원욱 이강희 이규본 이정송 이중남 이희태 임정호
임민식 임수식 임효환 임준호 이학권 장길준 장세택 조성길 조승국 전병철 전영성
정덕모 진종철 진상호 정길진 정석기 정수명 정영호 정익수 조영길 조문휘 정일선
조국환 조영철 조영철 진백만 진상안 차종연 최광진 최정환 최길종 최명우 최윤석
최원섭 최재천 추영철 한상수 한세원 한재홍 한영숙 한영택 홍대윤 홍현희 황정일

광복46주년기념

# 조국통일을 위한 연합예배



●때 : 1991년 8 월15일(목)오후 8 시
●곳 : 뉴욕한성교회당
60-20 B'way, Woodside, N.Y. 11377
(718)639-4929, 651-9220
(718)358-0074 (대뉴욕지구교협사무실)

□주 최 : 대 뉴욕지구 교회협의회
대 뉴욕지구 교 역 자 회
미주 기독교 방 송 국

# 조국통일을 위한 연합예배 순서

●는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인도 : 김남수 목사 (교역자회 회장)

전 주 ..... 반 주 자

묵 도 ..... 인 도 자

●개회찬송 ..... 1 장(만복의 근원) ..... 다 같 이

만복의근원 하나님 은혜성 찬송드리고 겨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 148번(시편46편) ..... 인도자와회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용용하고 뛰놀든지
그강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4장(전능왕 오셔서) ..... 다 같 이

1.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한손에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3.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은총게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지키심
함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옵소서
4. 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회중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대표기도 ..... (교회협의회 부회장) 정태진목사

## 교협 회관 건물을 구입한 이야기



80년대에 들어서서 뉴욕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동포사회에 청소년 사회문제가 비례적으로 증폭되었다. 80년대 뉴욕의 사회적 상황은 오늘 2000년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뉴욕 시만 해도 매일 수십 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했고, 지하철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으며, 거리는 범죄와 쓰레기와 행려병자로 가득했다. 그 배후에는 마약 밀매가 성행했고 모든 범죄와 악의 근원이었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 대책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 미리 계획된 대안 없이 당면한 문제는 심각했고, 그 역기능은 전체 동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악역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수많은 소수 민족 중 일부분인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 자신이 해결해야 했다. 한국과 달리 이민생활에서 미 정부 당국이나 교육부서에서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교과 지도 이외에 정서 교육이나 사회 지도 등에서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기구나 경찰도 사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선도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니었다. 학부모들은 초기 이민생활의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일에 몰두하느라 자녀들과 대화할 틈도 없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점점 거리만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렇게 취약한 공백을 채워 주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해야 한다고 판단한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과 산하기구인 청소년센터 사역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책임감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했다.

당시의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창립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라 교협 사무실이 플러싱 프린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에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88년도에 뉴욕교협에서는 평신도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목회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사회를 평신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제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연합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회관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협 임원회와 이사회에서는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1988년도(김정국 목사), 89년도(양희철 목사), 90년도(장석진 목사) 세 회기에 걸쳐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뉴욕한인연합집회인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헌금 지원 등 집중적으로 모금을 해서 16만 달러의 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우드사이드에 소재한 교회 건물 구입을 검토했으나 포기하고, 91년도에 현재의 유니온 스트리트 소재 빌딩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그해 회장 방지각 목사) 회관 건물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한복판에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건물을 마련하여서 그 건물의 2·3층은 교협에서 사용하고, 1층과 베이스먼트를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지도와 학원선교를 위한 본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교협이 35돌을 맞이하며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라기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교협 회관이 확장 이전되어 자손들과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되며, 대뉴욕지역교협 연합사업과 뉴욕한인기독회관으로 성장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염정남 장로

제3대 교협 이사장

# 제 18 년사

주후 1992년



## 18대 교협 회장

퀸즈침례교회

Queens Baptist Church

정태진 목사, Rev. Tae Jin Chung

36-06 Prince St. Flushing, NY 11354

## 18대 교협 임원

회 장 정태진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부 회 장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심홍섭 장로 (낫소한인교회)

총 무 진성인 목사 (뉴욕소망교회)

서 기 강성진 목사 (뉴욕엠마오장로교회)

부 서 기 이승재 목사 (은혜장로교회)

회 계 김승도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 6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김종대 장로 (시온성장로교회)

부이사장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김영찬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최광선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부 총 무 박희정 집사 (온누리영광교회)

서 기 최형룡 권사 (아스토리아한인교회)

부 서 기 김정일 집사 (목양장로교회)

회 계 최창래 집사 (효신장로교회)

부 회 계 변성원 집사 (갈보리세계선교교회)

감 사 백창건 목사 (새문침례교회), 황일영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1992년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18기)**

**임원 및 분과위원장 명단**

**임 원**

| | | (H) | (Ch) or (B) |
|---|---|---|---|
| 회 장 | : 정태진목사(뉴욕한인침례교회) | (718)271-6598 | (718)321-8040 |
| 부 회 장 | : 김남수목사(순복음뉴욕교회) | (201)767-1952 | (212)947-8566 |
| 부 회 장 | : 심홍섭장로(낫소한인교회) | (718)352-1112 | (718)359-4200 |
| 서 기 | : 강성진목사(뉴욕엠마오장로교회) | (718)321-7018 | (718)321-7018 |
| 부 서 기 | : 이승재목사(은혜장로교회) | (718)423-6978 | (718)461-4657 |
| 회 계 | : 김승도집사(뉴욕효신장로교회) | (718)544-4337 | (212)695-0909 |
| 부 회 계 | : 변성원집사(갈보리세계선교교회) | (718)463-5290 | (718)353-0193 |

**총무단**

| | | | |
|---|---|---|---|
| 총 무 | : 진성인목사(뉴욕뉴욕소망교회) | (718)544-9685 | (718)478-8196 |
| 협 동 총 무 | : 이명룡목사(뉴욕중앙성결교회) | (718)762-2473 | (718)507-7900 |

**분과위원장**

| | | | |
|---|---|---|---|
| 선교분과 | : 박순종목사(뉴욕베델교회) | (212)601-3501 | (212)796-5600 |
| 교육분과 | : 한세원목사(뉴욕영락교회) | (718)423-3607 | (718)353-8594 |
| 사회분과 | : 한장희목사(퀸즈중앙장로교회) | (718)899-7992 | (718)478-7021 |
| 재정분과 | : 안병준집사(뉴욕교회) | (516)365-5717 | (718)445-3300 |
| 목회분과 | : 이승훈목사(루터성제일교회) | (718)321-0094 | (718)939-8599 |
| 홍보분과 | : 손석구목사(갈보리교회) | (718)983-8364 | (718)983-8347 |
| 음악분과 | : 이학로목사(퀸즈순복음교회) | (516)358-7676 | (718)271-4171 |
| 체육분과 | : 홍병기목사(목양장로교회) | (718)424-1012 | (718)507-7749 |
| 여성분과 | : 구춘희장로(아스토리아장로교회) | (718)961-1163 | (212)870-3693 |
| 청소년분과 | : 한유광목사(뉴욕가나안장로교회) | (718)961-4852 | (718)359-2222 |
| 역사자료분과 | : 박수복목사(뉴욕수정교회) | (718)848-0766 | (718)848-0766 |
| 국제분과 | : 백예원목사(뉴욕초대교회) | (718)939-0239 | (718)639-5502 |
| 노인분과 | : 최홍렬목사(루터성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592-3789 |
| 청년분과 | : 이효선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279-9460 | (718)359-0166 |

## 1992년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18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부회장:김남수목사


회 장:정태진목사


부회장:심홍섭장로


서기:강성진목사


부서기:이승재목사


회 계:김승도집사


부회계:변성환집사


총 무:진성건목사


협동총무:이병호목사


신 교:박순종목사


교 육:한세원목사


서 회:염창의목사


재 정:권웅준집사


찍 회:이승문목사


홍 보:손석구목사


음 악:이학모목사


체 육:송행기목사


청소년:한동광목사


여 성:구춘희장로


역 사:박수복목사


국 제:백애원목사


노 인:최말엽목사


청 년:이호선목사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사회
## 역대 이사장


초대/방지각목사


2대/김우선장로


3대/염성남장로


4대/서광배장로


5대/심홍섭장로

## 1992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18회기) 이사장 임원명단


이사장/김종대장로


부이사장/최원호장로


부이사장/최광선장로


부이사장/김영환권사


부이사장/이광호장로

| | | | | |
|---|---|---|---|---|
| 이 사 장 | : | 김종대장로(뉴욕시온성교회) | (H) (718) 507-1448 | (B) (212) 860-3030 |
| 부이사장 | : | 최원호장로(순복음뉴욕교회) | (H) (516) 333-5223 | (B) (516) 333-0942 |
| 부이사장 | : | 최광선장로(뉴욕한인중앙교회) | (H) (718) 424-9007 | (B) (718) 424-9712 |
| 부이사장 | : | 김영환권사(아스토리아한인교회) | (H) (516) 678-5016 | (B) (516) 432-5010 |
| 부이사장 | : | 이광호장로(뉴욕동부교회) | (H) (718) 361-1699 | (B) (212) 619-4877 |
| 총 무 | : | 조영상집사(한빛교회) | | (B) (718) 463-7676 |
| 부 총 무 | : | 박희영집사(은누리영광교회) | (H) (718) 351-5493 | |
| 서 기 | : | 최형풍권사(아스토리아한인교회) | (H) (516) 374-3496 | |
| 부 서 기 | : | 김정일집사(목양장로교회) | | (B) (718) 706-6590 |
| 회 계 | : | 최창래집사(호산장로교회) | (H) (718) 803-2124 | (B) (718) 443-9508 |
| 부 회 계 | : | 변성환집사(갈보리선교교회) | (H) (718) 463-5290 | (B) (718) 353-0193 |
| 감 사 | : | 백창현목사(새문밖예교회) | (H) (718) 592-4008 | |
| 감 사 | : | 황일영집사(순복음뉴욕교회) | (H) (201) 346-0386 | (B) (212) 532-5232 |




교협 신년 하례 만찬기도 19일 저녁 할러데이 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 「신년하례만찬 기도회」에서 정태진목사가 신년사를 하고있다. (이전 - 박 홍 경 기자)

# 사회봉사하는 교회상 다짐

## 교협 신년하례 만찬회, 5백여 교계지도자 참석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태진목사)는 19일 할러데이 인에서 열린 한해의 신앙적 승리를 다짐하는 신년하례 만찬 기도회를 가졌다.

변종덕 뉴욕한인회장, 김기수 뉴욕총영사 등 각종 단체장과 뉴욕 일원의 교계 지도자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만찬 기도회에서 정태진회장은 「90년대의 역사를 가진 뉴욕 교협이 에큐메니컬 협력운동의 촉매를 통해 한 신앙을 갖춘 뉴욕 교계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교협이 발돋움하는 뉴욕을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살아나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협바이런스신학대의 황을원목사(신학교회)가 「미주 한인교회가 연기·선동·물량주의·경영주의·분열주의·출세주의에 병들어 있다」고 진단하고 「한인 1세들의 신앙의 참열을 3세들이 본받게될 세계선교 사명에 올바로 사용하자」고 역설,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김남수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교협의 90년도 사업방향인 ▲코로나회 봉사상 조국종일 ▲청소년 문제 ▲할렐루야 맵 대뉴욕 권도대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손영구목사(뉴욕 산정현교회), 안유광목사(뉴욕가나안 장로교회), 박순종목사(뉴욕베델교회)의 특별기도순서가 있었다.

조정철목사(뉴욕 사울공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만찬회에서는 청소년센터 구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생찬 권사(이스트66아 한인교회)가 교협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협신도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 이날 만찬회에서는 교협 곽진심회장인 ▲알지라목사(회장) ▲어광배 장로(부회장) ▲심종심장로(여신장) ▲송병기목사(총무)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구춘희장로(한국교회여성연합회) ▲김영호 비무키복교합동 사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한편 이날 만찬회에는 펜즈 프리뷰지의 마이클 네스바움 사장이 참석해 한인들의 이역시회에 대한 기여와 종교의 자유를 역설,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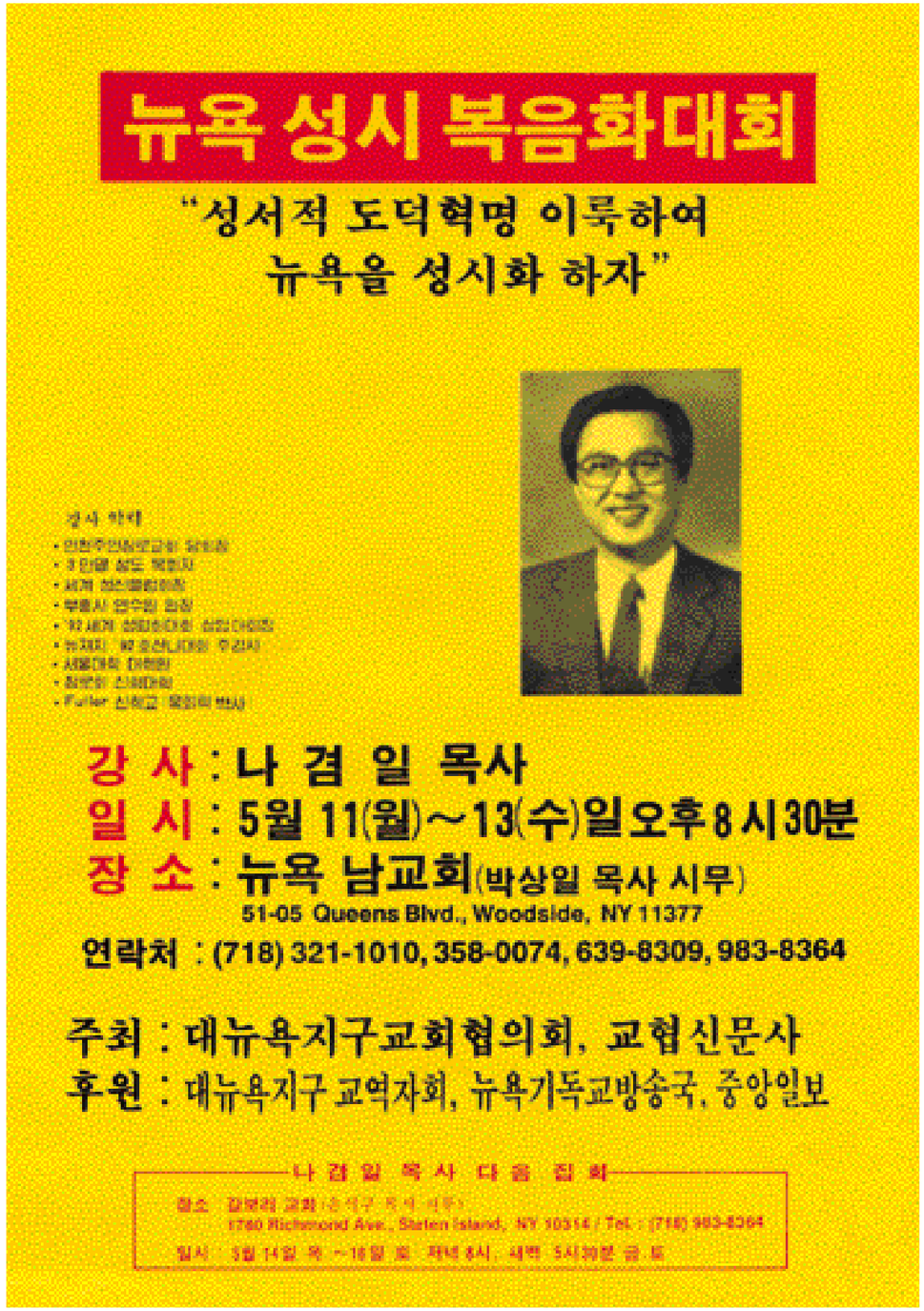









1. 회장 정태진 목사가 신년사를 하고 있다.
2. 첫 예배 중 찬양하는 성도들
3. 새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목사와 성도들
















1. 경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2. 승리를 기원하며 기념 촬영
3.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는 회장 정태진 목사
4. 회장이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고 있다.












1. 강사 김홍도 목사
2.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가 되다.
3.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들







4. 어린이 부흥회 강사 윤성숙 전도사(안디옥 커넥션 디렉터)의 말씀을 경청하는 어린이들
5. 청소년 집회에서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6. 강사 안재호 목사(퀸즈한인교회 시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여 기도하는 청소년들



The Korea Times Nev

SECTION (A1) Issue No. 7052 1992년 7월7일 화요일 (일간) 42-22 27TH ST. LONG ISL

# 할렐루야 '92뉴욕전도 대회 개막

## 복음성가 한인가정 곳곳에 가득

## 김홍도목사 설교에 2천여신도 열광

뉴욕교계 최대의 행사로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연합에 기여해오고 있는 할렐루야 '92대뉴욕전도대회가 2일저녁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퀸즈칼리지 골든센터에서 개막했다.

금년으로 제 13회를 맞는 할렐루야대회 첫날집회에서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회장 정태진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갖가지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복음을 오도하며 신학상이 문제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퇴색시키는 때이 신앙의 잡에서 깨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교파와 교회를 초월해서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장은 또한 최근의 LA폭동사태에 관해 언급하면서 혹인을 미워하고 질시하기 보다는 혹인을 이해하며 헌신하는 기회로 삼고, 모든에 찢는 일에서 사랑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창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교회협의회장 정태진목사의 대회사, 혹인합창단의 찬양, 갈태규목사의 대표기도, 금란교회 찬양대의 찬양, 김홍도 목사의 설교, 합소네센터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진목사의 강사소개와 성경봉독에 이어 한영의 박수기문에 단상에 오른 강사 김홍도목사는 이날 '말씀의 활용'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못하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1:1)란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소원과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간구하는 생활을 할때 응답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목사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자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문제의 심앙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되며 믿는 자의 축복과 상급은 말씀을 지켜 영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를 통해서만 얻게된다고 당부했다.

이때금 폭소를 자아내게하는 예화의 함께 끔이한 소재와 비유를 통해 말씀의 도리를 밝히는 그의 메세지에 참석자들은 계속적인 "아멘"으로 화답했다.

설교에 이어 참석자들은 강사의 인도로 큰 소리로 "주여" 3창을 부른 뒤에 성령충만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참석자들이 복음성가 '말씀니다'를 부르는 동안 강사 김홍도 목사가 최음 예수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초청한을 때 수백명이 손을 들고 일어났으며 김목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뉴욕을 방문한 서울금란교회 1백80명 찬양대원들이 고운 한복차림으로 찬양했는데 김목사의 제의와 참석자들의 영롱로 '고난' '사랑합과 친절한은' '영광의 주는' 등 모두 4곡의 찬양을 함께 불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본대회가 개최되는 퀸앙 콜론센터 밖에서는 약 3백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신숙전도사(안디옥커넥션 디렉터)의 어린이 전도팀인 king's Kids 팀의 인도로 어린이 전도대회가 열렸다.

(이성열 기자)



## L.A. 폭동사태 특별기도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1992년 5월 17일(주일) 오후 7시 대뉴욕지구 교역자회, 미주 기독교방송, 교회협의회 산하 각 교단, 뉴욕 기독실업인회 등의 후원으로 한성교회당에서 L.A. 폭동사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예배는 사회 안창의 목사, 대표기도 박수복 목사, 설교는 김남수 목사(교협부회장)께서 "풍성한 연보"(고전 7: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특별기도 1) 피해를 입은 나성교민과 조국을 위하여, 안유광 목사. 2) 한, 흑간의 화합과 미국내 인종갈등해소를 위해. 백창건 목사. 3) 미국인의 신앙회복을 위하여. 강성진 목사 그리고 허걸 목사의 헌금기도, 회장 정태진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정태진회장(오른쪽)이 심항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형사관, 장동섭목사, 노인국장로.

## 뉴욕·시카고 교회협의회서

# 폭동피해성금 12만불

## 남가주 교회협의회 앞으로 보내와

LA폭동을 계기로 미주 전체 한인교계 사랑의 손길이 LA에 뻗쳐왔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태진목사)및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강인덕목사)는 20일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항구목사)앞으로 각 지역 교회협의회에서 모금한 헌금 12만여달러를 전달했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정태진목사는 20일 뉴욕지역 한인교회에서 모금한 6만1백3달러75센트를 지참하고 LA를 방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전달하고 LA한인이 입은 폭동피해에 대해 뉴욕지역의 한인교회들이 같이 아픔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4시 로빈스호텔에서 가진 전달식에서 정태진목사는 「비록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한국인의 정은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고 「4백50여 교회중 개별적으로 성금을 낸 교회를 제외한 53개교회가 정성껏 헌금한 전액을 LA교회협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LA에 오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카고한인교회협의회는 우편을 통해 모금한 5만7천8백69달러35센트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로 전달해왔다.

성금을 전달받은 심항구회장은 「미주 교계사상 타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헌금지원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성금을 모아 보내준 교회들의 뜻에 따라 성금을 활용하되 임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2. 7. 21)

12년10월21일 수요일 中 央 日 報

# "10월 휴거는 성경해석 잘못"

## 뉴욕교협 시한부 종말론에 공식입장 발표

## 성도들 교회복귀 기도 촉구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태진목사)가 뉴욕지역 한인교회를 대표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욕교협은 10월 종말론이 이기체 온 각종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 침투자세로만 일관, 「신앙의 갑갑이」로서의 시련을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회협은 이 성명서에서 10일 휴거를 주장했던 다메다 선교회, 오는 28일을 휴거일로 선고하는 마리너타 선교회, 다이 선교회를 이단으로, 또 하정식, 안병오, 이용림 지도자를 「사단의 영을 받은 자」로 각각 규정한 뒤 이들이 「더 이상 성도를 유혹하는 곳에서 돌아서 성경중심의 삶을 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회협은 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성명서」란 팜프렛을 통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던 10월10일이 지났으므로 거기에 추종했던 성도들은 더 이상 시한의 영을 받은 하방이에게 속지말고 빨리 떠나와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당부했다.

뉴욕교협은 휴거일과 관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관한 성경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경에는 예수재림의 두려한 일시가 정해 있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고 못박았다.

뉴욕교협은 또 시한부 종말론의 과오에 대해 「교회는 종말론에 빠졌던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자」며 「목회자들도 말세가 가까와 온 이때 예수재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과 교회를 올 보호하에 목회사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뉴욕교협의 정태진 회장을 비롯 진상인, 안창의, 손서구 목사등이 뉴욕 다메다 선교교회를 방문, 휴거를 기다리며 예배보는 신도들의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한편 뉴욕교협의 이번 성명에 대해 퀸즈 보교회의 목회는 「높은 감은 일지만 안정된 가운에 생업과 신앙생활에 몰념할 수 있도록 교계가 나선 것은 환영할일」이라고 말했다.

### 뉴욕 기독실업인회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N.Y.)

**비지니스 세계에 하나님을 모시자**

CBMC
Ministry to the Marketplace

CBMC란 어떤 단체인가?
1)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
2) 1930년 세계 대 경제 공황시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됨

CBMC의 목적?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함께 하여 생활 현장에서 영적 생산자를 길러 팀조직, 훈련, 활성화 시켜 복음으로 실업인과 전문인 사회를 파고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CBMC 조직은?
국제조직: 본부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80여 개국에 조직되어있음.
한국조직: 1962년 동란시 소개 사단법인 한국CBMC로 조직.
뉴욕조직: 1992년 3월 21일 조직. 5월 15일 인준 받음.
역대회장: 제1대 최지원, 제2대 장현석, 제3대 김영수, 제4대 최창욱, 제5대 최형무, 제6대 박용기


1


2


3



4

1. 2. 할렐루야 '92 전도대회에서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선교사의 인솔하에 온 레시아 합창단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
3.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1975년도에 창립하여 1992년에 이르러 5백여 교회로 성장함을 축하하며, 뉴욕 시장이 교협 회장 정태진 목사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있다(시장 대신 시 직원인 줄리안이 수여).
4. 김영찬 권사가 1만 달러를 헌금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뉴욕교회협의회 건물 잔금을 완불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 할렐루야 '92 전도대회에서는 한 · 흑 관계 개선을 위해서 흑인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천 달러씩을 전달했다.

# 제 19 년사

주후 1993년



## 19대 교협 회장

순복음뉴욕교회

Full Gospel New York Church

김남수 목사, Rev. Nam Soo Kim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 19대 교협 임원

회　　장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장　도진수 목사 (뉴욕연합교회), 김종대 장로 (시온성교회)

총　　무　최웅렬 목사 (후러싱나사렛교회)

서　　기　안찬수 목사 (시민교회)

부 서 기　정영효 목사 (뉴욕갈보리교회)

회　　계　황일영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변성원 집사 (갈보리선교교회)

## 7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김영찬 권사 (아시안아메리칸교회)

부이사장　박수복 목사 (뉴욕수정교회), 한요한 목사 (충신장로교회)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김월주 목사 (성산장로교회)

서　　기　장길준 목사 (브롱스한인침례교회)

회　　계　조영상 집사 (한빛교회)

감　　사　강성진 목사 (뉴욕진리장로교회), 김우진 권사(후러싱제일교회)



## 1993년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제19회기)

### 임원 및 실행위원 명단

**임 원**

| | | | < Home > | < Church > |
|---|---|---|---|---|
| 회 장 | 김남수 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 (201)767-1952 | (718)321-7800 |
| 부 회 장 | 도진수 목사 | 뉴욕연합교회 | (914)997-9306 | (718)392-2968 |
| 부 회 장 | 김종대 장로 | 시온성교회 | (718)507-1448 | (212)860-3030 |
| 서 기 | 안찬수 목사 | 시민교회 | (718)358-2419 | (718)479-9626 |
| 부 서 기 | 정영효 목사 | 뉴욕갈보리교회 | (718)457-8406 | (718)886-6060 |
| 회 계 | 황일영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201)346-0386 | (212)532-5232 |
| 부 회 계 | 변성원 집사 | 갈보리선교교회 | (718)463-5299 | (718)353-6193 |

**총무단**

| | | | | |
|---|---|---|---|---|
| 총 무 | 최웅렬 목사 | 후러싱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592-3789 |
| 협동총무 | 장영관 목사 | 뉴욕갈보리장로교회 | (718)428-3564 | (516)747-5385 |

**분과위원장**

| | | | | |
|---|---|---|---|---|
| 선교분과 | 김승희 목사 | 초 대 교 회 | (718)639-5502 | (718)639-5502 |
| 교육분과 | 박문근 목사 | 뉴욕성신교회 | (718)456-1273 | (718)353-5941 |
| 사회분과 | 이상일 목사 | 사랑의교회 | (718)321-2152 | (718)335-6141 |
| 재정분과 | 최광선 장로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424-0007 | (718)424-9712 |
| 목회분과 | 허 집 목사 | 뉴욕제일침례교회 | (718)803-6378 | (718)478-1929 |
| 홍보분과 | 조용익 목사 | 뉴욕성마누엘교회 | (718)507-6448 | (718)507-6448 |
| 출석분과 | 이광희 목사 | 탑펠루아뉴욕교회 | (516)873-6842 | (718)429-3002 |
| 체육분과 | 황정일 목사 | 뉴욕제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45-3901 |
| 여성분과 | 김혜자 목사 | 뉴욕순복음제일교회 | (718)461-0354 | (718)886-0067 |
| 청소년분과 | 문형준 목사 | 뉴욕선교교회 | (718)359-3973 | (718)461-8464 |
| 역사편집분과 | 박석규 목사 | 후러싱한인교회 | (718)463-7425 | (718)463-7426 |
| 국제분과 | 백예원 목사 | 초 대 교 회 | (718)939-0239 | (718)639-5502 |
| 노인분과 | 홍대윤 목사 | 뉴욕중앙산병원교회 | (718)565-6010 | (718)565-6010 |
| 청년분과 | 전광호 목사 | 국제선교교회 | (718)321-7643 | (718)335-0696 |

## 1993년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19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이사회 역대 이사장




## 1993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19회기) 이사회 임원명단







| | | | | |
|---|---|---|---|---|
| 이사장 | 김 영 천 목사 | 바 시 안 아 베 리 한 교 회 | (718)678-5016 (H) | (516)432-5010 (B) |
| 부이사장 | 박 수 복 목사 | 뉴 욕 수 정 교 회 | (718)997-6373 (H) | (718)848-0766(CH) |
| 부이사장 | 한 요 한 목사 | 충 신 장 로 교 회 | (516)883-7561 (H) | (718)428-2057(CH) |
| 부이사장 | 최 병 호 장로 | 순 복 음 뉴 욕 교 회 | (516)333-5223 (H) | (516)333-0942 (B) |
| 부이사장 | 이 광 희 장로 | 뉴 욕 동 부 교 회 | (718)361-1699 (H) | (212)619-4877 (B) |
| 총 무 | 김 형 주 목사 | 성 산 장 로 교 회 | (718)353-8053 (H,CH) | |
| 서 기 | 장 길 준 목사 | 브 롱 스 한 인 침 례 교 회 | (718)365-4256 (H) | |
| 회 계 | 조 형 상 집사 | 한 빛 교 회 | (718)224-1859 (H) | (718)461-0449 (B) |
| 감 사 | 장 병 권 목사 | 뉴 욕 인 리 장 로 교 회 | (718)321-7018 (H,CH) | |
| 감 사 | 김 무 선 장로 | 후 러 싱 제 일 교 회 | (718)642-9760 (H) | (718)467-4666 |

# 1993년도
# 신년하례만찬예배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1993년 1월 11일(월) 오후 7시
●곳 : 순복음뉴욕교회당 (후러싱 성전)
130-30 31 Ave.
Whitestone, NY 11354
Tel : (718)321-7800

## 주최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대표전화 : (718)358-0074
F A X : (718)321-0105
청소년센타 : (718)321-1010

1/9/9/3

## 제1부 • 예 배

1월 11일(월) 오후 7시 (*표는 일어설)

사회 : 도진수 목사 (교협 부회장)

전 주 ..... 반 주 자

개 회 사 ..... 사 회 자

*개 회 찬 송 ..... 제248장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 같 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세였던 종들이 몰아오네 오래전 건지자 몸부던 복음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모이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멸망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신과 직신이 아우적 흘러 주예수 손충을 찬송하네
4. 영들이 여따아 멸은 성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악을과 죄악의 결박은 영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정태진 목사 (교협직전 회장)

성 경 봉 독 ..... 롬 12 : 1-2 ..... 김영찬 권사 (교협 이사장)

찬 양 ..... 순복음연합성가대 (지휘 : 강명린 집사 • 반주 : 김인숙 자매)

설 교 .....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 이원상 목사 (위싱턴 중앙장로교회)

헌 금 기 도 ..... 최광선 장로 (재정분과위원장)

헌 금 특 송 ..... 독창 노윤숙 선생 (남촉사랑의 교회)
반주 김미리 선생

헌 금 ..... 헌 금 위 원

*찬 송 ..... 제23장 • 만입이 내게 있으면 ..... 다 같 이

1.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지고 내 구주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2.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영광 넘치게 다 알게하소서
3.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음악 같으니 참 복되도다
4.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푸시고 이 추한입을 죄로써 곧 정케하셨네 아 멘

*축 도 ..... 정성단 목사 (남서지교협 회장)

# 제 2 회 교육대회 자료집

# 성서와 교회교육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718)358-0074/ Fax:(718)321-0105



## 차 례

인사말씀 : 기독교 교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교협회장 김 남수 목사) ---- 1
인간 교육의 중요성 (교협부회장 도 진수 목사) ---- 2
책을 엮어내면서 (제2회 기독교 교육대회 준비위원장 박 문근 목사)---- 3

제 1 부

설 교 : I. 목회지의 교회 교육 (김 득렬 목사)---- 5
II. 교회와 교회 교육 (김 득렬 목사)---- 9
III. 이민교회와 교회 교육 (김 득렬 목사)---- 12

총 발 제 : 성서와 교회 교육 (차 종로 목사)---- 14

분과토의 : 1 분과 : 성서적 건강관과 교회교육 (이 종성 박사)---- 21
2 분과 : 성서적 직업관과 교회교육 (이 숙인 박사)---- 25
3 분과 : 성서적 결혼관과 교회교육 (한 영희 박사)---- 31
4 분과 : 청소년 문제와 교회교육 (김 득해 박사)---- 33
5 분과 : 학교교육과 교회교육 (한 유장 목사)---- 35
6 분과 : 조기교육과 교회교육 (최 병업 목사)---- 41
8 분과 : 이민생활과 교회교육 (곽 승용 박사)---- 49

제 2 부

인사말씀 : 청소년 문제는 30인 고포의 책임 (김 정국 목사)---- 55
교협 입장에서 본 청소년 문제의 예방책 (양 희철 목사)---- 56

설 교 : I. 행복한 가정 (김 계용 목사)---- 58
II.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김 계용 목사)---- 67
III. 이민 교회와 교육 (김 계용 목사)---- 77

총 발 제 : 지혜로운 자녀양육 (권 오헌 목사)---- 86

분과토의 : 교회교육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차 종로 목사)---- 93
학교 교육면에서 본 가정교육 (이 영지 선생)---- 98
사회적 측면에서 본 가정교육 (홍 성욱 변호사)---- 101
세대차와 가정교육 (장 윤철)---- 105
망과후 생활을 통해서 본 가정교육 (홍 인숙)---- 107
이민 2세 지도자기 본 가정교육 (이 상헌 목사)---- 109

제2회 기독교 교육대회 준비위원장
박문근 목사



뉴욕 한인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 「기독교연예인 초청」 간증·찬양집회



일 시: 1993년5월15일(토)-16일(주일) 저녁8시

장 소: 5월15일(토)

1) 한성교회(한학수 목사 시무)
60-20 BROADWAY WOODSIDE, NY 11377

2) 동양제일교회(김일광 목사 시무)
50-43 97th Pl. CORONA, NY 11368

5월16일(주일)

1) 퀸즈한인교회(한진관 목사 시무)
89-00 23rd AVE., JACKSON HTS, NY 11369

2)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 시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 최: 교 협 신 문 사

주 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교역자회, 뉴욕한인회, 뉴욕지구한인 각 직능 단체

후 원: 뉴욕총영사관, 미주기독교방송, 뉴욕한국일보, 채널53, 채널67 뉴욕주재 지상사협의회

협 찬: 아시아나 항공, 대우, 현대, 대생기업, 한국도자기, 쌍용, 신경, (한국) 충현교회, 금란감리교회, 주안장로교회, 인천승의감리교회, 남서울중앙교회, 제일성결교회, 수원순복음교회, 은석교회, 명성교회, 서울은혜교회

## 전교협 체육대회







1. 배구 경기
2. 우리나라 고유의 씨름대회를 뉴욕에서 개최
3. 경기 시작하기 전 먼저 예배드리며 회장 김남수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4. 경기 마치고 우승자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 주는 회장 김남수 목사와 승자





















1. 대회장 김남수 목사가 개회사를 선언하고 있다.
2. 강사 신성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3.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 성가대
4. 다같이 기도하는 장면
5.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6.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무리들

# 제 20 년사

주후 1994년



## 20대 교협 회장

뉴욕한인중앙교회

The Korean Central Church of NY

조덕현 목사, Rev. Duk Hyun Cho

32-71 41 St. L.I.C., NY 11103

## 20대 교협 임원

회　　장　조덕현 목사 (뉴욕한인중앙교회)

부 회 장　박순종 목사 (뉴욕베델교회), 김영찬 목사 (뉴욕동부교회)

총　　무　안창의 목사 (퀸즈중앙장로교회)

서　　기　한학수 목사 (뉴욕한성교회)

부 서 기　박국화 목사 (한마음침례교회)

회　　계　김창훈 장로 (스데반선교교회)　　부 회 계　박종규 집사 (뉴욕초대교회)

## 8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이병홍 목사 (뉴욕중앙성결교회), 유기락 장로 (뉴욕영광장로교회)
이호선 목사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서　　기　박희식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회　　계　변성원 집사 (갈보리선교교회)

감　　사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정현진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 1994년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제 20회기)

### 임원 및 실행위원 명단

**임 원**

| | | | Church & Office | Home |
|---|---|---|---|---|
| 회 장 | 조덕현 목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 956-3716 | (201) 894-5076 |
| 부 회 장 | 박순종 목사 | 뉴욕베델교회 | (718) 796-5600 | (718) 601-3501 |
| 부 회 장 | 김영찬 목사 | 뉴욕동부교회 | (516) 432-5010 | (516) 678-5016 |
| 서 기 | 한학수 목사 | 뉴욕한성교회 | (718) 639-4929 | (718) 352-3651 |
| 부 서 기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 353-3159 | (718) 353-3159 |
| 회 계 | 김창훈 장로 | 스데반선교교회 | (718) 898-8884 | (718) 639-7407 |
| 부 회 계 | 박종규 집사 | 뉴욕초대교회 | (914) 241-0821 | (718) 899-3965 |

**총무단**

| | | | | |
|---|---|---|---|---|
| 총 무 | 안창의 목사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 478-7021 | (718) 899-7992 |
| 협동총무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 478-8900 | (718) 386-6432 |

**분과위원장**

| | | | | |
|---|---|---|---|---|
| 교육분과 | 진성인 목사 | 뉴욕소망교회 | (718) 478-8196 | (718) 544-9685 |
| 국제분과 | 이병준 목사 | 뉴욕산성교회 | (718) 539-7864 | (718) 279-3142 |
| 노인분과 | 한제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 423-3733 | (718) 423-4411 |
| 목회분과 | 박수복 목사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 848-0766 | (718) 997-6373 |
| 사회분과 | 박석균 목사 | 우리성한인교회 | (718) 463-7426 | (718) 463-7426 |
| 선교분과 | 한세원 목사 | 뉴욕영락교회 | (718) 533-1272 | (718) 335-3194 |
| 여성분과 | 구춘희 장로 | 아스토리아장로교회 | (718) 870-3693 | (718) 961-1163 |
| 역사자료분과 | 이규본 목사 | 브르클린제일교회 | (718) 266-4142 | (718) 714-6797 |
| 음악분과 | 이학모 목사 | 퀸즈순복음교회 | (718) 271-4171 | (516) 358-7676 |
| 재정분과 | 황일영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212) 532-5232 | (201) 346-0386 |
| 청년분과 | 전장호 목사 | 국제선교교회 | (718) 335-0696 | (718) 321-7643 |
| 청소년분과 | 문형준 목사 | 뉴욕선교교회 | (718) 461-8464 | (718) 359-3973 |
| 체육분과 | 황경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 767-7828 | (718) 445-3901 |
| 홍보분과 | 손석구 목사 | 갈보리장로교회 | (718) 983-8347 | (718) 983-8364 |

## 1994년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제 20회기)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부회장 / 박순종 목사


회장 / 조덕원 목사


부회장 / 김영진 전사


서기 / 원학수 목사


부서기 / 박국희 목사


회계 / 김성훈 장로


부회계 / 박종구 집사


총무 / 안창희 목사


협동총무 / 김정기 목사


선교분과 / 한세원 목사


교육분과 / 진성언 목사


사회분과 / 박석규 목사


재정분과 / 황길영 집사


목회분과 / 백수복 목사


홍보분과 / 손혜구 목사


음악분과 / 이혁호 목사


지목분과 / 황경일 목사


청소년분과/일행분목사


하성분과 / 우순옥 장로


역사자료 / 이규봉 목사


국적분과 / 이병운 목사


노인분과 / 한지웅 목사


장년분과 / 전창호 목사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이사회 역대 이사장


8대 / 황지각 목사


2대 / 김무선 장로


3대 / 염정남 장로


4대 / 서광배 장로


5대 / 심홍섭 장로


6대 / 김종대 장로


7대 / 김병찬 전사

## 1994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제 20회기) 이사회 임원명단


이사장 / 최원호 장로


부이사장 / 이병룡 목사


부이사장 / 이호선 목사


부이사장 / 이종무장로

| | | | | |
|---|---|---|---|---|
| 이 사 장 | 최 원 호 장 로 | 순복음뉴욕교회 | (516) 433-6502(H) | (516) 333-0942(B) |
| 부 이 사 장 | 이 병 룡 목 사 | 뉴욕중앙성결교회 | (718) 762-2473(H) | (718) 507-7900(C) |
| 부 이 사 장 | 이 호 선 목 사 | 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 279-9460(H) | (718) 359-0166(C) |
| 부 이 사 장 | 홍 기 학 장 로 | 뉴욕열광장로교회 | (201) 666-1145(H) | (212) 684-1216(B) |
| 부 이 사 장 | 이 광 모 장 로 | 뉴욕동부교회 | (718) 368-1699(H) | (212) 619-4877(B) |
| 총 무 | 한 문 수 목 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 423-0343(H) | (718) 423-0343(C) |
| 서 기 | 박 희 석 집 사 | 순복음뉴욕교회 | (718) 565-1288(H) | (718) 321-7800(B) |
| 회 계 | 변 성 원 집 사 | 갈보리연교교회 | (718) 463-5290(H) | (718) 353-0190(B) |
| 감 사 | 송 병 기 목 사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 424-1012(H) | (718) 361-9199(C) |
| 감 사 | 정 원 진 집 사 | 순복음뉴욕교회 | (201) 945-7684(H) | (212) 967-4477(B) |

## 1994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20대 회장 조덕현 목사는 라콰디아 공항 앞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플라자(Holiday inn Crown Plaza)에서 1월 10일 오후 7시 30분에 1994년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거행하였다. 박순종 목사의 사회로, 김남수 목사의 대표기도 후, 정인영 목사(뉴저지파리사이드장로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5절을 통하여 "자기와 양 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조덕현 목사

▼ 한 해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만찬을 나누고 있다.

▼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 모금 운동

교협의 남은 모기지를 갚기 위하여 교협 모기지 기금모금 만찬회를 가졌다.









1. 설교하는 조덕현 목사
2. 찬양하는 여성 합창단
3.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







1. 청년부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2. 우승팀에게 회장이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3. 교협 목사들의 체육대회(6월 27일)



할렐루야 '94

# 대뉴욕전도대회



강사 : 이동표 목사
(서울 한신교회 담임목사)




뉴욕을 복음화 하자!

**어린이전도대회**

- 강사 : 조유경 전도사(여일장로교회 전도사)
- 일시 : 1994.6.30.(목)~7.3.(주일)
- 장소 : 퀸즈한인교회
  89-00 23rd Ave., Jackson Hts.
  (718) 672-1150
- 시간 : 저녁 8:00



(조유경 전도사)

**청소년전도대회**

- 강사 : 김영철 목사 (필라 엘리야 교육목사)
- 일시 : 1994.7.7.(목)~7.10.(주일)
- 장소 : 뉴욕신광교회
  33-55 Bell Blvd., Bayside
  (718) 423-3733, 4411
- 시간 : 저녁 7:00



(김영철 목사)

■ 일시 : 1994년 6월 30일 (목) - 7월 3일 (주일) 저녁 8시

■ 장소 : 퀸즈한인교회 (89-00 23rd Ave., Jackson Hts., N.Y.) / TEL.(718) 672-1150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EL. (718) 358-0074 / FAX. (718) 321-0105










1. 대회를 선언하는 대회장 조덕현 목사
2. 말씀을 전하는 이중표 목사
3. 은혜 받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는 성도들
4. 주여!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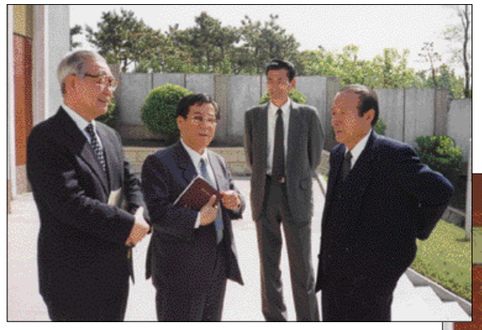




1.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2. 장학금을 주며 설명하는 회장 조덕현 목사
3. 장학금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4. 청소년 전도대회 집회의 현장

## 북한 방문

북한 조선해외동포위원회 초청으로 회장 조덕현 목사와 함성국 목사, 이병규 목사, 김효신 목사 일행이 1994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 북한 수행자 강영성 위원장 목사와 함께



▼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 후 기념 촬영



▲ 5월 8일 칠곡교회 예배 참석 후 기념 촬영



▼ 북한 방문 일행이 함께



# 제 21 년사

## 주후 1995년



| 21대 교협 회장 |
| --- |
| 뉴욕베델교회 |
|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 |
| 박순종 목사, Rev. Soon Jong Park |
| 34-04 Bailey Ave. Bronx, NY 10463 |

## 21대 교협 임원

| | |
| --- | --- |
| 회 장 | 박순종 목사 (뉴욕베델교회) |
| 부회장 | 한재홍 목사 (뉴욕신광교회), 최원호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
| 총 무 | 안찬수 목사 (시민교회) |
| 서 기 | 함종택 목사 (브르클린연합감리교회) |
| 부서기 | 조금석 목사 (뉴욕충현장로교회) |
| 회 계 |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
| 부회계 | 박종규 집사 (뉴욕초대교회) |

## 분과위원장

| | | | | |
|---|---|---|---|---|
| 선교분과 | 김택규 목사 | 뉴욕아스토리아한인교회 | (718) 728-8865 | (718) 224-5629 |
| 교육분과 | 박순오 목사 | 서울언약교회 | (718) 463-8181 | (718) 353-0953 |
| 사회분과 | 윤태헌 목사 | 로렌스한인교회 | (516) 285-7438 | (516) 825-5486 |
| 재정분과 | 박성범 장로 | 뉴욕동양계일교회 | (718) 782-2153 | (718) 229-0957 |
| 목회분과 | 이천우 목사 | 뉴욕주님의침례교회 | (718) 507-4113 | (718) 507-4113 |
| 홍보분과 | 김대근 목사 | 뉴욕성령교회 | (718) 445-6863 | (718) 445-6863 |
| 음악분과 | 이광희 목사 | 할렐루야뉴욕교회 | (718) 429-3082 | (516) 873-8842 |
| 체육분과 | 이성근 목사 | 뉴욕성문감리교회 | (718) 321-8229 | (718) 463-1022 |
| 여성분과 | 최외순 집사 | 베다니장로교회 | (718) 457-7246 | (718) 446-8273 |
| 청소년분과 | 정춘석 목사 | 뉴욕그리스도의교회 | (718) 429-6647 | (718) 429-6647 |
| 역사자료분과 | 한요한 목사 | 충신장로교회 | (718) 424-2057 | (718) 357-2048 |
| 국제분과 | 김상의 목사 | 안디옥선교교회 | (718) 461-7835 | (718) 353-3950 |
| 노인분과 | 이승근 목사 | 만나교회 | (718) 539-9848 | (718) 539-9848 |
| 청년분과 | 소의섭 목사 | 성도교회 | (718) 519-0037 | (718) 798-2888 |

1995년

## 신년하례만찬예배

대 ; 1995년 1월 9일 오후 7시

곳 ; 미동각 46-45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제1부 예배에는 한제홍 목사의 사회, 남학희 목사의 기도, 림택권 목사(필라한인교회)의 설교와 박희소 목사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곳 이어서 축하 만찬이 있었다.

## 금식성회

주후 1995년 2월 19-21까지 펜실베니아 포코노에있는 수양관에서, 김승호 목사 [달라스 산돌침례교회]를 강사로 초청 3.1절 금식성회를 개최했다.






## 조국 광복 50주년 민족 희년 대축제

조국 광복 50주년 민족 희년 대축제로 펼쳐진 '자전거 미대륙 횡단대회'. 6월 25일 LA를 출발하여 8월 15일 뉴욕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50주년 기념의 의미로 50일간의 여정을 완주하여 8월 15일 뉴욕 유엔 본부 앞 하마슐드 광장 앞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플러싱 가든에 통일 기원탑을 세웠다.



▲ 자전거 횡단 팀이 LA에서 출발 직전 감사 예배 후 기념 촬영

▼ LA 출발 직전 기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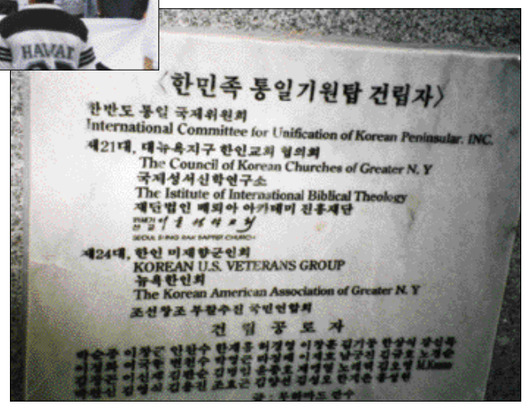




◀ 자전거 횡단 팀이 50여 일을 달려 8월 14일 뉴저지 도착 포트리를 통과하고 있다.



◀ 8월 15일 유엔 본부 하마슐드 광장 앞에서 기념 행사 직전의 모습




▲ 한국 태백산맥에서 돌을 구입하여 통일기념탑을 만들어 플러싱 가든에 세웠다.




◀ 통일기원탑. 한국에서 완성하여 콘테이너로 수송하여 플러싱 가든에 세웠다.



## 체육대회



▲ 대회 진행위원들



▲ 숏 골인!

▲ 이사회원 일동



▲ 장년부 배구 우승팀에게 트로피 증정

▼ 축구 우승팀에게 트로피 증정









1. 주여! 뉴욕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2. 강사 최성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3.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다.







◀ 장학금을 전달하는 회장 박순종 목사
▼ 장학금을 받으며 기뻐하는 학생들






▲ 찬양하는 어린이 전도대회 찬양팀




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임세빈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



뽑도 않고…탈도 않고…그래도 전진했다

# 95년 한인사회 10대뉴스

## 8·15 행사파행

## 교협 제자리찾기 교훈남겨



◇8·15 광복절 사태의 뉴욕측 주역인 안찬수 총무, 함재홍 부회장, 박순종 회장 (왼쪽부터).

한인사회 정신적 자주역할을 해온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의 위상에 일대 먹칠을 한 사건이 바로 지난 8·15 광복기념행사 파행사태다.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성스런 한민족의 축제여야 할 이날 행사에서 교회협의체와 친목기구에 머물러야 할 교협회대의와 본분을 강각하고, 교회의 선을 넘어 광복50주년 자전거대륙횡단등 범한인계 내지 범미주적인 규모의 여러 축제행사를 벌여오며 고공을 날던 박순종 교협기(배)는 정작 8·15의 정점에서 돌연 파행으로 추락했다. 이 일로 박순종 교협회장에 이어 임원단이 총사퇴하는 교협사상 최악의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축제준비위원회의 한국측 사무총장 이창근씨가 한국발 미주한인교계에 폭넓게 '이단성 교회'로 알려진 베뢰아파의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나서나 나름의 자본에 따라 진행하려던 행사가 하루전 사태를 파악하고 부터부터 교협이 금존한 자체 순서와 엉뚱한 한인들을 확당무비의 지경에 빠뜨린 이 사건은, 허영과 허세가 낳은 한마당 촌극이었다.

이날의 파행 내용은 교협이 15일 아침 일부 원로성직자회와 상록회등 한인단체들과 함께 뉴저지 포트리로부터 맨해튼 힐마술도광장에 이르러 순사의 정통성을 놓고 이창근씨 측과 악인의 충돌을 빚다가 '교협순서'를 치르고 난 후 나머지 일부 교인들을 모아 연이어 소위 '평화비'(실명: '한민족통일기원비') 제막식을 이창근씨 측 행사가 계속된 것.

(5면으로 계속)

# 8.15사태 채무 당사자가 해결

## 향후 행사는 이사회 승인받고 집행

### 교협 정기총회 수습대책위 보고서 채택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1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8.15행사 취소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뉴욕 교회협은 이날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조덕한목사)가 지난 1개월동안 마련한 「조국광복 50주년 행사 진상 규명 및 수습대책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 마무리지었다.

이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8.15 행사로 인한 금전적 채무 관계가 발생할 경우 관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한 것과 ▲향후 교회협 행사는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적법절차를 밟은 행사만 집행할 것 ▲당시 회장 박순종목사, 부회장 한재홍목사·최원호 장로, 총무 안찬수목사의 사표를 지난 8월17일자로 수리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도의적 책임으로 총사퇴한 이외 임원과 실행위원회의 사표는 반려키로 결의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부회장이자 행사준비위원장이었던 한재홍목사에 대해 「김기동씨가 개입된 것을 알고 난후 최원효부회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고 최후까지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서에 게재했다.

〈배기현 기자〉



뉴욕교회협이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단을 선출했다. 왼쪽부터 부회장 이광로장로 · 회장 한재홍목사



# 8·15행사 파행 교협 제자리 찾기 부심

# 제 22 년사

주후 1996년



## 22대 교협 회장

뉴욕신광교회

The Shin Kwang Church of NY

한재홍 목사, Rev. Jae Hong Han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22대 교협 임원

회 장 한재홍 목사 (뉴욕신광교회)

부 회 장 한세원 목사 (뉴욕영락교회),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총 무 박국화 목사 (한마음침례교회)

서 기 박수철 목사 (뉴욕순복음후러싱교회)

부 서 기 김종섭 목사 (퀸즈산성장로교회)

회 계 박종규 집사 (뉴욕초대교회)

부 회 계 홍종관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 10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황일영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허 걸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김창훈 장로 (스테반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총무이사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서 기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박희식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22회기 임원 및 실행위원명단

| 임 원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회 장 | 한재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3733 | 718-423-4411 |
| 부 회 장 | 한세원 목사 | 뉴욕영락교회 | 718-533-1272 | 718-335-3194 |
| 부 회 장 | 이광모 장로 | 뉴욕동부교회 | 212-619-4877 | 718-361-1699 |
| 서 기 | 박수철 목사 | 뉴욕순복음후러싱교회 | 718-358-1165 | 718-358-2332 |
| 부 서 기 | 김종섭 목사 | 퀸즈산성장로교회 | 718-793-5634 | 718-793-5634 |
| 회 계 | 박종규 집사 | 뉴욕초대교회 | 212-688-8844 | 718-899-3965 |
| 부 회 계 | 홍종관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516-931-3311 | 516-364-1646 |

| 총 무 단 | | | | |
|---|---|---|---|---|
| 총 무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445-2854 | 718-353-3159 |
| 협 동 총 무 | 이명길 목사 | 맨델장로교회 | 718-445-9603 | 718-359-5861 |

| 분과위원장 | | | | |
|---|---|---|---|---|
| 선 교 분 과 | 박수복 목사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461-9800 | 718-445-8667 |
| 목 회 분 과 | 박순오 목사 | 서울연합교회 | 718-463-8181 | 718-353-0953 |
| 역사지교분과 | 박문근 목사 | 뉴욕산돌교회 | 718-321-2532 | 718-321-2532 |
| 사 회 분 과 | 김정식 목사 |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 718-984-3333 | 718-948-0960 |
| 재 정 분 과 | 최용렬 목사 | 후러싱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592-3789 |
| 국 제 분 과 | 이경재 목사 | 뉴욕화광교회 | 718-225-5153 | 718-225-5153 |
| 여 성 분 과 | 서장선 전도사 | 뉴욕장로교회 | 718-899-2338 | 718-539-3097 |
| 교 육 분 과 | 박상일 목사 | 뉴욕남교회 | 718-639-8383 | 718-639-8309 |
| 노 인 분 과 | 이병수 목사 | 뉴욕엠마오선교교회 | 516-285-1767 | 718-494-5942 |
| 청 년 분 과 | 송대식 목사 | 뉴욕시내산교회 | 718-229-8855 | 201-947-4762 |
| 청소년분과 | 정춘석 목사 | 뉴욕그리스도의 교회 | 718-429-6647 | 718-429-6647 |
| 홍 보 분 과 | 김태근 목사 | 뉴욕생명교회 | 718-445-6863 | 718-445-6863 |
| 체 육 분 과 | 김종대 목사 | 뉴욕실로암장로교회 | 718-463-9013 | 718-457-3385 |
| 음 악 분 과 | 송병기 목사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361-9199 | 718-424-1012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 제22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 | | |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황일영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201-346-0386 | 201-346-0386 |
| 부 이 사 장 | 어 절 목사 | 뉴욕제일침례교회 | 718-478-1929 | 718-803-6378 |
| 부 이 사 장 | 김창훈 장로 | 스테반장로교회 | 718-898-8884 | 718-639-7407 |
| 부 이 사 장 | 박해용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507-2200 | 718-507-2200 |
| 부 이 사 장 | 이병무 장로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961-8801 | 718-805-1287 |
| 총 무 이 사 | 황정일 목사 | 뉴욕제명장로교회 | 718-460-0303 | 718-445-3901 |
| 서 기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212-977-1212 | 516-773-2903 |
| 회 계 | 최외순 집사 | 베다니장로교회 | 718-457-7246 | 718-446-8273 |
| 감 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23-0343 |
| 감 사 | 박희식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718-321-3232 | 718-539-7398 |

뉴욕한국일보

1996년 3월 1일 (금요일)

# "독도망언 일본에 강력대응" 다짐

## 제77회 3·1절 기념예배 경로잔치…2백여한인 참석 규탄서 채택

일본 정부 각료의 「독도 망언」과 관련 온 교포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제 77회 3·1절 기념예배와 경로잔치와 더불어 애국선조들의 독립 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며 또 다시 침략의 야욕을 품어내고 있는 일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와 뉴욕교협 및 평로협직자회 주최하고 교역자회 주관이사회가 주관이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퀸즈 모로니 소재 뉴욕그리스도의 교회(장춘식 목사 시무)에서 양민 동 행사는 뉴욕일원 목회자와 단체장 및 교포 노인들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3·1절 행사 및 경로잔치의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이태형장로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독립유공자 소개 및 평로협직자회 최치환장로의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서 채택 등이 있은 후 만세삼창으로 이어졌다.

이날 1부 예배 설교에서 뉴욕교협 증경회장 조덕현목사는 에스더 4장 10절서 17절까지를 인용 「3·1운동과 기독교」란 주제로 "1919년 3월 1일 정오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33인의 독립선언문 선포와 더불어 전국에 번진 독립만세운동에서 보여준 선조들은 종교와 교파, 지연을 초월해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어 목숨까지도 버렸다"며 "우리도 선조들을 본 받자"고 강조했다.

또 조목사는 최근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가름해야 한다"며 "우리 땅을 넘나보고 있는 일본의 오만한 자세를 규탄"했다. 조목사는 이어 "3·1 독립운동으로 일본 경찰과 군에 의해 우리 선조는 7천5백 9명이 피살, 1만5천6백21명이 부상, 4만6천9백46명이 체포 및 투옥한 고문을 당했고 47개 교회가 불탄 가운데 수원에서는 한 교회에 한인을 가두어 놓고 모두 불 태워 죽인 사실을 회고"하는 가운데 "고려나 우리 선조들은 총칼 앞에서도 무저항으로 버티며 조국의 자주독립 을 위해 싸웠다"고 기원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제 77회 3·1절을 맞아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원로 삼직자들과 경로회관 여러 회원들 및 이민목회자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날 모였다"며 "비록 많은 조국을 떠나 있으나 애국정신으로 조국의 품임을 알담기며 바른 신앙확립을 위한 자세로 21세기를 향하여 미래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그 누구도 조국을 알보지 않게 나라사랑하는데 앞장 서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




▲29일 뉴욕교협 및 평로협직자회 주최 3·1절 기념예배 및 경로잔치가 뉴욕그리스도의 교회와 경로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1부 예배에서 주업현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

## 뉴욕 14개교회에서 부활새벽 연합예배

전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7일 부활절을 맞아 각 교회에서 축하예배가 일제히 드려졌다.

봄비가 대지를 적신 이날 새벽 뉴욕에서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재홍목사) 주관으로 96년 부활새벽 연합예배가 오전6시 각 지역별로 14개 장소에서 일제히 개최됐다. 맨해튼의 경우 센추럴파크 72가 베데스다 폰드 곁에서 맨해튼 일대의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새벽예배를 드렸으며 연합예배 참석이 여의치 못한 교회들은 제각기 소속된 교회에서 별도로 새벽집회를 가졌다.

3지역으로 나눠져 거행된 플러싱 제1지구 예배는 후러싱제1교회에서 이승운 담임목사 사회로 김종덕목사 기도와 교역자들의 특별찬양에 이어 '산 자들 가운데서 찾자'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에 나선 한재홍교협회장은 누가복음 24장1—10절에 기초, 여인들이 "사흘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쓰이는 향품을 들고 빈 무덤을 찾아갔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준비였는가"고 묻고 따라서 ▲산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린 플러싱 제1지구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서 한재홍교협회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예수부활 의미 되새겨

## 부활절맞은 한인기독교 · 가톨릭계

배기헌 기자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한인 기독교계와 가톨릭계는 부활절인 7일 일제히 특별예배와 대축일 미사를 갖고 예수 부활을 찬양했다.

기독교계는 「예수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날」을 부활주일로 정하고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기념하며 신앙심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개신교계는 서머타임이 시작된 이날 오전6시 교단을 초월해 각각 15개와 7개 지역으로 나눠 인근 교회들이 함께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가졌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퀸즈중앙교회에서 열린 베이사이드지역 연합예배에는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한인교회 김정국목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 설교했다.

김목사는 「예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삶을 제시해 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전제하며 「부활 이후 예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 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각 교회별로 부활절 특별예배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부활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한편 가톨릭계도 「부활대축일 미사」를 갖고 예수 부활을 기쁨과 축복으로 맞는 모습이었다.

퀸즈한인천주교회 안상인 주임신부는 부활대축일 강론을 통해 「부활한 주님을 만나 일상의 삶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자」고 강조했다.

## 1996년 신년하례 만찬기도회

22대 회장 한재홍 목사는 뉴욕신광교회에서 1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에 신년하례 만찬기도회를 거행하였다. 사회는 한세원 목사, 기도에 방지각 목사, 설교는 박재영 목사(NJ제일한인교회)가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김정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 회장 한재홍 목사의 신년사


▲ 설교하는 박재영 목사


▲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는 모습



## 체육대회


❶


❷


❸

1. 체육대회 진행을 설명하는 본부석
2. 승리자의 웃음
3. 승리를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96

노인공경 · 지녀시랑(엡6:1-3)

# 대뉴욕전도대회




## "뉴욕을 복음화하자"

**대학 · 청년 전도대회**
- 강사: 김상환목사(Bethany KUMC)
- 일시: 1996년 5월 31일(금) 6월 1일(토) 6월 2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뉴욕신광교회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TEL. (718)357-3355

**청소년전도대회**
- 강사: Rev. Justin Suh (서랑연목사, 연LA장로교교회시무)
- 일시: 1996년 7월 5일(금), 6일(토) 7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늘목 장로교회
  68-03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3
  TEL. (718)899-2338-9

**어린이전도대회**
- 강사: 신관홍목사(한국연합국협회이사)
- 일시: 1996년 7월 11일(목)-13일(토) 오후8시, 14일(주일) 오후7시
- 장소: 퀸즈한인교회
  89-00 23rd Ave. Jackson Heights, NY 11369
  TEL. (718)672-1150

■ 일시 : 1996년 7월11일(목)-13일(토)오후8시, 14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 퀸즈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QUEENS)
89-00 23rd Ave. Jackson Heights, NY 11369 / TEL:(718)672-1150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EL (718) 358-0074 / FAX (718) 321-0105







강사 : 이민신 목사
- 서울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회장 역임
-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역임
-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역임
- 세계한인족 복음화협의회 총재
- 광복 50주년기념 경화동원 최근대회 총재



강사 : 김상환 목사
- Pastor of English, Bethany KUMC
- Manhattan School of Music, BA
- Univ. of Wisconsin, MA
- Drew Univ. M. Div.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h. M., Continue



강사 : 서정인 목사

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K.C.C.C.)
- Traveling Speaker
-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Program Director
- L.A. Summer Mission project director for Korea, Mexico, Philippine and Russia
- Campus Staff at U.C.L.A.



강사 : 신관홍 목사
- 총여학국단 전속 국가가 역임
- 1969년 이후 교계 인형극 초청강연
- 강화방송 시사, 연예를 스크립라이터 역임
- 선교 인형극 34년간 국내, 해외이 공연(3000여회)
- 현 한국 인형극협회 이사, 국제문화 대표장

# 96할렐루야 전도대회 개막



「할렐루야 '96 대뉴욕전도대회」가 11일 개막됐다. 참석한 신도들이 큰소리로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등 신앙적 열기를 보이고 있다. 전도대회는 14일까지 계속된다. 〈김한준 기자〉

## 연인원 1만명「뉴욕복음화」참석
## 교회협선 북한 수재민 돕기 병행

배기현 기자

뉴욕 한인 기독교계의 연중 최대 행사인 「할렐루야 96 대뉴욕전도대회」가 11일 오후8시 퀸즈한인교회에서 개막됐다.

「뉴욕을 복음화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도대회는 14일까지 계속된다.

(관계기사 2면)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재홍목사)가 뉴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취지로 올해 17회째를 맞는 할렐루야 전도대회에는 연인원 1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강사로 초청된 서울 중앙성결교회의 이만신목사는 전도대회 첫날인 이날 「주께로 돌아 오시오」란 주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세속에 빠진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며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영원한 삶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퀸즈한인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어린이 전도대회에는 신관홍목사가 강사로 나와 성경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들어 설교한 후 인함극을 공연했다.

전도대회 참석자들은 예배에 앞서 준비찬송과 통성기도를 하는 등 신앙적 열기를 보였으며 예배후에도 질서있게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 혼잡을 피했다.

한편 뉴욕 교회협의회는 전도대회 기간 동안 교회 입구에 북한 수재동포를 돕기 위한 성금함을 설치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13일에는 한인과 타민족 학생 10명에게 각각 5백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 할렐루야 전도대회 이렇게 이끈다

인터뷰

## 신 관 홍 목사



## 이 만 신 목사



## "인형극 통해 어린이 신앙전도"

## "영적 양식 부족하면 신자 줄어"







1. 주여, 주여!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2. 모두 함께 기도하는 광경
3. 설교하는 강사 이만신 목사





▲ 장학금을 주기 전 설명하는 회장 한재홍 목사



▲ 어린이 전도대회 예배 광경

▼ 장학금을 받으며 기뻐하는 학생



▼ 주는 기쁨, 받는 기쁨





1996년 9월 26일(목요일) 조선일보 35-11 Farrington St., Flushing, N.Y. 11354 대표전화: 7

# 한인교회 가스폭발로 큰불

◇ 가스폭발로 십자가 철탑만 남은 효신장로교회 24일 폭발사고로 천장더러워 벽해버린 효신장로교회 잔해에서 소방관들이 희생자를 추산하고 있다. 이 사고로 교회등한 주택 3채도 전소되고 5명의 소방관을 포함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인을 알단 가스누출로 보고 있다.

##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효신장로교회 24일새벽 참사

## 인근 민가 3채도 큰 피해…9명 다쳐

24일 새벽 4시45분쯤 퀸즈 플러싱 뉴욕효신장로교회(42-15 166st 담임 방지작목사)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대형폭발사고가 발생,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주택 3채가 전소되거나 화재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교회가 위치한 노던블러바드 1백66가 인근 주민들은 "새벽 5시 가까이 '펑 펑 펑'하는 연속 굉음이 터지는 것을 들었다"며 "폭파음과 진동이 워낙 커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경찰과 주변 거주자들의 말에 따르면 교회 건물은 새벽을 더램의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5명, 사고 당시 교회내에 있었던 관리인 1명, 인근 주민 3명 등 9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자는 없었다. 교회 관리인의 정무 목사과 통사에 신속히 교회를 빠져나와 목숨을 로하고 있었다. 또 교회 앞에 주차해 있던 차 11대는 폭발 노 공중으로 떴다가 떨어진 건물 조각들에 맞아 지붕가 많이 손상됐고 나머지 차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소방국은 이날 오전 2백명의 소방대원들을 동원, 화재진압에 나섰고 폰에다슨측도 사고현인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사고현장을 방문, 피해자들을 위로한 뒤 즈속한 사후수습을 지시했다. 〈박종호·김형훈기자〉

〈관련기사·사진 4면〉



## 뉴욕장로성가단

뉴욕장로성가단은 1996년 10월 10일 창립되었다.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과 사회봉사로 사명을 다하며, 교회의 연합과 상호간에 친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대 단목 박수복 목사
단장 김창훈 장로
총무 유시수 장로
지휘 양재원 교수
반주 황소라

제2대 단목 박수복 목사
단장 박해용 장로
총무 황일봉 장로
지휘 양재원 교수
반주 황소라

제3대 단목 안창의 목사
단장 황일봉 장로
총무 박용기 장로
지휘 배동근 장로
반주 황소라

제4대 단목 고성삼 목사
단장 박용기 장로
총무 유성종 장로
지휘 이전진 집사
반주 장선영




◀ 제1회 연주회(창단)




제3회 연주회 ▶

# 제 23 년사

주후 1997년



## 23대 교협 회장

뉴욕영락교회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of NY

한세원 목사, Rev. Se Won Han

33-26 107 St. Corona, NY 11368

## 23대 교협 임원

회 장 한세원 목사 (뉴욕영락교회)

부 회 장 박수복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황일영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김원기 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서 기 김태근 목사 (뉴욕성령교회)

부 서 기 문형준 목사 (뉴욕선교교회)

회 계 홍종관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부 회 계 변성원 전도사 (지구촌선교교회)

## 11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김창훈 장로 (스테반장로교회)

부이사장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구춘회 장로 (아스토리아장로교회)

총 무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서 기 우화선 장로 (한길장로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박희식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23회기 임원 및 실행위원 명단

| 임 원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 장 | 한세원 목사 | 뉴욕영락교회 | 718-335-3194 | 718-533-1272 |
| 부 회 장 | 박수복 목사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445-8667 | 718-461-9800 |
| 부 회 장 | 황일영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201-346-0386 | 718-377-7645 |
| 서 기 | 김태근 목사 | 뉴욕성령교회 | 718-445-6863 | 718-445-6863 |
| 부 서 기 | 문형준 목사 | 뉴욕선교교회 | 718-359-3973 | 718-461-8464 |
| 회 계 | 홍종관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516-364-1646 | 516-931-3311 |
| 부 회 계 | 변성원 전도사 | 지구촌선교교회 | 718-353-0193 | 718-463-5290 |

| 총 무 단 | | | | |
|---|---|---|---|---|
| 총 무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 협 동 총 무 | 김승희 목사 | 뉴욕초대교회 | 718-639-4236 | 718-639-5502 |

| 분과위원장 | | | | |
|---|---|---|---|---|
| 선 교 분 과 | 최용렬 목사 | 후러싱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592-3789 |
| 목 회 분 과 | 신성농 목사 | 뉴욕벧엘로장로교회 | 718-786-9721 | 718-786-9721 |
| 역사자료분과 | 박문근 목사 | 뉴욕산물교회 | 718-321-2532 | 718-321-2532 |
| 사 회 분 과 | 정진홍 목사 | 소명장로교회 | 718-886-9991 | 212-679-5264 |
| 재 정 분 과 | 임무송 장로 | 뉴욕시온장로교회 | 718-733-7596 | 914-623-9795 |
| 국 제 분 과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 여 성 분 과 | 임선숙 사모 | 뉴욕벧라헴비아교회 | 718-423-6035 | 718-353-3791 |
| 교 육 분 과 | 김석형 목사 | 롱아일랜드생명교회 | 516-746-4084 | 516-746-4084 |
| 노 인 분 과 | 정춘석 목사 | 그리스도의 교회 | 718-429-6647 | 718-429-6647 |
| 청 년 분 과 | 송동윤 목사 | 뉴욕밀알교회 | 718-886-4050 | 516-496-7333 |
| 소 년 분 과 | 박순호 목사 | 서울언약교회 | 718-353-0953 | 718-463-8181 |
| 홍 보 분 과 | 김정식 목사 |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 718-948-0960 | 718-984-3333 |
| 체 육 분 과 | 황경일 목사 | 뉴욕제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60-0303 |
| 음 악 분 과 | 조영철 목사 | 에스페리갈리교회 | 914-472-3418 | 914-472-3418 |
| 유 년 분 과 | 김종훈 목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718-886-8312 | 718-886-8312 |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회장 한세원 목사


부회장 박수택 목사


부회장 황일영 장로


총무 김원기 목사


서기 김태근 목사


협동총무 김승희 목사


부서기 문형준 목사


회계 홍종근 집사


부회계 변상원 전도사


선교분과 최용철 목사


목회분과 신성능 목사


역사자료 박문근 목사


시회분과 장진홍 목사


재정분과 임무승 장로


국제분과 박국희 목사


여성분과 정선숙 사모


교육분과 김세형 목사


노인분과 정준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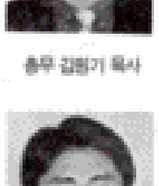

청년분과 유동은 목사


소년분과 박은오 목사


홍보분과 김정식 목사


체육분과 황경일 목사


음악분과 조영철 목사


유년분과 김종훈 목사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초대 황지각 목사


2대 김우선 장로


3대 염영남 장로


4대 서광제 장로


5대 심홍섭 장로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영찬 존사


8대 최진호 장로


9대 이광오 장로


10대 황일영 장로

## 제 23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김정훈 장로


부이사장 장창혁 목사


부이사장 박해용 장로


부이사장 이병무 장로


부이사장 구춘회 장로

| | | |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김정훈 장로 | 스테판장로교회 | 718-898-8884 | 718-639-7407 |
| 부 이 사 장 | 장창혁 목사 | 뉴욕성성장로교회 | 718-639-8667 | 718-424-4649 |
| 부 이 사 장 | 박해용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507-2200 | 718-507-2200 |
| 부 이 사 장 | 이병무 장로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961-8801 | 718-808-1287 |
| 부 이 사 장 | 구춘회 장로 | 아스토리아장로교회 | 212-737-8512 | 718-961-1163 |
| 총 무 | 윤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212-977-1212 | 516-773-2903 |
| 서 기 | 우하선 장로 | 한길장로교회 | 718-565-7874 | 718-565-7874 |
| 회 계 | 최의순 집사 | 베다니장로교회 | 718-457-7246 | 718-446-8273 |
| 감 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23-0343 |
| 감 사 | 박희식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718-321-3232 | 718-539-7398 |
| 사 업 부 장 | 윤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212-977-1212 | 516-773-2903 |
| 체육진흥계획부장 | 정경진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718-733-5401 | 718-631-1331 |

## 1997년 신년하례 만찬예배

23대 회장 한세원 목사는 1월 6일(월) Astoria World Manor에서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드렸다. 사회는 박수복 목사, 기도는 조덕현 목사, 설교는 림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목사)가 "손과 손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전했고, 축도는 한재홍 목사가 했다.








1. 새해를 기원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2. 회장 한세원 목사와 귀빈들이 담소를 나눈다.
3. 예배를 마치고 기념으로



## 체육대회







1. 배구 대회
2. 배치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씨름 선수
3. 우승자와 악수하는 회장 한세원 목사

# 1997년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부활의 아침에 새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어둔의 힘든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교파를 초월하여 각 지역별로 드리오니 성도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 시 : 1997년 3월30일(주일) 오전 6시
2. 장소 및 순서담당

| 지 역 | '96 헌금 | '97 헌금 | 집회장소 | 전화번호 | 주 소 | 소집자 | 설교자 |
|---|---|---|---|---|---|---|---|
| 뉴 욕 북 부 | 861.00 | - | 뉴욕은현제일교회 | (914)332-7640/(718)798-2777 | 3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 조명철목사 | 박형우목사 |
| 브 롱 스 | 300.00 | 708.00 | 뉴욕늘푸른감리교회 | (718)295-7119/(718)733-4716 | 2930 Valentine Ave. Bronx, NY 10458 | 한성국목사 | 정행렬목사 |
| 스테튼 아일랜드 | 1,343.00 | [illegible]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 (718)448-7273/(718)442-2023 | 1890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03 | 김형석목사 | 김현준목사 |
| 맨 하 탄 | 215.00 | 232.00 | 고려교회 | (212)832-7746 | 150 E. 62 St. New York, NY 10021 | 성진홍목사 | 한영숙목사 |
| 브 로 콜 린(5:30AM) | 1,262.00 | 1007.50 | 뉴욕브로드웨이장로교회 | (718)748-7770/(718)375-4930 | 450 67th St., Brooklyn, NY 11220 | 임민순목사 | 오명환목사 |
| 롱아일랜드 낫소 | 773.00 | 614.00 | 뉴욕감리교회 | (516)681-1713/(516)681-0229 | 992 Old Country Rd., Plainview, NY 11803 | 김석형목사 | 장철우목사 |
| 롱아일랜드서포크 | 1400.00 | 1,333.00 | 뉴욕성서교회 | (516)343-5083/(516)667-5875 | 1201 Carll's Straight Path Dixhills, NY 11746 | 이영준목사 | 원형진목사 |
| 써 니 사 이 드 | 689.00 | 612.00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361-9199/(718)762-6788 | 40-05 Skillman Ave. L.I.C., NY 11104 | 정도선목사 | 송병기목사 |
| 엘머스트, 우드사이드 | 347.00 | 894.40 | 뉴욕한빛교회 | (718)271-7626/(718)428-6037 | 88-28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 김원기목사 | 이용원목사 |
| 아 스 토 리 아 | 317.00 | 492.00 | 뉴욕아스토리아한인교회 | (718)728-8865/(718)545-5219 | 30-44 Crescent St., L.I.C., NY 11102 | 황종배목사 | 김내성목사 |
| 코로나, 잭슨하이츠 | 538.00 | 936.00 | 뉴욕동양제일교회 | (718)760-5346/(718)224-0853 | 50-43 97th Pl., Corona, NY 11368 | 정춘석목사 | 김영철목사 |
| 후 러 싱 1 | 825.00 | 302.00 | 후러싱제일교회 | (718)939-5899/(718)321-0094 | 147-45 38th Ave. Flushing, NY 11354 | 황상일목사 | 한세원목사 |
| 후 러 싱 2 | 1,556.00 | 1,079.00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461-9800/(718)445-8667 |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 김종훈목사 | 백수복목사 |
| 후 러 싱 3 | 897.00 | 1,142.25 | 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359-0166/(718)279-9480 | 168-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 김태근목사 | 이호선목사 |
| 베이사이드, 리틀넥 | 684.00 | 1,054.00 | 뉴욕신광교회 | (718)357-3355/(718)423-4411 |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박문근목사 | 한세홍목사 |
| 헌 금 합 계 | 12,400.00 | 11286.15 | | | | | |

12860.15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한 국 일 보**
1997년 3월 19일(수요일)

# "범교단적 평화통일 기원"

## 남·북·미 교계대표자들 참석 연합예배

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가 범 교단및 교파적으로 열린다.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공동체 선교위원회와 동아시아태평양협교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교협 증경회장 등이 준비(준비위원장 김용걸 신부)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연합예배가 오는 19일 오후 8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이호선 목사 시무)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합예배는 16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유엔교회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관계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회의에 참석한 북한 및 한국측 교회대표와 미국측 대표들이 함께 한다.

북한에서는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를 비롯 5인과 미국측은 미국교협 총무 조앤 캠블 목사 등 8명, 한국측은 예장통합총회장이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종순 목사를 비롯 20여명이 참석한다.

이와관련 준비위 측에서는 준비위원회 고문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전 11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미국의 각교회 대표 및 임원들이 함께 하는 예배에 교포와 뉴욕교계 교인들이 많이 참여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진정으로 기원하는 시간을 갖자"고 호소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준비위 위원장 김용걸 신부(성공회뉴욕한인교회 시무)는 "연합예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반도평화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 "조금도 정치적인 이유로 가지는 예배가 아님"을 밝혔다.

또 김 신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이날 오후 6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한국, 북한, 미국측 대표들과 뉴욕 준비위원 및 관계자들 80여명이 일차 만찬을 가진다음 플러싱 소재 교회로 옮겨 연합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뉴욕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는 예장통합 서기인 권영광 목사의 말을 인용 "지난 루이스빌에서 개최된 미국장로교대회에서 식량지원 1백만달러, 선교용 비디오 지원 50만달러 등 모두 1백50만달러가 북한동포와 교회에 지원될 것이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 뉴욕교협 총무 김원기 목사는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이번 평화통일기원연합예배가 성공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준비위원장 김신부를 비롯 방지각, 송병기, 이광희, 손영구, 이문구, 이병홍, 김원기 목사 등과 후원회장 김준택 장로 등이 참석했다.

〈김영욱 기자〉



▲17일 평화통일기원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일부 고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광경.

할렐루야 '97

# 대 뉴욕 복음화대회




## 뉴욕을 복음화하자!

| 청소년복음화대회 | 어린이복음화대회 |
|---|---|
| 강사 : 노진산 목사, 성동원 전도사, 최미경 전도사 | 강사 : Rev. Elsie Violet Ezzo |
| 일시 : 1997년 6월 29일(주일)~7월 1일(화) 오후 7시 | 일시 : 7월 10일(목)~12일(토) 오후 8시, 13일(주일) 오후 7시 |
| 장소 : 퀸즈한인교회 89-00 23rd Ave. Jackson Heights, NY 11369 (718)672-1150 | 장소 :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

일시 1997년 7월 10일(목)~12일(토) 오후 8시, 13일(주일) 오후 7시

장소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el (718) 358-0074 / Fax (718) 321-0105





## 어린이 복음화 대회



강사 : **Elsie Violet Ezzo**
- Central Bible College
- Missouri and Glassboro State College
- 22년동안 학교교사 및 기독교교육지도자 역임



강사 **김충기** 목사
- 장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 양주리수양관 원장
-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역임
- 기독교 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 역임
- 한국 기독교 기도원총연합회 총회장 역임
- 사단법인 군복음화 후원회 이사
- 침례회 신문사 이사장

## 청소년 복음화 대회



강사 **노진산** 목사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Grace Fellowship Chapel of NY
- Presbyterian Church 영어목회



강사 **성동원** 전도사
-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 뉴욕영인교회 Youth 담당



강사 **최미경** 전도사
-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1. 강사 김충기 목사와 대회장 한세원 목사의 찬양하는 모습
2.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3.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1. 장학금을 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학생들과 흐뭇한 마음으로 웃고 있는 대회장
2.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3. 어린이들의 예배 광경

## 뉴욕의 사랑이 북한에 가다

회장 한세원 목사와 교협 임원들이 1997년 8월 5일부터 14일(8박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뉴욕교협 산하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모은 식량과 의약품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1. 북한 순안 베향장에 도착한 의약품(약 30만 달러 상당)을 한세원 회장과 윤기윤 박사가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
2. 도착한 의약품을 총무 김원기 목사와 함께 제3병원에 전달하는 모습
3. 황해도 은파군에 도착한 식량을 회장 일행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1. 북한에 전달된 뉴욕의 사랑
2. 평양 봉수대교회 주일예배 시에 찬양하는 성가대
3. 예배 후 평양 봉수대교회 앞에서 기념 촬영

조 선 일 보

1997년 11월 3일(월요일)

# 나 한끼굶어 북한동포 살리자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 10만불 모금추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기아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KWMC 북한동포식량지원 운동본부의 이승제 본부장과 고석희 사무총장은 31일 오전 11시 클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악의 식량위기에 직면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제 목사는 "KWMC가 지난 7월 시카고 휫튼 대학에서 열린 제 3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북한동포 식량지원 운동을 북미주 한인교회의 긴박한 선교과제로 채택하고 참가자 전체가 한끼 금식을 하고 있다"며 "이 긴박한 민족사적 운동에 많은 동포들의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MC 북한동포 식량지원 운동본부의 연락처는 (718)762-2055이다.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가 전개하는 북한동포 식량지원 운동본부의 이승제 본부장(왼쪽)과 고석희 사무총장이 공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운동을 범집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 북한, 나진·선봉지구에 주식회사제 도입검토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에 주식회사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식회사제 도입과 원산·남포를 대상으로 한 보세가공구역 지정 등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최근 일본에서 나진·선봉지대 투자설명회를 가졌던 북한 관리들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이 나진·선봉지대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진·선봉지대에서 "주식회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SECTION 1 〈미주판〉 제10070호 1997년 11월4일 화요일

### 국수와 어린이 영양식품 공장 설립·산양 보내기 등

# 북한주민 식량자급 지원에 중점

## 우리민족돕기 대뉴욕협의회

뉴욕 한인사회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창구를 일원화한 우리민족돕기 대뉴욕협의회는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뉴욕협의회는 1일 롤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실행위원회의를 갖고 98년 1월중으로 예정된 2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국수 공장 설립과 ▶어린이 영양식품 공장 설립 ▶염소나 산양 보내기 등의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뉴저지 오레지 성당의 박창희 신부와 함께 지난해 평양에 국수공장을 설립한 뉴욕협의회 실행위원 이지진씨는 "배른 시일 내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일시적인 식량 전달보다는 국수 공장을 설립해 지속적으로 밀가루를 공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북한을 다녀오기도 한 이씨는 "현지 평남 안주의 부인단 단감 지역에서 국수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며 "북한 단주지들도 타지역에 비해 전력 공급이 나은 곳인 이 지역에 국수공장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2만 달러 정도를 투입해 공장을 설립하고 매년 10만달러씩의 밀가루를 지원하면 하루에 국수 5천 그릇씩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며 "북한이 구호물의 지정 기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행위원 안경숙씨는 "현지에의 자본의 유입이 허용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어린이 영양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지속적인 대북 지원의 한 방안"이라며 "뉴욕협의회가 미국의 구호 기관과 함께 이를 추진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뉴욕의 이북5도민연합회 회장을 지낸 장기관씨는 최근 미국의 구호기관이 북한에 양을 보낸 사례를 들어 축산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장씨는 "미국에서 양을 구입해 북한에 보내려면 수송비를 포함 미리 당 5백달러가 소요된다"며 "그러나 만주 지역에서 기르는 산양을 보낼 경우 미리당 50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뉴욕 동포들로부터 약 12만 달러를 모금, 지난 8월 북한에 옥수수를 직접 전달했던 뉴욕협의회는 현재 2차로 5만4천의 달러를 모금했으며 내년 1월까지 10만 달러를 목표로 계속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또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수목 목사를 새 실행위원장으로 맞고 좌파을 새로 마련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미령리 단체 등록을 마치기로 했다.

<배기현 기자>

### "북한 붕괴할 때 미국은 통일보다 민주화 지원"

미헤군분석센터는 최근 북한이 내전 발생으로 붕괴했을 때 동아시아 전략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제로 한 안전보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통일보다도 북한의 민주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슬레진저 전 미 국방장관, 레이니 전 주한대사, 솔로먼 전 국무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이 시뮬레이션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내전이 발생해 김정일이 장관에서 이탈했다는 언론보도를 전제로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미국의 대응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워싱턴 근교의 한 호텔에서 실시된 이날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 붕괴 후에도) 한·일 양국에 미군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 내전시 수인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나 미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통일보다 북한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은 철군과 공군을 남기고 육군은 철수한기 때문에 주일미군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일본 정부에 특사를 파견, 북한재건을 위한 1백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 및 분석이 제 시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

# 제 24 년사

주후 1998년



## 24대 교협 회장

뉴욕수정성결교회

The Crystal Evangelical Church of NY

박수복 목사, Rev. Soo Bok Park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 24대 교협 임원

회　　장　박수복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부 회 장　최웅렬 목사 (후러싱나사렛교회), 김창훈 장로 (스테반장로교회)

총　　무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서　　기　박문근 목사 (뉴욕산돌교회)

부 서 기　윤영애 목사 (하나님의성회제일교회)

회　　계　한경훈 장로 (지구촌선교교회)

부 회 계　우화선 장로 (한길장로교회)

## 12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부이사장　장창혁 목사 (뉴욕명성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구춘회 장로 (아스토리아장로교회), 임무송 장로 (뉴욕시온장로교회)

총　　무　최진옥 장로 (수정성결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24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 원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회 장 | 박수복 목사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 445-8667 | (718) 461-9800 |
| 부 회 장 | 최웅렬 목사 | 후러싱나사렛교회 | (718) 592-3789 | (718) 762-8290 |
| 부 회 장 | 김창훈 장로 | 스테반장로교회 | (718) 639-7407 | (718) 898-8884 |
| 서 기 | 박문근 목사 | 뉴욕산돌교회 | (718) 359-6145 | (718) 321-2532 |
| 부 서 기 | 윤영애 목사 | 하나님의 성회제일교회 | (718) 939-4264 | (718) 939-4264 |
| 회 계 | 한경훈 장로 | 지구촌선교교회 | (718) 275-9146 | (718) 886-0721 |
| 부 회 계 | 우화선 장로 | 한길장로교회 | (718) 565-7874 | (718) 565-7874 |
| **총 무 단** | | | | |
| 총 무 | 김종덕 목사 | 뉴욕실로암장로교회 | (718) 969-2849 | (718) 463-9013 |
| 협동총무 | 소의섭 목사 | 한장로교회 | (718) 798-2888 | (718) 519-0037 |
| 협동총무 | 손광일 목사 | 뉴욕대한교회 | (718) 591-1567 | (718) 380-7746 |
| 협동총무 | 김성훈 목사 | S.I.제일장로교회 | (718) 961-3142 | (718) 961-3142 |
| **분과위원장** | | | | |
| 선교분과 | 이호선 목사 | 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 279-9460 | (718) 359-0166 |
| 목회분과 | 이병홍 목사 | 뉴욕중앙성결교회 | (718) 767-2549 | (718) 229-0909 |
| 역사자료 | 손석구 목사 | 갈보리장로교회 | (718) 983-8364 | (718) 982-7783 |
| 사회분과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 533-0543 | (718) 478-8900 |
| 재정분과 | 한창연 장로 | 뉴욕소망성결교회 | (516) 365-3528 | (718) 476-2100 |
| 국제분과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 353-3159 | (718) 445-2854 |
| 여성분과 | 임선숙 총무 | 국제장애인선교회 | (718) 423-6035 | (718) 353-3791 |
| 교육분과 | 한요한 목사 | 뉴욕충신장로교회 | (718) 357-2048 | (718) 359-0040 |
| 노인분과 | 홍대윤 목사 | 뉴욕중앙산정현교회 | (516) 921-9411 | (718) 457-2334 |
| 청년분과 | 권혁항 목사 | 열매연합교회 | (718) 460-8903 | (718) 699-5423 |
| 소년분과 | 이희선 목사 | 새언약교회 | (718) 961-4842 | (718) 939-2677 |
| 홍보분과 | 김태근 목사 | 뉴욕성령교회 | (718) 445-6863 | (718) 445-6863 |
| 체육분과 | 황정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 445-3901 | (718) 460-0303 |
| 음악분과 | 유동윤 목사 | 거저께교회 | (516) 243-2681 | (516) 496-7333 |
| 유년분과 | 한광희 목사 | 뉴욕대신장로교회 | (718) 428-5710 | (718) 961-6999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신학윤리위원회 | | | | |
| 청소년지도위원회 | 김정국 목사 | 뉴욕한인교회 | (718) 428-9191 | (718) 428-4784 |
| 출 판 위 원 회 | 최웅렬 목사 | 후러싱나사렛교회 | (718) 592-3787 | (718) 762-8290 |
| 협 력 위 원 회 | 한재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 357-3355 | (718) 423-4411 |
| 통 일 위 원 회 | 김용걸 선부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 278-2187 | (718) 278-2187 |
| 재산관리위원회 | | | |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회장 박수복 목사


부회장 최용철 목사


부회장 김정훈 장로


총무 김종덕 목사


협동총무 소의섭 목사


협동총무 손창일 목사


협동총무 김성훈 목사


서기 박문근 목사


부서기 윤영애 목사


회계 한경호 장로


부회계 우희선 장로


선교분과 이효선 목사


목회분과 이영홍 목사


역사지료 손석구 목사


사회분과 김원기 목사


재정분과 한창연 장로


국제분과 박국화 목사


여성분과 김선숙 총무


교육분과 한오환 목사


노인분과 홍대윤 목사


장년분과 권혁함 목사


소년분과 이희선 목사


출석분과 김태근 목사


새육분과 황경일 목사


음악분과 유동윤 목사


유년분과 한은희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초대 방지각 목사


2대 김무선 장로


3대 염정남 장로


4대 서광해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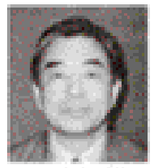

5대 심홍섭 장로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영진 존사


8대 최원호 장로


9대 이광오 장로


10대 황일영 장로


11대 김정훈 장로

## 제 24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이병무 장로


부이사장 장창혁 목사


부이사장 박해용 장로


부이사장 구충희 장로


부이사장 임무승 장로

| | | |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이병무 장로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846-8290 | 718-805-1287 |
| 부 이 사 장 | 장창혁 목사 | 뉴욕명성장로교회 | 718-639-8667 | 718-424-4649 |
| 부 이 사 장 | 박해용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507-2200 | 718-507-2200 |
| 부 이 사 장 | 구충희 장로 | 아스토리아장로교회 | 718-961-1163 | 718-961-1163 |
| 부 이 사 장 | 임무승 장로 | 뉴욕시온장로교회 | 914-623-9765 | 718-733-7556 |
| 총 무 | 최진욱 장로 | 수정성결교회 | 718-762-0011 | 516-269-0710 |
| 서 기 | 송대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545-7103 | 718-937-6139 |
| 회 계 | 최의순 집사 | 베다니장로교회 | 718-457-7246 | 718-446-8273 |
| 감 사 | 윤일웅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212-977-1212 | 516-773-2903 |
| 사 업 부 장 | 박형렌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718-886-9890 | 718-539-2030 |
| 체육진흥계획부장 | 정경진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718-753-5401 | 718-631-1338 |

# 옥수수 3백톤 직접 전달

## 우리민족돕기 뉴욕협의회 2월초 방북

뉴욕일대에서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펼쳐 온 우리민족돕기대뉴욕협의회가 17일 2차 모금을 마감하고 전달 방법 등을 확정 짓는 한편 3차 모금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민족돕기대뉴욕협의회가 17일 실행위원회의를 열어 2차 대북 식량 전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대뉴욕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공동대표 신만우 뉴욕한인회장과 실행위원장 박수복 목사(뉴욕고협 회장) 등을 비롯 실행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의를 갖고 오는 2월초 북한에 옥수수 3백톤을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이미 북경에 있는 중국 곡물상에게 4만달러를 송금했으며 조만간 추가로 1만달러를 송금할 예정이다.

2차 식량 전달을 위해 오는 2월 초 박수복 목사와 사무총장 김원기 목사, 뉴욕고협 통일분과위원장인 김용걸 신부 등이 방북한다.

협의회는 또 곧바로 3차 모금을 시작, 오는 9월 중 평양 국수공장을 지원하기로 이날 실행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협의회는 1차 모금액이 10여만달러에 이르렀던 것과 달리 2차 모금액이 6만여달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 앞으로 모금 행사 위주의 3차 모금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청년단체가 주관이 돼 '원 코리아'를 주제로 한국 민속 공연을 펼치고 또 뉴욕예술가곡협회(회장 서명선)와 공동으로 '한민족 통일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오는 5월30일 맨해튼 링컨센터에서 열릴 한민족 통일 음악회에는 남북 정상급 성악가들의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뉴욕지구기업의협회(회장 장연희)는 지난해 1차 전달에 이어 이번 2차 전달에도 회원들로부터 모은 의약품을 방북 대표단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다. <배기현 기자>



DACOM - Mail 400 **F A X** 데이콤서비스

지정수신인 : 중앙일보 Att: 최승현 목사

의제상관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The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s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TEL 793-8081,790-4050~52, FAX 793-8082

**보도자료(총 3면)** 1998. 2. 14

- 금 모아 의제상환, 18금 14금 모아 경제회생

[redacted]

본 '의제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은 그 동안의 순금 모으기 운동과 함께 2월 16일(월)부터 농협의 참여 '18금, 14금 모으기 운동'을 시중에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출범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 안 서랍 깊숙한 그 곳에 묻혀 있는 '순금'은 감정하기가 어려운 순금을 우선 모았기 때문에 18금과 14금은 현실이외에는 집수창구에서 전혀 인식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18금, 14금도 모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18금과 14금의 형태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약 1,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운동이 성공리에 전개된다면 기금까지의 순금 모으기 운동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적절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18금, 14금 모으기 운동 출범 행사**

**18금, 14금 모으기 운동 시작하는 날**

□ 일시 및 장소 : 1998년 2월 16일(월) 오전 10시
농협 중앙회 본점 대강당 (서대문 4거리) 2/17/98

□ 프로그램

| 분과위원장 | 중 무 | 부 회 장 | 부 회 장 | 회 장 |
|---|---|---|---|---|
| | | | | |

사회자
개회사
18금, 14금 접수 방법 안내
18금, 14금 접수 행사

□ 주요 참석 인사 : 주요 종교, 시민, 소비자 단체 장

□ 별첨 자료 : 18금, 14금 모으기 운동 개요

□ 문의 및 연락 : 자무국 (전화 : 790-4060/1)

## 1998년 신년하례 만찬예배

24대 회장 박수복 목사는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순복음뉴욕교회에서 거행했다. 사회 최웅렬 목사, 기도 김정국 목사, 설교 최효섭 목사(아콜라연합감리교회), 축도는 한세원 목사가 담당하여 은혜 중에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었다.








## 교협 체육대회







1. 경기 시작 전 예배드리는 모습
2. 우승팀이 대회장 박수복 목사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기뻐한다.
3. 체육분과위원장 황경일 목사가 승자에게 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1.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는 미국 청소년 찬양팀
2.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
3. 할렐루야 '98 대회장 박수복 목사와 강사 나겸일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1. 설교하는 강사 나겸일 목사
2. 은혜 받기에 갈급한 성도들
3.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료 상담
2)775-7956

한 국 일 보
1998년 9월 14일(월요일) A 3

NEV

99999**5-01617 11354 C026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OF GREATER N.Y.
35-34 UNION ST #FL
FLUSHING NY 11354-3404

한국일보
뉴 욕
발 행 인 장재민
편 집 인 김홍철
주 필 이기영
관리국장 여주영
대표전화
TEL (718) 482-1111
기사제보
TEL (718) 482-1122
FAX (718) 784-7381
광고접수
TEL (718) 482-1124
FAX (718) 784-9131
구독신청
TEL (718) 482-1127
FAX (718) 784-9131
82-22 37th St., L.I.C., NY 11101

한영수
안과전문의




◀우리민족끼리 통기회 박수복, 신만우 공동의장과 김원기 실행위원이 오른쪽부터 11일 본보를 방문해 이번에 모금된 수재의연금 전액을 한국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직접 송금한다고 밝히고 있다.

# "강한 동포애 재확인"

## 수재의연금 전액 재해대책본부에 직접전달

"본국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라는 기치로 우리민족끼리대뉴욕협의회와 뉴욕한인회 그리고 뉴욕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재의연금 모금이 한인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뜨거운 성원속에 현재 13만7,272달러88센트가 모금됐다.

지난 8일 1차 마감한 이번 모금에는 한인사회 각 단체는 물론 종교계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들이 각기 상황에 맞는 정성을 모아 한인사회의 훈훈한 인간애를 보여줬다.

신만우, 박수복 우리민족끼리대뉴욕협의회 공동의장과 김원기 실행위원은 11일 본사를 방문, 그동안 동포들의 성금에 감사하며 이번에 모금된 성금의 전액을 한푼도 빠짐없이 한국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직접 송금하기로 했다.

신만우, 박수복 공동의장은 "백수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고국의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뉴욕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동포애가 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입증했다"고 이번 수재의연금 모금의 성과를 말했다.

김원기 실행위원은 "우리민족끼리는 북한동포 돕기를 시발로 이번에 수재를 당한 남한동포 돕는 등 동포애로 표현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한인회와 교협이 주축이돼 우리민족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이달 중순께 1차로 마감한 13만7,272달러88센트 전액을 한국중앙재해대책본부로 직접 송금하고 이후 계속 답지하는 성금들은 2차로 전액을 송금키로 했다.

중앙일보 1998년 9월17일 목요일 R

# 수재민 돕기 종교계가 앞장

## 개신교계 뉴욕서만 8만여달러 모금

본국 수재민 돕기 운동에 뉴욕한인 종교계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민족돕기대뉴욕지구협의회가 14일 발표한 수재의연금 마감 결과 총 모금액 13만8천6백여달러 중 개신교회의 모금액이 약 8만달러에 이르렀다.

본국 수재민 돕기 운동에 참가한 교회는 72개였으며 이 중 31개 교회가 1천달러 이상, 최고 5천달러를 모금했다.

지역별로는 퀸즈를 중심으로 한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등 지외 교회에서 성금을 보내 왔다.

우리민족돕기대뉴욕지구협의회는 수재의연금을 본국 재해대책본부로 송금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마감 후 도착분에 대해서도 계속 접수하고 있다.

평화신문을 통해 모금액을 접수한 천주교계는 15일 현재 1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평화신문은 뉴욕일대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한인천주교회와 신자들에게서 성금을 접수해 왔으며 당분간 모금을 계속할 계획이다.

불교계는 각 사찰에서 수재의연금을 계속 모금 중이며 모금의 전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은경 기자>



# 제 25 년사

주후 1999년



## 25대 교협 회장

후러싱나사렛교회

Flushing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최웅렬 목사, Rev. Richard Choi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 25대 교협 임원

회 장 최웅렬 목사 (후러싱나사렛교회)

부 회 장 안창의 목사 (퀸즈중앙장로교회), 이병무 장로 (뉴욕한인중앙교회)

총 무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서 기 유동윤 목사 (겨자씨교회)

부 서 기 임진구 목사 (뉴욕한림교회)

회 계 황일봉 장로 (뉴욕순복음중앙교회)

부 회 계 한창연 장로 (뉴욕소망성결교회)

## 13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부이사장 홍대윤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유시수 장로 (뉴욕중앙교회)

임무송 장로 (뉴욕시온장로교회), 유지형 장로 (퀸즈중앙장로교회)

총 무 박헬렌 집사 (뉴욕효신장로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뉴욕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 25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원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장 | | 최용웹 목사 | 후러싱나사렛교회 | 718-592-3789 | 718-762-8290 |
| 부 | 회장 | 안창의 목사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631-3665 | 718-229-9191 |
| 부 | 회장 | 이병무 장로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805-1287 | 718-846-8290 |
| 서 | 기 | 유동윤 목사 | 겨자씨교회 | 516-243-2681 | 516-496-7333 |
| 부 | 서기 | 임진구 목사 | 뉴욕한빛교회 | 718-639-7863 | 718-639-7863 |
| 회 | 계 | 황일봉 장로 | 뉴욕순복음중앙교회 | 718-539-5700 | 718-539-5700 |
| 부 | 회계 | 한창연 장로 | 뉴욕소망성결교회 | 516-365-3528 | 718-476-2100 |

| 총무단 | | | | |
|---|---|---|---|---|
| 총무 | 황경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60-0303 |
| 협동총무 | 김은팀 목사 | 뉴욕성산교회 | 718-423-3161 | 718-423-3161 |
| | 김성훈 목사 | S.I.제일장로교회 | 718-961-3142 | |
| | 권혁찬 목사 | 열매연합교회 | 718-460-8903 | 718-699-5423 |
| | 신근한 목사 | S.I.충은교회 | 718-983-0930 | 718-317-7346 |
| | 안성국 목사 | 뉴욕능력감리교회 | 718-733-4716 | 718-295-7119 |
| | 조영호 목사 | 브르클린엠합감리교회 | 718-946-3705 | 718-946-3705 |
| | 김영식 목사 | L.I.한인연합감리교회 | 516-544-1173 | 516-499-1260 |

| 분과위원장 | | | | |
|---|---|---|---|---|
| 선교분과 | 이승재 목사 | 은혜교회 | 718-423-6978 | 718-461-4657 |
| 목회분과 | 이병홍 목사 | 뉴욕중앙성결교회 | 718-767-2549 | 718-229-0909 |
| 음악분과 | 송병기 목사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 사회분과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 재정분과 | 최예식 목사 | 뉴욕북부반석교회 | 914-292-3271 | 914-292-3271 |
| 국제분과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 교육분과 | 함요한 목사 | 뉴욕충신장로교회 | 718-357-2048 | 718-359-0040 |
| 노인분과 | 최경환 목사 | 예일장로교회 | 718-762-7212 | 718-762-7212 |
| 여성분과 | 김혜자 목사 | 뉴욕순복음세일교회 | 718-461-9354 | 718-460-1993 |
| 청년분과 | 문형준 목사 | 뉴욕신교교회 | 718-359-3973 | 718-461-8464 |
| 소년분과 | 윤국진 목사 | 후러싱한인교회 | 718-229-8304 | 718-461-3996 |
| 유년분과 | 장춘석 목사 | 뉴욕그리스도의교회 | 718-429-6647 | 718-429-6647 |
| 역사자료 | 조승수 목사 | 뉴욕화평성결교회 | 718-423-0746 | 718-898-4440 |
| 체육분과 | 김재삼 목사 | 새일장로교회 | 718-544-2854 | 718-544-2854 |
| 홍보분과 | 김종우 사관 | 구세군한인영본 | 516-485-5634 | 718-932-1406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 신학윤리위원회 | 김상모 목사 | 뉴욕단백성교회 | 718-982-9116 | 718-494-2737 |
| 청소년지도위원회 | 김정국 목사 | 뉴욕한민교회 | 718-428-9191 | 718-428-4784 |
| 통일위원회 | 김용걸 신부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78-2187 |
| 출판위원회 | 안창의 목사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631-3665 | 718-229-9191 |
| 협력위원회 | 한재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 재산관리위원회 | 김창훈 장로 | 스테반선교교회 | 718-639-7407 | 718-898-8884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 제25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이사장 | 박태용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507-2200 | 718-321-7532 |
| 부이사장 | 홍태은 목사 | 뉴욕중앙산정현교회 | 516-921-9411 | 718-457-2334 |
| 부이사장 | 임부송 장로 | 뉴욕시온장로교회 | 914-359-1603 | 914-623-9795 |
| 부이사장 | 유지형 장로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459-9457 | 212-348-8490 |
| 부이사장 | 유시수 장로 | 뉴욕중앙교회 | 718-961-8938 | 718-424-2828 |
| 총무 | 박웰련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718-886-9890 | 718-539-2030 |
| 서기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937-6139 | 718-545-7103 |
| 회계 | 최외순 집사 | 뉴욕베다니장로교회 | 718-446-8273 | 718-457-7246 |
| 체육진흥계획 부장 | 정경진 집사 | 뉴욕효신장로교회 | 718-268-2569 | 718-631-1331 |
| 사업부장 | 유성종 장로 | 뉴욕성결교회 | 718-494-9254 | 718-435-6790 |
| 감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석물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78-2108 |
| 감사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516-629-8084 | 212-977-1212 |



## 1999년 신년하례 만찬예배

25대 회장 최웅렬 목사는 금강산 만찬회장에서 1월 11일(월) 7시 30분에 신년하례 만찬예배를 열었다. 사회는 안창의 목사, 기도는 방지각 목사, 설교는 박희소 목사(뉴욕동부교회)가 "한국인의 살길"(창 33:1~15)이라는 제목으로 하였고, 박수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이어 축복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❶




❷



❸




❹

1.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최웅렬 목사
2. 찬양하는 뉴욕성가단원
3. 즐겁게 만찬을 나누는 무리들
4.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

## 교협 농구대회

교협 창립 이후 최초로 교협 농구대회를 담대히 시작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❶


❷



❸

1. 제1회 대회이므로 체육분과위원장 황경일 목사가 대회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선수 대표가 대회 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서하고 있다.
3.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주기 전 회장 최웅렬 목사와 임원들 기념 촬영



# 대뉴욕복음화대회

부흥을 목마자 기다리 / '99 할렐루야

일 시 : 1999년 7월 8일(목) - 10일(토) 오후 8시, 11일(주일) 오후7시
장 소 :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 청소년 복음화 대회

일 시 : 1999년 7월 15일(목) - 17일(토) 오후7시
장 소 : 뉴욕 장로교회 (이영희 목사 시무)
43-01 37 Ave., L.I.C., NY 11101
Tel: (718) 472-4500
문 의 : (718) 229-8304 윤국진 목사

## 어린이 복음화 대회

일 시 : 1999년 7월 8일(목) - 10일(토) 오후 8시
11일(주일) 오후 7시
장 소 :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문 의 : (718) 429-6647 정춘식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el: (718) 358-0074 Fax: (718) 321-0105





강사 김 시 철목사

- 서울 명성중앙교회 담임
- 나이롭 국제 본부 담임 순회 부흥사
-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총무이사 감독 역임
-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감독회장 역임
- 이 사업 나사렛 대전도회 대표장 역임 (본 30년째 목사관회에 1회이 33도 참석)
- Eastern Nazarene College 학교에 역사에 취득

## 어린이 복음화 대회



강사 이 종 식목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D. Min
석사학 박사과정 수학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D. Min 수료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 청소년 복음화 대회



**Joshua Harris**

- The author of 'I Kissed Dating Goodbye'
- A Pastoral intern at Covenant Life Church in Gaithersburg, Maryland



Rev. **Paul D. Kim**

- B.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ay, 1991
- M. Div., M.A.,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ay, 1994
- Ordained in the PCA, November, 1997



**Gary A. Parrett, Ed. D.**

- Ass't Prof. of Christian Education
- B.A. (Faith Evangelical Lutheran Seminary)
- M. Div. (Regent College)
- Ed. D. (Columbia University)




8일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열린 '할렐루야 99 대뉴욕 복음화 대회'에 참석한 신도들이 찬양 하고 있다. 〈장상교 기자〉

# "뉴욕동포에게 하나님 말씀을…"

## 할렐루야 99 대뉴욕 복음화 대회 개막

'뉴욕을 복음화 하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윤렬 목사)가 주최한 할렐루야 99 대뉴욕복음화 대회가 8일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개막됐다.

8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 첫날에는 뉴욕일대 한인교회 신자 수백명이 참석, 뉴욕 한인사회의 복음화를 기원했다.

교회협 회장 최윤렬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뉴욕일대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 천년을 준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회를 통해 30만 뉴욕동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주강사 김시철 목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에서 자신의 '신유 체험'을 상권에 비추어 밝히며 뉴욕일대 한인사회의 영적 성장을 촉구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할렐루야 복음대회 참석 연인원은 1만 2천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성인대회 = 8~10일중은 오후 8시, 11일은 오후 7시. 어린이 복음화 대회도 같은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청소년 대회 = 뉴욕장로교회서 15~17일 오후 7시에 열린다. 폴 김 목사와 조슈아 해리스 교수가 강사로 초청된다.

〈김은경 기자〉








1. 말씀을 전하는 강사 김시철 목사
2.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기원하며
3.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1. 주여, 응답하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2. 3. 4. 장학금을 전달하는 회장 최웅렬 목사와 기뻐하는 학생들








1. 청소년 집회에서 찬양하는 광경
2. 어린이 복음화대회에서 설교하는 이종식 목사

1999년 7월21일 수요일 중앙일보

# 청소년 복음화대회 성료

## 연인원 5천명 참가, 특별세미나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웅렬 목사) 주최로 지난 15~17일 서니사이드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 99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9일 교회협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연인원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당초 목표 6천명에는 못미쳤지만 지난해(약3천명)에 비하면 큰 성과다.

최웅렬 목사는 "작년까지 행사를 해온 신광교회(베이사이드)가 협소해 이번에 그 2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며 "위치가 외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밝혔다.

내용면에서도 청소년들이 온갖 유혹과 죄악을 이겨내고 이 시대의 희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강사로 나온 폴 김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와 조슈아 해리스 교수, 개리 파렛 교수 등의 설교내용도 유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석자들은 교회협측이 장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래픽디자인·교육·건축 등 1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특별세미나에도 적극 참여했다. 〈정영훈 기자〉

한 국 일 보
1999년 7월 20일(화요일)

# "새 천년 한인사회 우리가 맡는다"

## 청소년복음화대회 폐막 … 참가인원 작년의 2배 '열기'

"새천년 한인사회는 우리가 맡는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 99청소년복음화대회에서 청소년들은 21세기 한인사회의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드러난 세대'(Generation Uncovered)란 주제로 한인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2배이상 많은 연인원 5,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사흘동안 제리 제햇 골든랭리지 교수를 비롯한 주강사들의 설교와 찬양집회, 청소년 문제 비디오시청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천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뉴욕교협이 준비한 그래픽 디자인, 교육, 음악, 건축 등 12개 분야에 대한 특별세미나에 참가, 전문가들로부터 강연을 듣고 상담을 받았다.

이번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윤국진 목사는 "젊은이들이 성령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대회를 통해 그동안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뉴욕교협은 대회기간중 청소년들로부터 상담 및 기도카드를 접수하고 각 교회 및 청소년 센터와 협력해 학원복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노엘 기자〉



▲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던 할렐루야99청소년복음화대회에서 청소년들이 찬양집회를 갖고 있다

### 뉴욕 기독교TV 방송 (KCTV. CH 533)

Korean Christian TV System of New York
252-20 Northern Blvd. Suite 202. Little Neck. NY 11362
TEL. 718-224-8533

### 뉴욕 기독교 TV 방송 연혁

1999년 1월 9일 (KCTV) 설립
1999년 2월 26일 설립 허가받음
1999년 5월 16일 (KCTV) 창립 총회

### 목적

미주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 수행
청소년 지도 육성 및 가치관 정립
한국의 교회문화와 찬양 문화 확산
인류 구원의 이상 실현

### 역대 임원

이사장 : 제1대 방지각 목사, 제2대 김중언 목사, 제3대 이영희 목사, 제4대 김중언 목사
후원 회장 강현석 장로, 사장 박용기 장로



# 제 26 년사

주후 2000년



## 26대 교협 회장

퀸즈중앙장로교회
Koean Central Presby. Church of Queens
안창의 목사, Rev. Chang Eui Ahn
58-06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4

## 26대 교협 임원

회 장 안창의 목사 (퀸즈중앙장로교회)
부 회 장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박해용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총 무 이병준 목사 (뉴욕산성교회)
서 기 정춘석 목사 (뉴욕그리스도의교회)
부 서 기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회 계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 회 계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 14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임무송 장로 (뉴욕시온장로교회)
부이사장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시수 장로 (뉴욕중앙교회)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우화선 장로 (뉴욕한길장로교회)
총 무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집사 (뉴욕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홍대윤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 26 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 원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 | 장 | 안창의 목사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631-3665 | 718-229-9191 |
| 부 회 | 장 | 송병기 목사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 부 회 | 장 | 박태용 장로 | 뉴욕수정장로교회 | 718-321-7532 | 718-507-2200 |
| 서 | 기 | 장춘석 목사 | 뉴욕그리스도의 교회 | 718-429-6647 | 718-429-6647 |
| 부 서 | 기 | 김수대 목사 | 뉴욕어린양교회 | 718-428-5806 | 718-899-8309 |
| 회 | 계 | 황일봉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718-648-9458 | 718-539-5700 |
| 부 회 | 계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937-6139 | 718-545-7103 |

| 총무단 | | | | | |
|---|---|---|---|---|---|
| 총 | 무 | 이병준 목사 | 뉴욕산성교회 | 718-894-3788 | 718-416-2165 |
| 협 동 총 | 무 | 김종섭 목사 | 퀸즈산성장로교회 | 718-793-1929 | 718-793-1929 |
| | | 유동윤 목사 | 거지씨교회 | 516-243-2681 | 516-496-7333 |
| | | 이명길 목사 | 벧엘장로교회 | 718-359-5891 | 718-460-3546 |
| | | 이희선 목사 | 새언약교회 | 718-961-4842 | 718-939-2677 |

| 분과위원장 | | | | | |
|---|---|---|---|---|---|
| 선 교 | 분 과 | 김석형 목사 | L.I. 성결교회 | 516-746-4084 | 516-333-1575 |
| 목 회 | 분 과 | 이병홍 목사 | 새가나안교회 | 718-767-2549 | 718-229-0909 |
| 음 악 | 분 과 | 이종갑 목사 | 열람장로교회 | 718-279-4364 | 718-279-8333 |
| 사 회 | 분 과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 재 정 | 분 과 | 현창연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516-365-3528 | 718-476-2100 |
| 국 제 | 분 과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 교 육 | 분 과 | 한요한 목사 | 뉴욕충신장로교회 | 718-357-2048 | 718-359-0040 |
| 노 인 | 분 과 | 장영효 목사 | 뉴욕순복음갈보리교회 | 718-494-9082 | 718-886-6060 |
| 여 성 | 분 과 | 홍인숙 권사 | 뉴욕명성감리교회 | 718-631-5298 | 718-353-4568 |
| 청 년 | 분 과 | 김의승 목사 | 그루터기장로교회 | 718-445-2197 | 718-445-2197 |
| 소 년 | 분 과 | 김상천 목사 | 뉴욕시온성교회 | 718-428-2128 | 718-445-4542 |
| 유 년 | 분 과 | 이종식 목사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718-468-0295 | 718-229-0858 |
| 역 사 자 | 료 | 문형준 목사 | 뉴욕선교교회 | 718-359-3973 | 718-461-8464 |
| 체 육 | 분 과 | 황경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60-0303 |
| 홍 보 | 분 과 | 한준희 목사 | 뉴욕대신장로교회 | 718-428-5710 | 718-961-6999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
| 신학윤리위원회 | | 김상모 목사 | 단백성교회 | 718-982-9116 | 718-494-2737 |
| 청소년지도육성회 | | 김정국 목사 | 뉴욕한빛교회 | 718-428-4784 | 718-428-9191 |
| 출 판 위 원 회 | | 송병기 신부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 협 력 위 원 회 | | 한재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 통 일 위 원 회 | | 김용갑 신부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78-2187 |
| 재산관리위원회 | | 김항훈 장로 | 뉴욕영락교회 | 718-639-7407 | 718-898-8884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회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송병기 목사


부회장 박태용 장로


서기 장춘석 목사


부서기 김수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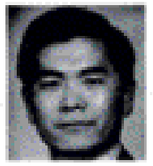

회계 황일봉 장로


부회계 송태보 집사


총무 이병준 목사


협동총무 김종섭 목사


협동총무 유동윤 목사


협동총무 이명길 목사


협동총무 이희선 목사


선교분과 김석형 목사


목회분과 이병홍 목사


음악분과 이종갑 목사


사회분과 김원기 목사


재정분과 현창연 장로


국제분과 박국화 목사


교육분과 한요한 목사


노인분과 장영효 목사


여성분과 홍인숙 권사


청년분과 김의승 목사


소년분과 김상천 목사


유년분과 이종식 목사


역사자료 문형준 목사


체육분과 황경일 목사


홍보분과 한준희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초대 방지각 목사


2대 김후성 목사


3대 염정남 장로


4대 서광해 장로


5대 심홍섭 장로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형찬 목사


8대 최형호 장로


9대 이광모 장로


10대 황일봉 장로


11대 김창춘 장로


12대 이병무 장로


13대 박해웅 장로

# 제26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임무송 장로


부이사장 한분수 목사


부이사장 유시수 장로


부이사장 황일봉 장로


부이사장 우화선 장로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이사장 | 임무송 장로 | 뉴욕시온장로교회 | 914-359-1603 | 718-672-3120 |
| 부이사장 | 한분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23-0343 |
| 부이사장 | 유시수 장로 | 뉴욕중앙교회 | 718-424-2828 | 718-961-8938 |
| 부이사장 | 황일봉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718-648-9458 | 718-539-5700 |
| 부이사장 | 우화선 장로 | 뉴욕한길장로교회 | 718-661-9457 | 718-321-1010 |
| 총무 | 최진욱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762-0011 | 718-762-0011 |
| 서기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937-6139 | 718-545-7103 |
| 회계 | 최의순 집사 | 뉴욕베다니장로교회 | 718-446-8273 | 718-457-7246 |
| 체육진흥계획부장 | 유지성 집사 | 브르클린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 사업부장 | 유지형 장로 | 퀸즈중앙장로교회 | 516-931-2720 | 212-348-8490 |
| 감사 | 홍태윤 목사 | 뉴욕중앙신정교회 | 516-921-9411 | 718-457-2334 |
| 감사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516-829-8084 | 212-977-1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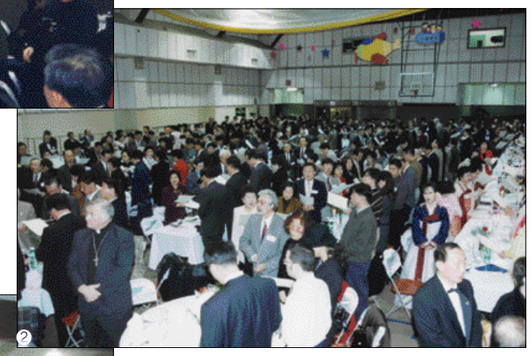
## 2000년 신년하례만찬예배

26대 회장 안창의 목사는 1월 10일(월) 퀸즈한인교회에서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예배를 드렸다. 사회는 송병기 목사, 기도는 최웅렬 목사, 설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새천년 새 교회상" (행 11:21~26)이라는 제목으로 하였고, 한진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그리고 금강산식당 유지성 사장과 에이스인쇄소 길명순 사장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금강산 유 사장은 600명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무료), 에이스인쇄소 길 사장은 2000년도 교협 주소록을 인쇄해 주셨기에(무료) 감사패를 드렸다.



1


2


3

1. 새해 새 시대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2. 다같이 서서 찬양하는 모습
3. 새해를 기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

## 교협 체육대회









1. 경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2. 한국의 국기요 올림픽 종목인 태권도 시범
3. 힘을 모아 줄다리기하는 모습
4. 우승팀이 대회장 안창의 목사와 함께



## 쉘터 건물 매입 계약 체결

일시: 2000년 6월 7일 장소: Saravan D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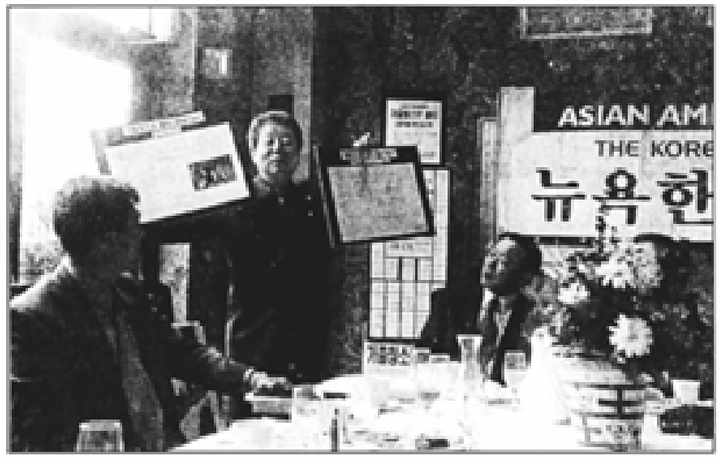





종 고

# 가출 청소년 셸터 건립 꼭 이룩

## 뉴욕 교계인사들, 조찬기도회 · 준비모임




▲ 뉴욕한인청소년센터 이사장 김참훈 장로가 최근 이사회 열고 가출 청소년 셸터 건립 조찬기도회 및 준비모임 보고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 셸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 교계인사들이 기금 모금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 행사를 위한 조찬기도회 및 준비모임을 가졌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안창의 목사) 산하 뉴욕한인청소년센터(대표 조익현 목사)는 22일 아침 8시 퀸즈 리라디아 크라운 컨벤션 호텔에서 2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7일 기금 모금 골프 토너먼트 행사 등에 대한 준비 보고회와 셸터 건립 추진 현황 보고 겸 협의 기도회를 가졌다.

조 목사는 이날 "갈수록 어린 나이로 범죄에 깊숙이 관여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나무도 필요하 셸터 문제를 많이 놓고 나니까 이런 상담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사랑을 과연 이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 의심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깝다.

조 목사는 또 "기금 모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감격적인 면에서 위축해 있다는 것을 실감 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이 사업을 꼭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센터 이사장 김참훈 장로는 지난해 11월 뉴욕시에 가출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illegible]의 보조금 신청을 했으나, 뉴욕한인교회이번 목사가 뉴욕시청 예정 부지 지정을 수락하고 있다.

김 장로는 기금모금과 관련, 오는 27일 저녁 7시30분 플러싱 유리산 식당에 300여명을 초대해 본격적인 [illegible]

조 목사는 또 "기금 모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감격적인 면에서 위축해 있다는 것을 실감 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이 사업을 꼭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센터 이사장 김참훈 장로는 지난해 11월 뉴욕시에 가출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illegible]의 보조금 신청을 했으나, 뉴욕한인교회이번 목사가 뉴욕시청 예정 부지 지정을 수락하고 있다.

김 장로는 기금모금과 관련, 오는 27일 저녁 7시30분 플러싱 유리산 식당에 300여명을 초대해 본격적인 [illegible]

고 목사는 이날 "갈수록 어린 나이로 범죄에 깊숙이 관여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나무도 필요하 셸터 문제를 많이 놓고 나니까 이런 상담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사랑을 과연 이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 의심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깝다.

조 목사는 또 "기금 모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감격적인 면에서 위축해 있다는 것을 실감 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이 사업을 꼭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센터 이사장 김참훈 장로는 지난해 11월 뉴욕시에 가출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illegible]의 보조금 신청을 했으나, 뉴욕한인교회이번 목사가 뉴욕시청 예정 부지 지정을 수락하고 있다.

김 장로는 기금모금과 관련, 오는 27일 저녁 7시30분 플러싱 유리산 식당에 300여명을 초대해 본격적인 [illegible]

(신문업 기자)



## 강사소개

###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김 상 환 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숭실대학교와 8개 대학 이사
-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 월드비전교회 법인회장
- 온 세계 영성교회 담임장




### 어린이복음화대회



**강사 이드보라전도사**

- TEMPLE UNIVERSITY
- NYACK COLLEGE, BA.
-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MA
- COLUMBIA UNIVERSITY PH. D CANDIDATE
- 전 LONG ISLAND PLAINEDGE HIGHSCHOOL TEACHER
- 전 뉴저지에드 장로교회 토요학교 및 유년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 다년간 각종 어린이 부흥집회 및 교사 강습회 인도

### 청소년복음화대회



**Tim Mercaldo 목사**

- THE KING'S COLLEGE 졸업
- MOODY BIBLE INSTITUTE 대학원 졸업
- 18년간 젊은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함
- ASSOCIATE PASTOR AT GATEWAY CATHEDRAL IN STATEN ISLAND NY



**Jim Bob Park 목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BA)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M. DIV)
-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COALITION FOR SECOND GENERATION MINISTRIES
- BOARD MEMBER OF AFRICAN AMERICAN-KOREAN AMERICAN CHRISTIAN ALLIANCE
- PASTOR OF ENGLISH MINISTRY AT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OF LA





❶



❷



❸

1.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2.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3. 말씀을 전하는 강사 김삼환 목사







1. 설교하는 강사 김삼환 목사와 경청하는 무리들
2. 3.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장학금을 전하며 기뻐하는 대회장 안창의 목사





◀ 뉴욕장로교회에서 1만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다.

# 갈급한 심령 뜨겁게 달군 복음열기

## 김삼환목사 초청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에 연1만2천여명 운집

<NY> '새 비전, 새 헌신, 새 기쁨'이란 주제아래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안창의목사)가 주최한 '할렐루야2000대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퀸즈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뉴욕장로교회(담임목사 이영훈)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즈한인교회 성가대의 입례찬양에 맞춰 교협기수들의 입장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린 복음화대회는 2천5백석의 성전 아래위층을 입추의 여지없이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로 넘쳐난 입시의자, 대형화면을 실시한 소예배실 및 식당에까지를 합해 첫날 3천5백여명, 둘째날 4천여명, 마지막날 4천5백여명의 성도들 연인원 1만 2천여명의 많은 가운데 대회 역사상 최대 인원의 참석했다.

대회장 안창의목사는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할렐루야2000대뉴욕복음화대회'가 새 비전, 새 헌신, 새 기쁨이란 주제아래 시대의 변화를 초월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입는 자들이 이 대회를 통해 광강과 기쁨을 체험해 뉴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대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대회사를 했다.

감사 김삼환목사(서울명성교회)는 첫날, 예레미아 33장 1절~3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애 같아야 하며, 늘 의인같이 응석을 부리는 기도를 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이만하면 됐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또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면서 '가장 좋은 기도란 금식인 자주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꿇고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날 김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6절~18절을 본문으로 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희란 축복을 받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 영혼에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영적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축복을 받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용권뉴욕지사장
josephkim@minister.com

<13면으로 연결됩니다>

CHRISTIAN TODAY
2000년 7월 22일(토요일)




뉴욕교회협의회는 16일 광복 5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독교인, 화해의 순교자 돼야"

## 뉴욕교회협 광복 55주년 기념예배

제55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안창의 목사)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예배가 16일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담임목사 정춘석)에서 열렸다.

'남북화해를 위한 기도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기념예배에는 뉴욕일대 목회자와 이세종 뉴욕한인회장, 허리훈 뉴욕총영사, 허태형 뉴욕광복회장등 2백여명이 참석해 남북한의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기원했다.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조덕현 목사는 '화해의 광복절'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남북간의 화해가 이뤄진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이루는 순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광복절 기념식은 안창의 목사의 개회사, 허리훈 총영사의 김대중 대통령 경축사 대독, 이세종 한인회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손을 마주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경로회관, 광복회, 원로상지자회, 목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교회협이 주관했다.

한편 대남부뉴저지한인회(회장 김광성)와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이창주)도 지난 15일 각각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상교 기자
〈nyjsgo@joongangusa.com〉

### 뉴욕 LOTTO 당첨번호

- **NUMBERS** 8월 16일
  0 3 3
- **WIN 4**
  2 6 8 1
- **TAKE FIVE**
  02 06 12 30 33
- **LOTTO** 8월 16일
  12 13 16 25 27 31
  -44








1일 뉴욕한인청소년센터 센터 개관식에서 조덕현 목사(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가출청소년 선도에 새 장

## 한인청소년센터 '청소년 셸터' 개관

뉴욕한인청소년센터가 한인 가출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청소년 셸터'가 1일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5시 셸터 건너편에 있는 IS125 중학교에서 열린 개관예배에는 뉴욕한인회 이세종 회장, 뉴욕총영사관 허리훈 총영사, 뉴욕교회협회장 안창의 목사 등 3백여명이 참석, 개관을 축하했다.

청소년센터 대표 조덕현 목사는 기념사에서 "오늘 셸터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개관이 되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린다"며 "셸터 개관으로 앞으로 한인 청소년 선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중신교회 박종순 목사가 '저의 뜻을을 보시고' 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이세종 회장, 허리훈 총영사가 축사를 했다. 또 이 지역 조

# 국 신고 필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신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방사회복지국 마리아 기로폴 공보관은 "SSA 자료가 모두 전산화돼 있어 한번 시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해놓은 뒤 해당 연령이 되면 일일이

섬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도 축사를 보내왔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산하 뉴욕한인청소년센터는 지난 1월부터 뉴욕·뉴저지 한인 기독교계와 사회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모금한 28만달러와 은행대출금 40여만달러를 합쳐 퀸즈 우드사이드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

이날 개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자리를 옮겨 셸터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을 한 뒤 셸터 내부를 둘러봤다. 셸터는 총 면적 6천 스퀘어피트로 침실 13개와 리빙룸, 사워실, 사무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한편 이날 순복음뉴욕교회(담임목사 김남수) 등 4개 교회와 주선영 목사(제일63 WMBC TV 대표) 등 4명이 청소년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상교 기자
<nyjsgo@joongangusa.com>

# 제 27 년사

주후 2001년



## 27대 교협 회장

뉴욕목양장로교회

The Moak Yang Presby. Church of NY

송병기 목사, Rev. Peter Byung Ki Song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 27대 교협 임원

회　　장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부 회 장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임무송 장로 (시온제일장로교회)

총　　무　최창섭 목사 (뉴욕한인침례교회)

서　　기　김　영 목사 (웨체스터제일교회)

부 서 기　김종우 사관 (구세군뉴욕한인교회)

회　　계　박종규 장로 (뉴욕초대교회)

부 회 계　최영태 집사 (후러싱제일교회)

## 15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유시수 장로 (뉴욕중앙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한창연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총　　무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권사 (뉴욕베다니장로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 27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원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 | 장 | 송병기 목사 | 뉴욕목양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 부 | 회 장 | 황경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45-3901 |
| 부 | 회 장 | 임무송 장로 | 시온제일장로교회 | 845-359-1603 | 718-672-3120 |
| 서 | 기 | 김 영 목사 | 웨체스터제일교회 | 914-345-6755 | 914-332-0447 |
| 부 | 서 기 | 김종우 사관 | 구세군뉴욕한인교회 | 516-485-5634 | 718-762-9513 |
| 회 | 계 | 박종규 장로 | 뉴욕초대교회 | 718-428-0970 | 718-639-3021 |
| 부 | 회 계 | 최영태 집사 | 후러싱제일교회 | 845-496-3700 | 212-695-0206 |

| 총무단 | | | | | |
|---|---|---|---|---|---|
| 총 | 무 | 최창섭 목사 | 뉴욕한인침례교회 | 718-229-3027 | 718-321-8040 |
| 협 동 총 | 무 | 우수환 목사 | 뉴욕평안교회 | 718-648-7423 | 718-376-2155 |
| | | 이명종 목사 | 롱아일랜드장로교회 | 631-543-1610 | 631-496-8017 |
| | | 홍영철 목사 | 은혜장로교회 | 718-494-1902 | 718-494-1902 |
| | | 박요한 목사 | 뉴욕베델레헴장로교회 | 718-423-5637 | 718-460-1869 |
| |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 | | 김석형 목사 | 롱아일랜드성결교회 | 516-746-4084 | 516-333-1757 |

| 분과위원장 | | | | | |
|---|---|---|---|---|---|
| 선 교 분 과 | | 김영식 목사 | 토렌스한인교회 | 516-825-5486 | 516-678-6625 |
| 목 회 분 과 | | 이기천 목사 | 뉴욕한성교회 | 718-428-6937 | 718-639-4929 |
| 음 악 분 과 | | 김수태 목사 | 뉴욕어린양교회 | 718-428-5806 | 718-899-8309 |
| 사 회 분 과 |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 재 정 분 과 | | 장한교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718-461-2782 | 212-239-9191 |
| 국 제 분 과 | | 이희선 목사 | 세인약교회 | 718-961-4842 | 718-939-2677 |
| 교 육 분 과 | | 문병준 목사 | 뉴욕선교교회 | 718-359-3973 | 718-461-8464 |
| 노 인 분 과 | | 이병길 목사 | 벧엘장로교회 | 718-359-5861 | 718-460-3546 |
| 여 성 분 과 | | 이옥현 권사 | 지구촌세계선교교회 | 718-224-7846 | 718-438-7244 |
| 청 년 분 과 | | 박수철 목사 | 뉴욕후러싱순복음교회 | 718-358-2332 | 718-358-1165 |
| 소 년 분 과 | | 정춘석 목사 | 뉴욕그리스도의교회 | 718-429-6647 | 718-429-6647 |
| 유 년 분 과 | | 이종식 목사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718-468-0295 | 718-229-0658 |
| 역 사 자 료 | | 이병훈 목사 | 새가나안교회 | 718-767-2549 | 718-229-0909 |
| 체 육 분 과 | | 정수명 목사 | 하나님의성회뉴욕교회 | 718-837-9427 | 718-236-4213 |
| 홍 보 분 과 | | 이병준 목사 | 뉴욕산성교회 | 718-894-3788 | 718-416-2165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
| 신학윤리위원회 | | 김상모 목사 | 뉴욕만백성교회 | 718-682-9116 | 718-494-2737 |
| 청소년지도위원회 | | 양희철 목사 |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 718-263-3634 | 718-263-3633 |
| 출 판 위 원 회 | | 황경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45-3901 |
| 협 력 위 원 회 | | 한재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 통 일 위 원 회 | | 김용걸 신부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78-2187 |
| 재산관리위원회 | | 김창훈 장로 | 뉴욕영락교회 | 718-639-7407 | 718-898-6884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 제27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이 사 장 | 유시수 장로 | 뉴욕중앙교회 | 718-961-8938 | 718-424-2828 |
| 부 이 사 장 | 정도인 목사 | 새소망장로교회 | 718-961-2155 | 646-246-3155 |
| 부 이 사 장 | 황일봉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718-648-9458 | 718-539-5700 |
| 부 이 사 장 | 한창인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639-6858 | 718-476-2100 |
| 부 이 사 장 | 박용기 장로 |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 718-961-7013 | 718-359-3851 |
| 총 무 | 최정욱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516-269-0710 | 718-762-0011 |
| 서 기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516-931-3173 | 718-545-7103 |
| 회 계 | 최희순 권사 | 뉴욕베다니장로교회 | 718-446-8273 | 718-457-7246 |
| 체육진흥기획 부장 | 유지성 집사 | 브르클린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 사 업 부 장 | 최재희 권사 | 뉴욕한인제일교회 | 718-779-2700 | 917-417-4506 |
| 감 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23-0343 |
| 감 사 | 유상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516-829-8084 | 212-977-1212 |

## 2001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27대 회장 송병기 목사는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 프라자 크리스탈 볼룸에서 가졌다. 부회장 황경일 목사 사회, 안창의 목사 기도, 그리고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가 "너는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21)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박희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1. 영광송을 찬양하는 장로 합창단과 권사 합창단
2.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3. 감사패를 증정하는 회장 송병기 목사



## 부활절 연합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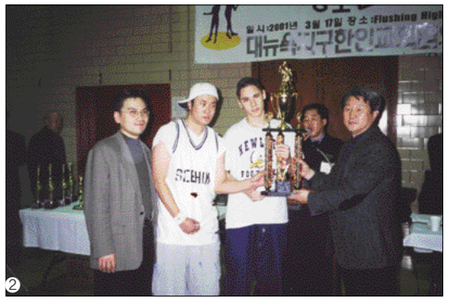
27대 송병기 회장은 퀸즈칼리지에서 교협연합예배로 2001년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약 1,500명이 넘게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 제3회 청소년 농구대회





1. 청소년 농구대회를 시작하기 전 임원들의 모습
2.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3. 우리 팀이 최고








4.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5. 체육분과위원장 황경일 목사가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6. 우승팀의 기념 촬영



## 교협 체육대회







1. 본부석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임원들
2. 승자에게 상품을 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3. 승자들에게 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생명의 복음을 교포들에게!!
할렐루야 2001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 최이삭목사
일시 : 2001년 6월 28일(목) 8PM 29일(금) 8PM 30일(토) 8PM 7월 1일(주일) 7PM
장소 : 퀸즈한인교회
89-00 23rd AVENUE, JACKSON HEIGHTS, NY
TEL. (718) 672-1150
어린이복음화대회
청소년복음화대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강사소개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최이삭 목사
어린이복음화대회
강사 에드보라 전도사
청소년복음화대회
Rev. Jay J. Oh
할렐루야 2001










1. 기도하는 강사 최이식 목사와 성도들
2. 지금 은혜 받는 중
3. 말씀 듣기에 열중하는 성도들
4. 대회 끝나고 강사와 함께








1. 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이드보라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2. 말씀 듣기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3. 우리도 은혜 받을래요!



한국일보 2001년 8월 3일(금요일)



北어성 성기대원들 지난달 ○○일 북한을 방문한 송병기목사(뉴욕교협 회장) 오른쪽)가 평양봉수교회에서 국가 를 기한 후 성가대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관계기사 A면 · 관계보도특집 A1면)

# 北 어린이에 모포 · 컴퓨터등 전달

## 뉴욕교협 북한방문결과 기자회견… 봉수교회 방문, 함께 예배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병기목사)는 1일 오전 10시 플러싱 교협 회의실에서 북한방문(7/18-7/24)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 모포와 컴퓨터 등을 유아원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방문에 참여한 일행은 송병기 목사를 비롯 교회협 통일문제위원장 김용집 신부, 사회분과위원장 김임기 목사, 뉴욕한인 YWCA 평화통일추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 윤기은 내과전문의, 안종식 우리민족을기뉴욕협의회 사무총장 등 9명이다.

송병기 교협회장은 "50,000달러 상당의 권장식 유아원 어린이용 모포와 10,000장은 북조선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통해 전달했으며 묵양교회에서 준비한 컴퓨터 1대와 10,000달러 상당의 학습교재는 모란봉 제1고등중학교에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1일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북한을 다녀온 교협임원들이 방북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 방문 길에 서울에 들러 지난 잘렐루야복음화성회시 들어온 헌금중 5,000달러를 한국어린이보호재단(회장 이혜근)에, 5,000달러를 한국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서장숙)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송 목사는 밝혔다.

교협 북한 방문단은 모포를 전달한 후 봉수교회를 방문, 북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방문단 중 김용집 신부는 북한은을, 존 개은 의사는 누님 가족을 상봉하기도 했다.

교협은 북한동포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원 등기와 북한의 고등중학교에 컴퓨터 기증사업을 각 교회와 연결시켜 계속 진개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독자적으로 북한 지원사업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병기목사는 "금년 방문은 우리민족을기뉴욕협의회 이름이 아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름으로 북한을 방문했다"며 "일부 언론의 우리민족을기능의협의회가 주선해 북한방문이 이뤄졌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욱 기자)
myongkuk@koreatimes.com



# 테러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예배

COUNCIL OF KOREAN CHURCHES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OF GREATER NEW YORK

때 : 2001년 9월 30일(주일) 오후 7시
곳 : 린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최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5-34 Union St. #9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 추 모 예 배

2001년 9월 30일 (주일) 오후 7시

사회 : 송병기 목사
(교협 회장)

| | | |
|---|---|---|
| *한-미국가 제창 | | 다 같 이 |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
| *개 회 찬 송 | 364장 | 다 같 이 |
| 대 표 기 도 | | 최홍일 목사 (교협 증경회장) |
| 성 경 봉 독 | 엘2:14-18 | 유시수 장로 (교협 이사장) |
| 찬 양 | | 윈즈장로교회 찬양대 |
| 설 교 | "오월한 제희의 집" | 조덕현 목사 (교협 증경회장) |
| 특 별 연 주 | | NY Christian Concert Band (지휘 : 안동기 집사) |
| 통 성 기 도 | | 다 같 이 |
| 기 도 인 도 | "불사조 인한 사상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 양희철 목사 (교협 증경회장) |
| | "부시대통령과 미국의 신앙적 재건을 위하여" | 한제홍 목사 (교협 증경회장) |
| | "경로사회와 뉴욕의 복음화를 위하여" | 박수복 목사 (교협 증경회장) |
| 헌 금 | | 다 같 이 (인도 : 교협 이사회) |
| 헌 금 기 도 | | 안창희 목사 (교협 증경회장) |
| 헌 금 특 송 | | 고려아 선교 중창단 |
| 추 모 시 | '우리 생명이 일어버리던 날에' | 조희호 목사 (뉴욕 성희교회) |
| 특 별 찬 양 |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슬퍼는 순간이다' | YWCA 어머니 합창단 |
| 추 모 사 | | 김광정 총영사<br>김석주 한인회장 |
| 광 고 | | 최창섭 목사 (교협 총무) |
| *찬 송 | 405장 | 다 같 이 |
| *축 도 | | 박희소 목사 (교협 증경회장) |

*표는 일어서서



## 9월11일에 미전국 '911'

뉴욕과 워싱턴DC등 테러 공격으로 아수라장



무너져 내리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상초유의 동시다발적인 테러 공격이 미국을 강타했다.
9월 11일 오전 뉴욕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워싱톤 DC 의 국방부와 국무부, 국회의사당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공항 등이 거의 동시에 항공기 또는 폭탄을 실은 차량의 테러 공격을 받았다.

항공기 8대-11대가 공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무역센터건물은 완전히 붕괴됐다.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테러가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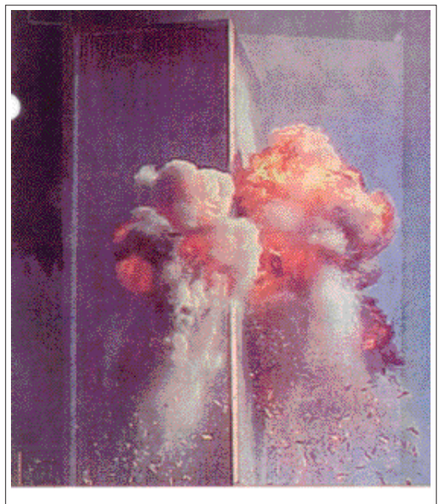
<9월 11일 오후2시 현재>



**야비한 돌진** ▲ 11일 오전 8시 45분께 아메리칸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오전 9시 3분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건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AP)



**'성 전'** 세계무역센터 붕괴장면을 맨하탄 5가에 소재한 제일장로교회에서 바라본 모습. 시사주간지 '타임' 은 이 사진을 최근 발행된 특집호에 개제하며 '성전(Holy War)이라고 표현했다.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건물을 들고 폭발하자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AP)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새러토사(플로리다)/AP=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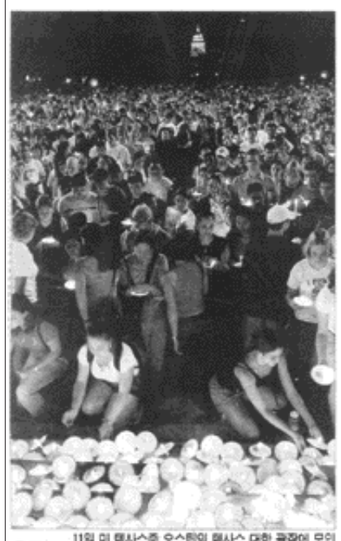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두대의 항공기테러 공격을 받아 붕괴한 직후 새까만 먼지구름이 맨해튼 하늘을 뒤덮고 있다. 아래는 1974년 6월 준공 1주년 당시의 무역센터 사진이다. [뉴욕 AP=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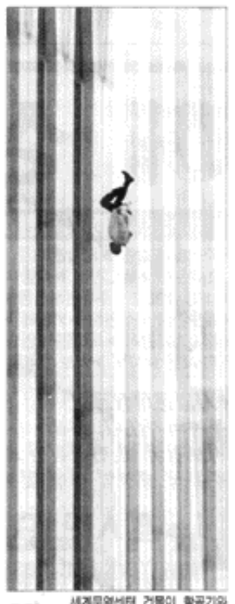




**충돌 순간** UA175기가 세계무역센터(WTC) 건물과 충돌하기 직전 장면①. UA175기가 WTC 건물과 충돌한 직후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검붉은 화염·연기가 건물을 뒤덮기 시작했다②. [뉴욕 AP=연합]



**추모** 11일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 광장에 모인 수천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항공기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촛불을 건물앞 계단에 놓아 놓고 있다. [오스틴 AP=연합]



**추락**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항공기와 충돌한 뒤 구조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뉴욕 AP=연합]

# 제 28 년사

주후 2002년



## 28대 교협 회장

뉴욕계명장로교회

The Gae Myung Presby. Church of NY

황경일 목사, Rev. Kyung Il Hwang

142-34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 28대 교협 임원

회 장 황경일 목사 (뉴욕계명장로교회)
부 회 장 김영식 목사 (성마가감리교회), 한창연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총 무 정진홍 목사 (소명장로교회)
서 기 정순원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 서 기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회 계 박종규 장로 (뉴욕초대교회)
부 회 계 김기철 집사 (새힘교회)

## 16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총 무 윤오성 집사 (뉴욕한민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권사 (새누리교회)
사업부장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 28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 원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 장 | | 황경집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45-3901 |
| 부 회 장 | | 김열식 목사 | 성마가감리교회 | 516-825-5486 | 516-678-6625 |
| 부 회 장 | | 한창연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718-639-6858 | 718-476-2100 |
| 서 기 | | 정순원 목사 | 벧과소금교회 | 718-767-2334 | 718-463-7306 |
| 부 서 기 | | 김수태 목사 | 뉴욕어린양교회 | 718-428-5806 | 718-899-8309 |
| 회 계 | | 박종규 장로 | 뉴욕초대교회 | 718-428-0970 | 718-639-3021 |
| 부 회 계 | | 김기철 집사 | 새롬교회 | 516-295-5154 | 516-771-0271 |
| **총무단** | | | | | |
| 총 무 | | 정진홍 목사 | 소명장로교회 | 718-747-3020 | 212-679-5264 |
| 협 동 총 무 | | 강 영 목사 | 웨스트버겐교회 | 914-345-6755 | 914-332-0447 |
| | | 김필식 목사 | 영광교회 | 718-939-8278 | 718-961-7530 |
| | | 이명종 목사 | 롱아일랜드장로교회 | 631-543-1610 | 516-496-8017 |
| | | 우수환 목사 | 뉴욕봉안교회 | 718-648-7423 | 718-376-2155 |
| | | 양승호 목사 | 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454-7442 | 718-359-0166 |
| | | 조병광 목사 | 뉴욕새하늘교회 | 718-519-8588 | 718-405-1865 |
| | | 조승수 목사 | 퀸즈성결교회 | 718-357-7442 | 718-898-4440 |
| | | 조영철 목사 | 뉴욕한사랑교회 | 914-835-2117 | 914-779-3316 |
| | | 전진호 목사 | 뉴욕영광장로교회 | 718-983-0274 | 718-983-0274 |
| | | 황동익 목사 | 뉴비전교회 | 212-777-5778 | 718-505-0200 |
| **분과위원장** | | | | | |
| 신 교 분 과 | | 이규환 목사 | 브르크린제일교회 | 718-714-6797 | 718-265-2584 |
| 목 회 분 과 | | 이승재 목사 | 은혜장로교회 | 718-423-6978 | 718-461-4657 |
| 음 악 분 과 | | 김상희 목사 | 순복음한다윗교회 | 718-353-3950 | 718-461-7835 |
| 사 회 분 과 |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 재 정 분 과 | | 최재복 권사 | 뉴욕함인제일교회 | 718-779-2700 | 718-779-2700 |
| 국 제 분 과 | | 이희선 목사 | 세원학교회 | 718-961-4842 | 718-939-2677 |
| 교 육 분 과 | | 이기환 목사 | 뉴욕함성교회 | 718-428-6937 | 718-639-4929 |
| 노 인 분 과 | | 조의호 목사 | 뉴욕성화교회 | 718-321-8870 | 718-321-8870 |
| 여 성 분 과 | | 한영숙 집사 | 뉴욕영락교회 | 718-565-9217 | 718-321-9333 |
| 청 년 분 과 | | 최창섭 목사 | 뉴욕함인침례교회 | 718-229-3027 | 718-321-8040 |
| 소 년 분 과 | | 진병철 목사 | 뉴욕영심감리교회 | 718-353-7771 | 718-353-7771 |
| 유 년 분 과 | | 오태환 목사 | 뉴욕은총장로교회 | 718-461-4118 | 718-281-1800 |
| 역 사 자 료 | | 이병훈 목사 | 새가나안교회 | 718-767-2549 | 718-229-0909 |
| 체 육 분 과 | | 정수영 목사 | 뉴욕태버내클교회 | 718-837-9247 | 718-236-4213 |
| 홍 보 분 과 | | 이봉준 목사 | 뉴욕산성교회 | 718-894-3788 | 718-416-2165 |
| 의 료 분 과 | | 임광우 박사 | 중부교회 | 718-445-4443 | 718-445-4443 |
| 장 애 인 분 과 | | 임선숙 총무 | 국제장애인선교회 | 718-423-6035 | 718-353-3791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 신학윤리위원회 | | 김상모 목사 | 탄백성교회 | 718-982-9116 | 718-494-2737 |
| 청소년지도위원회 | | 양희철 목사 | 포레스트힐장로교회 | 718-263-3634 | 718-263-3633 |
| 출 판 위 원 회 | | 김영식 목사 | 성마가감리교회 | 516-825-5486 | 516-678-6625 |
| 협 력 위 원 회 | | 송병기 목사 | 뉴욕복양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 통 일 위 원 회 | | 김용철 목사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78-2187 |
| 재산관리위원회 | | 김한호 장로 | 뉴욕영락교회 | 718-639-7407 | 718-321-9333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회장 황경집 목사


부회장 김열식 목사


부회장 한창연 장로


서기 정순원 목사


부서기 김수태 목사


회계 박종규 장로


부회계 김기철 집사


총무 정진홍 목사


협동총무 강 영 목사


협동총무 김필식 목사


협동총무 이명종 목사


협동총무 우수환 목사


협동총무 양승호 목사


협동총무 조병광 목사


협동총무 조승수 목사


협동총무 조영철 목사


협동총무 전진호 목사


협동총무 황동익 목사


신교분과 이규환 목사


목회분과 이승재 목사


음악분과 김상희 목사


사회분과 김원기 목사


재정분과 최재복 권사


국제분과 이희선 목사


교육분과 이기환 목사


노인분과 조의호 목사


여성분과 한영숙 집사


청년분과 최창섭 목사


소년분과 진병철 목사


유년분과 오태환 목사


역사자료 이병훈 목사


체육분과 정수영 목사


홍보분과 이봉준 목사


의료분과 임광우 박사


장애인분과 임선숙 총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초대 함지각 목사


2대 김우신 목사


3대 염장남 장로


4대 서광해 장로


5대 심홍섭 장로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영찬 목사


8대 최원호 장로


9대 이광오 장로


10대 황일영 장로


11대 김정훈 장로


12대 이병무 장로


13대 박희용 장로


14대 임무승 장로


15대 윤시수 장로

## 제28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황일봉 장로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부이사장 박용기 장로


부이사장 최진욱 장로


부이사장 유지성 장로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이사 | 장 | 황일봉 장로 | 718-648-9458 | 718-539-5700 |
| 부 이 사 | 장 | 정도인 목사 | 718-961-2155 | 646-246-3155 |
| 부 이 사 | 장 | 박용기 장로 | 718-961-7013 | 718-359-3851 |
| 부 이 사 | 장 | 최진욱 장로 | 516-269-0710 | 718-762-0011 |
| 부 이 사 | 장 | 유지성 장로 | 718-461-0909 | 718-461-0909 |
| 총 | 무 | 윤오성 집사 | 718-445-9236 | 718-747-1777 |
| 서 | 기 | 송태보 집사 | 516-931-3173 | 718-545-7103 |
| 회 | 계 | 최외순 권사 | 718-446-8273 | 718-457-7246 |
| 체육진흥계획 | 부장 | 정경진 집사 | 718-631-1332 | 718-268-2567 |
| 시 업 부 | 장 | 최재복 권사 | 718-779-2700 | 817-417-4506 |
| 감 | 사 | 함문수 목사 | 718-423-0343 | 718-423-0343 |
| 감 | 사 | 유일용 집사 | 516-829-8084 | 212-977-1212 |





중 앙 일 보 FRIDAY NOVEMBER 23, 2001


뉴욕교회협 신임 집행부와 이사장단이 19일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욕한인교회협

# 새집행부 정식 출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28대 회장 황관일 목사를 비롯한 신임 집행부·분과위원장과 이사장단 취임예배가 19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뉴욕교회협 전직 회장, 뉴욕목사회 회장 출신 목사, 김상무 뉴욕한인회장 등 뉴욕 업계 특별지와 소망손님 2백여명이 참석했다.

황관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인을 위성에 한 인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교회협 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진 교회가 아니가 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사장 황일봉 장로는 "교회협 안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회협 전 회장인 김남수 목사(순복음뉴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뉴욕시 기고회장 의원 회장 존 헬스트랜 목사 등이 축사를 했다.

한편 뉴욕교회협은 지난 16일 제28대 집행부 임원과 분과위원장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뉴욕교회협은 총무에 윤인용 목사(소망장로교회), 서기에 경순원 목사(벧샬로교회), 회계에 박종구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2002 집행부와 뉴욕복음화대회 준비를 맡게 될 선교분과위원장에는

### 뉴욕교회협 분과위원장

| | | |
|---|---|---|
| 선교 | 이규본 | 브루클린제일교회 |
| 목회 | 이승재 | 은혜장로교회 |
| 음악 | 김상의 | 순복음한마음교회 |
| 사회 | 김원기 | 뉴욕베데스다교회 |
| 개인 | 최재복 | 뉴욕한인제일교회 |
| 국제 | 이희신 | 사랑의교회 |
| 교육 | 이기천 | 뉴욕은성교회 |
| 노인 | 조의호 | 뉴욕성화교회 |
| 여성 | 한영숙 | 뉴욕영락교회 |
| 청년 | 최장심 | 뉴욕장신중앙교회 |
| 소년 | 민병렬 | 뉴욕영광감리교회 |
| 유년 | 오혜온 | 뉴욕은총장로교회 |
| 역사 | 이병홍 | 새가나안교회 |
| 체육 | 정수영 | 뉴욕하나님교회 |
| 홍보 | 이병준 | 뉴욕신생교회 |
| 의료 | 양병우 | 주사랑장로교회 |
| 장애 | 임신숙 | 임마누엘아동장로교회 |

### 뉴욕교회협 특별분과위원장

| | | |
|---|---|---|
| 신학위원 | 김상도 | 한빛장로교회 |
| 청소년지도 | 양해철 | 포레스트교회 |
| 출판 | 김영식 | 포렌스교회 |
| 법무 | 송병기 | 복음장로교회 |
| 봉임 | 김봉섭 | 장로회뉴욕한인교회 |
| 재산관리 | 김장훈 | 뉴욕영락교회 |

### 뉴욕교회협 임원진

| | | |
|---|---|---|
| 직책 | 이름 | 교회 |
| 회장 | 황관일 | 뉴욕제일장로교회 |
| 부회장 | 김영식 | 포렌스한인교회 |
| | 한현인 | 뉴욕수정성결교회 |
| 총무 | 정진홍 | 소망장로교회 |
| 서기 | 경순원 | 벧샬로스장로교회 |
| 부서기 | 김수태 | 뉴욕어린양교회 |
| 회계 | 박종규 | 뉴욕호라교회 |
| 부회계 | 김기일 | 새힘교회 |

### 뉴욕교회협 이사회 임원진

| | | |
|---|---|---|
| 이사장 | 황일봉 | 순복음뉴욕교회 |
| 부이사장 | 정도인 | 새소망장로교회 |
| | 박용기 |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
| | 최진욱 | 뉴욕수정성결교회 |
| | 유지성 | 동아일랜드한인교회 |
| 총무 | 윤오성 | 뉴욕한인교회 |
| 부총무 | 최외순 | 뉴욕베데스장로교회 |
| 서기 | 송태보 | 뉴욕한인중앙교회 |
| 감사 | 함문수 | 뉴욕서울장로교회 |
| | 유일용 | 순복음뉴욕교회 |

이규본 목사(브루클린제일교회)가 선임됐다.

이사장단으로는 이사장을 정도인 목사와 박용기·최진욱·유지성 장로, 총무 윤오성씨 등이 임명됐다. 정상교 기자

3면에 표 계속

## 2002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28대 회장 황경일 목사는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금강산 연회장에서 가졌다. 사회에 김영식 목사, 기도에 송병기 목사, 설교는 김상모 목사(뉴욕만백성교회)가 "God Bless America"(시 34:109)란 제목으로 하였고, 양동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복의 하례만찬 시간을 가졌다.




▲ 회장 황경일 목사와 교육분과 이기천 목사와 특송하는 김수정 선생




▲ 장로 성가단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 함께 기도하는 초청 인사들



▲ 회장 황경일 목사가 유시수 장로에게 감사패 증정




▲ 김헌태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




▲ 개성간판 대표에게 감사패 증정




▲ 금강산 유 이사에게 감사패 증정

## 증경회장단 초청 모임

4월 24일, 서울 프라자 3층 볼룸에서 증경회장단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간담회를 가졌다.









1. 인사말을 전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2. 말씀을 증거하는 장영춘 목사
3. 은혜를 나누는 시간






회장 황경일 목사는 서해안 교전 시의 국가 예비역 장군의 보고와 국가 안보 기도회를 가졌다. ▲▶







▲ 해외 선교 확산 대책 보고회

## 모국 군부대 선교

28대 교협 임원들이 경기도 의정부 포부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비를 전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 교협 총무 정진홍 목사가 대대장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고 있다.
2. 뉴욕교협 서기 정순원 목사가 부대교회 군목 김성남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3. 부대 내 탱크 위에서 정진홍 목사, 정순원 목사가 군목 김성남 목사와 함께 기념 촬영





## 교협 체육대회




▲ 경기 전 말씀을 전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 회장과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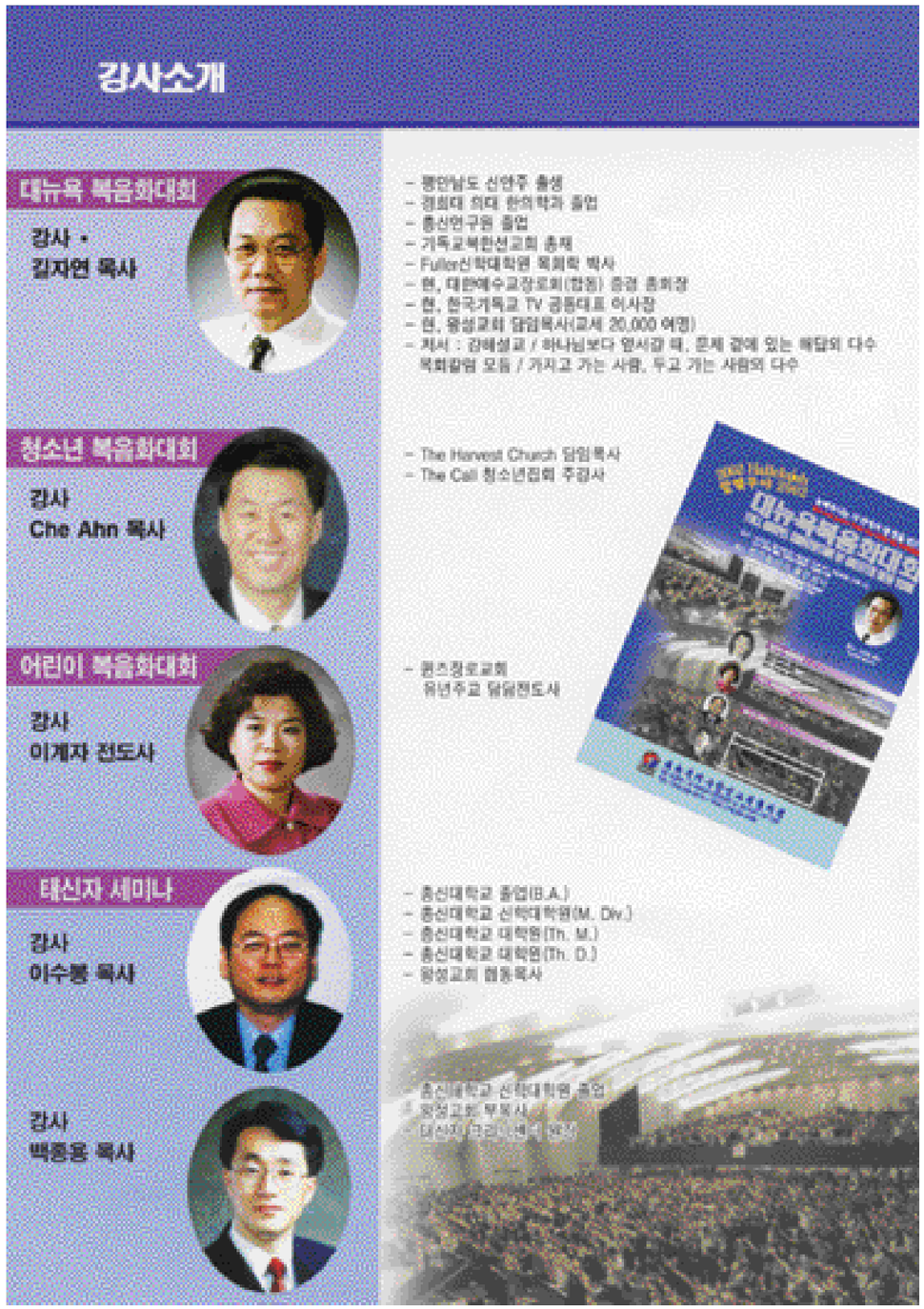


▲ 승자에게 우승기를 전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 감사패 전달


2002 Hallelujah
할렐루야 2002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
Get new power from the LORD ALL POWERFUL
대뉴욕복음화대회
FULL GOSPEL CONVENTION OF GREATER NEW YORK
일시 : 2002년 7월 5일(금), 6일(토) 오후 8시, 7일(주일) 오후 7시
JULY 5(FRI) 2002, 6(SAT) 8:00PM / 7(SUN) 7PM
장소 :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Colden Center at Queens College
강사 · 김자연 목사
청소년 복음화대회
어린이 복음화대회
태신자 세미나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TEL : (718) 358-0074 / FAX : (718)321-0105


강사소개
대뉴욕 복음화대회
강사 ·
김자연 목사
- 평안남도 신안주 출생
- 경희대 의대 한의학과 졸업
- 총신연구원 졸업
- 기독교복한선교회 총재
- Fuller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증경 총회장
- 현, 한국기독교 TV 공동대표 이사장
- 현, 뉴성교회 담임목사(교세 20,000 여명)
- 저서 : 강해설교 /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은혜 갚에 있는 해답의 다수
목회칼럼 모음 /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의 다수
청소년 복음화대회
강사
Che Ahn 목사
- The Harvest Church 담임목사
- The Call 청소년집회 주강사
어린이 복음화대회
강사
이계자 전도사
- 퀸즈장로교회
유년주교 담당전도사
태신자 세미나
강사
이수봉 목사
- 총신대학교 졸업(B.A.)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 총신대학교 대학원(Th. M.)
- 총신대학교 대학원(Th. D.)
- 뉴성교회 협동목사
강사
백종용 목사




▲ 대회를 선포하는 대회장 황경일 목사




▲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길자연 목사




▲ 2002 할렐루야 대회사를 낭독하는 회장 황경일 목사






▲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은혜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사 길자연 목사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원들



▲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 장학금을 전달하는 대회장 황경일 목사와 대독해 주는 서기 정순원 목사







▲▶ 장학금을 받으며 활짝 웃는 학생들과 대회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KOREA DAILY 구독·제보 (718)937 0505 1부 50¢ MONC



5일 퀸즈칼리지 풀든센터에서 열린 '할렐루야 2002 대뉴욕복음화대회'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

# "어두운 세상 생명의 빛 발하자"

##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개막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 힘을 얻자'

뉴욕 한인 개신교계 연중 최대 행사인 '할렐루야 2002 대뉴욕복음화대회'가 5일 퀸즈칼리지 풀든센터에서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황경일 목사)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의 주제는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새 힘을 얻으리', 첫해로 2000년에 열린 이 대회는 7일까지 계속된다.

오케이엘으로 구성된 퀸즈장로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시작된 첫날 예배에서 강사 김지연 목사(사울 한성교회)는 '부자증후 '많은 은혜'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부재"라고 진단하고 "개인, 가정 나아가 세계 모든 문제를 풀어 주는 최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교회협 회장 황경일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역사가 이번 대회를 통해 나타나 새 시대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잔치가 될 줄 믿는다"며 "나이가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는 어른을 위한 대회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복음화대회'로 열렸다. 또한 한성교회에서 개설한 태권지 장도 체험교실 5일과 6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대회 마지막 날 7일에는 '뉴욕의 한 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할렐루야 2002 대뉴욕복음화대회'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를 위해 뉴욕교회협은 지난해 연말부터 매달 한 번 씩 준비기도회를 가져 왔으며, 강사 김 목사도 지난 4월에 이어 1일 뉴욕에 도착, 교회협 임원과 대회 준비위원들을 만나 행사 준비를 해 왔다.

정상교 기자
<syjung@koreadaily.com>

조선일보 구독•제보 : (718)392-4000 MONDAY JULY 8, 2002




할렐루야 2002년 뉴욕지역 복음화대회가 5일 개막됐다. 사진은 첫날 집회에서 뉴욕수정성결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준비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 원내는 주강사인 김자인 목사.

# 할렐루야 뉴욕지역 복음화 대회

## 콜든센터서 2천여명 성황 이뤄

할렐루야 2002년 뉴욕지역 복음화대회 개막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황경일 목사)는 5일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강당에서 **할렐루야 2002년 대뉴욕복음화대회**를 개최, 찬양 · 말씀 · 은혜의 축제로 이어갔다.

복음화대회 **첫날 예배**에 앞서 뉴욕수정성결교회 찬양팀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콜든센터 2천여석을 가득 메운 성도의 마음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했다.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는 주제로 7일까지 개최된** 이번 복음화대회 첫날에서 주강사인 김자인(서울 양성교회 담임) 목사는 요한복음 5장1절-15절의 내용을 부지중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현대물질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며 "값 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현 전문기자 · 최정환 기자>
jchoi@nychosun.com



## 2002년 할렐루야 청소년 복음화대회

2002년 할렐루야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7월 26일(금), 27일(토), 28일(주) 오후 7시에 Che Ann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팀 ▲▶






강사 Che Ann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학생들 ▲▶



## 광복 제57주년 경축 기념예배

2002년 8월 14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광복 제57주년 경축 기념예배를 드렸다.



광복 제57주년경축기념예배

일시: 8월 14일 2002년. 장소: 뉴욕효신장로교회

주최: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 모국 수재민 돕기

28대 뉴욕교협에서는 엄청난 수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전 회장 한재홍 목사를 통해 수해성금을 전하여 주었다.



▲ 한재홍 목사가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1차 방문지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방문지에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











# 제 29 년사

주후 2003년



## 29대 교협 회장

벨모아감리교회

Bellmore U.M.C.

김영식 목사, Rev. Young Shik Kim

2643 Clarendon Ave. Bellmore, NY 11710

## 29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영식 목사 (성마가감리교회)

부 회 장　허　걸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황일봉 장로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정순원 목사 (빛과소금교회)

서　　기　전장호 목사 (뉴욕성민교회)

부 서 기　송성모 목사 (뉴욕삼일감리교회)

회　　계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부 회 계　김기철 집사 (새힘교회)

## 17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부이사장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총　　무　최재복 집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최외순 권사 (새누리교회)

감　　사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 29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 원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 장 | 김영식 목사 | 성미가감리교회 | 516-825-5486 | 516-678-6625 |
| 부 회 장 | 허 걸 목사 | 뉴욕제일침례교회 | 718-803-6378 | 718-478-1929 |
| 부 회 장 | 황일봉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718-819-0020 | 718-539-5700 |
| 서 기 | 전장호 목사 | 뉴욕성민교회 | 718-507-0765 | 718-507-5598 |
| 부 서 기 | 송성모 목사 | 뉴욕상일감리교회 | 718-996-5008 | 718-266-3707 |
| 회 계 | 송정훈 장로 | 동부제일교회 | 516-939-0109 | 718-353-3500 |
| 부 회 계 | 김기철 집사 | 새힘교회 | 516-295-5154 | 516-771-0271 |

| 총우단 | | | | |
|---|---|---|---|---|
| 총 무 | 정순원 목사 | 빛과소금교회 | 718-767-2334 | 718-463-7306 |
| 협동총무 | 이병은 목사 | 뉴욕산성교회 | 718-894-3788 | 718-416-2165 |
| | 최창섭 목사 | 뉴욕한인침례교회 | 718-229-3027 | 718-321-6040 |
| | 정춘석 목사 | 뉴욕그리스도의교회 | 718-429-6647 | 718-429-6647 |
| | 이영종 목사 | 동아일랜드장로교회 | 631-543-1610 | 516-496-6017 |
| | 김수태 목사 | 뉴욕어린양교회 | 718-428-5806 | 718-899-8309 |
| | 조영철 목사 | 뉴욕한사랑교회 | 914-835-2117 | 914-779-3316 |
| | 김기호 목사 | 뉴욕개혁장로교회 | 516-294-0161 | 516-641-7429 |
| | 최예식 목사 | 복된교회 | 715-505-8929 | 718-505-8929 |
| | 정진호 목사 | 뉴욕영광장로교회 | 718-983-0274 | 718-983-0274 |

| 분과위원장 | | | | |
|---|---|---|---|---|
| 선교분과 | 김종덕 목사 | 뉴욕실로암장로교회 | 718-969-2849 | 718-463-9013 |
| 목회분과 | 이기형 목사 | 뉴욕한성교회 | 718-428-6937 | 718-639-4929 |
| 음악분과 | 양민석 목사 | 백합감리교회 | 718-631-3594 | 718-631-3594 |
| 사회분과 | 김원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 재정분과 | 최형우 권사 | 후러싱제일교회 | 718-428-6523 | 718-463-3500 |
| 국제분과 | 이희선 목사 | 세언약교회 | 718-961-4842 | 718-939-2677 |
| 교육분과 | 이병홍 목사 | 세기나안교회 | 718-767-2549 | 718-229-0909 |
| 노인분과 | 조영철 목사 | 말씀행전교회 | 718-762-2470 | 516-484-4874 |
| 여성분과 | 한영숙 권사 | 뉴욕영락교회 | 718-565-9217 | 718-321-9333 |
| 청년분과 | 이종식 목사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718-468-0295 | 718-229-0858 |
| 소년분과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 유년분과 | 오태환 목사 | 뉴욕은총장로교회 | 718-461-4118 | 718-281-1800 |
| 역사자료 | 김길홍 목사 | 만음장로교회 | 631-979-0364 | 718-565-0268 |
| 체육분과 | 김남곤 목사 | 할렐루야연합감리교회 | 718-229-2998 | 718-464-8323 |
| 홍보분과 | 최더도 목사 | 뉴욕소망교회 | 718-279-4706 | 516-869-9228 |
| 의료분과 | 임병우 박사 | 뉴욕중부교회 | 718-445-4443 | 718-445-4443 |
| 장애인분과 | 임선숙 시모 | 벨리웰비아장로교회 | 718-423-6035 | 718-353-3791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 신학윤리위원회 | 한제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 청소년지도위원회 | 양희철 목사 | 포레스트힐한인장로교회 | 718-263-3634 | 718-263-3633 |
| 출 판 위 원 회 | 허 걸 목사 | 뉴욕제일침례교회 | 718-803-6378 | 718-478-1929 |
| 협 력 위 원 회 | 송병기 목사 | 뉴욕복양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 봉 일 위 원 회 | 김용일 신부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78-2187 |
| 재산관리위원회 | 김창훈 장로 | 뉴욕영락교회 | 718-639-7407 | 718-321-9333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 이사장




## 제29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최진욱 장로


부이사장 박원기 장로


부이사장 유지성 장로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이사 | 장 | 최진욱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516-937-7898 | 718-762-0011 |
| 부이사 | 장 | 박원기 장로 |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 718-961-7013 | 718-359-3851 |
| 부이사 | 장 | 유지성 장로 | 롱아일랜드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 총 | 무 | 최재복 집사 | 뉴욕한인제일교회 | 718-779-2700 | 917-328-4894 |
| 서 | 기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516-931-3173 | 718-545-7103 |
| 회 | 계 | 최희순 권사 | 새누리교회 | 718-446-8273 | 718-457-7246 |
| 체육진흥계획 | 부장 | 정경진 집사 | 뉴욕성서교회 | 718-631-1332 | 718-631-1332 |
| 사업 | 부장 | 계동휘 권사 | 뉴욕감리교회 | 718-898-9049 | 516-365-8066 |
| 감 | 사 | 정도인 목사 | 새소망장로교회 | 718-961-2155 | 718-986-8987 |
| 감 | 사 | 유일환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516-829-8084 | 212-977-1212 |



## 2003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29대 회장 김영식 목사는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6일(월) 영빈관에서 가졌다.


▲ 회장 김영식 목사의 신년사


▲ 새해를 기원하며, 기뻐하며 케이크를 자르는 회장 김영식 목사와 목회자들



▲ 신년예배 후 기념 촬영

## 청소년 농구대회

5월 3일 플러싱 고등학교(Flushing High School)에서 청소년 농구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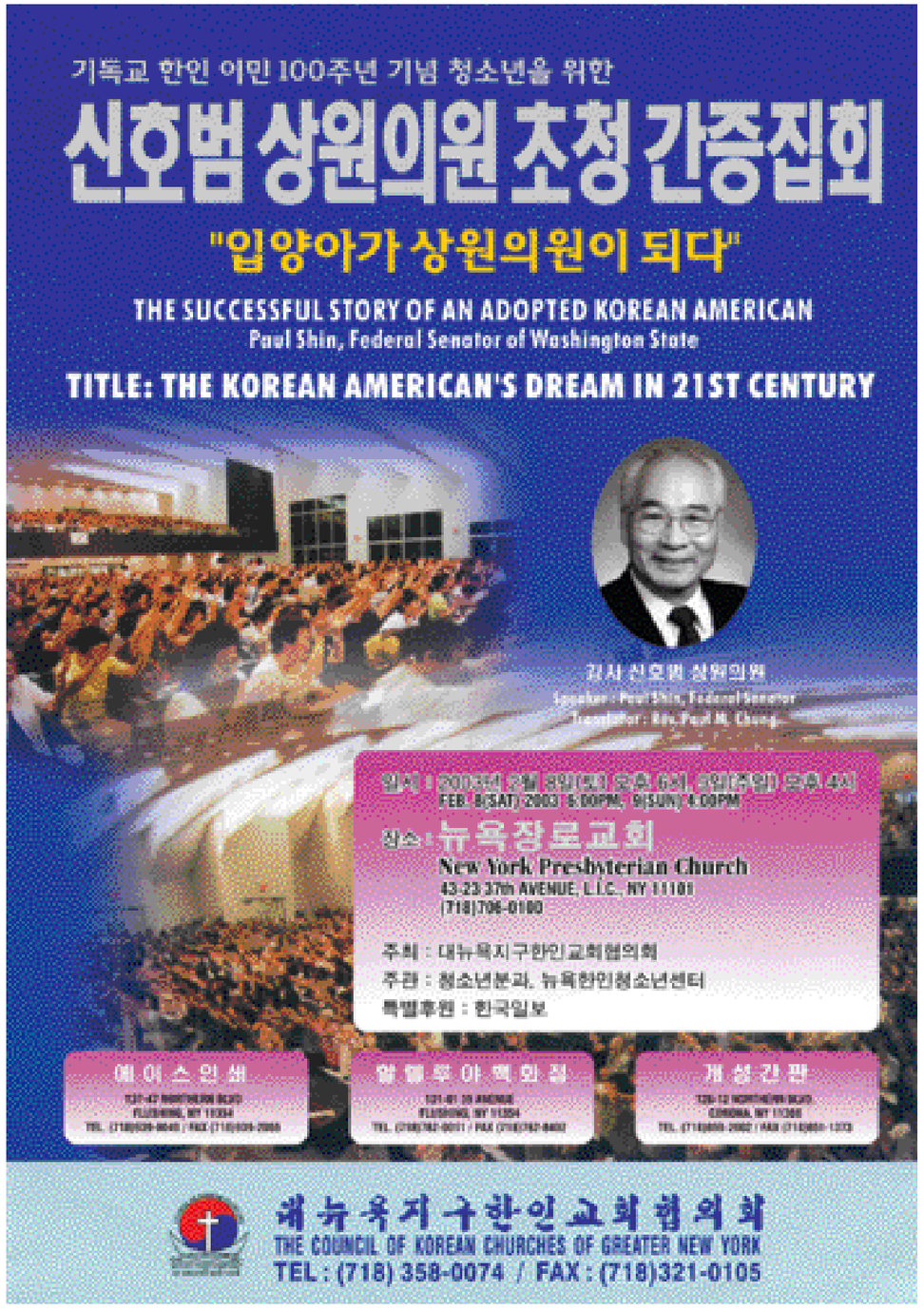




농구대회 ▲▶



▲ 배구대회








▲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백문현 목사



◀ 대회장 김영식 목사와 강사 백문현 목사 및 순서 맡은 분들이 입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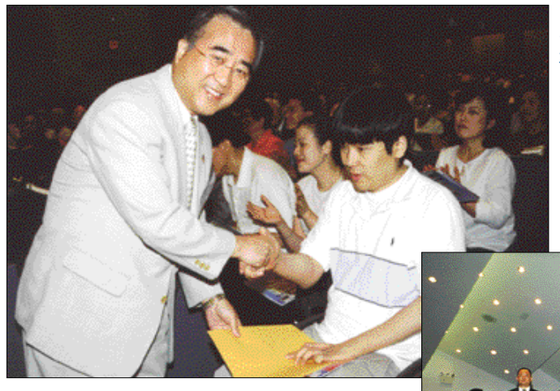


▲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 기쁨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전달하는 회장 김영식 목사




▲ 할렐루야 성회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

# "선교 · 선한 일 주역되자"

##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막내려… 연인원 8,000여 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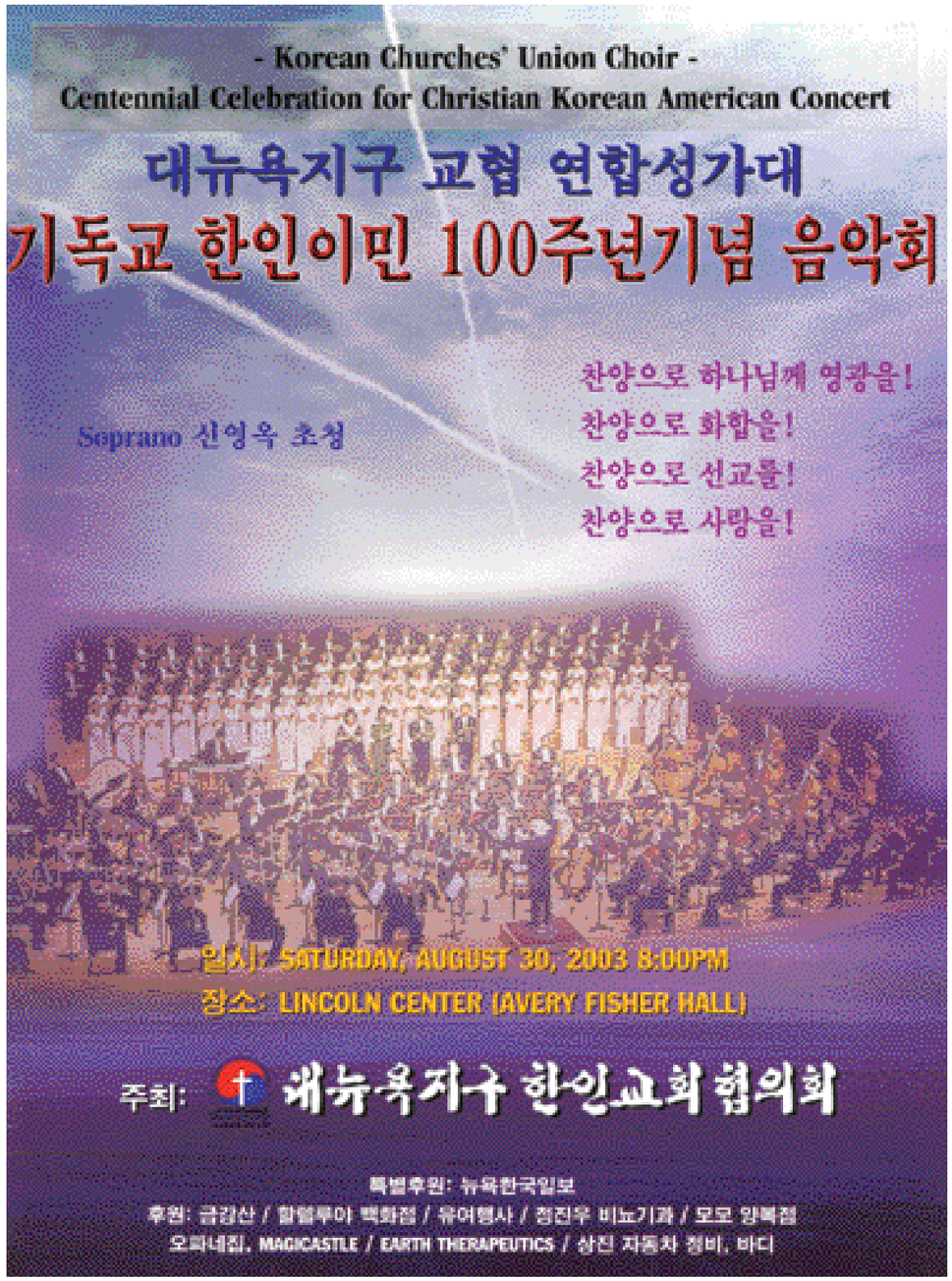
29일 뉴욕장로교회에서 백문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참석 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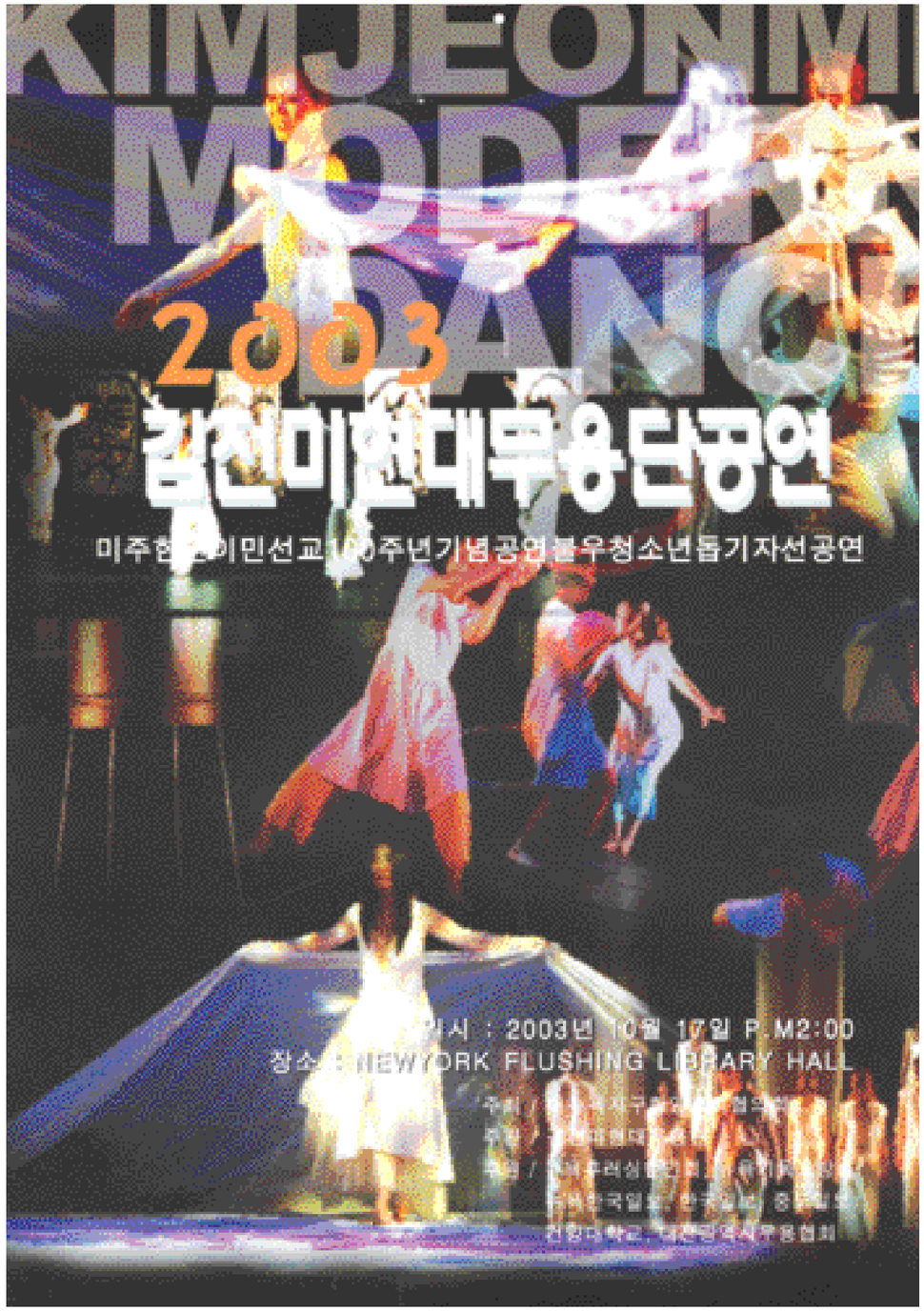
백문현(안양감리교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지난 26일부터 '새 시대, 새 믿음, 새 소망'이란 주제로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식 목사) 주최로 열린 대회는 연인원 8,000 여 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날은 기독교한인이민100주년 기념 예배로 열렸다. 마지막날 예배는 김광석 목사의 사회, 김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홍일봉 장로의 성경봉독, 교협 연합성가대의 찬양, 백문현 목사의 설교, 기독교부흥협회의 특송, 허 길 목사의 선언문 낭독, 김기철 뉴욕한인회장의 축사, 김영식 목사의 공로교회 표창과 폐회사, 황광일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뉴욕 교협은 선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대뉴욕지구 모든 동포와 민족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복음이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 기관에 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가오는 기독교 한인 이민선교 새 백주년을 향하여 선교에 힘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며 새 시대를 새 믿음의 역사로, 새 소망을 안내로 이룰 것을 선언 ▲뉴욕지구 안의 모든 한인 교회가 교회협의회를 통하여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개 교회의 부흥과 청소년 선도에 함께 2세 양육에 힘을 다할 것을 선언 ▲이 땅 위의 모든 민족의 분쟁을 종식시킬 기도의 사역을 다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석을 놓아갈 것을 선언 ▲고통하는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며 선교와 선한 일에 주역이 되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1980년 제1회로 시작된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는 개신교 연중 최대 행사로 그동안 다녀간 주 강사는 임동선, 박조준, 김계용, 김준곤, 김선도, 신현균, 한경직, 김장환, 정진경, 이호룡, 이동원, 곽선희, 김삼환, 김홍도, 신상종, 이종표, 최성규, 이만신, 김충기, 나겸일, 김시철, 최이식, 길자연 목사 등이다. 〈김경욱 기자〉


- Korean Churches' Union Choir -
Centennial Celebration for Christian Korean American Concert
대뉴욕지구 교협 연합성가대
기독교 한인이민 100주년기념 음악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화합을!
찬양으로 선교를!
찬양으로 사랑을!
Soprano 신영옥 초청
일시: SATURDAY, AUGUST 30, 2003 8:00PM
장소: LINCOLN CENTER (AVERY FISHER HALL)
주최: 재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특별후원: 뉴욕한국일보
후원: 금강산 / 할렐루야 백화점 / 유여행사 / 정진우 비뇨기과 / 모모 양복점
오파네집, MAGICASTLE / EARTH THERAPEUTICS / 상진 자동차 정비, 바디


KIMJEONMI
MODERN
2003
김전미현대무용단공연
미주한인이민선교100주년기념공연불우청소년돕기자선공연
일시 : 2003년 10월 17일 P.M2:00
장소 : NEWYORK FLUSHING LIBRARY HALL

# 제 30 년사

주후 2004년



## 30대 교협 회장

뉴욕제일침례교회

The First Baptist Church of NY

허 걸 목사, Rev. Benjamin G. Hou

87-37 Whiteney Ave. Elmhurst, NY 11373

## 30대 교협 임원

회　　장　허　걸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부 회 장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최진옥 장로 (뉴욕수정성결교회)

총　　무　조부호 목사 (한누리교회)

서　　기　이종명 목사 (뉴욕강성장로교회)

부 서 기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회　　계　김려순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부 회 계　문주한 집사 (뉴욕중부교회)

## 18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박용기 장로 (그레이스한인연합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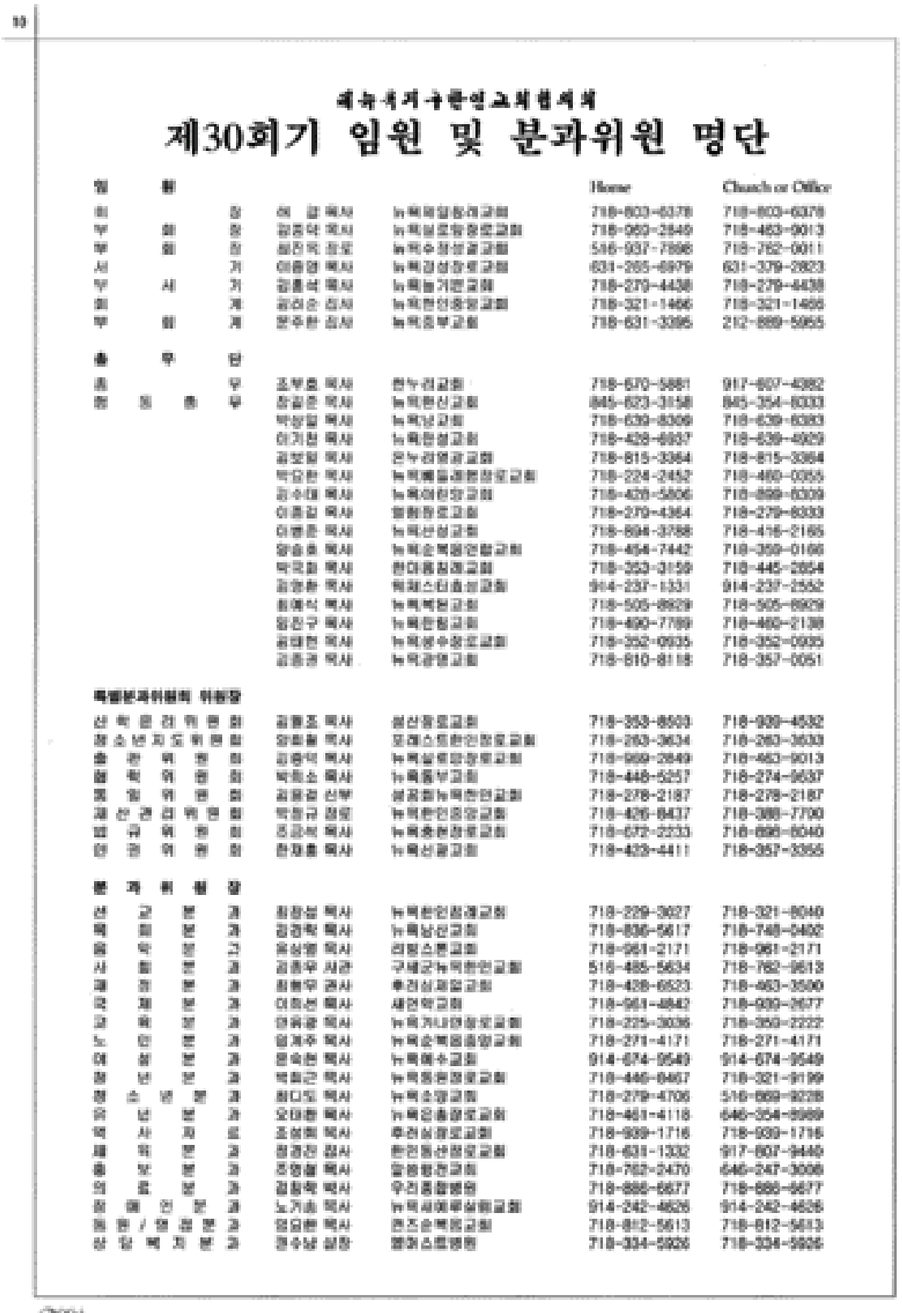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총　　무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서　　기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회　　계　한영숙 권사 (새천년연합감리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제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0회기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 임 | 원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회 | 장 | 허 걸 목사 | 뉴욕제일침례교회 | 718-803-6378 | 718-803-6378 |
| 부 | 회 장 | 김종덕 목사 | 뉴욕실로암장로교회 | 718-960-2849 | 718-463-9013 |
| 부 | 회 장 | 최진옥 장로 | 뉴욕수정성결교회 | 516-937-7898 | 718-762-0811 |
| 서 | 기 | 이종명 목사 | 뉴욕강성장로교회 | 631-265-6979 | 631-379-2823 |
| 부 | 서 기 | 김홍석 목사 | 뉴욕늘기쁜교회 | 718-279-4438 | 718-279-4438 |
| 회 | 계 | 김려순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321-1466 | 718-321-1466 |
| 부 | 회 계 | 문주한 집사 | 뉴욕중부교회 | 718-631-3095 | 212-888-5955 |
| 총 | 무 | 단 | | | |
| 총 | 무 | 조부호 목사 | 한누리교회 | 718-670-5881 | 917-607-4982 |
| 법 | 등 | 총 무 | | | |
| | | 장길준 목사 | 뉴욕한신교회 | 845-623-3158 | 845-354-8033 |
| | | 박상일 목사 | 뉴욕남교회 | 718-639-8309 | 718-639-8383 |
| | | 이기찬 목사 | 뉴욕한성교회 | 718-428-6937 | 718-639-4929 |
| | | 김보일 목사 | 한누리영광교회 | 718-815-3364 | 718-815-3364 |
| | | 박갑환 목사 | 뉴욕퀸즐생명장로교회 | 718-224-2452 | 718-460-0355 |
| | | 김수태 목사 | 뉴욕이천장교회 | 718-428-5806 | 718-899-8309 |
| | | 이종길 목사 | 열린장로교회 | 718-279-4364 | 718-279-8333 |
| | | 이병준 목사 | 뉴욕신성교회 | 718-894-3788 | 718-416-2165 |
| | | 양승호 목사 | 뉴욕순복음연합교회 | 718-454-7442 | 718-359-0166 |
| | | 박국희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 | | 김영환 목사 | 뉴체스터솔선교회 | 914-237-1331 | 914-237-2552 |
| | | 최예식 목사 | 뉴욕복된교회 | 718-505-8929 | 718-505-8929 |
| | | 임준구 목사 | 뉴욕한림교회 | 718-460-7789 | 718-460-2138 |
| | | 윤태현 목사 | 뉴욕생수장로교회 | 718-352-0935 | 718-352-0935 |
| | | 김종권 목사 | 뉴욕광염교회 | 718-810-8118 | 718-357-0051 |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 | | | |
| 산 학 문 건 위 원 회 | | 김홍조 목사 | 성산장로교회 | 718-353-8503 | 718-939-4532 |
| 청 소 년 지 도 위 원 회 | | 양희철 목사 |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 718-263-3634 | 718-263-3633 |
| 총 관 위 원 회 | | 김종덕 목사 | 뉴욕실로암장로교회 | 718-969-2849 | 718-463-9013 |
| 절 목 위 원 회 | | 박희소 목사 | 뉴욕동부교회 | 718-448-5257 | 718-274-9637 |
| 봉 임 위 원 회 | | 김용걸 신부 | 성공회뉴욕한인교회 | 718-278-2187 | 718-278-2187 |
| 재 산 관 리 위 원 회 | | 박동규 장로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426-8437 | 718-388-7700 |
| 법 규 위 원 회 | | 조규석 목사 | 뉴욕충현장로교회 | 718-672-2233 | 718-896-8040 |
| 안 권 위 원 회 | | 한재홍 목사 | 뉴욕선광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 분 과 위 원 장 | | | | | |
| 선 교 분 과 | | 최창섭 목사 | 뉴욕한인침례교회 | 718-229-3027 | 718-321-8040 |
| 목 회 분 과 | | 김경학 목사 | 뉴욕남산교회 | 718-836-5617 | 718-746-0402 |
| 음 악 분 과 | | 송상명 목사 | 리빙스톤교회 | 718-961-2171 | 718-961-2171 |
| 사 회 분 과 | | 김종우 사관 | 구세군뉴욕한인교회 | 516-485-5634 | 718-782-9613 |
| 재 정 분 과 | | 최형우 권사 | 후러싱제일교회 | 718-428-6523 | 718-463-3500 |
| 국 제 분 과 | | 이희선 목사 | 새천막교회 | 718-961-4842 | 718-939-2677 |
| 교 육 분 과 | | 한윤광 목사 | 뉴욕거니연동장로교회 | 718-225-3036 | 718-359-2222 |
| 노 인 분 과 | | 임계주 목사 | 뉴욕순복음중앙교회 | 718-271-4171 | 718-271-4171 |
| 여 성 분 과 | | 문숙희 목사 | 뉴욕예수교회 | 914-674-9549 | 914-674-9549 |
| 청 년 분 과 | | 박희근 목사 | 뉴욕동부장로교회 | 718-446-6467 | 718-321-9199 |
| 청 소 년 분 과 | | 최다도 목사 | 뉴욕소망교회 | 718-279-4706 | 516-869-9228 |
| 유 년 분 과 | | 오태환 목사 | 뉴욕은총장로교회 | 718-461-4118 | 646-354-8989 |
| 역 사 자 료 | | 조성희 목사 | 후러싱장로교회 | 718-939-1716 | 718-939-1716 |
| 체 육 분 과 | | 정경진 집사 | 한인동산장로교회 | 718-631-1332 | 917-607-9440 |
| 홍 보 분 과 | | 조영철 목사 | 들꽃평안교회 | 718-762-2470 | 646-247-3008 |
| 의 료 분 과 | | 김철책 박사 | 우리종합병원 | 718-886-6677 | 718-886-6677 |
| 원 로 인 분 과 | | 노기호 목사 | 뉴욕새에루살렘교회 | 914-242-4626 | 914-242-4626 |
| 회 원 / 영 성 분 과 | | 임요한 목사 | 퀸즈순복음교회 | 718-812-5613 | 718-812-5613 |
| 상 임 복 지 분 과 | | 권수남 실장 | 뮬러스트병원 | 718-334-5926 | 718-334-5926 |

2004

재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회장 허 걸 목사



부회장 김홍덕 목사



부회장 최진복 장로



서기 이종남 목사 부서기 김홍비 목사 회계 김하준 집사 부회계분과한 집사 전무 송부현 목사 감사초장 정삼룡 목사 감사초장 박상일 목사 감사초장 이기현 목사

감사초장 김상일 목사 감사초장 박일한 목사 감사초장 송수태 목사 감사초장 이병순 목사 감사초장 이병준 목사 감사초장 정병철 목사 감사초장 박국일 목사 감사초장 김경훈 목사

감사초장 정해석 목사 감사초장 김진구 목사 감사초장 김대현 목사 감사초장 김홍권 목사 선교분과 김동선 목사 부교역 김경석 목사 감사역군 목삼열 목사 사회진교 송홍부 목사

재정분과 김동우 권사 재정부교 이도선 목사 교육분과 안대경 목사 노인분과 김혜수 목사 여전분과 윤혜련 목사 청년분과 박희근 목사 청소년분과 홍대도 목사 부교역군 이기현 목사

역사자문 조성희 목사 재적부교 조경환 집사 통신분과 조경희 목사 미디어분과 김동백 목사 장례인분과 노기호 목사 장학인성분과 황대순 목사



재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30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박봉기 장로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부이사장 유지성 장로



부이사장 강현석 장로



부이사장 송정훈 장로

| | | | Home | Church or Office |
|---|---|---|---|---|
| 이 사 장 | 박봉기 장로 | 그레이스한인연합교회 | 718-961-7013 | 718-359-3851 |
| 부 이 사 장 | 정도인 목사 | 새소망장로교회 | 718-961-2155 | 718-986-8887 |
| 부 이 사 장 | 유지성 장로 | 롱아일랜드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 부 이 사 장 | 강현석 장로 | 우리성제일교회 | 516-777-7770 | 516-777-7770 |
| 부 이 사 장 | 송정훈 장로 | 동부제일교회 | 516-939-0109 | 718-353-3500 |
| 총 무 | 최재복 권사 | 뉴욕한인제일교회 | 718-779-2700 | 917-328-4894 |
| 서 기 | 송태도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516-931-3173 | 718-545-9344 |
| 회 계 | 한영숙 권사 | 새천년연합감리교회 | 718-565-9217 | 718-565-9217 |
| 재적부교역자부장 | 장경진 집사 | 한인동산장로교회 | 718-631-1332 | 917-807-9440 |
| 감 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78-2108 |
| 감 사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718-829-8084 | 212-977-1212 |

## 역대 이사장



8대 정지각 목사 2대 김무헌 목사 3대 변정남 장로 4대 서광해 장로 5대 심종섭 장로 6대 김명대 장로

7대 김경천 목사 8대 황원호 장로 9대 허걸오 장로 10대 황일점 장로 11대 김희후 장로 12대 이원무 장로

13대 박해봉 장로 14대 임무송 장로 15대 위시수 장로 16대 황일봉 장로 17대 최진복 장로

## 2004년 신년 축하예배 및 하례만찬

30대 회장 허걸 목사는 1월 8일(목) 오후 7시 서울 프라자 크리스탈 볼룸에서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개최하였다. 사회 김경락 목사, 기도 김영식 목사, 설교 조정칠 목사, 박성만 목사 축도로 은혜 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허걸 목사 ▶




▲ 한 해의 축복하심을 기원하는 시간



◀ 회장 허걸 목사와 뉴욕 총영사 조원일 대사의 담소



## 웅변대회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1.5세와 2세들에게 한국의 3·1절 정신을 깨우치고 계승하게 하고자 웅변대회를 개최했다.




▲ 회장 허걸 목사와 유년부 우승자



▲ 회장 허걸 목사와 중·고등부 우승자




▲ 대회 임원들과 우승자들

# 2004년 부활절 연합예배

## 플러싱 비롯 15개 지역 '예수 부활' 일제히 증거



▲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드리는 2004년 부활절 연합예배 모습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04년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뉴욕효신장로교회를 비롯한 뉴욕일원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다.

특별히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연합예배와 관련해 교협회장 허길 목사는 형사와 관련해 "부활하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 주변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네리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리힘 수 있다" 고 말했다.

지역별 설교자와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다.

우드사이드 1지역: 김명하 목사, 부활신앙(고전 15:1-8)/ 우드사이드 2지역: 한세원목사, 예수 부활의 선물(마28:1-10)/ 엘머스트 지역: 김윤철목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막16:1-11)/ 호리싱 남부 1지역: 한요한 목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롬6:5)/ 호리싱남부 2지역: 김종대목사, 내가 시노라(갈2:19-20)/ 호리싱북부 1지역: 김남수목사, 누구를 찾느냐(요20:15-18)/ 호리싱북부 2지역: 목동주목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지(빌3:10-11)/ 베이사이드 지역: 이종길목사,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전 15:1-11), /퀸즈 3지역: 이병희목사, 보지못하고 믿는자가 복되도다(요20:24-29)/ 뉴욕롱무 지역: 노기승목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눅24:13-35), /앤해튼 지역: 한영숙목사, 나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라(요14:1-4), /브루클린 지역: 신상길목사, 성조찬(요21:1-19)/ 롱아일랜드 닛스지역: 김영식목사, 사망을 이기신 주님(눅24:1-5), /롱아일랜드 서폭지역: 김종일목사, 부활의 약속(고전 15:12-20)

### 교협신문 발행 목적과 비전

**MISSION**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마 6:33)가 실현됨으로써 주 안에서 '의와 희평과 희락'(롬14:16)이 넘치는 나라를 건설함.

**VISION**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도성에 충만하여 올바른 성경적사고를 가진 한인교계전설을 통해 한인사회 자체 자증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함.

**GOAL**
뉴욕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에 비추어진 참 지도자의 비전을 나누고 네트워킹성을 통한 재생산적 사업의 실천, 한인교계일 한센지회를 향한 선도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한인교계와 동포사회의 중도를 모색함.

**PROGRAM**
이사회 교회선정 및 교회자립지원, 연구 및 학술세미나활동, 차세대 지도자양성.

## 회 제30대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 및 제18대 이사장

기 이종명 / 부서기 김홍석 / 회계 김려순 / 부회계 문주한 / 이사장 박용기





김려순종합보험
KRS INSURANCE
35-34 Union St., 2nd Fl Flushing, NY 11354
Tel 718-321-1466 Fax 718-321-1464

교협신
구독/제보 718.358.0074 (팔근자)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 발행인: 허 길 / 편집인: 김종덕 / 편집국장: 조부호 35-34 UNION ST. #1FL, FLUSHING, NY 11354 (TEL)718-358-0074,4421

# '룡천역 사고 북한동포에 사랑을...'

## 4백50여 회원교회 참사돕기 동참 촉구



▲피해. 폭발사고로얼굴에화상을 입고입원치료중인아이들 ▲구호. 대한적십자사 요원들이 의약품을 적재하고 있는 모습

일련 4백50여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성금으로 모아 전달하지고 동참을 당부하고 헌금이 거두어지는 대로 직주에 한번씩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사고당시 업무차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허길 회장은 이번 시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럽게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시태가 순진하고 무구한 많은 인명을 앞에 놓고 정치적인 음모으로 각 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 입장을 밝힌 뒤 "뉴욕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황사지원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생명존중의 모습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룡천역 참사 돕기헌금은 교협으로 보내주십시오 PAY TO ORDER : C.K.C

## 청소년 농구대회

골이 막 들어가는 순간 ▶





▲ 경기 중 작전 타임 시간

최종 우승팀 발표를 기다리며 ▶





## 교협 체육대회



▲ 대회 전 예배에서 설교하는 회장 허걸 목사



▲ 족구 경기



▲ 경기를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며






# 교협 체육대회 화합의 장

## 총 58개팀 1천5백여 선수 참여 화합과 친선 도모



▲ 1968 교협 체육대회에서 회장 허경윤사가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다.

교협뉴스 2004년 6월 5일(토요일) 5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 제 회 교협 체육대회가 지난 31일 롱아일랜드 소재 미네올라 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총 58개팀 1천5백여 선수들이 참가해 화합과 친선을 도모했다.

이날 대회에는 뉴욕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석 목사, 뉴욕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동명 목사, 3위 뉴욕장로교회 김성곤 목사, 3위 뉴욕중앙교회 이상복 목사, 1위 뉴욕상공회의소 김동석 목사, 2위 순복음 뉴욕교회 김경래 목사, 3위 뉴저지장로교회 김성곤 목사, 1위 뉴욕중앙교회 이상복 목사, 2위 뉴욕장로교회 김동명 목사, 3위 뉴저지장로교회 김성곤 목사 등 교협 임원들과 각 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응원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테니스, 골프, 볼링, 족구, 1위 뉴욕중앙교회, 2위 뉴욕장로교회, 3위 뉴저지장로교회 등 뉴욕교회, 3위 뉴저지중앙장로교회 각 수상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교협 체육부 임원들과 각 교회 그룹위원 선수들에게 MVP는 뉴욕장로교회, 2위 뉴욕중앙교회, 3위 뉴저지장로교회가 각각 수상했으며 개인별로 58개 팀이 참가한 축구 득점왕은 뉴욕장로교회 김동명 목사가 차지했다.

한편 교협 체육부 임원들과 각 교회 그룹위원 선수들에게 MVP는 뉴욕장로교회, 2위 뉴욕중앙교회, 3위 뉴저지장로교회가 각각 수상했으며 개인별로 58개 팀이 참가한 축구 득점왕은 뉴욕장로교회 김동명 목사가 차지했다.



## 대뉴욕복음화대회

### 강사 김정훈 목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개혁 신학대학원 수료
- 리버티신학대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료
- 용인성민수양관 원장
- 민족통일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실무회장
- 필로스 복음선교회장
- 아시아선교대회 대표대회장
- (사)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 총회장
- 리버티대학 명예목회학박사 및 명예 신학박사
- 축복교회 담임



## 어린이복음화대회

### 강사 조유경 전도사

-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종교 교육학 학사(B.R.E.)
-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교육학 석사(M.P.S.)
- "할렐루야 '94 대뉴욕지구 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및 기독교 교육 세미나 강사
- 신앙 월간지 〈빛과 사람〉 교육 칼럼니스트
- 현,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준홍 목사 사모
- 저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홍익출판사)

대뉴욕복음화대회 *Hallelujah Crusade 2004*




▲ 강사 김정훈 목사의 할렐루야 인사




▲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소서.




▲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강사 김정훈 목사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장학금을 전달하며 활짝 웃는 대회장 허걸 목사와 학생



▲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대회 강사인 조유경 전도사와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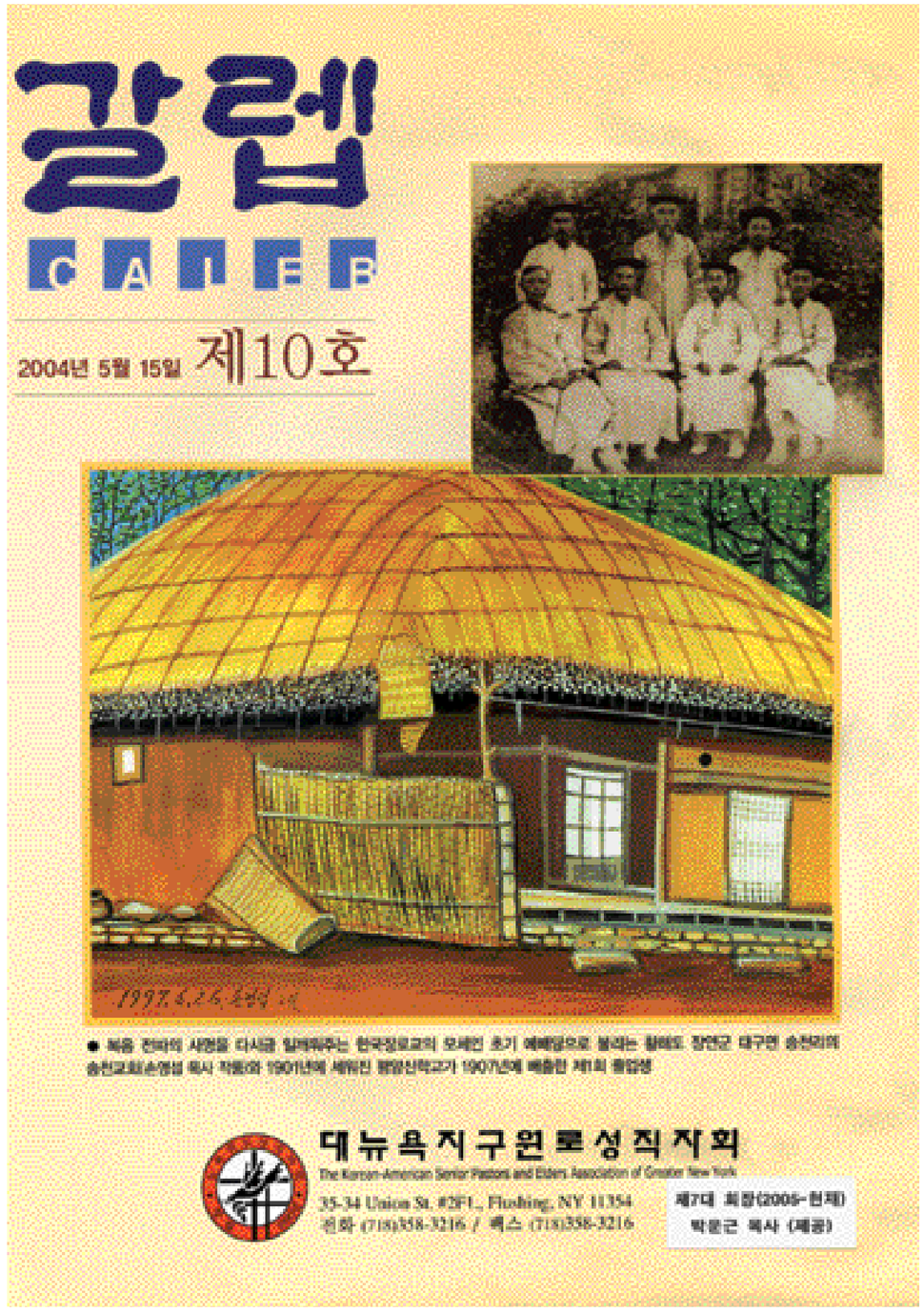



▲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율동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 성회 마지막 날 기념 촬영





# 제 31 년사

주후 2005년



## 31대 교협 회장

뉴욕실로암장로교회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김종덕 목사, Rev. Jong Du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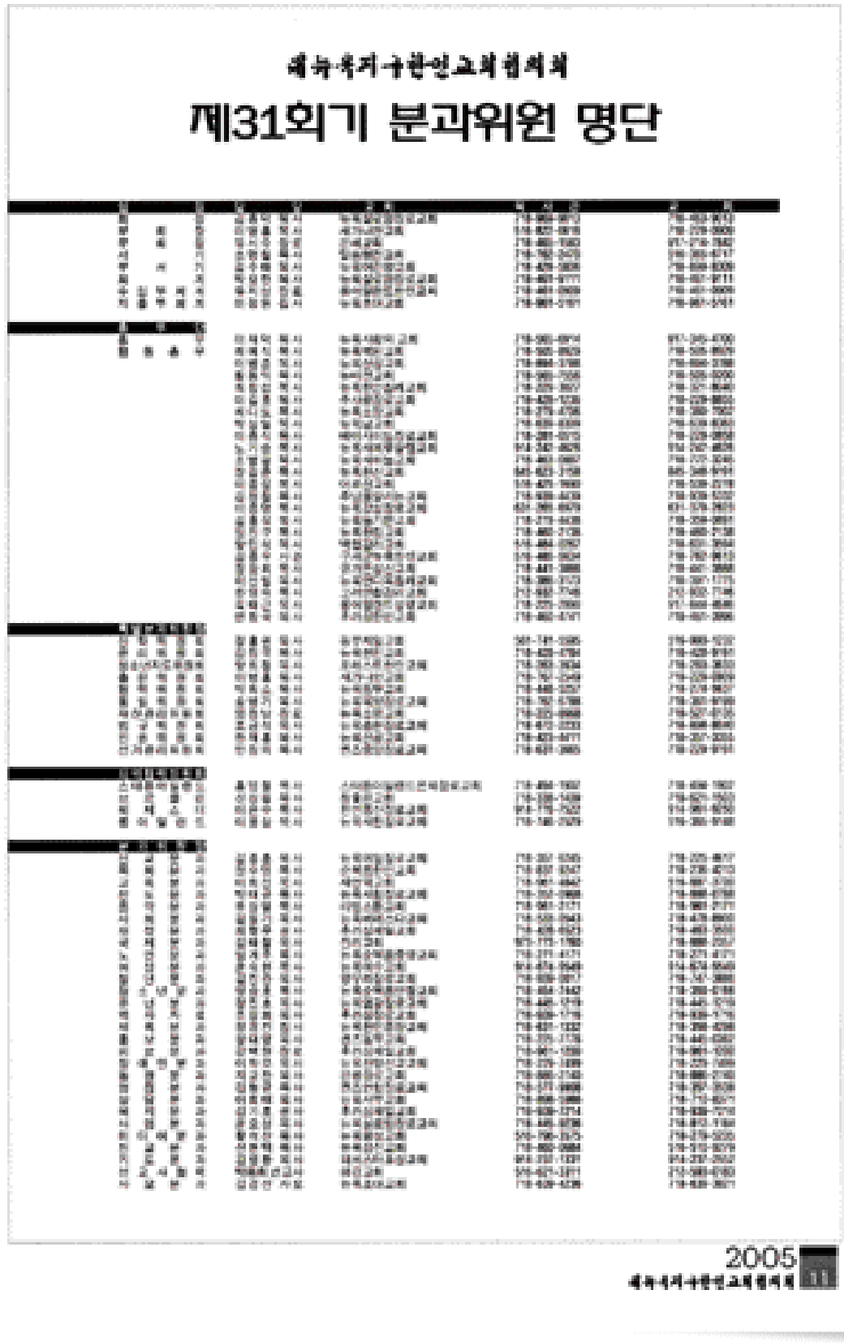
137-7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31대 교협 임원

회　　장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부 회 장　이병홍 목사 (새가나안교회), 유시수 장로 (은혜교회)
총　　무　이재덕 목사 (뉴욕사랑의교회)
서　　기　조명철 목사 (말씀행전교회)
부 서 기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회　　계　박요한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수입부회계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지출부회계　이정원 집사 (뉴욕초대교회)

## 19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총　　무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서　　기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회　　계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1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5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부회장 **이방흥** 목사


회장 **김 종 덕** 목사


부회장 **유시수** 장로


서기 **조영철** 목사


부서기 **김수태** 목사


회계 **박호한** 목사


부회계 **유지성** 장로


부회계 **허정원** 집사


총무 **이재덕** 목사


법동총무 **최혁식** 목사


법동총무 **이병은** 목사


법동총무 **황동익** 목사


법동총무 **최창섭** 목사


법동총무 **이길호** 목사


법동총무 **최디도** 목사


법동총무 **박상업** 목사


법동총무 **이종식** 목사


법동총무 **노기술** 목사


법동총무 **조병광** 목사


법동총무 **정길은** 목사


법동총무 **이종성** 목사


법동총무 **김병일** 목사


법동총무 **이종영** 목사

2005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법동총무 **김홍석** 목사


법동총무 **임한구** 목사


법동총무 **김종우** 사관


법동총무 **임만택** 목사


법동총무 **정광희** 목사


법동총무 **이선일** 목사


법동총무 **변영욱** 목사


법동총무 **김태근** 목사


법동총무 **변창국** 목사


전교분과 **김종훈** 목사


적체분과 **정수영** 목사


교육분과 **이희선** 목사


전도분과 **박태근** 목사


음악분과 **윤성업** 목사


사회분과 **김한지** 목사


재정분과 **최동우** 존서


국제분과 **김태철** 목사


노인분과 **임계주** 목사


여성분과 **문숙현** 목사


장년분과 **김진관** 목사


청소년분과 **함승호** 목사


유년분과 **임진호** 목사


역사자료 **조성희** 목사


적체분과 **정경신** 집사


홍보분과 **정대영** 목사


의료분과 **김백현** 장로


장애인분과 **이학오** 목사


동위분과 **최교관** 목사


영접분과 **김동규** 목사


상담분과 **이희태** 목사


복지분과 **김기호** 존사


사업분과 **윤오병** 목사


여리아분과 **홍석신** 목사


선교분과 **신원택** 목사


기도분과 **김영환** 목사


서무분과 **김경성** 사모

2005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1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송정훈 장로 | 부이사장 정도민 목사 | 부이사장 유지성 장로 | 부이사장 강현석 장로 | 부이사장 유일용 집사

|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송정훈 장로 | 동부제일교회 | 516-939-0109 | 781-353-3500 |
| 부이사장 | 정도민 목사 | 세소망장로교회 | 718-961-2155 | 718-886-8087 |
| 부이사장 | 유지성 장로 | 롱아일랜드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 부이사장 | 강현석 장로 | 우리성제일교회 | 516-777-7770 | 516-777-7770 |
| 부이사장 | 유일용 집사 | 은혜음뉴욕교회 | 516-829-8091 | 646-521-0099 |
| 총 무 | 최재복 권사 | 늘목한인제일교회 | 718-939-0444 | 917-335-5200 |
| 서 기 | 이주익 집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718-229-2261 | 914-633-3542 |
| 회 계 | 한영숙 장로 | 뉴욕새한넷교회 | 718-565-9217 | 917-363-6055 |
| 사업담당 | 정경진 집사 | 늘목한인중앙교회 | 718-631-1332 | 917-363-6055 |
| 기획및 모금담당 | 문일환 집사 | 퀸즈한인교회 | 212-679-9889 | 212-679-9889 |
| 감 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23-0343 | 718-478-2108 |
| 감 사 | 송태보 집사 | 늘목한인중앙교회 | 516-931-3173 | 718-545-9344 |

역대 이사장



초대 방희작 목사 | 2대 김우성 목사 | 3대 임정남 장로 | 4대 서광택 장로 | 5대 심용섭 장로 |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영환 목사 | 8대 최원호 장로 | 9대 하광웅 장로 | 10대 황일평 장로 | 11대 김정룡 장로 | 12대 이명우 장로
13대 박혜웅 장로 | 14대 임우승 장로 | 15대 홍사수 장로 | 16대 황일봉 장로 | 17대 최진욱 장로 | 18대 박종기 장로

2005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뉴욕교회협 새 집행부 취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31대 회장 김종덕(앞줄 가운데) 목사를 비롯한 임원과 각 분과위원장 취임식이 15일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새 집행부는 이날 신뢰받는 교회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관계기사 C-2면> 정상교 기자

## 2005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31대 회장 김종덕 목사는 2005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가졌다. 사회 김용걸 신부, 기도 박희소 목사, 그리고 이강평 목사(서울 기독교대학 총장)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진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에 축복의 하례만찬 시간을 가졌다.




▲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김종덕 목사




▲ 찬양하는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중창단




▲ 예배시간 전의 광경

#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Block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el 82-505-255-2332, Fax 82-505-211-5119, nkcampaign@ yahoo.com, http:// nkrefugee.org

## 모이자 !! 제2차 국제시위
## 구하자!! 탈북난민

**2005.4.28.(목) 12시, 전세계 중국대(영)사관 앞**

### 1. 제1차 국제시위 개요

2004.12. 22.(수) 오전 11시, 6개국 12개 도시에서 개최
(1) 한국 : 서울, 부산 (2) 미국 : 워싱턴 DC , LA , New York , Houston , San Francisco, Chicago, (3) 일본 : 동경, 오사카 (4) 캐나다 : 토론토 (5) 영국 : 런던 (6) 오스트레일리아

### 2. 제2차 국제시위

**2005. 4. 28. (목), 12시, 서울 효자동54 (경복궁역3호선 3번출구) 중국대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 중국대(영)사관 앞,**

공동대표
황우여 (한국 국회의원,한나라), 열린우리당의원 중 1인(교섭중), Sam Brownback (미국상원의원) , Christopher Cox (미국 하원의원), Joseph Pitts, (미국하원의원), 최상규(한기총회장,목사), 길자연(한기총전회장, 목사), 손봉두 (서울천주교광신도시도직협의 회장), 서경석(목사), 김상현(북한인권국제자원봉사자), 손봉호(동덕여대총장), 인명진(목사), 길영수(교수), Suzanne Scholte (미, Defense Forum Foundation 회장), Kato Hiroshi (일,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

참여단체
기독교사회책임, 두리하나선교회, 북한인주화네트워크, 북한인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송의동지회, 자유북한방송, 희망혼구명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기업인회, 평화통일탈북민연합회,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Helping Hands Korea,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일), 북조선귀국자지원회(일), 북조선피랍일본인구출전국연합(일),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미), Liberation in North Korea (미, LINK), Defense Forum Foundation(미), Wilberforce Forum(미), International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LA), Committee for Rescue of Korean POW's, Institute for North Korean Mission Strategy,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Presbyterian Church, Jubilee Campaign, Southern Sudanese Voice for Freedom,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China Aid Association, American University Korean Student Association, Helen Louise Hunter, Korean Freedom Democracy League of America, Freedom Society of America, The Support Committee for Free NK Radio (캐나다),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Korea (캐나다), Korean-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Metro Toronto, Korean Senior Citizens Society of Toronto, Korean veterans' Association(Canada Eastern Department),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ntario, and Ontario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경기를 마치고 발표하기 전 교협 임원들과 함께 ▶



▲ 교협 부회장 이병홍 목사가 우승팀에게 우승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우승팀과 교협 임원들의 기념 촬영 ▶





▲▶ 팀 대항 배구시합에서 함성을 지르며 열중하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교회들




▲ 경기를 마치고 유시수 부회장이 우승자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 하용조 목사




▲ 찬양 팀과 함께 마음 문을 열고 찬양하는 성도들

주여,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소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성도들 ▶






▲ 찬양하는 연합성가대



◀▶
감사함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장학금을 전하는 회장 김종덕 목사







▲ 대회장 김종덕 목사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에서 기도하는 교사와 어린이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 강사인 신혜경 목사와 학생들




▲ 예배에 열중인 어린이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

##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대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전도대회가 뉴욕 플러싱에 있는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다민족 집회로 열렸다. 연인원 80만 동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회였으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와 500여 회원 교회들이 적극 동역한 전도집회였다.











# "쓰나미 돕기 후원자들에 감사"

## 월드비전



쓰나미 돕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 한인 및 한인교계에 감사를 표한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동부지부 운영위원회가 모임 직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동부지부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방지각 목사)는 1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쓰나미 돕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 한인 및 한인교계에 감사를 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심장우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동부지부장은 "한인들의 뜨거운 기부 열기로 미 월드비전 본부가 놀라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인사회를 미국사회에 알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위화조 사무총장은 "한인들의 뜨거운 동참으로 목표했던 100만 달러 모금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모금내역 및 기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16일 오전, 그 동안 교협에 접수된 쓰나미 구호성금 전액을 월드비전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교협의 성금이 모아지는 데로 결산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은 음해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빛 갚기 주일 예배'를 위해 뉴욕효신장로교회 방지각 목사와 뉴욕동부교회 박희소 목사, 뉴욕수정교회 박수복 목사를 순회목사로 선임했다. 〈이진수 기자〉

S 718-482-1111 Tuesday, February 15, 2005



14일 금강산 식당에서 만난 불교계 대표와 뉴욕교협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뉴욕교협 사회분과위원장 김원기 목사, 미동부승가회 부회장 성오 스님, 교협 총무 이재덕 목사, 교협 목사부회장 이병홍 목사, 교협 평신도부회장 유시수 장로, 교협 회장 김종덕 목사, 뉴욕사원연합회 회장 휘광 스님, 뉴욕사원연합회 부회장 원영 스님, 뉴욕한인회 김기철 회장.

# "문 총영사 성경강좌 문제삼지 않겠다"

## 불교계 · 뉴욕교협 합의… 공직 명칭 사용않는 등 조건

〈속보〉 뉴욕 불교계 스님들은 14일 오전 플러싱 금강산에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임원들과 만나 뉴욕총영사관 문봉주 장로의 성경강의는 앞으로 조용하게 진행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날 양측이 결정한 합의사항은 ▲성경강좌를 언론에 광고하지 않는다 ▲성경강좌에 공직 명칭을 쓰지 않는다 ▲뉴욕 교협은 문봉주 장로 성경강좌의 주최가 아닌 후원기관으로 한다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동포사회에 봉사하기로 한다 등이다.

뉴욕사원연합회 회장 휘광 스님은 이날 "공직자인 문봉주 총영사의 성경강좌는 한국 종단에 이미 보고돼 있다. 앞으로 문봉주 장로로 조용히 성경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전혀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협 회장 김종덕 목사는 "개신교계와 불교계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은 동포사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앞으로 종교계가 서로 화합을 통해 한인사회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김기철 뉴욕한인회장은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고 서로 양보해 잘 된 것 같아 목사님들과 스님들에게 감사한다. 종교계의 화합과 협력으로 한인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원불교 뉴욕교당의 소에리 교무가 원불교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김영욱 기자〉



중앙일보 종교 Religi

일27일 화요일



대책협은 지난 22일 긴급 확대회의를 열어 '만민TV 뉴욕 송출 반대' 10만명 서명운동을 결의기로 결정했다. 대책협 공동의장 김종덕(앞줄 가운데) 뉴욕교회협의회 회장이 대책협 관계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서명하고 있다.

## "만민TV 뉴욕 진출 안된다"

# 서명 운동 본격화

## 교인들 25일 예배 후 서명 시작
## 만민TV측 "만나 대화로 풀자"

"만민TV" 뉴욕 진출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범 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를 결성한 개신교계는 지난 20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실로암장로교회·새가나안교회 등 뉴욕·뉴저지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날 교인들은 예배 후 예배당 입구에 마련된 '채널 17(KTV)을 통한 만민TV 방송 송출 반대' 서명지에 서명하고 '만민TV' 뉴욕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교인들은 예배 전에 광고 시간 때 담임목사를 통해 "한국어 방송이었던 채널17을 통해 방송되는 종교방송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운영하는 만민TV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의 방송이다"는 설명을 듣고 찬국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뉴욕실로암장로교회서 서명을 한 교인은 "한국에 방송이었던 방송이 갑자기 안나와 삽섭했에 이단 방송이 들어온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교계가 힘을 합쳐 건전하고 보편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방송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복음뉴욕교회·뉴욕신광교회 등 대책협의 핵심 참여하는 교회들은 이날 서명운동에 대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서명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협 공동의장 김종덕(뉴욕교협 협 회장) 목사는 "범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이번에야 서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협은 빠른 시간 내에 변대운동 서명지를 뉴욕·뉴저지 회원 교회에 서면과 팩스로 보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책협은 지난 20일 퀸즈장로교회에서 긴급 확대회의를 열어 한인교회 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10만명 서명운동을 결의기로 결정한 후 대책협 관계자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서명했다. 〈관계기사 2면〉

대책협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KTV 채널17을 통한 만민TV 방송 송출에 찬성하여"란 성명서를 통해 "방송이 심사적인 전장방송으로 알려 올 때까지 재차할 것이며 서명운동을 통해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책협은 성명서와 함께 실린 사항으로 ▶만민 TV 시청을 거부했고 ▶방송에 관계된 홍보·광고를 제고하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자녀는 일본 이후에 질문을 해주세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만민TV 이관효 사장은 "KCN만 오직 복음 편파를 목적으로 설교를 비롯해 전함. 간증 등을 통해 방송선교하는 국제적인 방송매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책협이나 교회협에 만나 대화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만민TV"는 지난 1일부터 시험 방송을 시작, 내달 1일 정식 개국했다.

정상교 기자
sjyun@joongang.com

# 제 32 년사

주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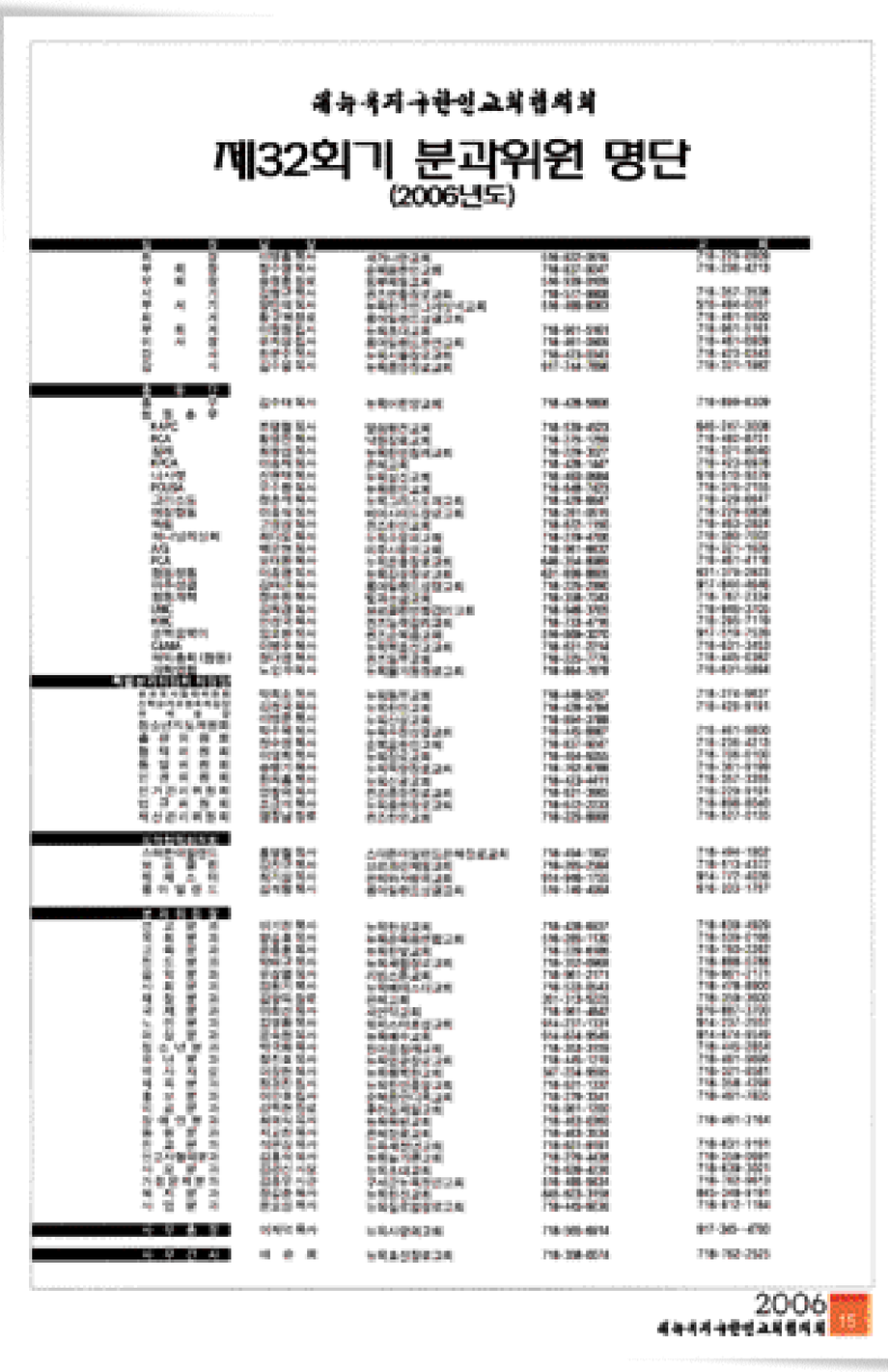
| 32대 교협 회장 |
|---|
| 새가나안교회 |
| NY Centra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
| 이병홍 목사, Rev. Byung Hong Lee |
| 61-11 220 St. Bayside, NY 11364 |

## 32대 교협 임원

회　　장　이병홍 목사 (새가나안교회)
부 회 장　정수명 목사 (순복음한인교회), 송정훈 장로 (동부제일교회)
총　　무　김수태 목사 (뉴욕어린양교회)
서　　기　김형규 목사 (퀸즈연합장로교회)
부 서 기　양민석 목사 (뉴욕한국인그레잇넥교회)
회　　계　황규복 장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 회 계　이정원 집사 (뉴욕초대교회)

## 20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부이사장　(이사 담당)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대내 담당)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대외 담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기획 담당)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회　　계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감　　사　한문수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2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6년도)

2006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부회장 **정수영** 목사


**회장 이 병 홍 목사**


부회장 **송정훈** 장로


서기 **김형균** 목사


부서기 **양인석** 목사


회계 **황규복** 장로


부회계 **이정원** 집사


총무 **김수태** 목사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


협동총무 **조영일** 목사


전동총무 **황영상** 목사


협동총무 **최창업** 목사


협동총무 **이승재** 목사


협동총무 **신현택** 목사


협동총무 **우수환** 목사


협동총무 **정춘석** 목사


협동총무 **이종석** 목사


협동총무 **고영삼** 목사


협동총무 **최다도** 목사


협동총무 **백운현** 목사


협동총무 **오태원** 목사


협동총무 **이종명** 목사


협동총무 **김태근** 목사


협동총무 **정순원** 목사




협동총무 **김태경** 목사


협동총무 **한성국** 목사


협동총무 **심호현** 목사


협동총무 **허병수** 목사


협동총무 **정대영** 목사


선교분과 **여기천** 목사


목회분과 **양승호** 목사


교육분과 **윤종훈** 목사


전도분과 **박대규** 목사


음악분과 **유상열** 목사


사회분과 **김희기** 목사


지정분과 **김양득** 장로


국제분과 **이희선** 목사


노인분과 **김영환** 목사


여성분과 **윤숙현** 목사


청소년분과 **박국희** 목사


유년분과 **정정호** 목사


역사작성 **허성원** 목사


세미분과 **정경선** 집사


홍보분과 **허병호** 목사


의료분과 **강태원** 장로


장애인분과 **최예식** 목사


동원분과 **최교윤** 목사


친교분과 **박경랑** 목사


선교사협력 **김홍석** 목사


사모분과 **김정선** 사모


가정분과 **김종우** 사관


복지분과 **정일문** 목사


사업분과 **윤오섭** 목사


전동총무 **노진주**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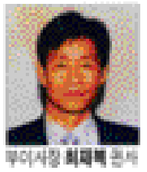
# 32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홍지성** 장로


부이사장 **정도인** 목사


부이사장 **강현석** 장로


부이사장 **유일용** 집사


부이사장 **최재복** 권사

|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홍지성 장로 | 롱아일랜드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 부이사장(이사담당) | 정도인 목사 | 세소망장로교회 | 718-974-0004 | 718-961-2155 |
| 부이사장(대내담당) | 강현석 장로 | 후러싱제일교회 | 516-777-7770 | 516-777-7770 |
| 부이사장(대외담당)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646-521-0099 | 516-829-8084 |
| 부이사장(기획담당) | 최재복 권사 | 뉴욕한인제일교회 | | 718-779-2700 |
| 총 무 | 홍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545-9344 | 516-931-3173 |
| 서 기 | 이주덕 집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914-633-3542 | 718-231-5055 |
| 회 계 | 한영숙 장로 | 뉴욕새천년교회 | | 718-565-9217 |
| 체육친목사업/기획 | 정경진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718-358-4298 | 718-631-1302 |
| 감사 | 한문수 목사 | 뉴욕서울장로교회 | 718-478-2108 | 718-423-0343 |

## 역대 이사장


초대 **방희천** 목사


2대 **김광성** 목사


3대 **방정남** 장로


4대 **최광복** 장로


5대 **심용섭** 장로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명섭** 목사


8대 **최형호** 장로


9대 **이광호** 장로


10대 **홍일영** 장로


11대 **김정훈** 장로


12대 **박재복** 장로


13대 **박해룡** 장로


14대 **임무송** 장로


15대 **윤석주** 장로


16대 **황일영** 장로


17대 **최진욱** 장로


18대 **박용기** 장로


19대 **송정훈** 장로

2006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2006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32대 회장 이병홍 목사는 2006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1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열었다. 한영태 목사(서울신학대학 전 총장이며 현 교수)를 초빙하여 예배를 드린후 축복의 하례만찬 시간을 가졌다.


▲ 회장 이병홍 목사의 신년사


▲ 강사 한영태 목사의 설교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 성가단


▲ 찬양하는 성도들



▲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 특송하는 성악가 조동자와 이일형



▲ 뉴욕 총영사관 문봉주 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



▲ 뉴욕 시 모범 경찰관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



▲ 교협 법률 자문으로 최홍경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



뉴욕일보

w.뉴욕일보.com THE NEW YORK ILBO 2006년 5월30일 화요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26일 개최된 체육대회에 한인 3,500명 이상이 참석, 주최측을 놀라게 했다. 이날 퀸즈 알리폰드파에서 배구, 축구, 족구 등 세 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룬 각 교회 대표팀의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치뤄졌다. 사진은 배구대회가 열리는 코트에서 각 팀들이 예선전을 펼치고 있다.

# 교협 체육대회 3,500명 참가

## 뉴욕성서교회 배구 여성부 4연패… 응원전도 치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 목사)는 26일 퀸즈 알리폰드파에서 29개 교회 3500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각 교회 대항 "2006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구 47개 팀, 축구 9개 팀, 족구 8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각 팀들의 높은 기량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해 연장전 끝에 승부가 결정되는 접우기 속출했다.

특히 순복음뉴욕교회와 뉴욕성결교회가 맞붙은 축구 결승전의 경우, 연장전 끝에도 승부가 결정나지 않자 다시 연장전에 들입 거까스로 승부가 결정되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곳곳에서 연출됐다. 배구 여성부의 경우에는 뉴욕성서교회 팀이 4년 연속 우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응원상에는 징과 팽과리 등

서 "이단이 뉴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단 척결에도 각 교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교협 체육분과위원장인 정경진 뉴욕대한체육회장은 "예년에 비해 각 팀들의 기량이 월등히 향상돼 한 게임게임마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었다"면서 "모든 경기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참가 교회들에게 감사드리며 대회가 끝난 뒤에도 솔선해 공원을 청소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심을 보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수상 교회 및 수상자 명단이다. **<배구>** 중 - 고등부 우승: 예일장로교회, 준우승: 뉴욕중부교회, 3등: 맨해튼교회, 청년부 우승: 이클다운교회, 준우승: 퀸즈웨스트교회, 3등: 조이스크리스틸롤우십교회, 장년부 우승: 순복음뉴욕교회, 준우승: 베데스다교회, 3등: 예일장로교회, 여성부 우승: 뉴욕성서교회, 준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 3등: 브에씨에프(MCF)교회, 최우수선수상: 최보연(뉴욕성서교회). **<축구>** 우승: 순복음뉴욕교회, 준우승: 뉴욕성결교회, 3등: 뉴욕샌민교회, 최우수선수상: 송현욱(순복음뉴욕교회). **<족구>** 우승: 뉴욕성결교회, 준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 3등: 기쁜우리교회, 최우수선수상: 박승희(뉴욕성결교회).

<김필립 기자>




▲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린 체육대회의 본부석



▲ 배구시합과 족구시합을 주시하고 있는 회장 이병홍 목사



▲ 배구에서는 뉴욕성서교회 여성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중등부는 예일장로교회,
청년부는 뉴욕아름다운교회, 장년부는 뉴욕순복음교회가 우승했다.



▲ 족구에서는 뉴욕성결교회가 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가 준우승,
기쁜우리교회가 3등을 차지해서 트로피를 받았다.




▲ ▶
회장과 우승팀이 한자리에





재난구호봉사단(USDRC) 관계자와 뉴욕교회협 임원들이 만남을 갖고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카파소 사령관, 이병홍 회장, 윤태현 목사.

# 재난 구호 봉사 활동 논의

## USDRC-뉴욕교회협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난구호봉사단(USDRC·United Disaster Relief Command)이 한인 교계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2001년 창립된 USDRC는 월드트레이드 테러와 뉴올리언스 침사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관리청과 소방서·경찰서 등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치는 봉사단이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USDRC는 평상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다. 14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의 조직은 군대처럼 만들어졌다.

빈센트 A. 카파소 USDRC 사령관을 비롯한 마빈 S. 타킨 롱아일랜드지역 사령관 등 관계자는 지난 15일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 목사) 임원진을 만나 USDRC 활동, 조직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카파소 사령관은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봉사단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파소 사령관은 한국전 참전 군인으로 활동했다.

USDRC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USDRC가 요구하는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으면 단원이 될 수 있다.

USDRC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usdrc.us)나 (516)364-3444로 하면 된다. 정상교 기자





왼쪽부터 Vincent A. Capasso 상임장군, Malvin S. Tarkin지역사령관, Rabb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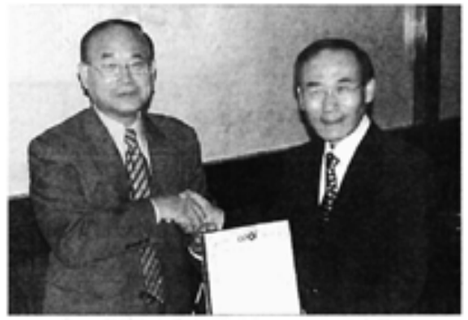


〈크리스챤 투데이〉



# 대뉴욕교협-한기총 업무협약 체결

## 교회와 선교 · 연합사업과 이단대처도 연대



대뉴욕지구한인교협 회장 이병홍 목사(왼편)와 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가 업무협약 체결서를 교환하고 있다.

<NY>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 이병홍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환영 조찬기도회를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뉴욕교회협의회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기총의 동포 교회기관 세계네트워킹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업무협약의 목적은 교회와 선교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교회의 책임 담당까지 들어있다. 또 기독교 연합사업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과 남북교회 사업까지 같이 협력하게 된다. 또 이단대처도 공동사업으로 본다. 협약기간은 이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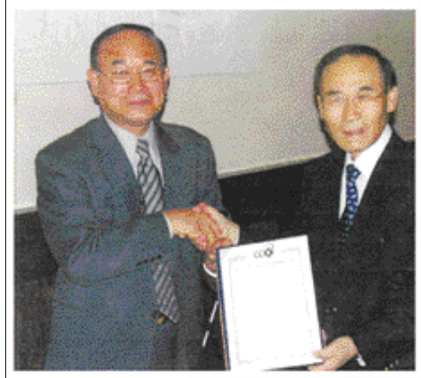
17일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이병홍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교회는 이민교회의 어머니 품이다"라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회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미 이단대처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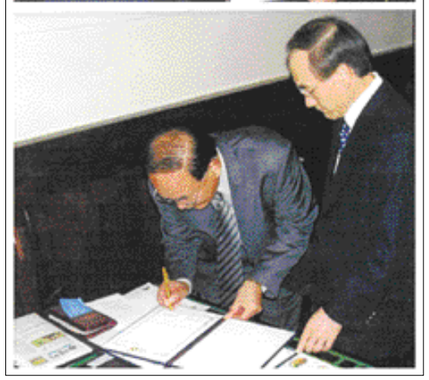
박종순 목사는 "세계의 한인교협 중 뉴욕교협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본위기가 좋은 것으로 한국교회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한기총이 세계동포 네트워킹 작업을 하면서 한기총 산하단체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해외단체들과 업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뉴욕외에도 LA, 시카고등 미주지역과 캐나다 토론토, 호주, 프랑스 파리, 남미지역 한인교회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 박 목사는 한기총을 설명하며 63개의 교단, 24개의 한국대표 기독교 기관, 50여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라고 말했다.

4조. 협약서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서명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병홍 목사







# 할렐루야 2006 대뉴욕복음화대회

Evangelistic Crusade of Greater NY

## 주제 : 기적의 공식을 잡으라

강사 : 소강석 목사 (분당 새에덴교회 Tel. 82 31 896 1000 www.saeeden.or.kr)

**2006. 6. 30(금) ~ 7. 1(토) 오후 7시~10시 7. 2(주일) 오후 6시~9시**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목회자세미나**



강사 : 소강석 목사

주제 : 영혼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설교

일 시 : 2006년 7월 1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센추럴교회

(장로회 회의실)

소강석 목사

**청소년 복음의 대화**



강사 : Shane Claiborne 전도사

일 시 : 2006년 7월 1일(토), 7월 2일(주일), 7월 8일(토) 오후 5시 30분

장 소 : 뉴욕장로교회(맨해튼 회의실)

43-23 37 Ave., LIC, NY

Tel. 718)706-0105

Fax.718)706-0122

Shane Claiborne 전도사

**어린이 복음의 대화**



강사 : 김은숙 전도사

일 시 : 2006년 6월 30일(금) ~ 7월 1일(토)

오후 7시~10시,

7월 2일(주일) 오후 6시~9시

장 소 :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김은숙 전도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할렐루야 2006 대뉴욕 복음화대회' 개막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할렐루야 2006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30일 저녁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3일간의 열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설롬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할렐루야 2006 대뉴욕 복음화대회'

# 2,500여명 참여 '성황'

'할렐루야 2006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30일, 250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성황속에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주최하고 분당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강사로 '기적의 공식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이병홍 회장은 선언문 '우리는 대뉴욕지구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선진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힘차게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할 것을 선언한다'는 등의 6개항을 발표했다. 기수단의 입장과 뉴욕시교회협의회 존 E. 하웜스트러 사무총장과 뉴욕총영사 문봉주 장로의 축사, 조민지 양의 바이올린 독주 등으로 1부를 마친 후 이어진 2부 예배순서에서 소강석 목사는 '예수인의 보화를 감아라'라는 기적의 말씀을 선물했다.

소 목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기적을 창조하는 것과도 같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기적으로 미국에 여러분이 온 것도 하나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산양은 마음속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가지다 준다"고 말하고 "온갖 역경속에서도 산양 자체 하나로 새에덴교회를 성장시키게 됐다"고 했다.

한편 같은 시간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소강당에서는 '어린이 복음화대회'가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어린이들은 주최측에 나눠준 두건을 쓰고 청소년 밴드의 찬양을 따라 부르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팔립 기자>

phlo@newyorkilbo.com

중앙일보

제12700호 www.joongangusa.com SATURDAY JULY 1, 2006



뉴욕 개신교 최대 연합집회인 '할렐루야대회'가 지난달 30일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개막했다.

# "한인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개막

'할렐루야 2006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달 30일 퀸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막이 올랐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 목사) 주최로 열리는 대회는 오는 2일까지 계속된다. 뉴욕·뉴저지 개신교 최대 연합집회인 만큼 첫날 1500여명이 참석, 한인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참석 인원은 예년 평균과 비슷한 수치.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각 교단, 기독단체, 한인단체 대표를 초청했다. 뉴욕총영사 문봉주 장로, 뉴욕미교회협의회(CCCNY) 사무총장 존 힘스드라 목사가 참석했다.

강사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는 "우리의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장 이병홍 뉴욕교회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인 교회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 번 붙는 대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복음화대회'는 김윤숙(순복음뉴욕교회) 권도사의 인도로 콜든센터와 붙어 있는 소규모 강당에서 함께 열렸다.

주최측은 행사에 참석하는 시람들을 위해 플러싱과 잭슨하이츠 등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복음화대회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교 기자






▲ 첫날 대회사를 하는 대회장 이병홍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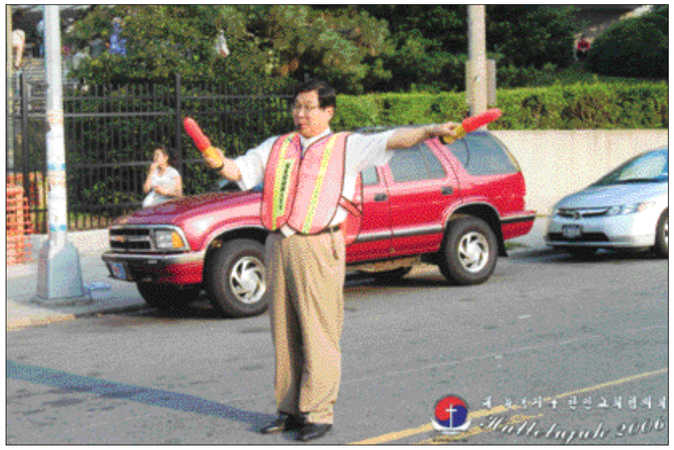
◀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강사 소강석 목사



연합성가대가 우렁찬 하모니로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협 이종명 목사가 성회 참석 차량들을 안내하고 있다.




성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





▲ 복음화대회 기간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회장 이병홍 목사와 기쁨으로 받는 학생



▲ 장학금을 받은 학생 일동



▲ 뉴욕 주 상원의원 John D. Sabinni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교협 회장



▲ 어린이 복음화대회에서 bodyworship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




▲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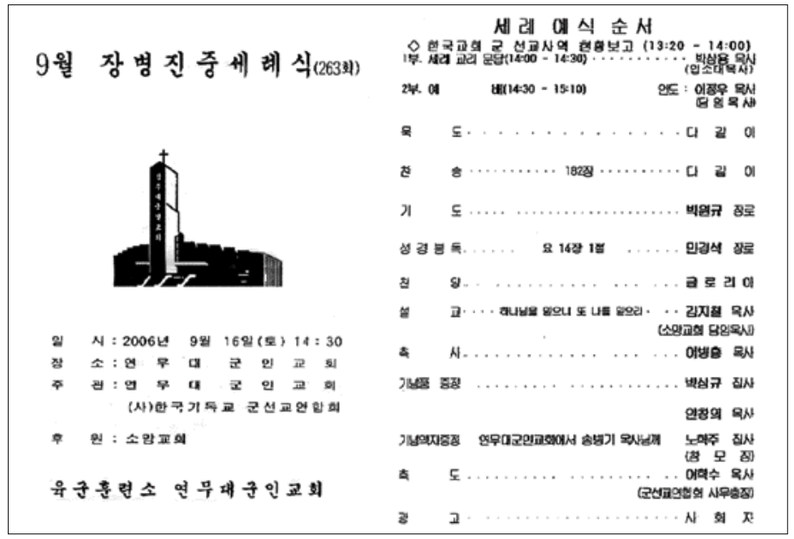


▲ 찬양 리더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청소년들




▲ 강사 Shane Claiborne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





세 례 예 식 순 서

◇ 한국교회 군 선교사역 현황보고 (13:20 - 14:00)

1부. 세례 교리 문답(14:00 - 14:30) ..... 박상용 목사 (입소대목사)

2부. 예 배(14:30 - 15:10) 인도 : 이정우 목사 (담임목사)

묵 도 ..... 다 같 이

찬 송 ..... 182장 ..... 다 같 이

기 도 ..... 박영규 장로

성경봉독 ..... 요 14장 1절 ..... 민경석 장로

찬 양 ..... 글 로 리 아

설 교 .....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김지철 목사 (소망교회 담임목사)

축 사 ..... 이병홍 목사

기념품 증정 ..... 박상규 집사

안정옥 목사

기념액자증정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송병기 목사님께 ..... 노혜주 집사 (참 모 장)

축 도 ..... 이택수 목사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광 고 ..... 사 회 자

9월 장병진중세례식(263회)

일 시 : 2006년 9월 16일(토) 14 : 30

장 소 : 연 무 대 군 인 교 회

주 관 : 연 무 대 군 인 교 회

(사)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후 원 : 소망교회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 진중 세례식에서 축사하는 이병홍 목사



▲ 장병에게 세례를 베푸는 뉴욕교협 회장 내외



▲ 세례식에 참석한 장병들




▲ 세례식 예배에서 찬양하는 군악대

뉴욕교협, 한국육군훈련소 2,300명 진중세례식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목사)는 한국기독교군선교 뉴욕지회장(안창의목사)와 협력하여 지난 9월16일(토) 오후 2시에 한국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이정우목사)에서 합동세례를 거행했다.

세례식은 한국의 소망교회(김지철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가함께 2,3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뉴욕에서는 이병홍목사, 안창의목사, 한문수목사 송병기목사, 김성남목사등이 참가했다.





NY CHURCH

NY교계/교회 기독교민신문 2006년 9월 27일 수요일 제 95호

## 뉴욕교협, 한국 군 진중세례 거행

### 한국 육군훈련소 논산연무대교회에서 합동세례 거행



지난 9월 16일(토) 오후 2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 목사)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뉴욕지회(안창의 목사)와 협력해 한국 육군훈련소 논산연무대교회에서 합동세례를 거행했다.

이번 합동세례는 한국의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와 연합해 2천 3백 여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교협은 전했다.

뉴욕에서 이번 합동세례에 참석한 목회자는 이병홍, 안창의, 한문수, 송병기, 김성남 목사(존칭생략)이다.

다니엘 경기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목사)는 지난 9월20일(수) 부교와 삼척시 갈전교회에 각각 600백만원의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교협회장 이병홍 목사와 사회분과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같이 했다.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회장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는 뉴욕교협 회장 이병홍 목사와 안창의 목사







▲ 뉴욕교협 회장 이병홍 목사가 기독교 학교인 관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뉴욕 거주 한인들이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관동대학 김남현 학생처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

## 코리아 기독교 평신도 세계대회

제14회 코리아 기독교 평신도 세계대회가 뉴욕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었다.




▲ 코리아 기독교 평신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한국 대표들과 뉴욕의 대표들이 함께했다.




▲ 예배 후 특강에 열중하는 무리들




▲ 코리아 기독교 평신도 대표가 회장 이병홍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APPRE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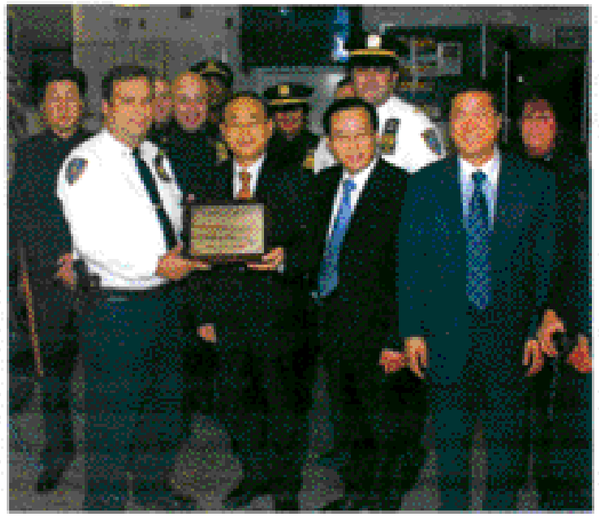
**Deputy Inspector Charles V. Talamo**
**Commanding Officer of 107 Precinct**
**NYC Police Department**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that umbrellas more than 450 churches in the region extends our heart-felt gratitude to Police Officer Dell Hochman and his leadership in 107 Precinct demonstrated during the event of Hallelujah Evangelistic Rally which was held from June 30 through July 2, 2006 at Colden Center of Queens College. Police Officer Hochman and 107 precinct have cooperated with the Korean community and churches by providing public safety and traffic control so that the event may become successful. We hereby express our appreciation and friendship.**

**September 5th, 2006**

**Rev. Byung Hong Lee, President**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에 도움을 준 **107** 경찰서에 감사패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홍 목사)는 10월19일(목) 오후 제 107 경찰서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자리에는 회장 이병홍목사, 사무총장 이재억 목사, 이희선 목사등이 참가했다.




▲ 2005년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플러싱 지역 방문 시 기념 촬영




▲ 2005년 11월 5일 블룸버그 뉴욕 시장 플러싱 방문 시 한인 대표 환영사 장면




◀ 이명박 서울시장 부부의 뉴욕 방문 시 환영 모임 동포 간담회
(2006년 3월 15일 서울시장 재직 시)




뉴욕 효도회(회장 데이비드 신) 제15회 시상식에서
연방하원의원 Joseph Crowley와 함께
(2006년 10월 16일) ▶



▲ 1948~1952년까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Charles B. Rangel 의원과 함께
(10월 24일)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의
뉴욕 방문(전 회장님들 초청 간담회: 2006년 5월)▶

# 제 33 년사

주후 2007년



## 33대 교협 회장

순복음한인교회

Full Gospel Korean Church

정수명 목사, Rev. Su Myong Chong

1436 67 St. Brooklyn, NY 11219

## 33대 교협 임원

회　　장　정수명 목사 (순복음한인교회)
부 회 장　황동익 목사 (뉴비젼교회), 유지성 장로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총　　무　조명철 목사 (말씀행전교회)
서　　기　김수웅 목사 (누가교회)
부 서 기　김진관 목사 (양무리장로교회)
회　　계　황규복 장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 회 계　박이스라엘 목사 (뉴욕승리교회)

## 21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이사 담당)　정도인 목사 (새소망장로교회)
(대내 담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외 담당)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기획 담당)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최찬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회　　계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최디도 목사
정광혁 목사
한영숙 목사
정승원 목사
이종식 목사
조성희 목사
김철규 목사
오대환 목사
한은희 목사
김종우 사관
김태현 목사
장대영 목사
이영희 목사
이기천 목사
김태천 목사
황승호 목사
유상업 목사
박국화 목사
목진우 장로
이희선 목사
김영환 목사
윤숙현 목사
황영진 목사
박희근 목사
조명광 목사
정정진 집사
문명길 목사
계동희 장로
허승원 목사
김학목 목사
2007


손한권 목사
주호석 목사
김경진 사모
윤종선 목사
최태식 목사
김홍석 목사
허운준 목사
이성현 목사
지교한 목사
신우철 목사
신현택 목사
정재현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3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강현석 장로
정도현 목사
유일용 집사
최재복 권사
한영숙 장로
Church or Office
Home
이 사 장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516-777-7770 516-767-7670
부이사장(여사임당) 정도현 목사 세소망장로교회 718-974-0004 718-961-2155
부이사장(대세임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646-521-0099 516-829-8084
부이사장(대외임당)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718-939-0444 718-779-2700
부이사장(기획임당)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718-631-9191 718-565-9217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718-545-9344 516-931-3173
서 기 최한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718-939-8599 718-747-2412
회 계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516-938-0383 718-231-5055
체육진흥사업/기획 정정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718-358-4098 718-631-1332
2007

# 제33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7년도)

| | | | | | | |
|---|---|---|---|---|---|---|
| 회 장 | 정수영 목사 | 순복음한인교회 | 718-937-9047 | 718-235-4213 | 917-681-4564 | |
| 부 회 장 | 황동익 목사 | 뉴비전교회 | 718-565-7336 | 718-505-0200 | 917-734-1926 | |
| 부 회 장 | 우지성 장로 | 롱아일랜드한인교회 | 718-461-0909 | 718-461-0909 | 917-498-3030 | |
| 총 무 | 조정철 목사 | 임마누엘교회 | 718-539-8523 | 646-247-3008 | 646-247-3008 | |
| 서 기 | 김수길 목사 | 뉴기쁨교회 | 718-321-1662 | 718-939-6193 | 917-748-3996 | |
| 부 서 기 | 김진곤 목사 | 양무리장로교회 | 718-939-0017 | 718-747-3866 | 917-292-1787 | |
| 회 계 | 황금택 장로 | 롱아일랜드선교교회 | | 718-461-5500 | 917-254-9819 | |
| 부 회 계 | 박이스라엘목사 | 뉴욕승리교회 | 718-353-5029 | 718-353-5029 | 917-667-8555 | |
| 사무총장 | 이제익 목사 | 뉴욕사랑의교회 | 718-565-6914 | 917-345-4700 | 917-345-4700 | |
| 감 사 | 이종영 목사 | 뉴욕감신장로교회 | 718-631-2792 | 718-354-6669 | 718-354-6669 | |
| | 한문수 목사 | 뉴욕시온장로교회 | 718-460-2504 | 718-423-0343 | 718-423-0343 | |
| 여 서 장 | 강한석 장로 | 주안심계일교회 | 516-777-7770 | 718-939-8099 | 516-552-4180 | |
| 고문변호사 | 최형주 변호사 | 주안심계일교회 | 718-463-3500 | | | |
| | 박오윤 목사 | 뉴욕십자장한인교회 | 718-461-9111 | 718-461-9111 | | |
| | 김철웅 집사 | 복임교회 | 718-445-1300 | 347-235-4462 | 718-236-7901 | |

**홍보부**

| | | | | | |
|---|---|---|---|---|---|
| KAPO(장) | 이길호 목사 | 주사랑장로교회 | 718-429-1236 | 718-229-8855 | |
| 기독라무엘교회 | 김석원 목사 | 롱아일랜드선교교회 | 516-746-4064 | 516-333-1757 | 516-680-9634 |
| 순복음세계선교협의회총회 | 이단호 목사 | 순복음한인교회 | 718-279-3341 | 718-461-3535 | 718-938-1777 |
| 미주총회(장) | 오금석 목사 | 뉴욕충성장로교회 | 718-672-2233 | 718-672-2233 | 646-262-1011 |
| 뉴-닝의교회 | 김일기 목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0543 | 718-478-8660 | 347-723-2386 |
| PCUSA | 김승희 목사 | 뉴욕초대교회 | | 718-939-3021 | 347-256-6225 |
| SBC | 노기승 목사 | 뉴욕새빛루심교회 | 914-242-4635 | 917-699-6036 | 917-699-6036 |
| C&MA | 김수태 목사 | 뉴욕어린양교회 | 718-428-5806 | 718-886-8309 | 646-523-4551 |
| 직임 | 고성삼 목사 | 퀸즈한인교회 | 718-672-1150 | 718-672-1150 | 917-306-7364 |
| KPCA | 김홍룡 목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516-921-6012 | 516-938-0383 | 347-251-0089 |
| AJG | 김영옥 목사 | 뉴욕예은교회 | 631-543-1213 | 718-347-4021 | 16-676-7721 |
| KPCA | 이춘길 목사 | 열린장로교회 | 718-279-0236 | 718-279-8333 | |
| 하-닝의성회 | 최디도 목사 | 뉴욕소망교회 | 718-279-4705 | 718-380-7262 | 917-589-4000 |
| RCA | 한광희 목사 | 루거만생신교회 | 718-441-3688 | 718-441-9651 | 646-372-1375 |
| UMC | 한영숙 목사 | 고려연합감리교회 | 212-932-1746 | 212-932-2746 | |
| 감동계획 | 정순원 목사 | 빛과소금교회 | 718-767-2334 | 718-358-7043 | 347-513-1301 |
| 미주협동 | 이준식 목사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718-359-1954 | 718-229-0858 | 646-296-5495 |
| KAPCAD | 조삼희 목사 | 루터신장로교회 | 718-939-1716 | 718-939-1716 | 917-693-4192 |
| PCUSA | 김형규 목사 | 퀸즈브룸장로교회 | 718-577-9908 | 718-357-3538 | 718-644-2919 |
| PCA | 오태원 목사 | 뉴욕튼튼장로교회 | 718-225-1957 | 718-631-0627 | 646-354-8989 |
| 함께협동 | 한호희 목사 | 뉴욕성광장로교회 | 718-428-5172 | 917-566-5302 | 917-566-5302 |
| The Salvation Army | 김윤우 사관 | 구세군뉴욕한인교회 | 516-485-5434 | 718-762-9613 | 917-626-2499 |
| 더루에진 | 김태원 목사 | 뉴욕삼수장로교회 | 718-352-0935 | 718-352-0935 | |
| 예장협동 | 정대영 목사 | 퀸즈동부교회 | 718-225-7715 | 718-445-0362 | 718-757-2379 |

**부녀협의회(회장)**

| | | | | | |
|---|---|---|---|---|---|
| 한로목사협력위원회 | 박희소 목사 | 뉴욕동부교회 | 718-779-9002 | 718-726-3570 | 917-648-4910 |
| 신학실력향상위원회 | 장병준 목사 | 퀸즈장로교회 | 718-886-4040 | 718-886-4040 | 718-309-1101 |
| 법규제정위원회 | 송영기 목사 | 뉴욕복음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69 | 917-559-8877 |
| 신기전략위원회 | 최일웅 목사 | 루터신나사렛교회 | 718-357-5724 | 718-357-5724 | 646-729-7362 |
| 인력배출위원회 | 한창희 목사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631-3665 | 718-229-9191 | 718-762-7907 |
| 인준제정위원회 | 윤제홍 목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718-541-0770 |
| 재산관리위원회 | 김홍익 목사 | 뉴욕동로장로교회 | 718-969-2849 | 718-463-9013 | 917-509-5589 |
| | 원정남 장로 | 퀸즈한인교회 | 718-225-8668 | 718-527-0135 | 646-775-5462 |
| 청구제정위 | 황경일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661 | 718-445-3661 | 917-332-7332 |
| 청소년직도위원회 | 김홍순 목사 | 루터십계명교회 | 718-961-5461 | 718-939-8599 | 347-860-3887 |
| 유소목출판위원회 | 황동익 목사 | 뉴비전교회 | 718-565-7336 | 718-505-0200 | 917-734-1926 |
| 고령화은사활성위원회 | 김상오 목사 | 뉴욕한사랑교회 | 201-568-2509 | 914-779-3316 | 201-655-5601 |
| 이민대책 위원회 | 김남수 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 201-947-1096 | 718-321-2800 | 917-757-9473 |
| 기독교회연합위원회 | 정수영 목사 | 순복음한인교회 | 718-937-9047 | 718-235-4213 | 917-681-4564 |



제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3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7년도)

| | | | | | |
|---|---|---|---|---|---|
| 신 교 분 과 | 이영희 목사 | 뉴욕장로교회 | 718-464-5055 | 718-786-6100 | 917-613-4347 |
| 목 회 분 과 | 이기환 목사 | 뉴욕한성교회 | 718-461-2978 | 718-439-8929 | 718-309-2884 |
| 교 육 분 과 | 김혜진 목사 | 뉴욕밸러셜비아장로교회 | 516-295-7387 | 516-883-1977 | 516-295-7387 |
| 친 도 분 과 | 양승호 목사 | 뉴욕순복음한인교회 | 516-295-1130 | 718-359-6166 | 646-335-5269 |
| 음 악 분 과 | 유상열 목사 | 리빙스톤교회 | 718-961-2171 | 718-961-3631 | 917-862-0523 |
| 사 회 분 과 | 박국희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917-922-2506 |
| 재 정 분 과 | 목천우 장로 | 순복음뉴욕교회 | 516-829-9638 | 718-321-7690 | 516-798-2901 |
| 국 제 분 과 | 이혁신 목사 | 새은혜교회 | 917-432-4370 | 516-887-3780 | 917-432-4370 |
| 노 인 분 과 | 김영환 목사 | 뉴욕초장교회 | 914-393-1450 | 718-321-3124 | 914-393-1450 |
| 이 삼 목 회 분 과 | 문덕현 목사 | 뉴욕예수교회 | 914-674-9549 | 914-674-9549 | 914-403-3190 |
| 청 수 년 분 과 | 황명진 목사 | 낙원장로교회 | 718-279-1259 | 718-482-8791 | 917-349-5821 |
| 유 년 분 과 | 박혜근 목사 | 뉴욕동한장로교회 | 718-886-8487 | 718-321-6199 | 917-254-9887 |
| 역 사 자 료 분 과 | 조병호 목사 | 뉴욕세하늘교회 | 718-463-9887 | 718-772-3245 | 718-772-3245 |
| 체 육 분 과 | 전경진 집사 | 뉴욕장로교회 | 718-631-1333 | 718-358-6298 | 917-363-9255 |
| 홍 보 분 과 | 정명철 목사 | 예수사랑역교회 | 917-538-7405 | 917-538-7405 | 917-538-7405 |
| 의 료 분 과 | 계동욱 장로 | 뉴욕감리교회 | 516-360-8066 | 718-886-8049 | 917-287-8958 |
| 장 애 인 분 과 | 이승하 목사 | 뉴욕한성장로교회 | 718-229-9658 | 718-357-4094 | |
| 통 계 분 과 | 김희복 목사 | 뉴욕주한양교회 | 718-429-3371 | 718-457-8373 | 646-276-9627 |
| 친 교 분 과 | 송한경 목사 | 베니사이드장로교회 | 718-726-0854 | 718-729-0854 | 347-753-4991 |
| 선교사협력분과 | 주요식 목사 | 뉴욕참빛교회 | 718-577-9967 | 212-629-7312 | |
| 서 모 분 과 | 김경선 사모 | 뉴욕초대교회 | | 718-439-3321 | 347-256-8147 |
| 기질문제상담분과 | 장종신 목사 | 뉴욕지앙성교회 | 718-539-1161 | 718-539-1161 | |
| 복 지 분 과 | 최혜자 목사 | 뉴욕복임교회 | 718-461-2164 | 718-463-0990 | 917-703-1467 |
| 서 업 분 과 | 김홍식 목사 | 뉴욕늘기쁜교회 | 718-279-4438 | 718-359-6691 | 646-267-7169 |
| 영 접 분 과 | 허윤준 목사 | 뉴욕제생양장교회 | 718-464-3066 | 718-637-1470 | 718-637-1470 |
| 기 도 분 과 | 이성희 목사 | 뉴욕평복선교회 | 347-224-9595 | 718-321-6581 | 347-224-9595 |
| 결 혼 분 과 | 지교찬 목사 | 뉴욕은혜장로교회 | 718-463-3634 | 718-886-3740 | 917-554-5428 |
| 시 설 등 한 분 과 | 신무철 목사 | 거스햄장로교회 | 917-660-9045 | 718-463-6796 | 917-660-9045 |
| 직 임 분 과 | 신현택 목사 | 뉴욕참신교회 | 718-460-0884 | 718-445-7355 | 718-354-9825 |
| 미 디 어 분 과 | 정재현 목사 | 뉴욕스윙장로교회 | 917-514-4688 | 917-514-4688 | 917-514-4688 |

**교단협의회**

| | | | | | |
|---|---|---|---|---|---|
| 스태튼아일랜드 | 홍정표 목사 | 스태튼아일랜드은혜장로교회 | 718-494-1902 | 718-494-1902 | 646-645-3691 |
| 브 르 셀 빈 | 최병철 목사 | 뉴욕남장교회 | 718-491-2470 | 718-748-0402 | |
| 롱 아 일 랜 드 | 김석형 목사 | 롱아일랜드선교교회 | 516-746-4064 | 516-333-1757 | 516-680-9634 |
| 웨 세 스 트 | 최기성 목사 | 은혜제사랑교회 | 914-946-1755 | 914-772-4036 | 914-946-1755 |

## 2007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33대 회장 정수명 목사는 1월 8일(월) 오후 7시 대동연회장(플러싱)에서 2007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을 가졌다. 사회 양승호 목사, 기도 김종덕 목사, 말씀에 김용걸 목사(필라영생장로교회)가 "목회자의 기도"(살전 3:9~13)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병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례만찬의 이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 기쁘게 찬양하는 뉴욕 장로 성가단원들



▲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배 중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 예배 후 모두 함께 기념 촬영



▲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 부회장 황동익 목사, 회장 정수명 목사, 이사장 강현석 장로



## 금식성회

33회기 들어 정수명 회장 및 임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분기별로 금식성회를 갖기로 하고, 기도분과 위원장 이성헌 목사의 준비로 다음과 같이 세 번에 걸쳐 금식성회를 가졌다.

### 제1차

일시 : 2007년 1월 22일(월)~23일

장소 : 나사렛수양관(Taconic Conference Center)

강사 : 정연출 목사(경남삼양교회)

### 제2차

일시 : 2007년 3월 26일(월)~27일

장소 : 나사렛수양관(Taconic Conference Center)

강사 : 김남수 목사(순복음뉴욕교회)

### 제3차

일시 : 2007년 10월 14일(주)~15일

장소 : 나사렛 수양관(Taconic Conference Center)

강사 : 정수명 목사(교협 회장), 정춘석 목사(목사회 회장), 황동익 목사(교협 부회장) 등



지난 3월에 열린 기도회에는 목회자들이 차가운 산속의 바위위에서 슬이 카메라에 잡혀 감동을 준 바 있다.



금식기도회는 정수명 목사(뉴욕교협 회장), 정춘석 목사(뉴욕목사회 익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이성헌 목사(뉴욕교협 기도분과), 김영한 목사회 기도분과), 정진호 목사, 지교찬 목사, 안찬수 목사, 송일권 목사등이 참가했다.

# 2007년 부활 주일 새벽 연합예배

## '할렐루야! 주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교협산하 25개지역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별 연셥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주님의 새 생명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와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07년 4월 8일(주일) 오전 6시

플러싱 5지역은 순복음뉴욕교회 – 오전 5시30분

| | 지 역 | 성 | 전화번호 | 회 장 | 연락처 | 성 명 |
|---|---|---|---|---|---|---|
| 1 | Corona | 뉴욕한빛교회 | 88-12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718)3709-3388 | 윤광훈목사 | 교회 (718) 706-3246<br>목사님 (718) 381-4484 | 김일광목사 |
| 2 | Westside 1 | 뉴욕서광장로교회 | 69-38 47 Ave. Woodside, NY 11377 (718)3899-8389 | 배장인목사 | 교회 (718) 441-3663<br>목사님 (718) 441-3668 | 정명희목사 |
| 3 | Westside 2 | 뉴욕한마음장로교회 | 42-51 69 St. Woodside, NY 11377 (718)3397-1770 | 이기원목사 | 교회 (718) 397-1775<br>목사님 (718) 286-3172 | 이성철목사 |
| 4 | Westside 3 | 뉴욕프레처교회 | 71-17 Roosevelt Ave. (718)639-3021 Jackson Hts, NY 11372 | 정승희목사 | 교회 (718) 335-9200<br>목사님 (718) 565-7556 | 황동익목사 |
| 5 | Sunnyside | 뉴욕목양장로교회 |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718)361-9199 | 송병기목사 | 교회 (718) 482-7788<br>목사님 (718) 275-1358 | 황현권목사 |
| 6 | Elmhurst | 센스틴연교회 | 80-00 23 Ave. Jackson Heights, NY 11369 (718)507-1189 | 고성삼목사 | 교회 (718) 726-3670<br>목사님 (718) 726-3670 | 황명재목사 |
| 7 | Flushing 1 | 뉴욕프린칭장로교회 | 42-15 162 St. Flushing, NY 11358 (718)762-5756 | 방지각목사 | 교회 (718) 463-5060<br>목사님 (718) 461-3094 | 최예서목사 |
| 8 | Flushing 2 | 순복음한마음교회 | 45-55 162 St. Flushing, NY 11358 (718)461-7930 | 이한호목사 | 교회 (718) 353-5020<br>목사님 (917) 687-8555 | 백석스데반목사 |
| 9 | Flushing 3 | 뉴욕행복한교회 | 143-03 Hawthorne Ave. Flushing, NY 11355 (718)321-4581 | 이성한목사 | 교회 (718) 358-0220<br>목사님 (718) 456-2195 | 이지용목사 |
| 10 | Flushing 4 | 뉴욕푸른성결특송교회 | 38-24 148 St. Flushing, NY 11354 (718)939-8599 | 최용한목사 | 교회 (718) 445-3901<br>목사님 (718) 445-3901 | 황명철목사 |
| 11 | Flushing 5 | 순복음뉴욕교회 | 135-20 35Ave. Flushing, NY 11354 (718)321-7900 | 김남수목사 | 교회 (718) 539-6161<br>목사님 (718) 321-1382 | 김수홍목사 |
| 12 | Flushing 6 | 한돈후 교회 | 141-10 33rd Ave. Flushing, NY 11354 (718)460-8181 | 김성근목사 | 교회 (718) 225-7276<br>목사님 (718) 797-8778 | 장대영목사 |
| 13 | College Point | 뉴욕우정장로교회 | 31-07 College P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718)461-9600 | 박수복목사 | 교회 (718) 661-9696<br>목사님 (718) 445-1218 | 정진호목사 |
| 14 | Bayside & Little Neck | 뉴욕신광교회 | 31-10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357-1065 | 한세종목사 | 교회 (718) 631-0627<br>목사님 (718) 225-1050 | 오태환목사 |
| 15 | Bayside | 뉴저장로교회 | 54-08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4 (718)229-9191 | 한기술목사 | 교회 (718) 264-5656<br>목사님 (718) 631-2992 | 이종범목사 |
| 16 | 뉴 욕 직 두 | 예제스터장로교회 | 250 Bryant Ave. White Plains, NY 10605 (914)948-6565 | 조진광목사 | 교회 (914) 738-3676<br>목사님 (914) 738-0306 | 이태균목사 |
| 17 | Staten Island | 스태튼아일랜드 예인교회 | 286 Main St. Staten Island, NY 10307 (718)984-3035 | 정석진목사 | 교회 (718) 966-2332<br>목사님 (718) 966-6390 | 정광림목사 |
| 18 | Manhattan | 뉴욕정원교회 | 315 5 Ave. New York, NY 10003 (212)629-7337 | 정진홍목사 | 교회 (212) 629-7373<br>목사님 (646) 375-0013 | 주요석목사 |
| 19 | Brooklyn | 뉴욕남광교회 | 7502 4 Ave. Brooklyn, NY 11209 (718)748-8408 | 최병철목사 | 교회 (718) 376-2355<br>목사님 (917) 293-5451 | 주수환목사 |
| 20 | Bronx | 성애교회 | 259 E 201 St. Bronx, NY 10458 (917)697-1768 | 이수영목사 | 교회 (718) 733-5000<br>목사님 (718) 543-5747 | 최준한목사 |
| 21 | Li Nassau 1 | 롱아일랜드성광교회 | 130 Elmore Ave. Westbury, NY 11501 (516)333-1717 | 김석형목사 | 교회 (516) 997-2550<br>목사님 (917) 533-4272 | 이희선목사 |
| 22 | Li Nassau 2 | 뉴욕예일장로교회 |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516)939-6383 | 김환곤목사 | 교회 (516) 733-4564<br>목사님 (516) 359-7387 | 김혜진목사 |
| 23 | Li Suffolk | 뉴욕장사교회 | 1201 Carll's Straight Path Dix Hills, NY 11746 (631)243-3683 | 장동철목사 | 교회 (718) 335-5995<br>목사님 (718) 863-5394 | 김혜근목사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718)358-0074

회 장: 정수웅 목사 총 무: 고명철 목사
서 기: 김수홍 목사 운영위원장: 이기원 목사



## 예배순서
## Order of Service

인도 : 회장 정수웅 목사 (장로)
Wesley Jaeok Rev. Dong S. Chung
(Vice President of CCKGNY)

| | | |
|---|---|---|
| ■ 도 Silent Prayer | □ 묵 도 | |
| 기도 Invocation | 인 도 Leader | 회 장 Rev. Chung S. Chung |
| 성경근독 Golden Chain | □ 사도행전 4:13-18 | 인 도 Leader |
| 찬 송 Hymn | □ 새 찬송가 41 장 | 인 도 Leader |
| 기 도 Prayer | 회장 Rev. Chung S. Chung<br>President of CCKGNY |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데살로니가전서 4:13-18<br>1 Thess 4:13-18 | 증경회장 김동헌 목사<br>Rev. Henry Kim<br>Chm. Board of Directors of CCKGNY |
| 찬 양 Choir | 누룩없는진실과 참된 Holy Bible Pastor Ch. Choir | 찬 양 대 |
| 말 씀 Sermon | 그 안의 형제 사랑 계명하라 "United With One with these Words" | 강 단 주 목사<br>Pastor Ch. Kim<br>Pastor of CCKGNY |
| 기 도 Prayer | 목 사 Pastor | 목 사 |
| 찬 송 Hymn | 새 찬송가 49 장 | 인 도 Leader |
| ■ 추모사 Memorial Remarks | 한국교계 Korean Consulate General | 류 봉 주영총영사 Amb. Bong J. Moon |
| ■ 추모사 Memorial Remarks |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Presidents Council of Korean American Churches | 서 욱 Rev. Uk Lee |
| 대표기도 United Prayer | 1. 한국 For Korea | 증경회장 김동헌 목사<br>Rev. Chung S. Chung<br>Vice President of CCKGNY |
| | 2.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For nations' leaders | 증경회장 김동헌 목사<br>Rev. Chung S. Chung<br>Vice President of CCKGNY |
| | 3.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 회 장 정수웅 목사<br>Rev. Chung S. Chung<br>Vice President of CCKGNY |
| 광고 Announcements | | 회 장 정수웅 목사<br>Rev. Chung S. Chung<br>Vice President of CCKGNY |
| 찬 송 Hymn | 새 찬송가 344 장 | 인 도 Leader |
| ■ 축 도 Benediction | | 회 장 정수웅 목사<br>Rev. Chung S. Chung<br>Vice President of CCKGNY |



2007년
Memorial Prayer Service
for Victims/Families of Virginia Tech
버지니아 공대 희생자
추모예배

일 시 : 2007년 4월 19일(목) 오후 8시30분
장 소 : 뉴욕효신장로교회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주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및 목사회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718)358-0074 Fax:(718)321-0105

"National Day of Prayer"에 대하여 www.ndptf.org

**"National Day of Prayer" 는 무엇인가? 이 날의 목적은?**

미의회의 결정으로 세워져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위해 제정된 날이다. "National Day of Prayer"에는 특별히 여러 계층에 있는 정치권,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육 기관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력하도록했다.

**언제부터 "National Day of Prayer"가 시작되었는가?**

독미대륙의 의회가 미합중국을 만들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정한 1775년부터 "기도의 날(Day of Prayer)" 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이 기도의 날이 필요함을 요구했으며, 공식으로는 1952년에 의회의 인준에 의해 "National Day of Prayer"로 정해졌으며 헤리 트루맨(Harry Truman)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8년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매해 오월의 첫번째 목요일로 정했다.

**어떤 행사들이 계획되었는가?**

가장 눈에 띄는 모임은 수도인 Washington D.C에서 행정, 입법, 사법부 각 정부기관의 대표들과 군인들, 크리스챤 리더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다. 2004년에는 약 4만여 곳에서 모임이 있었다. 올해도 각 지역마다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조찬기도회, 성경 읽는 마라톤, 기도모임, 기도대회 그리고 학생들의 교내기도모임(See You at the Pole) 등으로 모이 각 지역의 관심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특별연합기도회** 역대하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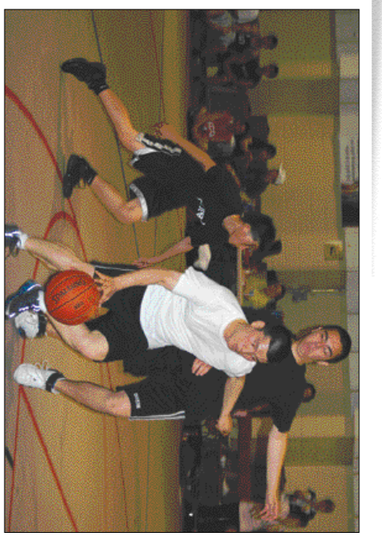
**일시:** 2007년 5월 3일(목) 8:30pm
**장소:** 퀸즈중앙장로교회
**주소:** 58-06 Springfield Blvd. Bayside, NY11364
**전화:** 1-718-229-9191
**주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광고**

1. 순서를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장소를 빌려주신 퀸즈중앙장로교회와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미주기독교방송 5월9일(수)-10일(목)까지 "사역이전 공개헌금의날"을 가집니다. 다같이 협조하시고 기도합시다.

## 청소년 농구대회

제9회 청소년 농구대회가 5월 12일(토) 퀸즈한인교회와 신광교회 체육관에서 열렸다.



▲ 승리를 위해 열전하는 고등부 선수들



▲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주는 회장 정수명 목사와 부회장 황동익 목사



▲ 경기를 마치고 교협 임원들과 선수들의 기념 촬영

## 교협 체육대회

뉴욕교협 회장 정수명 목사는 5월 28일 코로나 메도우 파크에서 교협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체육대회 본부석 임원들



▲ 공정한 심판하에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들



▲ 우승팀에게 트로피를 전하는 회장 정수명 목사



▲ 고등부 우승팀(뉴욕예일장로교회)에게 트로피를 전하는 부회장 황동익 목사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자 할렐루야 2007

##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오 정 현 목사**

**| 경력 및 활동**

- 현 사랑의교회 2대 담임목사(2003.8 ~ 현재)
- 현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 이사장(2006.11~현재)
- 현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이사장(2006~현재)
- 현 청목연(청년목회자연합) 이사장(2005~현재)
- 현 아시아연예문화연구소(ARLAC) 이사장(2005~현재)
- 현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겸임교수(2001~현재)
- 현 미주 OM 국제선교회 엠베이사장(1995~현재)
- 현 KOSTA 국제어사 (1986~현재)
- 전 남가주사랑의교회 개척 및 담임목사(1988~2003.8)
- 숭실대 영문과(B.A)

**| 학력**

-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 바울라(Biola)대학교 탈봇 신학대학원(M. Div/D.Min.)
- 미시간 칼빈 신학대학원(Th. M)
- 포틀랜드스트롱대학교 신학부 박사(Ph. D)
- 하버드대학교 수학(Resident Fellow)

## 청소년 복음화대회



**강사 Sukhwan Robert Oh 목사**

**| 경력 및 활동**

- ▶2006-President: Vision to Reality Foundation - Founder
- ▶2002~2005 Oikos Mission International - Founder
- ▶1991 - President: Oikos Ministry - Founder

**| 학력**

- ▶1995 ~ 1998: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1986 ~ 1990: M. Div.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1979 ~ 1984: B.A., Philosophy @ UC Berkeley

## 어린이 복음화대회



**강사 김 은 혜(Yekko) 전도사**

- ▶Program Director at Family In touch
- ▶Director & Speaker for Kids KOSTA
- ▶Speaker & Trainer for YEKKO / DynamoKidz Worship
- ▶Speaker & Trainer for True Love Waits Program
-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대회장 정수명 목사와 강사 오정현 목사




▲ 성가대 찬양과 수화로 통역하는 모습




▲ 본 성전에 자리가 없어 체육관과 각 교육실에서 은혜를 받았다.




▲ 강사와 성도가 다같이 '주여'를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 강사 오정현 목사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과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있다.




▲ 반주와 찬양에 맞추어 율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 마지막 날 예배 후 다같이 기념촬영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찬양으로 ▶
하나님께 영광을!







▲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회장 정수명 목사

교협 서기 김수웅 목사가 순서에 따라 ▶
학생들을 호명하고,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 장학금을 수여하며 기뻐하는 강사 오정현 목사와 학생




▲ 교협 총무 조명철 목사와 서기 김수웅 목사의 진행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는 뉴욕새생명교회 허윤준 목사와 기뻐하는 학생



## 어린이 복음화대회

김은예 전도사(퀸즈한인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퀸즈한인교회에서 어린이 복음화대회가 개최되었다.



▲ 그룹별로 모여서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




▲ 우리 그룹이 제일 잘하지요?



▲ 찬양을 인도하는 강사 김은예 전도사




▲ 다같이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 청소년 복음화대회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12일(목)부터 14일까지 오석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청소년들



▲ 찬양하는 청소년들





▲ 33회기 회장 정수명 목사는 각 분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과위원 모임을 가졌다.




▲ 33회기 교협에서는 신임 이사를 영입했다.





1. 2. 회장 정수명 목사가 공약대로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다.




▲ 뉴욕에 난립된 신학교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신학교 정화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 뉴욕 일원에 한국 이단들이 침투해 교계를 혼란케 하고 교회와 가정, 성도 유혹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 워싱턴, 필라 뉴저지, 코네티컷 교협이 정보를 교환, 서로 협력 공동 대처하기 위해 제1차 모임을 가졌다.



탈레반 인질 19명 중 한지영씨 등 2명이 29일 오후 석방돼고, 14시간을 뒤 남성 1명과 여성 4명이 추가로 풀려났다. 고세훈씨(오른쪽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여성 4명이 기즈니주 국제 시 바즈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기즈니주 로이터=뉴시스]

# 탈레반 인질 12명 풀려났다

## 남 2명 여 10명 - 건강 이상 없어 나머지 7명도 오늘 중 석방될 듯

▶ 관계기사 2, 7, 9면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19명의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인 지 이주 만인 29일 10명 한국시간 12명이 풀려났다. 남자 2명과 여자 10명이다.

이날 오후 5시30분경 한지영·권해진·이정민씨 등 여성 3명이 먼저 석방됐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고세훈(남·42)·이선경·심영주·유정화·이지영 씨 등 여성 4명이 추가로 풀려났다. 오후 11시30분경 유경식(남·서명화·이주연·차혜진씨 등 4명이 3시간 뒤 돌아왔다. 인질 12명이 모두 풀려난 뒤 탈레반 측 협상 대표인 카리 아지미는 AFP 통신에 "나머지 인질 7명은 목요일(30일)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지영씨는 석방 장소로 이동 중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뒤 "안혜진·이정민씨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12명의 석방 사실을 확인했다. 조현동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성 3명이 우리 측에 성명하게 인도됐다"며 "건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들의 추가 석방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역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 통신원 윤석 아부하심기자은 29일 오전 "탈레반 고위 사령관의 남성 인질을 포함해 오늘 중 12명을 풀어줄 것이라고 통했다"고 알려 왔다. 석방 즉시 탈레반 측은 이들을 기즈니주 주도 가즈니 시내 한 호텔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했다.

이들은 이날 밤 늦게 헬기 편으로 수도 카불로 이송됐다. 이들은 30일 오전 카불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들과 만나 건강 상태 등을 점검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들의 석방과 관련, 아부하심은 "이날 오후 탈레반이 인질 12명을 세 차례에 걸쳐 반두 부족 지도자에게 넘겼다고 이들로부터 다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관계자들에게 인도됐다"고 말했다. 이 부족 지도자는 13일 탈레반으로부터 김지나·김경자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ICRC 측에 인도했던 바 있다.

풀려난 이들은 김지나·김경자씨를 비롯 이랜커지로, 이상설 전통 스타일의 스커트를 즐겨 입었을 것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국제 자원기구인 '샤페케 컴팬(SHC)' 기지로 이송됐으며, 그곳에 대기 중이던 동의대 의료팀으로부터 건강상태를 점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대통령이 다 모이면 기념할 만한 사람 내에 다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단행기를 이용해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리 기자 shinyi@joongang.co.kr

**풀려난 인질은**

1차 석방자 2명
- 안혜진(32·여) 웹디자이너
- 이정민(29·여) 간호사

2차 석방자 5명
- 고세훈(42·남) 남서울대 초빙
- 유정화(29·여) 영어학원 강사
- 이선경(32·여) 봉사단 출신
- 이지영(26·여) 한지 장기 봉사자
- 심봉주(32·여) 간호사

3차 석방자 4명
- 서명화(29·여) 간호사
- 유경식(32·남) 선교사 전도사
- 이주연(27·여) 간호사
- 차혜진(31·여) 서비스 회사 근무



## 예 배 순 서

인도: 오대환 목사 (목사회총무)

장송찬양: 김희복 목사

(교협 부회장/총무위원장)

순복음 연합교회 8월3일(금)오전 10시

성경 봉독 ..... 역하 7:11-16 ..... 민 도 겨

찬 양 ..... 388장 ..... 다 같 이

기 도 ..... 김수웅 목사 (교협 서기)

설 교 ..... 심 교 겨

기 도 ..... 정수영 목사 (교협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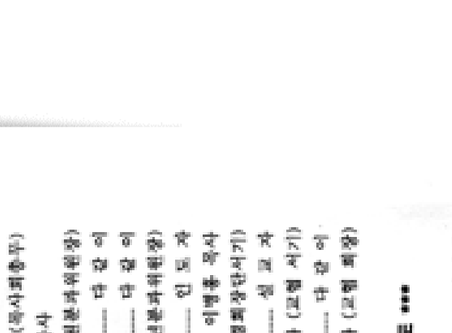
(교협수정회장단위기)

찬 양 ..... 인 도 겨

*** 아프가니스탄 회복부흥을 위한 기도 ***

기도인도: 조명복 목사 (교협 총무)

1. 탈레반 무리에게 억류된 21명의 건강과 생명과 무사귀환을 위하여 ..... (교협 협동총무)
2.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하여 ..... 박상이철 목사 (교협사회문제위원장)
3.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하여 ..... 황 동 익 목사 (교협 부 회 장)
4.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를 위하여 ..... 김 태 원 목사 (교협 협동총무)
5.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하여 ..... 이 만 호 목사 (교협 협동총무)
6. 세계에 퍼져있는 교회들의 기도운동 ..... 양 승 호 목사 (교협선도분과위원장)
7. 아스팔트에 생명의 복음이 퍼지도록 ..... 노 기 수 목사 (교협 협동총무)



고 정

일시 : 2007년 8월 3일(금) 오전10시
장소 :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목사)
169-08 Northern Blvd.
Flushing, NY11358
Tel : (718) 359-0166, 886-2323

C K C
주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 34 년사

주후 2008년



## 34대 교협 회장

뉴비젼교회

New Vision Church

황동익 목사, Rev. Dong Ik Hwang

64-01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

## 34대 교협 임원

회　　장　황동익 목사 (뉴비젼교회)
부 회 장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선교교회), 강현석 장로 (후러싱제일교회)
총　　무　이성헌 목사 (뉴욕행복한교회)
서　　기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부 서 기　정진호 목사 (뉴욕시민장로교회)
회　　계　황규복 장로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부 회 계　지교찬 목사 (뉴욕은평장로교회)

## 22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부이사장　(이사 담당) 유일용 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대내 담당) 김기철 권사 (참사랑교회)
　　(대외 담당)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기획 담당) 문일한 장로 (뉴욕한인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최찬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회　　계　김태수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감　　사　최재복 권사 (뉴욕한인제일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2008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2008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34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8년도)

| | | | | | | | | |
|---|---|---|---|---|---|---|---|---|
| 회 | 장 | 황 | 동 | 익 | 목 | 사 | 뉴비전교회 | 718-565-7956 | 718-565-6200 | 917-734-1626 |
| 부 | 회 장 | 최 | 성 | 섭 | 목 | 사 | 예루살렘선교교회 | 718-229-3927 | 718-767-4373 | 917-355-6312 |
| 부 | 회 장 | 김 | 현 | 석 | 장 | 로 | 루이빌제일교회 | 516-777-7770 | 516-277-7779 | 516-551-4421 |
| 총 | 무 | 이 | 성 | 진 | 목 | 사 | 뉴욕평화한교회 | 347-224-5995 | 718-321-8581 | 347-224-9095 |
| 서 | 기 | 류 | 성 | 열 | 목 | 사 | 리빙스톤교회 | 718-961-2171 | 718-961-3631 | 917-862-0523 |
| 부 | 서 기 | 정 | 진 | 호 | 목 | 사 | 뉴욕시민장로교회 | 718-321-2001 | 718-321-2001 | 917-757-0449 |
| 회 | 계 | 황 | 규 | 덕 | 장 | 로 | 롱일랜드성결교회 | 718-461-5500 | 718-461-5500 | 917-204-9679 |
| 부 | 회 계 | 지 | 교 | 천 | 목 | 사 | 뉴욕은혜장로교회 | 718-463-3534 | 718-849-2740 | 917-554-5428 |
| 감 | 사 | 이 | 종 | 명 | 목 | 사 | 뉴저지장로교회 | 718-631-2762 | 718-354-4609 | 718-354-4609 |
| | | 박 | 진 | 혁 | 목 | 사 | 온즈장로교회 | 718-353-6204 | 718-352-6204 | |
| | | 최 | 제 | 복 | 순 | 사 | 뉴욕한인제일교회 | 781-779-2700 | 718-939-5464 | 917-330-5200 |
| 이 | 사 장 | 윤 | 영 | 숙 | 장 | 로 | 뉴욕국민나교회 | 718-565-9217 | 718-565-9217 | 347-804-5791 |
| 고 | 문 변 | 최 | 형 | 우 | 권 | 사 | 루이빌제일교회 | 718-463-3500 | 718-463-3500 | 646-476-3842 |
| | | 박 | 오 | 현 | 목 | 사 | 뉴욕실로암장로교회 | 718-461-9111 | 718-461-9111 | |
| | | 김 | 철 | 호 | 장 | 로 | 저랄교회 | 718-445-1000 | 347-235-4462 | 718-208-7831 |
| | | 임 | 홍 | 근 | 장 | 로 | 순복음뉴욕교회 | | 212-481-0800 | 917-860-5797 |

| | | | | | | | | |
|---|---|---|---|---|---|---|---|---|
| 특임 | | 고 | 일 | 섭 | 목 | 사 | 온즈한인교회 | 718-672-1700 | 718-672-1156 | |
| KPCA | | 김 | 종 | 호 | 목 | 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516-921-8012 | 516-938-0383 | 347-251-0809 |
| C&MA | | 김 | 수 | 태 | 목 | 사 | 뉴욕어린양교회 | 718-428-5806 | 718-899-8306 | 646-623-4031 |
| PCUSA | | 김 | 승 | 희 | 목 | 사 | 뉴욕프리교회 | 718-639-3021 | 718-639-3021 | 347-256-9225 |
| 개혁인협 | | 김 | 용 | 익 | 목 | 사 | 뉴욕주신장로교회 | 718-356-9096 | 718-465-9246 | |
| The Salvation Army | | 김 | 승 | 우 | 사 | 관 | 구세군뉴욕한인교회 | 718-460-5834 | 718-762-9613 | 917-626-2499 |
| 미주총회장(동) | | 김 | 태 | 헌 | 목 | 사 | 뉴욕갈수장로교회 | 718-352-0935 | 718-352-0935 | |
| AIP | | 김 | 홍 | 석 | 목 | 사 | 뉴욕늘기쁜교회 | 718-279-4438 | 718-359-0691 | 646-287-7169 |
| 순복음(재미) | | 목 | 동 | 주 | 목 | 사 | 뉴욕루터십순복음교회 | 718-358-1185 | 718-358-1185 | |
| KMC | | 민 | 영 | 철 | 목 | 사 | 뉴욕평화장감리교회 | 718-359-3635 | 718-737-1399 | 718-757-1399 |
| ORC | | 민 | 장 | 식 | 목 | 사 | 루이빌한인교회 | 718-460-6741 | 718-461-3994 | 917-710-6264 |
| UPM | | 박 | 원 | 성 | 목 | 사 | 이천남교회 | 718-225-3043 | 718-225-3343 | 718-986-3599 |
| PCA | | 오 | 해 | 룡 | 목 | 사 | 뉴욕은총장로교회 | 718-225-1087 | 718-461-0627 | |
| KAPC(동) | | 이 | 삼 | 호 | 목 | 사 | 주사랑장로교회 | 718-428-1236 | 718-229-8815 | |
| KPCA | | 이 | 덕 | 수 | 목 | 사 | 뉴욕신일교회 | 718-661-4051 | 718-762-3303 | |
| KPCA | | 이 | 종 | 업 | 목 | 사 | 열림장로교회 | 718-279-0036 | 718-279-6033.4 | |
| 미주장총 | | 이 | 종 | 직 | 목 | 사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718-359-1954 | 718-229-0858 | |
| AUG(한국) | | 임 | 계 | 주 | 목 | 사 | 뉴욕순복음중앙교회 | 718-225-2600 | 718-225-2620 | |
| RCA | | 장 | 광 | 희 | 목 | 사 | 큰기쁜장신교회 | 718-461-3888 | 718-461-9651 | 646-372-1375 |
| 예장(합동) | | 장 | 대 | 영 | 목 | 사 | 온즈동부교회 | 718-225-7726 | 718-445-0362 | 718-757-2279 |
| KAPC(나) | | 조 | 무 | 효 | 목 | 사 | 한누리교회 | 718-670-5881 | 718-670-5881 | 917-697-4362 |
| AG(한국) | | 최 | 디 | 도 | 목 | 사 | 뉴욕소망교회 | 718-279-4798 | 718-380-7262 | 917-989-4069 |
| 합동(정통) | | 황 | 성 | 진 | 목 | 사 | 뉴욕은혜교회 | 718-352-4071 | 718-661-5241 | |

| | | | | | | | | |
|---|---|---|---|---|---|---|---|---|
| 원로목사협의회장 | | 박 | 희 | 소 | 목 | 사 | 뉴욕동부교회 | 718-779-9002 | 718-726-3510 | 917-648-4910 |
| 선택분과 위원회 | | 장 | 영 | 춘 | 목 | 사 | 온즈장로교회 | 718-886-4040 | 718-886-4040 | 718-309-1161 |
| 의료대책 위원회 | | 김 | 남 | 수 | 목 | 사 | 순복음뉴욕교회 | 201-647-1096 | 718-321-7800 | 917-757-9473 |
| 법 규 위원회 | | 장 | 석 | 진 | 목 | 사 | 뉴욕장로교회 | 718-948-0039 | 718-948-0292 | 917-597-2488 |
| 선거관리 위원회 | | 안 | 창 | 덕 | 목 | 사 | 온즈중앙장로교회 | 718-631-3665 | 718-229-9191 | 718-702-7067 |
| 연 금 위원회 | | 한 | 재 | 홍 | 목 | 사 | 뉴욕신광교회 | 718-423-4871 | 718-357-3355 | 718-541-9779 |
| 결 혁 위원회 | | 송 | 병 | 기 | 목 | 사 | 뉴욕복음장로교회 | 718-762-6788 | 718-361-9199 | 917-559-8877 |
| 홍콩전통 위원회 | | 황 | 갑 | 일 | 목 | 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901 | 718-445-3961 | 917-332-7332 |
| 필스닌국도위원회 | | 김 | 종 | 인 | 목 | 사 | 루이빌제일교회 | 718-661-5481 | 718-939-8599 | 347-866-3887 |
| 루스로솔유아원회 | | 최 | 동 | 십 | 목 | 사 | 예랜아셈블리교회 | 718-359-3027 | 718-762-4373 | 917-355-4372 |
| 재산분과 위원회 | | 1년 | ①전희철 | | 목사 | | 온세스트한인장로교회 | 718-263-3634 | 718-263-3633 | 917-337-0131 |
| | | | ②조경철 | | 목사 | | 달콤한집교회 | 718-539-4523 | 646-247-3008 | 646-247-3008 |
| | | | ③문일한 | | 장로 | | 온즈한인교회 | 212-479-9669 | 212-479-9669 | 516-456-0277 |
| | | 2년 | ①이명훈 | | 목사 | | 세기나단교회 | 516-822-0618 | 718-229-0909 | 516-822-0618 |
| | | | ②변문수 | | 목사 | | 뉴욕석물장로교회 | 718-460-2204 | 718-423-0343 | 718-423-0343 |
| | | | ③최임호 | | 장로 | | 순복음뉴욕교회 | 718-321-7800 | 718-321-7800 | 516-375-7001 |
| | | 3년 | ①김종덕 | | 목사 | | 뉴욕할로할렐루야교회 | 718-969-3549 | 718-463-9013 | 718-463-9013 |
| | | | ②조금석 | | 목사 | | 뉴욕충현장로교회 | 718-672-2133 | 718-672-2133 | 646-762-1091 |
| | | | ③송창훈 | | 장로 | | 뉴욕서교회 | 516-939-0109 | 718-353-3560 | 917-921-3310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4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8년도)

| | | | | | | | | |
|---|---|---|---|---|---|---|---|---|
| 선 | 교 | 분 | 과 | 이 | 승 | 재 | 목 | 사 | 은혜교회 | 718-423-6978 | 718-429-1447 | 718-578-5396 |
| 선교사협력분과 | | | | 김 | 혁 | 택 | 목 | 사 | 뉴욕충신교회 | 347-998-6357 | 718-359-9648 | 732-664-8272 |
| 전 | 도 | 분 | 과 | 김 | 희 | 복 | 목 | 사 | 뉴욕주안장교회 | 718-429-3371 | 718-457-8373 | 646-270-9637 |
| 학 | 회 | 분 | 과 | 방 | 승 | 호 | 목 | 사 | 뉴욕순복음한인교회 | 516-285-1100 | 718-359-5168 | 646-330-4268 |
| 음 | 악 | 분 | 과 | 이 | 원 | 희 | 목 | 사 | 플랫부쉬뉴욕교회 | 718-221-0182 | 718-221-0182 | 917-319-8459 |
| 여성목회분과 | | | | 장 | 강 | 혜 | 목 | 사 | 뉴욕스와교회 | 718-631-4594 | 917-825-5204 | 917-825-5204 |
| 기 | 도 | 분 | 과 | 김 | 영 | 룡 | 목 | 사 | 뉴욕효성교회 | 914-393-1450 | 718-321-3124 | 914-393-1450 |
| 서 | 설 | 출 | 판 | 과 | 신 | 우 | 철 | 목 | 사 | 기스웰장로교회 | 917-685-5045 | 718-463-5756 | 917-685-5045 |
| 이 | 디 | 어 | 분 | 과 | 김 | 은 | 기 | 목 | 사 | 뉴욕베데스다교회 | 718-533-2643 | 718-478-8960 | 347-773-2388 |
| 홈 | 뉴 | 분 | 과 | 김 | 필 | 욱 | 목 | 사 | 뉴욕에은교회 | 718-428-2875 | 718-428-2875 | 718-679-7331 |
| 고 | 목 | 분 | 과 | 이 | 기 | 진 | 목 | 사 | 뉴욕한인교회 | 718-461-2578 | 718-639-6959 | 718-369-2664 |
| 장 | 스 | 년 | 분 | 과 | 이 | 직 | 룡 | 목 | 사 | 예랜아셈블리교회 | 718-445-3909 | 718-762-4373 | |
| 유 | 년 | 분 | 과 | 이 | 지 | 삼 | 목 | 사 | 뉴욕첫세우신교회 | 718-464-3255 | 718-358-6275 | 917-693-2763 |
| 역사및지문분과 | | | | 박 | 이 | 스 | 라 | 엘 | 목 | 사 | 뉴욕승리교회 | 718-353-9029 | 718-353-5029 | 917-947-8016 |
| 강 | 단 | 분 | 과 | 문 | 숙 | 분 | 목 | 사 | 뉴욕예수교회 | 914-674-9649 | 914-674-9649 | 914-493-3116 |
| 시 | 회 | 분 | 과 | 이 | 만 | 효 | 목 | 사 | 순복음한마음교회 | 718-461-7805 | 718-279-3361 | 718-598-1777 |
| 노 | 인 | 분 | 과 | 임 | 재 | 홍 | 목 | 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718-961-1084 | 718-961-1084 | |
| 세 | 목 | 분 | 과 | 심 | 경 | 인 | 집 | 사 | 뉴욕장로교회 | 718-268-4298 | 718-631-1332 | 917-363-4656 |
| 찍 | 은 | 분 | 과 | 계 | 동 | 휘 | 장 | 로 | 뉴욕갈리교회 | 516-385-8066 | 718-898-9649 | 917-287-8958 |
| 중 | 국 | 인 | 분 | 과 | 노 | 기 | 승 | 목 | 사 | 뉴욕세계주삼웰교회 | 914-242-4626 | 914-242-4626 | 917-699-4636 |
| 한 | 고 | 분 | 과 | 윤 | 종 | 호 | 목 | 사 | 뉴욕한일교회 | 718-760-2262 | 718-229-6166 | 917-921-8666 |
| 사 | 모 | 분 | 과 | 김 | 갑 | 신 | 사 | 모 | 뉴욕온더교회 | 718-639-3021 | 718-637-1479 | 347-256-8147 |
| 복 | 지 | 분 | 과 | 서 | 종 | 춘 | 목 | 사 | 뉴욕세광한장로교회 | 718-464-3008 | 718-464-3008 | 718-637-1478 |
| 서 | 업 | 분 | 과 | 김 | 상 | 근 | 목 | 사 | 온누리교회 | 718-423-8234 | 718-463-6181 | |
| 영 | 업 | 분 | 과 | 황 | 영 | 진 | 목 | 사 | 낙원장로교회 | 718-275-1258 | 718-482-7388 | 917-349-5631 |
| 결 | 스 | 분 | 과 | | | | | | | | | |
| 지 | 원 | 분 | 과 | 신 | 한 | 택 | 목 | 사 | 뉴욕성신교회 | 718-490-9664 | 718-445-7355 | |
| 재 | 정 | 분 | 과 | 이 | 용 | 오 | 장 | 로 | 뉴욕동부교회 | | 718-726-3519 | |
| 국 | 세 | 분 | 과 | 박 | 주 | 홍 | 목 | 사 | 한마음장로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917-922-9598 |
| 등 | 환 | 부 | 과 | 최 | 예 | 식 | 목 | 사 | 뉴욕복된교회 | 718-461-3164 | 718-463-0369 | |

| | | | | | | | | |
|---|---|---|---|---|---|---|---|---|
| 스태튼아일랜드 | | 김 | 석 | 근 | 목 | 사 | 온누리영원교회 | 718-370-3665 | 718-370-3665 | |
| 브 | 르 | 몽 | 킨 | 김 | 재 | 경 | 목 | 사 | 브르몽킨한인장로교회 | 646-637-7974 | 718-891-8878 | 646-637-7974 |
| 롱 | 아 | 일 | 랜 | 드 | 이 | 홍 | 원 | 목 | 사 | 뉴욕제사장교회 | 516-477-9466 | 516-477-9466 | |
| 탁 | 세 | 스 | 드 | 이 | 탁 | 순 | 목 | 사 | 맨솔트레스사랑합교회 | 914-738-3308 | 914-738-3308 | |
| 브 | 롱 | 스 | | 안 | 상 | 락 | 목 | 사 | 뉴욕농락감리교회 | 718-733-4716 | 718-295-7119 | |
| 맨 | 허 | 탄 | | 주 | 호 | 식 | 목 | 사 | 뉴욕정원교회 | 212-577-9667 | 212-629-7372 | 646-275-0810 |



제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34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한영숙** 장로 | 부이사장 **유일용** 집사 | 부이사장 **김기철** 권사 | 부이사장 **이주익** 집사 | 부이사장 **문일환** 장로

|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한영숙** 장로 | 뉴욕새천년교회 | 718-565-9217 | 347-834-3701 |
| 부이사장(이사담당)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646-521-0099 | 917-575-2079 |
| 부이사장(대내담당) | **김기철** 권사 | 참사랑교회 | 718-239-2261 | 917-478-5512 |
| 부이사장(대외담당) | **이주익** 집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 646-410-5157 |
| 부이사장(기획담당) | **문일환** 장로 | 뉴욕한인교회 | 212-679-9889 | 516-456-0277 |
| 총 무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 347-564-8290 |
| 서 기 | **최찬일** 권사 | 푸리장로교회 | 718-939-8599 | 718-679-8788 |
| 회 계 | **김태수** 집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718-672-4645 | 347-386-8429 |
| 감 사 | **최재복** 권사 | 뉴욕한인제일교회 | 718-939-0844 | 917-335-5200 |
| 체육진흥사업/기획 | **정경진** 집사 | 뉴욕장로교회 | 718-358-4298 | 917-363-4055 |

## 역대 이사장



초대 **방지작** 목사 | 2대 **김우현** 목사 | 3대 **함정남** 장로 | 4대 **서광배** 장로 | 5대 **임홍섭** 장로 |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영상** 목사 | 8대 **최원호** 장로 | 9대 **최광호** 장로 | 10대 **홍일영** 장로 | 11대 **김창홍** 장로 | 12대 **허병무** 장로
13대 **박해룡** 장로 | 14대 **임우송** 장로 | 15대 **홍사수** 장로 | 16대 **홍일봉** 장로 | 17대 **최진목** 장로 | 18대 **박봉기** 장로
19대 **송정훈** 장로 | 20대 **홍목행** 장로 | 21대 **김현석** 장로

2008



▲ 10월 정기 총회에서 전임 정수명 목사가 신임 황동익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하고 있다.



▲ 신임 회장단. 우로부터 부회장 최창섭 목사, 회장 황동익 목사, 평신도 부회장 강현석 장로



▲ 전, 신임 회장단 기념 촬영

## 34회기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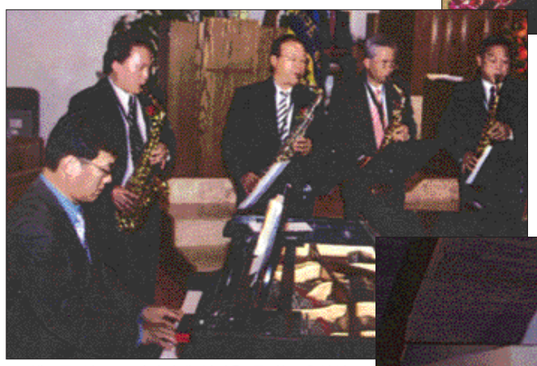
주후 2007년 12월 12일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에서 34회기 취임식을 가졌다.



▲ 33대 정수명 목사가 34대 황동익 목사에게 뉴욕 교협기를 이임하고 있다.



▲ 제34대 교협 새 임원들



▲ 섹스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상열, 송병기, 이성헌, 정진호 목사와 피아노를 반주하는 신우철 목사




제34회기 취임 예배 후 기념 촬영▶



## 영적 각성 회개기도 성회

뉴욕교협 회장 황동익 목사는 김종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목회자와 직분자의 영적 각성을 위한 회개기도회'를 2일간 뉴욕충신교회(김혜택 목사)에서 가졌다.



▲ 강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 강사 김종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회장 목사, 증경회장들, 주의 종들이 서서 주여를 부르짖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INC.
KCBN 미주기독교방송
143 Madison Ave #300 New York. NY 10016
TEL: 212-447-0780 Homepage: www.kcbn.us
FAX: 212-725-9190 E-mail: kcbnny@hotmail.com

## 미 기독교방송 연혁

1988년 김남수 목사, 정영환 목사, 이승훈 목사가 기독교 방송 설립을 의논하고, 김도언 목사, 박순종 목사가 합류하여 설립, 초대 이사장이 되었다.
1989년 10월 31일 뉴욕 주의 승인을 받아 1990년 8월 23일에 정식 개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역대 이사장

제1대 정영환 목사 외 4명
제2대 황동익 목사, 제3대 김정국 목사, 제4대 박희소 목사, 제5대 김남수 목사

### 역대 사장

제1대 김영호 장로, 제2대 신진식 목사, 제3대 최은종 목사, 제4대 황동익 목사, 제5대 박희소 목사

### KCBN의 사명

"본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송하여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 KCBN의 목표

1.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교회 성장에 이바지한다.
3.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
4. 기독교 문화를 뿌리 내린다.
5.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 2008년 신년예배 및 하례만찬

34대 회장 황동익 목사는 2008년 신년예배 하례만찬을 1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가졌다. 인도에 최창섭 목사, 기도에 이병홍 목사, 설교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푯대를 향하여"(빌 3:13~1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정수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하례만찬 시간을 가졌다.











## 교협 금식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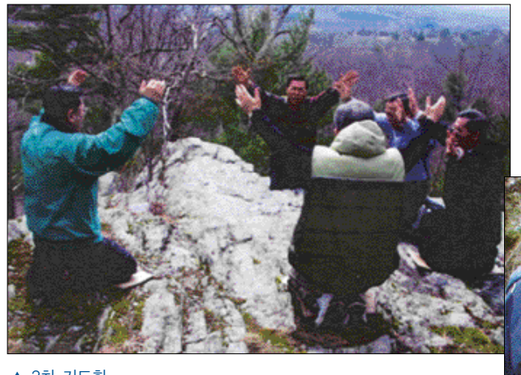
뉴욕교협에서는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4/4분기로 나누어 금식성회를 가졌다.



▲ 1월 29일



▲ 2차 기도회



▲ 3차 기도회



▲ 4차 기도회



▲ 1월 11일(금) 구세군뉴욕한인교회(김종훈 사관 시무)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 4월 20일 이대복 목사를 초청하여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가졌다(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 시무).



## 부활절 예배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을 맞아, 뉴욕교협은 3월 23일(주일) 새벽 6시 뉴욕 지역을 2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예배를 드렸다.



▲ 각 지역별 예배 순서지



▲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




▲ 퀸즈중앙교회(안창의 목사 시무) 예배 광경




▲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 시무) 예배 광경

## 청소년 농구대회

뉴욕교협 회장 황동익 목사는 청소년 농구대회를 4월 5일 개최하였다. 경기 결과 고등부 우승은 브르클린제일교회, 중등부 우승은 뉴욕성결교회에게 돌아갔다.












## 교협 체육대회

메모리얼데이 휴일을 맞이하여 뉴욕교협은 5월 26일(월) 오전 8시부터 코로나 파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3개 종목에 22개 교회, 7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친선을 다졌다.



▲ 회장·부회장이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 열심히 축구하는 모습



▲ 우승기를 가져간 뉴욕예일교회



▲ 배구 여자부 우승 VCF






▲ 대회장 황동익 목사



▲ 강사 김문훈 목사




▲ 아프리카 가나 소년소녀합창단



▲ 다같이 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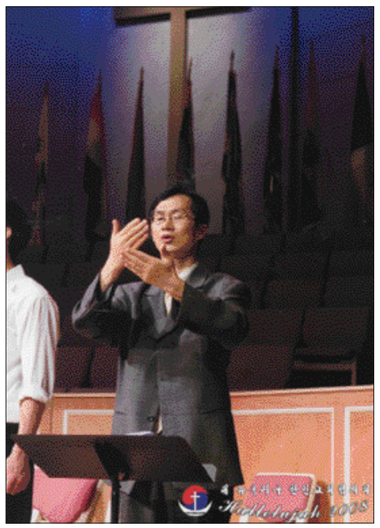


▲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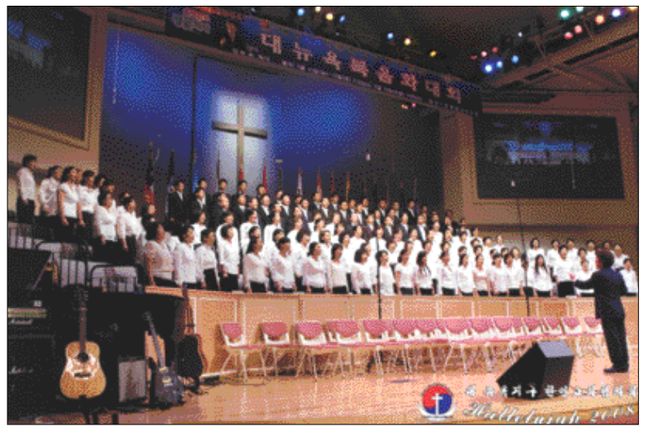


▲◀ 열심히 경청하는 성도들과 회장, 강사, 부회장, 서기



▲ 성회 동안 수화로 통역하는 이철희 목사





▲ 찬양하는 퀸즈장로교회 성가단



▲ 강사 김문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함께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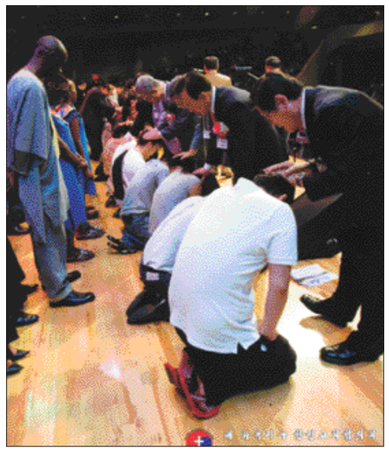
▲ 성회 끝 날 기념 촬영




▲ 학생 대표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회장 황동익 목사, 준비위원장 이승재 목사



▲ 교협 후원으로 단기선교를 나갈 선교팀

▲ 단기선교팀에게 안수하는 목사님들

## 어린이 복음화대회



▲ 강사 김희영 전도사와 교사 일동



▲ 성회를 인도하는 강사 김희영 전도사



▲ 우리 모두 율동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요.



▲ 교사들과 함께하는 활동

## 청소년 복음화대회

청소년 복음화대회가 강사 대니 권 목사를 초청하여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찬양하는 청소년들



▲ 대니 권 목사와 기도





▲ 간절히 기도하는 청소년들



▲ 뉴욕교협 황동익 목사는 7월 29일 금강산에서 할렐루야 대회 평가회를 가졌다.



# 제 35 년사

## 주후 2009년



### 35대 교협 회장

에벤에셀선교교회

Ebenezer Mission Church

최창섭 목사, Rev. Joseph Choi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 35대 교협 임원

회 장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선교교회)
부 회 장 신현택 목사 (뉴욕성신교회), 한영숙 장로 (뉴욕새천년교회)
총 무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서 기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쁜교회)
부 서 기 김희복 목사 (뉴욕주찬양교회)
회 계 이광모 장로 (뉴욕동부교회)
부 회 계 지교찬 목사 (뉴욕은평교회)

## 23대 이사회 임원

이 사 장 유일용 안수집사 (순복음뉴욕교회)
부이사장 (이사 담당) 김기철 권사 (참사랑교회)
(대내 담당) 이주익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대외 담당) 손석완 장로 (스태튼아일랜드장로교회)
(기획담당) 최찬일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총 무 송태보 집사 (뉴욕한인중앙교회)
서 기 백달영 장로 (퀸즈한인교회)
회 계 김태수 집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감 사 최재복 장로 (뉴욕한인제일교회)
체육진흥사업/기획 정경진 집사 (뉴욕장로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


부회장 **신현택** 목사


회장 **최 창 섭** 목사


부회장 **한영숙** 장로


총무 **홍상열** 목사


서기 **김홍석** 목사


부서기 **김희복**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지교선** 목사


감사 **이종행** 목사


감사 **박진하** 목사


감사 **최재복** 장로


협동총무 **김동훈** 목사


협동총무 **이광희** 목사


협동총무 **정수태** 목사


협동총무 **황승호** 목사


협동총무 **김종우** 사관


협동총무 **윤석호** 목사


협동총무 **목동주** 목사


협동총무 **지찬식** 목사


협동총무 **김태윤** 목사


협동총무 **석문상** 목사


협동총무 **오대환** 목사


협동총무 **김세진** 목사


협동총무 **안한수** 목사


협동총무 **정광희** 목사


협동총무 **정대영**목사


협동총무 **장경혜** 목사


협동총무 **조성훈** 목사

22


선교분과 **이만호** 목사


선교사협력분과 **김세택** 목사


전도분과 **이성원** 목사


목회분과 **송영진** 목사


훈련분과 **임병남** 목사


여성목회분과 **윤숙현** 목사


기도분과 **김영룬** 목사


재정분과 **여기현** 목사


지정분과 **김정기** 목사


음악분과 **신우철** 목사


교육분과 **최예식** 목사


청소년분과 **이재홍** 목사


장년분과 **이지용** 목사


역사커뮤분과 **박이스라엘** 목사


상담분과 **한기을** 목사


사회분과 **허승재** 목사


사업분과 **이재덕** 목사


체육분과 **이창남** 목사


의료분과 **이준호** 장로


장애인분과 **노기송** 목사


친교분과 **손한권** 목사


사회분과 **함은숙** 사모


복지분과 **김기호** 목사


노인분과 **송철권**목사


영접분과 **허윤준**목사


경조분과 **김용익**목사


미디어분과 **주호석** 목사


국제분과 **박국희** 목사


동원분과 **함성은** 목사

23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제35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9년도)

| 임원 | 직분 | 성명 | 교회 | 사무실 | 교회 | 휴대폰 | 팩스 |
|---|---|---|---|---|---|---|---|
| 회장 | 목사 | 김 성 제 | 예한예일한인교회 | 718-359-3027 | 718-762-4373 | 917-355-6372 | |
| 부회장 | 목사 | 신 현 덕 | 뉴욕성신교회 | 718-460-6584 | 718-445-7355 | 718-314-9623 | |
| 부회장 | 목사 | 한 영 숙 | 뉴욕세천낸교회 | 718-565-9217 | 718-565-9217 | 347-834-3701 | |
| 총무 | 목사 | 류 성 걸 | 리빙스톤 교회 | 718-961-2171 | 718-961-3031 | 917-962-0523 | |
| 서기 | 목사 | 김 홍 익 | 뉴욕늘기쁜교회 | 718-279-4838 | 718-359-6981 | 646-287-7169 | |
| 부서기 | 목사 | 김 희 목 | 뉴욕주한양교회 | 718-429-3371 | 718-457-6973 | 646-276-9697 | |
| 회계 | 목사 | 이 광 오 | 장로 뉴욕통부교회 | 718-361-1699 | 718-726-3570 | 718-716-5357 | |
| 부회계 | 목사 | 지 고 산 | 목사 뉴욕은평교회 | 718-463-3534 | 718-886-2180 | 917-554-5428 | |
| 감사 | 목사 | 이 종 명 | 목사 뉴욕고양아가페교회 | 718-352-6264 | 718-445-8877 | 917-626-8064 | |
| | 목사 | 박 진 희 | 목사 벧즈칼리교회 | 718-631-2762 | 718-354-6809 | 718-354-6809 | |
| | 목사 | 최 세 복 | 장로 뉴욕한인세일교회 | 718-779-2700 | 718-939-0484 | 917-335-5300 | |
| 이사장 | | 유 일 용 | 순복음뉴욕교회 | 516-829-8084 | 646-521-0986 | 917-575-2979 | |
| 고문변호사 | | 방 홍 균 | 변호사 순복음뉴욕교회 | 212-481-0800 | 212-481-0800 | 917-693-5797 | |
| | | 최 형 무 | 변호사 루터신학대학교 | 718-463-3500 | 718-463-3500 | 646-476-3942 | |
| | | 박 요 한 | 변호사 실로암정형외과 | 718-461-9111 | 718-461-9111 | 718-461-9111 | |

### 총무단

| | | | | | | | |
|---|---|---|---|---|---|---|---|
| KPCA | 목사 | 김 종 춘 | 목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516-921-6012 | 516-939-0383 | 347-251-0809 |
| AGA(한국총회) | 목사 | 이 광 조 | 목사 | 할렐루야뉴욕교회 | 718-321-0162 | 718-221-6182 | 917-519-0459 |
| CAMA | 목사 | 김 수 태 | 목사 | 뉴욕이한인교회 | 718-428-5866 | 718-859-8309 | 646-523-4021 |
| 순복음뉴욕 | 목사 | 방 승 호 | 목사 | 순복음한인교회 | 516-385-1133 | 718-359-0166 | 646-335-6766 |
| The Salvation Army | 목사 | 김 종 우 | 사관 | 구세군뉴욕한인교회 | 718-886-5634 | 718-762-5813 | 917-626-2690 |
| JUP | 목사 | 류 석 호 | 목사 | 뉴욕프린교회 | 718-961-2728 | 718-762-5756 | |
| 순복음(북미) | 목사 | 박 동 주 | 목사 | 루터성순복음교회 | 718-358-1165 | 718-358-1165 | |
| KMC | 목사 | 지 인 식 | 목사 | 뉴욕예일감리교회 | 718-309-7966 | 718-309-7966 | |
| SBC | 목사 | 김 재 용 | 목사 | 엠벤한교회 | 718-225-3343 | 718-225-3343 | |
| wmc | 목사 | 박 문 상 | 목사 | 뉴욕세천낸교회 | 718-631-9191 | 718-631-9191 | 917-415-5760 |
| PCA | 목사 | 오 태 환 | 목사 | 뉴욕은총교회 | 718-225-1067 | 718-631-0527 | 646-354-6989 |
| KAPC(합) | 목사 | 김 혜 진 | 목사 | 뉴욕할라렐루야장로교회 | 516-295-7367 | 516-883-1917 | 516-782-4064 |
| KPCA | 목사 | 안 찬 수 | 목사 | 뉴욕시민교회 | 718-465-5160 | 516-775-1550 | 718-662-9364 |
| RCA | 목사 | 정 광 희 | 목사 | 퀸가든장신교회 | 718-441-3888 | 718-441-9651 | |
| 예장합동 | 목사 | 정 대 영 | 목사 | 퀸즈동부교회 | 718-225-7776 | 718-445-6382 | 718-757-2379 |
| PCUSA | 목사 | 한 경 석 | 목사 | 뉴욕소망장로교회 | 718-631-4584 | 917-855-5204 | 917-855-5204 |
| KAPC(서) | 목사 | 조 성 훈 | 목사 | 뉴욕제일장로교회 | 718-350-8669 | 718-899-3129 | 718-899-3173 |

### 남선교회

| | | | | | | | |
|---|---|---|---|---|---|---|---|
| 남선교회연합회 | 회장 | 박 희 소 | 목사 | 뉴욕통부교회 | 718-779-9662 | 718-726-3579 | 917-648-4910 |
| 신혁철리 | 회장 | 장 영 송 | 목사 | 퀸즈장로교회 | 718-886-4040 | 718-886-4040 | 718-359-1101 |
| 이한대복 | 회장 | 김 남 수 | 목사 | 순복음뉴욕교회 | 201-947-1096 | 718-321-7800 | 917-757-9473 |
| 법 규 | 위원회 | 장 석 진 | 목사 | 뉴욕은혜교회 | 718-948-0339 | 718-948-0292 | 917-597-2488 |
| 선거관리 | 위원회 | 윤 재 홍 | 목사 | 신한교회 | 718-423-4411 | 718-357-3355 | 718-541-0770 |
| 친 | 선 위원회 | 박 수 덕 | 목사 | 수정장로교회 | 718-357-3342 | 718-461-9800 | |
| 협 | 력 위원회 | 최 용 웰 | 목사 | 루터성서사역교회 | 718-357-5724 | 718-357-5724 | |
| 특별전도 | 위원회 | 황 경 일 | 목사 | 뉴욕계명장로교회 | 718-445-3661 | 718-445-3661 | 917-332-7332 |
| 청소년지도 | 위원회 | 방 지 각 | 목사 | 뉴욕효진장로교회 | 718-631-1112 | 718-762-5756 | |
| 주일예배 | 위원회 | 신 현 덕 | 목사 | 뉴욕장신교회 | 718-460-3664 | 718-445-7355 | 718-314-6525 |
| 인쇄출판 | 위원회 | 전 창 의 | 목사 | 퀸즈중앙장로교회 | 718-631-3665 | 718-229-9191 | 718-702-7307 |
| 3040 | 위원회 | 김 상 모 | 목사 | 한일교회 | 201-655-5601 | 201-655-5601 | 201-988-2509 |
| 체육분과 | 위원회 | 부산 | 기러기클목사 | 서기나안교회 | 516-822-3616 | 718-229-0909 |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제35회기 분과위원 명단

(2009년도)

| 분과위원장 | 담 당 | 목 사 명 | 교 회 | T | F |
|---|---|---|---|---|---|
| 신 고 분 과 | 이정호 목사 | 은혜임안디옥교회 | 718-461-7935 | 718-279-3341 | 718-939-1777 |
| 선교사협력분과 | 김태형 목사 | 뉴욕충신교회 | 347-368-6357 | 718-359-0640 | 732-494-0222 |
| 전 도 분 과 | 이성천 목사 | 행복한교회 | 347-224-9595 | 718-321-8581 | 347-224-9595 |
| 직 회 분 과 | 황영진 목사 | 낙원장로교회 | 718-275-1259 | 718-482-7788 | 917-349-5931 |
| 홍 보 분 과 | 임병남 목사 | 뉴욕평화교회 | 516-833-7740 | 718-962-5131 | 718-962-5131 |
| 여성목회분과 | 윤숙현 목사 | 뉴욕예수교회 | 914-674-9549 | 914-674-9549 | 914-403-3110 |
| 기 도 분 과 | 김영천 목사 | 뉴욕초신교회 | 914-393-1450 | 718-321-3124 | 914-393-1450 |
| 재 정 분 과 | 이기천 목사 | 뉴욕한신교회 | 718-461-2678 | 718-639-4829 | 718-309-2684 |
| 지 원 분 과 | 김용기 목사 | 베이사드교회 | 718-533-0543 | 718-478-8900 | 347-773-2388 |
| 음 악 분 과 | 신두철 목사 | 가스펠장로교회 | 917-983-9045 | 718-463-0796 | 917-883-5045 |
| 교 육 분 과 | 최예식 목사 | 뉴욕복된교회 | 718-461-3164 | 718-463-0363 | 718-909-5975 |
| 청소년분과 | 이재훈 목사 | 예한예일신교교회 | 718-445-0609 | 718-762-4373 | 646-431-1336 |
| 운 남 분 과 | 이지용 목사 | 뉴욕조이아세교회 | 718-464-2295 | 718-358-6225 | 917-493-2763 |
| 역사/정자문분과 | 박이스라엘목사 | 뉴욕승리교회 | 718-353-5029 | 718-353-5029 | 917-887-8555 |
| 상 담 분 과 | 한기술 목사 | 뉴욕탈렐루야교회 | 718-460-5792 | 718-225-0303 | 646-481-1338 |
| 사 회 분 과 | 이승희 목사 | 은혜교회 | 718-423-6978 | 718-428-1447 | 718-578-3200 |
| 사 업 분 과 | 이재덕 목사 | 뉴욕사랑교회 | 718-565-6914 | 917-345-4709 | 917-345-4709 |
| 체 육 분 과 | 이한남 목사 | 뉴욕예산교회 | 646-772-5847 | 646-772-5847 | 646-772-5847 |
| 의 료 분 과 | 이준호 장로 | 퀸즈한인교회 | 718-353-4100 | 718-672-1150 | 718-353-4100 |
| 장애인분과 | 노기술 목사 | 레이투삼웰교회 | 914-242-4626 | 914-242-4626 | 917-699-6036 |
| 선 교 분 과 | 손한권 목사 | 퍽나사이드장로교회 | 718-729-0854 | 718-729-0854 | 347-753-4551 |
| 시 오 분 과 | 황윤익 시온 | 낙원장로교회 | 718-275-1259 | 718-482-7788 | |
| 복 지 분 과 | 김기호 목사 | 뉴욕주영장로교회 | 646-783-4211 | 718-628-4781 | 646-783-4211 |
| 뉴 인 분 과 | 송일권 목사 | 퀸즈은혜교회 | | | 917-380-5021 |
| 영 접 분 과 | 허윤준 목사 | 뉴욕새생명장로교회 | 718-464-3008 | 718-464-3008 | 718-937-1478 |
| 결 조 분 과 | 김용익 목사 | 뉴욕주신장로교회 | 718-786-9296 | 718-690-9298 | 718-310-7092 |
| 미 디 어 분 과 | 주호식 목사 | 뉴욕침례교회 | 212-577-9907 | 212-629-7372 | 646-275-8618 |
| 국 제 분 과 | 박국화 목사 | 한마음침례교회 | 718-353-3159 | 718-445-2854 | 917-902-9509 |
| 정 탐 분 과 | 황성은 목사 | 뉴욕선민교회 | 718-352-4071 | 718-961-5241 | |

**지역협력위원회**

| | | | | | |
|---|---|---|---|---|---|
| 스태튼아일랜드 | 김영기 목사 | U.I.연합장로교회 | 718-477-9662 | 718-983-5500 | |
| 브 르 클 린 | 김재경 목사 | 브르클린연합감리교회 | 646-637-7974 | 718-891-8878 | 646-637-7974 |
| 롱아일랜드 | 김태근 목사 | 롱아일랜드 침례교회 | 718-961-8121 | 718-693-1224 | |
| 웨 체 스 트 | 이태준 목사 | 웨체스터연합교회 | 914-738-0306 | 914-738-3076 | |

**지부대**

| | | | | |
|---|---|---|---|---|
| 유경희 집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516-487-4490 | | |
| 박 형 권 사 | 뉴욕장로교회 | 718-507-1399 | |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역대회장


초대 한영교 목사


2대 유태영 목사


3대 김태종 목사


4대 장영춘 목사


5대 이재훈 목사


6대 신성욱 목사


7대 박희소 목사


8대 김용주 목사


9대 홍호균 목사


10대 남박희 목사


11대 허문구 목사


12대 김용걸 신부


13대 김상모 목사


14대 김정국 목사


15대 양희철 목사


16대 장석진 목사


17대 방지각 목사


18대 정태진 목사


19대 김남수 목사


20대 조덕현 목사


21대 박순종 목사


22대 한재홍 목사


23대 한세원 목사


24대 박수복 목사


25대 최용일 목사


26대 안형의 목사


27대 송형기 목사


28대 황강일 목사


29대 김형석 목사


30대 허 길 목사


31대 김종덕 목사


32대 이병용 목사


33대 정수영 목사


34대 황동익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35회기 이사회 임원 명단



이사장 유일용 집사 | 부이사장 김기철 권사 | 부이사장 여주익 집사 | 부이사장 손석환 장로 | 부이사장 최한일 권사

| | | Church or Office | Home |
|---|---|---|---|
| 이 사 장 | 유일용 집사 | 순복음뉴욕교회 | 646-521-0099 | 917-575-2079 |
| 부이사장(이사담당) | 김기철 권사 | 참사랑교회 | 718-239-2261 | 917-478-5512 |
| 부이사장(대내담당) | 여주익 집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646-410-5757 | |
| 부이사장(대외담당) | 손석환 장로 | S.I. 장로교회 | 212-734-1093 | 917-273-6142 |
| 부이사장(기획담당) | 최한일 권사 | 루터신학교회 | 718-939-8599 | 718-679-8766 |
| 총 무 | 송태보 집사 | 뉴욕한인중앙교회 | 347-564-6090 | |
| 서 기 | 백달엽 장로 | 퀸즈한인교회 | 917-417-7227 | |
| 회 계 | 김태수 집사 | 뉴욕예일장로교회 | 718-672-4645 | 347-386-8429 |
| 감 사 | 최재복 장로 | 뉴욕한인제일교회 | 718-939-0444 | 917-335-5200 |
| 체육진흥사업/기획 | 정경진 집사 | 뉴욕장로교회 | 718-358-4298 | 917-363-6055 |

## 역대 이사장



1대 백지각 목사 | 2대 김우성 목사 | 3대 임명남 장로 | 4대 서용해 장로 | 5대 설홍섭 장로 | 6대 김종대 장로
7대 김영환 목사 | 8대 최원호 장로 | 9대 이광모 장로 | 10대 황일청 장로 | 11대 김정녀 장로 | 12대 최병우 장로
13대 박해동 장로 | 14대 임우송 장로 | 15대 윤석주 장로 | 16대 황일봉 장로 | 17대 최한덕 장로 | 18대 박영기 장로
19대 송정호 장로 | 20대 육지영 장로 | 21대 장원석 장로 | 22대 한영숙 장로

29



## 제35회 정기 총회

뉴욕교협 35회 정기 총회가 10월 20일(월) 오전 10시 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 정기 총회 시에 목사님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 35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창섭 목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평신도부 회장 한영숙 장로



▲ 교협 전 임원들과 새 회장단 기념 촬영



▲ 정기 총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 제35대 회장 취임예배

제35대 회장 최창섭 목사는 11월 10일(월) 에벤에셀선교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렸다.



▲ 34대 황동익 회장이 35대 최창섭 목사에게 뉴욕교협기를 이임하고 있다.



▲ 제35회기 교협 임원들과 교협 이사 임원들 기념 촬영



▲ 제35대 취임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 2009년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2009년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주후 2009년 1월 5일(월)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가졌다. 준비위원장에 황영진 목사, 사회에 신현택 목사, 기도에 김수태 목사, 설교는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가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진리 등대"(마 5:13~16; 딤전 3: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황동익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친 후 서로를 축복하며 기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 신년사를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장영춘 목사





▲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며 모두 다 함께 기도합니다(이세목 한인회장, 그레이스맹 뉴욕주하원의원, 김경근 뉴욕총영사, 잔리우 뉴욕 시의원 등 내빈들도 함께).



▲ 신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 회장 최창섭 목사가 장영춘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



▲ 회장 최창섭 목사가 순복음 뉴욕교회에게 (황일봉 장로) 감사패 전달



▲ 쟌리우 시의원에게 감사패 전달(대리)



▲ 쟌리우 시의원이 전 회장 황동익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





▲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접수를 받고 있는 총무 유상열 목사, 유경희 간사, 이미진 집사 및 여성목회분과 윤숙현 목사, 부회계 지교찬 목사, 역사자료분과 박이스라엘 목사



▲ 교협 임원 및 이사회 : 왼쪽부터 이사장 유일웅 집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회장 최창섭 목사, 준비위원장 황영진 목사, 총무 유상열 목사, 부회계 지교찬 목사, 서기 김홍석 목사, 부서기 김희복 목사, 감사 최재복 장로, 회계 이광모 장로

## 제1차 실행위원회

제35대 회장 최창섭 목사는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새생명장로교회(허윤준 목사)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 교협 목회자 금식기도회

35대 회장 최창섭 목사는 1월 25~26일 롱아일랜드 동산기도원에서 제1차 금식기도회를 열었다.



▲ 25일 예배를 마치고



▲ 설교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요양원 위문

제35회기 교협 임원단은 1월 29일(목) 오후 롱아일랜드 한국 요양원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말씀을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경청하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 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 및 임원단과 요양원 김지나 원장(뒷줄 오른쪽 두 번째)과 함께

## 한어권 청소년 지도자 초청 간담회

뉴욕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는 1월 31일(토) 오후 베이사이드 거북선(옛 대동면옥)에서 한어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지도자'를 초청하여 대담 시간을 가졌다.



▲ 말씀을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경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



▲ 사역자들과 대담하는 학원사역위원장 양희철 목사, 회장 최창섭 목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총무 유상열 목사

## 교협 사모 세미나

뉴욕교협 사모분과(위원장 황은숙 사모)에서는 2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낙원장로교회(황영진 목사)에서 이성은 사모(필라큰믿음제일교회)를 초청하여 기독교 가정의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이성은 사모



▲ 세미나에 참석한 사모들

## 교협 이단 대책 세미나

뉴욕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는 2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로는 구원파 전문가이며 8년간 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동섭 목사를 초청하여, '구원파 집중 분석'을 통해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를 증거했다.




▲ 뉴욕교협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이종명 목사와 강사 정동섭 목사




▲ 이단 대책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와 함께 기념 촬영



## 교협 부활절 예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뉴욕 지역을 24개 지역으로 나누어 23교회에서 4월 12일(주일) 새벽 6시에 일제히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 청소년 농구대회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제11회 청소년 농구대회를 4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러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교협 임원과 이사장, 청소년 사역자들이 함께


▲ 쉿하고 골을 넣는 멋진 장면


▲ 두 장소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모습



▲ 우승한 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교단대표 초청 간담회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5월 12일(화) 뉴욕 교계 최초로 뉴욕 일원 각 교단 대표(노회, 지방회) 회장들을 초청하여 교단의 협력을 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아름다운 단합의 기회를 가졌다.


▲ 말씀을 전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회의를 진행하는 총무 유상열 목사


▲ 교단 대표 기념 촬영

## 영적 각성 집회

2009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앞둔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유기상 목사(예수세계선교회 회장)를 강사로 초청하여 5월 22일(금)부터 24일(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탈출은 영적 각성으로부터"란 제목으로 뉴욕 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3일간 집회를 가졌다.



▲ 집회를 선포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유기상 목사



▲ 찬양 팀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성도들



## 교협 체육대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는 5월 25일(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교회 연합으로 체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금년에 축구, 족구, 배구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는 22개 교회와 EM에서 63팀이 참가했다. 체육대회 결과는 배구에서 장년부 1등은 뉴욕베데스다교회, 청년부 1등은 순복음뉴욕교회, 중고등부 1등은 퀸즈중앙교회, 여성부 1등은 뉴욕에일장로교회가 차지하고, 축구에서 1등은 뉴욕초대교회, 족구는 뉴욕성결교회가 차지했다.






▲ 체육대회 시작하기 전 예배 중에 설교하는 회장 최창섭 목사








▲ 내 멋진 서브를 받아 보세요.



▲ 참가 팀이 많아 여러 코트로 나누어 경기 중이다.



▲ 축구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는 체육분과 이창남 목사와 양 선수들



▲ 볼을 드리볼하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수들



▲ "내 볼 받아보세요?" 배구의 멋진 모습들



▲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최창섭 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 할렐루야 전도대회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은 2009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제1차 준비기도회를 4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효성교회(김영환 목사)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2차는 6월 11일(목) 뉴욕새천년교회(석문상 목사)에서, 제3차는 6월 29일(월)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에서, 제4차는 7월 6일(월)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에서 개최하였다. 제4차에는 제3차 실행위원회도 겸하여 개최했다.



▲ 제1차 준비기도회-4월 29일(수) 뉴욕효성교회(김영환 목사)



▲ 제2차 준비기도회-6월 11일(목) 뉴욕새천년교회(석문상 목사)



▲ 제3차 준비기도회-6월 29일(월)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



▲ 제4차 준비기도회-7월 6일(월)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



▲ 35년사 책을 편집하고 있는 교협 유경희 간사와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



▲ 편집중인 편집장 박이스라엘 목사





**대뉴욕 전도대회**

## 강사/ 이동원 목사

윌벳 졸, 고든학교 졸업
William Tyndale College 졸업 (명예신학박사)
고든대학교 교목대학원(M.Div, 명예논문박사 전공) 졸업
Southeastern Baptist Seminary 졸업 (M.Div 전액, 교목직 학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D.Min 선교신학 박사)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D 명예신학 박사)

미국 워싱턴기쁜교회 담임목사 역임
분당은혜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무임 대표 역임
KOSTA 창립 개척 및 시작
한국은혜개혁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대표
리노비전 공동대표
기쁨실교학스피레벳 세미워크 공동리포트
CMI 리사
OM 한국 총본부 회장/미국장 역임
한국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저서는 (시를 보호하는 하늘의 보호) (하늘로 살아가는 영혁), (어른이 신을 신고 있는다) (우리가 사모해는 푸른 초장) (우리가 사모해는 건강한 교회) (당신이 무엇입에 도전하세) (예수님 그의 이름은 부릅합니다) (예수님과 가족한 습관) (인생이항) 외 다수의 강해 설교집이 있다.



**어린이 전도대회**

## 강사/ Helen Kim (헬렌 김) 전도사

Children's Pastor @ Full Gospel NY Church
Promiseland Elementary (1st-4th-graders)
B.F.A -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Jewelry Design)
M.Div -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EM 전도대회**

## 강사/ Jae Park (제이 박) 목사

Antioch Church of Philadelphi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B.S.)
AG NY School of Theology
Exodus Ministry Group - Founded directed a youth
Youth Leadership Seminar speaker
JAMA/Student Ministry Program Director



## 알밸루아 30년 역사

| 대회 | 대회장 | 부 시 장 소 | 강 사 |
|---|---|---|---|
| 1회 (1980) |  | 대 회 장 : 전성구 목사<br>준비위원장 : 박재열 목사<br>일 시 : 7월 11일-13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김동선 목사 |  |
| 2회 (1981) |  | 대 회 장 : 박희수 목사<br>준비위원장 : 장상진 목사<br>일 시 : 7월 7일-7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박요한 목사 |  |
| 3회 (1982) |  | 대 회 장 : 김동주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이수 목사<br>일 시 : 7월 7일 - 4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이대형 목사<br>찬양인도자 : 김은율 목사 |  |
| 4회 (1983) |  | 대 회 장 : 홍호선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상진 목사<br>일 시 : 6월 30일-7월 2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김홍주 목사 |  |
| 5회 (1984) |  | 대 회 장 : 남택희 목사<br>준비위원장 : 신하철 목사<br>일 시 : 7월 5일-6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박종기 목사 |  |
| 6회 (1985) |  | 대 회 장 : 이문구 목사<br>준비위원장 : 김영호 목사<br>일 시 : 7월 4일-7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정성출 목사 |  |
| 7회 (1986) |  | 대 회 장 : 김광신 선생<br>준비위원장 : 김영호 목사<br>일 시 : 7월 7일-9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김진호 목사<br>찬양인도자 : 김요한 전도사 |  |

| 대회 | 대회장 | 부 시 장 소 | 강 사 |
|---|---|---|---|
| 8회 (1987) |  | 대 회 장 : 김상진 목사<br>준비위원장 : 손연구 목사<br>일 시 : 7월 2일-3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찬양인도자 : Charles Ferrara |  |
| 9회 (1988) |  | 대 회 장 : 김한규 목사<br>준비위원장 : 김영수 목사<br>일 시 : 7월 7일-10일<br>장 소 : 롱기랜드교회<br>강 사 : 이요한 목사<br>찬양인도자 : 차미경 목사 |  |
| 10회 (1989) |  | 대 회 장 : 장하진 목사<br>준비위원장 : 한기준 목사<br>일 시 : 6월 29일-7월 2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이재학 목사<br>찬양인도자 : 김은근 성로 |  |
| 11회 (1990) |  | 대 회 장 : 정하진 목사<br>준비위원장 : 고기준 목사<br>일 시 : 7월 3-4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Daniel Kaufman |  |
| 12회 (1991) |  | 대 회 장 : 방지각 목사<br>준비위원장 : 유병기 목사<br>일 시 : 7월 4일-7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김성환 목사<br>찬양인도자 : 김은미 목사 |  |
| 13회 (1992) |  | 대 회 장 : 정하진 목사<br>준비위원장 : 박순호 목사<br>일 시 : 7월 2일-5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조동노 목사<br>찬양인도자 : 김은미 전도사 |  |
| 14회 (1993) |  | 대 회 장 : 김남수 목사<br>준비위원장 : 김노아 목사<br>일 시 : 7월 7일-9일<br>장 소 : 롱기랜드시 대강당<br>강 사 : 이승희 목사<br>찬양인도자 : 이재학 목사<br>대회기도자 : 이재학 선생 |  |
| 15회 (1994) |  | 대 회 장 : 조기선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세진 목사<br>일 시 : 6월 30일 - 7월 2일<br>장 소 : 롱기랜드교회<br>강 사 : 김동호 목사<br>찬양인도자 : 김영환 목사<br>대회기도자 : 조용기 전도사 |  |

복음독고
세대으로

| 대회 | 대회장 | 일시<br>장소 | 감사 |
|---|---|---|---|
| 교협17대<br>제16회<br>(1995) |  | 대 회 장 : 박승준 목사<br>준비위원장 : 김태근 목사<br>일 시 : 7월 3일-5일<br>장 소 : 드림랜드 클리브랜드<br>강 사 : 최낙중 목사<br>특강강사 : 김명혁 목사<br>찬양인도 : 김하인 목사 |  |
| 교협18대<br>제17회<br>(1996) |  | 대 회 장 : 한태홍 목사<br>준비위원장 : 박수복 목사<br>일 시 : 7월 11일-14일<br>장 소 : 롯데아이스아레나<br>강 사 : 이관직 목사<br>찬양인도 : 김하인 목사<br>특강강사 : 서정오 목사<br>마지막날사 : 서정오 목사 |  |
| 교협19대<br>제18회<br>(1997) |  | 대 회 장 : 한석원 목사<br>준비위원장 : 최정일 목사<br>일 시 : 7월 10일-13일<br>장 소 : 롯데아이스 클리브랜드<br>강 사 : 김홍기 목사<br>찬양인도 : 나하나 앤드 리리사<br>마지막날사 : Elias Yoon 목사님 |  |
| 교협20대<br>제19회<br>(1998) |  | 대 회 장 : 박수복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영관 목사<br>일 시 : 7월 9일-12일<br>장 소 : 롯데아이스 클리브랜드<br>강 사 : 서정오 목사<br>특강강사 : 스티브 윤 선교사<br>마지막날사 : Michael Park 전도사 |  |
| 교협21대<br>제20회<br>(1999) |  | 대 회 장 : 최성범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성욱 목사<br>일 시 : 7월 8일-11일<br>장 소 : 롯데팰리스 클리브랜드<br>강 사 : 서정오 목사<br>특강강사 : John Kim,<br>Dr. Paul Dr. Lee & Pastor<br>마지막날사 : 이종석 목사 |  |
| 교협22대<br>제21회<br>(2000) |  | 대 회 장 : 이원이 목사<br>준비위원장 : 김석용 목사<br>일 시 : 7월 14일-17일<br>장 소 : 뉴욕한국교회<br>강 사 : 김정훈 목사<br>특강강사 : Rev. Tim Marcavis,<br>Rev. Jim Doo Park<br>마지막날사 : 이드보배 전도사 |  |
| 교협23대<br>제22회<br>(2001) |  | 대 회 장 : 송병기 목사<br>준비위원장 : 김영식 목사<br>일 시 : 6월 29일-7월 1일<br>장 소 : 롯데팰리스<br>강 사 : 최이식 목사<br>특강강사 : Jay J. Oh 목사<br>마지막날사 : 이드보배 전도사 |  |
| 교협24대<br>제 23회<br>(2002) |  | 대 회 장 : 황경일 목사<br>준비위원장 : 이다윗 목사<br>일 시 : 7월 7일-10일<br>장 소 : 롯데팰리스 클리브랜드<br>강 사 : 김지연 목사<br>특강강사 : Cha Ryan 목사<br>마지막날사 : 이계자 전도사 |  |

| 대회 | 대회장 | 일시<br>장소 | 감사 |
|---|---|---|---|
| 교협25대<br>제 24회<br>(2003) |  | 대 회 장 : 김정식 목사<br>준비위원장 : 김태근 목사<br>일 시 : 7월 7일-10일<br>장 소 : 뉴욕인교회<br>강 사 : 박희천 목사<br>마지막날사 : 신예경 목사 |  |
| 교협26대<br>제25회<br>(2004) |  | 대 회 장 : 서 강 목사<br>준비위원장 : 최대성 목사<br>일 시 : 7월 7일-10일<br>장 소 : 롯데팰리스 클리브랜드<br>강 사 : 이관직 목사<br>마지막날사 : 조무열 전도사 |  |
| 교협27대<br>제26회<br>(2005) |  | 대 회 장 : 김영대 목사<br>준비위원장 : 김홍기 목사<br>일 시 : 6월 30일-7월 3일<br>장 소 : 뉴욕한국교회<br>강 사 : 이동원 목사<br>마지막날사 : 최정근 목사<br>마지막날사 : 신예경 목사 |  |
| 교협28대<br>제27회<br>(2006) |  | 대 회 장 : 이원이 목사<br>준비위원장 : 김기주 목사<br>일 시 : 6월 30일-7월 3일<br>장 소 : 롯데팰리스 클리브랜드<br>강 사 : 이동원 목사<br>마지막날사 : 조무열 전도사 |  |
| 교협29대<br>제28회<br>(2007) |  | 대 회 장 : 정수영 목사<br>준비위원장 : 김진희 목사<br>일 시 : 7월 2일-7월 5일<br>장 소 : 롯데아이스아레나<br>강 사 : 김명혁 목사<br>마지막날사 : 김명혁 전도사 |  |
| 교협30대<br>제29회<br>(2008) |  | 대 회 장 : 황동석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상제 목사<br>일 시 : 7월 1일-7월 4일<br>장 소 : 롯데팰리스<br>강 사 : 김정훈 목사<br>마지막날사 : 김정훈 전도사 |  |
| 교협31대<br>제30회<br>(2009) |  | 대 회 장 : 최대성 목사<br>준비위원장 : 이상제 목사<br>일 시 : 7월 1일-7월 4일<br>장 소 : 롯데팰리스<br>강 사 : 이동원 목사<br>찬양인도 : 박 희 목사<br>마지막날사 : 김명혁 전도사<br>대 표 기 도 : 이상제 목사<br>부 대회장 : 이상제 목사<br>김기주 목사<br>김진희 목사<br>김홍기 목사<br>박 희 목사<br>박 서 기 : 김명혁 목사<br>회 계 : 이상제 목사<br>부 회 계 : 김기주 목사 |  |





▲ "2009 할렐루야 대뉴욕전도대회" 첫째 날 대회사를 하는 대회장 최창섭 목사



▲ 전도와 변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사 이동원 목사



▲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은혜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들과 순복음뉴욕교회 찬양팀



▲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이동원 목사와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 결신의 시간에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하는 성도들의 모습



▲ "2009 할렐루야 대회"를 관장하는 총무 유상열 목사의 광고하는 모습




▲ 안내하고 있는 전도대학 학생들




▲ 교협 서기 김홍석 목사, 박향 간사, 박이스라엘 목사, 유경희 간사



▲ 퀸즈장로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의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 뉴욕교협(회장 최창섭 목사)이 3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가운데 서기 김홍석 목사가 취지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31명의 장학금 수여자 중 대표로 3명이 장학금을 받고 회장 최창섭 목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회장 최창섭 목사가 유재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회장 최창섭 목사가 김희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 회장 최창섭 목사가 박해령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모두 은혜 받는 시간



▲ 7월 11일(토) 오전 이동원 목사를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초청하여 "포스트모던시대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 대회 셋째 날에는 단기 선교팀 81명이 단상에 올라와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선교의 사명 감당과 개선을 위하여 회장 최창섭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 열심히 경청하는 총무, 준비위원장, 회장, 강사와 성도들



▲ 합심으로 기도하는 무리들





▲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 "오늘 이 시간 다시 영원히 제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들



▲ 성회 마지막 날 효신장로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의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강사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다.



▲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 복도 룸에서 TV를 통하여 은혜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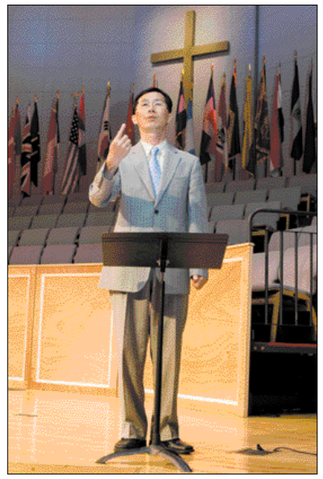
▲ 2009 할렐루야 대회장 최창섭 목사와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와 목회자들이 정성을 다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교협 부회장 신현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한인교회들과 교회협의회는 한인 교포사회 뿐만 아니라 타민족 사회의 구원의 사명과, 한국교회의 지원과 교류, 세계선교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것과, 특히 우리 2세들이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으로 '할렐루야 2009 대뉴욕복음화대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 부회장 한영숙 장로, 회장 최창섭 목사, 강사 이동원 목사, 부회장 신현택 목사



▲ 성회 기간 동안 수화로 통역한 이철희 목사



▲ 성령 충만과 열정으로 찬양하는 사라정 자매



▲ 은혜와 열정으로 찬양을 수화로 통역하는 황혜련 자매



▲ 성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강사와 목회자들



▲ 강사 이동원 목사와 교협 임원진들





▲ 교협 회장 최창섭 목사와 강사 이동원 목사



▲ 강사 이동원 목사와 교협 이사들



▲ 강사 이동원 목사와 교협 실행위원들

## 어린이 전도대회

7월 10일(금) -12일(주일)까지 헬렌김 전도사(순복음뉴욕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순복음뉴욕교회에서 어린이전도대회를 개최했다.



▲ 어린이 전도대회 강사 헬렌김 전도사



▲ 대회 유년분과 이지용 목사와 그룹 교사



▲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전도사





▲ 강사 김 전도사와 함께 기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은혜스럽다.



▲ 그룹 교사들과 함께 그룹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들



▲ 예수님 살아계시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믿고 기도합니다.

##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대뉴욕교회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는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7월 23일(목) 저녁부터 25일(토)까지 제이박 목사(뉴저지 그레이스커뮤니티채플)를 강사로 초청하여 순복음뉴욕교회(김남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 본 대회를 위해 50여 명의 모든 스태프가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준비기도회를 가졌고, 7월 19일(토) 오후 6시에 준비모임과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 찬양하는 청소년들



▲ 강사 제이박 목사와 EM 사역자 스티브황 목사







▲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팀과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



▲ 강사 박목사와 기도하는 청소년들



▲ 함께 찬양하는 김남수 목사, 회장 최창섭 목사, 청소년분과 이재홍 목사

35 YEARS HISTORY



# 제6부

## 뉴욕 2009년
## 동포사회



#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주 동포 현황

동포 현황 : 426,255명(2007. 5. 1 기준)

| 주 별 | 동포수 |
|---|---|
| 뉴 욕 | 210,888 |
| 뉴 저 지 | 140,631 |
| 펜실베이니아 | 58,667 |
| 코네티컷 | 12,569 |
| 델라웨어 | 3,500 |
| 계 | 426,255 |

동포단체 현황 : 총 204개

| | | | |
|---|---|---|---|
| 한 인 회 | 28 | 사회봉사단체 | 24 |
| 직능단체 | 39 | 향군단체 | 12 |
| 동포언론 | 20 | 청소년·교육 | 8 |
| 문화예술단체 | 13 | 차세대단체 | 8 |
| 노인단체 | 12 | 체육단체 | 6 |
| 향 우 회 | 6 | 번영회 | 2 |
| 기타 사회단체 | 26 | | |



## 공공기관

뉴욕주국제경제개발국 ····· (212)803-2300
N.Y.S.D.E.D
633 3 Ave. 33Fl. New York NY 10017

뉴욕주국제경제개발국(본부) · (800)782-8369
INTERNATIONAL DIVISION EMPIRE STATE DEVELOPMENT
633 3 Ave. New York NY 10017

뉴욕주청사민사(가정)법원 · (212)788-7507
THE CONCILIATION COURT
60 Cathedral Place #9 New York NY 10035

뉴욕총영사관(인권실) ····· (646)674-6000
KOREAN CONSULATE GENERAL, NY
460 Park Ave. 6Fl. New York NY 10022

뉴욕총영사관(본청) ····· (646)674-6000
KOREAN CONSULATE GENERAL, NY
335 E. 45 St. New York NY 10017

뉴욕한국문화원 ····· (212)759-9550
KOREAN CULTURAL SERVICE OF NY
460 Park Ave. 6Fl. New York NY 10022

뉴욕AT센터 ····· (516)829-1633
KOREA AGRO-TRADE CENTER, NY
475 Northern Blvd. #30 Great Neck NY 110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12)826-0900
KOTRA
450 Park Ave. #402 New York NY 10022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213)385-9300
KOREAN CONSULATE GENERAL L.A.
3243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미한국상공회의소 ····· (212)644-0140
KOCHAM
460 Park Ave. #410 New York NY 100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욕협의회 · (718)353-2501
NYCOCE (NY)
41-23 150 St(3Fl) Flushing NY 1135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주북미) · (212)481-5510
NYCOCE (NAPC)
1359 Broadway #468 New York, NY 10001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415)921-2251
KOREAN CONSULATE GENERAL
3500 Clay St. San Francisco CA 94118

시애틀총영사관 ····· (206)441-1011
KOREAN CONSULATE GENERAL
2033 6 Ave. #1125 Seattle WA 98121

시카고총영사관 ····· (312)822-9485
KOREAN CONSULATE GENERAL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애틀란타총영사관 ····· (404)522-1611
KOREAN CONSULATE GENERAL
229 Peachtree St. Atlanta GA 30303

유엔한국대표부 ····· (212)439-4000
REPUBLIC OF KOREAN MISSION TO THE U.N.
335 E. 45 St. New York NY 10017

전라남도뉴욕통상사무소 ·· (212)223-3635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460 Park Ave. #400 New York NY 10022

주미한국대사관 ····· (202)939-5600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ASHINGTON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주미한국영사관 ····· (202)939-5661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ASHINGTON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충청남도미국무역관 ····· (201)399-0096
CHUNG NAM U.S. OFFICE
55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국관광공사(뉴욕지사 ···· (201)585-0909
KOREA TOURISM ORGANIZATION OF NY
2 Executive Dr. #730 Fort Lee NJ 07024

한국주택협회뉴욕지부 ···· (212)421-8804
KETANY
460 Park Ave. #1101 New York NY 1002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212)755-1767
KOREA LOCAL GOV. CENTER
150 E. 58 St. 14Fl. New York NY 10155

호놀룰루총영사관 ····· (808)595-6109
KOREAN CONSULATE GENERAL
2756 Pali Hwy. Honolulu HI 96817

휴스턴총영사관 ····· (713)961-0186
KOREAN CONSULATE GENERAL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한인회

뉴욕업스테이트한인회 ···· (917)992-1772
NY UPSTATE KOREAN ASSO.
23 Fairground Rd. Monticello NY 12701

뉴욕웨체스터한인회 ····· (914)963-0800
THE KOR.-AME. ASSO. OF WESTCHESTER
491 S. Broadway Yonkers NY 10705

뉴욕한양약사회 ····· (914)963-0800
THE KOR.-AME.PHARMACEUTICAL ASOS OF NY
491 S. Broadway Yonkers NY 10705

뉴욕한인회 ····· (212)255-0909
THE KOR.-AME. ASSO. OF GREATER NY
149 W. 24 St. 6Fl. New York NY 10011

뉴저지중앙한인회 ····· (718)208-3858
KOR.-AME. NJ CENTRAL ASSO.
6 Freemont Ln. Colts Neck NJ 07722

뉴저지한인회 ····· (201)944-4141
THE KOR.-AME. ASSO. OF NJ
440 Bergen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대남부뉴저지한인회 ····· (856)489-5815
THE GREATER SOUTHERN NJ KOR.-AME. ASSO.
1725 Rt. 70 E. #5 Cherry Hill NJ 08003

델라웨어한인회 ····· (302)654-3868
THE KOREAN AMERICAN ASSO.OF DELAWARE
1322Concord Ave. Wilmington DE 19802

로체스터한인회 ····· (585)202-1880
THE GREATER ROCHESTER KOR.-AME. ASSO.
P.O.Box 23745 Rochester NY 14623

롱아일랜드한인회 ····· (516)627-2260
THE KOR.-AME. ASSO. OF THE L.I.
3326 Hillside Ave. New Hyde Park NY 11040

마운트버논한인회 ····· (914)576-6006
MT. VERNON KOREAN ASSO.
38-4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몽고메리카운티한인회 ···· (215)722-5040
MONTGOMERY COUNTY KOR.-AME. ASSO.
1008 Oak Shade Ave. (Elkins Park PA 19027

미주한인회총연합회 ····· (703)091-7185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 USA
11864 Sunrise Valley Dr. #200 Reston VA 20191

브루클린한인회 ····· (646)541-3300
KOREAN AMERICAN BROOKLYN ASSO.
640 A Vanwelbt Brooklyn NY 11238

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 (718)983-1361
THE KOR.-AME. ASSO. OF STATEN ISLAND
220 Merry Mount St. Staten Island NY 10314

시라큐스한인회 ····· (315)534-1249
KOREAN ASSO. OF SYRACUSE
6430 North Emerald Circle Rome NY 13440

중부뉴저지한인회 ····· (201)919-9335
KOR.-AME. ASSO. OF MIDDLE NJ
450 Union Hill Rd. #140 Morganville NJ 07751

퀸즈중부한인회 ····· (718)779-2700
KOR.-AME.ASSO.OF MID-QUEENS
47-254 80 St. Elmhurst NY 11373

포코노한인회 ····· (570)424-1254
KOR.-AME.ASSO.OR THE POCONO
227 Lake of the Pines E. Stroudsburg PA 18301

포트리한인회 ····· (201)944-9548
KOR.-AME. ASSO. OF FORT LEE
P.O.Box 2164 Fort Lee NJ 07024

플러싱한인회 ····· (718)899-7800
KOR.-AME. ASSO. OF FLUSHING
43-24 166 St. Flushing NY 11358

피츠버그한인회 ····· (412)421-8520
THE KOREAN ASSO. OF THE GREATER PITTSBURGH
649 Garden City Dr. Monroeville PA 15146

필라델피아한인회 ····· (215)627-2140
KOR.-AME. ASSO. OF GREATER PHILA.
6104 Rising sun Ave. Philadelphia PA 19111

## 사회단체

9.11한인유족회 ····· (201)541-6300
9.11 KOREAN VICTIM FAMILY ASSO.
440 Sylvan Ave. #200 Englewood Cliffs NJ 07632

가정경호보험프리스티지캐어 · (212)675-4450
PRESTIGE CARE
12 W. 18 St. 2Fl. New York NY 10011

경로센터 ····· (718)961-2849
SENIOR CITIZEN CENTER
133-35 Roosevelt Ave. 2Fl. Flushing NY 11354

국제결혼여성모임 ····· (718)357-6728
INT'L MARRIGE WOMEN CLUB
45-52 194 St. Flushing NY 11358

국제피겨학회 ····· (201)385-2307
THE INT'L TOBOGHAN S. OF NY
151 Whitman Dr. Hawrrth NJ 07641

글로벌어린이재단뉴욕사무소 · (201)599-7333
GLOBAL CHILDREN FOUNDATION
7 Ridge Rd. #2K Ridgewood NJ 07450

김재규의사추모회 ····· (718)886-2886
A.C.M.M._JAE KYU KIM
35-50 157 St. Flushing NY 11354

뉴기독교TV방송 ····· (718)359-3951
KOREAN CHRISTIAN TV SYSTEM OF NY
18-02 College Point Blvd. 3Fl. College Point NY 11356

뉴비전청소년커뮤니티센터 · (215)782-3789
NEW VISION YOUTHCOMMUNITYCENTER
36 Limekiln Pike Glenside PA 19038

뉴욕드라이크리너스협회 ·· (718)493-3695
KOREAN DRY CLEANERS ASSO.OF NY
571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6

뉴욕예지원 &재미한국부인회 · (718)225-3922
YE JI WON &BU IN HWAE
43-10 220 Pl. Bayside NY 11361

뉴욕청소년센터 ····· (718)321-1010
KOREAN YOUTH CENTER OF NY
35-34 Union St. 1Fl. Flushing NY 11354

뉴욕크리장애아동서비스센터 · (917)575-9655
THE CENTER FOR OPPORTUNITIES CHOICE &OUTCOMES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뉴욕플러싱문화센터 ····· (718)358-8380
FLUSHING CULTURAL CENTER
42-52 Union St. #212 Flushing NY 11355

뉴욕한국라이온스클럽 ···· (718)281-1891
NY KOR.-AME. LIONS CLUB
215-45 Nortern Blvd. #6 Bayside NY 11361

뉴욕한국어교육원 ····· (212)563-5763
KOREAN LANGUAGE CENTER OF NY
38 W. 32 St. #1112 New York NY 10001

뉴욕한인경찰협회 ····· (718)813-6757
KOR.-AME. POLICE OFFICERS ASSO.
37-05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노인상조회 ····· (718)762-3515
KOR.-AME. SENIOR CITIZENS M.A.
35-30 Union St. 2Fl.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상공회의소 ····· (718)359-4222
THE KOR-AME CHAMBER OF COMMERCE&INDUSTRY OF NY
3370 Prince St.#701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상공회의소 ····· (212)575-1590
NY KOREAN C.O.C.
15 W. 47 St. New York NY 10036

뉴욕한인여성네트워크 ···· (917)370-2259
KOR.-AME. WOMEN'S NETWORK
W. 32 St. 4Fl. New York NY 10001

뉴욕한인유권자센터 ····· (718)961-4117
NY KOR.-AME VOTER'S COUNCIL
35-20 147 St.#2D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유권자센터자문회의 · (718)961-4117
NY KOREAN AMERICAN VOTERS ADVISORY COUNCIL
35-20 147St. #2D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테니스협회 ····· (917)656-1383
NY K.A.T.A.
25-22 Astoria Blvd. Astoria NY 11102

뉴욕한인YMCA ····· (718)961-1177
YMCA KOREAN PROGRAM
138-4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뉴저지노인회 ····· (201)332-5415
K.A.S.C. A. OF NJ
777 Bergen Ave. #207 Jersey City NJ 07306

뉴저지상록회 ····· (201)242-0018
KOR.-AME. SENIOR CITIZEN ASSO. OF NJ
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상조회 ····· (201)242-0018
KOR.-AME. SENIOR CITIZEN'S MUTUAL AID ASSO.
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여성사회봉사센터 ··· (201)862-1565
AMCA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뉴저지한인사회보장센터 ··· (201)461-9579
NJ KOR.-AME. SOCIAL SERVICE
424 Lincoln St. 1Fl.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 (201)242-4201
NJ KOR.-AME. VOTERS' COUNCIL
1562 Lemoine Ave. 2Fl. Fort Lee NJ 07024

대뉴욕지구공군진우회 ···· (201)488-0911
KOREAN AIR FORCE VETERANS ASSO.
112 S. Newman St. Hackensack NJ 07601

대뉴욕지구광복회 ····· (718)661-8558
THE KWANG BOK ASSO. OF NY
45-33 160 St. 2Fl. Flushing NY 11358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 ···· (718)461-3191
K.A.S.C. ASSO.
149-18 41 Ave. Flushing NY 11355

대한국민국회의원선거재외국민뉴욕선거사무소 · (718)888-3077
S.M. RHEE PH.D. THE 1ST PRES. OF R.KOREA
168-07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도산안창호선생사상연구회 · (718)624-6325
THE NY DO SAN AHN CHANG HO RESEARCH CENTER
3975 White Plains Bronx NY 10466

류패밀리장학재단 ····· (973)692-9696
RYU FAMILY FOUNDATION
186 Parish Dr. Wayne NJ 07470

미국암협회(해켄색지부) ··· (201)343-2222
AMERICAN CANCER SOCIETY (HACKENSACK)
20 Mercer St. Hackensack NJ 07601

미국암협회한인지부 ····· (718)263-1532
AMERICAN CANCER SOCIETY
97-77 Queens Blvd. #1110 Rego Park NY 11374

미드허드슨한인실업인협회 · (845)561-2535
MID HUDSON KOREAN BUSINESS ASSO.
420 Broadway Newburgh NY 12550

미주동부뉴욕클럽지부 ···· (212)779-2410
NEW YORK CLUB (MAHATTAN)
303 5 Ave. #806 New York NY 10016

미주한인여성네트워크 ···· (917)370-2269
KOR.-AME. WOMEN'S NETWORK
30 W. 32 St. 4Fl. New York NY 10001

미주한인청소년재단 ····· (718)461-8300
THE KOR-AME. YOUTH FOUNDATION
29-50 Union St. 2Fl. Flushing NY 11354

민족통일미동부협의회 ···· (201)487-0724
F.T.R.O.F.K.N.U.
1302 2 Ave. New York NY 10021

민주수호동지회 ····· (718)886-0886
A.O.C.P.D.O.R.
35-50 157 St. Flushing NY 11354

보령머드축제미주본부 ···· (201)871-7122
BORYUNG MUD FASTIVAL
560 Sylvan Ave. 1Fl. Englewood Cliffs NJ 07632

브롱스노인회 ····· (718)733-1907
THE BRONX KOR-AME. S.C.A.
2943 Bainbridge Ave. Bronx NY 10458

브루클린한인노인회 ····· (718)232-9600
KOR-AME.SENIOR CITIZENS ASSO.OF BROOKLYN
1828 53 St. Brooklyn NY 11214

브룩클린한인지역사회관 ·· (718)748-0402
K.A.C.C.B.
7002 4 Ave. Brooklyn NY 11209

비상식량지원센터 ····· (201)242-0018
CENTER FOR FOOD ACTION PAILSADES FARK SITE
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사단법인한국국악협회이동부지회 · (212)921-9344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SSO.
300 W. 43 St. #603 New York NY 10036

새가정이동복지회 ····· (570)491-2366
NEW BEGINNING FAMILY
141 Willis Ave. Mineola NY 11501

서재필기념재단 ····· (215)224-2000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



소망상담센터(DR.이에스더) · (718)939-7800
HOPE COUNSELING MINISTRY
65-37 Broadway Elmhurst NY 11373

스태튼아일랜드YWCA ··· (718)987-3598
STATEN ISLAND KOREAN YWCA
93 steiner St. Staten Island NY 10309

아시아커뮤니티센터 ····· (732)339-0891
ASIAN COMMUNITY CENTER
2016 Woodbridge Ave. Edison NJ 08817

아시안-아메리칸교육센터 · (718)463-5617
ASIAN AMERICAN EDUCATION CENTER
143-30 Cherry Ave. Flushing NY 11355

월드비전 ····· (888)625-1350
www.wvkor.org
P.O Box 5716 Federal Way WA 98063

재미한국청소년연합 ····· (718)460-8474
YOUNG KOREAN UNITED OF NY
136-79 41 Ave. 3Fl. Flushing NY 11355

전미한인학교협의회스태튼아일랜드 · (718)981-7997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10A Darrow Ave. Staten Island NY 10314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 (212)971-0006
CITIZENS COALITION FOR JUSTICE
1270 Broadway #416 New York NY 10001

제이티에스아메리카 ····· (212)736-2014
JOIN TOGETHER SOCIETY AMERICA
520 Main St. New York NY 10044

청년학교 ····· (718)460-5800
Y.E.A.S.L.C.
136-19 41 Ave. 3Fl. Flushing NY 11355

총효회운동본부뉴저지지부 · (201)242-0018
THE HEADQUARTERS OF FAMILY UNITY MOVEMENT OF NJ
40-11 149Pl. Flushing NY 11354

코리안아메리칸시민활동연대 · (212)633-2000
KOR.-AME. LEAGUE FOR CIVIC ACTION
1499 N. 24 St. 6Fl. New York NY 10011

크서스뉴욕한인문학예술협회 · (212)260-2929
HEYKOREAN.COM
36 E. 29 St. #4B New York NY 10016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 ·· (347)678-0800
C.H.N.K.R. NY CHAPTER
P.O Box 546479 College Point NY 11355

한국문화연구재단 ····· (212)563-5763
KOREAN CULTURE RESEARCH, INC.
38 W. 32 St. #1112 New York NY 10001

한국인권문제연구소미동부지회 · (212)381-9819
KOREAN INSTITUTE FOR HUMAN RIGHT
38 W. 32 St. #1204 New York NY 10001

한국인회후예들 ····· (718)448-9497
SONS OF KOREA
23 Endor Ave. Staten Island NY 10301

한미정신건강협회 ····· (617)554-5347
KOR.-AME. BEHAVIORAL HEALTH ASSO., INC.
2710 McClinton St. E. Meadow NY 11554

한인커뮤니티재단 ····· (212)736-5223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213 W. 35 St. #804B New York NY 10001

한족연구기구 ····· (212)759-4520
OASIS, INC.
346 Main St. 9Fl. New York NY 10044

호도회 ····· (718)784-2897
FILIAL PIETY
43-14 43 Ave. Sunnyside NY 11104

흥사단뉴욕지부 ····· (718)279-1523
HEUNG SA DAN Y.K.A
16 32 St. #803 New York NY 10001

K.C.S.플러싱경로회관 ···· (718)886-9203
FLUSHING SENIOR CENTER IN K.C.S.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NY/NJ한인무궁화재향군인회 · (551)574-2015
NY/NJ KOREAN AMERICAN V.A.C.
1562 Lemoine Ave. #2A Fort Lee NJ 07024

YWCA OF QUEENS ···· (718)353-4553
YWCA OF QUEENS
42-4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YWCA OF QUEENS ···· (718)353-4553
YWCA OF QUEENS
42-4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 경제단체

기독실업인회미주총연합회 · (212)268-0669
C.B.M.C.
888 8 Ave. #11J Nyue York NY 10018

뉴욕기독실업인회 ····· (718)359-3651
N.Y.C.B.M.C.
19-02 College Point Blvd. 3Fl. College Point NY 11356

뉴욕한인경제인협회 ····· (212)689-3410
N.Y.K.B.I.
246 5 Ave. #500 New York NY 10001

뉴욕한인식품협회 ····· (718)353-0111
KOR.-AME. GROCERS ASSO. OF NY
39-50 Allerstone Expy. #105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청과협회 ····· (718)842-2424
KOREAN PRODUCE ASSO.
N.Y.C. Terminal Market #26 Bronx NY 10474

뉴저지한인건재인연합회 ·· (201)803-3111
NJ KOREAM CHAMBER OF COMMERCE
21 Grand Ave. #108 Palisades Park NJ 07650

대뉴욕지구공군전역계시협회 · (201)592-0755
THE KOR.-AME. C.P.A. ASSO. OF GREATER NY
2050 Center Ave. #525 Fort Lee NJ 07024

대뉴욕지구해군한인치과의사협회 · (201)944-0990
KOR.-AME. DENTAL ASSO. OF GREATER NY
44 Sylvan Ave. #2E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프랙시티한인상인연합회 · (718)271-2300
LEFRAK CITY K.A. MERCHANT'S ASSO.
98-15 67 Ave. Elmhurst NY 11373

맨해튼기독실업연회 ····· (212)679-0669
MANHATTAN C.B.M.C.
838 8 Ave. 4Fl. New York NY 10001

재정보험협회 ····· (718)762-3282
KOREA AMERICAN ASSO.
36-16 Union St. 2Fl. Flushing NY 11354

제롬건철한인상인연맹회 ·· (718)547-5240
JEROME &GUNSHILL K.M.A.
3509 Jerome Ave. Bronx NY 10467

트랜튼한인건재연합회 ···· (609)896-0764
K.A.B.N.
1 Woodfield Ln. Lawrenceville NJ 08648

한인주류협회 ····· (718)939-0704
THE KOREAN ASSO. OF WINE &SPIRITS
334 E. 3 St. Brooklyn NY 11218

허드슨실업인협회 ····· (201)659-0649
K.C.O.C.O.H.C.
366 Central Ave. Jersey City NJ 07307

K.C.S.무궁화상조회 ····· (718)461-7373
KOREAN MUTUAL AID SOCIETY IN K.C.S.
37-06 111 St. Corona NY 11368

## 문화예술단체

(사)미주한국국악인협회 ··· (646)339-4885
KOREAN TRADITIONAL MUSIC
39 E. 59 St. #12 New York NY 10029

149풍물패 ····· (646)327-9322
149 POONGMUL PLACE
1444 139 St. Whitestone NY 11357

강변문곤일출보존회뉴욕지부 · (718)392-7973
GWANGMUN-GON SUNRISE PRESERVATION SOCIETY GROUP
39-20 Green Point Ave. #4G Sunnyside NY 11104

뉴갑절민문화센터 ····· (516)681-1713
NEW D.M. OPEN CULTURAL CENTER
960 Old Country Rd. Plainvyew NY 11803

뉴욕갈보신교합창단 ····· (718)460-5109
NY MILAL MISSIONARY CHOIR
43-57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심포니오케스트라 ···· (718)229-0911
NEW YORK SYMPHONY ORCHESTRA
254-08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뉴욕챔버심포니오케스트라 · (718)224-1728
NEW YORK SHULAH SYMPHONY ORCHESTRA
254-0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뉴욕에스더플꽃이협회 ···· (718)961-6357
ESTHER FLORAL DESIGN ASSO.
36-4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뉴욕연예인협회 ····· (718)358-7500
KOREAN AMERICAN ENTERTAINERS ASSO. OF NY
40-16 157 St. 2Fl. Flushing NY 11355

뉴욕예술가곡연구회 ····· (212)567-6919
THE NEW YORK ART SONG ASSO.
96 Thayer St. #6G New York NY 10040

뉴욕일보플라자문화센터 ·· (718)358-8380
FLUSHING CULTURAL CENTER
39-17 Union St. #5I Flushing NY 11354

뉴욕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 (914)588-8948
THE KOREAN CHAMBER ORCHESTRA OF NY
17 Rest Ave. Ardsley NY 10502

뉴욕크리스챤오케스트라 ·· (718)461-0198
NY CHRISTIAN ORCHESTRA
42-29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크리스챤오케스트라 ·· (718)229-0911
NEW YORK CHRISTIAN ORCHESTRA
254-18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뉴욕풍물단/사물놀이패예림 · (718)429-5734
NOBI COMPANY
46-24 38 Ave. 1Fl. Woodside NY 11377

뉴욕한국국악원 ····· (718)961-9255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INST.ONY
35-11 Linden Pl. 2Fl.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미술협회 ····· (201)947-0111
NY KOREAN ART ASSO.
304 Main St, Fort Lee NJ 07024

뉴욕한인한국화미술협회 ····· (718)359-4475
KOREAN-AMERICAN ARTIST ASSO.
42-30 Kissena Blvd. #4E Flushing NY 11355

뉴저지콘서트콰이어 ····· (201)503-1080
NEW JERSEY CONCERT CHOIR
40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뉴저지필하모니오케스트라 · (201)503-1080
NEW JERSEY PHILHARMONIC ORCHESTRA
40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동양문화연구소 ····· (203)624-8019
EAST ROCK INSTITUTE
251 Dwight St, New Haven CT 06511

미국평화통일노인단 ····· (917)577-0000
THE PEACE OF KONG AK DAN USA
144-76 Roosevelt Ave, 2Fl, Flushing NY 11354

미동부한인문인협회 ····· (718)278-2197
KOREAN WRITERS A.O.A.
22-36 36 St, Astoria NY 11105

미주대금연주단 ····· (201)800-8867
KOREAN TRADITIONAL MUSIC
333 Sylvan Ave. Leonia NJ 07605

미주한인에크리에이션협회 · (201)400-7480
KOREAN-AMERICAN RECREATION ASSO.
45 Cutl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미주한인서화협회 ····· (718)461-3190
KOREAN CALLIGRAPHY ASSO. OF AMERICA
32-17 Union St, Flushing NY 11354

브니엘콘서트콰이어 ····· (201)933-4681
PENIEL CONCERT CHOIR
P.O.Box 1644 Fort Lee NJ 07024

사단법인한국국악협회이동부지회 · (212)921-9344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SSO.
300 W. 43 St. #800 New York NY 10036

세종솔로이스츠 ····· (212)580-5494
INT'L SEJONG SOLOISTS
37 W. 65 St. 3Fl. New York NY 10023

소극장극도 ····· (718)886-0309
KOUS THEATRE COMPANY, CORP.
35-24 146 St. 1Fl. Flushing NY 11354

스토니부룩한국학회 ····· (631)632-7227
P.J.K.S.S. AT STONY BROOK
Stony Brook University Stony Brook NY 11794

써든엔라이튼먼트씨어터 -- (718)651-7725
SUDDEN ENLIGHTENMENT THEATER
51-60 Van Kleeck St. 2Fl. Elmhurst NY 11373

아름문화센터 ····· (718)359-4476
A-REUM CULTURAL CENTER
146-30 Sanford Ave.JHC Flushing NY 11355

얼댄스디어터사운즈 ····· (212)247-0591
R DANCE THEATRE SOUNDS
245 8 Ave. #4-S New York NY 10011

열린공간(연태룬) ····· (212)679-2055
OPEN CENTER MANHATTAN
19 W. 26 St. 5Fl. New York NY 10010

열린공간(플러싱) ····· (718)353-8989
KOREAVILLAGE OPEN CENTER
150-3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예진꽃예술중앙회 ····· (718)359-4999
YEI JIN FLOWER DESIGN ACADEMY
160-03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우렉심포니오케스트라 ···· (201)998-4975
URIEUK SYMPHONY ORCHESTRA
10 N. Ridge Rd. Denville NJ 07834

이스턴청소년오케스트라 ·· (718)229-9911
EASTERN YOUTH ORCHESTRA
254-18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이영희한국박물관 ····· (212)560-0722
LEE YOUNG HEE KOREA MUSEUM
2 W. 32 St. #301 New York NY 10001

주피터심포니 ····· (212)799-1259
JUPITER SYMPHONY
155 W. 68 St. New York NY 10023

청년학교 ····· (718)460-5900
K.A.C.T. SINAJU
139-19 41 Ave. 3Fl. Flushing NY 11355

충남공예협동조합미주전시관 · (201)871-7122
CHUNGNAM CRAFTS US
569 Sylvan Ave. 1Fl. Englewood Cliffs NJ 07632

코리아댄싱쌀롱 ····· (201)220-2777
TRADITIONAL DANCE K.E.
71 5 St. Cresskill NJ 07626

한국무용예 ····· (201)220-2777
TRADITIONAL DANCE KOREAN ENSEMBLE
71 5 St. Cresskill NJ 07626

한국문화센터 ····· (718)661-0009
THE KOREAN CULTURAL CENTER
39-08 54 St, 69G Woodside NY 11377

한국문화센터 ····· (201)871-1651
THE KOREAN CULTURAL CENTER
5 W. Clinton Ave. Tenafly NJ 07670

한국문화예술연구회뉴욕지부 · (718)353-9043
K.A.S.A. NY BRANCH
37-14 Parsons Blvd. 6SG Flushing NY 11354

한국이술협회뉴욕지부 ···· (201)947-3472
KOREA NEW YORK ARTIST SOCIETY
304 Main St, Fort Lee NJ 07024

한국이술협회뉴욕지부 ···· (201)947-0111
KOREA NEW YORK ARTIST SOCIETY
304 Main St, Fort Lee NJ 07024

한국전국협회뉴욕지부 ···· (718)661-7725
THE NATIONAL THEATER ASSO. OF KOREA
51-60 Van Kleeck St, 2Fl, Elmhurst NY 11373

한국음악재단 ····· (212)580-5404
THE KOREA MUSIC FOUNDATION
37 W. 65 St. 3Fl. New York NY 10023

한국전통예술예술원(구)뉴욕지부 · (212)764-2999
K.T.C.C. (SEVEN STAR THEATER)
700 7 Ave. #1001 New York NY 10036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 (718)359-2100
KOREA FLOWER DESIGN ASSOCIATES
166-03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한누리 ····· (347)831-0268
HANNOORI POONGMUL
105 E Kingsbridge Rd. Bronx NY 10468

한미문화교육협회 ····· (718)229-4725
KOR.-AME. CULTURAL EDUCATION ASSO.
69-04 229 St. Oakland Gardens NY 11364

한미문화원 ····· (201)947-0111
KOR.-AME. CULTURAL CENTER
304 Main St, Fort Lee NJ 07024

한미현대예술협회 ····· (718)939-6927
KOR.-AME. MODERN ART ASSO.
144-04 37 Ave, 3Fl, Flushing NY 11354

한미현재예술협회 ····· (718)939-6927
KOR-AME CONTEMPORARY ARTS ASSO. LTD.
7185396927

한양문화센터 ····· (201)944-8288
HAN YANG CULTURAL CENTER
430 S. Washington Ave, Bergenfield NJ 07621

한인문화교육협의회 ····· (646)327-9322
KCCIN
1444 139 St. Whitestone NY 11357

호인회(시군자 묶인회) ···· (718)939-9991
HO YEON GROUP
137-47 45 Ave. #17H Flushing NY 11355

CA뮤직 ····· (201)944-7219
CA MUSIC
6103 Hilton Ct. Fort Lee NJ 07024

KCS문화센터 ····· (917)359-9811
KCS CULTURAL CENTER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SONATA DA CHIESA · (212)675-8481
SONATA DA CHIESA
141 W. 27 St. New York NY 10001

TKC소년소녀합창단 ····· (917)668-3181
TKC BOYS &GIRLS CHOIR
160-23 80 Ave. 3Fl. Fresh Meadows NY 11366

## 봉사단체

가나안무료번역 ····· (718)594-6161
CANAAN FREE TRANSLATION SERVICES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가나안협사센터 ····· (212)749-7037
CANAAN SOCIETY
603 W. 115 St. New York NY 10025

후선선교무술국교회(중국선협교회) · (718)594-6161
CANAAN CHINESE KOREAN FREE ENGLISH SCHOOL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가정문제연구소(대표:나경소장) · (718)321-2488
THE KOREAN FAMILY C. &R. CENTER
35-71 162 St. Flushing NY 11358

가정선교회 ····· (914)965-5755
F.L.M.K.C.C.C. IN AMERICA
45 Ludlow St. Yonkers NY 10705

가족사랑상담센터 ····· (718)460-2385
K.A.F.L.C.C.
141-25 Northern Blvd. #4d Flushing NY 11354

가족사랑상담센터 ····· (201)640-9016
K.A.F.L.C.C.
750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국제하이패밀리협회(기독) (212)759-2014
JOIN TOGETHER SOCIETY AMERICA
570 Main St. New York NY 10044

국제선교협회 ····· (718)353-3791
INTERNATIONAL MISSION ASSOCIATION
139-53 Northern Blvd. 3Fl. Flushing NY 11354

국제한의치료봉사회 ····· (718)720-8648
THE INT'L NATURAL HEALING SVC.
108 Cassida Pl. #4T Staten Island NY 10301

기독교가정상담연구소(뉴욕) · (718)729-3838
CHRISTIAN FAMILY MINISTRY RESOURCES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기독교가정상담연구소(본부) · (201)370-7192
CHRISTIAN FAMILY MINISTRY RESOURCES
144 Main St. #213 Hackensack NJ 07601

기독교가정적응상담실 ···· (718)786-6783
K.F.T.S.
40-09 Greenpoint Ave, Sunnyside NY 11104

기독교연합평시해국제기도회 · (917)600-0759
U.C.S.C. (INTERNATIONAL PRAYER MEETING)
80-02 Springfield Blvd. Hollis Hill NY 11427

뉴비전청소년복지재단 ···· (215)782-3799
NEW BEGINNINGS FAMILY
141 Willits Ave. Minecla NY 11501

뉴욕가정상담소 ····· (718)460-3900
KOR.-AME. FAMILY SERVICE CENTER
P.O.Box 541429 Flushing NY 11354

뉴욕뉴저지시민권프로그램 · (551)574-2015
NY/NJ CITIZENSHIP PROGRAM
1992 Lemoine Ave. #2A Fort Lee NJ 07024

뉴욕시소비자보호국 ····· (212)487-4444
NYC CONSUMER AFFAIRS
42 Broadway New York NY 10004

뉴욕아시안우먼센터 · (888)888-7702
NY ASIAN WOMEN'S CENTER
39 Bowery St. New York NY 10002

미주한인평시교육단체협의회 · (323)937-3703
N.A.K.A.S.S.C.
900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미주한인정보통신센터 ···· (201)507-0097
KOREAN AMERICAN INFO. COMMUNICATION CENTER
66 Feronia Way. Rutherford NJ 07070

버겐가정상담소(교환실에이) · (201)342-3200
BERGEN FAMILY CENTER (Ex-Lib)
10 Banta Pl. Hackensack NJ 07601

브롱스시회봉사센터 ····· (718)733-1907
BRONX S.S.C.
2940 Bainbridge Ave. Bronx NY 10458

푸리교육재단 ····· (718)224-4121
KOR.-AME. YOUTH ASSISTANCE COALITION
101 Thompson St. New York NY 10012

세기한아동복지패밀리서비스) · (516)747-2204
NEW BEGINNINGS FAMILY
141 Willits Ave. Minecla NY 11501

세계빈곤어동주제협회 ···· (201)446-7796
NOURISH THE CHILDREN
P.O.Box 1607 Fort Lee NJ 07024

사우루회원 ····· (718)221-3061
SITREAM CENTER
144-03 Seyside Ave. Flushing NY 11354

시민권이민서비스센터 ····· (212)767-9457
JOSEPH PARK'S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
162-05 Northern Blvd. #201 Flushing NY 11358

씨씨엠의료재단 ····· (917)445-1347
COMPREHENSIVE CARE MANAGEMENT
136-65 37 Ave. #2Fl Flushing NY 11354

뉴욕청소년센터 ····· (718)321-1010
KOREAN YOUTH CENTER OF NY
35-54 Union St. 1Fl. Flushing NY 11354

뉴욕코리장애아동서비스센터 · (917)575-3665
THE CENTER FOR OPPORTUNITIES(CHOICE BOUTIQUE)
150-50 31 Ave.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재선교회 ····· (718)762-0735
HANMIN CHARITY MISSION
42-40 Bowne St. 84H Flushing NY 11355

뉴욕한인사회복지상담소 ·· (212)564-2772
K.S.S.C. OF NY
16 W. 32 St. #306 New York NY 10001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 (718)359-5400
KOREAN IMMIGRANT SERVICE OF NY
136-68 Roosevelt Ave. #208-201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재역사회관 ····· (718)279-1523
K.A.C.C OF NEW YORK, INC.
39-16 221 St. Bayside NY 11361

뉴욕한인YMCA ····· (718)961-1177
THE KOREAN YMCA
138-4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YWCA ····· (718)353-4583
THE KOREAN YWCA
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뉴저지기독간살인협의회 ·· (201)947-9005
CHRISTIAN FELLOWSHIP CONTRACTORS ASSOCIATION OF NJ
P.O.Box 36 Leonia NJ 07605

뉴저지민원정보센터 ····· (201)507-0097
INFORMATION COMMUNICATION CENTER OF NJ
66 Feronia Ave. Rutherford NJ 07070

아시안패밀리상담아태장의상담 · (212)720-4535
Hamilton-Madison House (Recovery Service)
253 South St. 2Fl. New York NY 10002

열린공간(연룬즈) ····· (718)353-8989
OPEN CENTER @QUEENS
150-34 Northern Blvd. #M4 Flushing NY 11354

원광복지관 ····· (718)762-4103
WONKWANG COMMUNITY SERVICE CENTER
143-42 Cherry Ave. Flushing NY 11355

원광복지관 ····· (347)359-6257
WONKWANG COMMUNITY SERVICE CENTER
43-10 Bulling Flushing NY 11355

월드비전코리아데스크 ···· (866)625-1950
WORLD VISION KOREA DESK
P.O.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자비한소셜사비스센터 ···· (718)886-4092
JABIWON SOCIAL SERVICES CENTER, INC.
142-09 37 Ave. 1Fl. Flushing NY 11354

조셉박시민권및이민서비스(퀸-롱) (718)762-9692
JOSEPH PARK'S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
162-05 Northern Blvd. #201 Flushing NY 11358

조셉박시민권및이민서비스(퀸-롱) (212)767-9457
JOSEPH PARK'S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
162-05 Northern Blvd. #201 Flushing NY 11358

좋은목자재정상 ····· (516)241-6024
GOOD SHEPHERD GARDEN, INC.
P.O. Box 20338 New York NY 10001

뉴저지어린이봉사센터 ·· (201)862-1665
AWCA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뉴저지한인가정상담소 ····· (201)862-1118
KOREAN FAMILY SERVICE CENTER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뉴저지한인부인회 ····· (201)724-2666
KOREAN AMERICAN WOMAN'S ASSO NJ
P.o.Box 1543 Palisades Park NJ 07650

대뉴욕노인복지회 ····· (718)761-7130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 ASSOCIATION NY,INC
191 Kathy Blvd. Staten Island NY 10314

대뉴욕자구한인상록회 ···· (718)461-3545
K.A.S.C. ASSO.
149-18 41 Ave, Flushing NY 11355

도르가봉사센터 ····· (609)298-3939
DORCAS COMMUNITY CENTER
147 Rt. 130 N, Sordentown NJ 08505

만민의집처음일상상담센터 · (718)627-7047
THE HOUSE OF ALL PEOPLE, INC.
3504 Ave. S, Brooklyn NY 11234

무지개의집 ····· (718)539-6546
RAINBOW CENTER
P.O.Box 540629 Flushing NY 11354

미주사회보장센터 ····· (201)313-4250
NJ SOCIAL SERVICE
344 Broad Ave. #203 Palisades Park NJ 07650

미주카톨릭사회복지회 ···· (201)944-8111
NJ A.A.S.W.S.
410 Broad Ave. #203 Palisades Park NJ 07650

차일드센터오브뉴욕아시안분원 · (718)939-9810
CHILD CENTER OF NY (Asian Clinic)
57-08 Justice Ave. #C7 Elmhurst NY 11373

코리아소싸이어티 ····· (212)759-7525
KOREA SOCIETY
950 3 Ave. 8Fl. New York NY 10022

코리안차일드가이던스센터 · (718)445-0611
KOREAN CHILD GUIDANCE CENTER
39-01 Main St. #508 Flushing NY 11354

코리안커뮤니티센터 ····· (201)541-1266
FOSKOREAN COMMUNITY CENTER
40 Sonnet Rd. Englewood NJ 07631

패밀리인터치 ····· (718)224-4477
FAMILY IN TOUCH
231-11 Northern Blvd. 2Fl, Little Neck NY 11362

패밀리인터치 ····· (201)242-4422
FAMILY IN TOUCH
240 Grand Ave. Leonia NJ 07605

팰리사이드경찰대학 ····· (201)358-6393
PALISADE SENIOR
286 Old Tappan Rd. Old Tappan NJ 07675

한미법률재단 ····· (212)749-7307
THE KOR.-AME. LEGAL AID
501 W. 110 St, New York NY 10025

한미장애인재활협회 ····· (718)445-3939
K.A.R.D. OF THE DISABLED
35-20 147 St. Annex #2F Flushing NY 11354

한미정신건강센터 ····· (718)939-9818
H.M.H. (HAMILTON MADISON HOUSE)
78-14 Roosevelt Ave. #204 Jackson Heights NY 11372

한미장신간감협회 ····· (917)554-5347
KOR.-AME. SHIM JANG VISCERAL HEALTH ASSO., INC.
2210 McClellan St, E. Meadow NY 11554

한인상담실노인복지(뉴욕)사무국담당 - (551)574-2015
HANBIT COUNSELORS CENTER
58-22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한인상담소 ····· (718)939-7214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25-26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지역사회개발원인디로소 - (718)836-6669
K.A.C.C. / S.O.C.I.E.T.Y. I.N.C.
3902 4 Ave, #101-102 Brooklyn NY 11209

해밀톤매디슨하우스(홈리스재활센터) - (212)348-3724
HAMILTON MADISON HOUSE
50 Madison St, New York NY 10038

K.C.S.실기1프로그램 ····· (718)939-4291
9/11 PROGRAM IN 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K.C.S.가정급식프로그램 ·· (718)651-2672
MEALS ON WHEELS IN K.C.S.
37-06 111 St, Corona NY 11368

K.C.S.공공보건부 ····· (212)483-9985
PUBLIC HEALTH PROGRAM IN K.C.S.
140 W. 24 St, 6Fl, New York NY 10011

K.C.S.공공보건부(퀸즈) ·· (718)886-4128
PUBLIC HEALTH PROGRAM IN K.C.S.
35-56 150 St, Flushing NY 11358

K.C.S.교육개발원 ····· (718)353-2253
E.D.I. IN 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K.C.S.노인주간보호프로그램 - (718)939-4291
SENIOR CITIZEN ASSOCIATION IN 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K.C.S.뉴욕한인봉사센터(맨해튼) · (212)727-8745
K.C.S. (MANHATTAN)
149 W. 24 St, 6Fl, New York NY 10011

K.C.S.뉴욕한인봉사센터본부 · (718)939-8137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Y, INC.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K.C.S.무궁화상조회 ····· (718)651-7373
KOREAN MUTUAL AID SOCIETY IN K.C.S.
37-06 111 St, Corona NY 11368

K.C.S.브룩클린프로젝트 ·· (718)639-0001
K.C.S. (BROOKLYN)
87-10 5 Ave, 1Fl, Bay Ridge NY 11209

K.C.S.이민서비스 ····· (718)886-6020
IMMIGRANT SERVICE IN 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K.C.S.코로나경로회관 ····· (718)651-9220
KOR.-AME. SENIOR CENTER OF CORONA IN K.C.S.
37-06 111 St, Corona NY 11368

K.C.S.프로젝트홈커밍 ····· (201)313-5612
PROJECT HOMECOMING IN K.C.S.
845 Broad Ave, 1M-1 Ridgefield NJ 07657

K.C.S.플러싱경로회관 ····· (718)886-8203
FLUSHING SENIOR CENTER IN K.C.S.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KCS방과후학교 ····· (917)239-9611
K.C.S. AFTER SCHOOL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NY/NJ한인무궁화자매결연회의 - (551)574-2015
NY/NJ KOREAN AMERICAN Y.A.C
1953 Lemoine Ave. #3A Fort Lee NJ 07024

## 언론(일간지·통신)

뉴욕일보 ····· (718)939-0900
THE NEW YORK ILBO
136-94 39 Ave, Flushing NY 11354

미주동아일보 ····· (215)885-5000
DONGA USA
1330 Willow Ave, Elkins Park PA 19027

세계일보 ····· (718)361-2500
SAE GAE TIMES
39-42 9 St, L.I.C. NY 11101

스포츠서울 ····· (718)321-0500
DAILY SPORTS SEOUL NY, INC.
131-55 59 Ave, Flushing NY 11354

아주넷 ····· (718)353-2996
USA MEN. NET
42-35 190St, Flushing NY 11358

주간신배 ····· (201)541-3322
KOREAN SUNDAY NEWS OF NY
700 Grand Ave. #1F Ridgefield NJ 07657

중앙일보(뉴욕본사) ····· (718)361-7700
THE KOREA DAILY (NEW YORK)
43-27 38 St, L.I.C. NY 11101

중앙일보(뉴저지지국) ····· (201)944-8289
THE KOREA DAILY (NEW JERSEY)
10 E. Stinkhoff Ave. #28 Palisades Park NJ 07650

중앙일보(로스앤젤레스) ··· (213)368-2500
THE KOREA DAILY (LOS ANGELES)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중앙일보(맨해튼지국) ····· (212)239-1734
THE KOREA DAILY (MANHATTAN)
32 W. 32 St, #401 New York NY 10001

중앙일보(샌프란시스코) ··· (510)483-3333
THE KOREA DAILY (SAN FRANCISCO)
33288 Central Ave, Union City CA 94587

중앙일보(시애틀) ····· (206)365-4000
THE KOREA DAILY (SEATTLE)
4218 Midvale Ave. N, Seattle WA 98103

중앙일보(시카고) ····· (847)228-7200
THE KOREA DAILY (CHICAGO)
700 Busse Rd. Elk Grove Village IL 60007

중앙일보(애틀랜타) ····· (770)242-0899
THE KOREA DAILY (ATLANTA)
2400 Pleasant Hill Rd. Duluth GA 30096

중앙일보(워싱턴) ····· (703)218-9660
THE KOREA DAILY (WASHINGTON D.C.)
7023 Little River Tpke. 3Fl Annadale VA 22003

중앙일보(필라델피아지국) ····· (718)353-8900
THE KOREA DAILY (PHILADELPHIA)
136-40 39 Ave, #204 Flushing NY 11354

중앙일보(필라델피아지국) · (215)572-7677
THE KOREA DAILY (PHILADELPHIA)
1925 W. Cheltenham Ave. Elkins Park PA 19027

중앙일보(하와이) ····· (808)591-1700
THE KOREA DAILY (HAWAII)
3599 Waialae Ave. #100 Honolulu HI 96816

한국일보(뉴욕) ····· (718)482-1111
THE KOREA TIMES
42-22 27 St, L.I.C. NY 11101

한국일보(본사) ····· (212)869-6464
THE KOREA TIMES
186 W. 32 St, New York NY 10001

한국일보(플러싱) ····· (718)961-7979
THE KOREA TIMES
136-79 39Ave, #105 Flushing NY 11354

## 언론(라디오·TV)

뉴욕기독교TV방송국 ····· (718)359-3951
KOREAN CHRISTIAN TV SYSTEM AT NY
137-77 Northern Blvd. #208 Flushing NY 11354

뉴욕복음TV방송 ····· (516)676-5045
K.B.A. TV
P.O.Box 790 Glen Cove NY 11542

라디오코리아 ····· (718)358-9000
RADIO KOREA
136-56 39 Ave, #400 Flushing NY 11354

마운트브룩로드키스팅 ····· (973)852-0000
WMBC-TV
Main Rd. Caldwell NJ 07006

만트라TV ····· (212)675-1972
MANTRA TV
200 W. 70 St, #16M New York NY 10023

미주기독교방송국 ····· (212)447-0760
K.C.B.N.
143 Madison Ave #300 New York NY 10016

미주중앙방송(주) ····· (215)572-7077
KABC
1925 W. Cheltenham Ave, Elkins Park PA 19027

아리랑TV ····· (888)327-4253
JIRIRANG TV
www.ebs-tv.com/ www.didimdoshi.com

아이스카이넷 ····· (201)941-9600
iSkyCom, Inc.
115 River Rd. #B31 Edgewater NJ 07020

아이코스TV ····· (201)774-6106
ICONAT COM
437 Wall Whitman Rd, Melville NY 11747

어린이TV방송에듀글럽 ··· (201)767-7728
TEEROF CLUB
P.O.Box 60 Closter NJ 07624

중앙방송(KBSC) ····· (213)637-1233
JBC
69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한국방송광고공사 ····· (212)880-2300
KOBACO
60 E. 42 St #2311 New York NY 10165

한국케이블텔레비전방송국 - (718)353-8971
THE KOREA CHANNEL CTEC TV)
16-38 131 St, 1Fl, College Point NY 11356

FM서울 ····· (718)353-0500
FM RADIO KOREA
16-38 131 St, 2Fl, College Point NY 11356



KBN-TV ····· (201)385-8000
Korean Broadcasting Network
69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MK-TV(뉴욕지점) ····· (718)279-4737
MK-TV (NY OFFICE)
45-14 251 St, Little Neck NY 11362

MK-TV(뉴욕지점) ····· (718)279-4727
MK-TV (NY OFFICE)
45-14 251 St, Little Neck NY 11362

MK-TV(뉴저지지국담당) ····· (201)363-0707
MK-TV (NJ OFFICE)
2950 Center Ave. #120 Fort Lee NJ 07024

TV코리아 ····· (201)945-4001
TV KOREA
700 Grand Ave. #1A Leonia NJ 07605

## 언론(주간지·월간지)

(주)선데이뉴스 ····· (201)641-3322
THE KOREAN SUNDAY NEWS, INC.
700 Grand Ave. 1Fl. Ridgefield NJ 07657

경로신문 ····· (718)445-7878
SENIORUS TIMES
P.O.Box 540807 Flushing NY 11354

교치공뉴욕 ····· (718)460-0300
KYOCHAKO USA, LLC.
159-11 Northern Blvd. #110 Flushing NY 11358

기독교뉴스 ····· (917)880-0399
www.KIDOKNEWS.COM
7-16 College Point Blvd. 2Fl. College Point NY 11356

기독교한인신문 ····· (213)739-0403
CHRISTIAN DAILY
368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기독저널 ····· (718)939-8403
CHRISTIAN JOURNAL
159-19 14 Rd. College Point NY 11356

뉴스레프리 ····· (718)225-0044
NEWSREPORT
P.O.Box 590102 Bayside NY 11360

뉴스한국 ····· (718)321-2066
NEWS HAN GOOK
46-25 162 St, #203 Flushing NY 11358

뉴욕버룩시장 ····· (718)359-0700
KOREAN AMERICAN TIMES, INC.
35-70 Prince St. #704 Flushing NY 11354

뉴저지뉴룩시장 ····· (201)947-6886
KOREAN MARKET NEWS OF NJ, INC.
438 Broad Ave. #07 Palisades Park NJ 07650

레이디경향 ····· (718)631-3667
LADY KYUNG HYANG AMERICA
24-58 Francis Lewis Blvd. Whitestone NY 11357

미주기독신문 ····· (215)591-0771
KOREAN CHRISTIAN TIMES U.S.A.
1245 Lewisbln Pike Ambler PA 19002

미주복음신문 ····· (703)821-0070
THE KOREAN GOSPEL MISSION, INC.
8450-C Tyco Rd. Vienna VA 22182

미주생활 ····· (201)592-5921
KOREAN PUBLISHING & NEWS
301 Bridge Plaza N. Fort Lee NJ 07024

이주크리스천저널 ····· (201)507-9528
USA KOREAN JOURNAL
310 Main St. #2 E. Rutherford NJ 07073

이주크리스천신문(뉴욕) ··· (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이주크리스천신문(엘에이) · (213)380-5947
THE KOREAN CHRISTIAN PRESS
4055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이주한국대불교 ····· (718)886-2224
MODERN BUDDHISM OF AMERICA
P.O.Box 1367 Flushing NY 11354

부동산뱅크USA ····· (201)568-6716
REAL ESTATE BANK USA
333 Sylvan Ave. #219 Englewood Cliffs NJ 07632

산데이한국 ····· (718)939-6300
THE SUNDAY KOREA TIMES
165-15 29 Ave. 1Fl. Flushing NY 11358

여성중앙 ····· (718)361-7700
LADIES JOONG ANG
43-27 38 St, L.I.C. NY 11101

일간코리아 ····· (718)361-7700
LA SEUL
43-27 38 St, L.I.C. NY 11101

일간무역커리아 ····· (718)741-5132
INTERNATIONAL MUNHAKYATANG
2999 Valentine Ave. #3G7 Bronx NY 10458

일간뉴욕시장 ····· (718)461-1212
SHALOM MISSION
P.O.Box 580067 Flushing NY 11358

일간중앙 ····· (718)361-7700
MONTHLY JOONG ANG
43-27 38 St, L.I.C. NY 11101

일간여시(일간에고파일) · (201)767-7728
MONTHLY YEOSI OF FAMILY
P.O.Box 68 Closter NJ 07624

일간한민족포럼 ····· (718)278-4806
THE MONTHLY KOREA FORUM NY
25-22 Astoria Blvd. Astoria NY 11102

위클리USA ····· (201)461-2252
WEEKENGER USA
750 Grand Ave. #5F Ridgefield NJ 07657

이코노미스트 ····· (718)361-7700
ECONOMIST
43-27 38 St, L.I.C. NY 11101

일요뉴스 ····· (718)482-1124
SUNDAY WEEKLY NEWS
42-22 27 St, L.I.C. NY 11101

일요시사 ····· (718)361-7700
ILYO SISOUL
43-27 38 St, L.I.C. NY 11101

주부생활 ····· (718)353-9887
JU BU SAENG HWAL
136-56 39 Ave, Flushing NY 11354

코리언저널 ····· (713)973-8855
KOREAN JOURNAL
1241 Blalock Rd. #101 Houston TX 77055

크리스천저널 ····· (773)777-7779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크리스천헤럴드 ····· (213)353-0777
THE CHRISTIAN HERALD
180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한미타임 ····· (718)359-4448
KOREAN-AMERICAN TIMES
33-70 Prince St. #704 Flushing NY 11354

한미저널 ····· (732)777-0572
KOREAN AMERICAN JOURNAL
15 Jefferson Blvd. Edison NJ 08817

해피데이(비전&가이드그룹 - (201)945-0330
HAPPY DAY GROUP
700 Grand Ave. #D Ridgefield NJ 07657

해피데이(비전&가이드그룹 · (201)945-0330
HAPPY DAY GROUP
700 Grand Ave. #D Ridgefield NJ 07657

KOREAN AID NETWORK MEDIA GROUP · (201)945-0808
KOREAN AID NETWORK MEDIA GROUP
730 Grand Ave. #703 Ridgefield NJ 07657

MOM &I ····· (201)541-9068
MOM &I PUBLISHING GROUP, INC.
39 Tallman Pl. Englewood NJ 07631

## 재향군인단체

뉴저지해군동지회 ····· (201)873-1322
NAVY CORPS VETERANS ASSOCIATION OF NJ
130 Overlook Ave. #6C Hackensack NJ 07601

뉴저지해병전우회 ····· (201)444-8888
KOREA MARINE CORPS VETERANS ASSO. OF NJ
236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대뉴욕지구공군전우회 ···· (201)816-0067
R.O.K. AIR FORCE VETERANS ASSOCIATION OF NY
111 Charlotte Pl.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대뉴욕지역한국전쟁참전자회 · (718)359-2525
THE KOREAN WAR VETERANS ASSO. OF GREATER NY
136-55 Roosevelt Ave. #205-207 Flushing NY 11354

대한국해병전우회뉴욕연합회(주둑) · (718)225-4083
THE ROK VETERANS FIELD GUIDE OFFICE ASSO. OF GREATER NY
64-41 Cooperfield Blvd. Bayside NY 1136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뉴욕동부지회 · (718)886-3302
KOREAN VETERANS ASSO.
142-01 41 Ave. #306 Flushing NY 11355

대한민국해군동지회(미국동부연합회) · (917)749-8707
VETERANS ASSO. OF ROK. NAVY USA
15-03 129 St. College Point NY 11356

미동부해병대전우회 ·· (718)539-4488
ROK. MARINE CORPS VETERANS ASSO. OF E. USA
15-21 132 St. College Point NY 11356

미동부특전동지회 ····· (203)841-4470
BLACK BERET
369 Court D. Bridgeport CT 06610

미주육군무궁화동지회 ···· (718)886-3077
KOREA ARMY VETERAN ASSO. IN USA
159-49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재미뉴욕육군월남참전전우회 · (718)762-3659
KOREA ARMY VIETNAM WAR USA
136-67 Roosevelt Ave. 3Fl. Flushing NY 11354

재미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 (718)939-6917
VIETNAM WAR VETERANS MEMORIAL COMBAT SOCIETY IN USA
143-40 Roosevelt Ave. #6F Flushing NY 11354

재미월남참전전우회 ····· (201)947-9925
KOREAN VIETNAM VETERANS GROUP USA.
259 Slocum Way Fort Lee NJ 07024

재미월남참전전우회 ····· (201)947-9925
KOREAN VIETNAM VETERANS GROUP USA.
259 Slocum Way Fort Lee NJ 07024

## 직능단체

구두수선협회 ····· (718)991-7576
THE KOREAN SHOE ASSO. OF NY
2450 William Bridge Rd. Bronx NY 10469

뉴욕연예인협회 ····· (718)461-7653
THE KOR.-AME. ENTERTAINER ASSO. OF NY
149-12 33 Ave. 1FL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의사협회 ····· (718)225-5651
KOREAN ACUPUNCTURE ORIENTAL MEDICINE ASSOCIATION OF NY
42-14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

뉴욕한인간호협회 ····· (646)285-2503
NY KOREAN NURSES ASSO.
219-34 64 Ave. 8C Bayside NY 11364

뉴욕한인건설협회 ····· (718)445-2953
KOR.-AME. CONST. ASSO. OF NY
163-07 Depot Rd. 4FL Flushing NY 11358

뉴욕한인경영인협회 ····· (917)535-1629
KOR.-AME. CENTRAL MERCHANDISE A.O. INY
47-20 Robinson St. Flushing NY 11355

뉴욕한인경영인협회 ····· (718)888-1613
KOR. A/B CON. &REFRIGE. ASSO.
15-28 127 St. College Point NY 11356

뉴욕한인네일협회 ····· (718)321-1143
THE KOREAN NAIL SALON ASSO. NY
35-33 Farrington St. 2FL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 (718)762-5382
THE KOR.-AME. INSURANCE ASSO.
58-16 Union St. 2FL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소기업사업스센터 · (718)886-9533
KOR.-AME. SMALL BUSINESS SVC.
146-03 34 Ave.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수산인협회 ····· (718)378-4848
KOREAN SEA FOOD ASSO.OF NY,INC
800 Food Center Dr.#B9B Bronx NY 10474

뉴욕한인식품협회 ····· (718)353-0111
KOR.-AME. GROCERS ASSO. OF NY
32-52 Whitestone Expy. #105 Flushing NY 11354

뉴욕한인역사협회 ····· (718)939-0100
T.K. CHAMBER OF COMMERCE OF NY
168-15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뉴욕한인운송협회 ····· (718)378-2069
THE KOREA T.A. OF NY
NYC Terminal Market #234A Bronx NY 10474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 (212)587-0040
K.B.I.C. OF NY
45 W. 34 St. #1207 New York NY 10001

뉴욕한인청과협회 ····· (718)842-2424
KOREAN PRODUCE ASSO.
N.Y.C. Terminal Market #25-27-29 Bronx NY 10474

뉴저지뷰티서플라이협회 ·· (973)345-7335
NJ KOREA BEAUTY SUPPLY ASSO.
185 Market St. Paterson NJ 07505

뉴저지한인네일협회 ····· (201)313-8700
KOR-AME. NAIL SALON ASSO.OF NJ
61A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한인미용협회 ····· (201)592-0021
THE KOREAN BEAUTY SALON ASSO. OF NJ
244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한인세탁협회 ····· (732)283-5135
KOREAN CLEANERS ASSO. OF NJ
512 Lincoln Hwy. Rt. 27 2FL Iselin NJ 08830

대뉴욕변호사클럽회 ·· (516)535-1388
NY BEAUTY SUPPLY DEALERS ASSO.
125 Woodfield Rd. W. Hempstead NY 11552

대뉴욕지구한인봉제협회 ·· (212)714-1530
K.A.M.A. OF GREATER NY
545 8 Ave. 10FL New York NY 10018

이동부한인귀금속보석협회 · (908)769-0345
THE ASSO. OF KOR. JEWELERS OF EASTERN USA
142 E. Front St. Plainfield NJ 07060

이주한인우정공무원협회 ·· (201)507-1382
KOREA AMERICAN US POSTAL SERVICE ASSO.
68 Feronia Ave. Rutherford NJ 07070

이주한인원아이포토협회 ·· (718)457-0025
KOR.-AME. 1 HOUR PHOTO ASSO.
54-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이주한인의학협회 ····· (201)541-1345
THE 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NC.
40 Sennett Rd. Englewood NJ 07631

뷰티서플라이협회 ····· (718)445-2953
KOR.-AME. CONST. ASSO. OF NY
163-07 Depot Rd. #B3 Flushing NY 11358

알바니한인사업협회 ····· (518)869-9981
THE KOR. AME. BUSINESS ASSO. OF ALBANY, INC.
1649 Central Ave. Albany NY 12205

오식협회 ····· (718)445-3015
THE KOREA RESTAURANT ASSO.
134-37 35 Ave. Flushing NY 11354

한인보험재정협회 ····· (718)353-3500
KOR.-AME. INSURANCE ASSO.
152-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한인의사협회 ····· (718)886-9000
KOREAN MEDICAL ASSO. OF AMERICA
41-51 Kissena Blvd. Concourse level #5A Flushing NY 11355

한인치과기공업협회 ····· (718)225-2364
KOREAN DENTAL TECHNICIAN ASSO.
210-16 Northern Blvd. #2FL Bayside NY 11361

## 체육단체

검선_I 검도 ····· (631)698-2457
KEN-ZEN DOJO OF LONG ISLAND
1256 Waverly Ave. Farmingdale NY 11735

국제태권도연맹(통합) ····· (888)640-9696
UNIFIED I.T.F.
101 Birch Mountain Rd. Manchester CT 06040

뉴욕수영협회 ····· (718)886-5311
THE KOREAN SWIMMING ASSO.OF NY
35-02 150PLJ004 Flushing NY 11354

뉴욕축구협회 ····· (718)008-5041
THE KOREAN SOCCER ASSO. OF NY
144-45 34 Ave. #4G Flushing NY 11354

뉴저지태권도협회 ····· (973)633-7799
K.A.S.T.A.
580 Valley Rd. Wayne NJ 07470

뉴저지태권테니스협회 ····· (201)944-7666
NEW JERSEY KOREAN TENNIS ASSOCIATION
338 Broad Ave. Leonia NJ 07605

대한검도회뉴저지회 ····· (201)592-1070
KOREA KUMDO ASSOCIATION IN NJ
544 10 St. Palisades Park NJ 07650

이동부산악스키산행 ····· (718)219-6545
KOREAN MOUNTAIN ASSOCIATION
137-54 Kalmia Ave. Flushing NY 11355

이동부잠수협회 ····· (732)966-4545
THE KOREAN SCUBA DIVING ASSO.
859 Rocky Brook Rd. E. Windsor NJ 08512

이동부한인스키&스노우보드협회 · (347)693-0403
KOR-AME SKI &SNOWBOARD ASSO. OF E. U.S.A.
830 6 Ave. 4FL New York NY 10001

이주한인축구사랑회 ····· (718)445-6916
KOREAN FOOTBALL LOVERS OF USA
139-55 35 Ave. 2FL Flushing NY 11354

브롱스무궁화축구단 ····· (212)255-0395
MU GUNG HWA SOCCER CLUB
300 6 Ave. 9FL New York NY 10001

세계태평도협회 ····· (909)984-1020
WORLD HWARANGDO E.C. ASSO.
1070 Stuyvesant Ave. Union NJ 07083

열린공간(번체체) ····· (347)638-2121
OPEN CENTER-MANHATTAN
19 W. 36 St. 5FL New York NY 10018

재미동부한인축구협회 ···· (201)568-5999
KOR.-AME. SOCCER ASSO. OF EAST COAST
5 Faculty Rd. Englewood NJ 07631

친미일검군뉴욕지회 ····· (718)661-0304
TL KUM KWAN USA.
39-01 170 St. Flushing NY 11358

필라델피아한인체육회 ···· (215)467-4634
THE KOREAN ATHLETIC ASSO. OF GREATER PHILA.
3121 S. Lawrence St. Philadelphia PA 19148

## 향우회·종친회

광산김씨미동부종친회 ···· (212)760-1768
KWANGSAN KIM'S FAMILY ASSO.
38 W. 32 St. #900 New York NY 10001

김해김씨뉴욕종친회 ····· (718)886-7200
KIMHAE KIM'S FAMILY ASSO.
567 Flatbush Ave. Brooklyn NY 11225

뉴욕김천향우회 ····· (516)825-9327
NEW YORK KIM CHUN ASSO.
430 Glen Cove Rd. Greenvale NY 11548

뉴욕안김씨종친회 ····· (718)352-3824
YEONAN KIM'S FAMILY
43-15 221 St. Bayside NY 11361

뉴욕지구안씨군민회 ····· (718)939-7078
YON BAE GUN ASSOCIATION
143-28 45 Ave. #4A Flushing NY 11355

대뉴욕지구영남향우회 ···· (718)886-4413
THE YOUNG NAM ASSOCIATION OF GREATER NY
146-23 34 Ave. Flushing NY 11354

대뉴욕지구에스오한인협회 · (718)460-3444
THE ASSO. OF SYO NORTHERN PROVINCES OF KOREA IN GREATER NY
38-33 150 St. 2FL Flushing NY 11354

대뉴욕지구함경도민회 ···· (718)460-3444
THE HAMKYUNG PROVINCE ASSO. IN THE GREAT NY
38-33 150 St. 2FL Flushing NY 11354

대뉴욕지구황해도민회 ···· (718)762-1600
HWANG HAE PROVINCE ASSO.
150-05 37 Ave. #207 Flushing NY 11354

이동부김남김씨종친회 ···· (201)798-0325
KIM HYUNG KIM SSI EASTERN ASSO.
910 Bergen Ave. #204 Jersey City NJ 07306

이동부안동권씨종친회 ···· (718)445-7676
JUNGKING KWON SSI E. STATE ASSO.
P.O.Box 540807 Flushing NY 11354

이동부지역밀양군민회 ···· (617)749-7722
DANG JIN KOREAN ASSO. OF E. USA
43-67 161 St. 3FL Flushing NY 11358

이동부지역충청도민회 ···· (617)749-7722
THE CHUNG CHEONG DO ASSO.
43-67 161 St. 3FL Flushing NY 11358

이동부충청향우회 ····· (212)695-7122
CHUNGCHEONG EASTERN AMERICAN ASSO.
306 W. 37 St. New York NY 10018

이동부황김씨&경기수원전체 · (646)245-4800
HWANGKIM KIM'S FAMILY
10 Chestnut Ridge Rd. Montvale NJ 07645

재미제주도민회 ····· (718)224-0633
THE JEJUDO ASSO. OF AMERICA
134 Union St. Brooklyn NY 11231

전북시민4개군안동향우회 · (718)357-1076
AN JUNG ASSO.
71-10 35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청리도민회 ····· (718)461-3664
THE HAMKYONGDO ASSO.
142-31 37 Ave. 1FL Flushing NY 11354

## 동창회(중·고교)

강릉고 ····· (212)465-1388
KANG NUNG HIGH SCHOOL ALUMNI
1222 Broadway New York NY 10001

경기고 ····· (973)471-0981
KYUNG GI ALUMNI ASSO. OF NY
1117 Rt. 46 E. Clifton NJ 07013

경기여중고 ····· (609)234-9111
KYUNG GI GIRLS MIDDLE &HIGH SCHOOL
P.O.Box 67 Fort Lee NJ 07024

경남상고 ····· (718)445-3145
KYUNG NAM COMMERCIAL HIGH SCHOOL
37-3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경남여중고 ····· (609)365-5418
KYUNG NAM GIRL'S M. &H.S.A.
648 Westminster Ave. Elizabeth NJ 07208

경남중고 ····· (201)697-6772
KYUNG NAM M. &H.S.A.
2147 Hudson Ter. Fort Lee NJ 07024

경동중고 ····· (718)357-6403
KYUNG DONG ALUMNI
48-34 190 St. Fresh Meadows NY 11365

경북중고 ····· (201)568-0209
KYUNG BOK HIGH SCHOOL ALUMNI
150 Linwood Plaza #209-17 Fort Lee NJ 07024

경북여중고 ····· (914)472-3183
KYUNG BOOK GIRLS' M. &H.S.A.
3 Stonebrook Ln Scarsdale NY 10583

고려대학교 ····· (201)592-0231
KOREA UNIV. HIGH SCHOOL ALUMNI
3460 Lemoine Ave. 1FL Fort Lee NJ 07024

관악고 ····· (201)925-9477
KWANWA OK HIGH SCHOOL
338 5 Ave. River Edge NJ 07661

광성중고뉴욕동문회 ····· (201)944-9400
KWANG SUNG ALUMNI
171 Main St. 2FL Fort Lee NJ 07024

국립철도학교미주동문회 ·· (718)225-1412
THE ALUMNI ASSO. OF N.R.H.S.
254-57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금호고등학교뉴욕동문회 ·· (917)658-0400
KUM HO HIGH SCHOOL NY ALUMNI
32-28 166 St. Flushing NY 11358

남성중고여중고 ····· (718)525-7050
NAM SUNG M. &H.S.A. OF NY
147-19 Springfield Ln. Jamaica NY 11413

대광동문 ····· (201)569-7733
THE DAE KWANG ALUMNI
48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대구계성중고등학교동창회 · (201)944-7655
DAEGU KEI-SUNG HIGH SCHOOL ALUMNI
336 Broad Ave. Leonia NJ 07605

대구중공업고 ····· (212)541-1812
DAE GU TECHNICAL HIGH SCHOOL ALUMNI
1633 Broadway 3FL New York NY 10019

대구효성여고 ····· (718)321-2403
DAE KOO HYO SUNG GIRL'S HIGH SCHOOL
35-71 162 St. Flushing NY 11358

대동상고 ····· (201)346-0751
DAE DONG COMMERCIAL HIGH SCHOOL
135 E. Palisade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대륜중고 ····· (516)825-8882
DAE RYUN M. &H.S.A.
83 Harp Pl. Albertson NY 11507

대아고등학교재미동문회 ·· (212)213-3635
DAE-A USA ALUMNI
1261 Broadway #300 New York NY 10001

대전중고 ····· (718)898-9049
DAEJUN HIGH SCHOOL ALUMNI
49-04 43 Ave. Woodside NY 11377

덕성여중고동창회 ····· (718)746-3338
DUKSUNG HIGH SCHOOL
129-09 5 Ave. College Point NY 11356

동구여상 ····· (718)525-4562
DONG GU GIRLS COMMERCIAL H.S.
219-12 S. Conduit Ave. Springfield Gardens NY 11413

동대문중산고 ····· (718)456-4418
DONG DAE MOON ALUMNI
56-11 Myrtle Ave. Ridgewood NY 11385

동해여자중·고등학교 ····· (516)355-2405
DONG BAE GIRL'S MIDDLE &HIGH SCHOOL
300 Continental Dr. New Hyde Park NY 11040

동해중고 ····· (718)225-1525
DONG BAE M. &H.S.A.
213-23 42 Ave. Bayside NY 11361

동북중·고등학교 ····· (516)997-8748
DONG BUK MIDDLE &HIGH SCHOOL ALUMNI
13-18 Michael Ct. 1FL Bayside NY 11360

동산고 ····· (201)836-8255
DONG SAN HIGH SCHOOL
19 Beverly Rd. Oradell NJ 07649

동성중고 ····· (201)224-7959
DONG SUNG M. &H.S.A.
211 Warwick Ave. Fort Lee NJ 07024

동일여중고 ····· (908)472-0114
DONGIL GIRL'S M. &H.S.A.
305 W. 29 St. #3D New York NY 10001

마산중고 ····· (212)439-4064
MASAN HIGH SCHOOL ALUMNI
34 Shadrakapa Ln. Levittown NY 11756

목포중고등학교뉴욕동창회 - (718)440-2329
MOK PO MIDDLE&HIGH SCHOOL ALUMNI
16-66 Bell Blvd. #124 Bayside NY 11360

배문중고교 ····· (917)886-4305
BAEMOON ALUMNI
262-44 60 Ave. Little Neck NY 11362

배재고등학교 ····· (646)239-6511
PAI CHAI HIGH SCHOOL
237-20 67 Ave. Bayside NY 11364

배재학당총동문회(차재기) - (646)239-6511
PAI CHAI
10 Belden Ave. Norwalk CT 06850

보성중고 ····· (212)629-6625
PO SUNG M. &H.S.A.
330 7 Ave. 15FL New York NY 10001

부산중앙고등학교 ····· (201)767-0414
BUSAN JUNG ANG HIGH SCHOOL
184 Central Ave. #1000 Old Tappan NJ 07675

서라벌고 ····· (718)445-2797
SEORABEOL HIGH SCHOOL ALUMNI
143-02 38 Ave. 2FL Flushing NY 11354

서문여중고 ····· (201)692-3888
SUR MOON ALUMNI
2345 Linwood Ave. #6F Fort Lee NJ 07024

서울공고 ····· (718)939-2700
SEOUL ENGINEERING H.S.A.
153-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4

서울사범고등학교 ····· (201)675-8220
SEOUL SA-BUM HIGH SCHOOL
326 Woodland Pl. Leonia NJ 07605

서울여상동창회 ····· (718)592-0125
SEOUL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86-15 Broadway #1 4th Elmhurst NY 11373

서울영동고등학교 ····· (201)592-3514
SEOUL YOUNG DONG H.S.A.
139 Grimm Ave. #2ND Englewood Cliffs NJ 07632

선린상업고등학교동문회 ·· (718)631-9821
SEON-RIN HIGH SCHOOL ALUMNI
1931 Wallace Ave. Bronx NY 10462

성남중고동창회 ····· (201)659-0048
SUNG NAM HIGH SCHOOL ALUMNI
388 Central Ave. Jersey City NJ 07307

성동기계공고 ····· (718)358-6276
SUNG DONG TECHNICAL H.S.A.
139-16 28 Rd. #6B Flushing NY 11354

수도여고 ····· (718)982-8156
SOODO GIRLS H.S.A.
62 Shale St. Staten Island NY 10314

양정중고 ····· (212)643-2727
YANG CHUNG H.S.A.
47 N. 34 St. #5 R New York NY 10001

영등포중고등학교 ····· (718)359-2662
YOUNG DEUNG PO MIDDLE &HIGH SCHOOL ALUMNI
46-31 Bowne St. Flushing NY 11355

영훈고 ····· (914)381-4666
YOUNG HOON H.S.A.
277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오산학교 ····· (917)355-3886
O SAN SCHOOL ALUMNI ASSO
166-04 21 Ave. Whitestone NY 11357

용문고등학교(구, 강문) ··· (732)324-8942
YONG MOON HIGH SCHOOL
67 Smith St. Perth Amboy NJ 08861

우신고등학교 ····· (718)886-1217
WOOSHIN HIGH SCHOOL ALUMNI
150-05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4

이화여중고 ····· (201)750-0513
EWHA GIRLS' M. &H.S.A.
160 Orchard Rd. Demarest NJ 07627

인천송도중고등학교동문회 · (718)729-2645
IN CHEON SONG DO M. &H.S.A.
38-08 13 St. L.I.C. NY 11101

재미ROTC문우회 ····· (718)445-2797
ROTC
143-03 38 Ave. 2Fl. Flushing NY 11354

전주고등학중 ····· (201)694-1824
JEONJU HIGH SCHOOL BUK JUNG
1927 Hudson Ave. Ridgefield NJ 07657

전주신고남중 ····· (212)279-6869
CHUN JOO C. HIGH S. &MIDDLE S.A.
38 W. 32 St. #902 New York NY 10001

정신여중고동창회 ····· (201)237-8000
CHUNGSHIN ALUMANI ASSO
172 Park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중경고 ····· (201)945-9322
JUNG KYUNG H.S.A.
17 Arcadian Ave. #207 Palisades Park NJ 07650

중대사대부중고 ····· (718)786-4341
CHUNG ANG UNIV. M. &H.S.A.
37-08 Greenpoint Ave. L.I.C. NY 11101

중앙여중고 ····· (212)268-4300
JUNG ANG HIGH SCHOOL ALUMNI
214 W. 29 St. #207 New York NY 10001

전주중고 ····· (516)922-4288
CHONJU M. &H.S.A.
110 Mainline Dr. Jericho NY 11753

정덕여고 ····· (201)768-2123
CHUNG DUK GIRLS H.S.A.
21 Fremmer Rd. Hennyton Park NJ 07640

창암중고 ····· (718)886-7200
CHON AM M. &H.S.A.
557 Flatbush Ave. Brooklyn NY 11225

청주중고 ····· (914)937-1111
CHONG JU M. &H. SCHOOL
421 Boston Post Rd. Port Chester NY 10573

한성중고 ····· (212)962-6936
HAN SUNG H.S.A. OF USA (C/O 733)
200 W. 86 St. New York NY 10024

한영중중고 ····· (718)429-2286
HAN YANG SCHOOL ALUMNI ASSO
144 McBeigh Ave. Staten Island NY 10314

해동고 ····· (201)933-6111
HAEDONG
845 Broad Ave. #2 Ridgefield NJ 07657

해동고등학교 ····· (201)941-1204
HAE DONG HIGH SCHOOL
853 Broad Ave. #1 Ridgefield NJ 07657

혜문중고 ····· (718)729-3111
WHEMOON HIGH SCHOOL
45-54 44 St. Sunnyside NY 11104

## 동창회(대학교)

계명대학교 ····· (718)981-7692
KEI MYUNG U.A.A.
104 Darcey Ave. Staten Island NY 10314

고려대학교 ····· (212)947-2500
KOREA UNIVERSITY
1270 Broadway #1003 New York NY 10001

동운대학교 ····· (718)205-0507
EWANG WOON UNIVERSITY ALUMNI
39-07 69 St. Woodside NY 11377

국군간호사관학교동문회(동부) · (973)626-2524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ALUMNI
119 Knorr Rd. Oak Ridge NJ 07438

뉴욕대학교 ····· (212)482-6777
NYU E.S.A.A.
1270 Broadway #709 New York NY 10001

뉴욕상명대학교 ····· (516)801-3762
SANG MYUNG UNIVERSITY ASSO.
9 Mooney Ct. Swanghaven NY 11507

뉴욕총신대학교동창회원 ·· (718)463-0500
THE NY CHONG SHIN C. &T.S.
35-23 164 St. Flushing NY 11358

단국대학교 ····· (212)668-8555
DAN KOOK UNIVERSITY ALUMNI
136-78 38 Ave. #102 Flushing NY 11354

대뉴욕지구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 · (212)564-2255
THE GREATER NY F.O.U.
101 W. 30 St. New York NY 10001

롱아일랜드대학교 ····· (718)445-2797
L.I. UNIVERSITY
29-50 Union St. 2Fl. Flushing NY 11354

명지대학교 ····· (201)541-9401
MYUNGJI UNIVERSITY ALUMNI
253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미동부지지역육군사관학교 ·· (201)816-0230
R.M.A. ALUMNI ASSO. IN E. AREA
38 Jefferson Ave. Tenafly NJ 07670

서강대학교 ····· (201)615-6007
SOGANG UNIVERSITY ALUMNI

서울대학교뉴욕지역동창회 · (718)507-1008
S.N.U. ALUMNI ASSO. OF GREATER NY
68 Minuteman Circle Orangeburg NY 10962

서울여자대학교 ····· (516)559-0109
SEOUL WOMAN'S UNIVERSITY ALUMNI
3 Rockland Dr. Jericho NY 11753

성균관대학교 ····· (212)758-7722
SEUNGKYUNKWAN UNIVERSITY ALUMNI
570 5 Ave. New York NY 10017

성신여자대학교 ····· (212)741-2005
SUNG SHIN WOMEN'S UNIVERSITY ALUMNI
143 W. 27 St. New York NY 10001

숙명여자대학교 ····· (718)359-6754
SKOOK MYUNG W. U.A.
140-15 Elm Ave. Flushing NY 11355

숭실대학교 ····· (718)997-0727
SOONG SIL UNIVERSITY
12 Whitwell Pl. Staten Island NY 10304

인하대학교 ····· (201)569-5599
IN HA UNIVERSITY ALUMNI
333 Sylvan Ave. #201 Englewood Cliffs NJ 07632

전남대학교 ····· (516)889-1564
CHUN NAM UNIVERSITY ALUMNI
220 W. Broadway Long Beach NY 11561

전북대학교간호대학 ····· (845)354-0903
CHUN BUK UNIVERSITY DEPARTMENT
3 Northridge Rd. Pomona NY 10970

중앙대학교 ····· (212)947-4444
CHUNG ANG UNIVERSITY
15 W. 37 St. #804 New York NY 10001

충북대학교 ····· (212)967-5810
CHOONG BOOK UNIVERSITY ALUMI ASSO.
1270 Broadway #710 New York NY 10018

한국외국어대학교 ····· (917)494-2188
HANKOOK U.O.F.S.
1069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한남대학교동부회 ····· (718)886-7200
HAN NAM UNIVERSITY ALUMNI
557 Flatbush Ave. Brooklyn NY 11225

한양대학교 ····· (718)651-6979
HANYANG UNIVERSITY ALUMNI
33-58 60St. Woodside NY 11377

홍익대학교 ····· (516)944-6810
HONGIK UNIV.COM
155 Main St. Port Washington NY 11050

## 종교단체

개혁주의복음선교회 ····· (718)359-5861
THE REFORMED EVANGELICAL MISSION FELLOWSHIP
42-24 149 Pl. Flushing NY 11355

기자식선교회 ····· (718)762-4348
MUSTARD SEED MISSION NY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고어헤드선교회 ····· (201)440-3223
GOARHEAD MISSION, INC.
253 3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교회협의회 ····· (718)358-4428
THE COUNCIL OF K.C. OF GREATER NY
39-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국제도시선교회 ····· (201)821-2580
I.C.M.(INTERNATIONAL CITY MINISTRY)
P.O. Box 905 Ridgefield NJ 07657

국제승리기도회 ····· (718)445-3901
CHRISTIAN VICTORY ENT'L
174-38 169 St. #2D1 Flushing NY 11358

국제예수원도단(크리스천부흥) · (718)279-1052
T'KUM CORNER STONE
43-03 169St. Flushing NY 11358

국제장애인선교회 ····· (718)353-3791
INT'L MISSION FOR THE DISABLED
135-53 Northern Blvd. 3Fl. Flushing NY 11354

기독교상담심리학회 ····· (845)365-8542
C.A. OF COUNSELING PSYCHOLOGY
45-08 Greenpoint Ave. Sunnyside NY 11104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 (845)267-4159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16 Elliots Alley Valley Cottage NY 10989

나그내선교회 ····· (718)357-3355
THE NAGUNAE MISSION, INC.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나이스크리스챤센터 ····· (845)365-8829
NYSKE MISSION CENTER
127 Eatontown Rd. Greenville NY 10940

뉴욕갠서선교합창단 ····· (917)658-3181
NY CONCERTERS MISSIONARY CHORUS
155-23 65 Ave. 3Fl. Fresh Meadows NY 11365

뉴욕뉴저지선한선교회 ···· (973)589-5828
SEAMAN'S CHURCH INST. OF NJ
118 Export St. Newark NJ 07114

뉴욕늘푸른세계선교센터 ·· (718)762-1142
EVERGREEN WORLD MISSION CENTER
60-02 138 St. Flushing NY 11355

뉴욕목회상담연구소 ····· (718)279-2722
PASTORAL COUNSELING INSTITUTE OF NY
61-11 220 St. Bayside NY 11364

뉴욕밀알선교단 ····· (718)445-4442
MILAL MISSION IN NY
14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4

뉴욕밀알선교합창단 ····· (718)460-5108
NY MILAL MISSIONARY CHOIR ASSO.
43-57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사랑선교미션센터 ···· (718)939-1191
THE LOVE MISSION CENTER OF NY
154-20 41 Ave. 2Fl. Flushing NY 11354

뉴욕실로한인선교회 ····· (718)939-5700
THE SHALOM PRAISING MISSION OF NY
40-03 154 St. Flushing NY 11354

뉴욕장로성가단 ····· (718)359-3851
NY ELDERS CHOIR
18-02 College Point Blvd. 3Fl. College Point NY 11356

뉴욕찬양선교회 ····· (718)229-7499
NY PRAISING WORSHIP MISSION
34-15 225 St. Little Neck NY 11363

뉴욕청소년합창단 ····· (718)429-6547
NY YOUTH CHOIR
37-08 111 St. Corona NY 11368

뉴욕해외선교회 ····· (718)229-3027
OVERSEAS MISSION OF NY
37-60 61 St. Woodside NY 11377

뉴저지기독실업인회 ····· (201)943-5579
NEW JERSEY C.B.M.C.
725 Bergen Blvd. Ridgefield NJ 07657

뉴저지찬양선교단 ····· (201)530-0355
AMERICA WHEAT MISSION
1225 River Rd. Teaneck NJ 07666

다리를놓는사람들 ····· (201)833-9125
BRIDGE BUILDERS
1500 12 St. Fort Lee NJ 07024

다리를놓는사람들선교회 ·· (201)855-2881
BRIDGE BUILDERS MISSION GLOBAL)
1488 Sargon Blvd. #2 Fort Lee NJ 07024

다민족도시선교회 ····· (559)751-6255
URBAN MISSION FELLOWSHIP USA
41-02 Bowmont Rd. Merton NJ 08053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718)358-0374
THE COUNCIL OF K.C. OF GREATER NY
39-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대뉴욕한인신학교협의회 ·· (718)423-0343
COUNCIL KOR. THEOLOGICAL SCHOOL OF NY
34-09 150St. 2Fl. Flushing NY 11354

독신자선교회 ····· (718)939-1992
SINGLE MISSION CENTER
32-22 89 St. #307 Jackson Heights NY 11369

레마성서연구원 ····· (201)313-3809
RHEMA MISSION
730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만민의집(성심)(뉴욕지원) · (718)645-0526
THE HOUSE OF ALL PEOPLE
3524 Ave. U. 2Fl. Brooklyn NY 11234

맨하튼기독실업인회 ····· (212)679-3899
MANHATTAN C.B.M.C.
830 4 Ave. 4Fl. New York NY 10021

목회자료및상담실 ····· (516)285-0819
PARISH RESOURCE CENTER
910 Elmont Rd. Valley Stream NY 11580

미국세계선교회 ····· (718)429-0343
WORLD MISSION USA
34-08 150St. 2Fl. Flushing NY 11354

미국한로고 ····· (201)861-8886
THE EASTERN BOREAN PRES.
6135 Bergenline Ave. #5 W. New York NJ 07093

미동부예비역군목회 ····· (201)342-6992
K.A.C.A.E. USA
2447 2 St. 2Fl. Fort Lee NJ 07024

미주성결한인신학대학원 · (609)881-2705
N.J. K.A.M.U.M.C.
40 Anderso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미주교육선교회 ····· (718)359-6145
E.M.I. OF PAN AMERICA
41-28 150 St. Flushing NY 11355

미주그루지야침례선교회 ·· (718)539-6139
THE 5TH.DeP OVERSEAS MISSION
41-10 150 St. Flushing NY 11355

미주기독교언론인협회 ···· (718)886-0074
THE CHRISTIAN JOURNALIST ASSO. IN USA
57-40 58 St. Maspeth NY 11378

미주성공회한인교회협의회 · (718)279-2197
THE COUNCIL OF THE EPISCOPAL K.C.
223-36 St. Astoria NY 11105

미주서성회 ····· (301)776-3887
SEOSUN GLOBAL MISSION
9205 Ridings Way Laurel MD 20723

미주웨슬리복음선교단 ···· (201)242-8888
THE WESLEY EVANGELICAL CRUSADE
396 Broad Ave. Leonia NJ 076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시노회 · (718)706-0100
THE NY PRES. CHURCH
40-23 37 Ave. L.I.C. NY 11101

베꾸한인장로회학생선교훈련원 · (516)775-1550
K.P.C.A. BOOKBANG MISSION INSTITUTE
70 Floral Pkwy. Floral Park NY 11001

베꾸한인크리스천문학가협회 · (718)572-7027
K.C. POETS OR WRITERS ASSO.
P.O.Box 2127 F.a.c.c. New York NY 10129

민족복음화운동이종부지역 · (718)793-5366
THE NATIONAL EVAN. MOVEMENT OF E. AMERICA
59-43 97 Pl. Corona NY 11368

비울세계선교회 ····· (212)932-7746
ST. PAUL WORLD MISSION
200 Clarmount Ave. #3 New York NY 10027

베다니선교회 ····· (516)883-0028
BETHANY MISSION CENTER
185 S St. Hicksville NY 11801

베이한인메크레이션기구 ·· (718)939-6378
THE KOREAN RECREATION ORG.
87-37 Whitney Ave. Elmhurst NY 11373

보니엘선교회 ····· (516)739-1310
THE PENIEL MISSION, INC.
54 Stoothoff Dr. New Hyde Park NY 11040

살롬문서선교회 ····· (718)461-1212
SHALOM MISSION
P.O.Box 58-0307 Flushing NY 11358

선교사역집 ····· (347)732-9459
NY CHRISTIAN GUEST HOUSE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소명장로교회선교관 ····· (212)779-7866
SORMYUNG PRES. CHURCH MISSION CENTER
160 Madison Ave. New York NY 10016

스태튼아일랜드기독실업인회 · (917)273-8142
STATEN ISLAND CHRISTIAN BUSINESS MENS
220 Merry Mount St. Staten Island NY 10314

신학교안내센터 ····· (718)939-0239
SEMINARY GUIDANCE CENTER
148-51 58 Rd. Flushing NY 11355

아시안계아메리칸선교학교 · (201)461-4995
ASIAN-AMERICAN MISSION ACADEMY, INC.
304 Main St. 2Fl. #209 Fort Lee NJ 07024

엘림문서선교회 ····· (718)353-3910
ELIM LITERATURE MISSION
P.O.Box 5267579 Flushing NY 11355

엘림선교합창단 ····· (201)592-6579
ELIM MISSIONARY CHOIR
182 Christie Heights St. Leonia NJ 07605

인빌리브교회예배처소(아루목실) · (212)870-3829
ASIAN & PACIFIC A.M.
475 Riverside Dr. #1627 New York NY 10115

예꼬마선 ..... (201)767-7728
TIBBOT MISSION
P.O.Box 68 Closter NJ 07624

예수제자운동 ..... (845)359-5451
JESUS DISCIPLE MOVEMENT
12 South Blvd. #3 Nyack NY 10960

예슈아신교회 ..... (718)886-3940
YESHUA MISSION
P.O.Box 257 New York NY 10028

임마누엘선교재단 ..... (201)943-5979
IMMANUEL MISSION FOUNDATION
725 Bergen Blvd. Ridgefield NJ 07657

정토회 ..... (718)461-2496
JUNG TO SOCIETY
161-20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주세계선교회 ..... (631)673-2256
THE WORLD OF GOD MISSION CENTER
512 Sunki Ave. Center Moriches NY 11934

주찬양선교회 ..... (718)353-2631
MISSION OF PRAISING THE LORD
35-44 Union St. #3RR Flushing NY 11354

천리교 ..... (732)359-9236
DENRIKYO
21 Northfields Ct. Monroe NJ 08831

천주교뉴욕대교구이민사무국 · (212)371-1000
CATHOLIC IMMIGRANT SERVICE (NY)
1011 1 Ave. 13Fl. New York NY 10022

청소년기독문화선교센터 ·· (516)921-0044
YOUTH CHRISTIAN CULTURAL CENTER
243 Jackson Ave. Syosset NY 11791

코헨선교센터 ..... (718)939-8278
COHEN MISSION CENTER
29-05 102 St. Flushing NY 11358

팟머스문화선교회 ..... (201)797-7728
PATMOS
P.O.Box 68 Closter NJ 07624

하나님말씀과기독문화선교 · (917)385-5021
HOLY BIBLE MISSION & THEOLOGY ETHICAL C.C.
57-20 226 St. Bayside NY 11364

한국기독교군인교인협회 ·· (718)463-1816
THE GREAT NY MILITANT EVAN. ASSO. OF KOREA
149-27 Roosevelt Ave. #6H Flushing NY 11354

한국대학생선교회 ..... (201)947-4145
K.C.C.C.
215 Main St. Fort Lee NJ 07024

한미복음선교회 ..... (718)445-0362
THE GOSPEL MISSION OF KOR.-AME.
36-29 164 St. Flushing NY 11358

한미선교센터 ..... (201)638-0627
GLORY CHRISTIAN MISSION ACADEMY CENTER
254 Fort Lee Rd. 2Fl. Leonia NJ 07605

한미해외선교회 ..... (718)423-5199
KOREAN OVERSEAS MISSION, INC.
P.O.Box 1042 Flushing NY 11355

한양기독교연구소 ..... (201)745-9811
HAHN BARCK
140 Main St. #211 Hackensack NJ 07601

한인기독교센터 ..... (201)461-4306
KOREAN CHRISTIAN CENTER
304 Main St. #203 Fort Lee NJ 07024

## 천목단체

뉴욕산악회 ..... (212)244-5997
NEW YORK ALPINE CLUB
11 W. 30 St. 4Fl New York NY 10001

뉴욕산우회 ..... (914)375-1022
KOREAN MOUNTAIN CLUB
289 Nepperhan Ave. 6Fl Yonkers NY 10701

뉴욕한인산악회 ..... (201)819-0006
NEW YORK KOREAN ALPINE CLUB
11 W. 30 St. 4Fl New York NY 10001

뉴욕OB축구회 ..... (718)793-8907
NEW YORK OB SOCCER ASSO.
54-39 100 St. #4Fl Corona NY 11368

동심산악회 ..... (917)670-8716
DONG SIM MOUNTAIN CLUB
43-15 45 St. 1Fl Sunnyside NY 11104

라이온스축구팀 ..... (718)886-3319
LIONS SOCCER TEAM
78-02 Woodside Ave. 1Fl. Elmhurst NY 11373

마에스트로영훈브랜합창세계본부 · (718)961-1578
MAESTRO MYUNG-WHUN CHUNG F.C
P.O.BOX 6316 New York NY 10116

무궁화산악회 ..... (718)729-3364
MUCUNGHWA MOUNTAINEERS
90-06 47 Ave.#4H Elmhurst NY 11373

미동부산악회 ..... (718)886-6521
EASTERN AMERICAN ALPINE CLUB
36-40 Bowne St. #5A Flushing NY 11354

우정사업직원회 ..... (201)556-8355
KOREAN POSTAL EMPLOYEE ASSO
545 8 St. Palisades Park NJ 07650

코모롭산악회 ..... (347)873-0873
SMG ALPINE CLUB
143-03 35Ave. 6SE Flushing NY 11354

US한국산악회 ..... (718)225-1219
THE US HAN KOOK MOUNTAIN CLUB
34-02 Brookside St. Little Neck NY 11363

## 기도원·수양관

가나기도원개인금식기도원 · (631)878-2256
CANA GI DO WON
152 Sania Ave. Center Moriches NY 11934

뉴저지한인기독학교 ···· (609)758-1177
NJ CHRISTIAN ACADEMY
73 Hoosier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동산기도원(계은장소그룹) · (631)395-0650
DONGSAN
222 Madison St. Mastic NY 11950

라마나욧기도원 ..... (973)697-4821
RAMAH NAJOTH PRAYER HOUSE
515 Mulspond Rd. Vernon NJ 07462

사무엘기도원 ..... (631)399-9191
MOUNT SINAI PRAYER HOUSE
160 Wading River Rd. Manorville NY 11949

실로암기도원 ..... (845)794-9653
SIL LO AM
299 Hunstons Mountain Rd. Rock Hill NY 12775

워터갭수양관 ..... (570)476-0010
WATER GAP RESORT
571 Main St. Delaware Water Gap PA 18327

은혜동문예배동산 ..... (203)972-0806
GRACE WORSHIP CENTER
205 Benedict Hill Rd. New Canaan CT 06840

크레스코수양관 ..... (570)839-2219
CRESCO CHRISTIAN RETREAT
HCR 1 BOX 2 Rt. 940 Mt. Pocono PA 18344

파인힐수양관 ..... (201)684-1000
PINE HILL RETREAT CENTER
RR#1 Box 656A Canadensis PA 18325

포레스트수양관(불립기도원) · (845)361-3383
FOREST HILL RETREAT CENTER
P.O.Box 221 Bullville NY 10915

포코노 베다니 수양관
Pocono Spring Manor Lodge
HCR 1 Box 1506 Pocono PA 18344
(570)839-4363, (570)839-2963
(570)839-7760(Fax) / (570)839-0501

아가페기도원
Agape
140 Daly Rd. E. Northport, NY 11731
(516)493-0240

## 학교/학원(한글학교)

갈릴리한글학교 ..... (732)442-4442
UNION KOREAN SCHOOL
52 Clyde Ave. Hopelawn NJ 08861

갈보리푸공화한글학교 (732)613-4930
CALVARY KOREAN SCHOOL
572 Fryders Lane. Brunswick NJ 08816

남부뉴저지한국학교 ..(609)751-0179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1578 N. Bechwood Park Dr. Cherynil NJ 08802

뉴욕베델부속한국학교 (718)796-5650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
3404 Bailey Ave. Bronx NY 10463

뉴욕브로드웨이한국학교(유은주소) (212)563-5763
NY BROADWAY KOREAN SCHOOL
330 E. 24th St. NY NY 10010

뉴욕웨체스터한국학교 (914)332-0447
NY WESTCHESTER KOREAN SCHOOL
242 N. Broadway Sleepy Hollow NY 10591

뉴욕정토회하나마한국학교 ....(718)706-0100
THE SAENARA KOREAN SCHOOL
43-01 37th Ave. L.I.C. NY 11104

피터팬유치원 ..... (718)639-5454
PETER PAN DAYCARE CENTER
40-38 78 St. Elmhurst NY 11373

뉴욕제일한국학교 .....(718)899-3120
THE FIRST KOREAN SCHOOL OF NY
37-60 61st St. Woodside NY 11377

뉴욕한국어교육원 .....(212)563-5763
NEWYORK KOREAN INSTITUTE
38 W. 32nd St. #1512 NY NY 10001

뉴욕한국학교 .....(646)638-4564
KOREAN SCHOOL OF NY
W 230 St & Tibbett Ave. Bronx NY 10463

뉴욕한길정로교회한글학교 ...(718)397-0155
HANKIL KOREAN SCHOOL
42-15 108th St. Corona NY 11368

뉴욕한인한글학교 .....(718)428-0959
THE HANMIN SCHOOL OF NY
216-50 26th Ave. Bayside NY 11360

뉴욕한빛교회 .....(718)760-2262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N.Y
88-21 Corona Ave. Elmhurst NY 11373

뉴욕한성장로교회 .....(718)539-4929
HAN-SUNG PRES. CHURCH IN NY
50-20 Broadway Woodside NY 11377

뉴저지한국학교 .....(201)568-9020
THE KOREAN SCHOOL OF NJ
P.O. Box 435 Sunset Lane Tenafly NJ 07670

뉴저지한소망학교 .....(201)801-9100
HOPE KOREAN SCHOOL
1190 River Rd. Teaneck NJ 07666

뉴저지한인장로교회한글학교 ..(201)944-5756
THE KOREAN LANGUAGE SCHOOL
50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헤이븐한국학교 .....(203)287-8110
THE NEW HAVEN KOREAN SCHOOL
42 Glen Parkway Rd. Hamden CT 06517

동양제일한국학교 .....(718)661-4484
DONGYANG FIRST KOREAN SCHOOL
53-43 97th Pl. Corona NY 11368

롱아일랜드연합한국학교 (718)631-9799
THE KOREAN SCHOOL OF SUFFOLK
P.O Box 124 Islip Terrace NY 11752

롱아일랜드한인교회한국학교 (516)367-3554
HAN MI KOREAN SCHOOL OF L.I
99 Campus Dr. Port Washington NY 11050

롱아일랜드한인교회한국학교 (516)775-0016
KOREAN LANGUAGE SCHOOL
91 Chester Ave. Garden City NY 11530

한국문화학교(후러싱제일교회) (718)939-8599
THE KOREAN CULTURE SCHOOL
38-24 149th St. Flushing NY 11354

한글나라 .....(718)445-6500
KOREA KOREAN
135-53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4

온테소리한국학교 .....(201)224-2619
MONTESSORI KOREAN SCHOOL
800 Palisades Ave. #704 Fort Lee NJ 07024

버팔로한국학교 .....(716)875-3323
THE BUFFALO LANGUAGE SCHOOL
955 Sheridan Dr. Tonawanda NY 14150

벅스카운티한국학교 ...(215)945-1512
BUCKS COUNTY KOREAN SCHOOL
1550 Wood 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베스트종합학원 .....(718)961-2220
BEST ACADEMY
41-08 163th St. Flushing NY 11358

베이사이드온테소리한국학교 .(718)762-6030
BAYSIDE MONTESSORI SCHOOL OF BAYSIDE
34-539 Francis Lewis Blvd. Bayside NY 11358

사랑침례교회한국학교 .(732)548-1838
SARANG KOREAN SCHOOL
224 Middlesex Ave. Metuchen NJ 08840

새생명한글학교 .....(201)368-2291
THE NEW LIFE KOREA SCHOOL
E. 242 Midian Ave. Paramus NJ 07652

새언약한국학교 .....(201)262-7775
THE NEW COVENANT KOREAN SCHOOL
648 Church St. Cradell NJ 07649

성갑대건한글학교 .....(201)703-8930
ENGLEWOOD SCHOOL
85 W. Demarest Ave. Englewood NJ 07631

성갑대건한글학교 .....(201)703-8131
SADDLE BROOK SCHOOL
585 Saddle Brook Saddle Brook NJ 07663

스태튼아일랜드무지개한글학교 (718)448-7273
THE RAINBOW KOREAN SCHOOL
1890 Forest Ave. S.I. NY 10303

스태튼아일랜드한인학교 (718)494-1760
THE KOREAN SCHOOL OF S.I.
225 Richmond Hill Rd. S.I. NY 10314

시라큐스한국학교 .....(315)474-8346
THE KOREAN SCHOOL OF SYRACUSE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써니싸이드한국학교 ...(718)729-0854
SUNNYSIDE KOREAN SCHOOL
41-05 45th St. Sunnyside NY 11104

아스토리아한인교회한국 (718)626-1276
KROEAN SCHOOL OF ASTORIA
30-44 Crescent St. L.I.C. NY 11102

한샘주말학원 .....(718)463-8745
HANSEM SATURDAY SCHOOL
25-33 154th St. Flushing NY 11354

허드존교회부속한글문화학교 ..(201)330-1416
THE KOREAN CULTURAL SCHOOL
2019 Wt. St. Union City NJ 07087

아콜라한국문화학교 ..(201)843-7970
ARCOLA KOREAN SCHOOL
5-52 Paramus Rd. Paramus NJ 07652

에디슨교회한국학교 ..(732)549-5998
KOREAN SCHOOL OF EDISON CHURCH
E. Colvert Ave. Edison NJ 07202

엘리자베스한국학교 ..(908)354-8488
KOREAN SCHOOL OF ELIZABETH
700 Bainnir Ave. Elizabeth NJ 07202

원광한국학교 .....(718)762-4103
THE KOR. SCHOOL OF WON KWANG
143-42 Cherry Ave. Flushing NY 11355

웨지기리빙타운 .....(718)229-6440
LORD SERVANT
35-22 Linden Pl. Flushing NY 11354

웨지기리빙타운 .....(718)445-6500
LORD SERVANT
35-22 Linden Pl. Flushing NY 11354

초대한국어학교 .....(718)639-3021
CHO DAE KOREAN SCHOOL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퀸즈장로교회부속한국학교 ..(718)886-4646
THE KOREAN SCHOOL OF QUEENS
143-17 Franklyn Ave. #307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한글학교 ..(718)672-115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89-60 23rd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퀸즈한인침주교회한글학교 ...(718)321-7676
ST. PAUL CHONG HA SANG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토모어린이문화학교 ...(718)961-4117
CHILDREN'S SATURDAY CULTURAL SCHOOL
40-11 149 Pl. Flushing NY 11354

펄리버한국학교 .....(201)664-3059
PEARL RIVER S. D. A. LANGUAGE
79 Mountain Ave. Westwood NJ 07675

평화한국학교 .....(201)796-7172
PEACE KOREAN SCHOOL
39-23 Fair Lawn Ave. Fair Lawn NJ 07410

포레스트한인장로한국학교 ...(718)263-3633
THE KOREAN SCHOOL OF FOREST
70-35 112nd St. Forest Hills NY 11375

프린스톤한인교회한글학교 ...(609)987-2322
PRINCETON KOREAN CHURCH
500 Plains Boro Rd. Plains Boro NJ 08536

G.E.M.아카데미 .....(516)935-8300
G.E.M. ACADEMY
6500 Jericho Tpke. Syosset NY 11791

YWCA한국학교 .....(718)353-4553
YWCA KOREAN SCHOOL
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언론사

### 교계언론

**63 Wmbc-TV**
Monocacy Broadcasting Corp.
99 James Road, West Caldwell, NJ 07006
(973)852-0300, (973)808-5516

**FM Korea**
135-7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353-0500

**Media Korean (Ch.73, Ch.512, Ch.261)**
3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313-4040 / (201)313-4641 (Fax)
(718)279-4737 / (718)279-4785 (fax)

**뉴욕일보**
The Korean New York Daily
45-22 162 St. 2 Fl. Flushing, NY 11358
(718) 939-0000 / (718) 939-0026(Fax)
email:design@newyork.freecom

**라디오 Korea**
Radio Seoul (AM 1060)
136-56 39 Ave., #400, Flushing, NY 11354
(718)358-9000, (718)762-8856

**미주기독교방송국 KCBN**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Inc
119 Madison Ave. #300, New York, NY 10016
(212)447-0700, (212)725-0100
아나운서 김은주 목사
제작 박기석 목사/김은주 목사
e-mail: kcbn@hotmail.com / www.kcbn.us

**미주코리아 TV(KTV)**
Korean TV
136-56 39 Ave., #400, Flushing, NY 11354
(718)359-3300, (718)359-3040

**중앙일보**
The Korean Central Daily News
45-56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937-8500 (718)937-8654
e-mail: ny.jga@joongangusa.com / nyeditor@joongangusa.com

**코리아채널**
Korean Channel 1 (Cable Ch. 76)
137-77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353-8070, (718)359-2067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New York
42-22 27 St.,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482-1111,(718)784-7201, (718)784-4500,
(718)784-9131, (718)426-5665
e-mail: kta@yahoo.com

**기독뉴스**
KidokNews.com Corp.
3-16 College Point Blvd. 2Fl. College Point, NY 11356
(917)880-0209 / (718)359-5230(Fax)
ny.kidoknews.com / www.kidoknews.com

**기독일보**
m.christ.com
P.O. Box 541136, Flushing, NY 11354
(718) 352-7014 (718) 228-9500 (718) 228-9506(f
phil@christ.com / danlynn@gmail.com
http://blog.christ.com

**기독지대(크리스찬 존)**
Christ.net
P.O. Box. 890 Sunnyside, NY 11104
(347) 558-1567
대표 김기남 목사

**뉴욕기독교 TV 방송국**
Korean Christian TV System of N.Y.
252-20 Northern Blvd. #202, Little Neck, NY 11362
(718) 224-8533
아나운서 김은주 목사
직원 백인석 집사
e-mail:kpark@hotmail.com

**뉴욕한방신문**
New York Prime News
P.O. Box. 890 Sunnyside, NY 11104
(347) 558-1503 newyorkcpt@gmail.com
발행인 김석진 목사

**미주기독교방송국**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Inc.
119 Madison Ave. #300 New York, NY 10016
(212)447-0700, 0701 (212)725-0100 (Fax)
www.kbcn.tv / e-mail: kbcn@hotmail.com
아나운서 김은주 목사 (718)779-1002/(917)685-4501
사 진 백석진 목사

**미주복음신문**
The Korean Gospel Mission Inc
8300 Tyco Rd, Vienna, VA 22182
(703)821-0070/0071 (703)821-0080(Fax)
대표 김기남 목사
e-mail: kgmission@hotmail.com

**미주크리스찬신문**
The Christian Press
3435 Wilshire Blvd. #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5947,5967 (718)886-4400 (718)886-0804 (Fax)
김현식 목사
e-mail: nychpress.net

**이랜넷**
ENAnews.com
42-35 150 St., Flushing, NY 11358
(917)868-0562
(718) 353-2994(Fax)
e-mail: enanews@gmail.com
www.enanews.net

**크리스찬 저널**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5150 N Ulster Ave., Chicago IL 60646
(773)877-7759
(773)877-0004(Fax)
대표 백승국 목사
e-mail: kcjbiz@yahoo.com

**크리스찬투데이 뉴욕지사**
Christian Today
89-08 168th Ave., Fresh Meadows, NY 11365
(917)868-0562

**크리스천헤럴드**
The Christian Herald
48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213)353-0777, (213)353-9779(Fax)
chTV.org
김대진 고문/목사

**크리스천헤럴드 뉴욕지사**
The Christian Herald
150-1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347) 558-1567 (718)353-0312(fax)
newyorkcpt@gmail.com
뉴욕지사장 김석진 목사

**교회넷**
www.churchus.net
1-718-690-6068
e-mail: churchus@gmail.com

**씨존**
www.czoneus.net
1-347-538-1587
e-mail: czoneus@gmail.com



## 편집후기



2007년 8월 초, "책을 지금 시작해도 만들 수 있겠느냐"는 33회기 회장 정수명 목사의 말에 "금년 1차 사업 목표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고, 8월 15일부터 어떻게 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뉴욕교협 역사서가 될 것인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중, 뉴욕교협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찾다가 한국 기독교사를 참고하여 개신교 한국 첫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사와 1902년 하와이 이민과 교회사, 그리고 뉴욕 이민과 교회사를 살피고, 1975년 교협의 태동과 그후 교협의 33년 역사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편찬위원장 김상모 목사, 회장 정수명 목사 및 편찬위원들이 여러 번의 모임을 갖고 목차를 정하였다.

나는 정해진 목차에 맞추어 자료, 문서 수집과 집필과 편집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33회기에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34회기로 이첩했으나 34회기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드디어 35회기 최창섭 목사에 이르러서야 35년사로 발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교협 35년사》를 발간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자료들이 없어 수집이 어려웠고, 문서 수집과 글들을 모으는 일들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부탁한 원고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의 진행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역사서 발간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나는 맡은 사명으로 알고 누가 뭐라 하든 꾸준히 내 할 일을 해왔다.

《교협 35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원고와 자료를 제공해 준 역대 회장들과 교역자들, 특히 적극적으로 후원 협조해 준 33회기 조명철 목사와 여러 차례 교정을 봐주신 김수웅 목사와 이재덕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준 교회들과 교협 이사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신 편찬위원장 김상모 목사, 감수위원 안창의 목사, 이병홍 목사, 35회기 회장 최창섭 목사와 임원들과 박향 간사와 임

# 편집후기

병남 목사,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앞장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유상열 목사와 이 책이 나오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수고해 준 유경희 간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사장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바라건대 이 《교협 35년사》를 통하여 역사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섭리와 비전을 알아,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협과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하며 편집후기에 대하고자 한다.

2009년 9월 1일

박이스라엘(상수) 목사

교협 35년사 편집장, 뉴욕승리교회 담임